

# 산

莊子를 만났을 때

산은 높이나 크기로 위협하지 않았다.  
산은 내게 오라고 손짓하지도 않았다.  
가까이 다가갔을 즈음 그저  
자리 하나 내어 줄 뿐.

나무도 산을 닮아 말하지 않았다.  
빛으로 짜 올린 하늘의 열이 높고도  
바람이 흔들려대면 그저  
묵음(默念)으로 사인을 뽐.

밤이 되자 산안개는 온 세상을 낮추었다.  
그 안개 사뿐히 밟고 장자(莊子)가 걸어들 때  
슬며시 무게를 내려놓고  
내 안으로 들어왔다. 산은인





2007

제10회 공무원 문예대전 수상작품집



- '제10회공무원문예대전' 발간에 즈음하여-

국가발전과 국민사랑으로 아름답게 승화되는 문학

세인들은 올해를 황금돼지해라고 합니다. 그런 황금처럼 빛나는 올해 '제10회 공무원문예대전'에서 탁월한 문학적 소질을 발휘하여 입상하신 수상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 중에서도 '한국문인협회'의 도움을 받아 뛰어난 작품만을 뽑아내어『수상작품집』으로 엮어내게 된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보다 활기차고 창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국민을 위해 힘껏 봉사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1998년부터 공무원문예대전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속담에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세월의 흐름을 따라 '공무원문예대전'도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여 지금은 한국 최고의 등용문이라는 신춘문예에도 뒤지지 않을 작품수준과 행사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금년에만도 시·시조·수필·단편소설·동시·동화·희곡 등 7개 부문에 걸쳐 총 4,660여점의 작품이 출품되어 대한민국 공무원의 문학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늠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훌륭한 공직자이면서도 문학의 大家





로 명성을 얻은 선조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문학은 개인의 인격수양을 위한 좋은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문학으로 갈고 닦여진 정제된 인품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해 나갈 때, 진정한 국민의 공직자로 거듭날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문학은 모든 학문의 기초이며, 인간의 정신을 한없이 맑고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기에 국민들의 의식수준의 꽃대가 되며, 한 국가의 문화국력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학을 사랑하고 갈고 닦는 이가 우리 공직사회에 많다는 것은 공직사회의 보이지 않는 자산이며,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의 문학적 소질은 개인적 자산을 넘어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원이 되기에 더욱 더 가치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문예대전을 통해 보여준 입상자 여러분의 뛰어난 재능과 창의력이 건강하고 창의적인 공직사회 구성과 대국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아름답게 발휘되기를 기대합니다.

문학을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주옥같은 작품들이 우리 공직자는 물론, 국민의 정서순화와 문학을 이해하는 귀중한 도서로 자리매김하여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등가는 문화대국이 될 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무원문예대전 10년을 맞이하여 많은 수작 중에서도 가장 으뜸으로 뽑힌 작품들만을 엮어 세상에 내놓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문학을 아끼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더 큰 발전과 영광이 있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07년 8월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 제10회 공무원문예대전에 부쳐 -

## 공무원의 창작실력이 돋보여

제10회 공무원 문예대전 심사 위원장을 맡고 입선작을 꼼꼼하게 살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시부문 응모작품 2천8백52편, 시조부문 3백22편, 수필 8백35편, 단편소설 1백48편, 동시3백80편, 동화 94편, 희곡 27편을 훑어보면서 느낀 것은 한마디로 응모작품 모두가 상당한 수준을 지니고 있다는 생각이었다.

응모자들의 신분은 공무원으로 국가의 공무를 담당하는 분들이지만 문학적 감각이나 표현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특히 교직에 종사하는 응모자들은 현역 문인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의 문학적 안목을 지니고 있음도 발견하게 되었다.

공무원 문예대전이 한국문인협회의 후원으로 이루어져 대상과 우수상 수상자들은 문인협회 회원으로 가입하는데 특전을 주는 것만 보아도 이 대회가 얼마나 소중한가 알만하다.

글은 곧 사람이란 말이 있듯 공무원들의 글 솜씨가 뛰





어나다는 것은 최고의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 공무원이란 증거가 가능  
하다. 인격이 훌륭하고 글 솜씨가 좋은 공무원들이 이 나라에 가득하다  
면 우리나라는 행복한 나라이고 훌륭한 공무원을 가진 나라로 평가될  
것이다.

좋은 글을 쓰는 공무원이 해마다 늘고, 국민의 어두운 곳, 그늘진 곳을  
찾아 인간성 회복을 위한 창작활동이 계속된다면 공무원 사회에도 큰  
변화가 올 것이란 기대를 갖는다.

문학의 힘이 우리의 몸에서 따뜻한 가슴을 갖게 만들고 쉬지 않고 피가  
돌게하는 상황으로 비교된다면 공무원 문예대전의 개최야말로 가장 훌  
륭한 사업이 아니겠는가? 이 사업의 발전이 해마다 크게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마음이 간절할 뿐이다.

2007년 8월

제10회 공무원 문예대전 심사위원장 성 기 조

(시인 · 한국문인협회 명예회장)

성기조

## 제 10회 공무원 문예대전 수상작품집

### 산, 장자(莊子)를 만났을 때

초판인쇄 | 2007년 7월 30일

초판발행 | 2007년 8월 13일

역은이 | 행정자치부(연금복지팀)

지은이 | 윤명진 외 56명

펴낸곳 | 에스제이 070-7011-7364

이책의 무단 전재 또는 복제 행위는 저작권법 제 98조에 의  
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  
나 이를 병과 할 수 있습니다.

2007  
제10회 공무원문예대전수상작품집

# 차 례

격려사 \_ 행정자치부장관 \_ 박명재  
축사 \_ 심사위원장 \_ 성기조  
심사총평 \_ 499

## 시 부 문

최우수상  
봄의 방화 \_ 태안 안면중 \_ 문영모 15

우수상  
겨울산행 \_ 교육인적자원부 \_ 한석수 17  
도원경, 복사꽃 그늘에 기대어 \_ 경북 경산시청 \_ 엄혜숙 19  
수국의 추억 \_ 前부산시 강서구보건소 \_ 김선자 21

장려상  
땅끝에서 \_ 파주 군내초교 \_ 박수호 23  
마장동에는 \_ 경기 포천시청 \_ 정우식 25  
벽계리 가는 길 \_ 여주자영농업고 \_ 공정희 27  
봄, 석포역에서 \_ 봉화 석포중 \_ 김현곤 29  
산에 들다 \_ 포항이동고 \_ 조재형 31  
습관에 관한 독설 \_ 경남 남해군 \_ 김현곤 33  
칼라브라운관 아내 \_ 문경 점촌고 \_ 권승철 35

## 시 조 부 문

대 상  
산, 장자(莊子)를 만났을 때 \_ 서천 장항중학교 \_ 윤명진 39



## 우 수 상

아버지의 양복점에서 \_ 前)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_ 방승길 41

아이와 장날 \_ 통영 한산초교 \_ 김명희 43

## 장 려 상

거문고 산조 \_ 서울 서원초교 \_ 박순영 45

그리운 초등학교 \_ 전북 남원고 \_ 전영주 47

담쟁이 앞에서 \_ 영등포구치소 \_ 노희석 49

사복역에서 \_ 경북도청 \_ 정영화 51

사월이 오면 \_ 前)대전지방철도청 \_ 배정태 53

## 수 필 부 문

## 최 우 수 상

섬진강에는 은어가 살까? \_ 당진 서정초교 \_ 박미영 57

## 우 수 상

무지개 \_ 문경 모전초교 \_ 노선하 63

숯 \_ 영천 영화초교 \_ 허효남 71

유산 \_ 대구 동구청 \_ 박태철 77

## 장 려 상

고인돌과 꽃 \_ 전북 대덕초교 \_ 정기상 83

까막눈 \_ 대구 남도초교 \_ 권소연 89

맹랑한 손님 \_ 대구광역시 교육연수원 \_ 최재운 95

술 빛는 어머니 \_ 청주교도소 \_ 최만호 101

초록빛 회전의자 \_ 남원 왕지초교 \_ 정문환 107

코뚜레 \_ 서울지방경찰청기동단 \_ 채중석 113

포옹 \_ 경산 신상초교 \_ 백금태 121

## 단편소설부문

|                           |     |
|---------------------------|-----|
| 최 우수 상                    |     |
| 시계속에 갇힌 남자 _ 부산 반송중 _ 최인근 | 129 |
| 우수 상                      |     |
| 겨울이 오는 시간 _ 경기 의정부시 _ 신성숙 | 151 |
| 담배꽃 _ 춘천교도소 _ 이숙희         | 175 |
| 장려상                       |     |
| 곱추의 꿈 _ 부산 해운대구 _ 이지은     | 197 |
| 비말 _ 경기 구리시 _ 김기정         | 221 |
| 어머니의 땅 _ 경기 고양시 _ 김갑식     | 239 |
| 어머니의 자리 _ 충북 증평군 _ 권영이    | 263 |
| 임플란트 _ 강원 태백시 _ 김은주       | 281 |
| 황사 _ 부산 서구 _ 박상식          | 305 |

## 동 시 부 문

|                            |     |
|----------------------------|-----|
| 최 우수 상                     |     |
| 할머니와 느티나무 _ 서울소방방재본부 _ 전세중 | 329 |
| 우수 상                       |     |
| 나무들의 말 _ 의정부 어룡초교 _ 안태현    | 331 |
| 새싹 _ 서천 송석초교 _ 김재욱         | 334 |
| 장려 상                       |     |
| 고향사계(여름) _ 서울 경일고 _ 조석래    | 335 |
| 벌초 _ 포항 구룡포초교 _ 김현욱        | 337 |
| 빨래개기 _ 대구 매천초교 _ 변정섭       | 339 |

## 동 화 부 문

|                        |     |
|------------------------|-----|
| 이 뽐던 날 _ 영양 입암초교 _ 김여선 | 341 |
| 잠꾸러기 씨앗 _ 전남 담양군 _ 강성남 | 343 |

|                        |     |
|------------------------|-----|
| 최 우 수 상                |     |
| 못생긴 돌멩이 _ 영암 도포중 _ 정재학 | 347 |

|                          |     |
|--------------------------|-----|
| 우 수 상                    |     |
| 미모사 _ 화순 동면초교 _ 천순덕      | 359 |
| 할머니와 어머니 _ 고양 가좌초교 _ 기은영 | 377 |

|                            |     |
|----------------------------|-----|
| 장 려 상                      |     |
| 까만 운동화 _ 부산 보림초교 _ 이혜숙     | 385 |
| 내 마음의 잠금장치 _ 대구 효동초교 _ 오영웅 | 397 |
| 비누방울 콩 _ 공주 주봉초교 _ 천효정     | 411 |
| 아빠의 집 _ 해남 동초교 _ 김경희       | 423 |
| 양동이 꽃 _ 포항 구룡포초교 _ 김현욱     | 433 |

## 희 곡 부 문

|                    |     |
|--------------------|-----|
| 최 우 수 상            |     |
| 진실 _ 부산 명진초교 _ 우혜선 | 447 |

|                     |     |
|---------------------|-----|
| 우 수 상               |     |
| 금빛레슬링 _ 농촌진흥청 _ 이장규 | 477 |

2 0 0 7

제10회 공무원 문예대전 수상작품집







## 시 부 분

최 우수 상

봄의 방화 \_ 문영모 \_ 15

우수 상

겨울산행 \_ 한석수 \_ 17

도원경, 복사꽃 그늘에 기대어 \_ 엄혜숙 \_ 19

수국의 추억 \_ 김선자 \_ 21

장 려 상

땅끝에서 \_ 박수호 \_ 23

마장동에는 \_ 정우식 \_ 25

벽계리 가는 길 \_ 공정희 \_ 27

봄, 석포역에서 \_ 김현곤 \_ 29

산에 들다 \_ 조재형 \_ 31

습관에 관한 독설 \_ 김현근 \_ 33

칼라브라운관 아내 \_ 권승철 \_ 35





최우수상

## 봄의 방화

그리고

도대체 질 것을 두려워 하지 않는

꽃처럼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랐다

지난 겨울의 음습한 기억들을 지우는 햇살

어디서 오는지 바람은 처음부터 보이지 않았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듯 꽃들이 피어났다

황사로 뿌연 창 밖을 내다보면 야근을 마치고

서둘러 회귀하는 안개의 군단, 주둔지엔

잠을 뺀 얹어놓은 꿈들이 비몽사몽이다

잠인가, 필시 꿈은 잠 속에 있고

끊임없이 두근거리며 잠자리를 어지럽히던 꿈들

몇 날의 얇은 앞들이 화르르 타오른다

한번 시작한 불길은 여간해서 잠을 수 없는 법

놀라워라, 짐짐마다 각오한 듯 몇 그루의

꽃나무를 기르고 있었으니, 발화지점에 서서

넋을 잃고 바라보는 처음의 시간, 아름다운 것들은

하나같이 매혹적인 향기를 풍기고 있었으니

어찌 질 것을 두려워하며 피는 꽃이 있겠는가

태안 안면중  
문영모





작년 봄에는 “이제 꽃들이 세상으로 돌아온다.”는 문장이 내내 나를 괴롭히더니,  
올 봄에는 대책 없이 피어나는 꽃들 때문에 내내 걱정스럽던 마음들,  
그 마음들을 툭툭 털고 “봄의 방화”를 썼습니다.  
해마다 봄이면 의문이 많지요.  
“꽃”들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무엇 하러 세상으로 돌아오는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려고 고집스럽게 그러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리고 있다가 무심히 어느 하루 저녁나절 속절없이 스러지고……  
부질없이 그런 생각을 하다가…… 나는 또 무엇 하러 이승에 와 이리 부산을 떨고 있는가?  
봄이면 아직도 그런 어리석은 의문이 많습니다.  
도대체 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피는 꽃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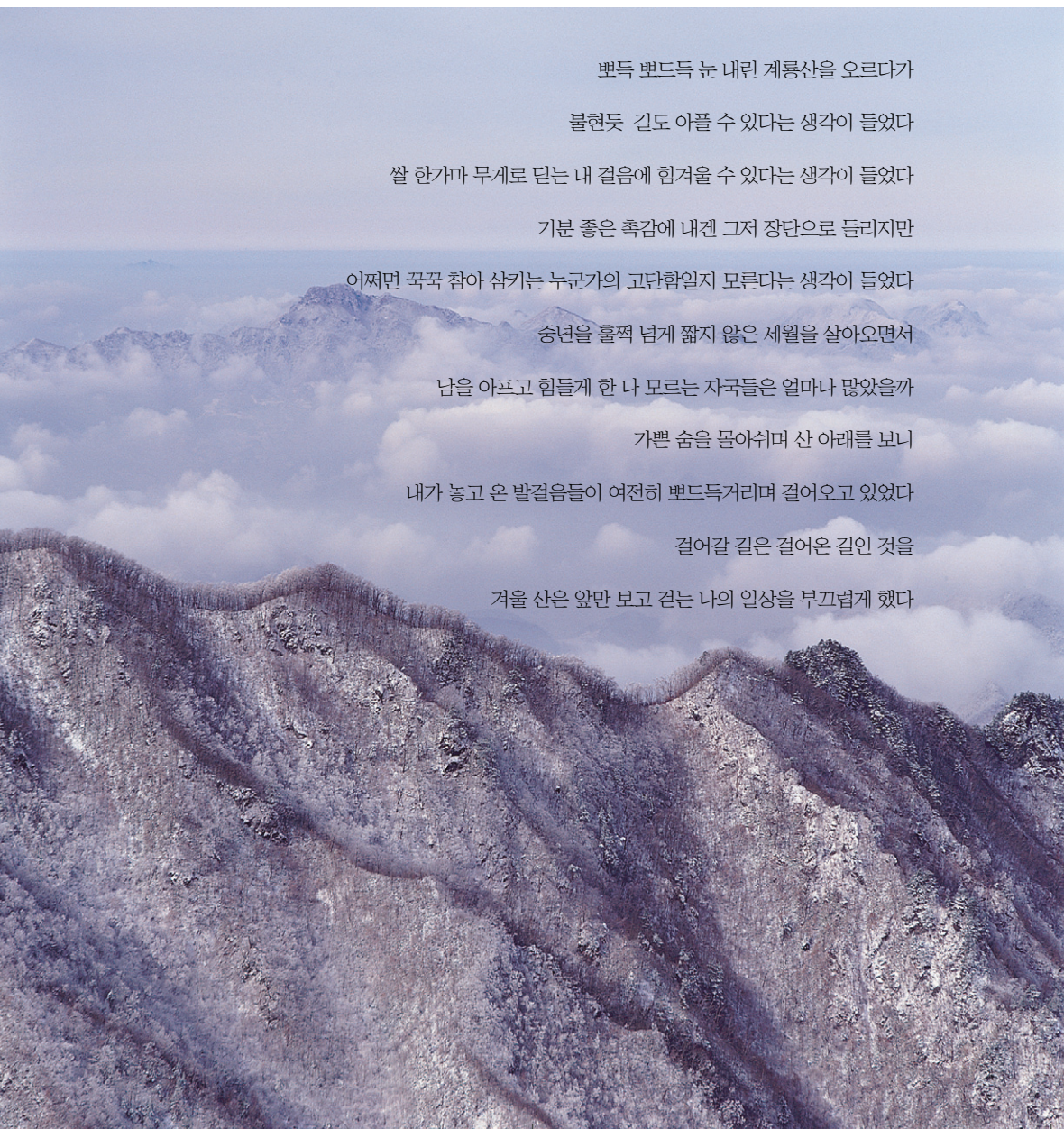


우수상

# 겨울산행

교육인적자원부  
한석수

뽕뚝 뽕뚝 눈 내린 계룡산을 오르다가  
불현듯 길도 아플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쌀 한가마 무게로 딛는 내 걸음에 힘겨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분 좋은 촉감에 내겐 그저 장단으로 들리지만  
어쩌면 꼭꼭 잡아 삼키는 누군가의 고단함인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중년을 훌쩍 넘게 젊지 않은 세월을 살아오면서  
남을 아프고 힘들게 한 나 모르는 자국들은 얼마나 많았을까  
가쁜 숨을 몰아쉬며 산 아래를 보니  
내가 놓고 온 발걸음들이 여전히 뽕뚝거리며 걸어오고 있었다  
걸어갈 길은 걸어온 길인 것을  
겨울 산은 앞만 보고 걷는 나의 일상을 부끄럽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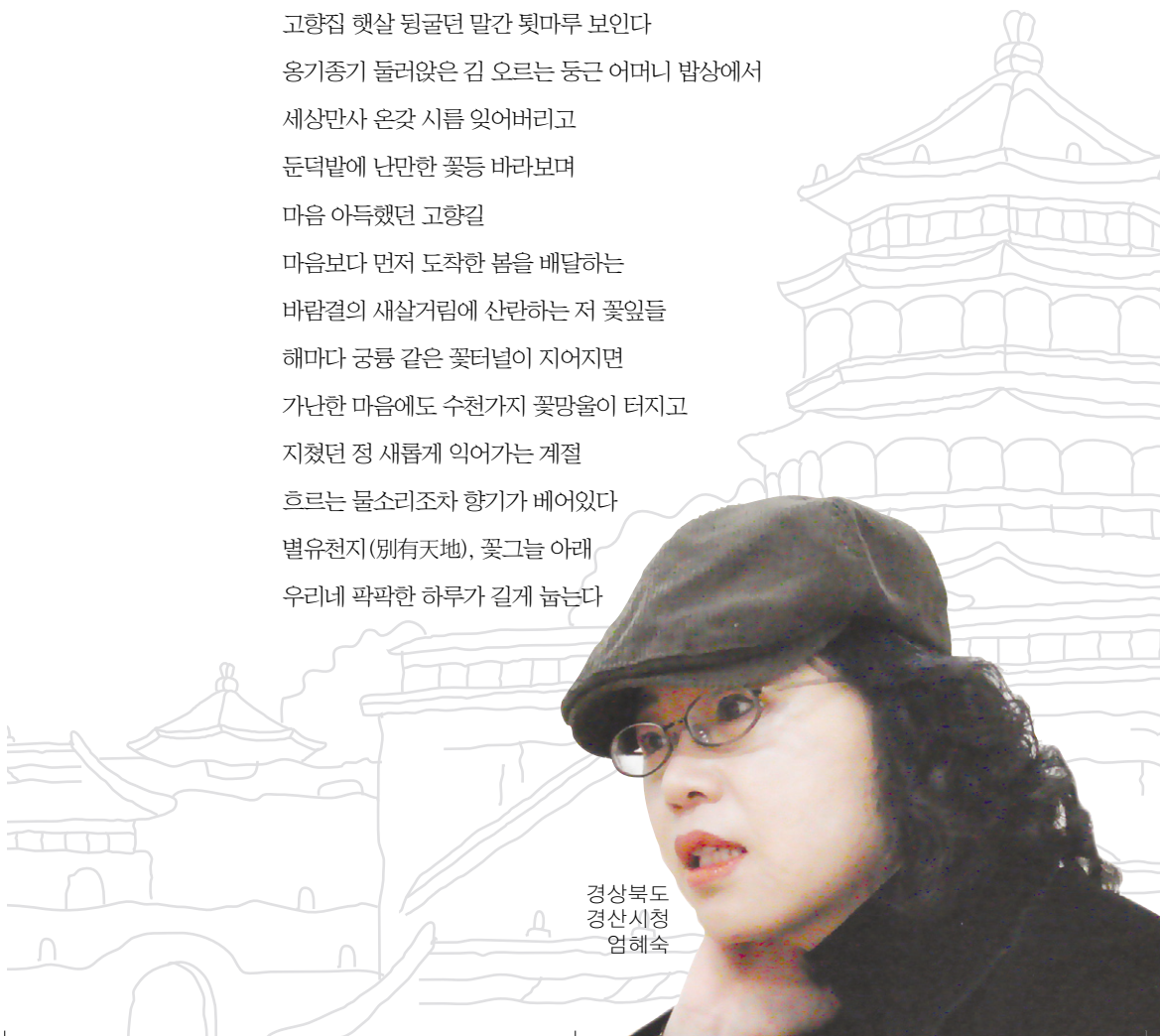


우수상

# 도원경, 복사꽃 그늘에 기대어

도원경, 복사꽃 그늘에 기대어  
박새 한 무리 영롱한 울음 떨구며  
저공비행을 하고 있다  
지금 경산 고을은 온통 꽃떨미 중이다  
남매지에서 유서(由緒) 깊은 자인방면  
긴 국도변은 연분홍빛 도원경이다  
하늘거리는 복사꽃 그늘에 서면  
고향집 햇살 뒹굴던 말간 뒷마루 보인다  
옹기종기 둘러앉은 김 오르는 둥근 어머니 밥상에서  
세상만사 온갖 시름 잊어버리고  
둔덕밭에 난만한 꽃등 바라보며  
마음 아득했던 고향길  
마음보다 먼저 도착한 봄을 배달하는  
바람결의 새살거림에 산란하는 저 꽃잎들  
해마다 궁궐 같은 꽃터널이 지어지면  
가난한 마음에도 수천가지 꽃망울이 터지고  
지쳤던 정 새롭게 익어가는 계절  
흐르는 물소리조차 향기가 배어있다  
별유천지(別有天地), 꽃그늘 아래  
우리네 짝짝한 하루가 길게 눕는다

경상북도  
경산시청  
엄혜숙







물을 머금은 풀이파리처럼 언제나 풋풋한 당선의 소식은 판도라의 상자 같은  
삶의 고단한 여정을 단 한번에 벅찬 전율로 씻어내리 듯 보상하며  
험난한 질곡도 헤쳐 나갈 뜨거운 열정을 충전해 준다.  
글이나 또 다른 어떤 목표를 향한 외로운 길도 그 성취감이 주는 희열이라는 것이  
휘청거리는 걸음을 다시 곧추 세워 나아가게 하는 힘의 원천이다.  
그래서 어떤 일이라도 즐겁게 빠질 수 있는 세계를 지니고 있음은  
가장 향기로운 삶의 창을 여는 열쇠가 아닐까 생각한다.  
일체(一切)가 유심조(有心造)라 했다.  
자기만의 도원경 속에서 지친 마음을 맑게 행구어 내어  
내 한 줄의 글이 우리네 가슴저변에 함께 흐르는 정한을 구체적이고 부드러운 색채로  
형상화 하여 지치고 힘든 우리 삶에 한 줄기 가난한 바람결이었으면 한다.

우수상

# 수국의 추억

비가 젖은 목소리로  
꽃을 깨우던 날

내가 꽃의 이름을 부르면

빗물을 가득 실은  
수십 개의 수국은  
화방 속 화경위에  
산방꽃 차례로 피어

여름을 데리고 성큼  
내 뜰로 들어선다.

추억을 묻혀 온

꽃을 헤집으면

눈물 같은 빗방울이 떨어져  
가슴에 질퍽거리며 젖어 든다.

나를  
수국을 닮았다고 말한  
별을 따라간  
그 추억의 목소리만  
꽃잎 속에 숨어있다.

어느 별이 되었을  
그의 향기를  
수국이 흐드러지게 핀  
여름의 뜰에서 만난다.

前)부산광역시  
강서구보건소  
김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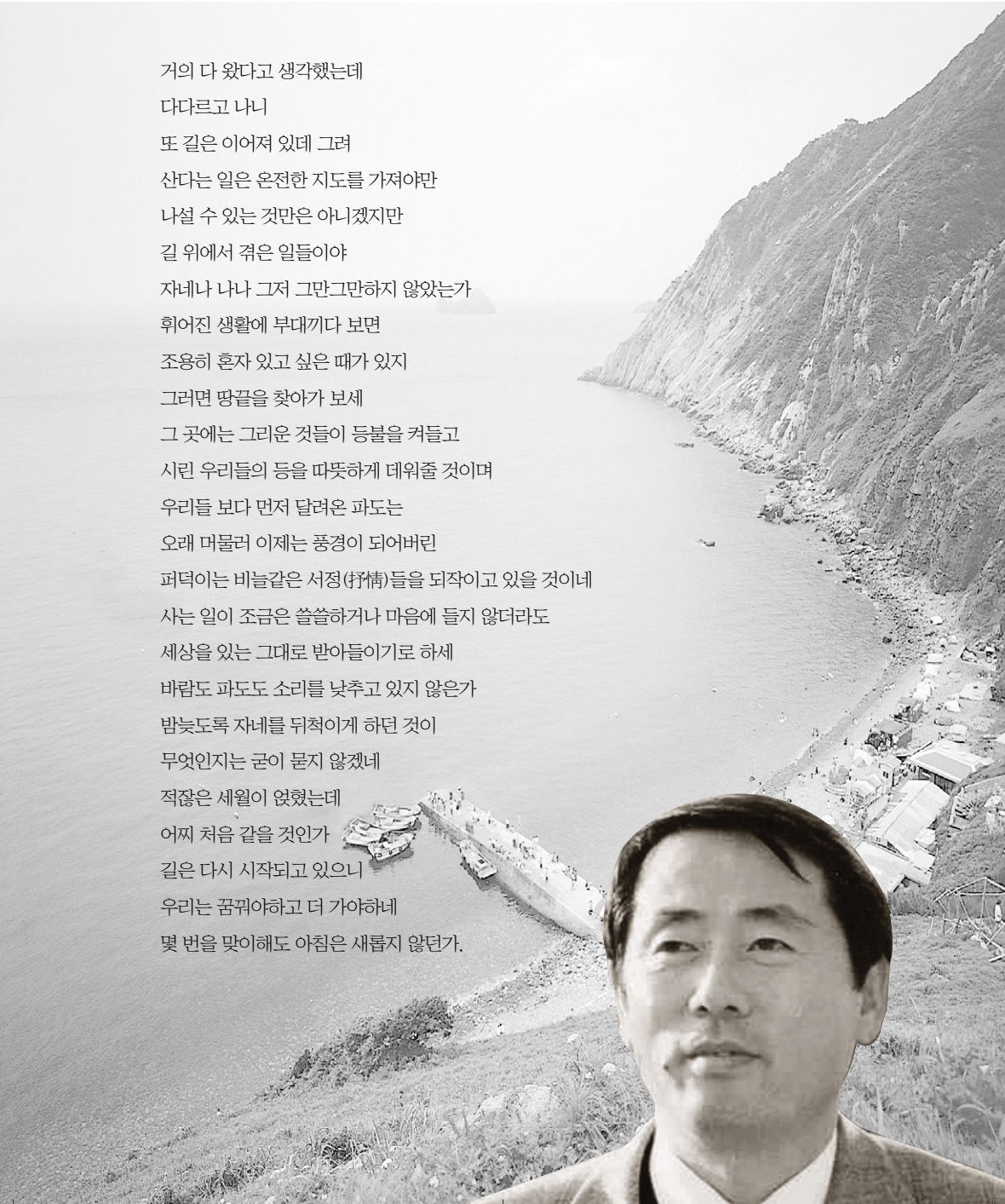


비 오는 어느 날  
사무실 뜰에 젖은 모습의 수국을 보며  
아주 옛날 소싯적 나를 수국을 닮았다고 말한  
지금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에  
더욱 가슴 아리는 추억의 사람이 떠올라  
수국과 함께 젖는 제 마음을 그려 보았습니다.  
왜 수국을 닮았다고 말하였는지를 지금도 알지 못하기에  
더욱 추억의 중심에 그 말이 자리하고 있기에  
눈물겹기도 하지요.  
수국은 장마가 시작되는 초여름에  
절 마당이나 허름한 돌담 집  
손질되지 않은 작은 뜰에서  
비에 젖은 모습으로 만나기에  
늘 가슴이 젖기도 합니다.

장려상

# 땅끝에서

파주 군내초교 \_ 박수호



거의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다다르고 나니  
또 길은 이어져 있데 그러  
산다는 일은 온전한 지도를 가져야만  
나설 수 있는 것만은 아니겠지만  
길 위에서 겪은 일들이야  
자네나 나나 그저 그만그만하지 않았는가  
휘어진 생활에 부대끼다 보면  
조용히 혼자 있고 싶은 때가 있지  
그러면 땅끝을 찾아가 보세  
그 곳에는 그리운 것들이 등불을 켜들고  
시린 우리들의 등을 따뜻하게 데워줄 것이며  
우리들 보다 먼저 달려온 파도는  
오래 머물러 이제는 풍경이 되어버린  
퍼덕이는 비늘같은 서정(抒情)들을 되작이고 있을 것이네  
사는 일이 조금은 쓸쓸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하세  
바람도 파도도 소리를 낮추고 있지 않은가  
밤늦도록 자네를 뒤척이게 하던 것이  
무엇인지는 굳이 묻지 않겠네  
적잖은 세월이 었었는데  
어찌 처음 같을 것인가  
길은 다시 시작되고 있으니  
우리는 꿈꿔야하고 더 가야하네  
몇 번을 맞이해도 아침은 새롭지 않던가.



### 들풀들 모여 도란거리는

서울에서 전철을 타고 인천으로 가다보면 중동역이 있다. 중동역 남부로 내려 모퉁이를 막 돌아가면 「땅끝마을」이 보인다. 그 곳은 그만그만한 사람들이 술 한 잔을 하며 직장에서 상했던 마음을 털어버리고 가기도 하고, 우리들과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가 두런두런 새어나오는 조그만 음식점이다. 사람들이 북적거리지도 않게, 그렇다고 한가하지도 않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곳은 참 포근하고 따뜻하다. 주인 부부의 마음 씬씀이가 푸근하고 눈길이 따뜻하다. 그리고 일하는 모습은 들풀들 모여 도란도란 거리는 것 같다. 아름답다. 그 울림을 전하고 싶었다. 그들의 고향이 해남이라고 한다.

장려상

# 마장동에는

마장동의 아침은

오토바이가 돼지기름에 미끄러지며 유연하게 열린다

해동으로 시작하는 자판

신선한 하루를 꼬챙이에 꿰어 걸어놓고

진열대에 내장을 차례로 꺼내어놓는다

새김질로 단련된 쌍갈 형님의 작업장에는

아스리와 같이 부비는 엿박자의 청량함이 울린다

황색 우의를 쇠탈처럼 뒤집어쓰고

우육 반토막을 들썹들썹 드는 베테랑들은

육 섞인 농 한 덩어리씩을 가뿐가뿐 함께 나른다

살찐 쥐들이 뒤뚱대는 뒷골목에는

곰창 찢는 빨간 고무장갑들이 늘어서 있고

소머리에 물호수를 꽃아박고 담배를 빨며

결결대는 웃음이 게걸스레 흐른다

돈 벌어서 사장 되어야 더러운거 안 본다고

호주로 골프치러 가야된다고

수입상들은 키로에 몇백원 흥정 한다 안한다 싸움이 한창이다

모두 살맛을 흥껏 팔고나는 한낮을 지나면

장사꾼들은 마른 바닥을 쓸며 다시 물을 뿌리고

비릿한 냄새를 푹푹 씻어내는 시늉으로 하루를 떼어내고

자판엔 선풍색 불빛이 스멀거리며

핏물 한 모금 빠진 몸 팔리느라 덩어리들 들썹댄다

마장동에는 진한 육즙이 흐르는

아침과 저녁을 내거는 사람들이 있다

경기도 포천시청  
정우식







공직에 들어오기 1년 전 겪었던 ‘마장동 우시장’에서 느낀 인간사의 단편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곳은 시장의 논리로 움직이는 치열한 삶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그곳 역시 진솔한 우리네 이웃의 모습이며 신의를 바탕으로 상조하는 내구성이 강한 사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험악한 말투들, 곳곳에 놓인 위험한 작업 현장들, 고된 하루를 겪는 마장동 사람들을 겪으면서 일생에 느껴보지 못한 삶의 치열함이 가져다주는 그 진솔함의 깊이를 느꼈습니다.

삶이 무척이나 자연스러운, 마치 수백년 전부터 그곳에는 시장이 있었던 것처럼 유연한 흐름이 느껴지는 그 안을 들여다보기는 그다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시장이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곳이고 누구에게나 공평한 법칙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속이기 때문에 그 법칙을 이해하지 못할 뿐, 그 속에 뛰어들어 이해하려하면 배움이나 경험이 없어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짧은 글 한편으로 많은 것을 표현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삶이 힘들고 고될 때 ‘아! 더 힘들었던 적이 있었지’ 하고 떠올릴 기억이 있는 것이 분명 효과가 있는 것을 느낍니다. ‘마장동’의 기억은 제게 삶의 치열함을 되새기고 삶을 복습하게 만드는 귀중한 경험으로 늘 거기에 있는 곳입니다.

장려상

# 벽계리 가는 길

고향집 대문이 노을 속에 빛난다.  
저물어 가는 것들의 빛깔은 곱기만 하다.  
세상에 잠시 깃들다 돌아가는 우리들의 저물녘도  
저리 곱게 물드는 것이라면 좋겠다.  
치매에 걸리신 아버지.  
그 곁에서 신경통을 앓으며 병 수발해 오신 늙은 엄마.  
초가을 햇볕 타닥타닥 꽃씨처럼 여물어 떨어지던 날  
아버지는 상여 타고 산에 가시고  
엄마는 빈 집처럼 벽계리에 홀로 남았다.  
불혹이 넘어 아버지는 나를 얻었고  
아직 인생의 알맹이를 낳지 못한 나는,  
불혹이 가까워지는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었다.  
어린 날 아버지 등 뒤에 앉아 자전거 타고 다니던 신작로에  
기을꽃들 다시 피어나 근심 없이 웃는데,  
기일(忌日) 저녁  
살아 계신 동안 곁에서 저 자주 웃어드리지 못한 죄를 삼키며  
괜찮다...괜찮다...  
바람결에 사운대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으며  
유품(遺品)처럼 낡은 포장도로를 따라 벽계리로 간다.



여주자영농업고  
공정희



벽계리(碧溪里)-.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다. 거기서 나는 自然과 情을 배웠다.  
열여섯에 떠나와 지금껏 객지로 흘러 다니며 내가 세상을 배우는 동안,  
벽계리는 갈 적마다 비워지고, 늙어갔다.  
고단하게 살다가 쓸쓸하게 저물어가는 이웃들의 모습을 보며, 사는 일의 덧없음을 배울 무렵, 아버지는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잃더니…… 기억의 집에 살던 시간들을 서서히 풀어놓으시더니…… 병상에서 존재의 마지막 물기 한 점까지 다 말리고는 늦가을 가랑잎처럼 바스르러지셨다.  
지난겨울, 고향 집이 헐리었다.  
이제는 산비탈에 누워서, 당신들의 청춘과 우리 육남매 유년의 추억이 살고 있는 벽계리를 품고 계신 아버지! 이번 방학에 뵈러 가면, 한번 또 싱긋 웃으시려나.  
“으응… 막내내! 많이 컸다, 허허하…….”

詩는…… 내 삶의 허방다리 같은 거다. 그래도 부디, 저물지 않는 미망(迷妄)이기를!

장려상

## 봄, 석포역에서

영동 제련소만 산업 역군이 되어  
홀로 너스레 떠는 이 밤에  
같이 밤을 지새우자 약속했던  
연등사 불빛은 어느새 꾸벅꾸벅 졸고 있다.  
00시 40분에 도착하는  
청량리행 무궁화호는 예고 없이 연착되고  
돌아보는 등 뒤로 웅크린 마을은 한 마리 짐승 같다.  
1번지 쪽 뺨은 골목길에는  
화려했던 청춘의 시간을 포기 못한  
술집과 다방이 깊은 어둠 속에 널브러져 있다.  
3월 석포는 아직 겨울이다.  
서울에선 산수유가 꽃망울을 터뜨리고  
대구에선 개나리가 가지개를 펴는데  
침묵하는 석포의 봄은 말이 없다.  
그러나 석포천은 흐르고 있다.  
백천 계곡의 어리고 착한 열목어가  
바다와 개울을 오갈 수 있도록  
강은 길을 열어 주고 있다.  
저 철길도 내게는 강이니  
백천으로 모전 회귀하는 열목어마냥  
나는 철길 따라 돌아가려나.  
이 밤 막차가 끊어질 때까지 30초 앞전구를 밝히며  
귀향하는 아들을 기다리기 위해  
늪으신 어머니가 아직 군불 지피는 곳  
나는 다시 어린 자식이 되어 돌아가려나.  
석포역 부근으로 서걱서걱 열음이 어는 시간  
열목어의 빨간 눈과 지느러미 같은  
눈과 손발 뜨겁게 비비며  
백천 찬 물길 아래로 기적소리 울리며 돌아오는  
청량리행 열차를 기다린다.

봉화 석모중  
김현곤



나는 동기보다 3년이나 늦게 교직에 들어왔고, 봉화 사립고등학교에서 평생을 다하리라 굳게 믿었다. 운이 있어서인지 농촌의 인구 감소로 남들이 오기 힘든 공립학교로 넘어왔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건 철저히 ‘자기’여야 한다는 것과 승진 분위기에 서 오는 스트레스였다. 그래서 첫 발령지에서 떠나올 때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벽지 학교인 이곳 석포중학교로 오게 되었다.

처음 올 때는 ‘봉화에서 14년을 살았는데 그까지껏 3년을 못 살아.’ 하는 마음이었다. 그러나 차츰 지나자 갑갑증에다 지독한 감기가 나를 괴롭혔다. 평소 비염이 있어서 고생하던 터라 감기가 두달이 지나도 낫지 않자 양손에다 백기를 들고 말았다. 사택이 개울 옆에 있어서 아침 저녁으로 들어오는 습기는 죽음의 기운만 같았다. 나는 완전히 방향 감각을 잃은 백천 계곡의 열목어가 되었다. 갑자기 어머니가 그리워졌다. 아내가 보고 싶었다. 그러나 돌아갈 수 없었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나를 지키는 일이었다. 절간 같은 정적이 감도는 저녁에 좋아하는 민요를 공부한다는 것은 분위기상 맞지 않았다. 어느 시인이 강조했던 창작에 앞서 명시를 베껴 쓰라는 말이 생각났다.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명시를 하나 둘 모으기 시작했다. 그러자 슬그머니 내 작품을 지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어둠에 물든 석포역과 주변 거리, 밤에도 쉬지 않고 가동되는 석포제련소, 외로운 연등사 불빛, 그리고 어머니와 열목어로 ‘봄, 석포역에서란 시를 짓게 되었다.

처음 지어본 시로 상을 받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 시간 있으면 직장 동료들과 학교 뒷밭을 일구고 시를 다듬는 일이 하루 일과처럼 되었다. 어느덧 시를 떠나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나를 거둬나게 해 준 열목어와 춘양목, 그리고 자연이란 위대한 어머니에 깊이 감사하고 싶다.



장려상

# 산에 들다

산 아래에서는  
수많은 계곡과 능선을 따라올라 간  
발자국들이 품은 사연을 알지 못했다  
그렇다, 산 밖에서는  
절대 숲이 보이지 않는다  
그 안에서, 얇은 바람에도 잠을 설치는  
산새들의 동지가 파리하게 떨고 있다는 것을  
쫓기듯 숨어서 산을 지키는  
작은 짐승들도 가끔 길을 잃는다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러나 산에 들어서면  
그 경계가 점차 흐려져  
새의 깃털 속에 숨겨진 따스한 온기와  
큰 바위도 이끼 속에서 숨을 쉰다는 것을

침묵으로 알게 되었다  
그날부터 산은  
가장 아늑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그리하여 나도 산이 되고 싶어졌다

포항이동고 \_ 조재형







경주에서 옛 서라벌의 산을 오르내리며 신라의 유적과 문화를 주제로 습작을 해왔습니다만, 소재 설정이 좀 다른 작품이 입상을 하게 되어 다소 뜻밖이었습니다.

현대를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연을 가까이하며 몸과 마음을 쉬고 싶어 합니다. 산(山)은 언제나 관대하게 침묵으로 그 품을 허락하며 모든 것을 안아주지요. 하지만 산에 들어서서 가만히 살펴보면 사람 사는 세상만큼 많은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자연은 우리보다 더 질서 있고 욕심 없이 순리에 따라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자연이 지닌 품성을 닮고 싶다는 생각에 ‘나도 산이 되고 싶다.’는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장려상

# 습관에 관한 독설

밤과 낮  
저! 흑백의 반복된 습관을  
바꾸기 위해 전등을 켜다  
익숙한 손길이  
마음의 스위치에 닿는 순간  
불은 오지 않고  
고장 난 생각들만 때로 몰려와  
스파크를 일으킨다  
달 별 구름, 혹은 비바람  
흑백에 개입하는 것들의 들쭉임이다  
서너 평 어둠으로 도배된 방  
색깔을 바꾸려는 일에 감론을박이 잤다  
하필 지금  
반짝,  
반짝이지 못하는  
고질병이 또 다른 고질병에게 시비를 건다  
그게 인생이라고 독설을 쏟아본다.

경상남도 남해군  
김현근





어느 날 시가 내게로 왔다.

공무수행 출장 중에 일어난 일이다. 몇 년 전 어떤 분이 사진 한 장을 달랑 들고 <어린이천사>를 찾아 왔다면서 내게 길을 물어왔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린 손자를 키우고 있는데 그 아이의 행동이 천사와 같아 남해도 방문길에 선물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당시 초행길에 딱 한 번 아이를 만난 것뿐이라 장소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그 분을 원하시는 장소까지 안내하였었다. 그 분은 고맙다면서 내게 시집 몇 권을 건네주었다.

비로소 내가 시를 아는 순간이었다.

이렇듯 시는 우연한 기회에 나를 찾아왔었다. 이후 나는 그 분을 <나무형>이라 부르며 많은 조언을 얻었다. <나무형>은 일찍이 유명일간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한 시인으로써 아프리카, 히말라야 등 세계 70여 나라를 여행한 경험 있는 필체로 2007년 초에는 남해도가 생긴 이래 최고의 칼라판 여행서인 <남해기행>을 출판하여 보물섬 남해도를 세상에 널리 알려주기도 하였다. 주옥같은 시편들이 틈틈이 들어있는 멋진 남해여행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길라잡이이다. 오늘 입상의 보람이 그 분에게 있음을 고백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린다. 위 <나무형>이 시의 존재를 알려주었다면 또 한 분 내게 시를 직접 지도해주신 분이 있다. <포엠토피아>의 이화는 선생님이시다. 그 분의 채찍질이 있었기에 시의 외피라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정말 고마운 두 분이다. 또한 직장에서 문학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하영제 군수님과 나와 함께 문예 활동을 해온 남해군청 은빛문학회원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싶다.

저의拙작 <습관에 관한 독설>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나쁜 습관의 고리를 끊어내는 일이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인생행로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장려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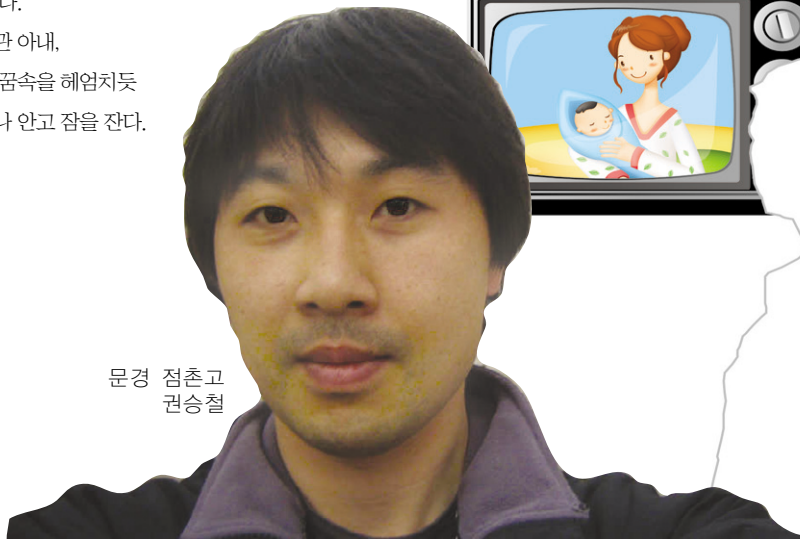
# 칼라브라운관 아내

아내가 잔다.  
햇살 같은 오월의 고단을 안고 잔다.  
33인치 불룩한 칼라 브라운관,  
가요무대에 어둠을 맡긴 채  
서른의 아내가 잔다.

십 몇 년 전 잘 지은 이름 하나 얻어  
‘名品’ 소릴 듣던 관록의 텔레비전,  
그 늙은 기관지의 발은기침 소릴 들으며  
둥글게 몸을 뒤척인 아내가  
잘 익은 수박 하얀 안고 누워 잠을 잔다.

삼월의 초록보다 흐릿하게 떨리는  
밝은 불안을 허리에 두른 아내,  
유행 지난 늙은 가수의 주름살 같은  
골 깊은 치마를 골라 입은 아내,  
평면이 미덕인 세상 따위는  
쓸모없는 옷걸이 마냥 방구석에 몰아 두고  
썹썹 콧노래 장단에 춤추듯 잔다.

이 밤에  
내 아내가 잔다.  
칼라 브라운관 아내,  
해마가 되어 꿈을 헤엄치듯  
브라운관 하나 안고 잠을 잔다.



문경 점촌고  
권승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시를 쓸 때 아내는 임신 8개월째였습니다. 고단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매일 한 시간 가까운 거리를 운전하며 출퇴근하는 아내가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고단함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려고 아내를 소재로 시를 쓴 것이 이 작품입니다. 아내를 위해 쓴 시가 오늘 다시금 저에게 큰 영광을 주었으니 또 다시 아내에게 감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 뱃속의 아이가 태어나 얼마 전 돌잔치를 했습니다. 아빠가 못다 이룬 꿈을 이루란 의미에서 민서(緡書)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조금씩 커가는 것을 보며 매일 매일을 깨달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특히 꼬맹이 키우는 것의 행복과 고단함을 함께 경험한 후 오늘날의 내가 있게 해준 나의 부모님, 형제자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잘 키워 주신 장인, 장모에 대한 고마움 등 가족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상의 영광은 세상의 가족이란 모든 이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고맙습니다. 형, 형수, 누나, 매형 고맙습니다. 장인, 장모 감사합니다. 처형 감사합니다. 우리 아내 신정아 사랑합니다. 나의 또 하나의 심장 민서야 커서 아빠 엄마 잘 모셔라.





## 시 조 부 분

### 대 상

산, 장자를 만났을 때 \_ 윤명진 \_ 39

### 우 수 상

아버지의 양복점에서 \_ 방승길 \_ 41

아이와 장날 \_ 김명희 \_ 43

### 장 려 상

거문고 산조 \_ 박순영 \_ 45

그리운 초등학교 \_ 전영주 \_ 47

담쟁이 앞에서 \_ 노희석 \_ 49

사북역에서 \_ 정영화 \_ 51

사월이 오면 \_ 배정태 \_ 53





대 상

# 산 과

## 장자(莊子)를 만나볼 때

산은 높이나 크기로 위협하지 않았었다.  
산은 내게 오라고 손짓하지도 않았었다.  
가까이 다가갔을 즈음 그 커  
자리 하나 내어 줄 뿐.

나무도 산을 닮아 말하지 않았었다.  
빛으로 짜 올린 하늘 기를 엮어 놓고도  
바람이 흔들려 대며, 그 커  
묵념(默念)으로 서있음을 뿐.

밤이 되자 산 안개는 온 세상을 낮추어섰다.  
그 안개 사뿐히 밟고 장자(莊子)가 걸어들 때  
슬며시 무게를 내려놓고  
내 안으로 들어왔다. 산은.

서천 장항중학교 이문영진





도시는 늘 아찔한 높이와 거대한 크기로 사람들을 위협한다. 항상 바쁘게 종종걸음을 치고 뭔가를 만들어내도록 강요한다. 도시는 또 만들어진 그 '무엇'들로 유혹하며 자신의 구조물 안의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안락함을 가장한다. 심지어는 경쟁하듯 치솟은 건물들이 자신의 눈높이보다 낮게 보이도록 창문에다 산을 그려놓은 뒤, 우쭐거리며 우리의 천성마저도 무시하고 잊게 한다. 아, 우리가 산을 제대로 본 적이 그 언제던가, 우리는 산이 말하는 것을 알거나 하는가, 사람과 산은 본래 태생이 같다는 것을 기억이나 하는가…….

시조에 관심을 갖고 고민해 온지도 어언 20여년이 지났다. 그 세월의 흐름과 함께 제법 많은 습작을 하였으며, 어떤 때는 그럴듯한 호평을 받은 적도 여러 번 있었다. 하지만 시조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것은 바로 이 작품을 쓰면서였으니 아이러니가 분명하다. 부끄럽게도 그동안의 세월만큼 자만심에 빠져 현학적 자세로 시조를 대해 왔음이 분명하다. 드러내지 않는 그 깊은 멋을 오묘한 사색의 구조로 빚어내셨던 선조들……, 이제라도 조금이나마 따라하게 되어 다행이라 위안해 본다.

묵묵히 지켜보며 늘 격려의 눈빛을 아끼지 않았던 아내에게 기쁨이 될 수 있어 기쁘다.

우수상

# 아버지의 양복점에서

끄슬린 양복점 간판 비스듬히 걸려 있는  
인기척 삭아 내린 슬레이트 낮은 지붕  
처마 밑, 재봉틀도 없이  
돋보기만 걸친 아버지

맞춤양복 짓는 솜씨로 빛났던 지난 시절  
가업을 대물림 앓는 아들이 서운해서  
가족사 맺힌 응어리를  
풀지 않고 가시더니

햇볕 좋은 이 가을 길 아들과 걷고 싶어  
양복점 옛 마당에 뉘트로 와 계셨나요

진열장 유리창문에  
얼비치는 아버지

또 찾아와 기웃대는 눈빛조차 벅찼을까  
헐어진 양복점 터 행한 마을 간이역 저 쪽  
지워진 철길 밖으로  
아버지 걸어가신다

前)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방송길



이런 시조 한 편 쓰는 것으로 아버지 생전에 불효했던 자식으로서 용서를 바랄 수 있을까  
가족의 '생존'을 위해서 역사의 격랑을 헤치며 한 몸 불살랐던 아버지 세대의 위대함을…….  
세월이 흐를수록 새삼 절감한다. 올해에도 그 횡한 마을에 가서 세월 저쪽으로 사라져간  
간이역의 가을길을 거닐며 아버지의 옛 양복점 자리를 먼발치로나마 둘러볼 것이다



우수상

# 아이와 장날

귀찮아 내치는 어머니의 목소리  
가시 같아 한 발짝 뒷걸음도 치지만  
나는야 목마타고 나는 한 마리 새이고 싶어

소풍날 손꼽아 기다리는 아이처럼  
신이난 발걸음이 어머니를 놓칠세라  
옷자락 끝 부여잡고 떨어질 줄 모른다

얼룩진 천막 그늘 밑 뉘 놓고 쳐다보던  
분홍색 주름치마 리본달린 머리방울

눈빛을 온통 해집고 날 저무는 장날 오후

해거름 들이치던 목마 할배 주름진 얼굴  
지금도 하얀 가슴 되비치는 그림자는  
혀끝에 버릴 수 없는 얘기로 남는다

통영 한산초교  
김명희





아이의 조막만한 손을 이끌고 장에 다녀왔다. 햇살아래 놓여진 갖가지 물건들이 여전히 내 눈을 사로잡았다. 그 옛날 장날만을 기다리던 어린아인 지금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장날이 되면 나는 때 묻은 천막 밑에 바람을 타고 춤을 추던 분홍색 원피스를 한없이 바라보았던 어린아이가 된다. 엄마는 내게 다음에 꼭 사주겠다고 달랬지만 다음은 또 다음을 기약했기에 쉽사리 발길을 옮길 수가 없었다. 뉘 놓고 바라보는 내가 안쓰러웠던 엄만 장에 가기 전에 날 떼어놓을 생각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먼 길을 우째 걸어 갈라꼬! 사람도 많아서 다니기가 보통 힘든 게 아이다. 엄마 혼자 다니기도 힘든데, 니까지 우짜라꼬? 고마 들어가 있어라.”

박봉의 월급을 손에 쥐고 인파속을 헤매며 좀 더 싼 물건을 찾아 장을 보았던 엄마의 마음을 어린 마음으로 어떻게 헤아릴 수 있었을까? 지금 내가 장날을 만끽하는 것은 순전히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그 때의 기억을 놓을 수가 없어서다.

그날 아들 녀석은 내 옷 끝을 부여잡고 목마할아버지 리어카에서 떠날 줄을 몰랐다. 할아버지는 아들을 덤석 안아 목마에 태웠다.

“걱정 말고 장 보고 오소!”

짤랑 짤랑 짤랑 ‘바둑이 방울’ 노랫소리에 맞춰 목마가 세차게 흔들거렸다. 녀석은 함박웃음을 지르며 “이리야”를 연신 외쳐댔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새날개짓을 하며 앞장서 뛰어 갔다. 등 뒤로 췌소리처럼 거친 주름이 깊게 패인 목마할아버지 얼굴위에 따사로운 햇살이 일렁거렸다. 아이가 그렇게 목마를 타고 싶은 건 순전히 새처럼 날고 싶은 마음이라는 걸 난 알고 있다.

“오늘은 엄마혼자 가야 돼”

딱 잘라 말해도 소용없다. 다른 건 몰라도 한 마리 새가 되고 싶은 아이가 어릴 적 분홍색 주름치마와 리본달린 머리방울을 갖고 싶었던 나와 참으로 닮았다. 이렇게 맛갈스런 추억이 있어 난 무지 행복하다.

장려상

# 거문고 산조

풍상(風霜)에 이울다  
통 울음 울던 가지

여명(黎明)을 띄워 놓고  
한 소리를 실어내니

여섯 길 비단자락에 천지(天地)가 묶였구나

천음(賤音)이 내민 손을  
백악지장(百樂之丈)이 마다할까

지그시 눈을 감고  
한 줄을 내리치니

물 차던 기러기발은 허공을 차는구나

술대 끝에 휘이휘이  
검은 날개 접어놓고

자는 듯 숨을 고르다  
학 울음을 타던 금(琴)아

이제금 다듬이 소리로 귀를 돌아 하나니

서울특별시 서원초교  
박순영





먼 출퇴근길에 언제부터인가 출근은 클래식으로 퇴근은 국악으로 마음을 정화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작품의 해설과 내가 느껴지는 감정이 일치를 볼 때는 무척 황홀한 기분을 맛 볼 수 있었습니다. 오월 어느 날 가야금 산조를 들으면서 순간 우리악기의 우수성과 또 그 것에 얹힌 사연들이 참으로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우리 것에 관한 글을 써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조에 가야금 선율을 올려놓고 싶었습니다. 먼저 가야금의 구조를 살펴보고 가야금 산조를 한번 들어 본 뒤에 시조 「가야금 산조」를 읽어 본다면 가야금 가락에 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장려상

# 그리운 초등학교

전라북도 남원고  
전영주

유년의 새를 찾아 신발을 고쳐 신고  
실핏줄 일렁이는 꿈길을 건너 찾아가자  
잡초로 포위된 성터 이팝나무 서 있다

철판에 박혀 있는 내 짝꿍 속눈썹  
신발장 끝에 걸린 고즈넉한 풍금소리  
유리창 깨진 틈 사이 고여 있는 순이 얼굴

열 굽이 하교 길에 옥수숫대도 씹었었지  
이제는 빈터에 서서 빛바랜 사진첩 속  
보고픈 목마른 채널 흔들리는 무지개 빛

녹슨 철봉을 잡고 세월을 턱걸이해도  
흘러간 터널 속에 뱅돌린 황량감이  
내 가슴 찻찻이 쌓여 아직도 가눌 길 없어



장려상

# 담쟁이 앞에서

쪽빛 풀어놓은 저 하늘 어디쯤에  
흰 구름 피고 지는 큰 경기가 펼쳐지나  
담벼락 기어 올라가 푸른 손을 내민다

바람이 스친 자리 물결치는 카드섹션

펼쳤다 접었다가 신나는 파도타기  
더덩실 어깨춤 인다, 날아갈 듯 사뿐히

영등포구치소  
노희석







저는 “빛은 모일수록 밝기를 더 하고 어둠은 모일수록 어둡기를 더한다.”는 말을 늘 하고  
다닙니다. 하지만, 세상의 어둠을 탓하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빛이 되면 그 어둠은 물러가버리기 때문이지요.  
꽃이 가벼움으로 피어나듯, 나의 삶은 가벼움을 찾아나선 비워내기입니다.  
짐을 많이 진 사람들은 남의 짐을 져주지 못합니다.  
오늘도 빈 지계를 지고 세상 언저리를 기웃거리는 나를 봅니다.

장려상

# 사북역에서

태백선 기적소리 안개처럼 감겨오면  
새벽을 데리고 온 폐광의 흔적들이  
역 광장 창백한 허리에 총알처럼 와 박히고

여인숙 졸고 있는 신작로 허리 넘어  
이 고장 훌쩍 벗은 속살들 웅기종기  
대합실 의자에 앉아 떠날 곳을 찾고 있다

주름진 지난날의 탄가루 털어내며  
꽃피던 한 때의 키들대던 별난 꿈도  
두고 온 된장단지의 곰팡이 꽃 전설처럼

막장 길 허파 씻던 막걸리 잔 떠나가듯  
그림자 앞서 가는 사북역 선로 위에  
비비추 꽃 한 송이로 별이 되어 울고 있다

경북도청  
정영화





장려상

# 사월이 오면

사월이오면 내 작은  
귓전을 때리는 소리  
겨울잠을 깨우던  
마산바닷가 치솟은 유혼(幽魂)  
사십여  
흐른 지금도 유황처럼 불꽃이타고

바위틈 몸 비트는  
뿌리들의 아픔처럼

사월은 꽃의 신호탄  
무리지어 오른다,  
역사와  
생명의 갈림길 흔 불을 피워낸 달

피멍든 줄기의 갈망  
아우성의 골짜기  
환호의 꽃 사월은  
얕은뱅이도 세울 듯이  
목마른  
절규의 가지에 붉게 타는 송이들

前)대전지방철도청  
배정태





1960년 이승만 정부의 장기집권을 위한 3.15 부정선거로 인한 전국 학생들의 대시위 운동, 특히 마산 앞바다에 떠오른 김주열의 참혹한 시신, 눈에 최루탄이 박힌 상태로 떠올라, 분노의 도화선이 되어 전국이 물 끓듯이 소요돌이치던 그날이 “4/19”, 결국 이로 인한 이승만의 하야, 무덤고 불안한 그해 7/29일 총선에 의한 제2공화국 탄생 민주주의 발전의 밑거름이 되다.



## 수필부분

최우수상

섬진강에는 은어가 살까? \_ 박미영 \_ 57

우수상

무지개 \_ 노선하 \_ 63

술 \_ 허효남 \_ 71

유산 \_ 박태칠 \_ 77

장려상

고인들과 꽃 \_ 정기상 \_ 83

까막눈 \_ 권소연 \_ 89

맹랑한 손님 \_ 최재운 \_ 95

술 빛는 어머니 \_ 최만호 \_ 101

초록빛 회전의자 \_ 정문환 \_ 107

코뚜레 \_ 채중석 \_ 113

포옹 \_ 백금태 \_ 121







최우수상

# 섬진강에는 은어가 살까?

‘이런 이런..... 이걸 아니잖아.’

갑자기 머릿속이 텅 비어버린 느낌이였다. 물결위에서 햇빛을 따라 싱그럽게  
튀어 오르며 반짝이는 은빛고기를 상상하고 왔었는데..... 곱상하고 요염하게  
반짝이는 모습으로 나를 맞아줄 줄 알았는데..... 저렇게 수족관에 갇힌 모습으  
로 자기들끼리 부딪혀 떨어진 비늘로 힘겨워하는 고기가 은어라고?

-본문중에서-



당진 서정초교  
박미영

## 섬진강에는 은어가 살까?

섬진강에는 정말 은어가 살까? 단지 그 이유만으로 찾았던 이정표였다. 아무생각 없이 떠오르는 궁금증과 부표처럼 흔들리는 삶의 어지럼증을 달래보려고 무작정 5시간이나 차를 몰아서 달렸던 어느 섬진강가.

벚꽃이 흐드러졌을법한 꽃길 사이사이 심은 붉은 배롱 꽃이 막 저가는 노을과 어우러졌을 무렵에서야 도착한 그 강 자락. 위치가 어디쯤인지도 얼마만큼 더 가야 내가 원하는 곳인지도 모르지만 노란 햇배를 파는 아줌마는 거기가 섬진강이란다. 한 낮 더위는 불가마 같은데 8월말에도 선을 보인 그 배는 무너리처럼 못난 모습이었다. 만팔로 태어나 하는 짓마저 늘 오죽잖은 이유가 첫 문을 열고 나오느라 못생겨서 그러하다는 변명처럼…….

어디 마땅하게 발붙일 곳이 없던 차에 배를 파는 아주머니의 호객도 반가웠다. 그날 또 운전하여 다시 돌아간다는 것도 겁이 났었는데 묵을 만한 곳부터 조언을 구하며 잠시 쉬는 척했다. 젊은 여자 혼자서 뭐라 여기까지 왔느냐는 정감 있는 핀잔 반, 호기심 반의 눈길과 대답은 쌍게사 쪽을 추천하여 준다. 차마 저 강물에 은어라는 물고기가 사느냐고 물어보지도 못하고 배 몇 개만을 봉지에 담았다. 제일 잘생긴 놈으로 고른다는 것이 고르고 보니 개중에 가장 큰놈이 선택 기준이었나 보다. 큰 것은 맛이 없다고 못생기고 야리야리한 빛깔의 것으로 몇 개 더 담아주

는 전라도의 아줌마. 그녀는 배의 선택기준이 맞이라는 것을 물어보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었을까?

사람을 선택하는 데는 어떤 기준이 가장 현명할까? 무작정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선택한다. 하지만 호감을 가지고 첫눈에 좋아 보인 사람은 다 착하고 다 괜찮아 보인다. 한 가지가 좋으면 나머지도 다 좋을 것이라는 확증편향이 그대로 사람의 눈에 편견과 선입견을 씌우는 것이다. 일명 콩깍지라고 하는…… 사실 ‘착하다’라던가, ‘좋다’라는 개념은 양적인 개념이 아니어서 수량화시킬 수가 없다.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숫자로 어떤 사람은 얼마만큼 착한지 척도표를 만들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희망사항일 뿐이다.

그래서 착한 사람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개인적 욕망이 덧씌워진 잣대로 사람을 판단한다. 그래서 실제로 ‘착하다’ 혹은 ‘악하다’라는 기준은 현실적인 분류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 결국 강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될 때가 많다. 사회의 악과 개인의 선이 만나도 이기는 쪽은 늘 강한 사람이다. 아니 그런 경우가 아니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착하면서 무능력한 사람은 욕하는 사람이 더 나쁘게 치부될 때가 많다.

배를 고를 때처럼 맛있는지 없는지는 먹어봐야 아는 것인데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어도 한번 먹어보고 버릴 수가 없다. 더구나 심성은 착한데 사회적인 부적응아들은 꼭 ‘덜 떨어진 배 꼭지처럼 다른 배까지 상하게 한다. 혼자서만 명들고 혼자서만 생채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도 거친 꼭지는 옆의 배를 이미 찌르고 있다. 과수원에서야 배를 따자마자 꼭지부터 다듬지만 사람의 꼭지는 무엇으로 다듬을까? 주변 사람들에게 가시가 되고,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그 거칠고 아픈 꼭지를…… 문득 이 배를 파는 아줌마에게 사람은 어떻게 고르

는 것이 좋겠냐고 묻고 싶어진다.

굽이굽이 돌아서 들어가는 길. 쌍계사로 가는 길목에는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숲으로 스멀건하게 스며드는 어둠을 따라서 마음도 고즈넉하게 싸늘해진다. 여름휴가 시즌이 끝난 계곡에는 그래도 떠들떠들 사람들이 모여앉아 술도 기울이고 안주도 나눈다. 계곡 가까운 곳에 숙소를 정하고 그 아래 식당에서 산채비빔밥을 시켰다. 어디를 가도 산채비빔밥에 들어가는 도라지며 취, 호박, 머위, 고사리 등의 나물과 고추장 올리고, 참기름 몇 방울 얹어주는 것은 똑같다. 그러니 맛도 그다지 차이가 안 난다. 내 배가 고프면 더 맛나게 느껴지고, 내 배가 채워진 상태라면 꼬투리 잡을 일이 참 많아질 뿐이다. 그런데 참 맛있다. 계란프라이 노른자 깨뜨려서 쓱쓱 비벼 한 그릇을 다 비운다.

그런데 아까부터 자꾸 눈앞에 알랑거리는 식당 수족관의 물고기가 보인다. 밥을 먹고 나니 더 크게 내 눈 안으로 들어와 거들먹거리듯 유영을 한다. 손바닥 길이보다 약간 길면서 알팍하게 생긴 회색빛 고기다. 회를 뜨면 몇 점이나 나올까? 바닷가에서 산 내 눈대중은 이미 그 볼품 없는 물고기를 머릿속에서 빼를 발라내고 있었다. 속속들이 해부하고 회를 쳐봐도 여남은 점이나 제대로 나올까. 회쳐낸 고기를 끓인다해도 맛조차 설 것 같은 설마 저렇게 압삽하게 생긴 고기를 은어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 하는 의구심과 함께.

“아주머니! 저 물고기 이름이 뭐예요?”

나와서 계산을 하며 물었다. 근데 심드렁하게 은어라고 대답하는 주인 아주머니의 반응에 하마터면 거슬러주는 잔돈을 놓칠 뻔했다. 나는 그 은어를 보기 위해서 5시간이나 달려왔는데 동네에 흔한 피라미를 얘기하듯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는 모습이 뜨악해서였다.

‘이런 이런…… 이진 아니잖아.’

갑자기 머릿속이 텅 비어버린 느낌이었다. 물결위에서 햇빛을 따라 싱그럽게 튀어 오르며 반짝이는 은빛고기를 상상하고 왔었는데…… 곱상하고 요염하게 반짝이는 모습으로 나를 맞아줄 줄 알았는데…… 저렇게 수족관에 갇힌 모습으로 자기들끼리 부딪혀 떨어진 비늘로 힘겨워하는 고기가 은어라고? 이진 어디선가부터 잘못 되었다. 어긋나 있어도 한참이나 비껴선 것이다. 상쾌하고 부드럽게 마알간 은빛고기를 생각하며 왔었는데…….

힘없이 숙소로 돌아와 씻지도 못하고 누웠다. 밤이 깊어갈 수록 어디선가 찰박찰박 계곡물 흐르는 소리가 들린다. 차르르차르르 계곡의 돌들이 서로 부딪히며 흐르기도 한다. 큰 돌멩이 사이에 작은 자갈돌들이 사이사이 끼어들고 그 사이로 물살이 갈라지며 나는 소리다. 가만히 듣고만 있어도 여러 악기들이 어울려내는 교향악처럼 차분하고 편안하게 흐른다. 그래서 직접 더 가까이 나가서 듣고 싶어 문을 열고 나간다. 그런데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다. 계곡은 한참이나 먼데 가깝다는데 심상이 느꼈던 소리일 뿐이었다. 결국 스스로에게 또 한번 속았다는 사실만이 쓴 웃음으로 돌아온다.

사랑은 누가 했던걸까? 나 혼자서 스스로의 잣대로 혼자서 판단 다 내려놓고 그 사랑과 사랑을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사람하고의 사랑도 어렵다. 그런데 사랑이란 놈하고 사랑을 하겠다고 나섰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리고 여러 번 속았던 사실만 억울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결국 계곡의 물소리도 섬진강의 은어도 내 마음에 보이고 들리는 대로 믿지 않았던가?

사람에 대한 기준도 사람에 대한 판단도 다 내 멋대로였다. 난 마치

그리스로마신화의 프로크루스테스처럼 내 침대에 맞지 않으면 줄이거나  
늘여서 결국 상대방을 죽이려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결국 돌아가기로 마음먹고 다시 잠을 쟁긴다. 원효 대사의 해골물 고  
사 같은 깨달음은 아니더라도 큰 수확이다. 섬진강에는 더 이상 은어가  
살지 않는다. 만약 누군가 거짓말이라고 시비를 건다면 ‘이미 알을 낳고  
바닷가로 다 떠났다.’고 말하리라 혼자서 중얼거려본다. 사랑이 텅없다  
말한다면 ‘네 마음이 텅없는 것이다.’라 말해주리라 또 계속 중얼거린다.

돌아오는 길. 씨실과 날실처럼 사박사박하게 촘촘한 어둠 속으로 유영  
하듯 내 몸뚱이가 빛나며 헤엄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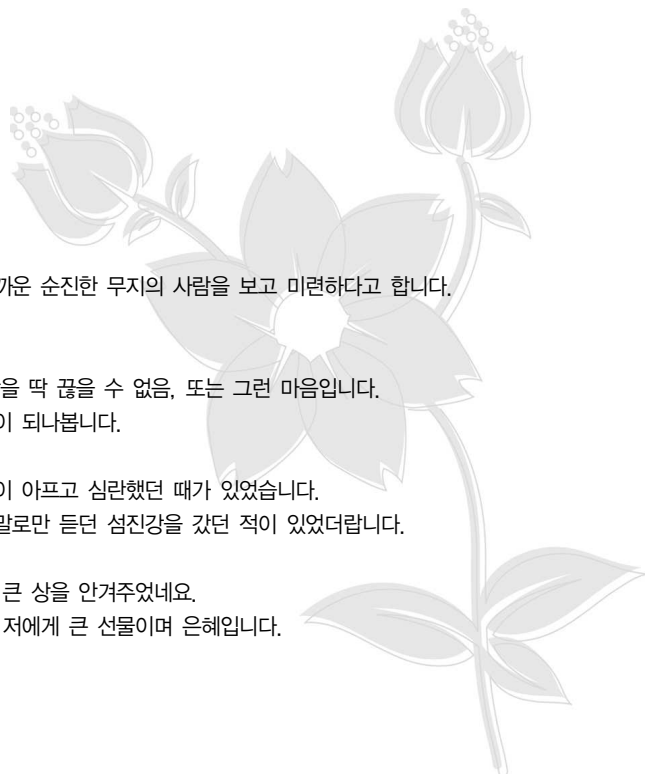
‘미련하다’라는 말은 욕입니다.

좀 바보스럽고 어눌하고 고집이 가까운 순진한 무지의 사람을 보고 미련하다고 합니다.  
좀 어리석고 둔하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미련을 갖다’라는 것은 생각을 딱 끊을 수 없음, 또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미련을 가지면 미련한 사람이 되나봅니다.

한때 한사람에 대한 미련때문에 많이 아프고 심란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무작정 어디론가 떠나가고 싶을때 말로만 듣던 섬진강을 갔던 적이 있었더랍니다.

그 추억이 뜻밖의 행운으로 저에게 큰 상을 안겨주었네요.  
아직도 미련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 저에게 큰 선물이며 은혜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우수상

# 무지개

“이건 이쪽으로”

아들 녀석의 그림이었다. 잘 못 그린 그림들이  
가는 쪽으로 밀려났다.

그림도 아들 녀석만큼이나 얼어 붙은 채 저쪽으  
로 등떠밀려 나갔다.

가슴이 아렸다. 하지만 그 심사위원의 눈은 정확  
했기에 난 털썩 내려앉는 내 맘을 안 들키려고  
그림에서 얼른 눈길을 거두었다.

-본문중에서-



문경 모전초교  
노선하



## 무지개

중학생 아들 녀석 때문에 주말이 또 한 차례 시끄러웠다. 거실 가득 어지럽게 놓인 녀석의 책을 정리하다 발견된 수학 쪽지 시험지 한 장이 진양지였다. 다섯 문제 중 한 문제만 동그라미가 쳐있었고 네 문제에는 붉은 색연필로 사선이 짹 짹 그어져있었다. 그 빨간 사선이 내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다.

지난 해 아이의 낮은 성적을 알고 있었지만 그 동안 과외도 빠짐없이 나가고 제법 잘 하는 양 보였기에 붉은 그 사선은 믿기 어려웠다. 아니 믿기 싫었다. 이 결과보다 이 결과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 아이를 불렀다.

“아, 정휘. 이리와 봐.”

감정을 누르려고 애썼지만 목소리는 벌써 평상심을 잃었기에 남편은 눈치를 채고 낮은 목소리로 뭐라 한다.

“너무 뭐라 하지마라.”

제 방에 있던 정휘는 영문도 모른 채 내 앞에 섰다.

“이게 뭐야?”

“아, 이거. 쪽지 시험쳤는데…….”

정휘는 수학이 초등학교 때부터 약했다. 아니 돌이켜 생각해보면 입학 전부터 유난히 숫자에 약했던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뭔가 뚜렷

이 대책을 세워주지 못 했고 이렇게 시간만 흘러 아이는 이런 시험지를 받아오게 되었다. 어찌할 줄 모르는 아이를 보니 아이를 제 때 잘 돌보지 못 한 나 자신이 그 아이 위에 오버랩 되며 감정이 주체할 수 없이 터져버렸다. 사내 녀석임에도 속상한지 몇 마디 묻거나 하지도 않았는데 눈물을 보이고 말았다. 그 광경에 남편은 남편대로 상한 감정이 드러났고 우리 거실은 순식간에 서로의 색깔 다른 감정이 해일되어 폭풍우 치는 해변이 되었다.

난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덮어둔 녀석의 학습 태도가 맘에 안 들어 지적하고 싶었고, 그 동안 내게 실력이 나아진 것처럼 전한 얘기들의 진실을 밝히며 앞으로 나갈 방향을 잡고 싶었는데 남편은 내 감정만 아이에게 드러내는 웅졸한 어미로 치부하며 아이 앞에서 내 말을 끊어버리려고만 하였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생각을 다 전하지도 못 하고 아이는 제 방으로 나는 우리 방으로 들어갔고 남편은 거실에서 공연히 하던 일에 짜증을 부리게 되었다. 우린 모두 감정의 해일에 밀려 시험지의 붉은 사선처럼 가슴 속에 깊은 생채기가 생기고 말았다.

왜 이럴까?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못 하고 성적이 떨어지기만 할까? 내 교실에서 만나는 아이들은 하나같이 푼방푼방 잘 하던데 내 아이는 왜…….

최선생님 딸아이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고 있고, 김선생님 아들은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즐겁게 공부하며 전교 10등 안에 늘 든다하고, 윤선생님 딸은 지난 3월 장학생으로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게다가 이름도 생소한 여고 동기의 아들은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던 제 엄마와 달리 영재교육을 받으러 안동대학이며 교육청으로 다니고 있다는데 우

리 아이는 왜......

이제 중학교 2학년이고 곧 고등학교 진학을 해야 할 텐데 공부 잘 하는 아이들이 간다고 하는 그 고등학교에는 원서라도 낼 수 있을까? 이렇게 하다가 직업인들 번듯한 것을 구할 수나 있을까? 깜깜해졌다. 답도 없이 마음만 조금해져 흡사 번호를 암만 눌러도 맞는 번호를 못 눌러 전화를 몇 번이고 다시 걸지만 그럴 때마다 번호를 잘 못 눌러 그대로 가워 놀리는 꿈속에서 처럼 간장이 오그라들며 진저리 쳐진다.

며칠 뒤 과학 상상화 그림 그리기 대회 심사를 하러 갔다. 5학년인 작은 아들 녀석은 저희 학교 대표로 대회에 참가하러 가게 되었다. 얼마 전부터 그림을 그리고 준비를 하였다. 우주 공간에 인간이 살게 되는 상황을 상상하여 이런 저런 것을 나타내는 걸로 가닥을 잡고 준비를 하였다.

대회 날 나는 심사위원 중 한 명으로 작은 녀석은 참가자 중 한 명으로 대회 장소에서 만났다. 물론 심사위원장으로부터 이 사실에 대해 양해를 구해두었기에 무리는 없었다.

‘ET라는 영화 속에서는 외계인과 대화도 하고 자전거를 타고 하늘을 오르기도 한다. 외계인과 어떻게 대화를 할지 그리고 지구의 중력을 어떻게 이기고 나아갈지에 대하여 과학적 원리와 탐구 과정이 나타나게 그림으로 표현해보시오.’

문제가 주어졌다. 나는 표시나지 않게 아이의 표정을 살폈다.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였다. 그렇지 않아도 소심하고 주눅이 잘 드는 성격인데 이런 엄숙하고 통제된 분위기에 압도당했는지 작은 어깨가 더 좁아졌고 까무잡잡한 얼굴에선 불안한 시선이 갈 곳 몰라 하였다.

다들 잠시 생각을 하더니 시원스레 속속 스케치를 해나가는데 아들 녀석은 여태 고민을 하고 있다. 뒤늦게 연필을 꺼내 스케치를 하는데 연습해온 구도며 건물들은 다 어디가고 앞에 앉은 아이가 그린 인공위성 비슷한 뭔가를 조심조심 그려 넣고 있었다. 이진 아닌데…….

아이들 사이를 한 바퀴 둘러보며 이런 저런 안내하고 난 뒤 다시 본 아들 녀석의 도화지 위에는 아까 그리던 인공위성 마저 온 데 간 데 없고 지우개 가루만 쌓여 도화지는 더 넓어진 듯 하였다. 그 도화지 위에 놓인 녀석의 시선은 불안하게 떨렸다.

맘 같아서는 옆에 가서 뭔가 한 마디 말이라도 거들고 싶었지만 심사위원의 본분은 그것이 아니기에 차라리 내 눈길을 창 밖으로 돌리고 말았다.

조금은 나아졌을까? 기대를 하며 돌아본 아들 녀석의 그림은 구도도 잡히지 않았고 조금 찌그러진 인공위성이 불안하게 떠있었다. 그 밑엔 녀석만큼 작은 체구의 소년이 더 작은 ET를 뒤에 태우고 엉성하고 작은 자전거를 탄 채 슬픈 듯 외롭게 웃으며 하늘을 날고 있었다. 하늘같이 얇은 그저 허허로운 허공에 떠있었다. 다른 아이들의 그림에는 인공위성이 이리 저리 날아다니고 외계인과 즐겁게 얘기 나누는 아이들이 씩씩하게 뛰어다녔고, 중력을 밀어내는 특수 우주복과 우주선이形形色색 펼쳐지는데 아들 녀석의 그림은 더욱 황량했다.

대회를 마치고 그림을 모아 심사하러 이층에 가면서 아들 녀석을 만났다.

“왜 그렇게 작게 그렸어? 크게 좀 그리지. 그리고 집에서 그리던 것처럼 해도 됐는데 왜 안 했어?”

3시간 동안 불안과 떨림에 시달린 아이를 보자마자 나는 마치 내 불

안을 보상받으려는 듯 내 불만만 늘어놓았다. 녀석은 떨렸다는 얘기만 남기고 인술 선생님을 따라갔다. 그제서야 녀석의 축 처진 어깨와 크고 무거워보이는 화판이 눈에 들어왔다.

심사하는 곳에서 바닥에 펼쳐놓은 그림을 두 가지로 나누었다. 잘 한 것과 못 한 것으로. 난 선뜻 그림을 가르지 못 하였다. 다른 심사위원이 앞서 그림을 이쪽으로 저쪽으로 옮겼다.

“이건 이쪽으로”

아들 녀석의 그림이었다. 잘 못 그린 그림들이 가는 쪽으로 밀려났다. 그림도 아들 녀석만큼이나 얼어 붙은 채 저쪽으로 등떠밀려 나갔다. 가슴이 아렸다. 하지만 그 심사위원의 눈은 정확했기에 난 털썩 내려앉은 내 맘을 안 들키려고 그림에서 얼른 눈길을 거두었다.

아들 녀석들을 채근하는 나를 발견할 때 김동인의 ‘무지개가 곧잘 떠오른다. 무지개를 향해 계속 가라고 해줘야하는지 지금 손에 든 것이 무지개라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기에. 그 책을 처음 보았을 때 나는 길 떠나는 소년이 용감해서 좋았다. 진정한 무지개를 향해 나아가는 소년이 대단해보였다. 기왓장을 무지개라고 좋아하는 아이들이 한 없이 어리석어 보였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니 기왓장을 무지개로 아는 아이들은 어리석은 아이들이 아니었다. 나름의 무지개를 찾았으니 행복한 아이인 것이다. 그렇다면 무지개를 쫓는 소년은 무엇인가? 불행하다고 말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무지개가 과연 있을까하는 의구심을 가진다면 그 소년의 노력은 허망하단 느낌이다.

그래서 난 고민이다. 내 아들들이 더 나은 곳에 갈 수 있도록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위로 혹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거드는 것도 엄마된 도리이다. 하지만 힘들고 지치면 쉬어갈 수 있도록 물 한 잔 내주며 네 손에 든 것이 무지개라고 일러 주는 것도 엄마의 도리인데 나는 한 순간 한 순간 꿈을 향해 앞만 보고 나아가게 해야 하는지 혹은 쉬었다 가게 해야 하는지를 도무지 모르고 혼란에 빠지기만 한다. 틀린 것이 많은 시험지를 보았을 때, 오그라드는 소년의 모습이 도화지에서 발견되었을 때 그저 혼돈에 휩싸였던 것처럼 말이다.

결국 믿어줘야 하고 기다려줘야 한다. 성적을 올릴 사람도 대답한 그림을 그릴 사람도 내 아들 녀석들이며 그걸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는데 난 무얼하고 있었던 말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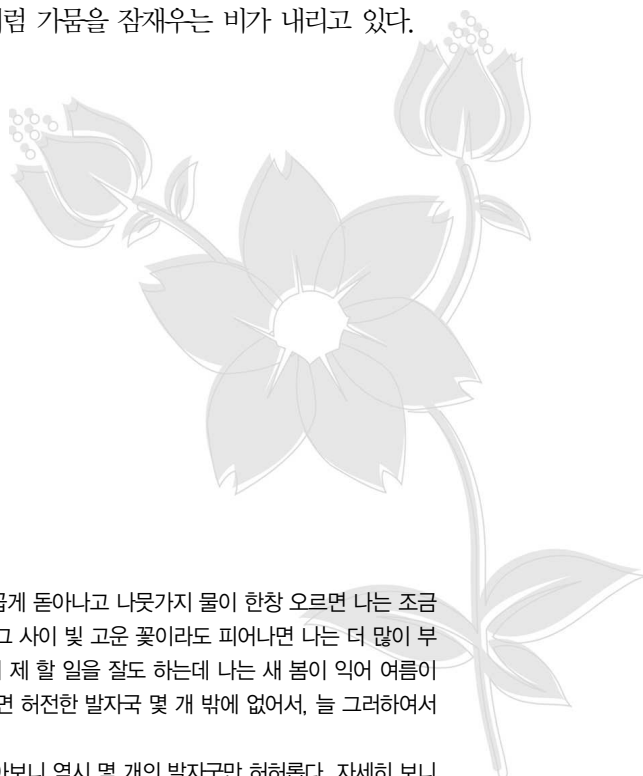
내 맘에 한없는 가뭄이 들었었다. 다른 집 아이의 모습만 눈에 들어오고 다른 아이의 화려한 그림만 눈에 들어왔으니 거북 등껍데기처럼 짝 짝 갈라진 그런 가뭄이 들었었다.

아이가 기왓장을 무지개라고 할 때 믿고 인정을 해주어야 하며, 새로운 무지개를 향해 가려하면 주먹밥이라도 하나 챙겨주어야겠다. 그 아이의 인생에서 무지개는 나와 다르고 그 아이가 가는 길은 그 아이 혼자서 갈 수 밖에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부모 자식의 인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을 나누며 서로의 길을 가는 모습을 그저 믿음으로 지켜봐주고 기쁨은 함께 나뉘 더 기뻐하고 슬픔은 함께 나뉘 눈물 닦고 일어나는 것일진대…….

또 한 번의 시험이 다가온다. 또 다른 대회가 다가온다. 이번에는 아이의 붉은 사선 때문에 생기는 내 가슴의 생채기보다 내 사랑하는 아들 녀석의 생채기를 먼저 보고 호호 불어주며 약 발라 줘야겠다. 또 슬프게

웃는 그림 속의 소년이 생기발랄하게 웃을 수 있도록 불안한 내 아이  
눈길에 포근한 미소 한 번 보내야겠다.

창 밖에도 내 맘 속에 단비처럼 가뭄을 잠재우는 비가 내리고 있다.



언제부터였을까? 봄이 되어 새 순이 곱게 돌아나고 나뭇가지 물이 한창 오르면 나는 조금  
부끄러웠다. 신록이 시리도록 질어져 그 사이 빛 고운 꽃이라도 피어나면 나는 더 많이 부  
끄러웠다. 산기슭 나무는 저렇게 제 때 제 할 일을 잘도 하는데 나는 새 봄이 익어 여름이  
되기까지 여태 뭘 했나 하고 뒤돌아보면 허전한 발자국 몇 개 밖에 없어서, 늘 그러하여서  
부끄러웠다.

올해도 내가 걸어온 길을 버릇처럼 돌아보니 역시 몇 개의 발자국만 허허롭다. 자세히 보니  
그나마 내 것이 아니다. 내가 걸어온 길이건만 내 발자국은 드물다. 고만한 우리 애들 발자  
국과 남편 발자국이 선명하고 그 곁으로 부모님 발자국도 놓여있다. 어쩌다 드문드문 보일  
듯 말 듯 놓여있는 것이 내 발자국이다.

그런 걸음에도 불구하고 올 해 6월은 떠들썩하니 기쁨 되어 내 곁에 있다. 내 글이 전국  
규모의 대회에 입상되었다는 엄연한 사실 때문이다. 이것은 내가 걸어온 길에 훨씬 많이  
발견된 발자국 주인들 덕이 분명하다. 내 작은 재주를 찾아내어 일깨워준 고마운 남편, 내  
글감이 되어준 사랑스런 두 아들 녀석, 그리고 우리를 있게 한 양가 부모님, 오롯이 그들  
덕이다. 그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나는 그들이 들려준 꽃가마라도 타고 왔나보다. 이젠 새 봄의 신록 앞에 덜 부끄럽도록 한  
걸음 한 걸음 고운 걸음 옮겨야겠다. 이 기쁜 일의 작은 가지 하나를 살짝 꺾듯이 하여둔다.



우수상

# 숯

영천 영화초교 \_ 허효남

비록 자신은 겉을지연정 **숯**은 제 몸으로

세상을 맑힌다.

깎끔은커녕 도리어 거무스름한 물골을 하고 있지만,  
나쁜 공기를 흡착하는가 하면 전자파를 차단하기도 한다.

기계와 문명으로 얼룩진 일상을 지우개처럼

하얗게 지워주는 것이다.

-본문중에서-



## 숯

산을 내려왔다. 정상을 향해 질주하던 의지가 원점으로 되돌아오자 피곤이 몰려온다. 발아래 두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머리로 이고 가야 하기에 마음마저 무겁다. 그렇게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자며 일행들과 향한 곳은 찹질방이다. 뜻밖이었다. 산마루에서 바라보던 하늘은 온통 푸른색이었건만, 찹숯방에 누워서 쳐다보는 하늘은 검디검은 색이다. 밤하늘을 수놓듯 천정에 별처럼 촘촘히 숯 토막이 장식된 방에서 스르르 눈을 감는다.

검은색을 흔히 죽음의 색이라고 한다. 깔끔해 보이고 정돈된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선보다는 악을, 기쁨보다는 슬픔을 의미하는 관념 때문인지 어려서부터 유달리 검정색이 싫었다. 삶보다는 죽음에 더욱 가까이 다가서 있기에 웬지 우울했고, 하루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거라는 미신적인 불안감마저 들곤 했다. 대신 깨끗한 하얀색을 즐겼다. 금방 다려낸 흰색 셔츠와 말끔히 닦은 흰 구두, 거기다 손수건마저 새하얀 것으로 챙겨들면 그렇게 개운할 수가 없었다. 검은 것이 내게서 앓아간 기쁨을 흰 것은 서너 배로 되돌려 주는 것 같았다.

이런 편협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숯을 가까이 두고부터이다. 지인으로부터 숯을 선물 받았다. 이끼와 분재가 어우러진 산 모양의 숯은 한 폭의 신수화인 양 제법 운치도 있어 보였다. 허나 꺼명다 못해 우

웃빛까지 감도는 어두운 색만은 영 내키지 않았다. 화사한 집안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루가 떨어져서 오히려 집안을 더럽히게 될까 걱정이 된 것이다.

배움은 들음에서 나고 정은 봄으로써 싹튼다고 했던가. 매일처럼 솥을 쳐다보자 검정과 나 사이에도 차츰 교감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항상 밤과 같은 침묵 속에서 새까맣게 눈을 뜨고 있다. 작지만 웅장하게, 가볍지만 절도 있는 모습으로 항상 세상을 바라본다. 때로는 솥이 검은 고양이처럼 하루 종일 내 주변을 서성이기도 한다. 검은 것이 전해주는 알 수 없는 잔상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눈길은 더욱 자주 갔다. 고요한 시간이면 탄광처럼 검고 비밀스런 솥 속을 광부인양 파헤쳐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

칠혹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장의 흑백사진을 발견했다. 열 살 터울 아래의 남동생이 태어났을 때였다. 할아버지는 새끼줄에 고추와 솥을 엮은 금줄을 대문 앞에 거셨다. 그것은 부정을 꺼리어 함부로 바깥사람이 출입하지 말라고 걸어둔 액막이였던 셈이다. 장을 담근 후에 할머니는 꼭 고추와 솥을 띄워두셨다. 별이 좋은 날 반짝거리는 장독들 속에서 종이 배처럼 떠다니는 솥과 고추를 보는 것은 꽤 즐거운 일이었다. 간장을 쪽박으로 떠서 다시 후루룩 부으면 고추와 솥은 표류하는 선박처럼 까닥거리곤 했다. 겨울이면 군불을 지피고 남은 솥등걸에 감자며 고구마를 구워먹기도 하고, 습한 창고에는 늘 솥 쉼이 쌓여 있었다. 검은 빛깔 속에 감추어진 힘은 늘 조용하고 부지런했다. 항상 눈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기억의 저편에서 수대를 걸치며 묵묵히 제 소임을 다하였다.

솥에서 내세를 기약한 참나무의 슬픔과 애환을 느낀 것은 한참이 지나서이다. 솥이 된 나무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력을 얻을 수

있게 된다. 한 그루의 참나무가 숲가마에 들어가 고온으로 탄화되는 것은 생명체로서의 죽음을 의미하지만, 역으로 그것은 숲으로서의 새 생명을 얻는 탄생의 과정이기도 하다. 뜨거운 불을 이겨낸 나무가 숲으로 정련되는 고통과 인내가 결국 참숲으로의 윤회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숲이 검은 까닭은 영원한 생명력을 얻기 위해 지불해야 할 마땅한 대가인 지도 모른다.

뜨거운 열정이 식어버린 후의 초췌함은 사그라짐이 아니라 원숙함으로 승화된다. 불과 바람, 뜨거움과 차가움의 시련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숲은 섭리에 따라 그저 겸손할 따름이다. 터덕터덕 화덕 속에서 결대로 자신의 살을 그을려가며 눈물조차 화염 속에 흩뿌리고 만다. 남은 삶에 대한 아쉬움도 다음 생에 대한 기대조차 품지 않은 허허로운 마음으로, 활활 타오르고 또 타오른다. 뜨거움 속으로 자신을 내던져야만 정금처럼 단련될 수 있기에, 숲의 화형식은 신성하기까지 하다.

비록 자신은 검은지언정 숲은 제 몸으로 세상을 밝힌다. 깔끔은커녕 도리어 거무스름한 물골을 하고 있지만, 나쁜 공기를 흡착하는가 하면 전자파를 차단하기도 한다. 기계와 문명으로 얼룩진 일상을 지우개처럼 하얗게 지워주는 것이다. 찬란한 순백의 영광이 아니라 소박한 검정의 성실함으로 숲은 색에 대한 편견을 가진 세상까지 정화시킨다. 겉으로 보여지는 색과 모양 때문에 진실한 실체를 보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있으며 탁함 중에 맑음이 있음을 숲은 거짓말처럼 새키맏게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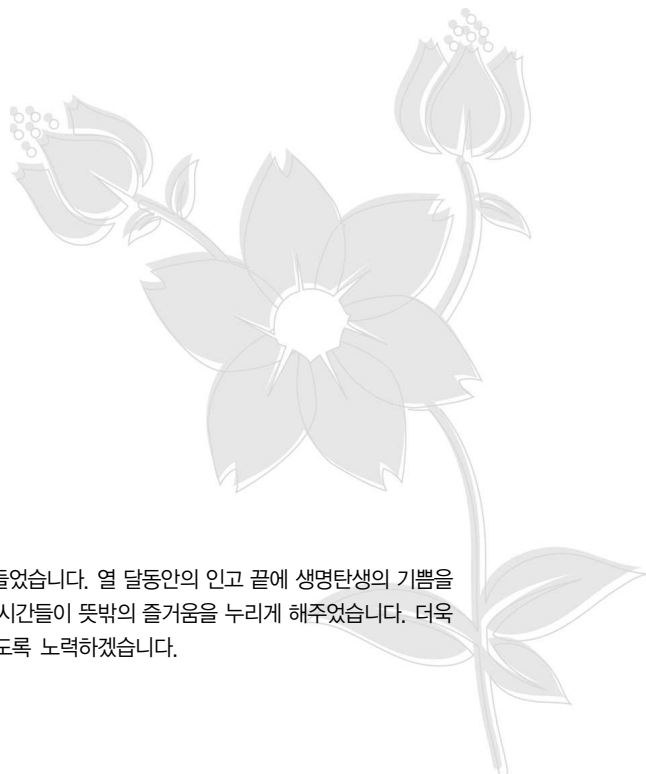
향수는 아니지만 숲은 무향의 향기도 풍긴다. 요란한 용기에 이쁜 색으로 채워진 방향제는 집안의 악취를 향기로 숨길 뿐이지만, 숲은 잡내를 흡습하고 청정무향을 내어 놓는다. 그것은 더없이 맑고 청아하여 한

잔의 순한 차향과 같으며, 시멘트에는 어울리지 않는 삼림욕의 상쾌함을 준다. 숲은 요란하게 겉멋을 내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수수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해안을 가지게 한다.

숲만큼 뜨겁게 타올라 오래도록 기억되는 삶을 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참나무는 한 생을 마감하면 숲이 되고, 집 안 곳곳을 맑히다 재로 변하며, 밭에 뿌려진 거름이 되어 또 다른 생명체를 잉태한다. 이 세상 어디에서든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된다면, 굳이 사람으로 태어난 것만이 최고의 축복은 아닐 것이다. 숲은 타올라 재가 되어 쓰이지만 사람은 죽어 뿔가루만이 날리기 때문이다. 시커멓게 못나도 보이지 않게 누군가의 삶을 밝힐 수만 있다면, 덧없는 인생의 강물을 유랑하는 한 조각 숲덩이로 살아가는 것도 괜찮으리라.

햇볕이 좋은 날, 먼지 묻은 숲덩이를 씻는다. 늘 바라보아도 숲이 신선한 힘이라는 뜻을 지닌 우리말이란 것은 알지 못했다. 그것이 검어서가 아니라 정녕 내 마음이 어두운 까닭이다. 숲이 검정 나무란다고 검은 것은 정작 숲덩이가 아니라 표피밖에 볼 줄 모르던 내 눈인 것이다. 흐르는 물에 편견조차 조각난 숯가루처럼 점점 씻겨나간다. 현세와 내세를 넘나드는 검은 숨소리에, 내 숨결조차 숙연한 듯 조심스럽다.

첫 아이의 출산과 함께 수상소식을 들었습니다. 열 달동안의 인고 끝에 생명탄생의 기쁨을 맛보았듯, 짧지 않은 습작과 인내의 시간들이 뜻밖의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었습니다. 더욱 정진하여 풍성한 글밭을 가꾸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수상

# 유 산

조그만 손수레에 엮을 한판 가득 담아 가위질을  
하며 정처 없이 길을 떠나면,  
석양이 벌건 저녁에 폐지와 고물을 가득 싣고 힘  
겹게 돌아오시던 바로 그 길,  
친구들과 가다가 아버지를 보면 내가 슬며시 숨  
던 바로 그 길에 내가 돌아 온 것이었다.

-본문중에서-

대구광역시 동구청  
박태칠



## 유산(遺産)

‘증여세 3500억대 납부.’

거실을 청소하던 중 널브러진 신문지들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기사의 한 제목이다. 그 아래로는 ‘사상 최대 규모’, ‘주식으로 현물납부’ 같은 소제목도 보였다. 다른 생물체의 삶처럼 동떨어진 내용이기엔 그냥 신문지들을 모아 묶었다. 그러면서도 도대체 얼마를 증여받으면 세금이 3500억 원이나 될까하는 생각이 슬며시 든다. 청소를 계속하면서도 뭔가 불공평한 느낌이 자꾸 들었다. 수년전의 일이 생각났다.

“팔십 만원은 받아야 되요, 그 이하로는 절대로 안되요.”

병환으로 기력이 쇠약했던 아버지가 전화기에 대고 평소와는 다르게 강경한 어조로 고함을 지르고 계셨다. 아내와 나는 영문을 몰라 서로를 마주보며 아버지의 방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나중에 사연을 들어본즉 우리가 시골에서 살았던 그 집을 누군가 사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그 집, 주인이 떠난 지 10년도 더 된 그 집은 아마도 폐가가 되었을 것이었다. 그 건 시골에서도 낙엽처럼 이 골 저 골을 떠돌던 우리가족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소유하였던 집이었다. 그러나 내가 결혼 후 비록 셋방이지만 도시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난 뒤부터 그 집은 빈집이 되었다. 건물터도 남의 소유이고 건물이라야 고작 삼간토담집을, 그것도 오



래 방치한 집이니 그냥 주어버리자는 나의 의견과, 그래도 팔십 만원은 받아야 한다는 아버지의 의견은 장마철 비 내리 듯 자주 대립하였다.

내가 반대한 이유는 그곳에 계약이랍시고 가기가 싫었던 때문이었다. 아직도 그곳에는 아버지를 막일꾼 대하듯 했던 국민학교, 중학교 동창생들이 면소재지 근처에 몇 명은 살고 있을 것이고, 아무리 시골이라지만 쓰러져 가는 폐가를 팔아 단돈 팔십 만원을 마련하려는 궁핍한 ‘옛장수 박씨 아들’을 기억하는 이웃들을 생각하니 나는 도저히 아버지 의견을 따를 수 없었다.

차라리 돈이 필요하면 제가 드릴 테니 어디에 쓰실 건지 말씀을 하라며 다그치는 불손한 나의 태도에도 아버지는 아무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 잊을만하면 또 집이야기를 하시곤 하셨다. 수차례의 이야기를 듣다 못한 아내의 권유도 있고 해서 결국 나는 계약을 하러 가기로 했다.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차원에서 가는 길이니, 저쪽에서 흥정하는 대로 빨리 응하고 집값도 주는 대로 받아오리라 마음을 먹었다. 체류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매매 계약서를 대강 작성한 다음, 매입자 집을 파악한 후 일부러 어두운 밤에 시골을 향하였다. 노란 중앙선에 의해 정확히 반이 쪼개진 아스팔트길을 따라 나의 차는 조용하게 달렸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하였다. 친정으로 돌아가는 소박맞은 신부처럼, 이윽고 살던 곳의 면소재지 신작로에 도달하니 힘들었던 어린 시절이 또렷이 되살아났다.

농촌이라지만 타향이었고, 송곳하나 세울 땅이 없었던 아버지로서는 호구지책을 위해 그 길을 수없이 드나드셨다. 추수기에는 남의 경운기에 높다랗게 쌓아올린 벼단 뒤에 검불처럼 매달려서 돌아오곤 하셨다. 들판

에 누렇게 익은 벼가 모두 사라질 때 까지 저녁마다 이웃들은 일손을 구하러 우리 집을 찾아왔고, 아버지는 매일같이 경운기를 바꾸어 타고 돌아오셨다.

농한기에도 실 수는 없었다. 조그만 손수레에 엿을 한판 가득 담아 가 위질을 하며 정처 없이 길을 떠나면, 석양이 벌건 저녁에 폐지와 고물을 가득실고 힘겹게 돌아오시던 바로 그 길, 친구들과 가다가 아버지를 보면 내가 슬며시 숨던 바로 그 길에 내가 돌아 온 것이었다. 희망이라곤 실오라기 한줄 보이질 않던 조반석죽(朝飯夕粥)의 땅, 그나마 어찌어찌 하여 농사일을 해주고 얻은 그 집이 우리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밤이 좀 늦어 만난 매입자는 원치 않게도 유년시절의 나를 좀 아는 듯이 보이는 사람이었다. 약간의 예의를 차려 그동안의 안부를 물은 그는, 그 집을 허물고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한다면서 사실 팔십 만원은 좀 비싸지 않느냐고 하면서 조심스레 내 눈치를 살폈다.

“팔십 만원 다 주세요. 십 원도 못 뺍니다.”

나는 강한 어조로 못을 박았고, 그는 좀 머뭇거리다가는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돈을 넘겨주었다. 출발할 때의 부끄러웠던 마음과는 달리 나는 의기양양하게 돌아왔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돈 봉투를 아버지께 넘겨 드렸다. 아버지는 내 안색을 살피다가 수고했다 하시며, 돈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한장 한장 넘기셨다. 액수가 틀림이 없음을 확인한 후 봉투에 돈을 다시 넣고 가만히 보는 아버지의 얼굴에는 만감이 교차하고 있었다. 잠시 후 아버지는 며늘아기를 불러달라고 하셨다. 아내가 방에 들어오자 아버지는 우리 앞에 돈 봉투를 다시 내놓으셨다.

“부모라고 해도 물려준 것 하나 없이 얹혀살아 미안했는데 이거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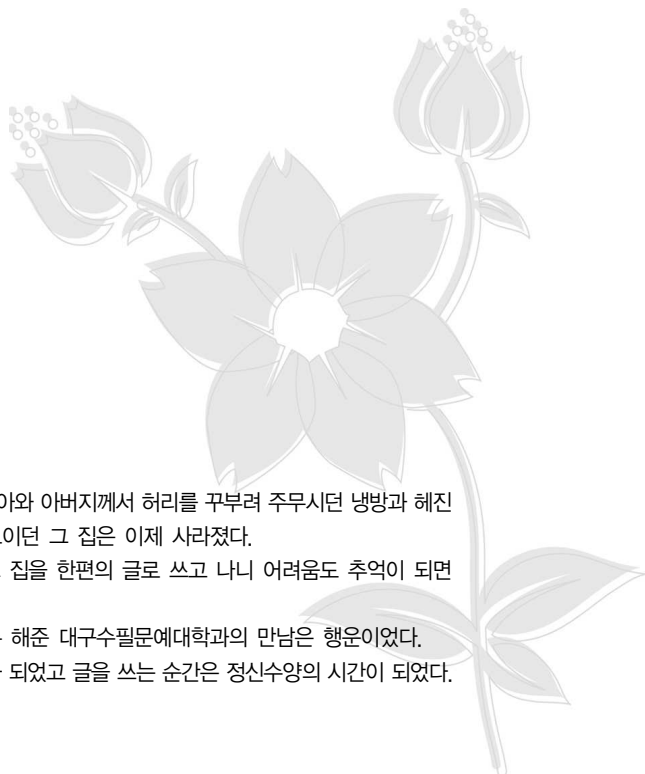
받아라. 시아비가 되서 줄 것이 이것뿐이라 부끄럽구나.”

우리는 당황하여 몇 번을 사양하다가 결국 그 돈을 받았다. 그 돈 팔십 만원. 그것이 그런 용도였을 줄이야! 얼마 후 아버지는 돌아가셨으니 결국 그 돈은 아버지의 유산이 되고 말았다.

이런저런 생각에 나는 청소를 중단하고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만춘(晩春)이 지나가는 아파트 화단에 꽃잎이 한 장씩 떨어지는 백목련과 파랗게 자라는 잡초들이 보인다. 씨 떨어진 곳 아무데서나 뿌리내리고 억척으로 살다가 꽃피우고 사라지는 그들의 모습이 새삼 숭고하게 보인다. 찬바람을 원망 않고 햇볕 한줄 바라지 않는 그들이 묵묵히 나를 본다. 사랑의 유산 팔십 만원, 그것조차도 과분함을 말하는 듯하다.

문득 멀리서 낮익은 형상이 천천히 움직이는게 보였다. 자세히 보니 폐지가 가득 실린 손수레를 노인이 힘없는 걸음으로 밀며 가고 있었다. 나는 신문지뭉치를 들고 후닥닥 밖으로 나갔다.

들판에서 원 종일 고된 일을 하고 돌아와 아버지께서 허리를 꾸부려 주무시던 냉방과 헤진  
초가집 지붕을 통해 누워서 별이 보이던 그 집은 이제 사라졌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늘 살아있던 그 집을 한편의 글로 쓰고 나니 어려움도 추억이 되면  
아름다워질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삶을 향기로운 문학으로 풀어내도록 해준 대구수필문예대학과의 만남은 행운이었다.  
수필은 이제 나의 정신적인 안식처가 되었고 글을 쓰는 순간은 정신수양의 시간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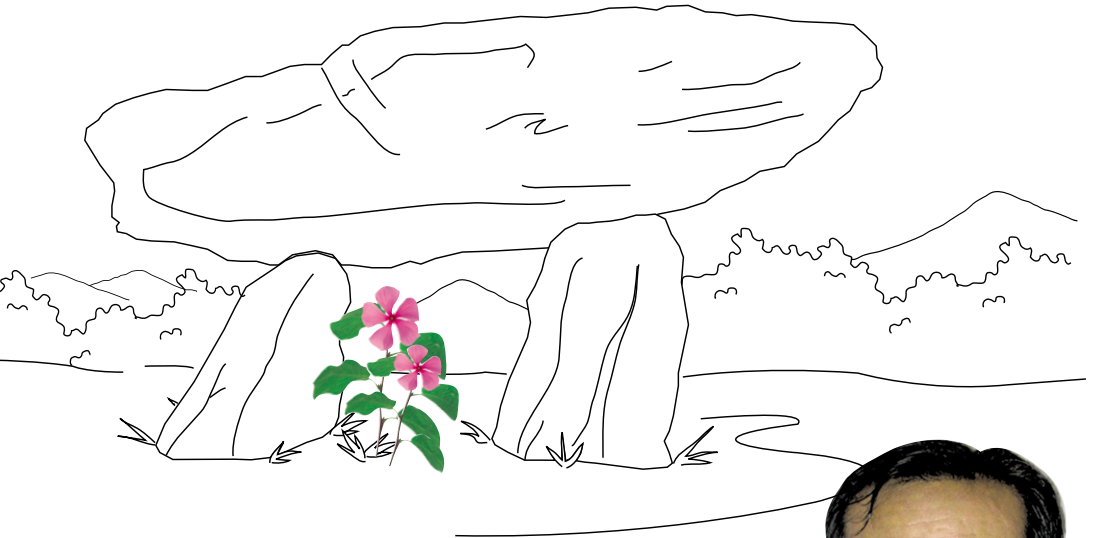
장려상

# 고 인 돌 과 꽃

>>>고인돌과 꽃이 전해주는 이야기 >>>

고인돌 군은 산기슭에 즐비하게 놓여져 있다.  
그 크기가 어찌나 큰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부족장이나 마을 어른들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유물이다.  
규모로 보아 한 두 사람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다.  
그것도 장비가 부족한 시기였으니,  
더욱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조상들의 지혜에 감동할 뿐이다.

-본문중에서-



전라북도 대덕초교  
정기상



## 고인돌과 꽃

모양성을 나서 고창읍 덕정리 쪽으로 접어들었다. 이제는 폐교가 되어 버린 옛 고창 서 초등학교가 반갑게 맞이해준다. 이곳에서 근무하던 시절이 었그제 같은데 벌써 20년도 넘는 세월이 흘러가버렸다. 화살처럼 빨리 가는 시간의 흐름을 새삼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덧없는 인생이란 말을 몸으로 느낄 수 있으니,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

학교 앞 죽림이라는 마을은 전봉준장군의 생가가 있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동학 농민 혁명이 바로 이 고장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에 가슴이 뻘뻘해진다. 전장군의 태생지는 아니지만, 이곳에서 자랐다는 것과 인근의 무장면에서 봉기하였다는 사실이 자긍심을 가지게 한다. 고창이 인재의 고장이고 나라 사랑 마음이 우뚝하다는 것에 숙연해진다.

고창읍과 아산면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마을 뒷산에는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이 있는 곳이다. 경기도 강화와 전남 화순의 고인돌과 함께 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이다. 확인된 고인돌의 수가 500여기가 넘고 있으니, 그 방대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유물로 보아 석기 시대부터 이곳이 사람들로 번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홍빛 물결이 흔들리고 있었다. 자운영 꽃인가 하고 다가가보니, 아니다. 자운영 꽃은 아직 필 때가 되지 않았다. 군락을 이루고 있는 이름 모를 풀꽃들의 앙증맞은 모습이 마음을 잡는다. 그 것은 유혹의 손길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뭔가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고인돌과 어우러진 풀꽃이 아름답다.

자세히 살펴보니, 분홍의 꽃만이 아니었다. 비록 그 키기는 아주 작지만 꽃의 종류도 아주 다양하다. 하늘 색깔을 닮아 있는 꽃도 있고 하얀 색깔을 가지고 빛나고 있는 것도 있다. 이들이 전해주는 이야기가 궁금해진다. 마음을 닫고 있을 때에는 그 무슨 소리도 들을 수 없었다. 그러나 마음을 여니, 들려온다.

고인돌과 꽃이 전해주는 이야기.

고인돌 군은 산기슭에 즐비하게 놓여져 있다. 그 크기가 어찌나 큰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부족장이나 마을 어른들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유물이다. 규모로 보아 한 두 사람의 힘으로는 어렵도 없는 일이다. 그 것도 장비가 부족한 시기였으니, 더욱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조상들의 지혜에 감동할 뿐이다.

고인돌 군 바로 앞에는 강이 흐르고 있다. 백두대간에서 뿜어 나온 노령산맥의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산이 방장산이다. 선운산가와 함께 그 제목만 전해지는 방장산가 노래에 나오는 바로 그 산이다. 백제시대에 널리 불리어졌다고 하니, 명산임은 분명하다. 방장산에서 발원한 물줄기가 선운사 앞 서해바다로 흘러가는 강이다.

강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다. 방장산의 정기를 받아 선사시대부터 강가에 촌락을 이루고 살았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삶이 오랜 세월을 뛰어넘어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고인돌을 만든 사람들의 마음이 바라보는 마음에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귀 기울이고 있으면 들려온다.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분홍 색깔의 꽃들의 이야기까지 곁들여지니, 더욱 정겨워진다. 꽃들은 변함없이 그 곳에 피어났을 것이다. 고인돌은 만들던 사람들의 마음에도 기쁨을 주었을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서서 감동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말이다. 꽃들은 수많은 이야기들을 보고 들었을 것이고 그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서러운 이야기도 있었을 것이고 즐겁고 행복하였던 이야기도 있었을 것이다. 살아가는 이야기는 고스란히 꽃들의 씨앗에 저장되었다가 새봄이 오면 다시 피어났을 것이다. 한해도 거르지 않고 어김없이 다시 돌아와, 전해주고 있는 것이다.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해가면서 말이다.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 생각하니,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다.

꽃의 이야기에 빠져 있노라니, 달라진다. 돌덩어리로만 보였던 고인돌이 새롭게 다가온다. 죽어 있는 무생물이 아니라 살아 있는 생명체로 느껴진다. 숨소리를 듣게 되니, 가슴이 두근거린다. 금방이라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들려올 것만 같다. 고인돌을 만드느라 땀을 흘리고 있던 사람들의 모습이 눈앞에 나타난다.



고인돌에는 고인돌을 만든 사람들의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 후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다. 간절한 바람으로 전하고 싶은 의지가 있었기에 오늘까지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이다. 만약 그런 간절함이 없었다면 진즉 훼손되고 사라졌을 것이 분명하다.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절실한 기원 때문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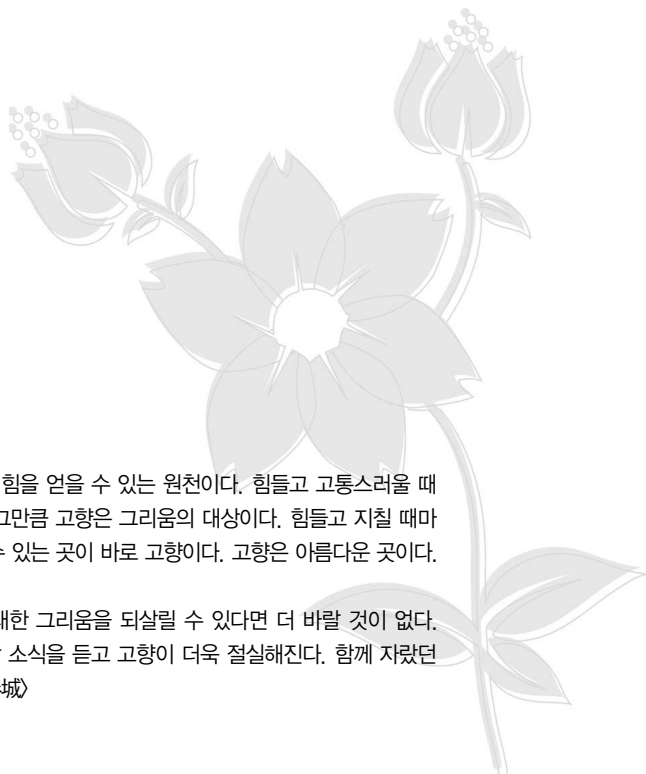
고인돌은 꽃이 된 것이다. 김춘수의 꽃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우리 삶에 꽃이 된 것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꽃을 뛰어넘어 지구촌 사람들 모두의 꽃이 된 것이다. 선사시대에 이곳에서 살았던 분들의 정신이 오늘에 되살려진 것이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란 말인가.

그 것은 사랑이요 희망이다. 고인돌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그분들의 이야기가 감미롭게 다가온다.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인지를 알려주는 듯 하다. 기쁨을 위하여 노력하고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위로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한다.

고인돌 군 앞에서 고인돌과 함께 흔들리고 있는 이름 모를 풀꽃을 바라보면서 진한 감동에 젖는다.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해지는 이야기가 활기를 넘치게 한다. 이 순간의 아름다움을 다른 이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하겠다. 세상이 환해진다. 가리앉아 있던 기분이 상승되고 행복하게 살아야겠다는 힘이 솟아나고 있었다.〈春城〉

고향은 가슴을 설레게 한다. 살아가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원천이다.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고향을 떠올리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만큼 고향은 그리움의 대상이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고향이다. 고향은 아름다운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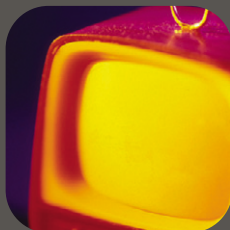
마음속에서 멀어져가고 있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되살릴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깨끗하고 맑은 고향에 가고 싶다. 수상 소식을 듣고 고향이 더욱 절실해진다. 함께 자랐던 죽마고우들과 함께 어울리고 싶다.〈春城〉



장려상

# 까막눈

어느새부턴가 나는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있었다. 예쁘고 아름다운 것만 담고, 생생하고 좋은 것만 기억하기를 원하는 눈이었다. 조카 눈 속의 반짝임은 눈에 담아도, 할아버지 눈 속의 세월은 보지 못했다. 내 목에 걸린 목걸이가 예쁜 것은 보아도, 어머니 목에 걸린 주름은 보지 못했다. 친구의 새로 한 파마머리는 보아도, 염색으로 덮은 아버지의 서리 내린 머리는 보지 못했다. -본문중에서-



대구광역시 남도초교  
권소연



## 까막눈

꼭. 꼭. 꼭. 리모컨 단추를 누르는 손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 텔레비전은 연신 화면이 바뀐다. 할아버지와 나는 리모컨을 놓고 채널 다툼을 벌이는 중이다.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는 할아버지 때문에 애꿎은 리모컨만 고생이다.

“어허.”

결국 할아버지는 참았던 한 마디를 내뱉으신다. 나는 하는 수 없다는 듯 일어서서 내 방으로 가버렸다. 할아버지는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보고도 질리지도 않으시나 보다.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오신 것은 몇 달 전 일이다. 할아버지를 모셨던 큰외숙부가 몸이 안 좋아지면서 그 수발이 우리 집 몫이 되었다. 특별히 바뀐 것도, 그다지 할 일도 없었던 나는 그저 주말에 텔레비전 채널권을 가지고 당신과 씨름하는 것이 할아버지와 마주치는 정도였다.

어느 날, 퇴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다. 전화기 너머로 타고 오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이상하시단다…….”

순간 모든 생각이 정지되는 듯했다. 불안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되풀이되었다. 그 말을 들은 순간부터 할아버지를 뵈기까지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온갖 불길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헤

집고 다녔다. 급하게 집으로 뛰어가는 길이 한없이 멀게만 느껴졌다.

집으로 들어섰을 때 할아버지는 침대에 모로 누워 계셨다. 노인정에 갔다가 나오는 길에 쓰러지셨다고 했다. 다행히 별로 다치신 데는 없어 보였다. 잠깐 어지러워서 바닥에 주저앉은 것뿐이라는 말씀에 비로소 마음이 놓인다. 평소 건강하신 분이라 쓰러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다. 놀랐던 가슴을 쓸어내렸다. 어머니의 목소리도 많이 안정되어 있었다.

저녁 때 죽을 드시던 할아버지를 흘끔흘끔 훑쳐보았다. 똑바로 쳐다보지 않으니 왠지 불안하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한 까닭에서다. 약간 굵힌 듯 눈가에는 상처가 나 있었고, 뺨은 많이 핏색났다. 할아버지가 내 눈길을 느끼셨는지 고개를 돌리신다. 그 때 할아버지의 눈을 제대로 보았다.

맑지도, 진하지도, 검지도 않은 눈이었다. 햇빛에 바래진 종이처럼 눈빛이 흐려져 있었다. 몸만 쇠해지는 것이 아니었다. 눈빛도 늙어 있었다. 할아버지의 눈빛은 얼굴의 그 세월만큼이나 초점을 잃고 있었다. 그 때서야 난 지금까지 할아버지의 눈을 찬찬히 뜯어 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결에서 같이 밥을 먹고 있던 조카가 툭툭 옆구리를 치며 반찬을 달라고 손가락질을 한다. 할아버지가 반찬 그릇을 옮겨 조카 앞으로 가져다 놓으신다. 조카는 좋아하며 커다란 두 눈에 함박웃음을 지었다. 반짝이며 까만 눈, 그 눈을 보니 자연스레 미소가 지어진다. 늘 그랬던 것처럼 조카의 두 눈은 언제보아도 예쁘다.

저녁을 먹고는 화장대 앞에 앉았다. 할아버지의 눈을 보고 조카의 눈을 보다 보니, 문득 내 눈도 보고 싶어져서이다. 머릿속에서 내 눈을 떠올리며 거울을 가까이 갖다댄다. 검은 눈동자에 푸르스름한 흰자위, 별

빛처럼 맑고 선명한 눈이었다. 그러나 거울 속에 비치는 눈은 그것이 아니다. 생각 속의 눈은 예전 사진 속에서 보았던 어린 시절 모습일 뿐, 지금의 내 눈빛과는 달랐다. 어느덧 다 자라 어른이 된 내 눈은 더 이상 맑지 않았다. 눈동자는 검다기보다 갈색 빛을 띠고 있었고, 초롱하던 반짝임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 그랬다. 내 눈빛도 시나브로 변해가고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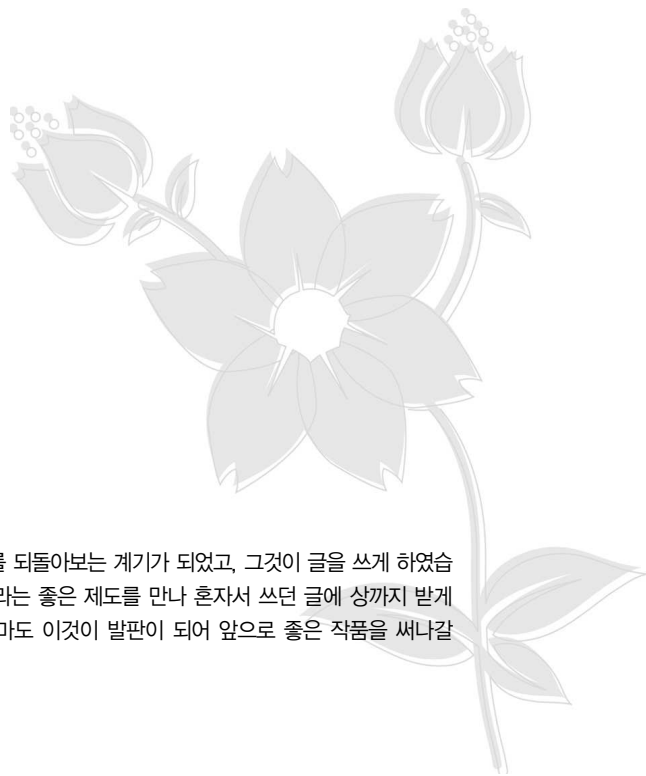
어느 새부턴가 나는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있었다. 예쁘고 아름다운 것만 담고, 생생하고 좋은 것만 기억하기를 원하는 눈이었다. 조카 눈 속의 반짝임은 눈에 담아도, 할아버지 눈 속의 세월은 보지 못했다. 내 목에 걸린 목걸이가 예쁜 것은 보아도, 어머니 목에 걸린 주름은 보지 못했다. 친구의 새로 한 파마머리는 보아도, 염색으로 덮은 아버지의 서리 내린 머리는 보지 못했다. 그래서 난 변해가는 내 눈빛도 보지 못했던 것이다. 할아버지의 눈이 낫설었던 것도 그 때문이다. 보아도 그 속을 알지 못하면 까막눈이라 했던가. 내 눈은, 어느새 보아도 보지 못하는 까막눈이 되어 있었다.

그제서야 난 지금까지 보지 못한 것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 날 밤은 아파서 연신 무릎을 두드리고 계신 어머니도 보이고, 잠들기 전 잔기침하시는 아버지의 모습도 보였다. 그리고 그새 알게 모르게 빛이 바래진 두 분의 눈도 눈에 들어왔다.

며칠 뒤 거실에 할아버지와 나란히 앉았다. 텔레비전에는 시끌벅적한 소리가 요란하다. 조금 있으면 할아버지가 늘 즐겨보시는 프로그램이 시작될 터이다. 눈빛을 잃으며 욕심마저 사라진 것인지 전혀 말씀이 없으

섰다. 할아버지 앞에다 슬그머니 리모컨을 놓는다. 텔레비전을 응시하고  
계신 할아버지의 눈동자가 새삼 눈(雪)처럼 하얗져 있었다.

제가 겪은 작은 일들이 모여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그것이 글을 쓰게 하였습니다. 지금 저는 공무원 문예대전이라는 좋은 제도를 만나 혼자서 쓰던 글에 상까지 받게 되어 너무나 기쁜 마음뿐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발판이 되어 앞으로 좋은 작품을 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장려상

마라톤  
수령

오늘날 우리는 이웃을 믿지 못해서 이중삼중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혀 산다. 예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희한하고 무시무시한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으니 어찌하겠는가. 자신을  
잡아 가둘지도 모르는 인간에 대해 털끝  
만큼의 두려움도 없이 과감하게  
맞서던 그 녀석이 오히려 가상하고 기  
특하다.

-본문중에서-

대구광역시 교육연수원  
최재운



## 맹랑한 손님

진눈깨비가 섞인 가랑비가 한 차례 훑고 지나간 후의 화창한 오후였다. 점심 식사 후 계절답지 않게 따사로운 햇살을 등 뒤로 느끼면서 책상 위에 수북이 쌓인 공문이며 각종 서류를 훑어보고 있는 중이었다. 뭔가 인기척 비슷한 느낌이 들어 주위를 살펴보니 책상 바로 곁에 불과 두어 뼘 떨어진 곳에 자그만 다람쥐 한 마리가 앉아있지 않는가! 실내 공기를 바꿀려고 출입문과 창문을 잠시 열어두었더니 그 사이에 생각지도 못한 불청객이 찾아든 것이다.

식막하고 긴 겨울을 맞아 이 시간 숲 속을 두루 다니면서 양식을 준비하기에도 바쁠 텐데, 무슨 곡절로 먹이가 될만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내 사무실에 들어왔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기왕 들어온 손님이니 잠시 숨을 돌릴 겸 서류에서 눈을 떼고 이 녀석의 행동거지를 지켜보기로 했다. 혹시 놀라서 달아날지도 모르는 일이라서 자세를 전혀 바꾸지 않은 채 고개만 옆으로 돌리고 녀석을 주시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녀석이 작정이라도 한 것처럼 마동도 하지 않고 뻔히 마주 쳐다보는 것이 아닌가! 장난기와 더불어 슬그머니 오기가 생겼다. 도대체 얼마나 견디나 보자하고 한참을 뻔히 노려보았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희한한 눈싸움은 오래가지 못했다. 문밖 복도에 누군가가 지나가며 내는 발자국 소리에 놀라 그가 먼저 자세를 풀고 움직였기 때문이다.

녀석은 책상이며, 응접용 소파, 책장 사이를 분주히 왔다 갔다 하며 출구를 찾기에 여념이 없었다. 하지만, 그게 어디 쉬운 일이든가. 한참 동안 온 방 안을 헤매고 다녔다.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뻔한데도 그 녀석에게는 정말 어려운 일인 모양이다. 사람의 시선에 맞추어 설계하고 만들어둔 각종 시설물이 그의 눈에는 좀처럼 잘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다. 조금만 옆으로 나가면 문이 환하게 열려 있는데도 엉뚱한 곳으로 돌진해가서 벽에 머리를 부딪치고 돌아오기를 거듭했다.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우습고 딱했지만 그에게는 생사가 걸린 중대사가 아니겠는가.

그가 수차례의 시행착오 끝에 마침내 출입문을 찾아 나갈 때까지 얼어붙은 듯 가만히 앉아있었다. 혹시 어설픈 내 행동이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해서 였다. 어미 품을 떠난지 얼마되지 않은 것 같은 작은 체구의 다람쥐였다. 연한 황갈색 바탕에 까만 줄무늬가 선명한 양증맞고 귀여운 녀석이었다. 그 녀석이 나간 후 이방저방 찾아다니며 물어봤지만 다람쥐를 봤다거나 행적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다행한 일이다. 지금쯤 원래의 생활터전으로 무사히 돌아가서 그 가족과 함께 능성이며 골짜기를 마음껏 누비고 있으리라.

다람쥐는 집쥐와는 달리 생김새가 날렵하고 세련되어 혐오감을 일으키지 않아서 좋다. 만약 그 때 집쥐가 사무실에 나타났더라면 어찌 했을

까? 십중팔구 크게 놀라서 나도 모르게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났을 것이다. 출입문을 닫아걸고 큰 소리로 고함을 쳐 사람들을 불러 모아 쥐 잡기 소동이라도 한 차례 벌렸을 것이다. 쥐도 나를 쳐다보기는커녕 부리나케 피해 필사적으로 살길을 찾아 달아났을 것이다.

생각하면 우스운 일이다. 집쥐가 되었던 다람쥐가 되었던 무슨 상관인가. 내 마음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선입관과 편견이 문제인 것이다. 집쥐가 사람들 주위를 맴돌며 곡식을 훔쳐가고 몸쓸 질병을 옮기는 등 알미운 짓을 많이 하긴 한다. 그것도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인 것을 어찌하랴. 내게 직접적인 피해나 지장을 준적도 없는데 무조건 경원하고 살기를 품고 눈을 부라리는 것은 가당치 않다.

오늘날 우리는 이웃을 믿지 못해서 이중삼중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혀 산다. 예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희한하고 무시무시한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으니 어찌하겠는가. 자신을 잡아 가둘지도 모르는 인간에 대해 털끝만큼의 두려움도 없이 과감하게 맞서던 그 녀석이 오히려 가상하고 기특하다. 설사 길을 잃어 본의 아니게 내 방을 찾았더라도 좋다. 상대방의 진심보다는 숨은 의도를 읽으려고 애쓰고, 만사를 저울 위에 올려놓고 손익부터 따지는 인간을 멀리하지 않고 찾아준 것만으로도 대견하지 않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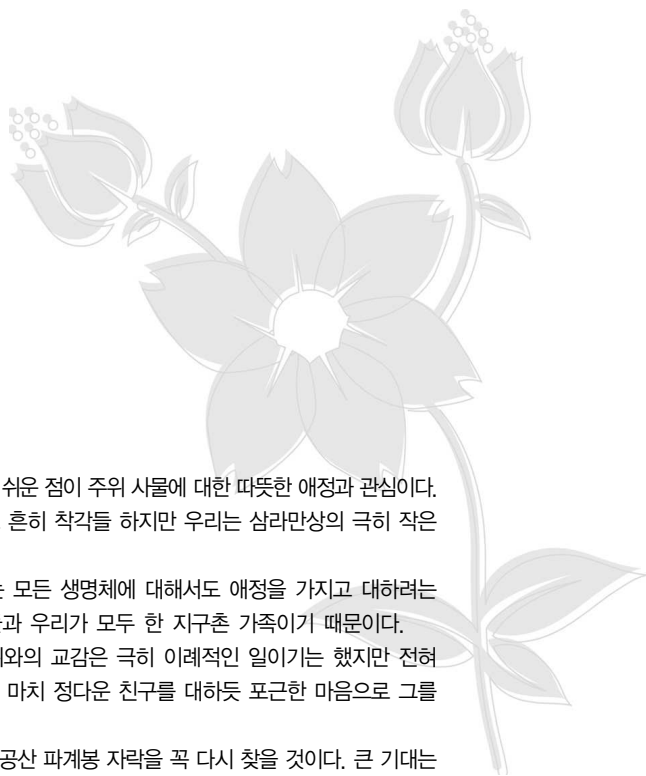
엄동을 맞아 간혹 눈발이 날리기도 하는 팔공산에는 색이 변한 나뭇잎이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떨어지지 않을 려고 마지막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인간이 초래한 자연질서 교란과 환경파괴는 기후조차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제발 사납지 않고 포근한 동장군이 찾아와서  
그 때 그 다람쥐를 비롯한 산속의 모든 동물 가족들이 큰 어려움 없이  
이 겨울을 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터무니없는 욕심인 줄 잘 알지만, 내  
년 이맘 때 파계봉 자락 어디에선가 건강하게 잘 자란 그 녀석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우리가 각박한 세상을 살면서 간과하기 쉬운 점이 주위 사물에 대한 따뜻한 애정과 관심이다. 이 세상에 인간만이 살고 있는 것으로 흔히 착각들 하지만 우리는 삼라만상의 극히 작은 일부분일 뿐이다.

다람쥐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에 대해서도 애정을 가지고 대하려는 훈훈한 가슴이 필요하다. 그것은 그들과 우리가 모두 한 지구촌 가족이기 때문이다. 뜻밖에 찾아온 귀한 손님 아기 다람쥐와의 교감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했지만 전혀 가식이 없는 순수한 조우였다. 그래서 마치 정다운 친구를 대하듯 포근한 마음으로 그를 대하려고 노력하였다.

글 속에서도 밝혔듯이 올 해 늦가을 팔공산 파계봉 자락을 꼭 다시 찾을 것이다. 큰 기대는 못하겠지만 만에 하나 성년이 된 그 녀석을 다시 만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장려상

# 술 빛는 어머니

나는 통밀을 맷돌에 타는 어머니 옆에 앉았다. 어머니는 맷돌을 돌리신다. 맷돌 돌리는 속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다. 통밀도 조금씩만 집어넣으신다. 많이씩 넣으면 빨리 끝날 것 같아 내가 한주먹 움켜쥐자 내 마음을 아시는지 그런다고 빨리 타는 게 아니라며 웃으신다.

나는 어머니의 맷돌 돌리는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다.

-본문중에서-



청주교도소  
최만호

## 술 빚는 어머니

어머니가 담근 술은 이웃마을까지 소문이 돌았다. 사람들은 입에 찹찹 달라붙는다며 어머니의 솜씨를 칭찬했다.

나는 호기심에 어머니 몰래 고방(庫房)에 들어가 술항아리에서 술을 한 그릇 떠 맛을 보았다. 달짝지근한 것이 먹을 만하여 한 대접을 다 마시고는 뒷마루에 누워 온종일 잠을 자기도 했다.

술 한 모금만 마셔도 흥당무처럼 빨개지시던 어머니는 즐겨 술을 빚으셨다. 종갓집 만며느리도 아닌 당신이 자주 술을 빚으신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술을 빚는 일은 누룩을 띄우는 일이다. 누룩은 술을 담그는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곡물을 발효시키기 위해서는 전분을 당화시켜야 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것이 누룩이다. 누룩을 얼마나 잘 띄우느냐가 술 맛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예부터 술을 빚는다고 했는지도 모른다.

좋은 누룩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간 정성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누룩을 잘 띄우기 위해서는 사람의 정성만으로는 안 되는데 그것은 적당한 온도와 통풍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룩을 신국(神麴)이라 했단다.



누룩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겉질 채 타겐 통밀 가루를 물을 넣고 반죽을 한다. 이 때 반죽은 너무 묽게 해서 안 된다. 누룩 틀에 개어 넣을 때 반죽이 흘러내리기 때문이다. 상품의 누룩을 얻기 위해서는 타겐 통밀가루를 잘 빚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잘 빚은 반죽을 누룩 틀에 넣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놓아둔다. 그러면 곰팡이 씨와 효모 씨가 앉아 발효가 일어나고 비로소 누룩이 되는 것이다.

어머니는 늦은 저녁 맷돌을 준비하신다. 농사일과 집안일을 대충 마무리하면 시간은 아홉시를 훌쩍 넘어버린다.

삼과 술에 취하신 아버지는 벌써 잠이 드셨다.

그 날도 어김없이 아버지는 곤드레만드레 집에 들어오셨다. 나는 비틀거리는 아버지를 부축해 방으로 들어왔다. 우리 오남매는 아버지의 표정을 살폈다. 아버지는 열에 아홉은 굳은 표정이다. 평상시에는 안 그런데 꼭 술만 드시면 몹시 성난 사람처럼 차가웠다. 우리 오남매는 밥상 앞에 죽은 듯이 앉았다. 어떤 소리도 낼 수가 없었다. 아버지의 가쁜 숨소리만 방안을 맴돌았다. 술에 취하신 아버지의 숨소리는 언제나 불규칙했다.

“식사하세요?”

정적을 깨듯,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단지 그 말을 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밥상이 날아올랐다. 쏟아진 반찬들이 방바닥에 흩어지고 그릇들이 데굴데굴 방 안을 굴렀다. 우리 오남매는 아무 말도 못하고 엎어진 밥상을 바로 세우고 떨어진 그릇들을 밥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어머니는 방바닥에 널브러진 밥

과 반찬을 그릇에 대충 담고 행주로 훔쳤다. 방바닥에 떨어졌던 그릇들을 밥상 위에 모두 올려놓았을 때, 아버지는 또 밥상을 뒤엎었다. 그릇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방바닥에 떨어진 밥 톨 위로 어머니의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졌다. 울음소리도 없는 눈물방울이 방바닥에 닿자마자 납작 엎드린 우리 오남매의 가슴으로 빠르게 파고들었다.

저녁이 가까워지면 나는 대문 밖에서 아버지의 귀가(歸家)를 기다렸다. 그것은 기다림이 아니라 두려움을 확인하려는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아버지의 걸음걸이가 팔자 모양으로 비틀거리면 나의 가슴은 낮게 내려앉았다. 아버지의 술 노래가 또 시작됨을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술 노래는 늘 그렇게 시작되고 두 번 세 번 밥상이 날아간 뒤에 끝이 났다.

우리 오남매는 방바닥에 떨어졌던 밥덩이를 모아 허기진 저녁을 기웠다.

왜 아버지는 거의 매일처럼 술 노래를 부르셨을까? 그 술 노래 속에는 왜 밥상 높이의 옥타브가 존재하는 것일까? 나는 늘 그것이 궁금했다.

“엄마, 아버지 무서워유.”

내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하자 어머니는 그런 말 하면 못쓴다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희들은 아버지를 이해해야 한다고만 말씀하셨다. 전쟁 중에 부모 모두 잃고 묘조차 쓰지 못하고 고향 떠나 남으로 내려오신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자고만 하셨다.

나는 통밀을 맷돌에 타는 어머니 옆에 앉았다. 어머니는 맷돌을 돌리신다. 맷돌 돌리는 속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다. 빠르지도 느리

지도 않다. 통밀도 조금씩만 집어넣으시다. 많이씩 넣으면 빨리 끝날 것 같아 내가 한주먹 움켜쥐자 내 마음을 아시는지 그런다고 빨리 타는 게 아니라며 웃으시다. 나는 어머니의 맷돌 돌리는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언제 다 하셨는지 깨끗이 정리돼 있었다.

아버지는 어젯밤의 술 노래가 있었는지조차 모르고 어머니가 뜰에 놓아둔 맷돌을 원래 있었던 자리에 가져다 놓으시다.

농사거리가 많지 않았던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농사일을 맡기고 주로 낱품을 파셨다. 그래서인지 저녁이 되어 돌아오시는 아버지의 발걸음은 언제나 둔탁했다.

누룩 빛는 일만큼 중요한 것은 독을 고르는 일이다. 어머니는 술을 담글 때 양은이나 철제그릇은 사용하지 않으셨다. 산화(酸化)란 말을 아실 리 없는 어머니이지만 오랜 습관처럼 어머니는 항아리를 사용하셨다.

곡물은 그냥 멥쌀을 이용했다. 밥을 되게 해 고두밥을 만들어 그것을 넣었다.

중간 크기의 잘 씻은 항아리를 고방(庫房)에 놓고 금방 길어 올린 깨끗한 물로 술을 담그셨다. 누룩은 적당량을 넣어야 하는데 너무 많이 넣으면 술이 독하고 쓰단다. 숙성이 끝나면 삼베 자루에 넣고 짜낸다. 짜고 난 찌꺼기는 술 찌기미로 예전에는 그것조차 먹었다고 하는데 어머니는 소죽 끓일 때 조금씩 넣으셨다.

삼베자루로 짜낸 술은 숙성시킬 때 사용했던 항아리에 다시 옮겨 담는다. 이것으로 어머니의 술 빛기는 끝이 난다.

“성이 전화를 안 받는다야. 네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빨리 오드라.”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아버지가 외양간을 치다가 쓰러지셨다는 것이다. 나는 속으로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는 생각을 했다.

의사 선생님 진찰결과 간경화로 진단되었다. 술을 끊지 않으면 생명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단다. 아버지는 당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단주(端酒)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으로 아버지의 긴 술 노래도 끝이 나고야 말았다. 우리 오남매의 가슴을 옥죄던 두려움과 두세 번씩 얹어진 밥상을 치우시던 어머니의 속움음도 아버지의 간경화 진단으로 끝이 났다.

아버지는 더 이상 술 노래를 안 하신다. 아니 못하시는 것이다. 아버지를 둘러싼 한(恨)의 노래도 죽음을 목전(目前)에 두시고는 그 의미가 퇴색되고 만 것일까.

아버지의 술 노래가 사라지면서 또, 사라진 것이 있다. 그것은 어머니의 술 빚는 일이다. 아버지가 간경화로 더 이상 술 노래를 할 수 없게 되자, 어머니의 통밀 타는 맷돌소리도 사라졌다. 누룩 띄우는 냄새도 사라졌다.

어머니가 즐겨 술을 빚으신 것은 아버지의 속움음을 달래기 위한 당신만의 사랑법(法)은 아니었을까?

장려상

# 초록빛 회전의자

외할아버지는 가끔 내가 책상 앞에 앉은 모습을 보러 이층으로 올라오시곤 했는데, 언제나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살금살금** 올라와서는 갑작스레 회전의자를 **빙그르르** 돌려 놓았다. 그리곤 내가 **놀라는** 모양이라든지 할아버지를 보고 **웃는** 모습들을 아주 즐기시는 듯 했다.

-본문중에서-

남원 왕치초교  
정문환



## 초록빛 회전의자

살아가다보면 마치 사진을 찍어놓은 것처럼 머리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장면들이 남기 마련이다. 다시 생각해보면 별로 대수롭지 않은 사건인데도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고, 일생을 좌우할 큰 사건인데도 잊혀져 떠오르지 않는 건 그만두고 기억해내기조차 힘든 것도 있다.

나는 가끔 초록빛 회전의자를 떠올리는 버릇이 있다. 몹시 피곤한 날 이거나 많이 걸어서 다리가 아픈 날이면 으레 내 기억 속에서 그 의자가 떠오른다. 진초록빛 털로 뒤덮인 회전의자. 그 의자 위엔 커다란 창이 있고 옆에는 반짝이는 까만 돌들이 촘촘히 박힌 참으로 이상한 벽이 둘러 서있고, 그 벽 앞으로 어느 시골의 도서관처럼 책꽂이들이 나란히 늘어서 있는 밝고 환한 방이 떠오른다. 거기 가 앉으면 피곤함은 멀리 사라지고 내 온몸에는 초록빛 풀들이 돋을 것 만 같은 생각도 든다. 지금은 내 곁에 없는 그 의자가 내게는 유일한 안식처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의자는 나의 외할아버지가 내게 선물한 것이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을 때 부모님 곁을 떠나 외갓집에서 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 그런 나를 위해 외할아버지가 입학선물로 사주신 어른용 회전의자였다. 회전의자는 어마어마하게 큰 책상과 함께 이층 구석에 놓여졌다. 나는 그 큰 책상 앞에 놓여진 회전의자에 앉아 숙제를 하고 책을 읽었다. 외할아버지는 가끔 내가 책상 앞에 앉은 모습을 보러 이층으로 올라오시곤 했는

데, 언제나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살금살금 올라와서는 갑작스레 회전의자를 빙그르르 돌려놓았다. 그리곤 내가 놀라는 모양이라든지 할아버지를 보고 웃는 모습들을 아주 즐기시는 듯 했다.

그 당시 외할아버지는 책방을 하고 계셨는데, 무슨 책이든지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모조리 주문해서 나에게 가져다 주셨다. 그래서 이층의 내 방에는 책들이 무척 많아졌다. 그 중엔 일어나 영어로 된 책도 있었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말로 쓰인 소설책도 있었지만, 덕분에 나는 많은 책을 읽을 수 있었고 좋은 그림들로 꾸며진 그림책들을 보았다. 물론 그 크고 진초록빛 털로 감싸진 회전의자에 안기듯 앉아서 말이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른 후 외할아버지는 갑자기 암에 걸리셔서 생명이 위독하게 되었고, 나는 그 회전의자에 올라앉아 먹지도 잠자지도 않고 울면서 외할아버지가 낮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러나 내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나는 그 의자에 앉은 채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의자를 밀치고 나가 가출을 해버렸다. 하루를 꼬박 밖에서 지내고 그 다음날의 반나절을 더 보냈다. 지금도 가끔 “너 그때 집을 나가 어디 가서 뭘 했나?”라며 어른들이 물어 오시지만 나는 통 기억이 나질 않는다. 그 의자에서 할아버지의 부음을 엿들던 순간은 선명한 사진처럼 떠오르는데 그 다음 하루 반나절은 도통 생각이 나질 않는다. 다만 다시 집으로 돌아와 놀란 어른들의 시선 속에서 그 의자에 앉아 우표책을 넘기던 기억만 떠오른다. 그 우표책에는 외할아버지가 모아 주신 진귀한 우표들이 꽂혀 있었다. 거래를 위해 오고간 편지들에서 얻은 우표들, 특별히 사다주신 것들, 외국 우표들과 크리스마스썰들, 나는 우표책만 열심히 들여다보았다.

얼마 후 나는 부모님을 따라 전학을 하게 되었다. 외할아버지와 내가

살던 집은 외할아버지의 유일한 상속인이었던 엄마에 의해 처분되었고, 가게에 꽂혀 있던 책들도 어디론가 실려가 버렸다. 그리고 부엌살림들과 외할아버지 옷가지도 어디론가 실려 가고 얼마는 태워졌다. 나는 내 책과 책상과 회전의자만큼은 하나도 손대지 말아야 된다고 누누이 말했고 소리치며 때도 썼지만, 작은 방에 내 짐이 너무 많다는 이유와 이사 갈 집엔 이미 새로운 책과 책상과 의자가 있다는 이유로 나의 요구는 묵살되었다. 그래도 나는 의자에 앉아 울고불고 소리쳤다. 그러자 엄마는 나를 내보내라고 가게 점원이었던 아저씨에게 소리쳤고 나는 그 아저씨의 가슴에서 바둥거리며 밖으로 내몰렸다.

내 책과 책상과 초록빛 회전의자는 내가 다니던 학교에 기증되었다. 나는 전학하던 날 인사를 하러 엄마와 학교에 갔다가 도서실에 쌓인 내 책들과 교장실에 놓여진 의자를 보았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과 함께 내가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운동장으로 걸어 나가는 내내 울었다. 엄마는 내가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보다 의자가 더 아까운 모양이라고 하셨지만 웬지 모르게 북받치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다. 그런 후 난 이사한 집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얇은뱅이 책상을 보았지만 울지 않았다. 곧 새로운 생활과 환경에 익숙해지고 회전의자 같은 것은 모두 잊어버렸다.

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 나는 TV에서 엄마 잃은 원숭이가 초록빛 털조각을 엄마 삼아 기대고, 가슴에 품으며 입 맞추고 사랑하는 것을 보았다. 그때 내게 홀연히 한 의자가 떠올라왔다. 진초록빛 털이 잔잔하고 보드랍게 깔린 회전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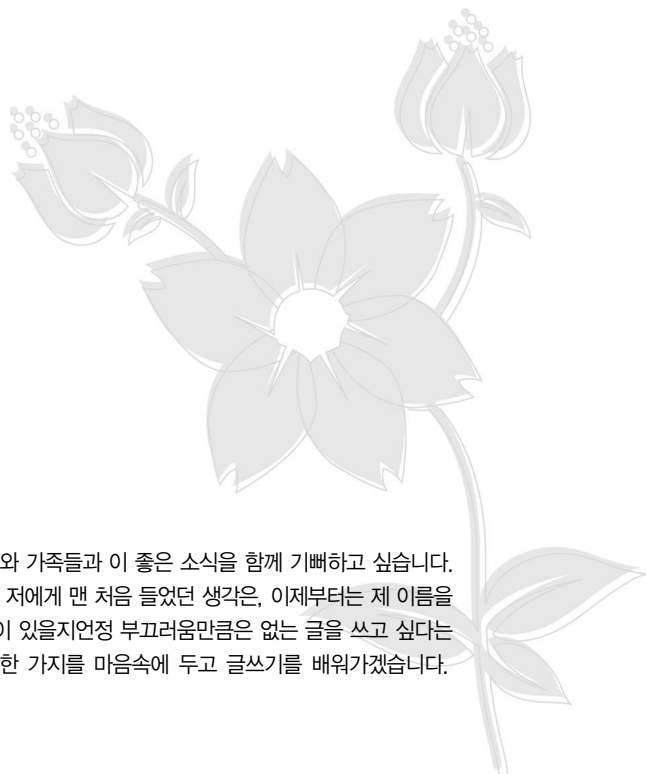
그 이후 나에겐 그 의자가 가끔 떠오른다. 어느 날인가는 엄마와 함께 가구점에 불일이 있어 따라나섰다가 여러 군데에서 그와 같은 의자를



찾아보았지만 허사였다. 그런 구식 의자도 드물었지만, 너무 작거나 큰 편이었고 또 비슷한 것에도 예전의 보드라운 질감을 느낄 수는 없었다. 지금 그 진초록빛 회전의자는 어디에 있을까? 아직도 그 학교 어딘가에 있을까? 아니면 태워져 재가 되어 날아갔을까?

의자는 지나간 시간처럼 사라졌지만 그 모습은 내 마음의 눈에 찍혀 머리 속 사진첩에 언제나 남아있다. 그래서 내가 피곤함과 곤혹스러움과 시끄러움에 찌들어 버린 날, 슬그머니 나타나 나를 안아줄 듯 빙그르르 돈다. 그리고 이제 막 돌아난 아기풀처럼 부드러운 털들을 일으켜 아늑한 품을 열듯 진초록빛 털들을 반짝인다.

항상 제 곁에서 힘이 되어 주는 아내와 가족들과 이 좋은 소식을 함께 기뻐하고 싶습니다.  
수상이 결정되었던 소식을 듣는 순간 저에게 맨 처음 들었던 생각은, 이제부터는 제 이름을  
달고 나오는 글에 비록 부족함이 함이 있을지언정 부끄러움만큼은 없는 글을 쓰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다가오는 날들엔 그 한 가지를 마음속에 두고 글쓰기를 배워가겠습니다.



장려상

# 코뚜레

오늘에서야 난 비로소 어머니 마음을 알게 되었고,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되었다. 그동안 난 이사할 때마다 현관 앞에 코뚜레만 걸어 놓을 줄만 알았지, 그 코뚜레가 주는 의미도 모른 채 살아온 지난 삶을 어머니께 용서를 빌며, 오늘 이 공간에 조심스레 꺼내 놓는다. -본문중에서-



서울지방경찰청기동단  
채중석



## 코뚜레

지난밤 잠을 설 친 탓인지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이 되어서야 난 깜짝 놀라 잠에서 깨었다.

‘아차, 지각이 구냐. 순간 불안한 마음이 앞섰다. 세수를 하는 등 마는 등 부리나케 가방을 챙겨 메고 출근을 하기위해 현관문을 나설 무렵, 인사를 하러 떠나나서던 초등학교에 다니는 작은 녀석이 현관 문 앞에 선 나를 불러 세웠다.

“아빠, 근데 저게 뭐야?”

작은애가 가리키는 손을 따라 가보니 그건 다름 아닌 ‘코뚜레’였다.

“아, 저거 소코뚜레라는 거야”

내 말이 끝나기 무섭게 작은 애는 다시 바쁜 출근길을 가로막으며, 이상하다는 듯 계속하여 질문공세를 펼쳤다.

“아빠, 근데 왜 저기에 저걸 걸어놓은 거야?”

더 이상 할 말을 잃은 난 늦었다는 핑계하나로 일축하고

“다음에 퇴근해서 말해 줄께”라는 말로 얼버무린 채 도망치듯 현관문을 빠져 나왔다.

사실 출근 시간도 출근 시간이었지만, 솔직히 난 그동안 소코뚜레를 왜 현관 앞에 걸어 놓았어야 하는지 정확한 이유를 모르고 있었다. 단지 12년 전 결혼식 때 어머니가 신문에 쓴 코뚜레를 내게 주시며 현관에

걸어놓으면 좋다고 말해 그동안 그 어떤 의미도 모른 채, 하나의 의무감 정도로 여겨 대수롭지 않게 현관 앞에 걸어 둔 것이었다. 물론 결혼을 한지 12년이 지난 지금 그동안 몇 번의 이사가 있었지만, 그 때마다 나는 어머니께서 소중하게 간직하다 주신 것이었기에 잊지 않고 잘 챙겨 다닌 것이 사실이었다.

출근을 하여 사무실에 앉아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침 출근길에 아이 앞에서 주춤거리며 당황으로 일그러진 내 모습이 부끄러워졌다. 그동안 결혼하여 이집 저집 셋방을 전전하며 몇 번의 이사를 다니면서 잊지 않고 코뚜레를 챙겼고, 새집으로 이사를 하면 그때마다 제일먼저 현관 앞에 못을 박아 걸어놓긴 했는데, 오늘 아침 작은 애가 코뚜레에 대해 물어 봤을 때, 왜 거기에 걸어놓아야 하는지조차 설명할 수 없었던 내 자신이 한심스러웠다.

음~ 코뚜레를 현관에 걸어 두는 의미를 알아보긴 알아보아야겠는데, 그렇다고 코뚜레를 받은 지 12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시골에 계신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알아보자니 좀 황당해 하실 것 같고, 아무튼 난 할 수 없이 전화보다는 문명의 혜택을 맘껏 누릴 수 있는 오늘의 정보통신망을 칭찬하며,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된 지식을 탐색하기로 작정한 후 컴퓨터 자판을 조심스레 눌렀다.

‘코뚜레’란 세 단어를 넣자, 한껏 저장된 지식들이 창밖으로 주르르 흘러나왔다. 백과사전적 의미인 코뚜레를 비롯하여 코뚜레가 주는 의미, 코뚜레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무엇으로 만드는지 등등 정말 가슴 풍성한 가을날 농부의 기쁨을 간접적으로나 만끽 할 수 있었다. 물론 어릴 적 아버지께서 소를 많이 키웠기 때문에 소코뚜레를 어떻게 만들고, 무슨

나무로 만드는지 정도는 알고 있었다. 그런데 순간 나를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이 있었다. 그건 다름 아닌 오늘날 우리의 가슴속에서 사라져 가는 소코뚜레를 우시장에 가면 어렵게 구입 할 수 있는데, 그 가격이 많게는 한 개에 10만 원 정도 한다는 것이었다. 난 컴퓨터 지식 창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자세한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 내려갔다. 옛부터 우리 조상들은 소코뚜레를 현관이나 방에 걸어놓으면 액운을 막고, 복을 부르며 자손을 번창 하게 하는 등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여겨 소코에 걸고 있던 코뚜레를 부적처럼 걸어 놓았다는 것이다.

어릴 적 우리 집은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해 아버지께서는 인근에 있는 큰 목장에서 무상으로 송아지를 분양받아 키운 뒤, 소가 성장하면 처음 분양 받았던 목장에 돌려주고 키워준 대가로 돈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왔었다. 온 가족이 한마음 한 뜻이 되어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 외양간을 짓고, 소나무를 베어 말뚝을 만들어 박은 뒤, 소 한 마리 한 마리가 들어 갈 수 있도록 칸을 막아 어렵게 축사를 만들어 정성하 나로 소를 키웠다. 처음 송아지 때는 어리기 때문에 그런대로 관리하기가 괜찮았지만, 소가 커가면서 한 축사에서 열 마리가 넘는 소를 관리하기란 정말 힘이 부쳤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소가 크기 전에 송아지의 코를 뚫고 코뚜레를 하여 힘센 소들의 자유를 통제하였다.

화창한 봄날 아버지는 바지계가 없는 삐쩍 마른 지계를 등에 바짝 짊어지고 뒷산에 올라, 잘빠진 노간주나무를 자르고 가지를 쳐낸 뒤, 솔잎으로 불을 지펴 문근히 피어오르는 아궁이 불에 살짝 넣었다 꺼내 조심스레 흰 다음, 노끈으로 꿰뚫어 그늘에 말렸다. 며 칠 뒤 형태만 갖춘 소코뚜레가 꼬들꼬들 해지면 다시 꺼내 낮으로 겹질을 다듬고 사포

로 밀어 잘 빠진 코뚜레를 만들곤 하셨다. 덕분에 우리는 학교에서 돌아 오면 매일 같이 소꼴을 뵈러 동네 여기저기를 전전해야 했고, 그 때마다 소꼴 뵈는 일이 힘들었기 때문에 소에게 꼴을 먹일 때가 되면 장난기가 돌아 소코뚜레를 살짝 잡아당기며 괴롭혔던 기억이 있다. 그 때까지만 해도 우리 가족은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않았지만, 평범한 삶 속에서 별 다른 문제없이 가족들 모두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아왔었다. 그런 데 내가 중학교 1학년이 되던 초여름 어느 날,

그렇게 건강하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고, 손 쓸 겨를도 없이 아버지는 어머니와 우리 8남매 그리고 소 11마리만 남긴 채, 영영 돌아 올 수 없는 길을 가시게 된 것이다. 우리 가족에겐 청천벽력이었다.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에 열중하던 큰누나와 작은 누나는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한 채 돈을 벌기 위해 서울로 떠났고, 어머니와 형 그리고 나는 아버지가 하시던 소 키우는 일을 계속해야만 했다. 말이 소 키우는 일이지 아버지가 안 계신 상황에서 열 마리가 넘는 소를 우리 셋이 키운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 후 3년 정도 아버지가 남긴 곤간 유일한 유품이자 재산인 소를 정성으로 키우던 어머니는 내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소 키우는 일이 힘에 부치셨던지 더 이상 소를 키우질 못했고, 시골벽적 했던 외양간은 잡동사니나 넣어두는 허름한 창고로 전락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정들었던 소들이 떠난 쓸쓸한 외양간을 치우다 두엄 속에서 소코뚜레 4개를 찾아냈고, ‘이다음 아이들이 커서 결혼 할 때 주리랴’ 생각하며 몇 번을 물에 씻고 사랑과 정성으로 말리셨던 것이다. 아버지가 떠난 빈자리를 어머니 눈물과 그리움, 사랑으로 엮

어 코뚜레를 가슴으로 닦아, 15년의 긴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아무 탈 없이 자란 작은 아들의 결혼을 대견해하며 그동안 어머니 가슴속에 고이 간직하고 있던 명주실로 꿰뚫은 소코뚜레를 하얀 미소로 포장해 살며시 방바닥에 내려 놓으셨던 것이다. 오직 자식들의 앞날을 위해 그 누구의 말에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만 고집하며 살아온 어머니! 아버지와 소들이 떠난 빈 외양간 한 구석 두엄 속에 묻혀 잊혀져가던 아버지의 꿈과 땀이 서린 코뚜레를 찾아, 어머니는 사랑과 그리움으로 엮어 15년 동안 가슴에 삭혀 까맣게 퇴색된 코뚜레를 정성으로 담아 나에게 주셨던 것이다.

그동안 코뚜레가 주는 의미도 모른 채, 단지 어머니가 주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의무감 정도로 여기며 현관 앞에 걸어 놓았던 코뚜레!

오늘에서야 난 비로소 어머니 마음을 알게 되었고,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되었다. 그동안 난 이사할 때마다 현관 앞에 코뚜레만 걸어 놓을 줄만 알았지, 그 코뚜레가 주는 의미도 모른 채 살아온 지난 삶을 어머니께 용서를 빌며, 오늘 이 공간에 조심스레 꺼내 놓는다.

어머니는 그동안 보이지 않는 내 등 뒤에서 아무 말 없이 끝없는 사랑을 담아 주고 계셨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큰 딸과 세상에서 가장 멋진 아들을 내게 안겨 주셨던 것이다. 그리고 결혼 10년째 되던 날, 어머니의 코뚜레는 보너스로 작지만 내게 그 무엇보다 소중한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를 마련 할 수 있는 행운을 주었던 것이다.

사랑은 돈으로 취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성으로 여울진 파스한 훈기를 아무런 조건 없이 줄 때 그것이 곧 사랑이 아닐 까 한다. 이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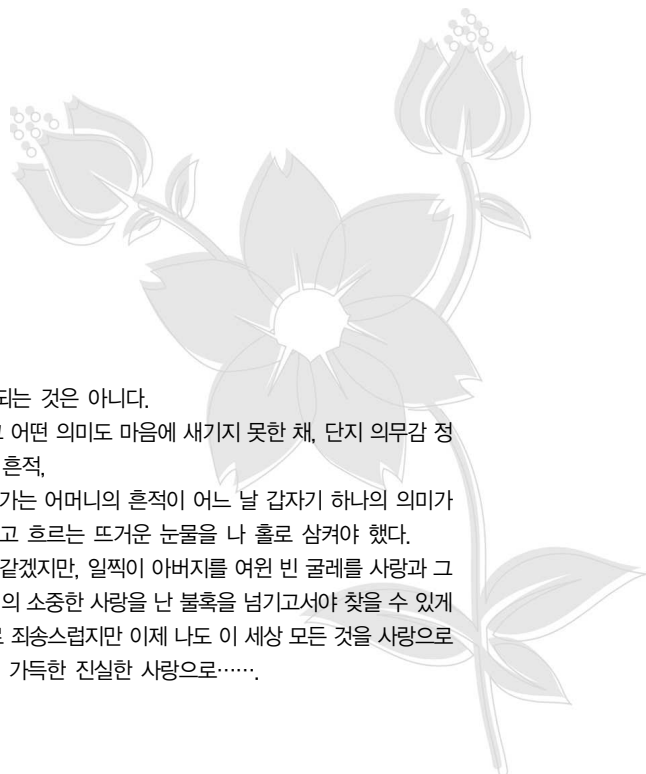


상모두의 어머니 마음은 한결 같겠지만 어머니의 코뚜레는 내게 사랑  
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 주었다.

날씨가 제법 따스해지고 있다. 이번 주말에는 자식들이 떠난 빈자리를  
외로이 지키고 계시는 어머니의 따스한 품속을 찾아야 할 것 같다. 어머  
니와 단 둘이 도란도란 코뚜레 얘기도 나누고, 앞 산 소쩍새 소리 들으  
며 어제의 추억을 주섬주섬 마음에 담아오고 싶다. 오늘 퇴근길은 아마  
도 행복 할 거란 생각을 한다. 따스한 봄빛에 성근 싱그러운 풀잎처  
럼…….

\* 코뚜레 : 고삐

사랑이란 달콤한 언어에 의해 생성되는 것은 아니다.  
어머니가 주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의미도 마음에 새기지 못한 채, 단지 의무감 정  
도로 여기며 걸어 두었던 어머니의 흔적,  
고단한 삶이란 변명하나로 퇴색해져가는 어머니의 흔적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의 의미가  
되어 내게 찾아 왔을 때, 가슴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눈물을 나 홀로 삼켜야 했다.  
이 세상 어머니들 마음 모두는 한결 같겠지만, 일찍이 아버지를 여윈 빈 굴레를 사랑과 그  
리움으로 채워 오늘을 잉태한 어머니의 소중한 사랑을 난 불혹을 넘기고서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으론 부끄럽고, 한편으로 죄송스럽지만 이제 나도 이 세상 모든 것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을 것 같다. 따스한 훈기 가득한 진실한 사랑으로…….



장려상

# 포옹

경산 신상초교  
백금태

'생각하는 사람'을 조각하던 로댕이,  
도자기를 빚던 어느 도공의 진지하  
던 삶이 **아이의 눈망울**  
에 어린다. 나는 아이가 만든 공룡  
에 칭찬의 열을 올렸다. 선생님한  
테나 아이들한테나 항상 **미운**  
**오리새끼**였던 아이가 **선**  
**생님의 칭찬**을 받는 게  
익아스러운지 **아이들**  
**의 눈동자**가 초점을  
잃은 듯 방황한다.

-본문중에서-



## 포옹

“선생님. 이거.”

아이가 아이스케이크를 내밀었다. 줄줄 녹아내린 아이스케이크가 아이의 손등을 타고 똑똑 떨어져 바닥에 흥건하다. 반쯤 남은 아이스케이크마저 후끈한 열기에 견디다 못해 막대기에서 미끄러져 ‘철퍼덕’ 바닥에 퍼드러진다.

천장에 매달린 선풍기가 35명의 열기에 힘겨운 듯 흐느적거리는 수업 시간이었다. 아이들은 이마에 흐르는 땀을 훔치며 찰흙으로 상상의 동물을 만들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호랑이 같은 사자, 뿔 달린 토끼, 날개 단 강아지, 하늘을 나는 공룡…… 아이들의 머리 속은 상상의 바다가 너울댄다. 아이들의 손놀림에 희한한 동물들이 책상 위에서 꿈틀댄다. 만들기 수업이 막바지로 이어지고, 마지막 숨결을 동물들에게 불어 넣고 있는 아이들의 손길이 바쁘기만 하다.

한 아이가 만든 것을 찰흙 판에 얹은 채 앞으로 들고 나왔다. 교과 공부도, 그림 그리기도, 모든 것이 2학년 수준에는 함량미달인 아이였다. 아이가 내 책상 위에 찰흙 판을 놓았다. 정교하게 조각된 우툴툴한 등, 아래, 위턱의 날카로운 이빨, 예리한 발톱과 굵고 억센 꼬리를 휘두르며 금방이라도 달려들 것 만 같은 티라노사우루스를 닮은 공룡이 찰

흙 판에 버티고 있었다. “와!”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며 아이를 껴안았다. 그 소리에 놀란 아이들의 시선이 한 몸이 된 우리 둘에게 모아진 채 멸똥거렸다. 사위(四圍)는 선풍기의 날개만이 흐느적거릴 뿐 아이들의 숨소리조차도 멈춘 듯했다. 영문도 모른 채 팔딱거리는 아이의 새가슴의 울림만이 공룡의 심장소리처럼 쿵쿵 굉음을 내며 내 가슴으로 전이 되어 왔다. 아이의 혼이 꿈틀거리는 소리다. ‘생각하는 사람’을 조각하던 로댕이, 도자기를 빚던 어느 도공의 진지하던 삶이 아이의 눈망울에 어린다. 나는 아이가 만든 공룡에 칭찬의 열을 올렸다. 선생님한테나 아이들한테나 항상 미운 오리새끼였던 아이가 선생님의 칭찬을 받는 게 의아스러운지 아이들의 눈동자가 초점을 잃은 듯 방황한다.

신은 인간에게 공평함을 베풀었나 보다. 축구를 잘 하는 사람,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 공부를 잘 하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재능을 골고루 나눠준 것 같다. 물론 재능을 다른 이보다 더 가진 사람도 있으리라. 하지만 ‘굼벵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는 말처럼 남이 보기엔 모자라고 어설퍼 보이지만 그래도 어느 구석엔가 재능은 숨겨져 있는가 보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는 아니었다는 뉘우침에 가슴에 시린 바람이 인다. 나는 속죄하듯 아이를 감싸 안은 두 팔에 힘을 가한다. 나를 올려다보는 아이의 눈빛에 언뜻 스치는 파사로움. 아이는 쑥스러운 듯 몸을 비틀며 내 품을 벗어났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아이의 발걸음이 의기양양하다 못해 쿵쿵거린다. 제자리에 앉은 아이는 연신 빙글거리며 평소에는 나 몰라라 했던 뒷정리를 하느라 펄떡거린다. 아이를 바라보는 다른 아이들의 눈길도 사뭇 달라진 듯 부드럽다.

아이의 학기 초에 전학을 왔었다. 책가방을 대신 든 어머니를 앞세우

고 졸라졸라 따라오는 품이 예사롭지 않았다. 웬지 나사가 조금 덜 조인 것 같다고나 할까.

“나는 공부 못하는데.” 아이가 나와와 첫 대면에서 어눌한 발음으로 내뱉은 반말이었다. 아이가 온 이후 교실은 연일 전쟁터였다. 창문턱에 놓인 화분은 바닥으로 내 뺨개쳐지기 일쑤였고, 복도의 하얀 벽에는 수백 마리의 공룡이 지나간 듯 아이의 발자국으로 벽화가 그려졌다. 부모님이 집중력을 기른다면 아이를 태권도 학원에 보낸 덕이었다. 공부는 아이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지 오래인 듯 가방 속에는 장난감과 과자 봉지만 수두룩했다. 고개를 들면 아이의 자리는 텅그러니 비어 있곤 했었다. 수업시간이 휴식시간이고, 휴식시간이 수업시간이었던 아이는 교문 앞 가게의 문지방을 씌 없이 넘나드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으리라. 아이는 점점 더 내 눈밖에 나기 시작했고 반 아이들도 그를 미운 오리새끼 대하듯 따돌렸다. 무인도에서의 생활인 양 아이는 혼자 웃고 혼자 이야기하며 지루한 하루해를 메워 나갔다. 심심해진 아이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아이들에게 장난을 걸었다. 하지만 그를 얹잡아 본 아이들이 가만히 있을 리 만무했다. 아이는 덩치를 믿어보았지만 떼거리로 몰려드는 아이들을 대적하기란 그리 녹록치 않았다. 밀려오는 세찬 물살에 바둥거리는 개울가 수초처럼 아이 혼자의 힘으로 버티기에는 버겁고 외로운 싸움이었다. 그러나 우직스런 아이는 지칠 줄 몰랐고 몸은 생채기가 늘 어만 갔다.

떨떡거리던 교실 뒤쪽이 허전했다. 어느새 아이의 자리가 또 빈 것이다. 덩치가 반에서 둘째 하라면 서러운 아이였기에 아이가 난 자리는 더 크게 보일 수밖에 없었다. 무더위로 교실 앞, 뒷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아이는 내 눈을 피해 교실 밖으로 빠져 나간 것이었다. 그때서야 아이 몇몇이 그가 방금 문을 나섰다는 언질을 내게 보냈다. 나는 아이가 사라질 때면 하던 버릇대로 창문 너머로 목을 쪽 뺨 채 아이를 찾았다. 아이는 축지법을 쓰듯 어느새 교문 밖 가게 안으로 등을 감추는 순간이었다. 나는 조금 전의 칭찬에 대한 배신감에 속이 울렁거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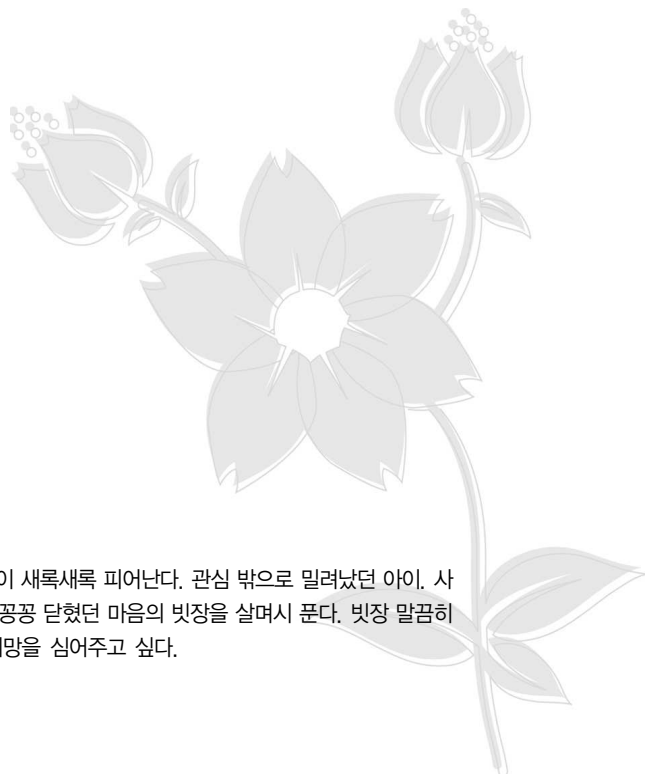
아이가 뒷문으로 들어섰다. 나는 아이를 복도로 쫓아 낸 후 문고리를 걸었다. 뒷문에 매달린 아이의 애타는 눈빛이 말간 유리를 넘어 내 눈동자를 자극했지만 나는 못 본 척 눈길을 돌렸다. 아이가 문을 두드렸다. 나지막하고 느릿하던 소리는 점점 더 강도와 속도를 더해 갔다. 나는 화를 참지 못해 문을 열었다. 아이의 손에는 아이스케이크가 들려 있었다. 한여름의 열기에 견디다 못한 아이스케이크는 줄줄 녹아내려 아이의 손등을 타고 바닥으로 툭툭 떨어졌다. 아이는 눈물 그렁그렁한 눈망울로 나를 쳐다보며 불쑥 아이스케이크를 내밀었다.

조금 전, 선생님의 품에 안겨 올려 다 본 아이의 눈에는 선생님의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방울이 보였나 보다. 자기가 먹었던 시원한 아이스케이크가 생각났으리라. 아이는 한달음에 가게로 달려가 아이스케이크를 샀다. 군침을 목구멍으로 삼키며 아이는 교실로 들어섰다. 하지만 복도로 쫓겨난 아이는 녹아내리는 아이스케이크를 보며 가슴을 바짝바짝 태웠으리라.

아이의 손에 들렸던 아이스케이크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아이의 손에 남겨진 앙상한 막대기가 파르르 떨렸다. 아이가 ‘으앙’ 울음을 터트렸다. 바닥에 퍼드러진 아이스케이크를 보며 자기의 마음을 선생님께 전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속상한 것이었다.

“고마워, 고마워.” 나는 아이를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아이의 파스한

온기가 비단 천에 물 번지듯 내 마음으로 번져온다. 바닥에 흥건히 고인  
아이스케이크에서 아이의 쫘득한 정이 베어났다.



포옹! 따뜻함이 가슴에 흐른다. 사랑이 새록새록 피어난다. 관심 밖으로 밀려났던 아이. 사  
랑에 목말랐던 아이. 따스한 포옹에 꿈꿨던 마음의 빗장을 살며시 푼다. 빗장 말끔히  
걸어낸 아이의 작은 가슴에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싶다.





단편소설부분

최우수상

시계속에 갇힌 남자 \_ 최인근 \_ 129

우수상

겨울이 오는 시간 \_ 신성숙 \_ 151

담배꽃 \_ 이숙희 \_ 175

장려상

곶추의 꿈 \_ 이지은 \_ 197

비말 \_ 김기정 \_ 221

어머니의 땅 \_ 김갑식 \_ 239

어머니의 자리 \_ 권영이 \_ 263

임플란트 \_ 김은주 \_ 281

황사 \_ 박상식 \_ 305





최우수상

# 시계속에 갇힌 남자

아이의 흔적이 물 속으로 번졌다. '습관성' 이란

말이 습관처럼 귓전을 맴돌았다. 듣기에

거북한 말이었지만, 우리 형편을 그대로 대변해주는

말이었다. -본문중에서-

부산광역시 반송중  
최인근



## 시계 속에 갇힌 남자

병실을 나서는데 자꾸 몸이 휘청거렸다. 다리에 힘을 주면서 호흡을 조절했다. 바깥 마른입에서 구취가 심하게 나는 것 같아 손수건을 꺼내 헧바닥을 문질렀다. 마스크꺼움이 더해지면서 현기증이 일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벽을 의지하며 조심스럽게 화장실로 들어갔다. 수도꼭지를 돌리면서 거울을 보았다. 잔주름이 자글자글한 눈에 눈물을 가득 담은 여자가 내 눈을 마주하고 서 있다. 습관성 유산이에요. 불현듯 의사의 말이 생각났다. 습관성. 한 생명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일이 습관성이라니. 그들의 언어는 참 잔인하기도 하다. 찬물에 입을 여러 번 헹궈내고 나니 정신이 좀 들었다. 수술 탓에 일그러졌던 눈매를 바로잡고 나서 휴대폰의 단축키를 눌렀다. 신호가 한참 가는데도 받지 않는다. 그는 여전히 외출 중이다.

심한 일교차 덕분에 소매가 길어졌을 뿐, 도로에는 열기를 뿜어내던 여름의 기운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길을 걸어 지하철역까지 가는 동안 온몸이 후끈거렸다. 보폭을 좁혀 되도록 땀이 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썼다. 지하철을 타고 내리면서 자주 다리에 힘이 풀렸다. 흘끔흘끔 돌아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갓을 올리고 목을 움츠렸다. 숨이 막히고 땀이 서렸다.

지하철 출구를 나오는데, 벽을 따라 머리 위에 큼직한 번호를 단 얼굴

들이 걸려 있었다. 지방선거에 나온 사람들이었다. 번들번들 빛이 나는 그 얼굴들 아래로, 약력들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다. 그들의 면면을 확인하며 걸었다. 안면이 있는 사람이 절반을 넘었다. 마지막 얼굴을 스치면서 그 뒷자리에 남편의 얼굴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다.

미역을 샀다. 다른 것을 넣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생각에 입술을 물고 참았다. 휘청거리는 다리를 간신히 붙들어 골목길로 향했다. 답답한 벽돌담으로 둘러싸인 골목에는 늘 퀴퀴한 바람이 불었다. 바람 속에는 어두컴컴한 밤중에 우르르 몰려다니는 구둣발 소리도 섞여 있었고, 대학 후문에서 터진 최루탄 냄새도 섞여 있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바람 속에 담겨오는 그 소리와 냄새는 없어질 것 같지 않았다.

대학 시절, 내가 살던 자취집에는 골목길 중간부분에 뒷문이 있었다. 집을 에워싼 블록담을 헐어내고 거기에 문짝과 문을 끼워 넣은 것이었다. 그 문을 들어서면 바로 부엌문이었다. 부엌문에는 밤마다 바람이 불었다. 문틈에 끼어든 바람이 격렬하게 몸부림칠 때는 무서워서 밤새 떨기도 했다.

그날은 도서관에 사람이 별로 없었고, 열람실에 있던 사람들도 급히 나가는 게 좀 어수선했다. 그래서 나도 황급히 책을 챙겨 도서관을 빠져나오는데 최루탄 냄새가 코를 찔러왔다. 경찰이 캠퍼스 안으로 진입한 것이었다. 정문으로 가지 못하고 서둘러 후문을 빠져나왔다. 몇 차례의 검문을 거쳐 겨우 자취방으로 향하는 골목으로 들어서는데 어둠 속에서 튀어나온 그가 나를 붙잡았다.

부엌문을 열고 닫는 짧은 순간과 그 뒤에 이어지는 무자비한 발자국 소리. 어디선가 들려오는 고함소리와 비명소리. 그리고 문틈에 끼어 발

작적으로 울어대는 바람소리에 얼마나 질려 있었는지 모른다. 땀으로 후줄근하게 젖은 몸으로 웅크리고 있던 그는, 문틈에서 불어대는 바람소리가 잦아들고 나서야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공과대(工科大)를 다니고 있었고 나보다 두 학년이 빨랐다.

그 후로, 그는 위기가 있을 때마다 내 자취방을 찾았다. 나는 그를 기꺼이 내 안의 세계로 맞이들였고, 그가 전해주는 많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급진적이었고 때로 파괴적이었으며 피아(彼我)의 구분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양분하는 특별한 재주를 가지고 있었다. 나는 차츰 그가 ‘우리들’이라고 말하는 일군의 부류에 포함되었고, 그가 가진 판단과 가치를 내 의식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였다.

돌이켜 보면 모두 시대 탓이었다. 무엇을 분별하기에는 정신이 없었고, 어떤 일을 놓고 앞뒤를 재어 볼 여유조차도 없었다. 그저 합성소리에 휩쓸렸다가 정신을 차려보면 이해할 수 없는 구석에 처박혀 있던 시대였다. 모두가 한쪽으로 달려가던 시대였고, 한 번 휩쓸리면 쉽게 돌아설 수 없는 시대였다. 그 때의 그는, 그 시대를 앞서나가는 사람 중의 하나였다. 그래서 그에게는 늘 긴장과 불안이 따라다녔다.

비딱하게 기울어진 문은 그대로였다. 한쪽 찌귀가 헐거워져 있는 것을 여러 번 고쳐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는 들어주는 척도 하지 않았다. 집을 나서기 전에도 문을 닫다 모서리가 받히는 것을 손바닥으로 탕탕 쳐서 밀어 넣었다. 안에서 그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문을 열어 불을 켜고 그의 신발을 찾았다. 부엌바닥과 잇닿은 섬돌에는 그의 운동화가 뒤꿈치 부분이 구겨진 채 흐트러져 있었다. 외출했던 그가 돌아온 모양이었다. 외출을 할 때는 구두를 신으라고 부탁도 하고,

발을 딛기 좋은 곳에 구두를 두었지만 그는 꼭 운동화를 고집했다.

미역을 풀어 양푼이에 담아놓고 방문을 옆으로 당겼다. 조심해서 당긴다고 당겼는데 바닥이 매끄럽지 못해 소음이 일었다. 열리는 문틈으로 자욱한 담배연기가 쏟아져 나왔다. 퀴퀴한 냄새도 섞여 있었다. 그는 이 불도 꺼지 않은 방에 오그린 채로 누워 있었다.

“저녁이면 쌀쌀해지는데 보일러도 안 켜고……. 그러다 감기 들면 어찌러구.”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면서 이불장을 열어 담요와 베개를 끄집어냈다.

“됐으니까 그냥 뒤.”

“바닥이 차갑잖아.”

그가 돌아누웠다. 며칠째 감지 않은 머리카락이 지저분했다. 후줄근한 추리닝 바지에, 런닝이 비쪽 튀어나온 어깨. 손가락 마디만큼이나 자라 버린 턱수염. 그런 그에게서 지하철 주위를 맴도는 노숙자 냄새가 났다. 어쩌다 저렇게 된 것일까? 그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았다. 그의 행색 어디에도, 주먹을 불끈 쥐고 포효(咆哮)하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낮에 어디 갔었어?”

베개를 밀어주면서 물었다.

“갑갑해서 잠시 나갔다 왔어.”

“어디?”

“대학가에.”

베갯잇을 다져주다 나도 모르게 쿵 웃음을 물었다.

“그 물골을 하고서? 사람들이 안 쳐다 봐?”

“…….”

“꿈쩍도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졸업해서 별 볼일도 없는 대학에는 자

주 가네. 누구 만나는 사람이라도 있어?”

그가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불을 덮어주면서 슬쩍 그의 얼굴을 훑쳐 보았다. 혹시, 젊은 애인이라도 생긴 건가? 그러나 그런 기색은 보이지 않았다. 하긴, 저런 꼬락서니로 여자를 만나러 갔을 리가 없다.

“가서 뭐하고 왔는데?”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고 왔어.”

“혼자서?”

“응.”

“무슨 청승이람.”

막대모양의 옷걸이가 놓인 귀퉁이에 돌아서서 옷을 벗었다. 비린내가 코끝으로 스며들었다. 냄새가 통증을 자극했다. 배를 비틀어 쥐면서 간신히 옷을 갈아입고 방을 내려왔다.

미역을 물에 담가 불려놓고 쌀독에서 쌀을 퍼냈다. 쌀을 씻어 밥솥에 넣고 미역을 거칠게 문질러대는 동안, 침잠해 있던 상념이 서서히 고개를 들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의 모습이 설핏하게 스쳤다. 잘 차려입은 옷과 비싸 보이는 장신구들,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그 얼굴들이 나를 압도했다. 그들은 내가 사는 모습을 보고 동정어린 눈길을 보냈었다.

- 오늘은 그냥 못 넘어가.

- 그냥 못 넘어 가면? 뭐라고 그에게 말을 붙이지?

-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 줄까? 그러면 뭔가 달라지는 게 있을까?

결론이 없는 생각들을 피상적으로 건져 올리며 증기를 뿜어대는 밥솥 앞에 한참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국이 끓었다. 상을 꺼내 다리를 젖혀 바닥에 놓았다. 기우뚱한 밥상은



모서리가 헤진데다 표면은 광택을 잃었다. 신혼초에 마련한 것이었는데, 벌써 10년 넘게 쓰고 있다. 어떤 때는 앓은뱅이책상으로, 그의 옛 동지들이 찾아올 때면 술상으로 쓰이던 것이었다. 거기에 마늘장아찌와 김치를 놓고 가운데에 국 냄비를 그대로 얹었다.

“일어나서 밥 먹어.”

상을 올려놓고 그를 불렀다. 그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평소에는 그런 그를 아이를 다루듯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지만, 오늘은 그러고 싶지 않았다.

“어이, 민주투사 양반. 이 불쌍한 মানুষ하고 투쟁하지 말고, 좋은 말로 할 때 일어나서 밥 먹어. 이 땅의 기층민중들 다 구제해 내려면 먹어서 힘을 내야지. 왕년에 운동했던 사람들 욕하는 것도 먹어야 할 거고, 그 사람들 만나서 악을 쓰고 비난하는 것도 먹어야 해.”

“뭐하는 거야?”

두어 번 뒹굴던 그가 짜증스럽게 이불을 걷었다. 양팔을 거북이처럼 펼치고 엉거주춤 일어나는 그의 동작은, 병상(病床)에서 일어나는 중환자처럼 굼뻤다. 세수를 하지 않은 얼굴에 눈썹이 그대로 박혀 있고, 군데군데 마른버짐도 피어 있다. 고개를 숙이면 비듬과 버짐들이 밥그릇에 외수수 떨어져 내릴 것 같다. 이런 사람을 손님으로 받는 커피숍도 있나? 그런 생각을 하며 상을 당겨 탁 앞에 가져다 놓고 손가락도 잡기 좋은 자리에 가져다 놓았다.

“반찬 투정하지 말고 그냥 먹어.”

“미역국이네. 생일이야?”

미역이 가득 든 국 냄비를 본 그가 느릿한 음성으로 물었다.

“내 생일은 2월이잖아.”

“아, 그렇지.”

그가 민망한 듯 푸시시 웃었다. 누르끼한 앞니가 드러났다. 양치하는 모습을 본 지가 일주일은 넘었다. 얼굴을 가까이하면 텅텅한 입 냄새와 니코틴 냄새가 그대로 끼쳐왔다. 그런데도 그는 스스로 불결해 하지도 않았고, 미안해하지도 않았다. 밥을 먹는 동안 그는 말이 없었다. 나도 그런 그의 분위기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먹는 것에만 열중했다. 유산된 몸이 자꾸만 걸려, 그가 국물을 떠낸 자리를 찾아 미역을 건져냈다. 머리 속으로 습관성이란 말이 떠돌아다녔다. 이젠 그 습관성을 깨트리 버리고 싶었다.

“어제, 당신 또 어디 나가고 없을 때, 친구들이 잠깐 왔다갔어. 학원 일을 찾다 연락이 됐는데, 꼭 우리 집에 와 보겠다는 거야. 어떻게 사는 지 궁금하다고. 근데, 개들이 내가 사는 것 보고 몹시 놀라더라.”

밥을 다 먹고 난 그가 물을 마실 때, 마음속에 버려왔던 말을 꺼냈다.

“친구들 누구?”

“응. 우리 과(科) 동기들. 당신도 알 걸. 은수랑 경숙이. 둘 다 결혼식 장에도 왔었잖아.”

“개들이 왜 놀래?”

평소에는 대꾸도 잘 않던 사람이 긴장하는 눈치를 보였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는 신경이 쓰이는 모양이다.

“별 말은 아니고, 늘 듣는 소리들이지 뭐. 이런 좁아터진 집에서 어떻게 지내냐고, 한심하다느니, 지지리 궁상이라느니……. 개들은 다 아파트 샀대. 분양받았는데 요즘은 가격도 많이 올라서 재미도 보나 봐.”

“부러웠어?”

그의 눈이 날카롭다. 마치 탐색을 하는 듯하다.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 나도 여자야. 잘 사는 애들 보면 부럽지. 나도 좀 그렇게 살아봤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동자들 나무랄 게 아니군.”

“미안해. 맞아, 나 속물이야.”

그러고는 얼른 상을 안고 방을 나왔다. 부엌으로 내려와 병원에서 가져온 약을 입에 넣고 물을 따르는데 갑자기 서러움이 복받쳐왔다. 아이를 잃은 게 너무 속상했다. 그에게 희망이라는 단어를 새겨줄 수 있는 기대가 자꾸 사라져가는 것 같아 괴로웠다. 그래서 그런지 약이 목구멍에 걸려 가슴을 두드렸다. 간신히 알약이 넘어가긴 했지만 코끝이 매웠다.

그는 방 한쪽에 우두커니 앉아 담배를 피워 물었다. 몽클저리는 담배 연기는 창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방안에 차곡차곡 쌓였다. 벽지가 누렇게 물들고, 옷을 입으면 담배 냄새가 배어 있었다. 토굴 같은 방에서 그는 연기에 찌들어갔고, 나는 그 연기 속에서 꿈이 접힌 날들을 보냈다.

처음부터 그렇게 절망적이지는 않았다. 대학을 졸업한 그는, 시위 경력 덕분에 쉽게 취직이 되지 않았다. 그렇긴 해도, 쉽게 절망하거나 꿈을 꺾을 단계는 아니었다. 취업 철이 되면 원서를 얻을 수 있는 데까지 얻어서 제출해 놓고 학원 강사로 뛰어다녔다. 그리고 가끔 옛 동지들을 만나 술자리를 같이 하면서 지나간 일들을 되돌아보기도 하고, 사회의 변화에 자신들이 얼마나 공헌을 했는가에 대해 떠들어대기도 했다. 그들 중에는 이미 정치권에 진출한 사람들도 있었고, 이름 있는 시민단체의 간사를 맡거나 노조사무실의 중책을 맡은 사람들도 있었다.

계모임처럼 진행되던 그 만남은, 횡수가 더해지면서 조금씩 분위기가 달라졌다. ‘노선(路線)’에 따라 사람들이 나누어지기 시작했고, 그 나뉘는 곧 지루한 언쟁으로 이어졌다. 그러다 결국 모임의 말미에는 막말이

오가고 격한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지경에 이르렀다. 물론 그 싸움의 중심에 그가 있었다. 그는 모두가 위태롭다 싶을 때 거기에 불을 붙였다. 그리고 이 선만은 넘으면 안 된다고 모두가 조바심을 낼 때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선을 넘어섰다. 그는 모든 다툼의 출발지였고, 폭발의 근원이었다.

“아, 꼴 보기 싫으면 모임에 안 오면 되잖아. 그런데 왜 모임 한다고 하면 꾸역꾸역 모여들어서 염장을 질러대냐구. 우리가 깨지고 부서지고 피 흘리면서 앞장 설 때 지네들이 한 게 뭐야? 뭘 했냐구. 그래 놓고 지금은 자기네들이 다 한 것처럼 거들먹거리고들 말이야. 저것들은 민중을 해방시키려고 운동한 게 아냐. 자기네들 일산을 위해 운동한 거지. 에잇, 잘 먹고 잘 살아라, 썩은 것들아.”

술자리를 파하고 나면 그는 으레 그렇게 고향을 질렀다. 그리고는 정신을 완전히 잃을 때까지 술을 마셨다. 나는 그가 쏟아내는 말을 들어주기만 했고, 그가 잠들면 이부자리를 깔아주고 양말을 벗겨 주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면 숙 풀이를 위해 콩나물국을 끓였고, 셔츠에 묻은 얼룩을 지워 다림질했다.

얼마간 학원 강사를 하던 그는, 선배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으로 자리를 옮겼다. 학생들을 선동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그에게 강의시간이 배당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회사를 옮긴 그는, 1년을 못 넘기고 그 회사를 나와 버렸다. 노조에 파업을 선동하다 고발된 때문이었다. 그 후로도 여러 회사를 전전했다.

그가 그렇게 자리를 잡지 못하는 동안 세상은 무섭게 변해갔다. 그 변화는 과거에 묻혀사는 사람들이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빨랐다. 무선전화기가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고, 자가용 승용차가 주차공간이 모자랄 정

도로 늘어났으며, 인터넷이라는 것이 생겨나 지구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그 사이에 우리도 변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어정쩡하던 그와 나의 관계를 결혼이라는 끈으로 묶어 버렸고, 정착하지 못하는 그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소규모 미술학원의 파트타임 강사로 나섰다.

뿌리내리지 못하는 그의 생활은 결혼 후에도 습관처럼 지속되었다.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서 조금 안정이 되려나 싶으면 후다닥 털고 일어났다. 내 몸에 잠시 머물렀다가 허무하게 사라져가는 아이들처럼.

원인의 대부분은 사람들 사이의 다툼 때문이었다. 마음을 넓게 가지고 현실을 받아들여 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그는 오히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더 철저히 양분(兩分)했다. 뜻만 맞는다면 누구와도 쉽게 동지가 되었고, 그 뜻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금세 적이 되었다. 적이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우려고 들었다.

그가 그렇게 사는 동안,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차츰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정기적인 만남도 그를 피했고, 찾는 이도 드물어졌다.

올봄이었다. 노동계에서 한창 춘투(春鬪)가 벌어지고 있을 때, 그가 비틀거리며 대문을 들어섰다. 세 번째 아이를 자연유산으로 잃고 슬픔에 잠겨 있을 때였다.

“우리 마누라 실망시키는 소리를 또 해야겠구만.”

그리고는 히히거리며 힘겹게 웃었다.

“무슨 일이 있었어?”

“오늘 단위노조에서 나를 제명시키기로 결정했다더군. 결속력을 저하시키고, 노조원들끼리 불화를 야기한다면서.”

“그래서 또 회사를 그만 둔다고?”

“그럼 내가 노조와 싸워야겠냐?”

“왜 싸워? 그냥 타협하면 되잖아.”

“불합리한 분배임을 알면서도, 맞서 싸우지 못하고, 구걸하는 것들과는 대화가 안 돼. 파업을 결정할 때만 해도 획기적인 임금인상이 눈에 보였는데, 직장폐쇄라는 말 한 마디 던지니 바로 꼬리를 내리는 거야.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타협해? 이젠 그들과 입씨름하는 것도 신물 난다구.”

그렇게 해서 드러누웠다. 노동조합이 잘 되어 있다고 좋아 하면서 들어간 지 채 10개월이 못 되었다. 그 회사 임금이 다른 곳보다 많다고, 그러니 참고 다녀 달라고 말하고 싶은 것을 입술을 깨물고 참았다. 틀림없이 그는 자본가는 더 많은 이윤을 남긴다고 할 것이고, 그게 당연한 일 아니냐고 항변하면 그는 착취를 들먹이며 반발하고, 적정 이윤에 대한 분배에 대한 공박을 하다 보면 자본주의 공산주의가 나오고, 결국 서로가 골수분자라는 비난으로 끝날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도 늘 그렇게 싸우고 끝냈으니까.

맥없이 드러누운 그는 담배 연기만을 게워냈다. 일으킨다고 일어날 것 같지도 않았다. 그는 그렇게 쓰러진 채로 여섯 달을 보냈고, 나는 그가 벌어들인 돈을 축내지 않기 위해 낮에는 일거리를 찾고 밤에는 학원들을 쫓아다녔다.

냉철하게 본다면, 그는 어리석은 원칙주의자였다. 요령도 없었고, 융통성도 없었다. 좋은 점이라면 그 자체로 순수했다는 점뿐이었다. 나는 오래 전부터 그것을 알고 있었다. 대학 시절, 운동을 한다고는 했지만, 그의 자리는 늘 힘들고 어려운 위치에 있었다. 격렬한 시위가 있을 때마다 맨 앞자리, 그것도 가장 눈에 잘 띄는 자리에 그가 있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머리’들은 미꾸라지처럼 잘도 빠져나가는 그물에 유독 그만

걸렸다. 한 번쯤 왜 그런지를 따져보아야 하는데, 그는 그런 분석 자체를 싫어했다.

“당신 잘못이 아니야. 시대가 당신을 이렇게 몰고 간 것뿐이야. 그것에 얽매어서 괴로워하면 우리만 손해 보잖아. 지나간 일은 잊고 우리 새로 시작해 보자. 당신 곁에는 내가 있잖아.”

그가 괴로워 할 때마다 나는 그렇게 말해주곤 했다.

설거지를 해 놓고, 핏물이 묻은 속옷을 담갔다. 아이의 흔적이 물 속으로 번졌다. ‘습관성’이란 말이 습관처럼 낯을 맴돌았다. 듣기에 거북한 말이었지만, 우리 형편을 그대로 대변해주는 말이었다. 그는 습관적으로 싸우고 습관적으로 뛰쳐나왔으며, 나는 습관적으로 아이를 잃었고 습관적으로 희망을 잃었다. 언제쯤 나는 안착(安着)된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핏물이 빠진 속옷을 주물러 건조대에 걸어놓고 방으로 들어섰다. 그는 방구석에 무릎을 곧추세우고 앉아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흐트러진 이불을 다시 펴고 베개를 나란히 하는데

“나를 많이 원망했겠네.”

그가 불쑥 말을 꺼냈다. 다분히 적의에 찬 어투 같았다. 식사 때 내가 했던 말들을 곱씹던 그가 드디어 불씨를 찾아낸 듯했다.

“취직 이야기 아니면 별로 듣고 싶지 않네요. 괜히 나를 기쁘게 해 주실 요량으로 공작(工作)을 하신다면 오늘만은 사양하겠습니다. 갑작스레 손님이 찾아 왔걸랑요.”

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그리고 적어도 3개월은 그와의 성관계를 피해야 했기 때문에 생리를 핑계 삼았다. 그러나 그는 내가 언제 생리를 했는지, 얼마나 지나야 다시 생리를 하는지를 모르고 있었다.

“왜 이리 날카로워?”

그리고는 담배를 물고 라이타를 칙칙거렸다. 부싯돌만 부딪고 불꽃은 일지 않았다. 그는 라이타를 몇 번 흔들다 한쪽에 던져 버리고 다른 라이타를 꺼내 불을 붙였다. 그리고 보니, 그가 버린 라이타가 여러 개 모여 있었다.

“말씀하시와요. 이 몸은 좀 늙겠나이다. 글구, 제발 부탁인데, 방 안에서 담배를 파울 때는 문을 좀 열어 주세요. 언제 죽어도 상관은 없지만, 고통스럽게 죽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불을 끌어당겨 가슴까지 덮었다. 그는 방문을 드르륵 열어 놓고 재떨이를 문턱에다 놓았다. 골목에서 불어오는 퀴퀴한 바람은 연기를 바깥으로 보내기보다 오히려 방안으로 더 밀어 넣는 것 같았다.

“당신이 보기에, 내가 그렇게 한심해 보여?”

“한심하게만 보이면 다행이지.”

“또 어떻게 보이는데?”

“무지무지 지저분하고 불결해 보여. 어디 끌고 가서 머리라도 박박 밀어주고 싶을 정도로.”

기분이 그래서 그랬을까? 농담치고는 좀 과한 공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표정이 격하게 변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자신을 인정하는 듯 느긋해 보였다. 선험적(先驗的)으로 내가 아는 한, 그가 이렇게 진지한 표정을 할 때는 취직을 의논할 때와 사고를 터트릴 때였다.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누가 취직이라도 시켜준대?”

반가움에 허리를 일으키려는데,

“그런 거 아냐.”

“에이, 좋다 말았네.”



다시 누웠다. 그리고는,

“하긴, 취직을 한다고 해도 며칠을 넘길지 모르는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당신도 차암— 많이 둔감한 사람이야.”

‘참 많이’에 힘을 주어서 일침을 놓았다. 둔감하다? 그가 미간을 좁히고 노려보는 듯하더니,

“그 정도로 형편없어?”

하고 연기를 뿜어낸다.

“응. 점수로 치면 빵점이야. 하구한날 시비하거나 싸울 궁리나 하고……. 하긴, 그런 사람과 헤어지지 못하고 사는 나도 정상은 아니겠지만.”

“나도 배부른 돼지가 될까? 저 골목길 담벼락에 붙어 있는 인간들처럼.”

그의 억양이 날카로웠다. 그의 손가락에 끼인 채로 허공을 휘젓는 담배가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오랫동안 싸움질을 못해서 근질거리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자 나도 모르게 은근한 부화가 치밀어 올랐다. 결국 누워 있던 몸을 일으키고 말았다.

“착취고 억압이고, 분배고 정의고 난 그딴 거 이제 몰라. 세상에 그냥 맞춰서 살고 싶어. 가정을 이루었으면 책임 있게 살아야지. 이게 뭐야? 나이가 마흔이 넘은 사람들이 지지리 공상으로 사는 꼴이 웃기지도 않냐구. 남들 욕하지 말고, 당신을 스스로 자세히 들여다 봐.”

“내가 뭘……?”

“모순투성이잖아.”

“뭐? 모순?”

“당신은 늘 착취, 착취하는데, 당신이 나를 착취하는 건 뭐야? 이 불쌍한 마누라쟁이 등골 빼먹는 당신은 뭐냐고, 당신 논리대로라면, 나도 이 지긋지긋한 착취에서 얼른 해방되어야 하는 거 아냐?”

“현주야.”

그가 내 이름을 불렀다. 다급하면서도 내리누르는 듯한 음성이었다. 마치 옛날 어른들이 ‘이 노옴—’하고 꾸짖는 것처럼. 그러나 내 말은 이미 그가 막으려고 애쓰는 금지의 독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정석씨, 내 말 막지 마. 당신은 늘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지만, 나는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러질 못했어. 당신이 희망을 잃을까 봐, 이 현실에서 못 견딜까 봐, 말 한 마디 제대로 못하고 숨죽여 살아왔어. 이제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아. 나도 할 말은 해야 되겠다 싶어. 그래, 당신이 어떻게 보이느냐고 물었지? 당신이 진지하게 대답하라고 하니깐, 당신이 썼던 그 어려운 말들을 동원해서 다시 한 번 확실하게 말해줄게. 당신은 지나치게 고답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관념적이야! 예전에 대학 다닐 때는 그게 멋있었는데, 지금은 고루하게 보여. 낡아 보이고, 미련스러워 보인다구! 한 마디로 짜증나!”

짜증나! 하고 외치는 순간. 그의 손에 길게 걸렸던 담뱃재가 바닥에 떨어졌다. 그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손만 경련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릅뜬 눈도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작심하고 한 말이었지만, 그 모습을 보는 것이 편할 리 없었다.

“그렇다고 이혼하자는 건 아니니까 흥분하지 마. 당신도 알다시피 난 그렇게 모질지 못해.”

“이혼도 생각했었어?”

그가 말꼬투리를 잡았다. 그 소리가 넘어가지 않는 알약처럼 겨우 삼킨 부화를 되건져 올렸다.

“그래. 생각했다, 이 나쁜 아저씨야. 그럼 난 뭐 사람도 아닌 줄 알았어?”

“그렇게 힘들었으면 진작에 이혼하자고 하지.”

환김에 하는 말이겠지만, 애써 담담하게 말하는 그의 말끝에는 ‘말했으면 당장 이혼해 주었을 텐데.’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었다. 나는 가시에 찔린 것처럼 잠시 파르르 떨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통증이 아랫배를 눌렀다. 허리를 비틀었다. 눈물이 났다.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피장파장이야.”

“그게 어떻게 피장파장이야? 당신은 꿈속에 살고, 나는 현실을 살았어. 현실의 냉혹함이 어떤지 당신은 모르지? 당신 지난번에 회사 사람 때려서 구치소 갔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친정에는 더 손 못 벌리겠고, 학원에서 월급 나올 때는 멀었고……. 그 때, 내 심정이 어땠는지 알아? 딱 죽고 싶었어. 내가 왜 이렇게 사나 싶고, 부끄러워서, 원망스러워서…….”

현실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다, 내 감정에 몰입한 나머지 그만 목을 놓고 영영 물어버리고 말았다. 논쟁을 하다 다른 상황을 맞은 그는, 다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이고는 연기에 한숨을 담아 길게 뿔아냈다. 얼마간 울음을 쏟고 난 나는, 베개를 떨쩍이 떨어진 곳으로 옮겨 등을 돌려 버렸다.

오랫동안 부스럭거리던 그는, 자리에 누워서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거렸다. 그 서슬에 나도 간간히 잠을 깼다. 꼭 그가 뒤척거리어서 잠을 깬 것은 아니었다. 선잠에 아랫도리가 축축해져 오는 느낌이 전해져 오기도 하고, 무엇인가가 아랫배를 쿡쿡 찔러대는 것 같은 기운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럴 때면 어둠 속에서 막아두었던 것을 갈아주기도 하고, 머리맡에 둔 진통제를 조심스럽게 입에 넣기도 했다. 그렇게 눈을 떴다

감았다 하기를 반복하다 새벽녘에 깊은 잠에 빠졌는데 꿈을 꾸었다. 꿈 속에 나타난 것은 전날에 내 몸에서 떼어낸 핏덩이였다. 그것이 굼실굼실 움직여서 내 몸에 다시 붙으려는 것을 눈물로 막았다. 내가 너를 죽인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너를 키우기에는 맞지 않았던 모양이라고. 조금만 안정이 되면 다시 와도 된다고 사정을 하다 잠에서 깨어났다. 악몽(惡夢)의 뒤끝이라 나도 모르게 몸을 움츠리며 이불 속을 바짝 헤집었다. 이쯤이면 있으리라 믿었던 그가 손에 닿지 않았다. 화들짝 이불을 걷어냈다. 들창으로 비쳐드는 햇살 속에 베개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시계는 벌써 9시를 넘어 있었다. 방문을 열고 부엌 섬돌을 확인했다. 운동화가 보이지 않았다. 신발장을 보았다. 구두는 그대로 있었다. 어젯밤 일로 마음이 괴로웠던 모양이라고, 산책이라도 하면서 생각을 가다듬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어쩌면 어젯밤의 격한 감정이 그를 바꾸어놓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도 가졌다.

아침을 준비했는데, 그가 오지 않았다. 상처를 너무 심하게 준 것은 아니었을까? 가슴에 꼭 묻어둘 말을 왜 그렇게 쉽게 뱉어냈을까? 마음이 괴로웠다. 점심때가 넘어서자 불안해졌다.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며, 불안감을 지우기 위해 방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이것저것 손에 잡히는 대로 쓸고 닦았다. 그러다 문득 그가 던져놓은 라이타에 눈이 갔다. 라이타 앞뒷면에 똑같은 글자들이 쓰여 있었다. OLD CLOCK, 오래된 시계.

글자를 보자마자 대학시절에 친구들과 가끔 들렀던 커피숍이 떠올랐다. 커다란 괄종시계가 실내를 장식하고 있었고, 그 아래에 DJ 박스가 있었다. 장발에 스카프를 맨 DJ가 시, 편지, 음악에 얽힌 이야기를 노래와 함께 들려주면, 우리는 딴 세계에 빠진 것처럼 눈을 감았었다.

— 그가 대답할 때 다녀오는 커피숍이란 곳이 바로 거기였었나?

있고 있었지만, 내가 기억하고 있는 어떤 장소에 그가 습관처럼 다녔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커피숍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감시당하거나, 자신의 어떤 행적을 누군가가 알아차리는 것을 몹시 싫어했기 때문에, 나는 습관적으로 그의 행적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 알아도 생각 속에 두지 않았었다. 단서를 통해 짐작하는 것조차 두려워했다. 내 마음 속의 금기가 여태까지의 그에 행적에 대해 무관심했는지 모른다. 그런 까닭에, 라이타에 새겨져 있는 전화번호를 눌러 그의 존재를 확인하는 동안에도 입 속이 바짝바짝 말랐다. 그는 거기에 있었다.

옷을 갈아입고 길을 나섰다. 그를 찾아가는 길이었지만, 지나온 과거를 되짚어가는 것 같았다. 지하철역을 나와 학교 정문이 보이는 길 위로 올라섰다. 그를 따라 그 거리를 뛰던 생각이 났다. 페퍼포그가 뿌려놓은 허연 가루를 밟으며 몰려 들어갔던 뒷골목. 그 안에서는 흙벽을 그대로 드러내 놓은 주점이 즐비했었다. 지저분하면서도 긴 탁자와 그 탁자에 길이를 맞춘 의자가 놓여 있는 주점에서는 몸통의 살점을 날개처럼 펼친 고갈비가 석쇠 위에서 연기를 내뿜고 있었고, 타박타박한 선지들이 설설 끓고 있었다. 늙수그레한 할머니가 사투리를 섞은 욕설을 뱉으면, 거기 모였던 사람들은 젓가락을 두드리며 웃어젖혔다. 그러나 이제 그곳에는 고갈비가 없었다. 따라서 흙벽이 그대로 드러나는 주점도 있을 리 없었다. 난전처럼 이어져 있던 골목은 상가로 바뀌어져 있었고, 그 건물에서는 과거의 그림자들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았다.

희미한 기억을 더듬어 상가 건물 몇 개를 돌고, 그 상가가 만들어낸

깨끗한 골목을 지나고 나자 낮익은 2층 건물 하나가 나왔다. 외벽이 깔끔한 빌딩 틈에 웅색하게 끼인 그 건물은 시대를 어긋나 있는 것처럼 초라하고 어색했다. 그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오래된 시계와 ‘OLD CLOCK’이라는 한글과 영문이 나란히 쓰여진, 낡을 대로 낡아버린 간판과 썬텐을 한 것처럼 새까만 색깔의 유리창이 보였다.

계단을 밟아 올라갔다. 겉모습은 그대로였지만, 통로는 많이 바뀌어져 있었다. 카라얀의 초상화가 걸렸던 벽면에는 요즘 유행한다는 가수들의 브로마이드가 붙어 있었고, 짙은 갈색 나무판자들 옆으로 스타크래프트 종족들이 그 주변을 장식하고 있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어두침침한 실내 공간이 보였다. DJ박스도 그대로 있었고, 천장에서 쇠줄로 달아내린 커다란 과종시계도 그대로 있었다. 대학시절에 보았을 때도 그 시계는 그 시각에 멈춰져 있었다.

그 멈춰진 시계 바로 맞은편 탁자에 그가 앉아 있었다. 그는 자폐아처럼 우두커니 앉아 노래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자 떠나자 동해바다로 삼등삼등 완행열차 기차를 타고……. 곡조는 흥겨웠지만, 가사는 흥겹지 않았다.

“틈나면 오는 곳이 여기였어?”

그의 앞에 앉았다.

“어, 현주…….”

그가 놀란 표정으로 벌떡 일어섰다. 수배되어 쫓기다 갑자기 사복경찰을 만난 것처럼, 엉거주춤 한 발을 옆으로 뻗 자세였는데, 하얀 운동화가 눈에 거슬렸다.

“나쁜 놈.”

“…….”

“어딜 가면 간다고 말을 하고 가야지. 난 어디 가서 각 죽어 버린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는데.”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가까스로 눌렀다. 멀거니 나를 쳐다보던 그는 조금 안정이 되었는지 자리에 털부덕 주저앉았다. 그리고는 담배를 더듬어 OLD CLOCK 라이타를 들고 불을 붙였다. 그리고 의심스런 눈빛으로 연기를 훑 내뿜으며,

“어떻게 알았어?”

무뚝뚝하게 물었다.

“알아내려고 노력한 건 아냐. 그 라이타가 방 안에 늘려 있던 걸. 불쾌했다면 미안해. 이런 행동 싫어하는 줄 알지만, 난 당신이 너무 소중한 것. 당신이 머물러 있는 곳을 확인하고 싶더라고.”

불안에 떨어야 했던 과거를 떠올릴까 싶어 순순히 사과했다.

우리를 사랑이 깨진다 해도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는다 해도 우리들 가슴속에는 뚜렷이 있다 한 마리 예쁜 고래 하나가…… 노래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그는 묵묵히 담배를 피우며 노래를 듣고 있었다.

그때 고래사냥을 떠난 사람들은 동해에 무사히 도착했을까? 혹시, 이 사람처럼 완행열차에 갇혀 버린 것은 아닐까? 열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신화처럼 춤을 추는 고래를 잡았을까? 그에게 묻고 싶었다.

“사실, 어제 아이가 유산됐어.”

결국 그에게 마지막까지 감추고 싶었던 유산 사실을 털어놓았다. 멈춘 시계에 머물러 있던 그의 시선이 나에게로 돌아왔다.

“나한테는 거의 마지막이다 싶은 아이였는데……. 그 아이를 낳아서 당신 품에 꼭 안겨주고 싶었는데……. 아이를 잃고 나니, 내 감정을 다 스리기가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당신한테…….”

진정을 하려 애를 쓰는데도 흘러내리는 눈물은 어쩔 수가 없었다. 말을 간신히 이으며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훔쳤다. 그러다 문득 고개를 들었다. 탁자에 놓인 재떨이에 콩초를 비벼 끈 그가 건너편의 패종시계를 노려보고 있었다. 어금나를 깨문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눈에는 까닭모를 분노 같은 것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마치 패종시계와 눈썹이라도 하는 것 같아 보였다.

“이런 구차한 말 당신한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정말 미안해. 난 이제 나가야 해. 저녁에 학원에 가야 하거든. 당신 여기 있다 나중에 와. 글구, 석 달간은 당신이 어디를 가든 뭘 하든 상관하지 않을게. 단, 석 달 후에는 당신이 필요해. 내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아이를 가져야 하거든.”

그렇게 말해 놓고 일어섰다. 그는 여전히 패종시계를 노려보고 있었다. 혼자 슬퍼하고 혼자 미안해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는 아무런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대로 돌아서려다 문득 병실의 마취실이 떠올랐다. 혼자 수술을 하고 쓸쓸히 돌아 나오던 모습, 거울에 비쳤던 내 얼굴. 울컥, 슬픔이 몰려왔다.

“다음에는 아이를 가졌을 때, 꼭 당신 손잡고 병원에 갈 거야. 나 혼자 사랑을 주려고 하니까 아이가 섭섭했던 것 같애.”

대답 없는 그를 남겨두고 문을 열었다. 어두컴컴한 커피숍 안에는 역시 그 분위기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퍽퍽 앉아 있었다. 모두가 시간에 갇힌 사람들 같았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도 외롭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며 문을 닫을 즈음, 고래사냥 노래도 끝나가고 있었다.



우수상

# 겨울이 오는 시간

바람이라도 부는지 진료실 창문 밖으

로 나뭇가지에 간신히 붙어있던

이파리들이 우수수 떼를 지어

이동하는 철새들처럼 허공을

날아가는 모습이 보였다. 바

야흐로 겨울이 시작되고 있

었다.

— 경기도 의정부시 신성숙 —

경기도 의정부시  
신성숙



## 겨울이 오는 시간

지하철역을 빠져나오자 간간이 내리던 비는 그친 상태였다. 하지만, 아주 흐린 날씨였다. 짙은 회색빛 하늘이 건물 사이마다 낮게 드리워져 있었고, 간신히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던 이파리들은 바람이 불때마다 어지럽게 허공을 날아다니고 있었다. 한 손에 들고 있던 3단 우산을 접어서 가방 속으로 집어넣으려고 고개를 숙이자 비에 젖어 보도블록 여기저기에 흥하게 눌러 붙어있는 이파리들이 눈에 들어왔다. 숨을 들이마시면 차가우면서 다소 무거워진 공기의 무게가 느껴졌다. 미세한 수분 입자들을 가득 함유한 공기의 부피는 피부를 통해서도 감지되었다. 햇빛은 나무와 두껍게 옷을 껴입은 사람들의 거리 풍경을 보지 않더라도 유난히 짙었던 가을이 끝나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음을 이미 온몸에서 감지하고 있었다. 이때 가방에서 진동으로 해놓은 휴대폰의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다. 액정을 보니 엄마였다. 받을까 말까?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버튼을 눌렀다.

“어디니?”

“병원 앞이야. 왜?”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통명스러워졌다. 그럼에도, 엄마의 목소리는 여전히 사근사근하다. 그 목소리의 톤은 내게 무엇인가 부탁할 게 있다는 의미였다.

“의사선생님이 아버지 CT촬영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어떡하지?”

“곧 도착해. 올라가서 얘기해.”

아버지가 입원해있는 상계동의 B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알싸한 소독약 냄새가 풍겨왔다. 내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 대신 B병원을 선택한 이유는 부모의 누추한 행색과 구질구질한 가정사를 동료의사들에게 보여주기 싫은 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7층 병동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를 타는 대신 난 커피 자판기가 물려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오늘 마신 커피만 해도 다섯 잔이 넘었다. 밀려드는 졸음을 쫓기 위하여 물마시듯 커피를 마셔댔지만 오히려 두통만 밀려올 뿐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런 사실을 알더라도 습관적으로 커피에 손을 대지만 혹 안면 있는 환자들에게 눈에 뵈까 늘 조마조마하다. 환자들에게는 커피, 술, 담배는 반드시 멀리하라는 말을 하루에도 수십 번 넘게 강조하기 때문이었다.

어젯밤 응급실 당직 근무를 하면서 새벽녘에야 간신히 쪽잠을 잘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런 쪽잠도 응급환자의 출현으로 도중에 방해받고 말았다. 부스스한 얼굴과 멍한 상태로 맞이한 환자는 눈동자에 작은 티끌 하나 들어갔을 뿐인데 금방 죽기라도 할 것처럼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다. 교통사고처럼 생명을 다투는 긴급 환자가 아니란 사실에 가슴을 쓸 어내렸지만 한편으론 좀 어이가 없었다. 마침 안과쪽 레지던트는 비번이었다. 할 수 없이 환자의 눈에 식염수를 듬뿍 넣고 몇 초쯤 기다리자 다행히도 티끌은 식염수에 섞여 눈 밖으로 빠져나왔다.

“집에 식염수 없어요? 식염수만 있었으면 한밤중에 병원 응급실로 달려오실 필요까진 없었는데…….”

나의 말에 기분이라도 상했는지 스무 살이나 되었을까 싶은 젊은 여자 환자는 섧쪽한 표정으로 진료실을 빠져나갔다. 별다른 처치를 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응급실 특진료라는 적지 않은 돈을 내야 할 것이다. 그녀로서는 단지 식염수 몇 방울에 터무니없는 금액이라고 억울해 하겠지만 만 고단한 레지던트의 단잠을 깨운 비용치고는 그리 큰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과연 그녀가 깨달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었다.

백 원짜리 동전 세 개를 자판기 구멍에 집어넣자 툭 떨어지는 종이컵으로 밀크커피가 쪼르르 소리를 내며 흘러내렸다.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한 탓에 머리 위에 큰 돌을 얹어놓은 것처럼 온종일 몸이 무거웠다. 레지던트 생활을 일 년 남짓 하면서 잠이 보약이다란 말을 제대로 실감할 수 있었다. 아무리 심한 피로감을 느끼더라도 잠을 꼭 자고 나면 몸은 어느새 최적의 상태로 변해 있다. 어떠한 화학 물질로도 완벽하게 녹여 버릴 수 없는 피로감은 단지 몇 시간의 잠만으로도 감쪽같이 사라진다. 그런 면에서 인체는 신비로운 자정능력을 가진 회로로 이루어진 유기체라는 사실은 틀림없었다. 아까부터 나의 뇌가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지금 내게 제일 필요한 것은 오직 잠이라는 사실을.

그러나 나는 잠 대신 커피를 조금씩 훌쩍이면서 위장으로 흘러버리는 참이었다. 그리고는 로비의 약국 순번 대기 의자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지금은 의사로서가 아닌 순수하게 환자 가족으로서 앉아 있다고 생각하니 이 공간이 조금은 낯설게 다가왔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서글픔마저 밀려오는 것 같았다. 만약 의사가 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아마도 취직하느라 이리저리 분주하고 경제적으로도 고달픈 청춘을 보내고 있었을 것이다.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자 씁쓸한 기분이 들었다. 어쨌든 의사가 된 것은 아주 운이 좋았고 탁월한 선택이었다. 덕분에 이런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한줄기 희망은 보이는 것이다. 전문의가 된다면 다른 건 몰라도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

한 고통은 사라지리라는 사실은 때때로 나에게 힘을 주었다.

이때 가방 속의 휴대폰이 또 한 번 부르르 진저리를 치고 있었다. 보나 마나 엄마일 것이다. 난 서둘러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 병동으로 올라갔다. 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711호실 앞에서 엄마가 애타게 나를 향해 손짓을 했다. 아까부터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음이 분명했다. 환갑이 지난 엄마는 그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항상 긴 치마와 돌돌 말아 올린 까만 생머리를 고집하고 있었다. 나를 목 빠지게 기다리는 저 늙은 여인을 보는 순간 가슴 속에서 행한 바람이 부는 것만 같았다. 그래서일까, 무의식적으로 뒷걸음질을 칠 뻔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전화도 안 받고.”

“로비에서 아는 사람 만났어.”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누군데?”

“말하면 엄마가 누군지 알아?”

반사적으로 짜증 섞인 말이 튀어나왔다. 요즘 들어 엄마는 나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늘어가는 것 같았다. 갑자기 내가 엄마의 시야에서 사라지기라도 할까 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제발 좀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것일까. 마치 어린아이가 보채듯 온종일 온갖 방법을 총동원해가며 나의 시선을 끌려고 애쓰는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

“아버지는 좀 어떠셔?”

“네가 담당의사 좀 만나고 와라.”

“어제 봤는데 뭘 또 만나. 알아서 잘 해주겠지.”

“아이, 그래도 같은 의사끼리 만나면 아무래도 얘기가 잘 통할 것 아

니니.”

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6인용 병실의 사람들에게 어머니는 딸이 의사라는 사실을 이미 자랑한 터라 내가 등장하면 부러움과 경이감에 가득 찬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곤 했었다. 그럴 때면 어머니의 표정도 거만하게 바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나는 그런 시선들을 애써 무시하고 일부러 말을 아꼈다. 왼쪽 손목에 링거를 꽂은 채 잠들어 있는 아버지의 상태는 한눈에 봐도 안 좋아 보였다. 아직 검사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나타나는 증상으로 보아 대장암이 틀림없을 것이다.

빛쟁이들을 피해 옷 한 벌 변변히 챙기지 못하고 밤도망을 친 부모님은 대전 오빠 집 대신 10평 남짓한 내 원룸에 짐을 풀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며느리에게 이런 꼴을 보이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난 어이없어 했지만 평소에도 어머니는 비록 여인숙을 운영하고 있을망정 의사아들을 둔 시어머니로서 며느리에게 항상 고상하고 우아한 모습으로 남고 싶어 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렇게 좁고 웅색한 원룸보다는 대전에서 개업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먹고살만해진 오빠 집에 머무르는 게 당연한 순서였다. 그러나 부모님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나의 원룸에서 떠나지 않으셨다.

그 후 아버지는 몇 날 며칠 피통을 쫓다. 처음에는 빛쟁이들로 인한 스트레스와 낮은 환경 때문이라고 여겼지만 한편으로는 대장암의 전조로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다. 게다가 대전의 오빠는 틈만 나면 내게 전화를 해서 앓는 소리만 해댔다. 오빠 자신이 어떻게든 빛쟁이들을 따돌리고 막아 볼 테니 몇 달만 부모님을 모시라고 말했다. 빛쟁이들의 등쌀에 시달리는 오빠에게 아버지가 피통을 쫓으라는 말이 차마 입에서 안 떨어졌다. 그렇다고 나의 공간에 예고도 없이 들이닥친 부모에게 오빠네에

언제 갈 거야? 라고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황당하고 감당이 안 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엄마는 재빠르게 대처해갔다. 나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모든 행동거지들을 조심했고 눈치 있게 굴었다. 병원 일을 마치고 밤늦게 돌아오면 빨래며 음식 등 집안일을 완벽히 해놓고 칭찬을 기다리는 어린 아이처럼 엄마는 해맑게 웃고 있었다. 그런 엄마의 노력에도 좁은 공간에 세 식구가 들어앉아 있으려니 숨이 막힐 지경이지만 엄마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도 일부러 모른척했다. 엄마에게 이곳은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숨기는 공간으로 안정맞춤인 것 같았다. 나를 대하는 엄마의 태도는 마치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업그레이드 하는 바이러스처럼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었다. 엄마에게 나는 최적의 숙주였고 자신을 보호해줄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엄마와 아버지는 늙은데다 돈과 집도 모두 날리고 병까지 얻은 최악의 노년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

강원도 속초의 시장 골목에서 여인숙을 운영했던 엄마는 친구들의 엄마와는 조금 다른 면이 있었다. 자극히 평범한 성격에 별다른 개성이 없던 아버지와는 달리 엄마는 여인숙을 하는 신세이면서도 시장 사람들과 선불리 어울리지 않았다. 그 당시 엄마 연배에서 여고를 졸업한 사람은 찾기 어려웠다. 비록 여인숙을 운영해 먹고살지만 엄마는 자신이 여고 출신임을 항상 잊지 않았다. 엄마는 다른 아줌마들처럼 파마라는 것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 밤에는 칠흑처럼 까만 생머리를 허리까지 길게 늘어뜨리고 오랫동안 빗질을 정성스럽게 하고 뽀글거리는 파마머리를

경멸하며 천박하다고 말하곤 했다.

어릴 적 난 엄마가 친엄마가 아닐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곤 했었다. 엄마의 시선이 내가 아닌 여덟 살 위인 오빠에게 항상 꽂혀있었기 때문이었다. 엄마는 아침부터 온종일 여인숙 구석구석을 쓸고 닦았는데 그런 엄마가 안 보여서 이방 저방 찾으러 다니면 여인숙의 제일 깊은 골방에서 걸레질을 하다 말고 엄마는 무슨 생각인가에 골똘히 잡혀 있었다. 그때 어린 내가 ‘엄마~’하고 외치면 엄마는 마치 낯선 사람을 바라보듯 나를 쳐다봤다. 순간적이었지만 그때의 엄마는 내가 범접할 수 없는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오빠의 ‘엄마하는 한마디에 엄마는 화들짝 놀라면서 자신이 몰두해있던 세계에서 튀어나와 현실 속으로 돌아왔다. 그런 엄마를 볼 때마다 난 이상한 서러움에 복받치곤 했다. 그런 느낌은 밖에서 친구들과 재미있는 놀이를 하다카도 문득 엄마가 다른 곳으로 가버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감지될 때가 있었다. 그럴 때 놀이를 중단하고 집으로 쏙살같이 달려와서 엄마가 집에 안전하게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난 후에야 다시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었다.

엄마의 하루 일과는 단순했다. 여인숙을 청소하고 가족을 위해 요리하고 그리고 남는 시간이 생기면 언제나 책을 읽었다. 박완서나 이문열의 소설을 엄마는 특히 좋아했다. 현실적인 일들은 언제나 아버지의 몫이었다. 가끔 엄마를 보면 비록 청소나 요리 등 허드렛일을 하고 있지만 어찌면 여인숙은 엄마만의 견고한 성이고 이곳에서 세상일에 관여하지 않고 절대적인 권력을 지닌 여왕이란 느낌이 들곤 했다. 아버지는 성을 지키는 시종에 불과했으며 오빠는 엄마의 보살핌을 받는 절대 권력의 왕자였고 나의 존재란 있으나 마나 한 계집아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



이 들었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 가족은 평범하고 조용하고 화목했다. 그렇지만, 난 가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시달리곤 했다. 엄마는 나에게 다른 엄마들처럼 막말도 잔소리도 하지 않았지만 엄마의 유별난 오빠에 대한 애정과 특유의 고고한 성품 때문에 한동안 나는 애정결핍 증세에 시달려야 했다. 지금도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어떤 시인은 자신을 키운 팔 할이 바람이라고 했지만 나를 키운 팔 할은 아버지의 드러나지 않은 부성에였음을.

손님이 들지 않는 주말 한낮의 여인숙의 풍경은 평온했다. 아버지가 TV를 보고 있으면 오빠와 난 그 옆에 엎드려 만화책을 읽거나 숙제를 하곤 했다. 그러나 엄마는 우리 옆이 아닌 옆방에서 홀로 책을 읽거나 잠을 잤다. 그러다 내가 홀로 있는 엄마의 방문을 벌컥 열며 뭐해? 라고 물어보면 엄마는 기운을 모으는 중이라고 말했다. 기운을 왜 모으는데? 덧붙여 질문하면 엄마는 성가신 얼굴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 홀로 있는 엄마를 방에서 나오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오빠 한 사람뿐이었다. 그러나 오빠는 이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대체로 엄마에게 무관심한 편이었다. 반면에 아버지는 오빠보다 나에게 각별한 편이었고 나는 아버지보다 상대적으로 냉담한 엄마에게 애정을 갈구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 네 식구의 서로에 대한 관심 구도는 아슬아슬하면서도 그럭저럭 균형을 맞추어 돌아가는 편이었다. 그러나 제일 특이한 사람은 역시 엄마라고 할 수 있었다. 현실적으로 세상 돌아가는 일과 사건 사고에 대해 엄마는 대체로 무관심하거나 냉담했다.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즐기지 않았다. 오빠의 존재만 아니었더라면 엄마는 스스로 자족하는 법을 터득한 사람처럼 보였을 것이다. 마치 산 속에서 아무런 불

편함 없이 홀로 사는 노승처럼.

하지만, 엄마는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사람들과 어울릴 줄도 알았다. 어쩌다 서울에 사는 아버지의 친척들이 휴가를 맞이하여 속초에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집에 머물렀는데 이들이 머무르는 동안에 엄마는 불임성 있고 싹싹한 아내로서의 역할에 온 힘을 기울였다. 며칠 후 친척들이 서울로 올라가면 엄마는 다시 원래의 고요하고 아무런 간섭을 받기 싫어하는 자기만의 세계로 돌아갔다. 선택적으로 사회성을 부리는 기교는 엄마만의 고유한 기술이자 단순한 성격의 아버지를 조정하는 수법이기도 했다.

그즈음 난 이런 엄마의 특성을 관찰하는 맛에 빠지게 되었는데 아버지를 기막히게 조정하며 자기 마음대로 필요시에 끌었다가 놓아버리는 엄마의 기교에 속으로 찬사를 보내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어느덧 나도 이런 엄마의 기질을 차츰 닮아가고 있었다. 이런 나의 변화를 엄마는 재빠르게 알아차렸다. 서로 말은 안 하지만 흥미로운 눈빛으로 나를 지켜보는 엄마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단순한 성격으로 미묘한 감정의 변화에 둔감한 아버지는 아내에게 있어 자기 자신이 단지 세상의 사소하고 귀찮은 일을 막아주는 바람막이란 사실을 모르는 듯했다.

오빠는 스무 살이 되던 해 지방의 한 의대에 진학하게 되었고 동네 사람들은 입을 맞춘 듯 한결같이 여인숙 아들이 공부를 잘해 의대에 갔다며 부러워했다. 그러나 엄마는 오빠에게 재수를 시키더라도 서울에 있는 의대를 보내고 싶어 했다. 하지만, 오빠가 재수를 거부하는 바람에 엄마의 소망은 물거품이 되었지만 엄마는 두고두고 그 일을 아쉬워했다.

그 후 서로 별 충돌 없이 지내던 우리 가족은 내가 고3이 되던 해에

작은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엄마는 내가 교대에 가서 선생님이 될 것을 원했지만 난 오빠처럼 의대에 가고 싶었다. 그러나 엄마는 여자가 무슨 의대냐며 교대에 가서 선생이나 하라고 말했지만 난 그런 엄마에게 처음으로 적의를 느꼈다.

결국, 엄마의 강요에 못 이겨 교대에 응시하여 합격한 나는 등록을 포기하고 단식에 들어갔다.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만 있는 나를 엄마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지금까지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하게 지내던 아이가 갑자기 단식투쟁을 하며 고집을 피우는 모습이 의외란 표정이었다. 엄마는 나에게 이런 모습이 숨겨 있을 줄 꿈에도 생각 못한 듯싶었다. 어쨌든 단식의 효과는 있어서 나는 일 년간 죽어라 공부한 끝에 서울에 있는 한 대학의 의대에 진학할 수 있었다. 그리고 미련 없이 엄마의 성을 떠나 서울의 한 대학촌에서 나만의 작은 성을 쌓았다. 부모를 떠나 홀로 서울에서 대학에 다니면서도 난 한 번도 향수병에 걸리거나 고향을 그리워하지 않았다. 서울에서의 대학생활은 흥미진진한 놀이터였다. 난 내 맘대로 생활하고 서툰 연애도 하면서 자유를 만끽했다. 오히려 지방 의대를 나온 오빠가 애처롭게 느껴질 정도였다. 어느덧 의대를 졸업하고 레지던트가 된 오빠는 대학 때부터 사귀던 여자친구와 결혼하더니 수련의 월급으로 도저히 생활이 되지 않는다는 레지던트를 그만두고 대전에 개인 병원을 개업했다. 부모님은 여인숙을 담보로 집값의 절반이나 되는 돈을 대출받아서 오빠에게 보태주었다. 그러는 사이에 어느덧 나는 본과 1년생이 되어있었다. 그즈음부터 예전과는 다른 엄마의 변화가 조금씩 감지되기 시작했다. 나를 바라보는 엄마의 눈빛이 종전과 달라져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비로소 현실을 인식하기 시작한 자의 눈빛이기도 했다. 사실 난 세상일에 관심 없는 엄마의 초연한 자세를 좋아한 편이었

다. 한편으로는 그런 엄마를 닮고 싶기도 했다. 이런 나의 기질은 대학 학우들에게는 독특한 점으로 비치기도 했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그 흔한 동아리에도 들지 않았고 운동권에도 관심이 없었다. 그렇다고 전공인 의 학공부에만 전념했던 것도 아니었다. 난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 시간이 생길 때마다 철학서나 문학 관련 서적들을 닥치는 대로 읽었다. 그래서 나는 학우들에게 ‘철학자’나 ‘무정부주의자’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그런데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 생활을 할 무렵 나를 대하는 엄마의 태도는 그전과 확실히 달라 있었다. 엄마는 이제 얼마 후면 의사가 될 자신의 딸에게 비로소 힘이 생기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듯싶었다. 그것은 자신이 쌓은 견고한 성이 곧 위태롭게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대전에서 개업을 한 오빠의 병원은 성업 중이었지만 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들과 개업할 때 대출받았던 빚을 갚느라 부모를 살필 여력도 의지도 없어보였다. 오빠는 어릴 때부터 본인 위주로 사는 사람이었다. 게다가 새언니는 알뜰살뜰 내조를 잘하는 현모양처 타입이었지만 효부는 아니었다. 모르긴 몰라도 시댁과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병원 키우는 일에 전념하라며 오빠를 조정하고 있는 것이 틀림 없었다. 여러모로 둘은 천생연분이었다. 그즈음 엄마는 자신에게 닥칠 어떤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이제 노년기에 접어든 아버지와 큰 기대를 걸었던 오빠의 존재가 사실상 엄마의 바람막이가 될 수 없음을.. 그리고 엄마 자신도 늙어가고 있다는 것과 더 이상 여인숙이 자신들의 생계수단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그 무렵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대대적인 햇볕정책을 펼치기 시작했고 모 재벌그룹의 총수가 북한과 협력하여 금강산 관광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곧 통일이라도 될 것처럼 감개무량하며 적지

많은 경비를 내면서까지 너도나도 금강산을 향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금강산 바로 밑에 있는 설악산에 불뚱이 튀었다. 설악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거짓말처럼 금강산으로 빠져나가면서 관광객의 숫자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대부분 설악산을 찾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장사를 해서 먹고 살았던 속초시민들은 얼어붙은 경기 탓에 생계에 위험을 느끼게 될 정도였다. 우리 집도 거기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이런 변화를 예측 못한 아버지는 오빠의 병원 개업 때도 이미 상당한 금액의 대출을 받았음에도 이번에는 사채를 끌어들여 대대적인 여인숙 리모델링까지 단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손님이 안 드는 여인숙은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까지 못 갚을 지경에 이르렀다.

\*

거리는 어느새 가을의 문턱을 넘어선 것처럼 보였다. 짧은 가을이 끝나고 초겨울의 기운이 스멀스멀 땅거미가 지듯 낮은 포복의 군인처럼 서서히 도시를 점령하고 있었다. 아직 나뭇가지에는 채 땅에 떨어지지 못한 말라붙은 낙엽 이파리들이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었다. 바람결에 허공에서 이리저리 나부끼는 저 이파리들의 신세가 문득 나의 처지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근무 중에는 쉴 새 없이 병원 이곳저곳을 뛰 어다녀야 했고 퇴근 후에는 아버지를 보러 가야 했다.

아버지가 대장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제일 먼저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오빠는 침착한 어조로 말했다. 자식이 둘 다 의사인데 호들갑 떨 일이 뭐가 있느냐, 수술비용은 일단 네가 해결해라. 난 지금 사채 빚 갚느라 허리가 휘어질 지경이다. 전화를 끊고 보니 오빠 말도 일리가

있어 보였다. 오빠는 지금 몇 억으로 부풀어있는 사채 때문에 죽을 지경인데 난 고작 수술비 몇 백 만원 때문에 징징거리다니……. 난 스스로에게 사려 없음을 질책하며 의사면허증을 들고 병원 앞의 은행을 방문했다. 대출 상담을 받는 은행직원에게 의사면허증을 내밀자 군소리 없이 대출신청을 처리해주었다. 쥐꼬리만한 월급을 쪼개어 붓던 적금은 부모님이 나의 원룸을 점령한 그 다음날 해지해야만 했다. 하지만 수술비 오백만 원과 이것저것 필요한 생활용품을 사느라 추가로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야 했다. 당장 레지던트 과정을 접고 일반 의사로 취업할 생각도 해보았지만 지금까지 잠도 못 자고 고생했던 시간이 너무 아까웠다. 한편으로는 전문의가 되려면 아직 삼 년이나 남았는데 앞으로 이런 생활을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B병원에 들어서 입원비를 중간 정산하고 잠깐 병실에 들러볼까 생각하다가 점심시간이 거의 끝나가길래 서둘러 근무하는 병원으로 돌아왔다. 점심도 못 먹어서 기운 하나 없는데 저 쪽에서 함께 수련을 받는 정 선생이 걸어오고 있었다.

“어머, 윤 선생님. 요즘 전신성형 중이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이~ 다이어트 말이에요. 다이어트가 피 안보는 지방제거수술이라는 것 모르세요? 이거 오래된 은어인데…….”

집안 일로 인해 유머 감각까지 잃어버렸나싶어 난 잠시 어이가 없어져서 피식 웃고 말았다. 그러나 정 선생의 다음 말이 더 가관이어서 난 웃을 힘마저 맥없이 빠져버리고 말았다.

“난 요새 결혼식 앞두고 살 빼야 하는데 살이 도통 안 빠져요. 윤 선생님만 보면 부러워 죽겠다니깐. 비결 좀 가르쳐줘요.”

비결? 비결은 따로 없다. 부모가 파산하고 채권자들의 협박 전화에 시달리고 가족 중에 암이나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있다면 살, 그까짓 것은 노력 안 해도 쑥쑥 빠지게 되어있다. 물론 이런 내용을 정 선생에게 말할 정도로 난 순진하지 않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고 있는 정 선생 앞에서 나는 기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자 최대한 기품 있게 미소를 날려 주었다.

의사라고 해서 모두 똑같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의사도 등급이 있다. 나처럼 수련과정도 접고 당장 돈을 벌어야 하는 생계형이 있는 반면에 준재벌집 막내아들과 선을 보고, 시댁 가문의 명예를 드높여 주기 위한 간판을 따기 위해 수련의 과정을 밟는 정 선생 같은 부류도 있는 것이다. 병원에서는 정 선생이나 나나 흰 가운 덕택에 구분이 안가지만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정 선생과 나는 확연하게 다른 삶을 살도록 세팅되어 있다. 내가 막 도착한 지하철을 놓치지 않으려고 만 원짜리 길거리 표 구두를 신고 열나게 지하철 계단을 뛰어 내려갈 때 정 선생은 우아하게 아우디 컨퍼터블을 몰고 병원을 빠져나간다. 내가 동대문이나 인터넷에서 대충 구색 맞추어 싸구려 옷을 사 입을 때 정 선생은 백화점 명품 코너에서 약혼자가 사주는 샤넬 재킷과 구찌 가방을 고르고 있을 터였다. 게다가 정 선생은 준재벌집 예비며느리답지 않게 서글서글한 성격에 환자들 비유도 잘 맞춰 인기도 높았다. 적어도 까칠한 내 성격보다는 훨씬 좋은 인간성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내가 정 선생보다 잘난 점이 뭘 까하고 생각해봤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는 것이 한 가지도 없었다. 미모 또한 정 선생이 한 수 위였다. 난 한숨을 쉬며 벌써 여섯 잔째인지 일곱 잔째인지 구분이 안 가는 커피를 들이켰다.

아버지의 수술일정은 일주일 후로 잡혀 있었다. 아버지의 암은 이미

중기를 넘어섰지만 비교적 대장암은 수술만 하면 다른 암에 비해 성공률이 높은 편이라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수술 후가 문제였다. 철저한 식이요법만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게다가 항문을 조이는 힘이 사라져 실 새 없이 똥물이 흘러나올 텐데 그 수발을 엄마가 다 감당할 수 있을지가 문제였다. 게다가 아버지가 입원한 지 보름이 지났지만 대전에 사는 오빠 내외는 병원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고 있었다.

늦은 밤 병실을 들어서니 애타게 나만 기다렸을 엄마는 완전히 지쳐 있는 모습이었다. 입원한 환자들 대부분은 잠을 이루고자 애쓰고 있었고 간병하는 아주머니 몇 명이 텔레비전 앞에 옹기종기 모여앉아 있었다.

“엄마는 드라마 안 봐?”

“지금 아버지가 이려고 있는데 내가 한가하게 드라마 볼 정신이 있는 줄 아니?”

엄마는 텔레비전 앞에 모여 앉은 저 무리와 자기 자신 사이에 엄격하게 금을 긋는 것 같았다. 사실 엄마야말로 이 정신없는 와중에서도 내 원룸에 있는 소설책과 철학책 몇 권을 가져와 읽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이곳에서 얼마나 기이하게 보이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았다.

“애, 그런데 말이다.”

엄마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었다.

“아버지가 퇴원하시면 그 원룸에 우리 세 식구가 살아야 하는데 너무 좁지 않겠나?”

나는 처음에 엄마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서 눈만 껌벅거리고 있었다.

“애, 그 원룸 보증금이면 서울 근방의 양주인가 어딘가 하는 데서 25평짜리 아파트를 전세로 얻을 수 있대.”

“그 소리는 누구한테서 들었어?”



“저기 누워 있는 노인네 아들이 아까 왔는데 양주에 산대. 그런데 서울 방값이 너무 비싸다며 가격을 비교해 주는데 나도 정말 깜짝 놀라지 않았겠나?”

“그래서 지금 나더러 양주에서 출퇴근 하라는 거야?”

그 생각은 차마 하지 못했다는 듯 엄마는 멍한 표정으로 잠시 나를 바라보았다.

“그렇구나. 내가 그 생각을 하지 못했네. 요즘 아버지 문제에만 내가 정신을 집중해서 잠깐 헛소리를 했나보다. 없었던 일로 하자”

나는 그 말에 더 열이 받아 주변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 엄마는 오빠 집에 내려갈 생각은 없어? 그리고 아버지가 입원한 지가 언제인데 새언니란 사람은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야?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그 말에 엄마의 말문이 대번에 막혀 버린 듯했다. 엄마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약간 풀이 죽은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사실 너한테 제일 미안하지. 그렇지만 느이 오빠 내외도 지금 힘들거야. 병원일이 좀 바쁘니? 느이 새언니가 서울 올라와 아버지 병수발을 도와주면 나야 좋지만 그렇게 되면 오빠혼자 밥도 해먹어야 하고 아직 애들도 어리잖니. 게다가 부모로서 너 결혼도 알아보고 그래야 하는데……. 정말 볼 면목이 없구나. 에휴……; 그놈의 금강산인지 뭔지 그 것만 없었어두…….”

엄마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며 훌쩍이기 시작했다. 이 순간에도 오빠 걱정엔 여념이 없는 엄마의 모습에 짜증이 미친 듯이 치밀어 올랐다. 나는 갑자기 뭔가가 머리를 옥죄오는 것처럼 아프기 시작했다.

“그만 갈게. 내일은 당직이라서 못 올 거야.”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실을 빠져나왔다. 뒤에서 엄마가 뭐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았으나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밖에는 부슬부슬 비가 내리고 있었다. 이른 초겨울의 비였다. 바람은 때때로 수직으로 내리는 비를 휘익 몰아쳐서, 그럴때면 얼굴에 차가운 물가루가 우수수 쏟아졌다. 차가운 빗방울의 느낌도 잊은 채 나는 터벅 터벅 걸음을 옮겼다. 아파트를 끼고 있는 낮은 상가 건물 사이로 갑작스러운 비를 피해 달리는 사람들이 보였다. 이파리가 얼마 안남은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질주하는 차들의 헤드라이트 불빛은 반짝이다 금세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병원 정문을 지나 인도를 따라서 걸어들었다. 그곳에서 방향을 왼쪽으로 틀어 우동과 낙지볶음을 파는 포장마차 옆을 지나쳐 갔다. 거기서부터는 아파트 단지가 숨막히도록 빼곡히 들어차있다. 아파트 단지를 끼고 도는 길을 따라 10분 정도 걸으면 내가 사는 원룸 건물에 도착한다.

나는 우산도 없이 건다가 잠시 발길을 멈췄다. 양주라니…… 그곳에서 병원까지 출퇴근하는 시간만 해도 족히 두 시간은 넘게 걸릴 것이다. 나의 입장을 전혀 헤아리지 않고 말을 꺼내는 엄마는 영악스럽기보다는 차라리 천진하기까지 했다. 그런데도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다. 그것은 아버지가 암에 걸려서도, 집이 빗쟁이들한테 넘어가서도 아니었다. 바로 끝까지 나를 이용하기로 작정한 엄마에 대한 분노였다. 애초에 엄마는 이런 모습의 여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비록 나에게 살갑고 따스한 모정을 느끼게 해주지는 못했지만 뭔가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 있을 때 서늘하게 빛나던 엄마의 눈을 나는 결코 잊지 못했다. 그 눈빛이 얼마나 나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그런 독특함이 엄

마를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는 것이라 믿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나의 진액을 빨아먹고자 무자비하게 달려드는 흡혈귀처럼 느껴졌다.

\*

“아버지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졌어. 너 병원으로 지금 당장 올 수 없니?”

간밤에 내린 비를 고스란히 맞은 탓에 감기라도 걸렸는지 온 몸이 뜨거운데 휴대폰 너머 엄마의 목소리는 다급함을 알려 왔다.

“출근해야 하는데 지금 어떻게 가. 점심시간에 가볼게. 원래 상태가 좋았다 안 좋았다 그러는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침대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몸을 동그랑게만 채 웅크리고 있었다. 모래성의 한쪽 귀퉁이가 파도에 밀려 허물어지듯이 마음 한 구석이 스르르 통제를 빠져나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오늘 하루 폭 쉬었으면 좋으련만……. 하지만 오늘은 오전 10시에 내과 선생님들을 모아놓고 발표를 해야 하는 날이었다. 무거운 몸을 겨우 일으키고 침대 밖으로 나오는데 몸이 휘청하며 사선으로 쓰러질 뻔했다.

아버지의 담당 의사한테 전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칫솔에 치약을 듬뿍 얹었다. 씹 하고 세면대 수도꼭지가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며 익숙한 소리를 냈다. 서둘러 양치를 끝내고 눈곱만 간신히 떼어낸 채 허둥지둥 병원으로 달려 나갔다. 아니나 다를까 서둘렀지만 이미 10분이나 지각한 상태였다. 선배 레지던트의 쏘아보는 눈초리가 느껴졌다. 게다가 아버지가 입원한 후로 점심시간마다 식사를 거른 채 이리저리 뛰어다녔

더니 체중이 5킬로나 줄어 있었다. 덕분에 병원에서 입는 의사가운데 한 치수 큰 옷을 입은 것처럼 헐렁해졌다.

오전 회진과 발표를 끝낸 후 아버지의 담당 의사한테 전화를 걸었다. 다행히 연결이 되어 통화를 할 수 있었다. 그는 간밤에 아버지의 바이탈 수치가 급격히 떨어졌다고 했다. 원인은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발견하지 못한 당뇨나 폐렴 같은 합병증이 의심된다고 했다. 수술 전날까지 평소의 수치로 회복이 안 되면 수술 일정을 불가피하게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담당의사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들어 있지 않았다. 그도 나처럼 피곤한 모양인지 더 이상의 질문은 그만했으면 하는 느낌이 전달되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또 다른 질문대신 잘 부탁드린다는 인사를 한 후 전화를 끊었다.

나는 마치 송두리째 마음을 강탈당한 사람처럼 가슴 속에 커다란 구멍이 생긴 것만 같았다. 웬일인지 움직이는 게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졌다. 이제야 아버지를 진짜로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가 없는 세상은 상상조차 해 본 적이 없었다. 마치 방향을 상실한 채 넓은 바다를 표류하는 배에 탄 느낌이었다. 결과론적으로 아버지는 무능력한 가장이 되어버렸지만 돈 이외의 것을 따져본다면 이상적인 아버지이기도 했다. 한 번도 가정 이외의 것에 관심을 가져 본 적이 없고 다른 아버지들과 달리 술과 노름에도 관심이 없었다. 내가 어렸을 적 학교에서 돌아오면 반갑게 맞아주던 이도 아버지였고 내 어깨에 걸린 책 가방을 손수 받아주시고 내가 하는 말을 진심어린 얼굴로 재밌게 들어주던 이도 생각해보면 아버지였다. 그런 아버지를 어쩌면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현실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런 느낌은 엄마에 대해 가졌던 모멸감을 지워버리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오히려 난 지금 막다른 골목까지

와버린 부모에게 못할 짓을 한 것 같은 죄책감마저 느꼈다.

순간적이었지만 한낮의 병실은 밤보다 더 조용하게 느껴졌다. 창문을 통해 흘러들어온 환한 햇빛은 환자들에게 삶의 의지를 북돋아주기보다 오히려 자신들의 처지를 더 어둡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왔나?”

엄마의 목소리에는 어떤 상실감이 느껴지는 듯했다. 병원에 상주하면서 아픈 가족을 돌보는 일이란 건강한 사람에게는 힘이 부치는 법이다. 이제 엄마는 그 한계점에 와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 오늘 엄마는 말이 없다.

“식사는?”

나는 의식적으로 엄마에게 말을 걸었다. 엄마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나는 그동안 엄마에게 쌀쌀맞게 행동했던 것이 후회되었다. 어쩌면 그동안 엄마의 행동은 아들보다도 같은 여자로서 나이 먹어가는 딸에게 의지하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작용하였을지도 모른다.

“이번 주말에 오프야. 내가 병실에 있을 테니까 엄마 집에서 폭 쉬어.”

나는 모처럼 엄마에게 다정히 굴고 있었다. 그러나 엄마는 가타부타 말이 없었다. 나는 그런 엄마의 반응이 더 초조하게 느껴졌다. 한동안 침묵이 엄마와 나 사이에 끼어 앉았다. 그런 채로 얼마나 있었을까.

“우리가 왜 대전으로 안가고 너한테 온줄 아니?”

겨우 엄마가 입을 열었다. 뜻밖의 말이었다. 난 놀란 얼굴로 엄마를 쳐다봤다. 부스스한 모습의 초라한 할머니가 내 앞에 앉아있었다.

“사실 너한테는 얘기 안했지만……, 숙초에서 참 많은 일이 있었어. 자식을 둘이나 의사 만들었다고 소문이 나서 사채업자들이 알아서 돈을

갔다 바치더라. 아버지와 난 그 돈 쓰고 얼른 갚으려고 했어. 그런데 사채업자란게 어찌나 무섭던지……. 몇 번 이자가 밀리니깐 아예 사채업자들이 여인숙에 살림을 차리는데, 나는 지금까지 그런 경우를 한번도 못 봐서……. 얼마나 가슴이 떨리고 무섭던지 너는 상상도 못할거다. 게다가 동네 사람들은 우리가 모은 돈을 다 빼돌려서 오빠 병원 차려줬다고 수군대는 것도 감당하기 힘들더라.”

엄마는 북받친 감정 조절을 위해 한동안 숨을 고르며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난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고도 애써 아무렇지 않다는 듯 점점 굳어져가는 얼굴 표정을 의식적으로 조절하고 싶었다.

“너한테 가기 전에 오빠한테 갔었어. 대전역에서 전화를 하니 오빠와 새언니가 비싸 보이는 큰 차를 타고 마중 나왔더라. 그때만 해도 느이 오빠가 얼마나 든든하게 느껴지던지……. 그런데 오빠 내외가 큰 음식점에 데려가 비싼 고기를 사주더니 인근 여관에 방을 얻어주지 뭐냐? 그러고는 다음날 잘 가시라고 대전역까지 데려다 주는데…….”

그쯤에서 엄마는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병실 안의 다른 환자와 보호자들이 흘깃 쳐다보고 있었다. 그랬구나. 나는 비로소 부모님이 대전에 가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알 것 같았다. 굳이 직접적으로 말은 안해도 부모님은 오빠 내외의 태도에서 자신들을 거부하는 강렬한 무언의 메시지를 포착했던 것이다.

“어제 사채업자 하나가 여길 어떻게 알고 찾아왔더라. 느이 오빠는 사설 경호원을 고용해서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한다고 하더라. 사채업자가 오빠대신 너한테로 찾아 가겠다는걸 아버지와 내가 울면서 빌었다. 그들도 사람인지라 아버지 상태를 보고 더 이상 어찌지 못하더라.”

나는 숨이 확 막히는 듯한 충격에 빠졌지만, 한바탕 울고 난 엄마의

표정은 모든 것을 포기한 사형수의 표정처럼 허탈하고 답답해보였다. 나는 그런 엄마를 보며 설명 못할 이상한 불안감이 우리의 주위를 맴도는 것처럼 느껴졌다.

“걱정 말아라. 아버지와 내가 다 알아서 할테니……. 너는 병원근무나 잘하고 있어.”

그 말을 하는 엄마의 목소리에는 비장함마저 어려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난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인지 따져 묻고 싶었다. 난 엄마의 생각을 더 알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점심시간이 거의 끝나가는 바람에 다시 근무하는 병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오후 근무 내내 엄마와 함께 있으면서 느꼈던 불안감이 계속 주위를 맴도는 것을 느꼈다.

난 그 불안감의 정체에 대해 골똘히 생각해봤다. 그러나 나의 인식으로는 결코 알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았다. 그 때문이었을까. 갑자기 그리 춥지 않은 진료실이 이상스레 춥게 느껴졌다. 나는 혈령해진 가운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었다. 휴대폰이 한 손에 들어왔다. 온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차가운 금속의 촉감이 느껴졌다. 나는 저절로 진저리가 쳐졌다. 이상하게도 아버지가 있는 병실로 달려가고 싶어졌다. 이때 휴대폰의 떨림이 전해졌다. 나는 지체하지 않고 통화버튼을 눌렀다. 아버지의 담당 의사였다. 그는 사무적인 말투를 유지하려 했으나 목소리에 묻어나오는 당혹감은 감출 수 없어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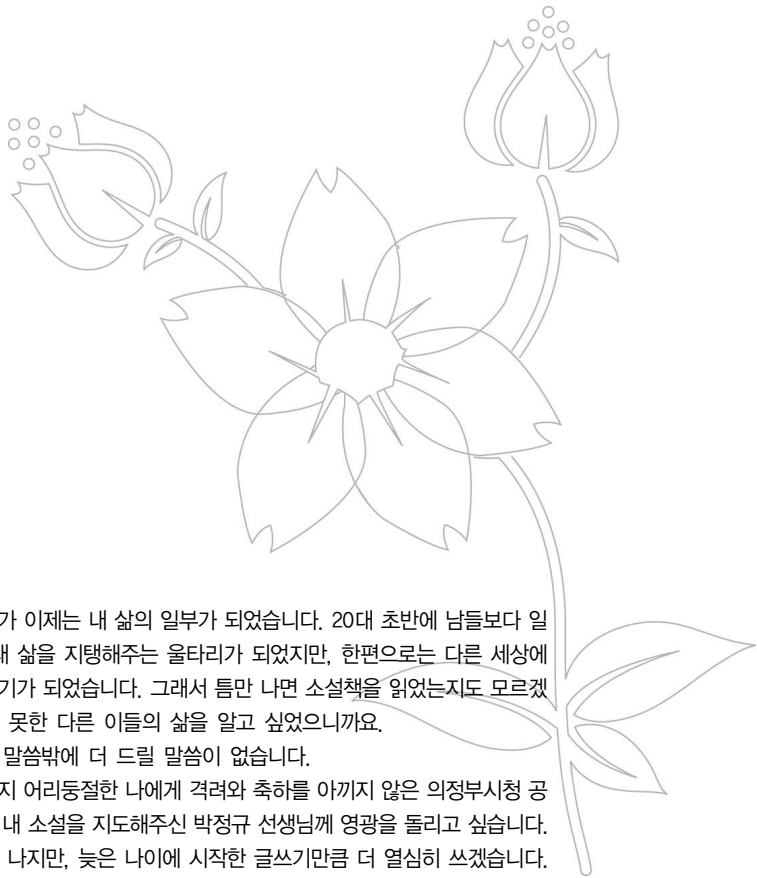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사고라니요?”

“아버님이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면서 병실을 나간 후 7층 병동에서 뛰

어 내렸습니다.”

나도 모르게 손아귀의 힘이 스르르 빠져나가면서 들고 있던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나의 시선은 창문에 머무르고 있었다. 바람이라도 부는지 진료실 창문 밖으로 나뭇가지에 간신히 붙어있던 이파리들이 우수수 떼를 지어 이동하는 철새들처럼 허공을 날아가는 모습이 보였다. 바야흐로 겨울이 시작되고 있었다.



서른 넘어 시작한 글쓰기가 이제는 내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20대 초반에 남들보다 일찍 시작한 공직 생활은 내 삶을 지탱해주는 울타리가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소설책을 읽었는데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다른 이들의 삶을 알고 싶었으니까요.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직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리둥절한 나에게 격려와 축하를 아끼지 않은 의정부시청 공무원 여러분들과, 묵묵히 내 소설을 지도해주신 박정규 선생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더럭 겁이 나지만, 늦은 나이에 시작한 글쓰기만큼 더 열심히 쓰겠습니다.



우수상

## 담배꽃

날마다 보면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낯선 세상 속에서 희망의 언어가 몸을 뒤채고 있다. 꽃가루 가득 묻은 날개를 털고 이제 막 비상하는 그것이 나의 가슴으로 스며들어 절로 입술을 움직이게 만든다.

환화…… 고개를 들자 아내가 환한 표정으로 나와 똑같은 입모양을 만들고 있다.

아, 담배꽃 천국이다. -본문중에서-

춘천교도소\_이숙희



# 담배꽃

## 첫 굴

담배꽃은 깊다. 향기도 없으면서 짹짹 달라붙는, 건듯 부는 바람에도 쉬 고개를 숙이는 긴 종모양의 연분홍 꽃. 어젯밤 아내가 그랬다. 나는 한입 가득 장작을 문 아궁이가 벌겋게 달아오를 무렵 잠이 들었다. 땀별에 달궈진 지열이 스멀스멀 어둠 속으로 기어오르고, 기세 좋게 타오르는 장작불로 인해 황초집의 아궁이 안은 가마솥이나 다름없었다. 진종일 잎담배를 따고, 엮고, 황초집 굴속에 매다느라 고단해진 몸은 졸음을 이기지 못했다. 평상에 몸을 누이자마자 금세 꿀아떨어지고 말았다. 담뱃진으로 끈적이는 몸에는 연신 모기가 달라붙었지만 꼼짝 할 수 없었다.

농사철엔 늘 황초집에서 잤다. 성처럼 높이 올라간 황초집 배꼽 아래 쭈뼛 커다랗게 뚫려 있는 아궁이를 들여다보는 일은 성스러웠다. 그 앞에 반듯하게 놓인 평상. 나는 평상을 이꼈다. 비록 앞산의 소나무를 베어 대충 다듬고 그 위에 베니어판을 얹어 송덩송덩 못질을 한 얇은뱅이 평상이지만 몸을 눕히면 아늑한 방이 되었다. 아내와 함께 덮던 이불 속에서 느꼈던 한기도 없었고 일없이 일어서는 아랫도리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어 편했다. 더더욱 고양이의 가래 끓는 소리를 듣지 않아서 좋았다.

얼마쯤 잤을까. 말캉하면서도 진득한 것이 만져졌다. 반쯤 눈을 뜨자

알몸의 아내가 내 곁에 누워 있었다. 나는 얼른 일어나 아내를 내려다 봤다. 꼭 감고 있는 아내의 눈가에 물기가 반짝였다. 환장하게 타들어가는 장작불은 아내의 조그마한 얼굴과 머리카락이 흘러내린 목선을 환하게 밝히고, 탄력 잃은 젖무덤을 지나 소복하게 숲을 이룬 거웃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나는 서서히 아랫도리가 묵직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내 아내를 와락 그러안았다. 두 사람의 살이 맞닿자 가마솥 안에 든 사골이 된 기분이었다. 오래오래 뽀얀 국물을 우려내듯 나는 아내의 꽃수술 안 쪽으로 지칠 줄 모르고 파고들었다.

마침표를 찍는 나와 달리 아내는 되돌이표를 원했다. 깨물고 핏고 빨고 문지르며 몸의 모든 감각을 동원하는 듯했다. 나는 눈을 휘둥그렇게 떴다. 배위에 올라앉은 아내는 식탁에서 늘 카르릉거리는 고양이 형상이었다. 꼬리를 배쪽으로 감추고 네 다리를 가지런히 모아 고개를 바짝 쳐 들고 있던 고양이……. 놈이 그렇게 앉아 있으면 매번 소화불량에 걸리거나 사레가 들리곤 했다. 내 목을 힘껏 내리누르던 아내는 눈물인지 땀인지 분간할 수 없는 물기를 후드득 떨어뜨리곤 내려왔다. 나는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는 아내를 물끄러미 쳐다봤다. 무슨 말이라도 건네야 할 것 같은 초조함에 입술을 깨물었다. 텅 빈 머리엔 어떤 말도 떠오르지 않았다.

아내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무심히 일어나 마당을 가로질러 방으로 들어갔다. 들어갔다기보다 흔적 없이 사라졌다는 게 더 맞을지도 모르겠다. 그만큼 사골의 밤은 어둡고 음험했다. 나는 아내가 굶고 간 잔향에 코를 별름거리기만 했다. 희미한 향불 냄새 같기도 하고 마른풀 냄새 같기도 한 것이 후각을 거쳐 머릿속을 몽롱하게 만들었다. 나는 알 수 없는 위기감을 느끼며 세차게 머리를 흔들었다.

이른 아침, 새벽 어스름을 걷어내기라도 하듯 아내는 마당을 쓸고 있다. 뒷산 굴참나무 숲은 아직도 어둠에 잠겨있다. 나는 숲의 가장자리를 잠자코 본다. 엄나무, 감추어도 자꾸만 불거지는 물건처럼 솟아 있다. 순간 얼굴을 찡그린다. 보름달이 차오르면 어김없이 귓전을 때리던 북소리 때문이다. 그러나 텃밭의 옥수숫잎 사이로 캄캄한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음을 놓는다. 보름이 되려면 아직 멀었다. 나는 바깥으로 드리웠던 시선을 거두고 긴 부지깥이로 잉겔불을 뒤적인다. 별건 잉겔불이 뒤적여질 때마다 아내와의 잠자리가 어른거린다.

나는 아내와 함께 덮던 이불 속에서 항상 한기를 느꼈다. 차가운 물을 몸을 담그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자울 수가 없었다. 달도 없는 밤, 그 것도 가마솥 같은 황초집 굴속으로 들어온 아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잠자리에서 아내가 지난밤처럼 뜨거웠던 적은 없었다. 신혼 시절에도 그 이후에도 어찌다 갖는 잠자리는 미미하고 반듯하기만 했다. 내가 조금이라도 체위를 바꾸려들면 아내는 몸을 빼거나 싫은 기색을 보이곤 했다. 나는 늘 성녀와 섹스를 하는 기분을 버릴 수 없었는데 지난 밤은 도대체 무슨 변괴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입안이 짹짹하다. 주전자와 재떨이, 성냥갑이 가지런하게 놓여있는 평상머리로 손을 뻗어 벗어둔 윗주머니를 뒤진다. 담배 한 개비를 꺼내 아궁이 속 잉겔불에 대고 깊이 뺏다. 불이 붙여진 담배의 알싸한 기운이 목을 타고 온 몸을 휘돈다. 나는 담배 맛에 빠진 가슴을 활짝 편다. 독해서 속이 따끔거리긴 하지만 아무것도 희석되지 않은 맛을 즐긴다. 담배 수매를 끝내고 남은 부스러기를 버리지 않은 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한 일이다. 바삭 마른 잎을 잘게 부셔 화선지에 날개로 말아둔 것을 여태 피우고 있다.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아내의 습벽도 이런 효용성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든다. 나는 고개를 흔들며 콧구멍으로 연기를 길게 뿜어낸다.

아궁이에 장작을 물린다. 스멀스멀 이는 걱정을 누르기 위해서다. 첫 굴에 들어간 앞담배를 꺼내는 일은 언제나 마음이 조마조마하다. 작년처럼 담배 색깔이 잘 나오지 않으면 또 남의 돈을 빌려야 할 처지이다.

어릴 적, 아버지의 손에 만져지던 앞담배는 내 책가방이 되고, 신발이 되고, 공납금이 되었다. 지금 내 손에 만져지는 앞담배는 뭘까. 집집마다 크르렁, 현대식 기계인 벌크로 담배를 꺼내고 있는데 나만 재래식으로 담배농사를 짓고 있다. 나는 왜 이렇게 밤낮 진득한 담뱃진을 손에 묻히고 사는지. 뽕뽕, 입에 문 담배를 연거푸 뺀다. 어느새 입술에 담뱃불이 닿아 깜짝 놀란다.

앞담배 한 그루엔 열 장에서 열두 장쯤의 치마폭 같은 이파리가 내민다. 대개 밑에서부터 두 장씩 따낸 잎이 한 굴에 들어간다. 노릇한 밝은 빛으로 앞담배를 꺼내기 위해 아궁이 앞을 지키는 이 시간…… 나는 이 시간을 성스럽게 여긴다. 도자기를 굽는 장인(匠人)이 된 기분이다. 일주일동안 꼬박 아궁이 앞을 지켜야 하는 일이나 얇은 불에서 서서히 센 불로 몰아붙이길 반복하는 일, 그리고 황초집 봉창과 굴뚝 창으로 앞담배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를 살피보는 일들은 도자기 굽는 일과 흡사하다. 비닐 끈에 촘촘히 엮어 층층이 매달아둔 굴속의 담배는 아내의 성깔만큼이나 까다롭다. 내가 잠깐만 한 눈을 팔면 단박 담뱃잎은 표시를 내고 만다. 시커멓거나 푸르죽죽한 때깔…… 그것은 돈이 될 수 없는 색깔이다. 사정없이 웅기를 깨는 노인마냥 나는 돈이 될 수 없는 것들을 황초집 뒤쪽으로 가져간다. 그곳에 담배 무덤이 있기 때문이다. 거무죽죽한 잎들이 수북하게 쌓인 무덤엔 벌레 한 마리도 얼씬거리지 않는다.

“밥 먹어”

진득한 아내의 목소리가 아궁이 안으로 퍼진다. 아침인데도 후텁지근하다. 황초집 꼭대기의 굴뚝으로 연기가 힘차게 뿜어나간다. 진흙을 발라둔 벽틈으로 들어온 벌은 벌써부터 지글거린다. 밤새 달구어진 황초집 안엔 푸룻푸룻 살아있던 담뱃잎이 한창 숨죽이고 있을 것이다. 나는 평상 옆에 쌓아둔 굵은 장작 서너 개를 가져와 아궁이 깊숙이 밀어 넣고 일어선다.

아내는 말이 없다. 감자조림과 텃밭에서 아침에 딴 호박잎을 내 앞으로 민다. 아내는 김치며 깻잎절임, 통감자조림, 무장아찌 따위의 밑반찬을 장에서 사지 않고 직접 만들어 상에 올릴 줄도 안다. 풋콩을 드문드문 박은 밥을 내밀어 가끔 나를 흐뭇하게도 한다. 나는 갓 구워낸 고등어살을 젓가락으로 집으며 아내의 표정을 살핀다. 어젯밤에 달뻗던 자태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그저 무심히 수저와 물그릇을 놓을 뿐이다.

아내…… ‘안에 있는 해라고 했던가. 빛을 내뿜기만 해 정작 자신은 빛을 보지 못한 듯 그녀의 얼굴은 늘 백짓장 같다. 다락방과 연결된 안방은 북향이라 종일 있어도 빛 한 줄기 밀려들지 않는다. 아내는 진종일 그곳에 틀어박혀 부질없는 골몰의 시간을 보낸다. 병적으로 사람 만나는 것을 싫어하는 성미이니 시골집보다 아파트를 그리워할 게 뻔하다. 시골집은 대문도 없어 이웃들이 제집 드나들 듯 들락거리곤 한다. 호미를 빌려가고 제사떡을 주고 품앗이 날짜를 맞추는 일 따위가 고스란히 마당에서 이루어진다. 나는 아내가 안방 문구멍으로 바깥 사정을 살피는 걸 알고 있다. 고양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주문을 외운다는 것도 알고 있다.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빨리 꺼져라.

경운기를 산 날이었을 것이다. 기분도 낼 겸 아내를 태우고 읍내 장터로 갔다. 안면 있는 이웃들이 저만큼 다가오자 아내는 살 것도 없는 가게로 불쑥불쑥 들어가 몸을 피하곤 했다. 그렇게 몇 번인가를 하더니 흥삼을 선전하며 경품을 주는 난전에서는 경품을 받을 욕심에 끝내 몸을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이웃이 반갑게 말을 걸자 그녀는 냉랭한 어조로 ‘누구세요?’ 하고 되묻는 어이없는 행동을 했다. 옆에 섰던 내 얼굴은 성냥불을 그어댄 것처럼 화끈거렸다. 농협대출 보증이며 품앗이 등등 내가 아쉬울 때마다 도움을 받던 이웃이었기에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을 수 없었다. 그러나 나는 아내에게 성질을 부리지 못했다. 다만 우려낸 가래침을 장터 마당에 뱉었을 뿐이었다.

아내는 열무된장국을 내 앞에 떠주고 행주를 준다. 일없이 타원형의 식탁을 행주질하는 습관은 여전하다. 결혼 전, 아내는 아이 셋을 낳겠으며 내가 고른 사각형을 버리고 타원형의 식탁을 고집했다. 도시에서 시골로 이사를 올 때도 아내는 식탁을 알뜰히 챙겼다. 흠집이 여기저기 나 있고 여럿이 모여 앉아 식사 할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폐기처분하고 싶었다. 더더욱 아내의 집착이 싫었다. 늦은 밤, 거실로 나오면 아내는 식탁에 엎드려 잠을 자거나 행주질을 하곤 했다. 그런 아내의 모습이 내게는 허깨비같이 보여 가슴이 서늘해지기도 했다. 안쓰러운 마음에 손이라도 대면 아내는 그것을 차갑게 내치곤 했다.

아내가 뿌리친 손을 들여다보면 거기 세상 떠난 아이가 있었다. 아이가 아니라 아이의 감촉에 대한 기억이었다. 보드라운 머리카락과 꿈지락거리는 발가락, 토실토실한 엉덩이의 감촉…… 아이에 대한 나의 기억은 세 살에 멈춰져 있었다.

후룩, 열무된장국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 나는 냉장고를 노려본다. 삶

아둔 열무가 며칠째 방치된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허끝에 감기는 열무가 미끈거린다. 얼른 물을 마시며 삼킨다. 냉장고 문을 열면 쉬어터진 김치, 짓무른 시금치, 곰팡이 핀 마늘 따위가 썩어가는 냄새로 진동할 것이다. 신발장엔 굵이 닳고 주둥이가 날근거리는 신발이 차 있고, 싱크대 수납장과 책상서랍, 콘솔에도 쓸데없는 물건들이 빈틈없이 채워져 있을 것이다. 나는 없어진 물건을 찾으러 나섰다가도 끝없이 밀려나오는 폐품에 질려 물건 찾는 일을 그만두기 일쑤였다.

도시의 서민아파트에 살 때, 나는 베란다에 놓인 화분을 버린 적이 있었다. 화초가 죽고 말라비틀어졌기 때문에 별다른 생각 없이 내린 결정이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아내와 나는 심각한 상황을 맞았다. 아내가 그토록 표독한 얼굴로 나에게 덤빈 적은 처음이었다.

“왜 함부로 버려. 누구 허락을 받고 버리는가 말야.”

“두면 뭘 해. 죽었으니까 버리지.”

“내 허락 없이는 김볼 하나도 버리지 마. 그러면 손목을 분질러 놓겠어.”

“죽은 게 꼴 보기 싫지도 않아?”

“상관 마. 난 텅 빈 걸 보면 그냥 불안해.”

나는 아내의 말을 오래도록 곱씹었다. 하지만 시골에 내려와서도 아내의 버릇은 여전했다. 빈 참치캔이며 사과꺄짜, 어찌다 읍내 오일장에서 경품으로 받아온 재생휴지며 설탕, 미역다발 따위들이 집안 구석구석에 빼곡히 처박혀 있었다.

나는 밥공기의 밥을 숟가락으로 짓이기며 부지런히 밥그릇을 비운다. 기름칠을 안해서인지 낡아서인지 고개 숙이고 돌아가는 선풍기의 빠걱거리는 소리가 신경에 거슬린다. 부엌바닥을 어슬렁거리던 고양이놈은



어느새 아내의 무릎 위로 달랑 올라가 나를 뻔히 노려보고 있다. 나비점  
이 선명한 얼룩무늬 고양이…… 놈의 두 눈에서 선풍한 악몽이 되살아  
난다.

삼년 전 겨울, 나는 도둑고양이처럼 고향집으로 스며들었다. 오랫동안  
비워둔 집은 키를 키운 잡풀과 퀴퀴한 냄새로 나를 맞았다. 타이탄 트럭  
에서 부러진 짐짝들은 잡풀더미 위에 을씨년스럽게 놓여졌다. 짐짝 옆에  
쭈그려 앉은 아내는 독을 품은 사람처럼 나를 노려봤다. 기껏 이런 곳에  
살려고 그렇게 땅을 팔지 않으려 했냐고 금방이라도 날카로운 소리를  
내지를 것만 같았다. 그러나 아내는 천천히 일어나 말없이 짐짝을 풀었  
다. 아이의 마지막 수술이 진행 될 때는 벌써 내 퇴직금까지 병원비로  
들어간 뒤였다. 다섯 개의 카드를 돌리며 빗땀질을 하면서도 나는 아내  
에게 시골땅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방마다 먼지와 거미줄을 걷어내고 골방 미닫이문을 열어 전깃불을 켰  
때였다. 한 사람이 누우면 겨우 뒤척일 정도의 작은 방 구석에 고양이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다. 갑자기 밝은 빛에 놓여난 고양이는 눈을 가  
늘게 뜨고 경계를 했다. 나는 장쇠가 떨어져 나간 뒷문을 열고 눈에 띄  
는 작대기를 주워 놈을 사납게 몰아냈다. 뒤룩뒤룩 살찐 녀석은 느리게  
뒷산 쪽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다음 날 밤, 녀석은 그 방에서 몸을 풀고  
말았다. 무려 다섯 마리나 되는 새끼를 까질러버린 것이다.

지금 아내의 무릎 위에 앉아 있는 녀석은 그 날 태어난 새끼다. 녀석  
도 아내만큼이나 늙은 것 같다. 가끔 산에서 내려오는 족제비나 다람쥐  
를 잡고, 인근에 쥐새끼 한 마리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던 날렵한 몸매는  
더 이상 찾아 볼 수 없다. 방금 마루 밑에서 눈을 반들거리며 나온 쥐가  
마당을 가로질러가는데도 멀거니 쳐다보기만 한다. 아내는 연신 힘줄이

불거진 마른 손으로 녀석의 등을 쓰다듬고 가시를 발라낸 연한 고등어 살을 녀석에게 먹인다. 농투성이의 집에 애완동물 기르듯 고양이에게 정성을 쏟는 아내가 나는 시뭇 못마땅해진다. 나는 억눌렀던 말을 기어이 터뜨리고 만다.

“그만 갖다버려. 털 날리는 것 좀 봐. 저 놈의 몸에 온갖 세균이 들끓는다잖아.”

“.....”

고양이가 아니라 나를 갖다버리고 싶겠지..... 평소의 아내라면 분명 그렇게 응대할 터인데, 아내는 손에 들었던 수저를 조용히 내려놓고 일어나 밖으로 나간다. 치마폭에서 툭 떨어진 늙은 고양이놈은 눈을 가늘게 뜨고 나를 노려보다가 이내 굼뜬 몸놀림으로 아내를 따라간다.

가끔 아내는 잔잔한 수면 위로 도약하는 물고기처럼 행동할 때가 있다. 고양이가 골방에서 몸을 푼 날도 그랬다. 새벽녘이었을 것이다. 선뜻한 찬바람에 눈을 뜨니 골방쪽 미닫이문이 열려 있고 시커먼 물체가 흐릿하게 보였다. 나는 벼락같이 몸을 일으켰다. 옆에 자고 있던 아내가 없었다. 짹짹, 짐승 울음소리가 끊어질 듯 말 듯 가늘게 골방에서 흘러나왔다. 나는 몸을 낮추고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검은 물체가 움직이는가 싶더니 순간 내 팔의 살점이 떨어져나간 것처럼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다. 나는 반사적으로 팔에 들러붙은 검은 물체를 내쳤다. 놀랍게도 나의 반사적인 완력에 나가떨어진 대상은 아내였다. 어둠 저쪽에서 아내 못지않게 카르릉, 카르릉, 날카로운 소리를 내던 어미고양이는 눈에 빛을 달고 있었다. 어미의 자궁에서 금방 쏟아져나와 꿈지락거리는 새끼들의 움직임이 선명하게 느껴졌다. 그때 아내가 다시 나에게 달려들며 날 키롭게 외쳤다.

“내 새끼 살려내!”

## 왕버들

뒷산의 굴참나무 숲을 빠져나가면 제단처럼 펼쳐진 담배밭이 있다. 담배가 심어져 있는 산밭으로 가는 일이 익숙할 때도 되었는데 딱딱 당기는 무릎 때문에 드러난 나무뿌리 위에 걸터앉아 잠시 숨을 돌린다. 바람도 없는데 무성한 굴참나무 잎사귀들이 서로의 몸을 부딪는 소리를 낸다. 이 나무들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쯤 무덤 속에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하며 퐁퐁거기처럼 펄펄잡하게 내려앉은 앞산을 내다본다.

작년 여름에 들이닥친 태풍은 개울 옆의 집들을 쓸어가고 논과 밭, 도로의 경계를 짓밟아버렸다. 산사태가 난 앞산은 그 밑에 자리잡고 있던 담배밭까지 휩쓸어버렸다. 담배 색깔이 잘 나오는 기름진 땅이었는데 날벼락같이 덮친 흙으로 일대의 지세가 달라져버린 것이다. 태풍의 피해는 삶의 뿌리를 흔들었다. 막 열리기 시작한 과일을 떨어뜨리고 황초집 지붕을 날리고 논밭을 함부로 짓밟아버렸다. 태풍이 지나간 바다는 더 풍부한 플랑크톤이 공급되어 풍요로워진다는데 어쩌서 지상은 지옥으로 변하게 만드는지 모를 일이다.

문득, 깊은 갈증이 느껴진다. 먼 산봉우리 안에 숨어 있는 약수탕이 절로 떠오른다. 머리와 가슴을 동시에 터지게 하는 그 시원함을 어찌 말로 형용할 수 있을까. 그것은 새참으로 마시는 막걸리와는 견줄 수 없는 맛이다. 도시 전체를 나에게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맛…… 도시생활은 언제나 나에게 깊은 갈증을 느끼게 했다. 요란한 기계소리로 꽉 찬 공장

안, 희미한 형광등불 아래 뿌영게 떠돌던 먼지는 목에 가래를 끓게 만들었다. 입이 바짝 마르고 혀바닥이 입천장에 짹짹 들러붙는 갈증으로 헛구역질을 견디지 못하는 밤이면 약수 탕이 꿈에 보이곤 했다. 약수탕에 연결된 긴 호스가 공장 옆에 딸린 허름한 기숙사 방안으로 들어와 내 목을 적셔 주던 꿈.

나는 개울과 마을 너머, 산모의 젖가슴처럼 올라온 산봉우리 안에 조용히 들어앉아 있는 약수탕을 지긋이 바라본다. 만지면 말랑말랑할 것 같은 산봉우리를 따라 내려오던 시선은 동구 밖, 왕버들이 있던 자리에서 멈춘다. 내가 타이탄트럭에 이삿짐을 싣고 진종일 달려오던 날의 기억이 아슴아슴 떠오른다.

마을 끝에 있던 옛집이라 아내와 트럭운전자를 먼저 보내고 나는 동구 밖에서 내렸다. 길은 어두웠다. 찬바람이 담배를 문 내 얼굴을 연신 할퀴어댔다. 좁은 포장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저벅저벅, 마른 발자국 소리가 정적을 깼다. 이상하게도 뒤에 누군가 따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얼른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다. 동구 밖에 선 시커먼 왕버들만 보일 뿐이었다. 그런데도 내 발자국과 다른 소리가 자꾸만 섞여들었다.

아름드리로 올라간 왕버들은 아이들이 올라가기 맞춘한 높이에서 양쪽으로 갈라져 있었다. 누구나 알다시피 마을의 봄은 왕버들 가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연둣빛 여린 가지들이 겨우내 얼어붙었던 개울을 녹이길래도 한 것처럼 때 이른 물소리가 콧전으로 밀려들곤 했다. 그 물에 연둣빛 가지들이 치렁치렁 잠겨들었다. 꽃가루 날릴 때가 되면 집집마다 잎담배 모종을 밭으로 내갔다. 왕버들 밑에 놓인 평상은 밭을 오가는 사람들이 잠깐씩 엉덩이를 붙이는 쉼터가 되기도 했다. 정월대보름이나 기우제를 지낼 때면 왕버들은 신목처럼 받들어졌고, 철없는 조무래기들에

겐 더할 나위없는 놀이터가 되어 주었다. 아이들은 늘어진 가지를 잡고 누가 오래 매달려 있나 내기를 하거나 밑동에 돌을 박아 시집보내는 놀이를 했다. 나는 나무에 올라가 낮잠을 자고 책을 읽고 숙제를 했다. 지루해지면 아슬아슬한 곳까지 올라가곤 했는데 휘어진 가지는 금방이라도 찢어져 나를 땅바닥으로 내칠 것만 같았다. 그러나 나는 단 한 번도 나무에서 떨어진 적이 없었다.

작년에 온 태풍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왕버들을 쓰러뜨렸다. 나는 기와지붕에 올라가 왕버들이 떠내려가는 것을 잠자코 지켜보기만 했다. 장대비를 받아내던 몸에서 열이 올라 무력무력 수증기가 피어올랐다. 윗도리와 반바지를 벗었는데도 답답해 결국 알몸으로 지붕에 섰다. 도무지 남의 시선을 의식할 정황이 아니었다. 내 유년의 근거와 내 정신의 뿌리가 송두리째 떠내려가고 있었으니까.

산판에서 떠내려 온 통나무와 돼지, 닭, 오리, 염소 따위들은 거센 물살에 휩쓸려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웠다. 하지만 왕버들은 물살의 중심에 꼳꼳이 몸통을 세우고 천천히 걸음을 옮기는 듯한 형상으로 떠내려갔다. 논물을 대기 위해 만들어둔 꽤 높은 보에 이를 때까지도 그 중심은 좀체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아랫마을 다리가 문제였다. 긴 다리에 가지가 걸린 나무는 더 이상 흐름을 타지 못했다. 왕버들의 몸통에 부딪친 물살은 더욱 기세등등해져 다리를 넘어 아랫마을을 온통 물바다로 만들어버렸다.

그 여름의 끝자락에 나는 왕버들을 다시 만났다. 약수탕 근처의 고추밭에 다녀오는 길이었다. 웬일인지 그날 아침엔 아내까지 따라나섰다. 아마도 전날 밤에 내가 하는 혼잣말을 마음에 둔 모양이었다. 붉은 고추가 썩어 몽크러지니 조막손이라도 아쉬워, 라며 계속 담배를 피워댔으니까.

약수탕은 관광객들로 붐볐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나오느라 경운기가 자주 멈칫거렸다. 느닷없이 끼어드는 사람들도 짜증스러웠지만 그보다 속을 울렁거리게 만드는 역한 냄새를 견디기 어려웠다. 땀별에 달구어진 콜타르 냄새, 싸구려화장품 냄새, 주변의 식당에서 밀려나오는 음식냄새…….

급성림프구성 백혈병을 앓던 아이에게서도 지독한 냄새가 났다. 존재를 확인시키는 최후의 인간힘일까. 두엄더미나 썩은 과실에서 풍기던 냄새와 별반 다를 게 없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냄새를 다 식힌 듯 아이의 눈은 맑디맑았다. 썩은 것과 맑은 것의 공존을 일깨우고 저 세상으로 떠난 환희……. 결국 약수탕 근처에서 나던 냄새 때문에 나는 세상 떠난 아이를 떠올리고 말았다. 그때 경운기 잠간에 앉아 있는 줄 알았던 아내가 내 귓전에 대고 꿈을 꾸듯 몽롱한 어조로 말했다.

“여보…… 환희야. 환희!”

아내의 말에 온몸에서 힘이 빠져버렸다. 죽은 아이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아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에 깨끗하게 다듬어진 왕버들이 있었다. 가지를 다 쳐낸 우람한 몸통에 튼실한 뿌리를 줄줄이 달고서 마치 염을 끝낸 송장처럼 놓여 있었다. 나는 수석가게 앞에 눕혀진 왕버들 앞으로 경운기를 댔다. 그때까지도 아내는 몽롱한 눈빛을 거두지 못하고 왕버들만 보고 있었다. 경운기 소리에 밖으로 나온 주인은 아내의 눈빛이 왕버들에 붙박인 것을 보고 단박 썰기를 박았다.

“고거 파는 거 아입니대이. 쪼매 있으면 뒤편카드라, 민속 박물관인지 산림 박물관인지에 보내뿐다꼬 군청에서 우리 집에 매껴놔니더. 백제 말이놓는다 캐갓꼬 돌뻔 보는 사람은 없꼬 그 노무 왕뻔들인가만 치다보고 간다니깐.”

주인은 뺏뺏하게 올라온 턱수염을 문지르며 수다스럽게 말을 계속했다. 아내의 입에서 나온 아이의 이름은 바윗덩이이라도 된 듯 내 가슴을 답답하게 짓눌렀다. 우리부부 곁에 6년을 머물다 간 아이…… 그 아이가 죽고 난 뒤 아내와 나는 아이에 관한 것은 일절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심지어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낸 적도 없었다. 그것이 아내와 나 사이에 불문율처럼 자리를 잡은 셈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왕버들 앞에서 스스로 불문율을 깨버렸다.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왕버들과 아이를 혼동하게 만든 것일까.

그 후 아내는 심한 열병을 앓았다. 물 한 방울 삼키지 못한 채 몸은 불덩이처럼 달아올랐다. 병원에 가자는 내 말에 아내는 메마른 입술만 달싹거리다 고개를 완강하게 흔들어대곤 했다. 병원을 끔찍하게 싫어하기 때문이란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가을걷이로 바빴던 나는 아내의 고집에 날카로워진 신경을 다스리지 못한 채 거칠게 그녀를 들쳐 얹어 경운기에 실었다. 왕버들이 서 있던 자리를 지날 때, 경운기 속도 조절 레버를 한껏 당기는 내 손은 연신 떨리고 있었다.

나는 아직도 아내가 옷장 깊숙이 많은 것들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떨어진 아이의 배꼽, 처음으로 잘라낸 보드라운 머리카락, 손톱, 발톱, 배냇저고리…… 그리고 작명소에서만 들어준 아이의 이름표.

## 엄나무

굴참나무 숲은 한 그루의 엄나무를 숨기지 못한다. 오히려 온 몸에 뺏뺏한 가시를 세운 아름답디 엄나무가 숲을 껴안고 있는 형국이다. 나무

허리엔 흰 천이 묶여 있어 대낮인데도 선뜻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다. 나는 나무 밑 너럭바위를 잠시 노려본다. 군데군데 떨어진 쫓농과 이리저리 흩어진 향조각이 지저분하다. 보름이 되려면 아직 멀었는데 어젯밤에도 점쟁이들이 왔다갔나? 나는 아내의 냄새라도 맡듯 코를 벌름거리며 찬찬히 타다만 향과 바위에 납작하게 붙어있는 초의 심자를 살핀다.

달이 차오르는 보름쯤엔 북소리가 산을 울렸다. 먼 동네의 점쟁이들까지 엄나무 밑에서 기도를 하고 굿을 했다. 그럴 때면 나는 당장 달려와 나무를 베어버리고 싶었다. 북소리만 들리면 아내는 뒷문을 활짝 열어놓고 냇을 놓곤 했으니까. 왕버들이 없어지고 난 뒤부터 부쩍 심했다. 캄캄한 방안에 정물처럼 웅크리고 앉아 내가 소리치고 불러도 도무지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저 열린 문으로 들어오는 북소리에만 귀를 세울 뿐이었다. 밥 타는 냄새가 진동을 하고 찌개가 끓어 넘쳐도 끝내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올 봄, 아내는 자주 사라졌다. 거뭇한 굴참나무 가지에 연둣빛 잎이 돌아나던 무렵부터 아내가 밤나들이를 시작한 때문이었다. 비닐하우스에 담배 모종을 내고 밭을 일구느라 고단해진 나는 정신없이 한숨을 자고 나서야 늘 아내가 없어진걸 알아차리곤 했다. 희붐한 새벽녘에야 자리에 눕는 아내의 기척은 늘 내 축수를 예민하게 만들었다. 손끝에 닿는 옷은 물기가 배어 척척했고 이불깃이 들썩일 때마다 손내가 코를 찔렀다.

뒤를 캐기로 작정한 것은 보름밤이었다. 달이 대낮처럼 밝았다. 뒷산의 소쩍새소리와 앞논의 개구리울음소리가 달빛을 빔어내기라도 하듯 밤이 깊어질수록 문설주의 그림자가 짙어졌다. 김치를 담근다며 늦도록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던 아내는 어느 틈엔가 운동화 끈을 조이고 있었다. 희미하게 들리는 아내의 기척에 나는 귀를 곤추세웠다. 골목을 버리고



황초집을 돌아 뒷밭을 가로질러 가는 것을 보며 나는 알 수 없는 긴장과 의심으로 두 눈을 부릅떴다. 나는 종종걸음 치는 아내의 뒷모습을 노려보며 개울 옆길을 따라 동구밖까지 내쳐 걸었다.

문득 아내가 걸음을 멈추었다. 너무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뒤를 따르던 나는 선뜻 몸을 숨길 곳을 찾지 못해 당황했다. 가까스로 가갯집 담벼락에 달라붙어 짙은 그림자 속에서 한껏 숨을 죽였다. 비로소 나는 아내가 왕버들이 서 있던 자리에서 걸음을 멈췄다는 걸 알아차렸다. 이제 민속박물관에 전시된 왕버들 자리에는 어금니를 뺀 것처럼 우묵한 구멍이가 생겨 있었다.

잠시 정물처럼 서 있던 아내는 돌연 가갯집 옆으로 난 언덕배기로 걸음을 옮겼다. 언덕에 올라서면 곧바로 굴참나무 숲이 나타났다. 달빛에 비친 나뭇잎들은 시커먼 벌레들이 우글거리는 것처럼 선풍한 풍경을 만들어냈다. 그곳으로 아내는 그림자처럼 스며들어갔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아내의 뒤를 밟을 수 없었다. 웬지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숲은 이승과 저승,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에 놓여있는 듯했다. 갈아엎은 담배 밭고랑에 털썩 주저앉자 의식의 언저리를 떠돌던 말이 불쑥 수면 위로 솟구쳤다. 그래, 내 능력은 이것밖에 안 돼……. 그것은 아이의 식어가는 몸통을 부둥켜안았을 때 나를 사로잡은 절망의 언어였다. 나는 즈름 짜듯 한 즈름의 흙을 손아귀에 움켜쥐고 검은 굴참나무 숲으로 몸을 던졌다.

엄나무 밑에 향을 피우고 촛불을 켜고 앉은 아내의 모습은 타인처럼 낯설었다. 하지만 그렇게 고요한 풍경은 오래잖아 광란의 춤판으로 변해버렸다. 춤을 추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사지를 찢어발기듯 아내는 필쩍필쩍 솟구치며 연신 자신의 옷을 뜯었다. 긴 셔츠의 팔이 늘어지는가 싶더니 뿌직 소리를 내며 찢어졌다. 곧이어 앞단추가 떨어지고 마른 젓가슴

이 비어져 나왔다. 일렁이는 촛불 타인지 아내의 얼굴은 끔찍한 형상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 표정이 내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순간, 아내처럼 모든 걸 놓아버리고 길길이 날뛰고 싶다는 충동으로 나는 격렬하게 몸을 떨었다. 나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한 채 미친 듯 달려나가 아내를 끌어안았다. 나의 출현에 심하게 발광할 거라 예상했으나 아내는 순한 짐승처럼 힘없이 내 품에 쓰러졌다. 그녀의 젖은 몸에서 마른 풀냄새가 났다.

엄나무가 귀신을 쫓는 나무라던 아내의 말이 떠오른다. 나는 손을 뻗어 엄나무 가지 하나를 탄다. 입에 넣고 꼭꼭 씹는다. 씹씹한 맛이 입안에 퍼진다. 나는 자못 엄숙한 얼굴로 상체의 각을 세운다. 일순 사람의 손바닥 같은 엄나무 잎이 내 얼굴을 후려칠 것처럼 세차게 흔들린다. 비가 오려는 걸까, 나는 어둑해지는 숲을 잔걸음으로 빠져나온다.

담배밭은 잔뜩 약이 올라있다. 시커멓게 약이 오른 담뱃잎이 넓은 밭을 빈틈없이 채우고 있다. 밭을 들이미는 나를 밀어낼 기세다. 나는 저 멀리 소나기구름이 몰려오는 걸 보고 얼른 밭고랑으로 들어선다. 넓적넓적한 잎 사이로 쭈쭈 올라와 있는 담배꽃을 탄다. 꽃은 겨우 몽우리를 맺고 있는 상태다. 아이 입술처럼 뽀족이 내민 몽우리를 사정없이 꺾어버린다. 금세 손은 담뱃진으로 시커멓다. 내가 지나간 고랑마다 담배꽃이 수북하게 깔린다. 담배 꽃을 쳐내는 내 손은 가위라도 쥔 듯 빠르다. 황초집 아궁이에 불이 사그라지기 전에 일을 끝내야 한다. 후드득, 후드득, 한두 방울 떨어지던 비는 순식간에 장대비로 담뱃잎을 때린다. 빗소리는 때로 몰려오는 장정들의 발자국 소리처럼 어지럽다.

## 막굴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좀체 그치지 않는다. 아궁이의 불기운이 약하다. 앞담배는 늘 마지막으로 황초집 굴속으로 들어간다. 겨우내 장만해둔 장작은 넉넉하게 남아 있다. 나는 아궁이 가득 장작을 집어넣고 평상에 몸을 눕힌다. 막굴은 길고 어두운 터널을 겨우 빠져나온 듯 몸을 축 늘어지게 만드는데 지금 내 몸은 오히려 싱싱하다. 맑고 섬세한 햇빛이 몸 구석구석에 닿아 새살이 돋는 것 같다. 다른 어느 해보다 담배 색깔이 잘 나와서일까.

막굴에 들어가는 앞담배는 텅으로 주는 야채처럼 불품이 없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한두 개의 담뱃잎을 따는 손은 언제나 떨린다. 손이 떨리는 건지, 잎을 당긴 반동으로 양상하게 남은 그루터기가 떨리는 건지 알 수가 없다. 다만 푸른 잎으로 짝 찢던 발이 행하게 비는 것을 보노라면 나의 마음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다.

타, 타, 타.

가느다란 불줄기가 마른 장작을 들쭉서 금방 센 불길이 치솟게 만든다. 나는 가만히 빗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비는 발에 버려진 담배꽃을 밟고 엽나무잎과 굴참나무잎, 텃밭의 호박잎, 옥수수잎을 차례로 밟으며 나에게 다가온다. 자박자박, 어느새 빗소리는 아이의 발자국 소리로 변한다.

아이가 제대로 땅을 밟아보거나 했던가. 아이는 제법 살이 오른 다리로 놀이터며 길거리를 막무가내로 뒤통거릴 무렵에 세상을 떠났다. 건다가 조금이라도 물이 고여 있으면 아무리 말려도 찰박거리며 옷을 적시던 아이…… 내가 만약 시골 땅을 팔았다면 아이가 다시 땅을 밟을 수

있었을까. 애걸복걸 매달리며 애원했지만 의사는 아내와 나에게 끝내 희망의 씨앗을 건네주지 않았다. 아이는 몸 곳곳에 구멍을 뚫고 호스로 최소한의 영양을 공급받으며 오직 심전도만으로 생명을 유지했다. 아이의 발바닥을 간질일 때마다 폼지락거리는 걸 보며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곤 했다. 그것이 아이의 생명에 대한 안도의 한숨이었을까. 알 수가 없다. 혹, 이제 그만 떠나라, 제발 우리를 살게 해 달라는 애원의 한숨은 아니었는지.

찰박찰박, 아내의 발소리가 들린다. 평상에서 놀라 일어나는 내게 아내는 쥔 옥수수를 내민다. 옥수수 알이 슬리퍼 밖으로 나온 아내의 발톱처럼 가지런하다.

“이상해.”

“뭐가?”

“버리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

“..... 뭘?”

“어제 고양이를 뒷산에 버렸어.”

“.....”

“환희 부스러기도 다 묻었어.”

“.....”

그리고 보니 때마다 식탁에 올라오던 고양이가 어제 저녁과 오늘 아침에 보이지 않았다.

“고양이를 산에 놓아주고, 아이의 배꼽과 머리카락, 손톱, 발톱을 땅에 묻는데....., 어쩐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내 몸에 들어와 시키는 것 같았어.”

아내의 말은 태풍이 지나간 다음의 바다처럼 잠잠한 느낌을 준다. 나

는 아궁이 앞에 쭈그려 앉은 아내의 옆얼굴을 찬찬히 뜯어본다. 백짓장 같던 아내의 안색이 한 꺼풀 벗겨낸 듯 뽕송해 보인다. 귀밑과 턱, 뺨까지 밧그레한 홍조가 되살아난다. 참 오랜만에 다시 보는 빛이다.

## 약수탕

하탕, 중탕, 상탕, 천탕으로 이어진 샘구멍에서 뽕글뽕글 약수가 솟아 오른다. 가장 물맛이 세다는 하탕 앞에 경운기를 세운다. 아이의 웅얼이 처럼 약수는 연신 소리를 내며 솟아오른다. 한 바가지 뜬 약수를 입으로 가져간 아내는 꿀꺽꿀꺽 단숨에 들이켜고 이내 빈 바가지를 내민다. 이 물로 밥을 하면 삶은 계란 냄새가 나고 색깔이 초록으로 변한다. 항상 못 먹겠다고 버리던 아내가 약수를 한 바가지나 마신 게 신기하다. 물을 목으로 넘기면 찌릿한 탄산가스가 몸속을 훑은 뒤 이윽고 시원한 트림을 밀어올린다. 오랫동안 가슴에 쌓인 양금이 초록 기포로 변해 세상으로 밀려나오는 건지도 모른다. 아내가 그 맛에 눈을 뜬 걸까.

나는 경운기의 변속기어를 이단에 놓고 깨끗하게 물청소를 한 수석가게 앞을 지난다. 어쩐지 마을로 곧장 들어가고 싶지 않다. 경운기 머리를 돌려 산사태가 난 앞산 쪽의 좁은 농로로 접어든다. 경운기가 지나갈 때마다 길옆에 칠칠하게 자란 방초가 몸을 눕혔다 일으킨다. 탈탈탈, 경운기의 소음 속으로 아내의 탄성이 쏟아진다.

“어머, 예뻐라. 저것 좀 봐!”

나는 갯길에 경운기를 세우고 아내가 손짓하는 곳을 바라본다.

산사태로 흔적 없이 사라진 담배밭 자리에 담배꽃이 지천으로 피어

있다. 담뱃잎 곁에 꽃대를 올린 연분홍 꽃은 천연덕스러울 정도로 만개해 있다. 나는 지금껏 단 한 번도 그 꽃이 예쁘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다. 그래서일까, 아내의 탄성이 새삼스레 가슴을 설레게 한다. 그저 꽃을 따주어야 담뱃잎이 더 넓고 고운 빛깔을 낸다기에 몽우리가 맺히기 무섭게 꺾어버리기만 했을 뿐이었다. 그래서 담배꽃은 나에게 인생처럼 지겹고 끈질긴 것으로 각인되었다. 한 번이라도 담배꽃의 온전한 모습을 본 적이 있었던가.

나는 여기저기 몸을 세운 담배꽃 가까이 다가가 긴 종모양의 여린 꽃수술을 살짝 건드린다. 꽃수술이 파르르 어린아이의 입술처럼 떨린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꽃수술 안쪽을 들여다본다. 깊고 아늑한 그곳에 한참 눈길을 주고 있노라니 내가 모르고 있던 또 다른 세상이 슬그머니 열린다. 거기, 날마다 보면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낯선 세상 속에서 희망의 언어가 몸을 뒹고 있다. 꽃가루 가득 묻은 날개를 털고 이제 막 비상하는 그것이 나의 가슴으로 스며들어 절로 입술을 움직이게 만든다. 환희……. 고개를 들자 아내가 환한 표정으로 나와 똑같은 입모양을 만들고 있다.

아, 담배꽃 천국이다.

한 5년 전부터 나는 등나무에 집착해왔다. 늦봄에 피는 보랏빛의 꽃이 좋았다기보다 그 뒤 틀린 몸통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등나무가, 매년 꽃피울 때쯤 온 몸을 밀동에서부터 뒤흔다는 사실을 안다. 그건 이미 자신의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과거를 한꺼번에 되새김한다는 것. 나는 등나무만큼 꾀꼬리한 생명체를 알지 못한다. 어쩌면 등나무에 대한 나의 집착이 소설을 쓰게 하였는지도 모르겠다. 부족한 글을 뽑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보다 부끄러움이 앞선다. 앞으로 꾸준한 노력으로 보답하고 싶다. 제대로 해내는 게 없는 내게 늘 커다란 나무가 되어주는 남편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장려상

## 곰추의 꿈

“아, 맞다. 그 부에 미스정 있잖아. 돈으로 김과장 꼬셨다며?”

“정말? 나도 흘려듣긴 했는데 그거 사실이야?”

“그래. 그게 겉으로만 순진한 척 혼자서 다했지. 김과장이 성깔은 있어도 요새 잘 나가잖아. 2년도 안돼 과장 단 것도 그렇고.”

“어머, 순옥이 그렇게 안 봤는데 어우다, 야.”

-본문중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이지은

## 곶추의 꿈

어디선가 메스꺼운 냄새가 나의 단잠을 흔들어놓고 있었다. 그 형체도 없는 것은 방문 틈새로 슬며시 들어오더니 흐물흐물 방바닥을 기어와 내 속을 휘저어놓고 있다. 달그닥거리는 소리에 흠칫 놀라 일어나 보니 다시 하루가 시작된 모양이다.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인 마냥 그렇게 또 아침은 따라오라고, 따라오라고 뒤흔진 나를 재촉하고 있다.

“새댁, 새댁 일어났수?”

“네. 나가요.”

대충 모양새를 다듬고 현관문을 여니 불쑥 얼굴을 들이미는 뱀비가 눈앞을 가린다. 기어이 그 실체를 드러낸 냄새, 순간 나도 모르게 입으로 손을 가져간다. 그 뒤로 따라 들어오는 뱀비보다 더 빛바랜 옆집 아주머니. 새벽부터 나의 숙면을 방해하던 범인과 그 교사범이다.

“이거 오랜만에 맛난 추어탕을 끓였지 뭐유. 바깥양반 없다고 혹 아침도 아무렇게나 때우는 게 아닌가 싶어 가져왔수. 괜찮은 것 같으께 한번 먹어보우. 그나저나 바깥양반은 출장이 너무 긴 거 아니우? 새댁 외롭겠구만.”

“아, 네……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아주머니가 말하는 건 아마도 동운을 이르는 것일 게다. 하긴 집구할 때부터 같이 들어왔으니 부부로 오해할 만도 하지. 그 녀석과 끝난 지도



그리고 보니 벌써 이주일째다. 어차피 그 녀석과는 길다고 여겨질 때였다. 내가 쫓아낸 것도 아니오, 자기 발로 걸어나간 것이니 내겐 무에 그리 아쉬울 것이 없다. 다만 아주머니의 호칭이 조금 마땅치 않지만 해명 따위를 할 필요가 없을뿐더러 그리 귀에 거슬릴 정도도 아니다.

아주머니가 돌아가고 나는 보기만 해도 구역질나는 범인에게 응징을 가하고 만다. 이제껏 추어탕이라곤 먹어본 기억이 없을뿐더러 아예 그럴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시장 구석 조그만 대야 속에 갇혀 팔랑거리는데 그 수많은 미꾸라지의 작은 몸이 산산조각 부스러져 탄생한 실체가 바로 내가 들고 있는 것이라니. 생각만으로도 몸서리가 쳐져 얼른 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주고야 말았다.

회사로 향하는 출근길은 언제나 고단함의 연속이다. 정류장으로 이어지는 가파른 골목을 내려가는 시간은 굽 높은 구두를 신어야 하는 내겐 그야말로 고문이다. 항상 반도 못 내려가 구두를 벗어 던지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곤 한다.

천신만고 끝에 도착한 정류장에선 언제나처럼 버스가 시커먼 연기를 뿜으며 달려와 사람들은 꾸역꾸역 집어삼키고 있다. 너무 많이 먹어 목구멍까지 차올라도 버스의 식탐은 끝이 보이질 않는다. 나도 내키지 않는 걸음을 옮겨 딱 찬 만원버스 안에서 몇 십 분을 시달린 끝에야 회사에 발을 디딜 수 있었다.

“안녕하세요? 조금 늦었습니다.”

“오, 미스리. 못 본 주말 사이에 더 예뻐진 것 같아. 비결이라도 있나?”

“그러는 과장님은 주말 사이 더 늙어지셨네요.”

순간 사무실은 키득거림으로 들쭉인다. 그도 그럴 것이 능글맞은 김과장의 붙어진 얼굴이 쉬운 구경거리가 아닌 까닭이다. 제대로 하는 일이라곤 여사원들 추근대기뿐이니 누가 그의 신부가 될지 그녀의 앞날이 과히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나보다도 1년이나 늦게 들어온 그가 벌써 과장이고, 나는 여전히 미스리다.

“언니, 이제 오세요? 여기 모닝커피요.”

“어, 그래. 고마워.”

언제나 나보다 앞서 출근하는 순옥은 이제 입사 석달째인 새내기사원이다. 나와 3년 차이가 나니 그녀는 나를 하늘같은 선배로 여기고 있다. 처음 일을 가르칠 때는 그 까만 눈동자를 쉴 새 없이 깜박이는 터에 매사 나를 곤란케 하더니 요즘엔 어느 정도 일상적인 일은 알아서 척척 해내는 정도이다. 그녀가 언젠가 서울이 고향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곳에 올라온 지도 얼마 되지 않는 듯했다.

“자자, 오늘 중요한 거래처 사장과 미팅 있는 거 다 알죠? 각자 맡은 바만 충실하도록.”

한부장이 그 출렁거리는 뺨살을 한아름 안고 나타나 한마디 뺄고는 돌아선다. 그 실룩거리는 엉덩이가 문밖으로 사라지자마자 또 김과장은 정신없이 사원들을 몰아댄다.

“다들 들었지? 거기 장대리, 계약서 조건사항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미스리는 카드 마저 완성하고, 그리고 미스정은 내가 맡긴 서류 다 정리했어?”

“네? 무슨 서류를 말씀하시는지…….”

“아, 거 왜 있잖아. 저번주 토요일에 내가 해라고 부탁한 거.”

“그건 제가 외근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여 그때 과장님이 직접 하신다

고…….”

“뭐? 내가 언제? 미스정이 갔다와서 한다가에 믿고 맡겼더니. 미스정은 도대체 제대로 하는 일이 뭐야?”

“죄, 죄송합니다.”

김과장은 크지도 않은 눈에 쌍심지를 켜다. 그녀의 여린 눈망울이 심하게 흔들리더니 금세 살짝 붉어진다. 한마디 못하는 그녀의 답답함이 안쓰럽다.

“커피 드세요, 언니.”

바로 며칠 전 일이었다. 점심식사를 끝내고 잠깐의 여유를 무념으로—사실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창가에 서있는 걸 좋아한다—채우고 있는데 그녀가 다가와 커피잔을 내민다. 커피향에는 달콤하면서도 씩씩하고, 따뜻하면서도 고독한, 무언가 정의할 수 없는 묘한 매력이 있다. 그런 까닭일까……. 커피는 마지막 쓴맛까지 나를 중독 시킨다.

“그래, 고마워. 근데 내가 카페인으로 병 생기면 욕이 니 탓인 줄 알아.”

“언니도 참. 그럼 이제부터 커피 안 챙겨드려요.”

“농담이야. 내가 하루라도 커피 안마시면 입안에 가시 돋는 거 알면서 그래.”

“네, 어련하시게요. 하루에 한잔이면 다행이게요.”

“그러게. 근데 요즘 너 화장이 짙어졌다. 안 하던 색조화장까지 하고 누구 잘 보일 사람이라도 생겼어?”

“언니 눈은 못 속이겠네요. 사실요……. 저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요. 이거 언니한테 처음 말하는 거예요. 비밀인 거 아시죠?”

“그래? 잘됐다, 야. 안 그래도 너 혼자 타지 생활하는 거 걱정스러웠는데. 누구, 내가 아는 사람이야? 그럼 다리 해줄게.”

“그게... 실은 김...과장님요...... 저 혼자 짝사랑이죠, 뭐.”

순간 무언가에 머리를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찢어진 눈에 곱슬머리, 깡마른 체구에 성격은 거론조차 하고 싶지 않은 그 김과장을 말하는 것이 맞는지, 내 귀를 의심하고픈 심정이었다. ‘제 눈에 안경’이라더니 그녀를 어떡하면 좋을지 아무런 대안이 떠오르지 않았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이란 자기 자신도 제어할 수 없이 빠져드는 블랙홀 같은 것임을 경험으로 익히 알고 있는 터에 더더욱 그랬다. 그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까만 눈동자를 안타까움으로 바라본다. 그녀가 넘어야 할 산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 내가 관여할 그녀 인생이 아니라고... 그렇게 나는 나 자신을 합리화시킨다.

미팅은 별 탈 없이 진행됐고, 계약도 성공적으로 성사됐다. 그 기념이랄까, 일이 끝나고 한부장을 필두로 한 우리는 고깃집 한 구석에 떠들썩하게 자리를 잡는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다음주 배관건설 입찰만 성공적으로 따내면 우리 회사가 대기업 못지않게 성장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조금만 더 고생합시다. 자자, 잔들 들어요.”

쨍하고 키 작은 유리잔들이 비명을 지른다. 출렁거리는 소주마냥 사람들 눈동자도 흔들리고, 텅달아 실내를 가득 채운 담배연기도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사람들의 입질에 이리저리 요동을 친다. 뜨거워지는 실내 공기 따라 술자리도 고개에 다다른다.

술자리에서 사람들을 관찰하는 일은 의외로 재미있다. 한부장은 안 그

래도 늘어진 볼살 가득 터지도록 씹을 집어넣고 있고, 장대리는 어느새 벌게져 구석에서 자고 있고, 김과장은 여사원들 가운데 비집고 들어앉아 특유의 능청스러움으로 수다를 떨고 있다. 희미한 연기 사이로 움직이는 그들의 몸짓은 느린 화면처럼 과장되고 유머스럽기까지 하다. 그리고...

“언니, 한잔 받으세요.”

“어, 그래. 너무 많이 마신 거 아니니? 술도 잘 못하잖아.”

“이 정도야 아직 괜찮아요. 가끔 취해보고 싶을 때 언니도 있잖아요.”

딸꾹, 그녀는 부끄러운 건지 술에 달아오른 건지 양 볼이 붉어진다. 술잔 위로 쏟아지는 소주가 그녀처럼 투명하고 서글프다.

“낮에 일 때문에 그래? 김과장 원래 그런 놈인 거 알잖아. 속이 없어서 내일 되면 또 능글거릴 테니 신경 쓰지 마.”

“제가 잘못된 건데요, 뭐. 다음부터 더 잘해야죠.”

그녀는 순진하다 못해 바보 같다. 그렇게 해선 우리 회사에서는 물론 이 도시에서도 살아남기 힘들거라 말해주고 싶은 걸 애써 참는다.

술자리는 이어 2차로 넘어가고 노래방 대형룸은 독점한 그들은 그야말로 광란의 밤을 지치지 않고 땀다. 귀가 터질 듯 울려대는 음악, 눈 아프도록 현란한 조명…… 그 좁은 방에서 1분이라도 더 있으면 구역질이 날 것 같아 얼른 화장실로 피신하고 만다.

썩아, 수돗물 소리가 청량하다. 그렇게 한참을 물소리에 잠겨 거울 속에 인형 같은 나를 바라본다. 세상은 언제나 나만 버려두고 빙글빙글 돌아간다. 갑작스레 운이가 떠오른다.

“언니, 취했어요?”

언제부터 있었는지 비틀 비틀 그녀가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온다.

“아…… 언니, 세상이 빙글빙글 도네요.”

혀가 아주 꼬인 발음.

“언니, 그거 알아요? 언니가 처음 옥아, 하고 불렀을 때 눈물이 날 뻔 했더랬어요. 우리 엄마가 절 늘 그렇게 불렀었거든요.”

엄마, 낯선 단어다.

“나야 누구든 끝자 부르는 걸 좋아하니까. 그나저나 너 괜찮은 거니?”

“그럼요…….”

그녀의 말은 거기까지였다. 그녀가 다시 화장실 안으로 달려 들어가 먹은 것을 확인하는 동안 나는 바닥에 널브러진 그녀의 가방과 소지품을 주섬주섬 챙겨든다. 파우더, 다이어리, 마스크라, 지갑, 그리고 통장…들.

그 중 하나를 펼쳐들어 액수를 확인하는 순간 당황한 나는 얼른 그것을 제 자리도 돌려다준다. 꽤 많은 돈이었다. 3년 동안 내가 모은 금액과 맞먹을 만큼. 물론 나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종종 옷이며, 구두며, 가방으로 거액을 날리곤 하지만 말이다.

“옥이 알고 봤더니 알부자네.”

“네?”

손을 씻던 그녀는 무엇인가 덴 사람처럼 깜짝 놀라 내 손에서 가방을 낚아챈다. 그리고는 얼굴을 내밀고 있던 통장들을 마구 쑤셔 넣더니 지퍼를 채운다.

“부, 부자는 무슨요. 이제 겨우 집에 돈 부칠 만큼 되는데요, 뭐.”

물건을 훔치다 걸린 도둑처럼 그녀의 목소리는 낮설도록 떨린다.

“속은 어때? 좀 괜찮아?”

“네? 아, 네…… 괜찮아요.”

“3차 가야지, 3차!”

항상 느끼는 거지만 술자리의 파장은 견딜 수 없을 만큼 더디다.

“저 먼저 가볼게요.”

2차까지라면 있을 만큼의 예의는 다 지킨 셈이다.

“아니, 미스리 갈려구? 안돼, 나랑 한잔 더 해야지.”

이럴 때 김과장은 진드기 같다. 떨어지지도 않고 내 피를 빨아먹는 시커먼 진드기. 그가 고무줄같이 늘어나더니 까만 손을 내밀며 나에게 들러붙으려 한다.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 순간, 단 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등을 돌린 나는 마침내 그 소굴 속을 빠져나온다.

늦은 밤 집으로 오르는 길은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처럼 언제나 목이 탄다. 디디는 걸음마다 희미한 가로등이 깜빡거린다. 어둠이 차곡차곡 내려쬐인 골목은 구석구석에서 고독을 토해내고 있다. 새삼 혼자라는 쓸쓸함이 나를 덮친다. 운이랑 싸다는 이유로 고른 집이었는데 그 때는 왜 지금을 예상하지 못했을까. 홀로 오르기에는 길이 너무나 높고 길다는 걸 그 때는 왜 몰랐을까…….

“빨리 올라와. 조금만 더 가면 된단 말이야. 내가 니 생일 맞춰 집 구한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얼른.”

“운아, 조금만 천천히 가면 안돼? 썩 게 비지떡이라고 이거 완전 산동네다.”

“야, 그래도 우리 같이 살 집인데 산동네면 어땡고, 달동네면 어때.”

땀방울 맺힌 얼굴 가득 웃음을 머금고 어서 오라고 손을 내밀던 그가

생생하다. 벌써 3년 전 일이다. 다 잊었다 자신하고 있었는데, 집을 나가고 그는 단 한번도 연락이 없다. 쓸데없이 자존심만 센 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 녀석아…… 저녁, 집으로 오르는 길이면 수화기를 손에 꼭 쥐고 있는 이 미련 투성이인 습관도 버려야 할 때가 지났다.

띠리리…… 순간 거짓말처럼 전화가 울린다.

“여, 여보세요?”

“언니, 저 옥이에요. 어디예요? 언제 가신 거예요? 저한테 말도 없이… 갑자기 없어져서 얼마나 찾았는지…… 지금 우리는요…….”

숨 돌릴 틈도 없이 그녀의 말들이 수화기 밖으로 쏟아져 내린다.

“미스리, 어디야? 아, 나 좀 바꿔봐…….”

“잠깐만요. 아참, 과장님 잠시 기다려봐요. 언니, 언니……”

어둠을 휘젓는 그녀의 목소리를 뒤로하고 그냥 전화를 닫는다. 옥이는 아마도 그 진드기에 물렸나보다. 문득 걱정이 앞선다. 많이 취한 것 같았는데… 올 때 같이 오자고 챙겨줄 것 그랬나보다. 하긴 어린애도 아니고 알아서 잘 하겠지만.

오랜 시간을 들여 도착한 집엔 어둠과 정적이 날 기다리고 있다. 새삼 낯설어진 그들이 다시 익숙해지기까지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진 않으리라. 그래,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 내 자리로 돌아온 것뿐.

술을 많이 마신 것도, 몸이 피곤한 것도 아니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쓰러져 잠들고 말았다. 다음날 힘겨운 아침이 다시 시작될 때까지도 나는 버려진 휴지조각처럼 아무렇게나 침대 위에 구겨져 있었다.

다음 날은 올해 들어 처음 다텔 영하권 날씨라고 했다. 과연 집을



나서자마자 베일 듯한 날카로운 바람이 얼굴을 할퀴고 지나갔다. 늦잠에  
변변찮은 우유로 아침을 때운 탓일까. 허한 속에 한기가 더욱 스며드는  
것 같아 자꾸만 몸이 떨렸다.

“언니, 여기 커피요.”

“어제 잘 들어갔니? 별일 없었지?”

“그럼요…….”

말꼬리를 흐리는 대답과는 어울리지 않게 그녀의 얼굴은 연신 웃음꽃  
이다.

“무슨 좋은 일 있니? 얼굴이 밝아 보여서.”

“그냥요. 기분이 좋아서요.”

그녀는 언제나 감정이 표정에 그대로 투영된다. 돌아서는 그녀의 미소  
뒤에 스치는 이 이유모를 불안감은 무엇인지. 마치 그때처럼……

“잘 다녀와. 어젠 미안했어. 저녁에 우리 오랜만에 삼겹살 파티 할까?  
내가 사다놓을 테니까 일찍 들어와.”

그 아침, 그의 미소는 눈이 부실 정도로 환했다. 결국 그게 마지막 모  
습이 되었지만.

“미스정, 이거 좀 정리해줄래? 믿을 만한 사람이 우리 미스정 뿐이라  
서 말야.”

“네.”

김과장의 말 한마디에 옥이는 마치 통통 튀는 고무공처럼 일어서 전  
에 없는 부산함을 띤다. 갑작스런 두 사람의 어울림에 다들 의아한 눈빛  
이다. 그렇게 옥이를 못 잡아먹어 안달하던 김과장이 아니었는가…….

“과장님, 어제 미스정이랑 같이 가시더니 둘이 하룻밤 사이 만리장성이라도 쌓으셨습니까? 사이가 너무 좋아졌는데요.”

“만리장성까진 아니라도 천리장성은 쌓았지. 장대리도 알다시피 그동안 내가 미스정한테 너무 야박하게 군 거 같아서 말야. 미안하다고 했지, 뭐.”

옥이 불에 살짝 붉은 빛이 도는 것처럼 느낀 건 나의 착각이었을까.

“그러셨어요? 진작에 그러시지. 사무실 분위기가 확 사네요.”

“그런가? 내가 원래 맘은 안 그런데 표현을 잘 못해서 말이지. 미스정한테도 회사일 잘 가르쳐주려고 그동안 그랬던 게지. 뭐 미워서 그랬겠나?”

난 거기까지만 듣고 귀를 닫는다. 다음주 입찰 준비만으로도 내겐 그런 잡담을 들어줄 여유가 없었으니까. 속이 흰히 들여다보이는 김과장의 거짓말을 장대리는 용케도 끝까지 들어주고 있었다.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바깥 공기는 아침보다 더 차가워져 있었다. 싸한 한기가 텅 빈 내 품속으로 파고든다. 걸음마다 발길에 차여 뒹구는 낙엽도, 온통 가득 찼푸린 잿빛하늘도 이 쌀쌀한 하루, 시린 내 맘과 정말 잘 어울린다.

조금 이른 시각에 퇴근을 서두른 이유는 내내 미뤄온 병원을 들르기 위해서다. 허리 아픈 지 한 6개월도 더 되는 것 같다. 그동안 별 바쁜 일도 없으면서 이런저런 핑계들로 병원 문을 들어서는 걸 자꾸만 늦췄었다.

번거롭고 거창한 걸 싫어하는 나이기에 장소는 그냥 동네 가까운 정형외과로 골랐다. 후에야 그 선택을 후회하긴 했지만 말이다.

“이하린님”

간호사를 따라 진료실에 들어서자 난로 덕인지 훈훈한 공기가 앞 다투어 달려든다.

“어디가 아프시죠?”

흰한 이마의 넓이만큼 나이 들어 보이는 의사가 무뚝뚝하게 한마디 던진다.

“허리가 아픈데 좀 오래됐어요.”

꼭 취조 받는 기분이 들어서일까, 아니면 내가 아픈 환자라는 생각 때문일까. 의사 앞에선 언제나 내가 작아지는 느낌을 자올 수가 없다.

“그 정도 길게 아프셨다니까 우선 사진부터 찍어봅시다”

그 말을 끝으로 의사는 바로 다음 차트를 훑는다. 내 대답 따위는 필요 없다는 듯, 아니 내가 원래 있긴 했었냐는 듯 눈길을 거둔지 오래다.

“2층에 방사선실이 있으니 거기 가서 X-ray 찍어 오시겠어요?”

웃음 짓는 간호사의 입가가 빠들다. 나는 균형을 잃어버린 듯한 그녀의 입 꼬리를 한참이나 쳐다보다 어서 가라는 재촉인 것 같아 얼른 그 방을 빠져나온다.

그 단어만으로 몸서리가 치질만큼 X-ray는 어린 시절 지겹도록 많이 찍어봤다. 어리다 해봤자 몇 년 전 일이지만, 고3, 그 힘든 시절을 결핵으로 고생해야 했던 나는 얼마간은 정기적으로 보건소에 가서 X-ray를 찍어봐야 했다. 그래서일까. 나는 병적으로 병원이 싫었고 더군다나 X-ray는 두말할 필요도 없었다. 그걸 촬영하기 위해 옷을 벗고 허슬하기 그지없는 가운 하나만 걸친 채 건조한 기계 앞에 서는 일이란, 피폐해진 나를 알몸으로 내보이는 것 같은 무력감이 들곤 했다. 겨우 해방되었다 생각했던 그 일을 오늘 나는 또 되풀이하고 있었다.

의사는 내가 보기에든 곧바르지 않은 내 척추사진을 한참이나 들여다 보더니 별거 아니라는 듯 말한다.

“그냥 조금 휘었네. 오른쪽으로 약간 틀어지기도 했고. 이런 사람들 요새 참 많아요. 흰 뼈를 바로 세울 수는 없고 통증만 덜게 소염제치로 하고 물리치로 받고 해요.”

“그럼 계속 아파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디스크는 아닌 거죠?”

“뭘, 디스크? TV에서 이래 흔드는 거?”

갑자기 의사는 팔을 영성하게 이리저리 휘젓는다. 순간 내 앞에서 코미디를 펼치는 그는 코가 빨간 뺨에로가 되어 있다. 어린 시절 딱 한번 서커스에서 구경했던 그 뺨에로가 생각나서 자세히 들여다보는데 얼굴이 너무 늙었다. 분바른 하얀 이마에 주름살이 패이더니 유리처럼 금이가 산산조각 부서져간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간호사가 구석에 가서 혼자 키득거리고 있다.

“아뇨, 허리디스크 말입니다.”

“아, 추간판탈출증? 거기까지는 아니니까 너무 염려 말아요.”

노인들로 칸칸이 들어찬 물리치료실 침대에 누워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다 나왔다. 병원 문을 나서면서 앞으로 다시는 서커스를 보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어느새 겨울은 그 자리를 굳혀가고 있었다. 거리마다 가게들은 오래 전에 겨울상품으로 진열대를 다 바꾸었고, 팬시점에는 전혀 이르지 않는 듯 크리스마스카드들이 떡 하니 가운데를 차지했다. 장대리는 백화점에서 새로 샀다며 긴 코트를 휘날리며 사무실을 오다녔고, 옥이는 누굴 위해서인지 폭신한 털목도리 짜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래, 정말 겨울이다. 가슴 구석구석까지 얼음이 어는 쓸쓸한 겨울이  
기어이 온 거였다.

“경리부에 김과장 이번에 입찰 한 건 했으며? 돈 넣고 한 거 아니야?”  
화장실 안에서 화장을 다듬는데 으레 들려오는 험담들이다. 이번 입찰  
김과장이 맡아 한 건 사실이지만 그가 돈으로 따냈든 아니든 내게야 그  
결과만이 중요하다.

“아, 맞다. 그 부에 미스정 있잖아. 돈으로 김과장 꼬셨으며?”

“정말? 나도 흘려듣긴 했는데 그거 사실이야?”

“그래. 그게 겉으로만 순진한 척 혼자서 다했지. 김과장이 성깔은 있  
어도 요새 잘 나가잖아. 2년도 안돼 과장 단 것도 그렇고.”

“어머, 순옥이 그렇게 안 봤는데 여우다, 야.”

그녀들의 수다에 나는 들고 있던 파우더를 떨어뜨릴 뻔했다. 옥이랑  
김과장이 전에 비해 사이가 너무 좋아졌단 건 나도 눈으로 봐 알고 있  
었지만 이런 소문에 휘말릴 정도라니. 처음 옥이에게서 김과장을 좋아한  
다는 말을 들을 때보다 훨씬 더 둔탁한 무언가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  
분이 들었다. 이젠 옥이에게 잘 된 일인지, 아님 그 반대인지 언뜻 판단  
을 내리지 못한 채 그렇게 한참을 화장실에 앉아있다 나왔다.

아침부터 축축한 비가 내렸다. 집안 곳곳이 습기가 배어오르는 듯 덮  
고 있는 이불까지 눅눅해진 기분이었다. 얼른 물기를 털 듯 자리에서 일  
어나 보니 시간이 7시가 훨씬 넘어있었다.

화장을 하는 등 마는 등 준비하고 집을 나서려는데 쓸만한 우산이 없  
었다. 저번 바람에 약해빠진 삼단우산을 망가 놓고 하나 산다는 걸 미루

다 깜박 잊어버린 것이다. 거기다 부엌에 물이 새 구두마저 축축하고…….

“오늘 왜 이리 재수가 없는 거야, 아침부터.”

“게으름쟁이, 그러게 내가 미리 사놓으라니까. 오늘은 그냥 내 꺼 쓰고 가.”

눈앞에서 윤이가 우산을 내민다. 그는 무슨 단어든 쟁이 붙이는 걸 좋아했다.

“깜박쟁이, 또 안경 잃어버린 거야? 내가 그렇게 아무데나 두지 말랬건만.”

미안해…… 미안해, 윤아……

옆집에서 빌린 우산을 대충 쓰고 빗물 따라 내리막을 달음질친다. 정류장에 서서 버스를 기다리자니 툭툭 방울들이 어깨를 친다. 위를 쳐다보니 우산에 조그만 구멍이 나있다. 투명한 빗물들이 구멍 뚫린 내 가슴으로 떨어질 것만 같다.

“미스리, 좋은 아침. 아니 근데 어깨가 다 젖었네.”

빙글거리는 김과장의 웃음이 소름 끼치도록 징그럽다. 인간쓰레기, 그와는 단 한마디 나누기, 아니 눈조차 마주치기가 싫다.

사무실로 들어서는데 어딘가 허전하다. 또 집에 무얼 두고 온 걸까? 아니, 익숙한 커피향이 없다. 그제야 옥이 자리가 텅 빈 걸 확인한다.

“장대리, 옥이 안 왔어?”

“응. 웬일인지 연락도 없이 늦네. 이런 적이 한번도 없었는데…….”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수화기를 든다. 그러나 그녀의 핸드폰은 푹

같은 말만 되풀이할 뿐 옥이 목소리는 들려주지 않는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언니, 어디예요? 저…… 옥이에요.”

“그래, 옥아 웬일이야? 근데 목소리가 왜 그러니?”

바로 어젯밤 집으로 오르는 길에 걸려온 그녀 전화였다. 울먹이는 목소리가 내 가슴에 파장을 일으킨다.

“거기 어디야? 언니가 갈게.”

옥이는 회사 근처 소주집에 쓰러져 있었다. 언뜻 보아도 빈 소주병들이 그녀의 주량을 넘어서고도 남았다.

“옥아, 옥아 일어나봐.”

그녀는 희미하게 나를 멍하니 바라본다. 마치 모르는 사람을 보는 것처럼… 휘청이는 그녀를 부축해 겨우 집으로 데려다 놓았다. 대충 걸옷을 벗기고 이불 위에 눕히고 돌아서려는데 그녀가 잡는다.

“언니, 언니 김과장님 안 왔어요?”

그 진드기를 말하는 건가.

“언니, 전 이제 어떡하죠? 어쩌면 좋아요?”

그녀의 까만 눈에서 나온 것이라 믿어지지 않는 투명한 물방울들이 후두둑 옷깃 위로 떨어진다. 비로소 나는 그녀의 투명함에 비치는 내가 비뚤어진 과물이 되어 일렁이고 있는 걸 깨닫는다.

옥이는 회식이 있던 그 날 밤, 김과장과 동석하게 되었고 취했던 그녀는 다음 날이 되서야 자기가 낯선 여관에서 그와 하룻밤을 묵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처음엔 같은 방향도 아닌데 데려다주겠다고 택시를 태워주는 과장님

이 이상했어요. 그치만 내심 기뻐는걸요. 절 그렇게 미워하던 과장님이 미안하다며 사과까지 하시는데 그 말에 안심해서인지 바보처럼 잠이 들고 말았어요.”

그 때까지는 그 놈이 한 짓이 한낱 성욕 때문이겠거니 했다.

“그리고 어딘가 내려 옷을 벗고 잔 기억이 났는데, 과장님하고 달콤한 밀애를 나누는 꿈을 꿔요. 그런데, 깨어보니 꿈이 아니었던 거예요. 옆에는 과장님이 알몸으로 누워있고 그리고, 그리고 저도...”

다시 그녀는 한참동안 눈물을 토해냈고 나는 말없이 그녀를 안아주었다.

“처음엔 너무 겁이 나기도 하고 꿈에서 깨지 않은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현실이었으면 싶기도 했어요. 그러면 전 과장님의 여자가 된 거잖아요. 그쵸, 언니?”

“옥아.....”

그런 게 아니라고, 그저 넌 당한 거라고 차마 그 말을 해줄 수 없는 나였다. 그녀의 물기 어린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그 잔인한 말을 절대 뱉을 수 없다고 생각한 나였다.

“그 후로 과장님이 제게 얼마나 잘해줬는지 언니는 모를 거예요. 회사에서도 얼마다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맛있는 저녁도 사주시고 영화도 같이 보고 저 너무 행복했어요.”

그 때의 행복을 떠올리는 듯 그녀는 잠시 허공을 응시하더니 다시 눈과 마주치자마자 금세 눈물이 넘친다.

“근데 과장님이 그제 끝내자고 했어요. 우리 사이 아무것도 없었던 걸로 하자고요. 내가 더 잘하겠다고 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만두세요. 빌린 돈은 금방 갚겠다고..... 아직 목도리 다 뜨지도 못했는데.....”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는다.

“돈이라니, 무슨 돈?”

“과장님이 급하다고 해서 제가 몇 번 헤드렸어요. 부족한 내가 그래도 해줄 게 있다는 게 얼마나 가슴 벅찬지 언니는 알아요?”

“그래, 옥아. 알지, 알지 말고…….”

일주일 전, 화장실에서 들었던 소문을 떠올리며 나는, 그렇게 될 리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면서도 걱정 말라고, 다 잘될 거라고 애써 그녀를 달래고 있었다.

겨우 그녀를 재우고 새벽녘에야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 옆에 계속 있을까 했으나 나 자신도 엉망이었기에 내 집으로 와야만 마음이 놓일 것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지금에서야 그 선택마저 내 속에 굳어져버린 이 기심의 발로였음을 깨닫고 만다. 마치 휘어져 다시 곧추세울 수 없는 내 척추처럼…….

“전화 안받어?”

“장대리, 전에 회식 때 말야. 김과장 많이 취했었어?”

“과장님이야 워낙에 장난기가 많으니까 취했는지 여부를 잘 모르지. 그 날도 난 끝나기 얼마 전에야 잠이 깼는데 과장님이 어떤 가방을 흔들면서 이거 누구꺼냐 하지 뭐야. 내 껌가 싶어 자세히 봤는데 여자 가방이더라구.”

“가방? 혹시 검은 체크무늬 솔더백 아니었어?”

“솔더백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고 검은 체크는 맞는 거 같아.”

옥이 가방이 틀림없었다. 그럼 김과장의 목적은 처음부터 아예 그녀가 아니었던 거다. 갑자기 가슴에서 열이 나더니 쿵쾅거리는 소리가 머리카

지 올렸다.

“과장님, 잠시 저 좀 보시죠.”

“어? 미스리, 무슨 일인데 그래?”

뻔뻔함으로 겹겹이 쌓인 그의 얼굴은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는 듯 했다. 오히려 남녀 사이는 사랑이 식으면 끝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당당하게 소리친다.

“그깟 돈 몇 푼 내가 떼먹을까봐 그런대? 공과 사도 구분 못하고 회사 나 결근하고, 여자가 몸 함부로 굴릴 때부터 알아봤지, 내가.”

그놈 상판대기를 후려갈기고 싶은 걸 가까스로 참는다.

“니깟 놈이야말로 추잡한 걸 내가 진작 알아봤어. 네놈은 사랑을 입에 담을 자격도 없어.”

“뭐?”

그 길로 가방 하나만 챙겨 회사를 뛰쳐나오고 만다. 바로 택시를 잡아 타고 옥이 집으로 향했다. 실틈없이 도착한 그녀 집 앞에서 부실한 대문 짝을 정신없이 흔들어댄다. 그러나 아무 대답이 없는 건너편. 문득 섬뜩한 예감이 내 머리에 꽂힌다.

옆집 긴장한 아저씨를 불러 대문을 박살을 냈다. 옥아, 부르며 들어선 집안엔 그저 침묵뿐이다. 방으로 들어가자 죽은 듯 잠든 그녀가 보인다.

“옥아, 옥아, 언니야 정신 차려봐. 응?”

내 무지막지한 손길에 체념한 듯 마구 흔들리는 그녀. 아무리 불러도 눈동자도 입도 꼭 닫은 채 인형처럼 반응이 없다. 순간, 그녀의 손에서 좌르르 알약이 쏟아져 바닥에 하얗게 펼쳐진다.

“이 아가씨 주, 죽은 거 아냐?”

내 머릿속 가득 알약이 굴러다니는 것처럼 눈앞이 새하얗다. 아니야,

머리를 세차게 흔들고 그녀를 일으켜 세운다.

“아저씨, 조금만 더 도와주세요. 빨리, 빨리 병원으로요.”

그녀를 들쳐 업은 아저씨를 앞세우고 택시를 잡는데 자꾸만 눈물이 시야를 흐린다. 미안해, 옥아. 언니가 잘못했어. 그러니 죽지마, 죽지마…….

위세척을 끝낸 그녀가 천사처럼 잠들어 있다. 의사의 괜찮다는 말 한 마디에 곧추 서있던 긴장이 무너져 내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지난 몇 시간이 마치 거짓말 같이 느껴졌다.

얼마 후, 그녀의 눈꺼풀이 꿈틀거린다.

“옥아? 옥아, 정신이 드니?”

“언…니, 여기가 어디예요?”

“병원이야, 이 바보야.”

글썽이던 울음을 결국 터뜨리고만 나를 그녀는 의아한 눈으로 바라본다. 그녀의 까맣고 깊은 눈동자…… 얼마나 보고 싶었던 눈망울인가.

“미안해요, 언니. 전 그냥 다 잊고 잠들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수면제를 아무리 먹어도 잠이 안왔는 걸요. 그래서 자꾸만 먹다보니…… 어느 순간 머리가 멍해지고, 그러고는…… 기억이 안나요. 저 바보같죠? 언니, 정말 미안해요.”

아니야, 아니야, 옥아. 바보 같았던 건 나였어. 그저 나밖에 없다고 나만 완벽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바보였어. 너처럼 누군 위해 가장 소중한 걸 내던질 수 있는 용기가 없었던 거야. 너무 빛나가서 다시는 바로 설 수 없다고 생각했어.

“고마워, 옥아.”

외락 그녀를 안고 한없이 울면서 고맙다를 중얼거리는 나였다.

하얀 햇살이 창가에 와서 울며 웃는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 우리가 이상하다는 듯, 그러나 겨울치고는 지나치게 따뜻한 미소를 반짝거리면서.

“언니, 이제 갈게요. 그동안 정말 고맙았어요. 언니가 옥아 하고 부르던 목소리 영원히 잊지 못할 꺼예요.”

“그래, 아쉽지만 네가 기어이 간다니까 어쩔 수 없네. 자주 연락해. 건강하고.”

“네, 언니도 건강하세요. 저희집에 한번 꼭 놀러오시고요.”

그래, 내 대답에 미소로 답하고 그녀는 이제 등을 보이고 있었다. 순간 흔들리던 그녀의 어깨에서 하얀 날개가 반짝이는 듯 눈이 부셔온다. 그녀의 눈동자만큼이나 까만 머리가 찰랑이는 가 싶더니 휘익 다시 내게 날아온다.

“언니, 정말 보고 싶을 거예요.”

“그래, 나도 그럴 꺼야.”

마음을 다해 그녀를 꼭 안아준다. 내 품에서 빠져나간 그녀는 버스에 뛰어오른다. 내 가슴에, 손에 그녀가 두고 간 반짝임이 남아있는 느낌이 들어 한동안 눈을 깜박거린다.

이제 그녀는 환영처럼 내 시야에서 사라져가고 있었다. 눈앞에서 뿌옇게 흐려지던 그녀 모습이 갑자기 특하고 뜨거운 것과 함께 떨어졌다. 그녀가 따뜻한 그곳에서 더 이상 외롭지 않으리라 생각하니 한편으론 다행이나, 또 한편으론 내 체온을 빼앗긴 것 같아 흠칫 몸이 떨렸다.

돌아오는 길에 다시 병원을 들렀다. 가장 눈에 먼저 띄는 정형외과를

골라 접수를 했다. 다시는 병원 문을 넘지 않으리라 다짐했던 그 때의 나는 없었다. 이번에도 똑같이 엑스레이를 찍고 물리치료를 받아야 할 테지만 평생 휘어진 등뼈로 살수 없다고 생각한 내가 있을 뿐이었다. 저번보다 더 분명하게 눈에 들어오는 비틀어진 나의 척추, 아니 비뚤어진 나의 과거. 그것까지 모두 바로잡을 수는 없겠지만 더 빛나가지 않게 할 수는 있는 거였다.

동네편에서부터 밀려드는 어둠이 일찍부터 세상을 온통 집어삼키는 늦은 겨울저녁, 이제 난 집으로 가는 익숙한 골목을 오르고 있다. 앞장 선 가로등이 무언가 할 말이 있는 것처럼 깜박거린다. 그는 노란 눈빛으로 나를 뻔히 내려다보며 속삭이는 것 같다. 자신을 숨기지 말라고, 날 속이지 말라고……

뒤에서 갑자기 누군가 나를 잡아끈다. 어둠인가 돌아보니 캄캄하던 시야가 제 모습을 드러내며 무언가 내 눈으로 빨려 들어온다. 취한 듯 그 쪽으로 다가가 품속으로 들어가 본다. 바깥은 다시 아무것도 없는 어둠이 되고 하얀 품안에서 어느새 난 잊은 줄 알았던 번호를 누르고 있다.

“여보세요?”

하얗게 바랜 입술이 달짝이는데 쉽게 열리질 않는다. 꺼내 달라고 내 마음이 입안에서 회오리친다.

“운아…….”

그가 화답하듯 내 앞에서 웃고 있다. 나도 모르게 볼이 뜨거워졌다. 운이 얼굴이 너무 눈부셔서 그 빛이 내 눈에도 넘치는 모양이었다. 이 자존심쟁이,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지……?

“린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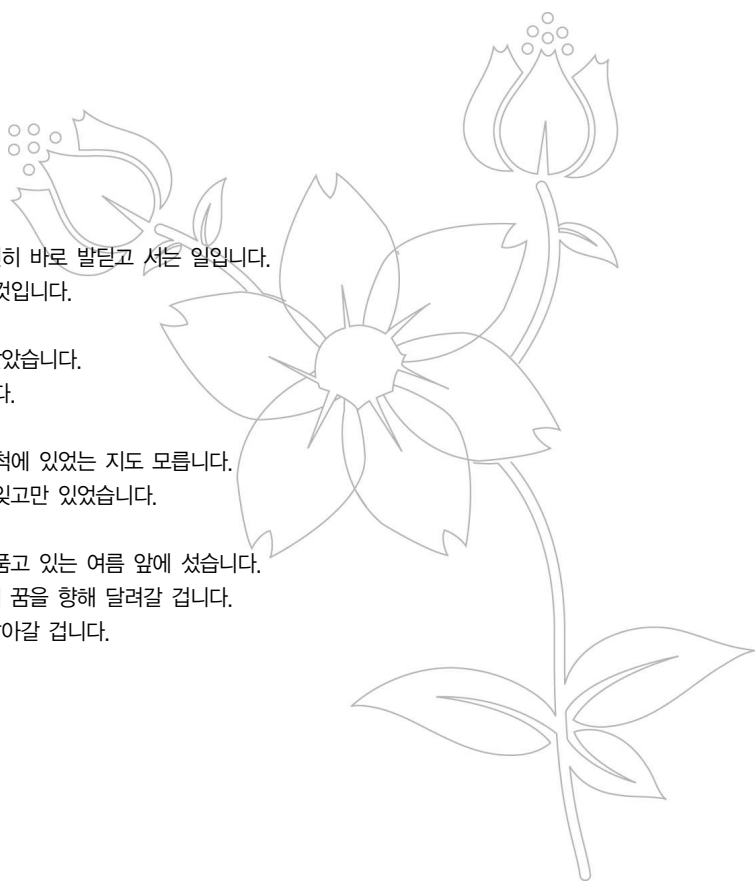
수화기 저편에서 날아드는 그의 목소리는 내 귀를 통해 들어와 내 머리를 한바퀴 돌고 난 뒤, 마음속을 가득 올려놓고 발끝까지 달린 후에야 세상 밖으로 사라졌다. 그 파장을 놓치지 않으려고 온 몸 가득 떨림을 그대로 안고 있는 나였다.

어느 이른 겨울, 쌀쌀한 어둠 가운데 달빛보다 환한 전화부스 안에 그보다 더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가 있었다. 아마도 그녀는 가장 소중한 빛을 되찾은 별마냥 한참이고 그 안에서 반짝이고 있을 테었다.

나는 곱추입니다.  
아니, 곱추였습니다.  
내꿈은 이 세상안에 온전히 바로 발 딛고 서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꿈을 다시 찾았습니다.  
나에게도 꿈은 있었습니다.  
멀지않은 곳에,  
가까이 닿을 수 있는 지척에 있었는 지도 모릅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그냥 잊고만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열정을 잔뜩 품고 있는 여름 앞에 섰습니다.  
그보다 더한 열정 가득히 꿈을 향해 달려갈 겁니다.  
꼭 이루리란 믿음으로 날아갈 겁니다.



장려상

# 비 말

견디지 못한 우물에 커다란  
비말이 날렸다. 문득 주위가 환해  
지고 있는 것을 알아차린  
여자아이의 눈꺼풀이 불안하게 흔  
들었다. 비가 그친 뒤의  
새벽은 유난히 영롱한  
푸른빛을 띄었다. 그 빛이  
마당으로 스미고 있었다.

-본문중에서-

경기도 구리시  
김기정



## 비말

사위는 어두웠다. 깊고 둔탁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발자국 소리는 깊고 어두워서 여느 사람에게는 쉬이 들릴 것 같지 않았다. 여자는 그 정체를 모를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소리는 점점 다가오더니 급기야 하나의 형체가 되었다. 그것은 잊고 있었던 외눈박이 할머니였다. 여느 때와 같이 열은 옥색 한복 차림을 한 할머니는 여자가 서 있는 곳으로 빠르게 이동해 왔다. 시력을 잃은 회색의 눈이 어둠 속에서 번뜩했다. 여자는 뒷걸음질치려 했으나 움직일 수 없었다. 할머니는 작게 속삭이기 시작했다. 여기는 니가 있을 곳이 아니여. 애초에 니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었어. 여자는 생각했다. 그래,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은 아니었어라고. 할머니의 목소리는 소리의 형태라기보다는 이물질과도 같이 여자의 온몸을 훑어 내렸다. 너를 거기 두고 오는 게 아니었ندی. 니가 젊어지고 가야 할 삶이 그리 무거운 줄 알면서도 이 미련한 년이 널 잡지 못하고 이렇게 먼저 떠나는겨, 내 널 두고 먼저 떠나니, 이 일을 어쩔겨. 어찌 살꼬. 도대체 어찌 살아야 할꼬. 할머니의 구성진 울음이 멀리인 듯 들려왔다. 뭉텅한 소리의 덩어리들이 진흙처럼 발밑을 적셔오고 있었다. 푸념 어린 단어들이 곡에 섞여 여자의 가슴 언저리에서 출렁였다. 할머니가 딛고 있는 땅은 질퍽한 진흙, 여자는 그곳으로 다가서지도, 물러서지도 못한 채 그렇게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바람이 불었다. 그리고 간혹 힘없이 비가 내렸다. 여전히 남은 무당 할머니의 옥색 한복에 닿은 빗물이 둥그런 얼룩을 만들고 있었다. 여자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꼈다. 할머니의 몸이 서서히 진흙에 빨려들고 있을 즈음 흰 돛을 단 배가 미끄러지듯 다가왔다. 배의 기척은 지나치게 가벼워 전혀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할머니는 잠시 여자를 응시하다가 망설임 없이 배에 올라탔다. 타지 마세요. 여자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 이내 허공에 흩어졌다. 잠깐 근처 공기의 흐름을 흔들었을 뿐, 멀리 나아가지 못했다. 여자는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다. 할머니의 몸이 그 작고 하얀 배에 닿기 전, 이야기하고 싶었다. 이렇게 나를 버려두고 가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내가 있는데 날 지켜주겠다고더니 어딜 가신다는 건가요? 여자의 소리가 입 밖으로 내뱉어지기 전, 할머니를 태운 배는 멀어지고 여자는 그 수렁 같은 잠에서 깨어났다.

동쪽으로 대문이 나 있어 아침이면 마당 가득, 방안의 절반 이상 햇빛이 스며드는 디귤자의 한옥이다. 한옥의 뒤편에는 낮지만 우거진 산이, 오른쪽에는 멀리 작은 바위산이 보인다. 바람이 불 때마다 마을의 집들이 끼고 있는 대나무 밭에서 새어나오는 스산한 소리들이 망령처럼 마을을 떠돈다. 한옥의 어느 구석, 햇빛이 미처 닿지 못하거나 이미 거쳐 간 곳에는 으레 한 여자 아이가 앉아 있다.

예닐곱 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 아이는 유난히 검고 윤기 있는 짧은 머리칼과 흑시라도 햇빛이 닿으면 금세 사그라질 것 같은 창백한 피부를 하고서 쉼 새 없이 눈을 굴린다. 초겨울치고는 햇살이 따스한 오후, 얇은 블라우스를 걸친 것이 고작인 여자 아이는 두 무릎을 한껏 끌어당겨 가슴께에 대고 앉아 있다. 사실 앉아 있는 것은 여자 아이가 아니다.

팅 빈 눈은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새하얀 발가락 언저리를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눈빛이 그 끝 어딘가를 배회하는 동안 눈꺼풀 안으로 햇빛이 스며드는 것을 두려워하는 여자 아이는 조용히 중얼거리곤 한다. 여기가 어디지,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거지. 여자 아이는 이따금 눈을 들어 대문 사이로 보이는 마당 한구석의 우물을 동경하듯 한참을 바라보다가는 다시 상대도 없는 혼잣말만 되뇌는다.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고 누구도 들으려 하지 않는 이 말 끝에 잠깐 어깨가 흔들리기도 한다. 한옥, 빗조차 들지 않는 어느 구석에 웅크리고 앉은 아이가 그렇게 어른이 되어 가는 동안 모든 것은 그대로이다. 아이를 처마 밑이나 혹은 뒤주 안에 가둬 두고 시간은 흘러간다. 가끔 작은 어미개가 아이의 발끝에 앉아 냄새를 맡기도 하지만 어른이 된 건 여자 아이가 아니다.

햇빛이 거세게 세상을 뒤흔들고 있는 정오, 어디에도 그늘이란 없는 정오의 여자 아이는 스스로 뒤주 안에 갇힌다. 뒤주 안은 차고 건조하다. 흙과 짚이 떨어져 너털거리는 천장은 내려앉을 듯이 무겁고 바닥에는 쌀가마니들이 제멋대로 널부러져 있다. 여자 아이는 쌀가마니에 기대어 오랜만에 굳은 다리를 편다. 오래 찢지 않은 다리가 뻗뻗하게 저러온다. 여자 아이는 낮게 한숨을 내쉰다. 굶주린 회색 쥐들이 빠르게 지나가는 소리가 아득하게 들리기도 하고 때로 경계를 푼 쥐가 여자 아이의 몸을 타고 지나가기도 한다. 여자 아이는 지나가는 회색 쥐를 멀리인 듯 바라본다. 여자 아이는 그대로 뒤주 안에 누워, 때때로 지나가다 눈을 마주치곤 하는 굶주린 회색 쥐의 검고 동그란 눈동자를 바라본다. 여전히 뒤주 문은 열리지 않고, 뒤주 안에 갇힌 아이는 말이 없다. 사람들은 뒤주 안에 버려 둔 아이를 이미 잊었다. 빛은, 소리는, 한 오라기도 스며들지 않는다. 여기는 안전해?

여자는 걸음을 옮겼다. 오전 아홉 시의 거리는 차가웠다. 여관 골목을 지나 택시를 잡으면서도 여자는 걸음을 재촉하지 않았다. 출근 시간에 대기에는 이미 시간이 모자랐다. 길가의 상점들은 이미 영업을 시작했거나 준비하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창 밖으로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갔다. 거리는 텅없이 넓었고 바쁘게 지나가는 것은 비단 사람들뿐만이 아니었다. 오전 아홉 시의 거리는 그렇게 사람들로, 자동차들로 붐비곤 했다.

출근 시간은 오전 아홉 시 삼십 분. 백화점까지는 약 사십 분 거리. 그러나 여자는 늘 아홉 시가 되어서야 집을 나서곤 했다. 여자는 같은 시간, 같은 거리, 그리고 같은 표정의 사람들에게 길들여져 있었다. 한번 길들여진 것은 쉬이 고쳐지지 않았다.

오전 아홉 시 사십 분. 지하 광장은 노인들과 학생들로 시끌벅적했다. 삼십 분이 지나고 나면 직원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여자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여자는 직원 출입구로 들어가도 될 것을 굳이 호텔 출입구로 향했다. 호텔 출입구는 언제나 개방되어 있었다. 직원용 입구 앞에는 보안들이 지키고 서서 직원 여부를 확인하곤 했지만 호텔 입구에서는 누구도 여자의 신분엔 신경 쓰지 않았다. 여자는 엘리베이터에 들어섰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불 켜진 버튼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중년의 남자와 비슷한 연배의 여자가 서 있었다. 여자는 12층의 버튼을 누르고 똑같이 정면을 바라보며 섰다. 엘리베이터는 열리는 법 없이 9층까지 가서야 멈추었다. 무관심한 걸음으로 중년의 여자와 남자가 내리고 여자는 문이 닫히기를 기다렸다. 12층에서 문이 열리면 여자는 곧장 통로를 따라 건다가 비상구를 통해서 1층까지 내려가야 할 터였다. 평소에는 불을 켜두지 않는 통로는 버려진 물건들로 항상 붐볐

다. 아무렇게나 쌓여진 박스며 스티로폼들이 어둠 속에서 흉물스러웠다. 어둡고 습한 그곳 또한 쓰레기처럼 버려진 곳이었다.

여자는 문득 엘리베이터 안에 선 자신을 보았다. 힘든 밤을 보냈나 봐. 분칠이라도 해야겠네. 조금 전, 택시 운전사의 농지거리가 떠올랐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지난밤의 과음과 불면으로 창백하게 부석거렸고 빗질의 흔적도 없는, 어깨까지 내려온 머리카락은 유난히 검고 윤기가 없었다. 눈자위는 깊이 얼룩져 피부의 창백함을 더욱 선명하게 하고 있었다. 도드라진 콧날이 시리도록 날카로운 선을 긋고 있는 여자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거울에 기대어선 여자는 술에 취해 서도 잠이 들 수 없었던 지난밤을 생각했다.

여자는 고기 냄새 자욱한 갈빗집에 앉아 있었다. 중년의 사장과 그 이하의 직원들을 합쳐도 채 스물이 되지 않는 회사 사람들은 회식이랍시고 자갈이 깔린 고급스러운 갈빗집의 야외 식탁에 마주 앉았다. 낮익은 이와 낯선 이의 비율이 반반쯤 되는 것 같았다. 사실 낮이 익다곤 해도 지나치다 한두 번쯤 말을 건넨 것이 고작인 사람들이었다. 여자의 맞은 편에는 중년의 나이만큼 뺏살이 그득한 사장이 앉아서 기름기 흐르는 미소를 포함한 술을, 거꾸 권했다. 옆에선 여우같은 담당이 그의 비위를 맞추며 술잔을 기울이고 그 옆에 앉은 또 다른 점원의 험거운 웃음이 그들 사이를 경쾌하게 오갔다. 여자는 이미 손끝이 굳어져오고 있음을 느꼈다. 매캐한 연기와 질긴 돈육의 역한 냄새가 실내를 메우고 있었다. 갈빗집에는 온통 높고 낮은 웃음과 허연 담배연기와 기름진 입 냄새가 가득했다. 여자는 현기증을 느꼈다. 서서히 소리와 장면이 분리되고 있었다. 오래된 흑백 무성 영화처럼 사람들의 실루엣만이 희미하게 남고 움직임은 순간순간 멈추어 내용을 알 수 없었다. 여점원들의 붉은 입술

이 과장된 움직임은 지속하고 그 필름들은 지나치게 확대되어 빠른 속도로 여자의 걸을 스쳐 지나갔다.

여자는 비틀거리는 걸음을 애써 가다듬으며 긴 통로를 지나 화장실 벽을 의지하고 섰다. 담뱃불을 붙이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두껍게 바른 마스크라가 위협적이었다. 세상의 반은 검은 빗살무늬로 가려져 좁고 어두웠다. 좁은 화장실 안에 담배 연기가 내려앉았다. 통풍이 되지 않아 부엌에 사그라지는 연기는 차곡히 쌓여만 갔다. 점원 하나가 들어와 담배 한 대를 청했다. 여자는 담배를 건네고 미끄러지듯 화장실 안으로 스며들어갔다. 점원이 화장을 고치며 욕지거리를 해대는 소리가 무심하게 들려왔다. 술 취했을 필체들이 벽에 흩어져 있었다. 필체들은 한결같이 가볍고 무정형이었다. 무겁게 내려앉는 눈꺼풀을 애써 밀어 올리며 여자는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여자 아이는 이제는 버려져 돌덩이로 메워진 우물 옆에 앉는다. 낮게 가라앉은 하늘엔 때때로 불꽃의 파편들이 알 수 없는 무늬로 번뜩이다 이내 사라진다. 알 수 없어. 여자 아이의 한숨과도 같은 언어가 어둠 속에서 미세하게 진동한다. 멀리 어딘가에서 여자 아이 포레이거나 그보다 나이가 많은 아이들이 불꽃놀이를 하고 있는 모양이다. 짙으로 둘러싸인 둥근 우물은 파스하다. 해가 떨어지고 주위가 검푸르게 변해간 후 아이는 자주 짙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앉아 있곤 한다. 우물을 두텁게 감싸고 있는 짙은 일 년에 한 번씩 새것으로 바뀐다. 회색으로 사그라지기 전, 적당한 습기를 품은 짙단은 포근하게 아이를 감싸준다. 그 습한 포근함이 여자 아이를 잠들 수 있게 한다. 아이들의 웃음 섞인 소리가 아득하게 들린다.

검은 하늘에 점점이 불꽃이 박힌다. 여자 아이는 고개를 들어 그것들의 움직임을 바라본다. 너희들을 집어삼킬 거야. 알 수 없는 일이지. 멀리 불꽃이 번지기 시작한다. 순식간에 불꽃은 마른 벚짚을 삼키고 더욱 극성스러운 자태로 이글거린다. 공기 중에 매캐한 연기 냄새가 섞여 있다. 짙단 안으로 스며들어 겨울잠을 자던 미물들의 비명이 들리는 듯하다. 여자 아이는 귀를 감싼 손에 힘을 주며 몸을 뒤흔다. 피할 곳을 잃고 이리저리 헤매는, 이미 불이 붙어 괴롭게 꿈틀거리는 수많은 뱀의 무리가 보인다. 여자 아이는 어깨를 한껏 움츠리고 눈을 감아 버린다. 굶주린 짐승의 아가리 마냥 세상을 집어삼킬 듯이 달겨드는 불길의 검은 눈 위에 사나운 얼룩을 만든다. 표독한 짐승의 곳곳이 세워진 발톱이 사납게 눈꺼풀에 생채기를 내고 여자 아이의 어깨가 잠깐 흔들린다. 아이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한참 들려온다. 황황하게 움직이는 그림자들은 이내 사라지고 밤은 다시 고요해진다. 소리 없는 불길이 밤하늘에 고정되고 오래 움직임을 지속한다. 어느새 여자 아이는 걷고 있다.

거리로 쓸려나온 여자는 걷기 시작했다. 거리는 이른 새벽, 술 취한 사람들의 비틀린 걸음 소리와 무심하게 지나가는 자동차들의 마찰음으로 시끄러웠다. 사실 걸음 소리와 마찰음이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여자는 생각했다. 여자의 주위는 언제나 이러한 잡음들로 시끄러웠다. 언제부터인가 왼쪽 귀의 통증이 심해지기 시작했고 이제 귀 안은 온통 날카로운 소리로 가득했다. 왼쪽 귀가 청력을 잃은 것은 기억할 수도 없을 만큼 오래 전의 일이었다. 여자에게 양양대기만 하는 나머지 귀는 거추장스러울 뿐이었다. 여자는 모질게도 그 활동을 멈추지 않는 오른쪽 귀가 서서히 명을 다해가고 있음을 느꼈다. 여자가 살아있다는

것을 쉬지 않고 일깨우는, 세상을 향해 유일하게 열린 구멍이 스스로 닫히기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무언가 생각이 났다는 듯이 머리를 세차게 흔든 여자는 걸음을 빨리 했다.

비틀거리는 걸음 뒤로 작게 두 번의 클랙션 소리가 들려왔다. 허방을 닫는 것처럼 여자의 발이 어색하게 땅을 딛고 잠깐 중심을 잃은 여자의 몸이 그 자리에 멈추었다. 겨울, 이른 새벽의 어둠보다 짙은 검은 색의 승용차 한 대가 슬그머니 여자의 옆에 와 섰다. 같은 차선을 달리던 승용차들이 신경질적으로 차선을 이동하고 있었다. 남자는 선풍 처리된 창을 내린 채 아무 말이 없었다. 잠깐 여자의 시선이 차바퀴에 닿았지만 걸음을 멈추지는 않았다. 몇 걸음 뒤 다시 차는 소리도 없이 다가왔다.

부석거리지만 창백한 피부를 가진 남자였다. 작은 눈 사이로 곧게 드러난 콧날은 매끄러웠고 고집스레 맞닿은 검붉은 입술이 반짝이는 은색 안경과 묘한 대조를 이루었다. 턱선은 얇은 각을 이루어 길고 곧은 목선을 더욱 도드라지게 했다. 남자는 필터가 타고 있는 담배를 물고 있었다. 여기가 어디지. 낮게 머뭇거리며 뿜어진 소리는 의외로 길고 둔중하게 허공으로 뿜어나갔다. 여자의 어깨가 잠깐 흔들렸고 걸음이 멈추어졌다. 여자는 두 손으로 어깨를 감쌌다. 떨림을 멈출 수가 없었다. 겨울바람이 남자의 턱선 같다고 여자는 생각했다. 바람이 닿는 곳마다 약간의 통증이 느껴졌다. 여자는 이곳이 아닌 곳으로 가고 싶었다. 언제나 어디로 닿아 있는지 알 수 없는 이 끝 간 데 없는 길 위를 벗어나고 싶을 뿐이었다. 그래서 밤마다 이 지루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었다. 어깨를 감싼 두 손이 미세한 떨림을 지속하는 동안 남자는 깊게 연기를 뿜어내고 어둠 속으로 담배꽂초를 던졌다. 재떨이는 꽂초들로 수북했다. 여자는 길 가운데 던져진 꽂초를 오래 바라보았다. 딱히 꽂초를 보고 있

는 것은 아니었지만 여자의 시선은 길 위에서 쉬이 거뒤틀릴 것 같지 않았다. 인내심 없는 남자가 다시 낮게 클랙션을 울렸고 여자는 느리게 차 문을 열었다.

차안에는 담뱃내가 질게 배어 있었다. 차내에는 장식품 대신 두 갑의 담배가 암전히 놓여 있었다. 여자는 한참 동안 각을 맞추어 포개 놓은 담뱃갑을 쏘아보았다. 담배가 떨어지면 불안해져서요. 남자는 작고 하얀 주먹을 입 가까이에서 가져다 마른기침을 했다. 어둡고 적막하기까지 한 겨울 밤, 눈이 바닥에 닿을 때 나는 소리 같았다. 높낮이가 없는 목소리는 미세하게 공기의 흐름을 흐트리고 있었다.

피아노 연주곡이었다. 왼손가락은 같은 패턴으로 건반을 두드리고 있지만 오른 손가락의 움직임은 현란한 피아노 연주곡이었다. 여자는 담배 한 대를 빼어 들었다. 얼굴에 스친 여자의 손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차고 건조하다고 남자는 생각했다. 여자의 어깨가 큰 폭으로 흔들렸고 남자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한 손으로 여자의 어깨를 잡아 주었다. 여자는 거칠게 어깨를 빼어내고 남자를 쏘아보았다. 밤 호수를 보고 싶었어요. 양평에 가고 있는 중이었죠. 사실 꼭 밤 호수나 양평을 보겠다는 것은 아니었어요. 단지 끝없이 달려보고 싶었던 겁니다. 남자는 지포 라이터를 켜는 왼손가락의 움직임같은 어조로 말했다. 붉은 불꽃에선 검은 연기가 났다. 여자는 흔들리는 불꽃을 바라보았다. 나는, 이제 그만두고 싶어. 끝없이 기다리는 것도, 끝없이 걷는 것도 다 그만두고 싶어. 그래서 걷고 있었지. 끝까지 갈려구. 세상과 닿아 있지 않은 곳, 어디든 가서 안주하려고, 이렇게 밤마다 걷고 또 걷지. 근데 사실 아직 찾지 못했어요. 그곳 말이야, 내가 가야할 곳. 담배 연기 사이로 건조한 여자의 음성이 스며 나왔다. 처음으로 남자가 여자를 바라보았다. 오래 전 이미



본 적이 있는 유난히 검은 눈동자였다.

승용차는 곧게 나 있는 사차선 도로 위를 가볍게 이동했다. 여자는 창 밖으로 머리를 내밀었다. 겨울, 날카로운 바람이 여자의 얼굴을 치고 지나갔다. 여자는 눈을 감지 않았다. 눈동자로 들어온 바람이 어디로도 가지 못하고 안으로만 소용돌이 쳤다. 집으로 가던 중이었나요? 남자의 턱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여자는 남자의 가는 턱을 바라보았다. 아니, 뒤주 안에 버려두고 온 아이에게로 가고 있는 중이었어. 너무 오래 내버려두어서 어디론가 가버렸을지도 몰라. 오래 잊고 있었거든. 그 아이도 이미 날 잊었는지도 모르지. 그곳으로 가고 있었어. 결국에 가야할 곳이 그곳이거든, 세상과 소통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곳. 속삭이는 소리는 낮고 가볍지. 자꾸만 멀리 가고 있는 거야. 나에 대한 양갓음으로 도망치고 있는 거지. 실은 붙들기를 애원하고 있는 걸 테지. 근데, 멀어지는 것이 너무 작고 가벼워서 잡으면 그 순간 손안에서 사그라질까 봐 두려웠던 것 같아. 정면에 시선을 고정한 남자의 입가로 작은 웃음이 번졌다. 술에 취한 줄은 몰랐어요. 뒤에서 보기에는 취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그곳으로 가야만 하는 거지, 두려우니까. 헤드라이트를 위로 고정시킨 승용차 한 대가 지나갔다. 여자는 위협적인 불빛에 눈을 감았다. 사나웠다. 불쾌해진 듯 남자는 창 밖으로 침을 뱉고 담배를 빼어 물었다. 남자의 손가락이 굵아 들어 있었다. 간혹 둥근 가로등이 굵은 길가에 서서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차들을 굽어보았다. 오래 전에 여기가 아닌 곳으로 갔어야만 했는데.

어둠이 저조하게 내리 깔린다. 어둠은 얼마 지나지 않아 남은 빛을 삼키고 삶의 어디에선 스며들 것이다. 여자 아이는 뒷산을 오르고 있다.

좁게 나 있는 길을 따라 걷고는 있지만 인적이 드문 길에는 날카로운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따라 제멋대로 흔들리고 있어 길을 알아보는 힘 없다. 나뭇가지들이 제각기 다른 방향에서 여자 아이의 몸에 생채기를 내어도 무언가에 홀린 듯 여자 아이는 가벼운 걸음을 멈추지 않는다. 차고 습한 기운이 밀려들어 여자 아이는 멈추어 선다. 가까이 지붕이 보인다. 한 때는 진청 빛으로 은은하게 빛났을 법한 지붕은 이제 퇴색하여 제 빛을 알아볼 수 없고 기와도 여기저기 떨어져 있다. 집채는 움푹 패인 곳에 들어앉아 보이지 않는다. 잡초들이 무성한 앞마당에서 구부정한 등이 금방이라도 고꾸라질 것 같은 노파가 절구질을 하고 있다. 잘 다듬어진 나무를 때리는 둔탁하고도 규칙적인 절구질 소리 사이, ‘클클’ 간헐적인 노파의 웃음이 멀리인 듯 메아리쳐 들려온다.

여자 아이는 허위적허위적 걸어간다. 낮선 인기척에 작은 새 한 마리가 세차게 날아오른다. 노파가 조용히 뒤돌아본다. 오래 전 빛을 잃은 회색의 눈동자가 먼저 여자 아이의 몸을 훑고 지나간다. 회색 눈이 멀리 닿지 못할 곳을 서성이는 동안 푸른 광채를 띄는 눈동자 하나가 아이의 눈에 박힌다. 너로구나, 클클. 오랫동안 내 주위를 떠돌던 것이, 그리 오래 머물러도 이물감만 주던 것이 바로 너였구나, 요년. 차고 습한 기운이 맴도는 것이 어찌 예사롭지 않다 했지. 너는 흥물스럽게 내리 깔린 어둠이지 요년. 내 널 기다리고 있었지, 클클. 무겁게 내리깔려 요동조차 하지 않는 그 어둠을 뚫아서 그리 늦게 날 찾은 거냐? 그래도 어쩔 수 없던 게로구나. 허긴 내 눈을 앗아가고도 멀쩡하면 내가 똤지야지, 클클. 여자 아이는 섬뜩한 기척을 느끼고 선다. 차고 건조한 노파의 웃음이 등을 타고 흘러내린다. 어둠이 내리쬔는 공기 역시 차고 건조하다. 형체를 알지 못할 이 이물질의 차고 건조한 촉감, 그래 여기였구나. 나

를 그렇게 불러대던 것이, 이 흉물스런 늙은이였구나. 여자 아이는 오래 된 먼지처럼 풀썩 주저앉는다. 주위는 고요하고 노파는 구부정한 허리를 돌려 주저앉은 여자 아이를 안아 올린다.

여자 아이는 오래 전, 기억할 수도 없을 만큼 오래 전 을씨년스럽게 주위를 맴돌던 굿소리를 기억한다. 꿈이었는데도 뚜렷이 구분할 수 없는 늙은 무당의 알아들을 수 없이 낮은 음성이 누운 여자 아이의 몸을 휘 감고 있던 뜨거운 오후, 한기를 느낀 여자 아이는 눈을 뜬다. 늙은 무당이 옆에 웅크리고 앉아 여자 아이를 노려보며 휘청거리고 있다. 죽은 오래비가 자주 널 가두는구나. 떠나지 못한 니 오래비가 널 옥죄는 거여. 그러니깐 자주 열병이 생기지. 여기선 이거 없어지지 않아. 나랑 같이 가야 해. 혼자 이 짐을 어찌 짊어지고 살라구 여기 있는지. 멍청한 니 애미가 널 끼구 죽이려 드는구나. 눈앞이 하얗게 변해 가고 여자 아이의 볼에는 오래 묵은 눈물이 흘러내린다. 여자 아이조차도 알지 못하던 오래 묵은 분노가 꾸물거린다. 사이를 두고 흔들리는 방울과 낫두리 같은 무당의 중얼거림이 끈적하게 아이의 몸에 들러붙는다. 뒤집어진 무당의 흰자위가 섬뜩하다. 울음의 끝자락에 여자 아이는 다시 정신을 잃는다. 늙은 무당의 건조한 음성과 여자 아이의 땀이 뒤섞인 오후, 빛은 여전히 뜨겁게 하강한다.

어둠 속에서 검은 형체들이 넘실대고 있었다. 혼한 풀벌레 소리 한 점 들리지 않는 적막하기까지 한 밤이었다. 승용차는 부드럽게 미끄러져 호수 앞에 멈추었다. 여자는 창에 팔을 걸치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목울대에 걸리는 위액이 씹쓸했다. 섬뜩하리 만치 차가운 새벽 공기가 문득 문득 피부에 와 닿았다. 이제 여자의 손가락도 곱아들어 있었다. 금

세 늙어버렸으면 좋겠어. 더 이상 술에 취해 거리를, 그 많은 낯선 거리들을 헤매지 않아도 좋을 만큼만 늙어버렸으면. 혼자 취해 비틀거리는 이런 날들이 훌쩍 지나가 버렸으면. 남자는 정면의 호수에 시선을 고정시킨 채 손목을 움직여 담배를 피웠다. 빠져나가지 못한 담배 연기가 차 안에서 하얗게 흔들렸다. 불을 켜까요, 너무 어둡네요. 여자는 파리한 면도 자국이 남아있는 남자의 턱선을 쏘아보았다.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바람에 이는 물결 소리만 웅웅거렸다. 이 끈질기게 날 쫓는 소리들을 멈출 수 있다면 그렇게 해도 좋아. 목소리는 사람의 음성 이 아닌 듯 거대하게 꿈틀거렸다. 미끈거리는 이물질이 여자의 목을 휘 감았다. 여자는 사그라질 것 같은 하얀 목을 움켜쥐었다. 남자는 무심하게 여자의 어깨를 토닥였다. 남자가 무슨 말인가 하고 있었지만 여자의 조그만 몸뚱아리는 움찔 새된 기침을 하고, 무의식적으로 손에 힘이 모아졌다. 그에 따라 남자도 손에 힘을 주었다. 파스했다. 도대체 너를 어찌해야 할까.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그리도 해매는 너를 어찌하면 좋을 까. 오늘은 너에게 가려 했는데, 그 길이 생각보다 멀구나. 그래도 갈 수 있을 줄 알았어. 오랜 시간이 지나고 그 시간동안 널 잊었다 해도 너에게 가는 길을 잊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야. 실은 네가 거기 그렇게 간혀서 그 긴 시간을 홀로 버티고 있다는 거, 잊고 싶었는지도 몰라.

남자는 천천히 여자에게로 몸을 돌렸다. 파리한 턱선 같은 스킨 냅새가 났다. 여자는 무릎을 당겨 두 팔로 감싸 안았다. 제 빛을 잃은 지 오래, 여자의 행보에 지친 구두가 낡아 있다. 어둠 속에서 남자의 손길이 여자의 몸 위를 훑기 시작했다. 잊고 있었던 따스한 살내음이 느리게 여자를 덮었다. 여자는 몸을 곧게 펴고 두 손을 가슴께에 가지런히 모은

다음 눈을 감았다. 남자의 손이 닫혀 있던 여자의 구멍에 가 닿았다. 오른쪽 귀의 통증이 심해지고 있었다. 의식하지 못하고 있던 또 다른 통로가 열리려 했다. 그것은 두려움을 의미했다. 남자에게서는 몸 깊숙이에 서부터 끌어올려지는 듯한 더운 입김이 새어 나왔다. 어둠 속에서 남자의 검붉은 살덩이가 드러났다. 남자는 의자를 뒤로 젖히고 여자의 통로를 두드리고 있었다. 건조한 그것은 겨울바람 같았다. 여자는 낮게 소리쳤다. 니 오래비였어, 클클. 잠깐 남자가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이내 남자는 오래 전 잊고 있던 무당의 방울 소리같이 움직였다.

정신을 잃은 여자 아이가 열에 들떠 신음 소리를 내는 동안에도 늙은 무당의 방울 소리는 그치지 않는다. 방울 소리는 점점 거칠고 빠르게 움직인다. 네가 앓은 처마에 집을 지은 제비는 아무 죄가 없었어. 지난 봄, 이유를 알 수 없는 아이의 열병에 무당은 제비가 처마에 집을 지은 것이 재수가 없기 때문이라 했다. 오랜 잠에서 깨어나려는 미물들의 비명이 무성한 봄, 며칠동안 제비가 애써 지은 집은 이내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는 대못이 박힌다. 집을 잃은 제비 두 마리는 마당 주변을 낮게 비행하는 일만 되풀이한다. 그리고 때아닌 비가 억척스럽게 내린다. 네 이년, 니 오래비를 봤구네! 감쪽같이 우릴 속인겨, 이 요망한 년이. 니 배다른 오래비, 그 늙이 우물에 빠져 뒤흔드는 걸 본 게지? 니 년이 입을 쳐다물고 있으니 괜히 이 망할 병이, 니 자리를 탐낸 제비 새끼 탓인 줄 지레 짐작했지 뭐여. 으이구, 이 어리석은 년아. 그 모진 꼴을 보고 말을 잃었으니 니 오래비가 널 쫓아다니잖여. 약하디 약한 년, 이 일을 어찌 해야 쓸꼬.

여자 아이는 푸른 빛이 돌 만큼 새하얀 뜻을 단 배를 보고 있었다. 꿈

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할아버지가 지게 작대기로 오래비를 흠씬 두들겨 팬 날 밤, 여자 아이는 배를 타고 가는 오래비를 울며 배웅하고 있었다. 이유는 알 수 없었다. 아무 이유 없이 할아버지가 오래비를 그리 때린 게 한두 번이 아니건만 누구도 말리려 들지 않은 것은 참 이상타 생각했다. 감히 말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오래비가 남자 구실을 못할 거라고, 못된 영감탱이가 불알을 뽑아 버린 건 미친 짓이었다고. 잠시 머뭇거리던 오래비가 배를 타고 멀어질 무렵, 울다 지친 여자 아이는 갑자기 똥이 마려웠다. 아이는 아랫도리의 묵직한 기운을 느끼면서 잠에서 깨어났다. 그러나 어둠 속에 동그마니 들어앉은 대문 밖의 화장실은 어린 여자 아이에게는 두려운 공간이었다. 빗물이 그득한 마당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세상의 소리는 세차게 내리치는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다. 망설이다 대문가에 쪼그리고 앉은 여자 아이에게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소리와 흡사한 소리가 낮게 들려왔다.

열려진 대문 틈 사이로 비에 젖은 오래비의 뒷모습이 보였다. 오래비는 빗물 떨어지는 소리가 깊게 들리고 있을 우물가에 앉아 있었다. 아이는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숨 죽여 그 모습을 훑쳐보았다. 한참을 엿드려 흐느끼던 오래비는 마당 구석, 우물 위로 천천히 올라섰다. 잠시 대문쪽으로 돌려진 사나운 눈빛이 여자 아이의 눈과 마주쳤다. 아이는 눈을 질끈 감아 버렸다. 몽툭한 살덩이가 어둡고 깊은 곳에 가 닿는 소리가 멀리인 듯 들렸다. 그리고 그 이물질을 견디지 못한 우물에 커다란 비말이 날렸다. 문득 주위가 환해지고 있는 것을 알아차린 여자 아이의 눈꺼풀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비가 그친 뒤의 새벽은 유난히 영롱한 푸른빛을 띄었다. 그 빛이 마당으로 스미고 있었다. 여자 아이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제 방에 돌아가 누웠다. 악취가 났다. 꿈속에서 똥을 싼 걸 거야. 여자

아이는 다시 잠이 들었다.

남자의 규칙적인 몸짓은 점차 빨라지더니 순간 멈추었다. 여자의 어깨를 잡고 있던 남자의 손아귀 힘이 거세졌다. 여자는 거칠게 남자를 밀어냈다. 절정의 순간에 정액을 배출할 구멍을 잃어버린 남자는 아연한 눈빛이 되었다. 여자는 눈앞의, 무방비 상태로 세상에 내놓여진 살덩이를 힘껏 깨물었다. 남자는 놀라움과 통증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여자를 쏘아보았다. 여자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다. 채 식지 않은 남자의 살덩이는 여자의 이 사이에서 떨어지고 있었다. 남자는 여자의 머리를 움켜쥐고 떼어내려 애썼다. 여자는 더욱 힘을 주었다. 남자의 비명 소리가 어둠의 정적을 깨뜨렸다. 그러기에 내 몸에 들러붙지 말랬잖여, 클클. 어디서부터인지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새벽이 오고 있는 것이었다. 여자는 차문을 열고 나왔다. 여자의 입안에는 비린 피내음과 상처 입은 살덩이가 가득했다. 남자가 절정에 다다르는 순간 여자는 갑자기 똥이 마려왔다. 여자는 호수 안으로 황황히 걸어 들어갔다. 멈칫, 여자의 어깨가 떨렸다. 여자는 남자를 놓아두고 호수 속에 쏙그리고 앉았다. 여자는 잠기고 검푸른 물 위로는 여자의 얼굴이 희부영게 떠올랐다. 여자는 질끈 눈을 감았다.

아이는 천천히 눈을 뜬다. 오래 꿈을 꾸는 듯 머리가 무겁다. 늙은 무당이 쉴 새 없이 뱉어내는 말소리가 무거운 여자 아이의 몸을 더욱 짓누른다. 나는 예서 살 수가 없어. 니 오래비가 널 놔주지 않을 거란 말이 지. 기냥은 못 간다. 억울해서 기냥은 못 가겠다, 피를 봐야 쓰지. 날 따라 나서. 나랑 살면 내가 널 지켜줄 테니깐. 무당의 낮은 읊조림은 오래비가 죽은 날 아침, 우물에 던져지던 수많은 돌덩이들의 둔중한 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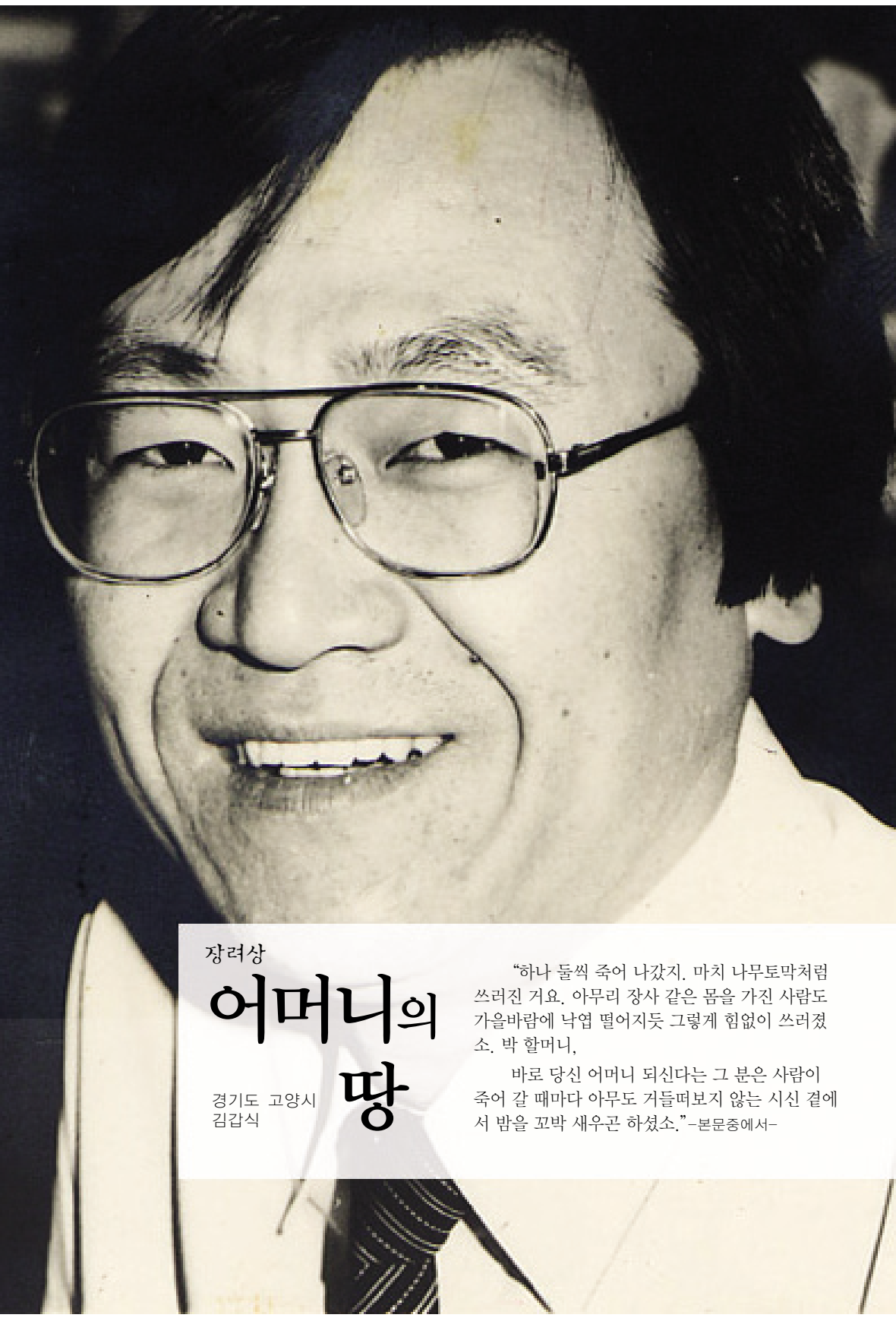
에 묻혀 희미해지고 있다. 방안은 대낮의 햇빛으로 가득하다. 여자 아이는 눈을 감고 생각한다.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지. 어둡고 습한 우물 밑으로 가야 하는데. 아이는 몸을 일으켜 뒤주 쪽으로 기어간다. 이년, 그래두 정신을 못 차리는겨. 니 년한테 신기가 있단 말여. 그걸 니가 견딜 수 있을 것 같어? 니 오래비가 니 등에 찰싹 붙어있는 한 니 목숨은 니 것이 아니여. 여자 아이는 이곳이 아닌 곳으로 가고 싶다. 지나치게 불을 지핀 방바닥은 뜨겁게 달아올라 있다. 아이는 숨이 막혀온다. 여자 아이의 작은 몸은 억척스럽게 움직인다. 거기 서 이년아! 점점 거세어지던 방울 소리가 순간 멈추었다. 늙은 무당이 성큼 다가와 아이의 허리를 밟고 서 왼쪽 뺨을 내리친다. 순간 귀 안이 멍해지더니 소리가 멀리, 아득히 사라진다. 아이는 신음 소리 한 모금 토해내지 못하고 바닥에 엎어진다. 무당은 낫을 들어 제 눈을 내리 찌른다. 햇빛에 낮의 날이 잠깐 반짝인다. 검붉은 피가 여자 아이의 등허리에 떨어진다. 늙은 무당의 요란한 웃음소리가 들린다. 여자 아이는 눈을 질끈 감아버린다. 그 새벽의 냄새가 난다. 여자 아이는 죽음의 냄새를 맡는다. 피와 똥이 범벅이 된 마루 위로 대나무 발의 스산한 소리가 들린다.

누구든 지난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면 잊고 싶은 것과 간직하고 싶은 것이 있기 마련이다. 잊고 싶은 기억들은 가슴 어디께, 어둡고 깊은 곳에 웅송그리고 있다가 불쑥 고개를 들곤 한다. 그러면 한동안 아련히 슬픈 기분이 들곤 하는 것이다.

나에게도 이런 잊고 싶은 기억들이 있다. 나의 경우엔 그런 것을 글로 써서 풀었던 것 같다. 가슴 속에 오래 응어리졌던 것을 소설로 쓰고 나면 거짓말처럼 편안해지곤 했다.

이 글도 그런 기억에서 비롯되었다. 글을 쓰면서 잠시 가슴이 먹먹했던 기억이 난다. 글을 쓰고 나서 한참을 앓았던 기억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후련했던 기억이 이제는 아프면서도 조금은 행복하다. 그런 아픈 기억이 생각지도 못한 반가운 소식으로 돌아왔다. 그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 설했다. 보잘 것 없는 글이 세상 빛을 본다고 생각하니 기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다. 그래도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에 금세 가슴께가 따듯해진다. 오랫동안 기분 좋게 남을 기억을 주신 분들에게도,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머니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장려상

# 어머니의 땅

경기도 고양시  
김갑식

“하나 둘씩 죽어 나갔지. 마치 나무토막처럼  
쓰러진 거요. 아무리 장사 같은 몸을 가진 사람도  
가을바람에 낙엽 떨어지듯 그렇게 힘없이 쓰러졌  
소. 박 할머니,

바로 당신 어머니 되신다는 그 분은 사람이  
죽어 갈 때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시신 곁에  
서 밤을 꼬박 새우곤 하셨소.”-본문중에서-

## 어머니의 땅

버스는 몇 번이나 시동을 꺼뜨리다 겨우 미끄러운 비탈길을 올랐다. 그는 형을 따라 복작거리는 승객들 틈을 비집고 출입구까지 나왔다. 덜덜거리는 소리가 그치고 문이 열리자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 경쟁이라도 하듯 다투어 내렸다. 그는 뒤에서 누군가 떠미는 바람에 눈 녹은 물로 질척거리는 출입구의 철판 바닥에 미끄러져 하마터면 밖으로 굴러떨어질 뻔했다. 먼저 내린 형이 놀라서 손을 내밀었지만 그는 그대로 비틀거리는 몸의 중심을 잡았다.

숨넘어가는 노인이 가래를 뱉듯 거친 엔진 소릴 내며 버스가 움직였다.

윤호는 잠시 다리를 벌리고 선 채 주변을 둘러보았다. 바람이 일 때마다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눈가루가 햇빛에 반짝거려, 눈에 뒤덮인 야트막한 산들이 바늘을 터는 거대한 물고기 형상으로 꿈틀거렸다.

“저 기슭만 돌면 돼.”

형의 입 밖으로 허연 입김이 쏟아져 나오더니 이내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앞장 서는 형의 뒤를 따르며 그는 한걸음 한걸음 자신의 걸음 수를 세기라고 하듯 발뺨을 내려다보았다. 기슭 쪽으로 다가갈수록 정강이가 지 빠질 만큼 눈이 많이 쌓여 있었다.

문득 고개를 드니 10여m쯤 앞쪽에 슬라브 자붕의 작은 회색 건물이 눈에 띄었다. 어느 사이 형은 그 건물 앞까지 가 있었다. 누군가 문을 열고 나왔다. 형은 하늘색 파커의 그 사내와 무슨 말인가 주고받는 것이었다.

건물 반대편에는 커다란 자연석이 콘크리트 받침대 위에 서 있었다. 건물에 다다랐을 때에야 비로소 그 돌에 새겨진 검은 글씨를 알아볼 수 있었다.

금잔디 공원묘지.

높이가 사람 한 길보다 커 보이는 자연석이었다.

“잠깐 몸 좀 녹이고 갈까?”

형이 돌아보며 말했다. 그리고 보니 건물 옆으로 빠져나온 연통에서 거무스레한 연기가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래, 나중에 들르자. 저 위쪽이야.”

밖에 나와 있던 사내는 40대 중반쯤 돼 보였다. 따뜻한 곳에 있다 나와선지 사내의 얼굴은 별경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러나 곁을 지나치자 술 냄새가 역하게 풍겨왔다.

“추운데 금방 내려오쇼.”

사내는 어깨를 추스르며 잼싸게 건물 안으로 사라졌다.

윤호는 형의 뒤를 세 발짝 정도 처져서 언덕을 올라갔다. 양편에는 커다란 반구형(半球形)의 틀에서 금방 뽑아낸 듯한 눈더미들이 계단을 이루며 늘어서 있었다.

“여기야.”

얼마쯤 올라갔을까 앞서 가던 형이 걸음을 멈추었다. 눈가루가 엉겨

붙어있는 묘비 앞이었다.

박옥숙의 묘.

순간 윤호는 어머니의 이름이 새겨진 묘비가 이곳에서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없었다.

‘2년입니다, 어머니. 2년만 기다려 주세요…….’

인천공항의 어수선한 대합실에서 윤호는 자신의 입을 어머니의 귓가에 대고 소리쳤었다.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흘금흘금 쳐다보고 있었다.

어머니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몇 해 전부터 어머니는 무슨 말을 해도 고개를 끄덕인다는 것을.

그는 검지와 중지를 펴 어머니 눈앞에서 여러 번 흔들었다. 어머니는 또 고개를 끄덕였다.

“웬 눈이 이렇게 많이 왔지.”

형이 봉분에 쌓인 수북한 눈을 어느 새 장갑 낀 손으로 몇 차례 헤치며 중얼거렸다.

이내 누르고 거세 보이는 풀잎들이 머리를 내밀기 시작했다. 그것들은 참고 있었던 숨이라도 쉬는 듯 형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부르르 몸을 떠는 것이었다.

“맨 땅이 흥해서 임시로 떼를 입혀 났어. 봄이 되면 제대로 입혀야지.”

윤호는 주머니를 뒤져 담배를 꺼내 물었다. 그리고 바람을 등지고 서서 일화용 라이터를 켰다. 바람은 그의 등을 떠밀며 무슨 애긴가를 건네는 듯 웅웅거렸다. 간신히 불을 붙이고 몸을 돌렸을 때 형이 말했다.

“술 좀 꺼내.”

그는 품안에서 비닐봉지를 꺼내 내밀었다.

윤호는 이 모든 것이 환상이 아닐까 생각했다. 불과 나흘 전만 해도

그는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 땀을 흘리고 있었다. 철근을 세우고 그것을 철사로 묶으며 어서 저 하늘에 붙박혀 있는 해가 잘 익은 연시처럼 지평선 아래로 툭 떨어지기를 기다렸던 것이다.

이 과장이 핸드 마이크로 자신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이상하게 내려가기가 싫었다. 습관처럼 서쪽 하늘로 고개를 돌리자 아직도 해는 지평선 위 두 뼘쯤 되는 곳에 걸려 있었다.

현장 사무소장은 늘 옷통을 벗고 있었는데 웬일인지 밤색 남방셔츠를 입은 채였다. 그는 문 앞에 서 있는 윤호에게 들어오라고 손짓한 다음 화난 듯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자네 모친께서 어젯밤 돌아가셨다네. 방금 제다에서 연락이 왔어.”

문득 소장의 주름진 목덜미가, 말라서 갈라터진 흙벼처럼 보였다. 흙벼 속에서 들려온 소리가 메아리가 되어 윤호의 가슴을 울리는 것이었다.

그는 햇바닥 위에서 꺾끄럽게 스치는 모래가루를 잘근잘근 씹었다. 유리창 너머로 흡사 거대한 동물의 엉덩이 같은 밝은 갈색의 모래 둔덕이 눈에 들어왔다.

“삼일장이라면 아무래도 장례는 못 모시겠군. 어서 귀국 준비를 서두르게.”

소장은 담배연기를 길게 내뿜고 나서 바닥에다 침을 뱉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그 놈의 돈이 뭔지, 모친 임종은커녕 장례조차 못 모시다니.”

“자, 한 잔 부어드려.”

언뜻 고개를 돌리자 형이 잔을 내밀고 있었다. 윤호는 잔을 받아들였다.

눈 속에서 힘겹게 새로 자라난 듯한 누런 풀잎들이 날카롭게 몸을 세우고 그가 따르는 술을 받았다. 무슨 표시같이 동그랗게 녹아드는 자리

를 물끄러미 내려다보다 윤호는 고개를 떨구었다.

“조금 더 있을까?”

그는 목소리를 향해 시선을 쳐들었다. 햇빛이 포충망처럼 두 눈으로 펼쳐졌다. 형은 잔뜩 몸을 움츠린 채 발을 구르고 있었다.

윤호는 다시 고개를 바로 하고 추위에 떨고 있는 금잔디를 내려다보았다. 그 다음 더 안쪽에 누워 있을 어머니를 떠올렸다.

“안 되겠다. 너 괜히 독감이라도 걸리면 어떻게 하겠어. 관리실에 가서 몸이나 녹이며 애길 하자.”

그는 순간 울컥 목구멍으로 치미는 덩어리를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형이 자신의 팔을 잡았을 때 순순히 몸을 일으켰다.

영겨 붙은 눈가루 때문에 드문드문 지워져 있는 어머니의 이름이 파인 흠을 따라 윤호는 엄지손가락을 움직였다. 글씨를 처음 배우는 아이처럼 그의 손은 서툴게 떨렸다.

“자, 이제 그만 내려가자.”

그는 천천히 발길을 돌려 형의 뒤를 따랐다.

관리실 창문으로, 사내가 난로가에서 술잔을 들이키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두 사람이 가까이 오자 문을 열고 나왔다.

“어서들 들어오쇼. 거, 추운데 오래 서있다고 죽은 양반이 다시 살아나기라도 하겠수?”

사내가 거슴츠레한 눈으로 윤호를 유심히 바라보며 말했다.

안으로 들어서자 연탄 냄새와 김치찌개 냄새 그리고 술 냄새가 한데 뒤섞여 풍겨와 윤호는 금방이라도 토할 것 같은 메스꺼움을 느꼈다. 사내는 구석에 있던 동그란 나무 의자 두 개를 난로가에 옮겨 놓고 앉기를 권했다.

“그러지 않아도 혼자 마시기가 적적했는데 잘됐시다. 차가 올 때까지 만이라도 술벗이나 돼주소.”

사내는 들고 있던 음료수잔에 반쯤 담긴 소주를 단숨에 들이키더니 이내 윤호에게 내밀었다.

“보아하니 최 형의 동생 되시는 모양인데, 자 한 잔 받으쇼.”

윤호는 술을 못 한다고 사양했다. 그러나 사내는 부득부득 한 잔만이라도 받으라는 것이었다. 마지못해 잔을 받자 그는 대변에 반을 채웠다.

“참 인사드려라. 이번에 수고 많으셨던 분이야.”

형이 말을 마치자마자 그는 투박하고 억세 보이는 손을 내밀었다.

“권달수라고 합니다.”

윤호는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그의 손을 잡았다.

“왜 그 날 얘기했었죠. 해외에 나가 있다는 동생이 하나 있다고.”

“아, 예.”

무슨 말인가 더 할 듯하다 사내는 창턱에 놓여 있던 손잡이가 달린 고동색 플라스틱 잔을 집어 형에게 권했다.

윤호는 이곳에서 빨리 나가고 싶었다.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는 것이다. 그는 자꾸 시계를 들여다보며 어서 버스가 와주기만을 기다렸다.

윤호는 아라비아 북단 알조프의 현장으로 떠난 지 만 하루가 지나서 야 제다 공항에서 서울행 KAL기에 오를 수 있었다. 비행기 속에서 그는 어떤 생각도 뚜렷하게 할 수 없었다.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면 이내 다른 생각이 그걸 가로막고 또 다른 게 가로막는 식이었다. 그러다 차츰 그의 머릿속은 텅 빈 동굴처럼 무슨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기도 이리 저리 부딪혀 끝없는 울림만 계속 되곤 하는 것이었다.

비행기가 내리고 수속을 끝낸 뒤 출구로 나오자 회색 바바리를 걸친 형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한 순간 그는 어머니를 찾느라 형 주변을 살피기까지 했다.

택시 정류장 앞에서 형이 말했다.

“너무 괴로워하지 마라. 난 너보다 더 하나까.”

그는 더 하다는 형의 말을 마음속으로 여러 번 되뇌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미치 땀이 흐르기도 전에 증발시켜 버려, 버짐 같은 무늬만 남기는 사막의 이상스러운 무더위. 야간작업을 할 때마다 이빨까지 떨리는 밤의 냉기. 직접 겪어 본 사람만이 말할 자격이 있는, 하룻밤 사이에 모래산을 옮겨 놓는 광풍.

늘 고여 있기만 하는, 섞은 늪과도 같은 시간의 웅덩이. 날마다 붉은색 매직펜으로 숫자 위에 긋는 X표시.

매일 아침 작업장에 나가기 전 대변을 보고 나올 때의 심정. 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눈앞으로 막 활주로를 이륙한 여객기가 거대한 날짐승이 울부짖는 소릴 내며 차가운 대기 속으로 돌진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증세는 갈수록 심해지셨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원에 갔을 때는 우릴 알아보지도 못하실 정도였어. 함께 집으로 돌아가시자고 했지만 막무가내였다. 꼭 어린애같이 팔까지 뿌리치면서 안 가겠다고 우기시는 거야.”

윤호는 형의 말을 묵묵히 들으며 맨 처음 고국의 그리운 가족으로부터 더 받았던 편지 내용을 떠올렸다.

‘……결에서 직접 모시지 못하는 게 염려스럽긴 하지만 어찌겠느냐,



어머니가 더 이상 집에 계시면서 악화되는 것보다는 낫지. 아무튼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자주 찾아볼 테니까. 임 집사님 얘기로는 아주 훌륭한 분들이 운영하고 있다니까 곧 회복되실 거라는구나. 다시 말한다면 이곳 걱정은 조금도 하지 말거라……’

그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은 마음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하지만 치켜 뜬 그의 눈을 가로막는 게 있었다. 맞은편 벽에 붙어있는 세계지도.

그가 지금 와 있는 아라비아 반도 옆에는 검푸른 아라비아 해가 출렁이고 있었고, 인도 대륙과 벵골만을 거쳐 인도차이나 반도 그리고 대만을 지나고 나서야 한반도가 보였다.

윤호는 문득 얼마 전 비디오로 본 수퍼맨이라는 영화를 생각했다. 아무데서나 날아다닐 수 있는 그 초능력의 주인공을.

그 날 밤 투덜대는 야간 당직자에게 통사정을 하고 네 시간이나 기다린 끝에 간신히 형과 통화를 했다. 형은 덤덤한 목소리로 벌써 어머니는 나흘 전에 기도원으로 가셨다고 말했다.

“자, 타자.”

택시가 앞에 와 멈추었다. 윤호는 앞문을 열었다. 왜 뒷자리에 타지 그러느냐는 형의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대로 앉았다.

“방배동으로 갑시다.”

형이 문을 거칠게 닫으며 말했다.

“난 불광동으로 가겠어.”

“불광동? 임 집사한테 가려는 거냐? 그 사람 벌써 이사 갔어.”

“어디로?”

“나도 잘은 모르겠는데 먼젓번 집으로 연락하면 전화번호는 알 수 있

을 거다. 그렇지만 그 사람한테는 내일 가도 되잖아. 집으로 가자. 네 형수가 꼭 하고 싶은 말도 있단니까.”

윤희는 결코 방배동으로 가고 싶지 않았다. 그는 서글픈 생각이 들었다.

“안부나 전해 줘. 애들한테도.”

“그렇게 꼭 고집을 부려야겠어?”

윤희는 고집이 아니라고 외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려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물에 번지고 있는 갖가지 수채화 물감 모습으로 지나치고 있는 거리.

“아무튼 내일 두 시에 시외버스 정류장에서 만나.”

“오늘 밤은 어디서 잘 거냐?”

신경질적으로 형이 말했다. 윤희는 가슴으로 치밀어오르는 불쾌감을 천천히 심호흡을 했다.

“그런 걱정은 하지 마. 이 넓은 천지에 어디 잠잘 곳 없을라구.”

운전기사가 흘금흘금 백미러로 뒤를 살피고 있었다.

“아니 또 눈이 내리고 있네.”

사내의 말에 윤희는 시선을 창밖으로 움직였다.

어느 새 낮게 가라앉은 하늘을 배경으로 하얀 점들이 어지러이 움직이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그것들은 작고 귀여운 나비 떼같이 하늘거리며 이곳저곳으로 몰려다니는 것이었다.

“자 최형, 받으쇼.”

소리나게 잔을 비우고 나서 사내가 형 앞으로 팔을 뻗었다. 어느 사이 바닥에는 빈 소주병이 다섯 개나 나뒹굴고 있었다. 난로 위에서 끓고 있던 김치찌개 냄비도 거의 바닥이 드러나 있었다.

형이 고개를 숙인 채 사내가 따르는 술을 받았다. 팔이 흔들려 술이 잔 밖으로 흘러내렸다.

“아니 최형, 요걸 마시고 벌써 취한 거요? 잔이나 똑바로 잡으쇼.”

왼손으로 머리카락을 쥐어뜯을 듯 몇 번 쓸어 넘기면서 형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형의 눈동자는 많이 풀어져 있었다.

“야, 윤호야, 넌 더 나쁜 놈이야. 네가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른다 만 넌 나보다 더 나쁜 놈이라구.”

밋도 끝도 없이 갑자기 형이 왼손으로 샷대질을 해가며 말했다. 오른 손에 들린 잔이 흔들리면서 술이 흘러넘쳤다.

“네 형수가 너보고 뭐라고 하는지 알거나 해. 어머니 모시기 싫으니까 훌쩍 떠나간 게 아니냐는 거야.”

윤호의 가슴은 불길에 닿은 것처럼 화끈거렸다. 그는 그때까지 마시지 않고 들고만 있었던 술을 입안으로 털어 넣었다.

불현듯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선명한 사진 같은 장면이 떠올랐다.

형수가 아끼던 꽃병을 깨뜨린 어머니가 걸레를 손에 든 채, 형과 형수가 학사모를 쓰고 정답게 찍은 약혼사진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던 모습.

어느 날 밤 어머니, 제발, 더 이상, 잘... 하고 외치며 부축하는 어머니의 팔을 뿌리쳤던 술에 취한 형.

우연히 목격한 이 장면들이 그 때부터 대못이 되어 윤호의 가슴에 박혀 있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대못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스물다섯에 청상이 된 몸으로 아들 둘을 키워 온 어머니의 가슴 속에 박혀있었다. 그는 그 대못 두 개를 뽑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그의 소망은 십사리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버티고 있었다.

윤호는 성산대교가 바라보이는 교차로 앞에서 내렸다. 형은 화난 얼굴로 잠자코 앞만 보며 앉아 있었다. 택시가 멀어져 가는 걸 물끄러미 지켜보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내리막길이 시작되는 곳에 공중전화 부스가 하나 있었다. 화장을 요란하게 한 젊은 여자가 수화기를 든 채 호들갑스럽게 웃고 있었다. 여자는 그를 힐끗 쳐다보더니 두 번 더 자지러지는 웃음을 파편처럼 부스 안에 흩뿌리고 나서야 밖으로 나왔다.

번호를 누르자 신호 가는 소리에 이어 나이 어린 남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윤호는 아이에게 이사 간 임 집사집 전화번호를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아이가 잠깐 기다리라고 한 뒤 20초쯤 지났을까 웬 여자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고 캐묻는 것이었다.

“네 급한 볼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꼭 만나 뵙고 드릴 말씀이 있거든요.”

여자는 조금 뒤 번호를 말해주었다. 국번은 전과 마찬가지로였다. 윤호는 이사 간 곳이 전에 살던 집과 멀리 떨어져 있느냐고 물었다.

“아네요, 목욕탕 바로 윗집예요. 복개된 개천길을 쭉 따라가면 얼마 안 가서 오른편에 목욕탕이 보여요. 그 다음집이에요.”

그는 고맙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다시 동전을 넣고 번호를 누르려다 그만두고 막 지나치려는 빈 택시를 잡았다. 혹시 있으면서 없다고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목욕탕은 찾기가 쉬웠다. 여자가 말해 준대로 전에 살던 집 뒤편의 복개된 개천길을 따라가다 보니 금방 눈에 띄었다. 그는 요금을 치르고 차에서 내렸다.

깨끗하게 페인트칠이 돼 있는 청록색 철 대문 앞에서 그는 잠시 망설

이다 초인종을 눌렀다. 안에서 누군가 나오는 기척이 있었다. 이내 문이 열리며 뚱뚱한 몸매의 중년여자가 나타났다.

“누굴 찾으세요?”

여자는 낯선 방문객을 의혹의 눈초리로 훑어보며 말했다. 윤호가 막 입 자를 입에 올리려고 했을 때 눈에 익은 얼굴이 뒤편에서 어른거렸다.

“아니, 자네 윤호 아닌가?”

임 집사는 선뜻 손까지 잡으며 반가워했다. 그는 윤호를 끌다시피 마당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나서 두 손을 움켜쥐며 고생 많았지 하는 말을 시작으로 몇 마디 안부 인사를 늘어놓았다.

“그러지 않아도 자네가 조만간 날 찾아올 줄 알았네. 자, 안으로 들어가세.”

윤호는 그를 따라 마루를 지나 방으로 갔다. 마루에 놓여 있는, 자개가 박힌 장식장 안에는 여전히 기념패들이 뽁뽁이 놓여 있었다. 방안 역시 마찬가지였다. 감사장, 상장들 속의 액자가 사방 벽면을 거의 차지하 다시피 걸려 있었다. 구석에 놓여 있는 작은 탁자 위에 금박을 입힌 성경이 펼쳐져 있는 모습 또한 예전의 집에서와 똑같았다.

순간 임 집사와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자신을 조롱하는 듯이 여겨졌다.

자, 봐라 변한 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땅에 묻힌 너의 어머니만 빼고는.

누군가 자신의 귓가에 입술을 대고 속삭이는 것만 같았다.

“어머니가 기도원에 가서야 했을 만큼 병세가 악화된 게 언제부터였습니까?”

윤호는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집사는 약간 표정을 굳히며 눈

을 꺾어버렸다.

“아마 자네가 떠난 이삼일 후부터였을걸세. 나도 자네 모친이 그렇게 까지 되셨다는 말을 듣고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네.”

“그렇게까지 됐다뇨?”

윤호는 자신의 말투가 거칠어지는 걸 깨닫고 스스로 타일렀다. 아직도 길은 멀다. 차분하게, 서두르지 말고.

임 집사는 오히려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뵈히 쳐다봤다.

“아니, 모르고 있었나. 형이 말을 해주지 않던가?”

윤호는 형이 보냈던 편지의 문장 표현까지 외우다시피 하고 있었다.

그는 다시 머리 속으로 그 편지지를 펼쳐 읽어 내려갔다. 하지만 아무 곳에도 짐작될 만한 구절이 없었다.

집사는 당혹스러운 얼굴로 잠시 무언기를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자네가 모르고 있다면 내 얘기해 줘세. 모친께서 옷을 입은 채로 그 냥 소변을 누셨다는 게야. 그것도 하루에 대여섯 차례씩이나.”

윤호는 누가 갑자기 양손으로 목을 조르기라도 한 듯 숨이 막혔다. 그는 잔기침을 하며 목을 쓰다듬었다.

“그럴 리가……”

집사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중얼거리는 청년을 건너다보며 득의만면 한 표정으로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러니 생각해보게. 자네 형이나 나나 모친이 기도원에 가시는 게 여러 모로 좋다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지 않았겠는가. 물론 내게도 어느 정도는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네. 그 기도원이 그다지 좋은 곳이 아니라는 걸 나중에서야 알았으니까. 그러나 그런 사실을 알고부터는 하루가 멀다시피 찾아가 모친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곳에서 나와 다른 데로

가시자구. 하지만 모친은 완강하게 고개만 저으셨어.”

집사는 윤호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가며 가라앉은 목소리로 차근차근 이야기했다. 굵고 차분한 그의 음성은 누가 듣더라도 신뢰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전부터 윤호는 그 얼굴 뒤편의 또 다른 얼굴을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던 터였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원인이 뇌졸중이라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아, 의사까지 와서 검사를 한 결과가 그런데 그 이상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고인에게는 안 된 말이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곱게 가신 게 차라리 나은 셈예요. 아,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반신불수로 고생스럽게 사시는 것보다야 낫지 않은가. 아무튼 자네가 정 모친이 뇌졸중으로 돌아가셨다는 걸 믿지 못하겠다면 내가 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지. 그 사람도 우리 교회에 다니는 독실한 권사의 아들인데, 늦으막에 그만 정신이 약간 돌아 반년 전부터 그 기도원에 있다 며칠 전인가 상태가 좋아져 집에 와 있다는군. 어떤가, 함께 가볼 텐가?”

집사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뭔가 망설이는 것이었다.

“가만 있자. 그런데 이 권사가 지금 집에 있을래나. 아무튼 일단 가보지 뭐.”

윤호는 임 집사를 따라 밖으로 나왔다. 복개천을 지나 언덕을 오르면서 갑자기 생각난다는 듯 집사가 말을 꺼냈다.

“참, 그 사람 아직도 완전히 제 정신은 아닐 테니까 그 점을 유념해야 하네. 내 말은 그 사람 얘기를 잘 새겨들어야 한다는 게야. 원래 정신이 돌아버렸던 사람들은 허무맹랑한 말을 잘 하거든.”

미니 슈퍼라는 간판이 붙은 가게를 지나자 왼편으로 골목이 나 있었다. 임 집사는 그 골목으로 꺾어들었다. 막다른 골목이었다. 젊은 사람

처럼 그는 큰 걸음으로 골목 끝의 이층집 앞까지 가더니 우뚝 멈추었다.

지은 자가 그리 오래 돼 보이는 집은 아니었다. 하지만 건물 외벽에 군데군데 그을음 같은 게 끼 있어 집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음을 보여 주고 있었다.

집사가 초인종을 눌렀다. 그러나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 기척이 없었다. 다시 연달아 두 번을 더 눌렀지만 마찬가지였다. 집사는 아무도 없나 하고 중얼거리더니 이번에는 군데군데 철이 벗겨진 밤색 철대문을 두드려 댔다.

“이 권사님 계십니까?”

그제서야 안쪽에서 인기척이 났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이어 슬리퍼 끄는 소리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이내 덜컥 하고 거칠게 문이 열렸다.

집사가 어 하면서 주춤 뒤로 물러선 게 바로 그 순간이었다. 얼굴이 몹시 야위어 광대뼈가 볼거진 30대 중반쯤의 키 큰 사내가 문밖으로 성큼 나왔기 때문이다.

그는 임 집사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먹살을 움켜쥐었다. 그 다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웅얼대며 먹살을 잡은 채 집사를 담쪽으로 밀어붙였다.

“이 사람아 왜 이러나, 응. 제발 이 손 좀 놓게.”

일그러진 얼굴로 임 집사가 통사정을 했다. 윤호에게 도움을 청하는 시선을 던지며, 윤호는 얼른 사내 팔을 잡아끌어 겨우 먹살을 풀게 했다.

숨을 길게 내쉬며 임 집사가 목을 어루만지더니 대뜸 욕설을 퍼부었다.

“역시 미친놈은 별 수 없구나. 이놈아 미치려면 곱게 미칠 일이지 왜 죄 없는 사람까지 죽이려고 대들어 대들긴 나 참.”

순간 사내 표정이 더 험악하게 변했다. 그러자 임 집사는 허둥대며 골



목 밖으로 달아나는 것이었다.

윤호는 그가 문 안으로 막 들어서려 했을 때 말을 붙였다.

“저, 잠깐 물어 볼 말이 있는데요.”

사내가 얼굴을 비스듬히 돌리며 그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윤호는 긴 장감을 느꼈지만 그의 눈동자를 마주보며 미친 사람은 아니구나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지치고 음울한 빛이 역력했지만 그 안쪽에는 어떤 따뜻한 게 흐르고 있는 듯했다.

“당신은 누구요?”

사내는 고함치듯 물었다. 윤호는 갑작스레 당황한 마음에 자신의 이름을 말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의 이름을 뱉었다.

“돌아가신 어머니도 같은 기도원에 계셨다는 얘길 들었습니다만.”

현관을 지나자 오른쪽에 방문이 열려있는 게 보였다. 그는 그 방으로 들어가더니 창문이 마주보이는 자리에 털썩 앉았다. 공초가 수북이 쌓인 재떨이와 윗부분이 다 뜯어진 담배갑이 남자의 무릎에 놓여 있었다.

그는 담배갑을 집어 들어 한 개비를 꺼낸 다음 한참 동안이나 필터를 만지작거렸다.

“저 놈이 바로 사탄이요, 천사의 얼굴을 한 사탄.”

윤호는 처음에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기까지 했다. 그가 말하는 사탄이 방 안 어딘가에 있길래도 한 듯이.

“우린 짐승보다 못한 상태로 지냈소. 네 발 달린 짐승보다 말이요, 내 말이 너무 간단해 당신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의문스럽소.”

남자는 신경질적으로 일회용 라이터를 켜더니 담배에 불을 붙였다.

“명색이 기도원이지 말 그대로 지옥이었소, 지옥. 성경에 나오는 그 지옥 말이요, 하루에 두 끼, 그것도 시켜면 깡보리밥에 김치 몇 조각으

로 우리의 육신을 지탱했소. 그 알량한 기도 몇 마디로 폐허 같은 영혼을 달래야 했고, 무조건 죄인을 용서해 주소서라는 말을 앵무새처럼 되뇌면서 말이요.”

가슴을 휘젓는 듯한 기침 때문에 남자의 말이 끊어졌다. 그는 담배를 재떨이에 아무렇게나 부벼졌다. 몇 번 더 기침을 하고 나서 남자가 말을 계속했다.

“하나 둘씩 죽어 나갔지. 마치 나무토막처럼 쓰러진 거요. 아무리 장사 같은 몸을 가진 사람도 가을바람에 낙엽 떨어지듯 그렇게 힘없이 쓰러졌소. 박 할머니, 바로 당신 어머니 되신다는 그 분은 사람이 죽어 갈 때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시신 곁에서 밤을 꼬박 새우곤 하셨소.”

윤호는 남자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어머니의 정신이 온전치가 못했다는데 어떻게 그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인가.

남자가 잠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이에 윤호는 얼른 입을 열었다.

“어머니를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습니까?”

남자는 이내 얼굴을 들었다.

“여자들이 있던 건물은 개울 건너편에 있어 확실한 것까지는 잘 모르지만 몇 번 왔었다는 얘길 듣긴 들었소. 그런데 몇 달 뒤부터는 사람이 와도 박 할머니가 만나지도 않았다고 했소.”

“편지가 자주 왔다는 얘긴 들어 보셨습니까?”

윤호는 자신이 매주 띄운 편지를 떠올리며 물었다.

“그것도 잘 알 수가 없었소. 밖에서 오는 편지는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았으니까.”

윤호는 그가 분명 정신이 온전하다는 확신이 들었다. 자신이 잘 모르는 일은 모른다고 하지 않는가.

“어머니는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뇌졸중이라고 하던데 정말 입니까?”

“뇌졸중?”

남자는 코웃음을 쳤다.

“물론 진단은 그렇게 나왔소.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병명이고, 나중에 들으니 그 전에 박 할머니는 사흘간을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았다고 했소.”

“왜요? 왜 그러신 겁니까?”

“젊은 여자 하나가 도망을 쳤다가 붙잡혔댔소. 감시인 가운데 독한 여자가 있었는데 붙잡은 젊은 여자의 머리를 빈대머리로 밀어 놓았지. 다음 날 여자는 목매 자살했소. 사람들은 아마 그 일 때문에 박 할머니가 충격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고 짐작했을 뿐이오. 그리고 돌아가시던 날 화장실 출입을 하러 나오다 그대로 쓰러지셨다는 것이었소.”

윤호는 왼손으로 이마를 받친 채 한동안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의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살의(殺意)가 날카로운 칼날처럼 일어서고 있었다.

“아무도 기도원에서 일어난 일을 믿지 않고 있소. 단 한 분만 빼고는. 그러나 그분도 너무나 멀리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게요.”

어떻게 그 집을 나왔는지 그는 기억할 수 없었다. 문득 주위를 살펴보니 쇼윈도우 불빛이 현란한 큰길이었다. 윤호는 후들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택시 정류장으로 향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는 누구에겐지 자신도 확실히 알 수 없는 대상을 향해 중얼거렸다. 빈 택시가 앞에 와 멎었다. 윤호는 뒷문을 열고 올라탔다.

“어디로 가십니까?”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윤호는 방배동 하고 말한

뒤 눈을 감았다.

머리 속에서 사막에서 겪었던 회오리바람이 불고 있었다. 움 몸의 피가 역류하는 느낌도 들었다.

문득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상하게 아주 어렸을 때 보았던 곱고 젊은 모습이었다.

‘웃을 입은 채로 그냥 소변을 누셨다는 게야……’

아, 어머니.

그러자 돌연 묘소에도 가지 못했다는 사실이 새삼스레 떠올랐다. 그제서야 내일 형과의 약속이 기억나는 것이었다.

운호는 한참이나 망설였다.

그래, 내일로 미루자. 어머니를 뵙고 나서.

그는 자신의 다른 한편에게 타이르듯 중얼거렸다.

갑자기 피곤이 몰려들었다. 비로소 며칠간 제대로 눈을 붙이지 못했다는 생각이 났다. 네거리를 막 지나치는데 여관이라고 씌어진 붉은 아크릴 간판이 눈에 띄었다. 그는 차를 세워 달라고 했다.

“네? 방배동에 가신다면서요?”

그는 다른 볼일을 깜빡 잊었다고 말했다. 운전기사는 불쾌한 표정을 짓더니 인도 가까이 차를 댔다.

사내는 취기가 오르는지 벽에 머리를 기대 채 눈을 감고 있었다.

“넌 내가 하는 말이 기분 나쁠 거다. 하지만 네 형수 얘기가 틀린 것만은 아니잖느냐 이 말이야 내 말은.”

혀가 고부라져 제대로 발음도 못 하면서 형은 계속 늘어놓고 있었다.

“내가 누구하고 의논하겠니, 으크으. 이 최윤구가 이 세상 어느 누구

하고 의논할 수가 있느냐 이거야.”

사내가 몸을 일으키더니 창문 앞으로 다가갔다. 눈바람이 창문을 뒤흔들고 있었다. 그는 한동안 우두커니 밖을 내다보며 서 있었다.

윤호는 형에게 어제 만났던 권사의 아들한테 들은 얘길 해주고 싶었다. 어머니가 그 곳에서 어떻게 지냈으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그러면서도 어쩌면 형도 이미 알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겁한 자.

“임마, 나도 할 만큼을 다 했어. 응. 넌 그걸 알아야 된다고 크으. 넌 우리가 어머니가 싫어서 내쫓거나 한 것처럼 여기는 모양인데, 크. 다 어머니를 위해서 그런 거란 말야. 한 번, 으. 한번 어머니한테 물어 보려무나, 물어 보라 이거야 임마.”

윤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삼키느라 애를 써야 했다.

그때까지 창문 앞에 서 있던 사내가 돌아서서 입을 열었다.

“최형, 너무 취했군. 어머니한테 물어보라니. 아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 법 아니우. 그나저나 뒷방에 좀 누워요. 내일은 휴일이니까 폭 자고 가도 되잖소? 아무래도 그런 몸으로는 안 되겠는데.”

“뭐 내가 취했다구? 예끼 이 양반아. 아, 내가 취하긴 뭐가 취했다고 그래.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충분히, 크으.”

윤호는 사내에게 버스가 왜 안 오느냐고 물었다.

“눈이 이렇게 많이 오면 요 아래 멍석골까지만 다닌다우. 왔던 길로 한 이십 분 걸으면 되는 거리니까 가까운 편이지. 그렇지만 형님이 저렇게 취했는데 지금 갈 수 있겠수?”

충혈된 사내의 눈이 유심히 그의 표정을 살폈다.

“왜 못가. 갈 수 있어. 난 가야 돼. 아, 처자식이 기다리고 있는 집을

두고 왜 여기서 잠을 자.”

“그래? 그럼 마음대로 하라구. 원 처자식 없는 사람 서러워서 못 듣겠네.”

정말 기분이 나쁘다는 표정을 지으며 사내가 대꾸했다.

“자, 가자.”

비틀거리며 형이 일어났다. 사내가 문을 열었다. 숨어 있던 복병처럼 눈보라가 몰려 들어왔다.

“자, 그럼 나중에 또 봅시다.”

형이 사내에게 말하자 그는 손을 흔들었다. 사내는 잠시 문밖에 서있다 안으로 들어갔다.

두 사람은 눈발에 깊은 발자국을 남기며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야, 넌 정말 내가 어머닐 모시기가 귀찮아서 기도원에 보냈다고 생각하고 있냐, 응?”

구역질나는 술 냄새. 그리고 저 거짓된 목소리.

윤호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대뜸 형에게로 얼굴을 가까이 대고 소리쳤다.

“형은 알고 있었지? 어머니가 결코 기도원에 가야 할 만큼 정신이 나가셨던 게 아니라는 걸. 그래 그 사실을 뻔히 알면서 어머니를 그런 지옥으로 보낼 수가 있단 말이야. 어머니 결국 형 때문에 죽은 거야. 형이 어머니를 죽인 거라고. 두고 봐 어머닐 그렇게 만든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복수하는가를.”

형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그를 노려보았다.

“넌 모를 거다. 넌 몰라. 크으윽. 차라리 내가 떠나고 싶었어. 내가…….”

윤호는 빠른 걸음으로 계곡 쪽으로 내려갔다. 눈발은 흡사 거대한 주렴처럼 대지 위에까지 드리워진 채 출렁이고 있었다.

그는 건너편 독까지 이어진 폭이 좁을 시멘트 접어들었다. 순간 중심을 잃고 넘어져 하마터면 난간이 없는 다리 아래로 떨어질 뻔했다. 바닥은 울퉁불퉁했고 몹시 미끄러웠다.

“야, 너 말야…….”

어느 사이 형의 목소리가 뒤따라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킨 다음 한 발자국을 떼었다.

그때였다. 둔탁한 소릴 내며 무언가 냇가로 굴러 떨어졌다. 곧이어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윤호는 30초쯤 그 자리에 붙박힌 듯 서 있었다. 뒤를 돌아보고 싶은 충동이 꿈틀거렸지만 그는 다리에 힘을 주고 한 걸음씩 옮겼다.

‘나는 아무것도,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

중얼거림이 그의 입 안에서 맴돌았다.

그러나 막 세 걸음째 떼었을 때 그는 우뚝 멈추고 말았다.

윤호야 하고 누군가 나직하게 뒤에서 그를 불렀기 때문이다. 그는 목소리가 들려온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눈보라가 얼굴을 핥고 지나갔을 뿐이다.

“윤호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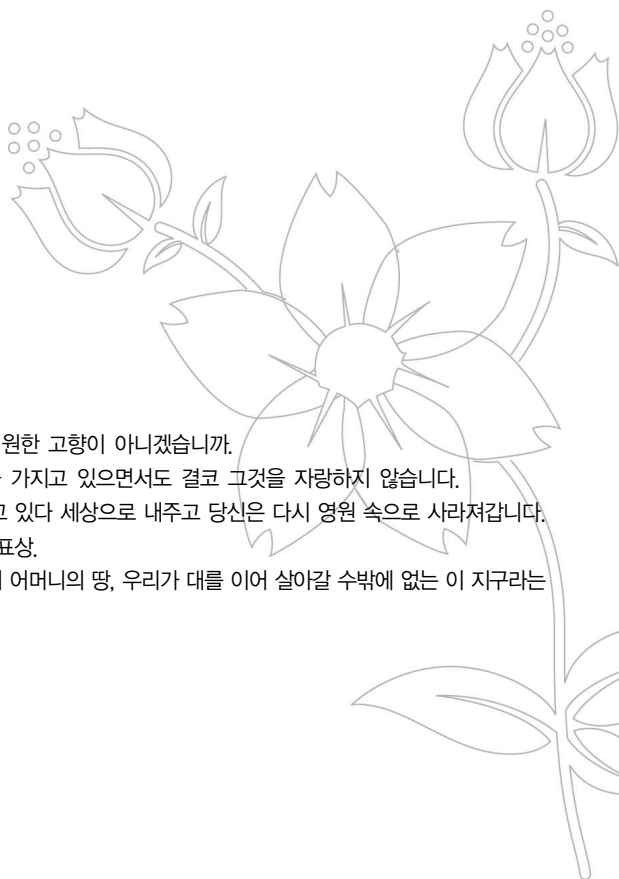
폐부를 찌르는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일순 그는 숨이 막혔다. 아,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윤호는 무너지듯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상처입은 짐승의 비명 같은 울음소리가 그의 입에서 터져 나왔다.

눈보라를 뚫고 하늘까지 가 닿은 듯한 울음소리가 메아리가 되어 되

돌아올 때쯤, 얼어붙은 그의 가슴 한 구석에서 파스한 바람이 살아나는  
불씨처럼 일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냇가 쪽으로 다가갔다.



어머니는 우리 모두의 영원한 고향이 아니겠습니까.  
어머니는 실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결코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생명까지도 품고 있다 세상으로 내주고 당신은 다시 영원 속으로 사라져갑니다.  
어머니, 이 '무한희생'의 표상.  
어지러운 세상을 생각하며 어머니의 땅, 우리가 대를 이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지구라는  
'별'을 떠올려 봅니다.



장려상

# 어머니의 자리

그날 이후 나는 그 여자가 어머니를 면회하러 갈 때 따라  
가지 않았다. 대신 그 여자를 어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  
여자는 그런 나를 충분히 이해한다는 눈길을 보냈다. 그러나  
그 여자를 어머니라고 부른다고 내 어머니를 잊을 수는 없었  
다. 그 여자는 기대고 싶은 어머니였고 내 어머니는 가슴에 넣  
어두고 싶은 어머니였다.

-본문중에서-

충청북도 증평군  
권영이



## 어머니의 자리

하루 새 내 발이 작아졌는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낡은 구두가 쿨럭이며 기침을 해댄다. 나는 뒤꿈치를 질질 끌며 걷는다. 하루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 발은, 아니 발뿐만 아니라 온 몸이 물먹은 솜처럼 묵직했다. 걸을 때마다 아래로 내려오는 물은 발등에 고스란히 고여 낡은 구두가 팽팽하게 부풀어 오르기 일쑤였다. 내 뱃줄이 끊어지자마자 내 몸으로 스며든 물은 어디로 증발한 것일까.

몇 년 전만 해도 몇 안 되는 청소대행업체들이 딸린 가족들 밥 먹여 줄 수 있는 정도는 되었었다. 뱃줄이 된다싶으니까 여기 저기 같은 직종들이 난립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졌다. 경쟁에서 낙오된 업체는 현상 유지도 어려워 사원들을 하나 둘 해고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나도 설마 아니겠지 하며 가슴 졸이며 출근한지도 삼년이 되었다.

오늘 일을 마치고 사무실로 들어서는 나를 관리과장이 소주 한잔 하자고 할 때, 아, 드디어…… 관리과장이 던진 소주 한잔, 그 단어가 가슴에 콕 박혀 나오지 않았다.

“송씨, 미안하네.”

관리과장은 인जू도 없이 연거푸 대여섯 잔을 마셔대더니 혀 꼬부라진 소리로 같은 말을 벌건 닭발 인जू 위에 수북이 올려놓았다. 나는 남은 소주를 병째 입안에 털어 넣고 그를 택시에 태워 보내고 돌아오는 길이

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시간에 내 발은 퐁퐁 불어 구두가 불편해져서 구겨 신고 걸어야했는데…….

물탱크 하나를 청소하는데 두어 시간이 걸린다. 그 두어 시간 동안 어둡고 습한 물탱크 속에 몸을 담그고 있다보면 몸이 퐁퐁 뛴다. 참 이상한 일이다. 물탱크 안에서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안전복을 입어야 한다. 안전복은 두툼하고 질긴 고무 재질로 만들어져서 단 한 방울의 물도 스며들 수가 없는데도 작업을 하는 내 몸속으로 가래 같은 부유물을 품은 물이 서서히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자의 안전과 청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작업복과 안전모를 쓰고, 긴 장화와 장갑을 착용하는 등 안전장비를 갖추어 지하저수조로 들어가야 한다. 저수조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기 전에 수중펌프를 가동하여 배수시킨 후 작업 전 상태를 촬영하는 것은 필수다. 수중 펌프가 돌돌돌 가동되는 사이 두툼한 호수를 타고 빛을 보지 못해 파리해진 물들이 쿨렁 쿨렁 빨려 들어간다. 속속속, 물탱크 바닥에서 마지막까지 버틴 물들이 안간힘으로 바닥을 잡으며 발악하는 소리가 들린다. 바람 빠지는 소리와 함께 고무 호수의 부피가 찌익 하고 쭈그러들면 1단계 작업이 끝난 것이다.

내벽과 바닥에는 물때가 수초처럼 여기 저기 널브러져있다. 나는 디지털 카메라로 꼼꼼히 찍어댄다. 바닥 중앙과 둥글게 둘러진 바닥과 내벽 틈새의 얼룩진 상처, 내벽에 촘촘하게 달라붙은 물때는 얼핏 보면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한 어린수초들이 어미를 찾아 입을 벌리고 기어다는 것 같이 보인다. 나는 이 물때를 제거할 때마다 발뚱을 건너 몰래 꺾어 먹은 유채꽃대의 들큰한 물을 입안에 물고 어머니의 젖내를 맡던 생각이 난다. 초고압 세척기를 이용하여 배관의 오염물질을 제거하지만 벽채와



바닥에 달라붙은 물때는 짓무른 상처처럼 피고름을 흘리고 있는 모습으로 나를 쳐다본다. 나는 철수세미로 있는 힘을 다해 박박 문지른다. 상처를 닦고 난 자리는 뽕뽕하다. 언제 상처가 낫나싶게 뽕뽕하고 하얗게 이를 드러내며 웃는 것 같기도 하다.

흡착펌프를 이용하여 잔류물을 제거 후 맑은 물로 행구는 작업을 2회 반복한다. 수중펌프 및 흡착펌프로 잔류물을 완전히 제거 후 탱크 내부에 있는 기구를 철거하고 나서 사진촬영을 한다. 전 후 사진 안에 감쪽같이 탈바꿈한 두개의 얼굴이 지금까지 내 든든한 밥줄이었다. 밥줄이 끊긴 두어 시간 만에 내 몸은 푸슬푸슬 건조해져 간다는 것을 감지한다.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어느새 나는 봉평동 시장 입구에 와 있다. 시장 뒷골목에 서너 평 남짓한 어머니 가게에서 술내 나는 사내들의 입김이 내가 서있는 가로등 아래까지 밀려온다. 바람이 차다. 나는 발길로 사내들의 입김을 걷어찬다. 힘이 들어간 내 발은 허공에다 바람만 옮겨 놓고 맥없이 툭, 떨어진다. 나는 오래도록 어머니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형광등 불빛에 눈을 박는다. 한패거리의 사내들이 왁자지껄 욕지거리를 하며 빼적이는 미닫이문을 열고 나온다. 그 뒤로 어머니가 사람 좋은 모습으로 연신 굽실거리다 들어간다.

“무슨 일 있었제?”

“아녜요, 일은 무슨…….”

“딴 사람 다 속여도, 내는 못 속이제. 그래 말해보소, 무슨 일이어?”

어머니는 벌어진 꼬막 안에서 작은 살을 발라내어 내 앞에 연신 놓는다. 나는 어머니의 손과 꼬막 살을 번갈아 쳐다보며 술잔을 비운다. 어머니에게서 바닷바람이 밀려온다. 거기 갯벌냄새가 묻어있다. 나는 어머니를 바라보고 씨익 웃는다. 어머니도 그런 나를 보고 웃는다. 어머니가

웃자 어머니의 늘어진 목주름들이 일렁이는 것도 같다.

“싱겁긴. 그래 싱거워서 어디다 쓸까나?”

나는 어머니가 발라놓은 손톱만한 꼬막 살을 입에다 한 움큼 털어 넣고 호호거리며 일어난다. 어머니는 그런 나를 바라보며 내 등 뒤에다 잔뜩 염려의 눈길을 보낸다. 나는 공연히 겸연쩍어 내 등에 달라붙은 어머니의 염려를 후르르 털어내며 미닫이문을 열고 나온다.

“너무 늦게까지 있지 말고 일찍 문 닫으세요.”

“그러. 걱정 말고 먼저 들어가.”

형광등불을 등지고 손을 흔드는 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보며 나오다, 가게 옆에 쌓아놓은 꼬막 껍데기를 발로 건드려 우르르 무너뜨린다. 나는 성스러운 어머니의 패총을 걷어찬 불상놈이 된다. 어머니는 꼬막 껍데기도 예사로 버리지 않는다. 갯벌에서 제명을 다하지 못하고 끌려와 죽어가는 영혼들이 붙어 있다하여 그 쓰레기 더미를 패총이라 부르며 양계장을 하는 큰 형을 위해 모아둔다. 형은 꼬막껍데기를 갈아 사료와 섞어 먹이면 계란 품질이 아주 좋아진다고 한달에 한번 정도 수거차 올라온다. 어머니는 닭들의 먹이가 된 꼬막껍데기는 닭들의 영혼에 깃들어 알을 낳고 그 알은 또 다시 다른 영혼에 깃들어 다시 탄생하는 게 윤회라 하며 무릇 생명 있는 것은 심 없이 나고 죽는 거라고 사는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말을 종종 하곤 했다. 그래서인지 어머니는 누구에게나 일정 양만큼의 사랑을 주는 것처럼 보였다.

내 가슴 안에 담아 둔 어머니는 두 분이다. 광대뼈가 앙상하게 불거진 얼굴에 허연 버짐이 얹혀있던 어머니, 앙상하게 마른 갈비뼈 아래 축 쳐져 가죽만 남은 시꺼먼 젖꼭지를 돌 지난 동생이 빨아대던 모습, 젖이

나오지 않자 울면서 젖꼭지를 물고 쪽 고개를 뒤로 젖히면 맥없이 늘어지던 어머니의 가슴살가죽, 이맛살을 조금 찡그리는 걸로 아프다는 신호를 토해내던 어머니, 그 모습이 내 기억속의 첫 번째 어머니다.

그때 그 어머니는 파리한 얼굴로 간신히 운신하면서도 연년생으로 아이를 낳고 길렀다. 나는 한번도 어머니의 얼굴에서 웃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내가 잠에서 깨어 일어나보면 어머니는 아이를 등에 업고 아침밥을 해서 말없이 우리들에게 밥을 먹였으며 가끔 아버지의 고향과 밭길 질에 맥없이 쓰러져 며칠씩 앓기도 했다. 나는 그런 어머니가 불쌍하다는 생각보다 차라리 어머니가 이 세상에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종종 했다. 어머니는 내게 따듯한 말 한마디, 눈빛 한 번 보내지 않아서 나를 낳은 어머니가 정말 저이 인가 싶기도 했다. 물론 내게만 그러는 건 아니었다. 위의 형이나 누나들, 동생들에게도 마찬가지였지만, 다른 형제들은 어머니가 낳은 자식이고 나는 아니기를 바랐었다.

그런 어머니는 내가 여덟 살 되던 해에 위로 누나 둘과 형, 아래로 동생 둘을 남겨놓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동네사람들은 병에 걸려 외딴섬에 있는 요양원으로 갔다고도 하고 아버지의 매질이 지겨워 도망갔다고도 하고 읍내 선술집 여자를 본 아버지가 어머니를 쫓아냈다고 했다. 어머니에게는 마른장작에서 나는 나무냄새가 났다. 어머니의 몸속에는 물기를 어디론가 흘려보내는 통로가 있는 듯 했다. 어머니가 막내 동생에게 젖을 물리고 옆으로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 마치 마른 나무토막이 조금 남은 물기를 말리려고 열기설기 포개져 있어 나무토막 사이로 바람이 설렁설렁 들락거리는 것처럼 어머니의 몸은 붙어있지 못했다. 두 다리를 포개고 누워있어도 마른 다리사이에는 벌어져 있어서 바람이 들락거렸다. 동생은 그런 어머니의 몸에 남아 있는 몇 방울의 물마저 빨아내려

고 안간힘으로 젖을 빨아댔다. 어쩌면 어머니는 당신의 몸에 남아 있는 몇 방울의 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라졌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발독길 옆으로 노란 꽃을 이고 있는 유채꽃 대궁이 햇살이 가려운지 연신 고개를 이리저리 뒤편었다. 그때마다 바람에 일렁이며 코끝으로 다가오는 들큰한 향이 내 손을 유혹했다. 얼른 투두둑 몇 개를 꺾어 달음 박치며 입안에 넣고 씹었다. 이사이로 사각거리며 씹히다 꿀꺽, 넘어가는 그 소리에 느닷없이 속올음이 올라왔다. 있는 듯 없는 듯 곁에 있을 땐 몰랐던 어머니의 냄새가 여기저기서 불쑥거리며 튀어나오는 까닭이 무엇인지, 그때도 지금도 알 수가 없다. 어머니의 젖 맛이 유채꽃대를 씹어 입안에 고인 들큰한 맛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시무룩해져서 발에 걸리는 잔돌도 차고 맥없이 책가방도 돌리면서 마당으로 들어섰다.

근 한 시간가량 걸어 집으로 오면서 느끼지 못했던 햇살이 마당 가득 들어차 있었다. 내가 막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마루 끝에서 햇살가루가 화르르 나는 것을 분명 보았다. 아니 내가 아니라 그 여자, 햇살가루보다 더 눈부신 그 여자가 활짝 웃으며 이제 오니? 하는 소리에 날았는지도 모르겠다. 그 여자의 하얀 블라우스 단추가 몇 개 풀어져있고 시장입구 빵집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찐빵보다 더 하얗고 몽실한 젖가슴이 동생의 뒤통수에 가려진채 얼핏 얼핏 보였다. 동생은 그 여자의 가슴에 바짝 붙어서 새근대며 자고 있었다. 마루 끝에 앉아있던 햇살가루가 흩어지면서 내 눈을 찔렀는지 갑자기 눈앞이 하얘졌다.

내 몸이 곳곳하게 굳어지고 있었다. 발에 땀이 나서 고무신 바닥이 미끈땀거렸다. 이대로 조금만 더 서 있다가는 오줌이라도 쌀 것 같은 불안감이 밀려왔다.

그 여자가 우리 집에 오고부터 우리 가족들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가족들뿐 아니라 집안 곳곳이 변하기 시작했다. 참 이상한 일이었다. 어머니가 했던 것처럼 그 여지도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를 업고 밥을 해서 우리를 먹여 학교에 보냈고, 학교에서 돌아오는 우리에게 어머니가 했던 것처럼 따뜻한 밥을 먹이고 밤늦도록 우리 형제들의 해진 양 말도 킁고, 잠든 동생의 사타구니를 만지며 기저귀 가는 일도 같은데 그 여자가 오고부터 우리 집안에 알 수 없는 물기가 베어난다는 것을 나도, 누나들도, 형들도 알고 있었다. 단 누구도 그걸 말로 뱉어내지 못했을 뿐이었다. 어머니와 그 여자가 다른 것은 어머니는 무엇이든지 말없이 했는데 그 여자는 무슨 일을 할 때는 꼭 말과 함께 했다. 내가 땃국을 묻히고 벌정계 달아오른 머리를 대문에 들이밀고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그 여자는 우리 현우 이제 오는구나. 덩지? 밥 먹기 전에 시원한 물로 씻자? 물론 그 여자가 씻자? 해놓고 나를 씻겨 주지는 않는다. 씻는 건 내 몫이다. 그럼에도 나는 그 여자의 그 한마디로 물오른 버들강아지가 봄별을 받고 오색무지개 색깔을 지닌 솜털을 만들어 털 듯 황홀한 떨림으로 그 여자의 말에 고분고분해지곤 했다. 어머니는 약한 몸으로 힘들어하면서 가족들에게 늘 헌신적이었다. 무엇하나 우리에게 시키는 일도 없이 혼자 다 해냈다. 또한 아버지의 이유 없는 질타나 폭력도 말없이 다 받아들였다. 그런 어머니에게 한번도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어머니는 추운 겨울 가족들을 위해 아궁이에 집힐 마른 장작이었다. 미리 준비된, 늘 그 자리에 쌓여 있는.

우리 중 가장 먼저 그 여자 안으로 들어간 건 돌 지난 막내였다. 어머니의 마른 살가죽에 붙은 젖꼭지를 물고 빨던 막내가 큰누나가 밥을 삶



아 으깬 죽을 먹으며 가장 많이 어머니를 찾으며 보냈다. 우리 중 누구도 어머니의 부재에 대해서 먼저 입을 열지 않았지만 막내는 꽤 오랫동안 잠결에도 어머니를 찾으며 칭얼거렸다. 그러던 녀석을 그 여자는 찢빵처럼 부풀은 젖가슴으로 막내를 끌어안았다. 막내는 밤마다 그 여자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잠들었다.

그 여자는 열일곱 살 큰 누나를 두 번째로 자기 안으로 끌어들었다. 동생들 치다꺼리와 집안일에 찌든 큰 누나는 엄마와 닮은 부분이 있었다. 아침부터 부지런히 허리를 굽히고 집안을 쓸고 닦았지만 자기를 다듬는 데는 인색해서 한참 피어오를 나이임에도 검불 같은 머리에다 짙은 허리에 두른 치마는 늘 앞과 뒤가 바뀌어 있는 일이 예사였다. 그런 누나에게 그 여자는 물을 데워 대야에 가득 붓고 나서 누나의 긴 머리를 담기놓고 참빗으로 오래 오래 빗겨 내렸다. 누나의 머리에 숨어든 머릿니와 서캐가 하얗게 물위로 떠올랐다. 그리고는 무명수건에 물을 묻혀 누나의 목덜미를 오래 오래 닦아주었다. 곱구나. 우리 희아는 뒷목이 참 곱구나. 여자는 앞 보다 뒤탄가 아름다워야 한단다. 그 여자의 입에서 아카시아 꽃잎을 씹을 때 터지는 꿀물 같은 달큰한 향내가 누나를 거쳐 내게까지도 왔다. 누나의 뒷목이 발강게 익어갔다. 나는 그때 그 여자가 누나에게 꿈을 심어주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 여자는 철쭉꽃 같은 진한 분홍 꽃잎이 자잘하게 박힌 곱고 야들한 자신의 한복 치마로 누나의 원피스를 만들어 입혔다. 허리는 잘록하고 아래는 항아리처럼 둥글고 풍성하며 누나의 가는 어깨를 가릴 만큼 뽕을 넣어서 어깨부위를 부풀렸다. 원피스를 입은 누나는 마치 한 마리 나비 같았다. 나와 내 위의 형들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 여자는 원피스를 입은 누나를 앞뒤로 돌려가며 우리 희아 참 곱구나. 여자란 말이다. 자신을 가꾸어야

한단다. 그래야 남들에게도 대우받고 살수 있지. 우리 희야는 이답에 아주 고귀한 부인이 되겠구나. 누나는 그 여자의 그 한마디로 단박에 표정이 바뀌었다. 어머니를 닮아 여간해서 웃지 않던 누나는 아주 그윽한 눈으로 우리를 휘 돌아보더니 빙긋 웃었다. 누나 다음 그 여자 안으로 숨어들은 사람은 아버지였다. 어머니가 차려 준 밥상에서 아버지는 늘 벌레 씹은 표정으로 젓가락을 상에 탁탁 쳐가며 반찬 투정을 했었다. 그런 아버지를 어머니는 당연하게 여겼다. 한번도 표정이 바뀌거나 싫은 내색을 하는 걸 보지 못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달랐다. 아버지가 먼저 반찬 투정을 하게 두지 않았다. 희야 아버지 입맛에 맞을라나 몰라요. 아유, 내 입에는 좀 싱거운 것도 같고……. 그러면 아버지는 정말 그런 건지 어쩐 건지는 몰라도 괜찮구먼. 하고 그 여자의 단내 나는 입술에서 나오는 시근시근한 몇 마디 말에 감지덕지해 했다.

가족들이 하나씩 그 여자에게로 숨어드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불현듯 어머니가 보고 싶어지곤 했다. 그것이 그리움인지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 인지는 몰라도 하루에도 몇 번씩 어머니를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그 여자가 환하게 웃으며 우리 현우가, 하는 말에 내 마음속 어머니 자리에 그 여자를 서슴없이 올려놓았다. 그리고 나면 나는 또 며칠씩 어머니에게 죄책감을 가졌다. 다른 형제들은 그 여자를 보고 어머니, 어머니 했어도 나는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래야만 될 것 같았다. 어머니의 마른장작 같은 몸에 남은 몇 방울의 물이 내가 그 여자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순간 증발할 것 같아서였다. 그러면 어머니는, 물기 하나 없는 당신의 몸에 성냥을 그어 대서 활활 타 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었었다. 그렇게 되면 어머니는 영영 우리에게 돌아오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랬는지도 모른다. 그런 내 마음을 그 여자는

슬쩍 들쳐보고는 환하게 웃었다. 우리 현우가 요즘 기운이 없어 보이는구나. 한참 클 나이에 먹는 게 부실하니 그렇지. 자 밥 위에 새벽에 난 달걀 하나 찢단다. 이거 먹고 가렴. 그리고 기운 내. 책가방을 메고 나오는 내 손에 따듯한 계란 한 알을 쥐어주는 그 여자의 손이 계란 보다 더 따듯했다. 나는 학교에 도착할 때까지 계란을 먹을 수 없었다. 그 여자의 체온이 남아 있는 계란을 먹는다는 건 어쩐지 그 여자에게 못할 짓을 하는 것만 같았다.

그 날 이후 내 오른손에는 미열이 나곤 했었다. 밥상 앞에서 그 여자의 시선이 느껴질 때 손가락을 든 오른손에 열이 나면서 떨려서 손가락질을 할 수 없었다. 떨림이 시작되면 얼른 왼손으로 손가락을 옮겨 놓고 떨림이 있는 오른손을 허벅지 아래로 감추고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가족들은 이런 나를 보고 염려의 눈길을 보냈다. 어머니의 부재와 새 어머니의 출현에 의한 충격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하는 눈치였다.

나는 밤마다 그 여자의 꿈을 꾸었다. 찐빵보다 하얗고 통통한 그 여자의 가슴위로 누나의 원피스에 그려진 자갈한 꽃잎들이 나풀거리며 날아와 앉거나, 누나가 향아리 원피스를 입고 빙글빙글 돌면 누나의 원피스에 있던 꽃잎들이 그 여자의 머리위로 쏟아지는 꿈을 꾸었다. 나는 꿈을 꾸고 난 다음날은 그 여자를 차마 쳐다볼 수가 없었다. 그때 그 여자는 현실에서의 새 어머니라기보다 밤마다 꿈을 꾸게 하는 여자였다.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도,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도 나는 눈을 감고 꿈속에서 보았던 그 여자를 그려보곤 했다. 그렇게 그 여자를 그리다보면 어느새 집에 도착했다. 현우 이제 오니? 그 여자의 목소리에 화들짝 놀란 나는 꿈속의 그 여자를 가슴에서 내 발등위로 툭 떨어뜨렸다. 그 여자가 불세라 후다닥 방으로 뛰어 들어간 나는 무릎을 얼굴에 묻고 어둠이 깃들

때까지 오래 앉아 있다 잠이 들었다.

그 여자의 시선과 그 여자의 손길이 느껴질 때마다 미열이 오르던 나는 어느 것에도 집중할 수가 없었다. 어머니의 마른 장작 같은 몸과 표정이 싫어 차라리 내 어머니가 아니길 바랐던 나는 점점 어머니를 닮아 갔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더욱 그리워졌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틈새로 그 여자가 불쑥 불쑥 들어와서 나를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그 여자에게 느껴지는 감정을 당시 어린 나는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감정을 누구에게도 보여주거나 빼앗기고 싶지는 않았다. 중학교 입학하면서 삼년동안 입으라고 팔을 뚫은 듯이 만 큼 크게 맞춘 교복이 삼학년 가을학기 때 즈음에는 꺾충하게 올라가 있었다. 키도 그 여자보다 한 뼘이나 컸었다. 그 무렵이야 나는 그 여자에 대한 내 느낌들이 꿈에라도 가져서는 안 될 것이라는 걸 알았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연립주택 계단을 밟고 올라오는 어머니의 무거운 발소리가 들린다. 나는 하나 둘 셋……. 어머니가 현관문에 키를 꼽는 시간을 쟀다. 어머니는 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 치의 오차 없이 키를 꼽고 조심스럽게 문을 연다. 내가 일터에서 해고된 걸 모르는 어머니는 일찍 출근하는 내 선잠을 깨우지 않기 위해 숨소리마저 죽이면서 당신 방문을 열고 들어간다. 나는 내 방에서 눈을 감고도 어머니를 다 볼 수 있다. 어머니는 양말을 벗고 피로로 두터워진 몸을 이불로 덮는다. 물소리가 나면 내 잠을 깨울까봐 어머니의 씻지 않은 발이 묻혀온 봉평동 시장 통의 짙은 냄새가 이불에 배어 있다. 나는 가끔 어머니의 방문을 열고 어머니가 묻혀 온 냄새를 맡는다. 어린 시절 일요일만 되면 어머니는 부지런히 집안일을 챙기고 나서 어딘가를 갔다가 저녁 늦게야 돌아

왔다. 그런 어머니 몸에서는 어린아이 몸에서 나는 비릿한 젖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 나는 그때 어머니가 어디를 다녀오는 걸까 하고 머릿속으로 그려보았다. 눈을 감고 내방에서도 어머니의 움직임이 보이는 지금은 어머니가 언제까지고 내가 그려낼 수 있는 분이지만 그때는 아침에 나간 어머니가 신기루처럼 사라질 것 같아 불안했다. 그러면서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오는 어머니는 산다는 건 먹고 입고 자는 것 말고 무한한 꿈을 꾸는 것이라는 걸 알려준 여자였고 내가 오래도록 감추어둔 그리움을 밖으로 내놓게 한 여자였다.

바람이 몹시 불던 일요일, 마당가에 감나무 잎이 바람 따라 우루루 물러다녔다. 평소보다 일찍 집안 밖을 쓸고 닦던 그 여자는 평소와는 다른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현우야, 오늘 다녀올 곳이 있으니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을래?”

그 여자는 한 뼘이나 더 큰 내 어깨를 툭툭 쳤다. 나는 그 여자의 손길을 어깨에 얹은 채 다가올 미지의 여행지에 대한 궁금증이 일었다. 그 여자와 기차를 타고 버스를 갈아타고 걸어 들어간 곳은 관성 기도원이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곳은 알콜 중독자, 치매 노인, 정신 질환자가 수용된 곳이었다. 그 여자는 사무실에 들어서자 늘 해오던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면회신청서를 쓰고 신분증과 함께 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직원은 나를 위 아래로 훑어보며 누구? 하며 그 여자에게 물었다. 더 간섭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어조로 그 여자는 우리 아들이요, 하고 딱 잘라 말했다. 그 남자는 기다리시우, 하고 그 여자를 흉내 내 듯 말끝을 잘랐다. 한 삼십 여분의 시간이 지났다. 사무실 문을 열고 그 남자 뒤로 초췌한 여인이 우리를 멀뚱거리고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 여인과 눈이

마주쳤다. 그 여인의 눈은 물기가 말라 눈동자를 움직일 때마다 바스락 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나는 그 여자가 마루 끝에 앉아 막내에게 뽀얀 젖을 물린 모습을 처음 보았을 때처럼 오줌을 쌀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내 어머니가 아니기를 바랐던 그 어머니, 그 여자를 통해서 그리워했던 바로 그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내 눈을 비껴 그 여자에게 시선이 머물더니 울먹울먹 거렸다.

“어무이, 왜 인자 왔어. 나 사탕 먹고 싶었는데…….”

“어이구, 우리 이쁜 애기 사탕 여기 사왔지”

그 여자는 어머니 엉덩이를 툭툭 치며 가방에서 알사탕 봉지를 꺼내 어머니에게 안겼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한번도 보여주지 않던 환한 웃음을 그 여자 앞에서 천연덕스럽게 웃어보였다. 그 여자는 어머니의 머리를 연신 쓰다듬으며 우리 이쁜 애기, 우리 이쁜 애기 하며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우쭐한 표정으로 흐흐거리며 사탕을 물고 웃었고 누런 이 사이로 침이 흘러내렸다. 나는 어머니가 흘린 침 위에다 그 동안 내가 가졌던 그 여자에 대한 감정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몽땅 토해내고 말았다. 내 일그러진 표정을 보고 어머니는 저 바보, 저 바보 하며 손가락질을 해댔다. 그 여자는 어머니의 뺨만 앙상하게 남은 손을 내 손 위에 포개 엮었다. 여기, 이 잘 생긴 학생이 우리 이쁜 애기가 낳고 내가 기른 아들이라우. 자 한번 만져 봐요. 그 여자는 어머니의 손을 내 뺨에 갖다 대었다. 차고 미끈뚱한 감촉이 뺨을 타고 내려갔다. 나는 움찔 머리를 젖혀 어머니의 손을 피했다. 어머니는 그 여자를 바라보면서 연신 흐흐 거렸다. 어머니의 입가에서 흘러내린 침이 어머니의 무릎위로 떨어졌다. 그 여자는 자기의 옷소매로 어머니의 침을 닦아주었다. 어머니는 그 여자의 품으로 파고들며 어무이, 어무이 하며 응석을 부렸다.

나는 어머니가 흘리는 침을 보면서 아직 어머니의 몸에는 물기가 남아 있어 마른 장작처럼 어느 날 훌훌 타버리지는 않을 것이라라는 안도감을 가졌다. 그러면서도 내 뺨에 닿은 차고 미끈뚱한 어머니의 손길이 싫었다.

돌아오는 기차에서 그 여자는 내 어깨를 감싸 안아주었다.

“우리 현우, 많이 속상하지?”

“.....”

“그동안 왜 얘기 안 해주었냐고 따지고 싶지?”

“.....”

“현우야. 현우 어머니가 내 마음안의 어머니이기도 하단다. 한 달에 한 번 어머니를 보러가면서 내 마음 안에 현우 어머니를 담았어. 젓먹이 때 돌아가신 내 어머니 자리에. 이해 안 되지?”

“.....”

“현우가 이답에 어른이 되면 내 맘을 조금은 이해할라나? 지금은 내가 밍기만 할 거야. 왜 현우만 어머니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하니?”

“.....”

“다른 형제들은 어머니를 어느 정도 잊은 것 같은데 현우만 유독 어머니를 몹시 그리워하는 것 같아서. 어머니를 보고나면 마음 아프겠지만 그래도 그리움을 오래 가슴에 묻어두는 것 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은데..... 현우 생각은 어떠니?”

“저는 차라리 안 왔으면 좋을 뻔 했어요.”

“그래, 네 마음 이해하지. 그러나 현우야. 어머니의 아기처럼 천진스런 모습 보았지? 몸은 늙었지만 마음은 점점 어린아이로 돌아간다는 거, 행복해지시는 거야. 아마도 지금이 어머니는 제일 행복하실 거야.”

나는 그때, 그 여자의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어머니가 그때가 제일 행복한 시절이라는 것도, 그 여자 가슴 속 자기 어머니 자리에 우리 어머니를 담아둔다고 하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날 이후 나는 그 여자가 어머니를 면회하러 갈 때 따라가지 않았다. 대신 그 여자를 어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 여자는 그런 나를 충분히 이해한다는 눈길을 보냈다. 그러나 그 여자를 어머니라고 부른다고 내 어머니를 잊을 수는 없었다. 그 여자는 기대고 싶은 어머니였고 내 어머니는 가슴에 넣어두고 싶은 어머니였다. 그래서인지 나는 지금도 그 여자, 새 어머니에게 항상 빚을 지고 산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오늘 새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에게 가는 날이다. 어머니는 처음 기도원에서 본 모습 그대로 더 늙지 않은 상태로 여전히 아이처럼 천진한 얼굴로 우리를 맞는다. 어머니는 새어머니를 보자마자 손부터 내밀며 사탕, 사탕하며 누런 이를 드러내고 웃는다. 어머니는 가방에서 커다란 알사탕 봉지를 꺼내 어머니 가슴에 안겨주면서 우리 아기 잘 있었어요? 아이고 이를 어째. 지난번보다 더 이빠졌네. 하며 어머니 엉덩이를 연신 두드린다. 어머니는 입안에 사탕 두 알을 넣고 흐흐거리며 침을 흘리는 데 사탕을 감싼 불이 금방 비어져 나올 것처럼 위태로워 보인다. 새 어머니는 당신의 소매 끝으로 어머니의 침을 닦아준다. 어머니는 어무이 하면서 새 어머니 어깨를 잡고 업어달라는 시늉을 한다. 아이고, 우리 이쁜 애기 업어달라고요? 그럴까? 아니지, 저기 잘생긴 우리 아들에게 업어달라고 할까요? 어머니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다 울먹거린다. 새 어머니는 그런 어머니를 보듬어 안으며 저 잘생긴 아들은 우리 이쁜 애기가 낳고 내가 키운 우리 아들이네요. 하며 어머니의 머리를 가슴에 얹



는다. 새 어머니의 가슴은 이제 뽕얇고 통통하지는 않지만 무엇이든 다 안을 수 있을 것처럼 커 보인다. 나는 울적 사춘기 시절 가졌던 새 어머니에 대한 감정과 뒤섞였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올라오는 것을 침으로 넘기고 밖으로 나가려다 뒤돌아본다. 어머니는 나를 보고 히 웃으며 침 묻은 손으로 사탕을 하나 내민다.

“너, 먹어.”

“..... 어머니!”

“너, 이빠. 또, 와?”

나는 와락 어머니 품으로 파고든다. 어머니는 그런 내 등을 토닥여준다. 어머니 어깨에 머리를 묻고 나는 흐느낀다. 마음속에 켜켜이 쌓아둔 설움이 붓물처럼 터져 나온다. 나는 평평 운다.

“우지마.”

“어머니!”

어머니 어깨에서 조르르 시냇물 소리가 들린다. 어머니는 이곳에서 우리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 몸 안에 시냇물을 만들어 놓았나보다. 나는 안심이 된다. 이제 어머니는 훌훌 타버리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 물탱크 안에서 일을 할 때마다 이해되지 않을 만큼 내 몸이 부었던 것은 마른 장작으로 타버리고 말 것 같은 어머니를 향한 마음을 붙들지 못해서 그랬던 것 같다.

어머니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고 있는 내 어깨에 새어머니가 얼굴을 비빈다.

“현우야! 어머니가 이곳으로 오시게 된 건 내 탓이기도 하단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하기 이전부터 아버지와 나는 사랑하는 사이였어.”

“.....”

“부모님의 반대로 우리는 결혼할 수 없었고, 그런 아버지는 현우 어머니를 학대하는 걸로 화풀이를 하면서 사셨지. 어머니는 화풀이를 당하면서 자신 안에 있는 화는 안으로만 쌓아두다 보니 이렇게 되신 것 같구나.”

“.....”

“어머니는 그 모든 것에서 도망치고 싶으셨던 것 같구나. 그러니 이리도 천진한 아기가 되셨지.”

“어머니.....”

나는 어머니의 어깨를 안았다. 어머니의 어깨는 조금만 힘을 주어도 부서질 만큼 가냘팠다.

“아, 아프다. 너, 또, 왜? 응?”

“네. 또 올게요. 꼭 올게요.”

“히, 너 이빠. 어무이 이빠. 사탕 마디짜.”

새 어머니는 내 머리를 들어 눈물범벅이 된 내 얼굴을 닦아준다.

나는 통통 붉은 눈으로 새 어머니를 쳐다본다. 고개를 끄덕이며 웃는 새어머니 뒤로 저녁노을이 붉게 익어간다. 우리 셋 중 누가 누구의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장려상

# 임플란트

강원장은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길을 걷다 넘어졌다. 휘청  
거리는 두 다리와 함께 넘어진 강원장은 자신의 **삶의**  
**무게**와 함께 넘어진 듯 했다.  
두 가지 형상이 **오버 랩 되는 찰라**를 나는 볼 수 있  
었고 그가 외로워 보였다.

—본문중에서—

강원도 태백시  
김은주



## 임플란트

수산나는 강원장의 실종에 대해 나를 다그쳤다. 나는 어느 날 갑자기 실종된 사람을 찾기 위해 브리핑을 받는 기분이 들었으며 신고를 해야 하는 걸까 망설였다. 강 원장 핸드폰 번호를 눌렀다.

‘전원이 꺼져있습니다. 메시지를 남기려면 1번을 눌러주세요’

남길 메시지가 퍼뜩 떠오르지 않았다.

‘어디계세요. 언제쯤 돌아오실 건가요. 병원은 어떻게 할까요.’

나는 실어증 환자라도 된 듯 입안에서 맴도는 말들을 꿀떡 꿀떡 삼킬 뿐 아무 말도 남길 수 없었다.

예약된 오후 환자는 취소하면 되고 당분간 원장님 세미나 참석관계로 병원 진료를 할 수 없다고 안내문을 붙이면 되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면 될 것이지만, 강원장이 사라졌다는데도 꿈쩍하지 않는 부인의 반응은 강원장이 사라진 이유를 알고 있다는 것인지, 영원히 사라져도 무방하다는 것인지 정수리까지 달아오른 조급함에 시달리는 나와 수산나를 애꿎게 했다. 나는 서둘러 수산나와 함께 뒤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

‘원장님 세미나 참석관계로 일주일간 휴진합니다. 강 치과의원’

나는 안내문을 부랴부랴 붙였다.

진료실에는 조금 전까지 강원장이 진료하고 있었다. 유니트체어 주변에는 탕글탱글한 물방울이 짙 퍼져 있었다. 살리베이션 환자를 치료하다

뿌려진 물이었다. 세 평 정도 되는 진료실 안에는 두 개의 유니트체어와 두 개의 진료의자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두 사람이 지나칠 때마다 한 뼘 공간이 겨우 만들어졌다. 자연히 운신의 폭은 좁았고 동선은 짧아야 했으며 케리어는 늘 천덕꾸러기였다. 케리어 안에는 미러와 코드 핀셋, 시린지와 발치포셋이 X자로 포개져 있고 다른 외과용 기구들은 횡렬자 세로 정렬되었다.

나는 수산나를 도왔다. 멸균기안으로 외과기구들을 집어넣었고 알콜 솜이 담긴 은회색 스텐레스 통 뚜껑을 닫았다. 바닥에 떨어진 일회용 에이프룬은 쓰레기통에 던졌다. 유니트체어에 흩어진 탱글탱글한 물방울을 싹 닦아낸 후 라이트를 위쪽으로 끌어 올렸다. 수산나는 차트 박스가 있는 수납데스크 쪽으로 몸을 돌렸다. 하루 중 허리가 잘려 버린 오후 진료 예약 환자들 차트를 생년월일별로 분류했다. 분류 후 기록 차트를 제 자리에 꽂고서야 체조선수처럼 가슴을 펴고 두 팔을 쭉 뻗었고, 발꿈치를 들고 허리를 꼿꼿이 폈다.

내가 데스크로 향할 때 크리스찬인 수산나는 얼굴에 십자기를 그었다. 나는 출입문에 붙인 휴진 안내문을 보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아래층으로 걸어내려 가는 소리를 듣자니 가슴속이 헛헛해졌다.

강원장이 사라진 병원은 미로에 갇힌 듯 어수선했다. 누가 먼저 말을 꺼낼까 싶어 오히려 숨죽여야했다.

“스케일링 예약 환자라도 받을 걸 그랬나요?”

어수선했던 분위기 반전을 노렸다기보다 예약 환자들에게 세미나 핑계를 댄 것이 못 마땅한 수산나는 예상대로 이유도 모른 채 허리가 잘린 하루 일과로 안달복달했다.

성녀 수산나가 되고자 열망하는 그녀였기에 자신이 모르는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만조 때 밀물처럼 쏟아졌을 것이다. 수산나는 쉽사리 병원을 나서지 못했다. 하루의 마침표를 상징하는 성호까지 그었는데 데스크 정면 대기실 안에서 줄곧 서성거렸다. 그것도 두 팔짱을 낀 채로. 나는 가뜩이나 원장 부인이 차려 준 점심을 먹고 소화 안 되었는지 속이 더부룩했고, 부글부글 끓이기까지 했는데 수산나가 좀처럼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 때문에 명치끝까지 뼈근해졌다.

대기실 안쪽 그러니까 데스크 맞은 편 왼쪽 창가 아래에는 바다 빛 아쿠아리움이 있었다. 아쿠아리움 물고기들까지 그녀처럼 왔다 갔다 했다.

“아무래도 이상해. 점심 먹을 때 분위기가 싸했잖아. 나만 그렇게 느낀 것은 아니겠죠? 지연씨!”

하얀 쌀알보다 누런 현미밥알이 더 많은 밥, 양배추찜과 생선조림, 김치와 계란말이, 황태를 부드럽게 찜어 콩나물과 함께 끓인 황태국. 여느 때와 별다르지 않는 평범한 점심식사였다.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두 사람만 제외한다면, 고개를 숙인 채 식사에만 열중하던 강원장과 부인 사이에는 더 이상 당길 수 없는 팽팽한 고무줄이 이어져 있었다. 둔중한 칼끝일지언정 살짝 올려놓기만 해도 툭하고 끊어질 듯 아슬아슬했다.

유괴된 아이가 죽은 의사체로 저수지에서 발견되었다는 것, 아파트 경비 실 앞에 주차하려는 남자와 시비 끝에 경비원을 살인하고 자신도 자살했다는 것, 수도권 지역의 과열된 부동산 투기를 잡기 시작하자 전셋값이 오르고 있다는 것, 하다못해 어느 유명 연예인의 이혼소식이라도 화제에 올려 분위기 반전을 모색해보려 했으나 눈치가 몽치일 것 같았다.

나는 시선을 어디에다 고정시켜야 될 지 어리둥절해 하다가 손가락을

땅바닥에 떨어뜨리기까지 했다. 더군다나 다섯 살 된 다솜이는 어디로 보냈는지 보이지 않았다. 더욱 난처했던 건 강원장과 부인이 몇 순가락 뜨지 않고 각각 식탁 의자에서 일어나 강원장은 밖으로 부인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남겨진 수산나와 나도 덩달아 입맛이 떨어진 사람이 되어 병원으로 나와야 했다. 수산나의 말대로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인 건 분명했다.

참을함, 미움, 분노, 냉정함, 슬픔, 사람이 살아가면서 오래 견디기 힘든 감정의 실타래가 엉켜져 있었다고 할까, 그런 감정만을 읽어낼 수 있는 더듬이가 발작하듯 살아났다. 그건 평탄하지 못한 깊은 굴곡을 겪었고 그래서 발효된 불편한 감정의 울타리에 갇혀 살아 온 시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럴 때마다 불쑥불쑥 삶은 결코 아름답지 않다는 비아냥이 콧바람을 타고 흘러나왔다. 잊혀지는 상처가 어디 있을까. 맹독성이 강한 화학물질처럼 뇌 속에서 이따금씩 때론 오래도록 화학반응을 일으키곤 했다.

처방은 별다른 것이 없다고 엄마는 내게 말했다. 좋은 처방은 흐르는 시간에 맡길 뿐이라고 했다. 그건 어쩌면 맞는 말이기도 했다. 시간이 흐르면 어느 정도 상처는 마모되니까. 지극히 편리한 논리였다. 내겐 그 논리가 오히려 형벌처럼 지독하게 다가왔다. 한 남자를 기억하게 될 때마다 내겐 마모되는 시간이란 말장난 같았다. 한 남자가 지독히도 아름답지 않은 나날, 씹쓸한 나의 삶의 주변을 여전히 배회하고 있었다.

남자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전공의를 탄 후 군 면제를 받기 위해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는 산재병원에 근무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그 병원 원무과에서 일했다. 한해의 마지막을 장식하기 위해 원우회에서 연말 망

년회를 가졌다. 그날 초대되어 온 그 남자를 처음 보았다. 일본에서 건너 온 짧은 사키 커트 머리를 하고 있었다. 세련되고 깔끔한 인상이었으나 유난히 굵은 입술라인과 사각의 턱 선이 남다르게 강한 이미지를 느끼게 했다.

자정에 가까워지며 3초 2초 1초 자정을 넘기며 1초 2초 3초, 시간이란 실체가 초극세사 올이 풀리 듯 슬렁슬렁 기분을 묘하게 휘어잡는 짧은 순간, 새해는 열렸고 집단 무의식의 세계에서 촉발하는 광기처럼 무수한 폭죽과 삼페인이 구석구석에서 요란하게 터졌다. 맥주잔이 손에서 손으로 릴레이 되었다. 건강을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부딪히는 술잔 소리와 함께 늘 똑같은 한해 마무리 멘트까지 완벽하게 재현되었다.

누군가 달콤한 연애여 영원하라! 라며 소리치는 바람에 한바탕 폭탄 웃음도 휩쓸고 지나갔다. 수많은 알전구를 뒤집어 쓴 트리를 중심으로 술잔은 탑돌이 하 듯 돌아갔다. 술잔 돌리기 메인이 초대되어 온 공중보건의 차례가 되었다. 돌아가는 술잔을 일일이 다 받아 마시는 것이 무리였기에 대작은 선택이었다. 나의 순서가 되었을 땐 술잔받기를 거절했다. 남자가 내 앞에 왔고 건너뛰기를 바란다는 눈인사를 했다. 옆자리로 이동해야 할 남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뒤 따라 오던 산부인과 공중의가 길이 막힌 꼴이 되었다. 줄지에 술 행렬이 멈춰졌고 칸막이를 없애고 원무과 옆 약국까지 터놓은 넓은 공간에는 소몰이 할 때나 들음직한 야성적인 인후음으로 가득했다.

남자는 나에게 잔을 다시 돌려받고 싶다고 했다. 술 행렬이 멈춰진 지점으로 시선집중 되었고, 마치 장대비에 젖어드는 바짓단처럼 순식간에 커플예감이란 환경설정이 끝나 버렸다. 그때 남자는 강렬했었다. 무엇이



있을까. 우우우하며 인후음이 계속 울려 나오는 가운데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뚫어지게 나를 바라보던 눈빛 그리고 뜨거움. 남자는 그때 나를 제압했다. 살포시 눈을 내리깔고 제대로 시선을 마주하지 못하던 나의 얼굴은 이미 팔월 땡볕에 무르익은 석류 빛 이었다.

그 해 마지막은 그 남자에게 아찔하게 사로잡혀 있었다. 남자의 품에 안겨 가볍고 단순한 연애를 원한다는 것을 철없이 부정만 했다. 예상치 않았던 임신. 곧 결혼할 한 쌍의 병원커플. 의사 신랑감을 차지한 운 좋은 아가씨. 남자와 결혼해야 하는 이유를 나열해 보면 제일 먼저 떠올리며 내게 따라다니는 수식어였다.

나의 꼬리표는 남자를 붙잡을 명분으로 약했고 남자는 남자가 하고 싶은 대로 군복무 기간이 끝난 후 병원을 떠났다. 남자를 찾아가 구걸하듯 애원하던 엄마. 술을 마신 채 남자의 숙소를 찾아가 남자를 위협하던 오빠. 딸의 구차한 청춘을 하늘에서 바라보고 있을 아버지. 스물여섯이었던 그해 겨울은 매서운 칼끝 바람만이 몰아쳤다.

따뜻한 봄이 오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고 우긴 탓일까 남자와 나는 결혼을 했다. 남자의 어머니가 요구하는 만큼 예단을 준비하지 못한 채였고, 상대적으로 궁핍한 집안 형편을 또렷이 드러내 보이며 시집온 여자의 결혼 생활이 시작 되었다. 지옥 속 불구덩이에 빠져 든 시간이었다.

남자의 폭행을 한때는 이해했다. 남자는 어머니와 나 사이에서 번민해 아하는 운명을 거부하고 싶었을 테니까. 뺨때리기에서 언더 훅, 언더 훅에서 발길질, 발길질에서 집어 던지기. 남자는 점점 승리에 목말라하는 K1 선수로 변모해 갔다. 남자는 나를 학대하는 행위 속에서 자신의 정당성을 찾지 못했는지 시어머니에게 반발하기 시작했다.

의사로 키운 아들의 반항을 받아들이 수 없는 시어머니의 분노는 곧

장 머느리인 내게 돌아왔다. 거침없이 쏟아져 나오는 말은 독침이었다. 가진 게 없으면 많이 배우기라도 하던가, 많이 배우지 못했으면 가진 게 많던 가, 그것도 아니면 가진 재주라도 있던가, 반반한 얼굴 하나 가지고 내 아들을 꼬시어 의사 사모님 행사 하려드는 너를 보기만 해도 울화가 치밀어. 백 년 동안 토해도 다 토해내지 못할 만큼 구역 질 나네. 편모슬하에 술주정뱅이 폭력 배 오빠에다가 그 어미의 그 딸년이라고 살며시 눈을 내리깔고 사람 속을 확 뒤집어 놓는 재주는 똑같더군.

독침은 나의 심장으로 꽂히지 못하고 눈동자에 꽂혀 구멍을 내어버렸는지 눈물은 대책 없이 흘러 내렸다. 눈물은 증오를 더욱 생생하게 느끼게 해주는 감정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어머니의 독침 탓에 알게 되었다.

그 어미의 그 딸년, 간암 선고 후 한달도 채 숨이 붙어 있지 못하고 생의 끈을 놓아버린 아버지 때문일까 의사인 남자가 탐났다. 엄마도 그랬을 거였다. 엄마가 남자에게 애원하며 딸과 결혼해달라고 사정한 건 그래서 일지 몰랐다.

시어머니의 독침은 제대로 날린 것이 되었다.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일 뿐, 남자의 여자는 나라는 사실을 외치고 싶었다. 시어머니가 독침을 제대로 날렸겠지만 매우 건강하고 정상적인 심장 펌프질로 솟구치는 혈류에 휩쓸려 똥이나 오줌으로 배출되었다. 남자의 여자는 언제까지나 나일 뿐이라며 이를 악물었다.

‘스케일링 예약 환자만 받습니다. 진료는 원장님 세미나 참석 관계로 다음주 월요일부터 가능합니다. 강치과의원’

수산나는 마음을 바꾸었다. 치위생과를 나온 간호사 인만큼 스케일링

은 가능했다. 바다 빛 아쿠아리움 앞에서 물고기들과 함께 왔다 갔다 하던 수산나의 느닷없는 결심을 나는 반길 수밖에 없었다.

강원장이 들고 나간 가방에는 몇 개의 소지품뿐 장기간 체류를 예상할 수 있는 물건들은 없을 것이라는 것, 막연하게나마 알 수 있었다. 치밀하게 계획된 사라짐이 결코 아니었으니까. 마치 일상 탈출이라며 미화시킬 수 있는 짧은 충동과 같았다.

그런 예측이 가능했던 것은 며칠 전 강 원장 장모, 그러니까 원장 부인의 친정어머니가 다녀갔을 때를 떠올렸다. 강원장 부인의 친정어머니는 늘 당당했다. 당당하다 못해 팡팡거리며 사는 사모님이었고 팡팡한 자그마한 키에 무겁게 보이는 귀금속을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분수 넘치는 여자였다.

그런 사모님이 강원장에게 애원하며 매달리는 모습을 진료 준비를 마친 수산나의 인터폰을 받고 강원장을 부르러 병원 안채에 들어갔다가 보았다. 봐서는 안 될 광경을 보아서일까, 강원장의 모습에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지독히도 차가운 냉혹함이 어려 있었다. 내가 알고 있는 강원장과 사모님과의 관계는 그래서 안돼는 관계였다.

영원히 남자의 여자일 것이라고 이를 악물었지만 남자는 연민만으로 자신의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뺏기고 싶지 않다며 단호하게 이혼을 요구했고, 다른 여자가 생긴 것을 고백했을 때, 더 이상 남자의 여자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 남자가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해준 이후 일 자리를 알아보러 결혼 전에 다녔던 병원에 근무하는 원무과장을 만나러 갔다가 강치과를 소개받았으며 강원장에 대해 듣게 되었다.

소작농인 부모 밑에서 자란 강원장은 자신의 노력만으로 의대까지 갈

수 있었지만 의대를 졸업하기까지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의대에 입학하여 졸업하기까지 마지막 학년이 남아 있을 무렵 그나마 작은 발뚱기에 농사를 지어왔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강원장 학비를 대어 줄 형편이 아니었다. 어느 누구의 도움이라도 간절할 때였다.

그 무렵 의대를 졸업한 후 병원을 개원한 선배가 슬쩍 그에게 백지수표를 내놓듯 은밀한 제안을 했다. 의대를 졸업 할 때까지 들어가는 학비며 졸업 후 치과까지 개원해주겠다는 후원자를 소개시켜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후원에는 조건이 붙듯이 강 원장에게 조건이 제시되었다. 후원자는 선배 부인의 부모와 절친한 사이였다. 후원자로 나선 분에게 딸이 있는데 그 딸과 결혼을 하는 조건이었다.

원무과장에게 강원장에 대해 말을 들을 당시 잠시 동안 얼굴도 모르는 강원장을 비굴한 사람이라 생각했다. 누구에게나 결혼의 꿈이 있듯이 강원장 또한 평범한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자신이 원하는 이상형의 여자를 만나 동지를 틀고 싶은 욕망. 그 욕망은 욕심이 되어 버린 걸까. 물론 우연이 필연의 계기가 되기도 하듯 무조건 손사래를 치며 거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판단을 했을 것이다.

강원장은 현실을 재빠르게 받아들이는 현실주의자인 면이 있었고 극단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인생을 편협하게 몰아가는 우둔한 두뇌의 소유자도 아니었을 것이다. 비굴한 것과, 비굴하지 않다는 것의 옳고 그름의 가치 기준을 세우는 자체가 애매모호하다고나 할까? 가치판단은 남 얘기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안주꺼리일 뿐. 어쨌거나 그때나 지금이나 강원장에겐 현실타개에 골몰해야 하는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은 분명했다.

장모를 무릎 꿇게 만든 것은 강원장이 현실을 무난하게 타개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여겨야 될지 분간하기가 어려웠지만, 수산나는 복잡한 생

각에 빠져 있는 나와는 달리 강치과 병원이 문을 닫는 것을 안타까워했고 어떻게 해서든 강 원장을 돕고 싶어 했다.

나 또한 처음 대면했을 때 지레짐작했던 것 보다 강 원장은 비굴하게 보이지 않았으며 되레 내성적인 타입이라고 생각할 만큼 차분했고 정직해보이기까지 했다. 게다가 강원장에게는 단정하고 깔끔한 흰 닥터가운이 유난히 잘 어울렸다. 자연스럽게 신뢰감을 느끼게 하는 타고난 외모였다. 강원장의 개인사적인 얘기 따윈 스스로 함구해버렸다. 누구나 들춰내기 싫은 자신만이 알고, 알고 있어야 하는 히스토리 파일이 있기 마련 아닌가.

별균기안에 넣었던 외과 기구들은 그대로 둔 채 스케일링 기구들만 챙겼다. 수산나는 오후 예약 환자 중 단순한 스케일링 환자만을 찾아 표시해 두었다. 석션기 옆에 달린 스케일러를 제대로 쫓아 두었다. 예약 손님은 대략 서넛 명 정도였다. 치과 예약 시간은 비행기 이착륙시간만큼 정확해야 했다. 분명 그 시간에 찾아 올 것이고 다음 시간까지 일을 마쳐야 했다.

유달리 익스트렌션 환자가 많은 날이 있었다. 지레 겁먹고 우는 아이, 악을 쓰며 비명을 질러대는 젊은 여자, 고양이 울음소리 같은 신음소리를 내는 노인들, 갖가지 고통을 이겨내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의 잇몸에 남아 있는 치근 뿌리가 온몸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느꼈다.

잠 못 이루는 밤의 연속, 이따금씩 머리카락을 쭈뼛쭈뼛 세우도록 괴롭히던 사랑니. 고통은 진통제로 단련을 시켰다. 삶의 애착이 끈질긴 탓에 이를 뽑으려 갔었다. 리카도인 주시를 맞고 무감각해진 잇몸에는 뿌리 깊은 치아가 심어져 있었다. 의사는 고통의 근원인 뿌리를 끝까지 뽑

아내려고 애썼으나 끝내 뿌리 한 조각을 잇몸에 남겨 둔 채 하얀 알콜 솜 한 뭉치를 나의 입에 물렸다. ‘살아가는데 큰 자장은 없을 겁니다. 워낙 깊숙이 박혀 있어서 끌어올리기가 힘드네요.’

가끔씩 염증이 생겨 잇몸이 부을 때면 고통은 뿌리 채 뽑혀지는 게 아니라 예후가 좋지 않은 후유증을 남기는 것은 아닐까 싶었다. 잇몸에 박힌 뿌리 한 조각이 생식기를 가진 편모동물이라도 되더라도 한 것인지 염증이 생기는 장소가 수시로 바뀌었다. 치근 한 조각이 온 몸을 돌아다니고 있다는 생각에 이르렀을 때 최근 유달리 가슴 밑바닥이 늘 아렸고 통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마도 치근 한 조각은 편편한 가슴 밑바닥에 도달해서 아예 등지를 틀고 왕성해진 번식력을 과시하는 것이 분명했다.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할 나의 캐리어스. 씹을 만큼 씹고 꿀을 만큼 꿀은 곰팡이 덩어리였다.

남자와의 이혼 후 아이가 보고 싶어 남자를 찾아갔었다. 아이를 되찾을 수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하고 싶었다. 남자는 처음부터 그랬듯이 단호하고 강한 힘으로 나를 제압했고 양육할 권리를 절대 건네주지 않았다. 남자가 건네 준 건 삼천만원. 법원은 삼천만원으로 아이를 남자에게 넘겨주도록 했다.

스케일러 옆 수납장 안에서 에이프론을 꺼내어 캐리어에 올려놓던 수산나가 우두커니 앉아 있는 나를 돌아보았다. 잠시 눈가에 눈물이 스쳤는가 보았다. 수산나는 놀란 토끼 눈을 하고 내게 달려왔다. 수산나는 강원장이 사라진 혼돈 속에서 빠져나와 나의 예기치 않은 눈물 속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 같았다.

“지연씨, 무슨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예요. 제가 원래 나이에 안 어울리게 비가 오는 날이면 멜랑콜리 해지거든요.”

밖에는 비가 쏟아졌다. 늦가을 비 치고는 빗줄기가 굵었다. 바람까지 거세어 비 허리는 심하게 꼬부라졌다. 바다 빛 아쿠아리움 뒤쪽으로 길고 두꺼운 원도우가 콘크리트 벽 대신 외장재 마감이 되어 있었다. 원도우에는 줄기차게 빗물이 흘러 내렸다.

“마지막 환자 끝나면 함께 나가요. 비 오는 날 멜랑콜리는 노래와 술이 있는 곳에 가서 폭 빠지는 게 약이 되지 않겠어요.”

내가 황급히 둘러 된 말이 그럴싸했는가 보았다. 그게 아니라면 수산나는 자신이 돌보아야 하는 어린 양을 만난 것뿐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을 것이고, 자신이 믿는 신의 세계로 귀속할 것을 권유할 것이다.

싱글인 수산나의 영원한 동반자는 신이었다. 신의 가르침을 완벽하게 실천하며 살고 싶은 수산나일 것이기에 길 잃은 양을 인도해 주고 싶은 강렬한 욕망을 숨길 수 없는 모양이었다. 수산나의 목표는 수산나 만의 것이지만 가끔씩 수산나가 믿고 있는 세계에 함께 빠져 보고 싶을 때도 있었다.

수산나가 나를 데려간 곳은 작은 뮤직카페였다. 올드 팝송과 올드 샹송, 올드 가요, 올드 아티스트, 올드미스인 수산나에게 어울리는 카페였다. 어찌 보면 작고 소담스런 와인바 같기도 했다. 가끔씩 수녀로 착각하게 만들 던 수산나는 의외로 술을 잘 마셨다.

“예수도 포도주를 마시면서 최후의 만찬을 가졌어요. 모든 만남의 끝은 술과 함께 끝나고 다시 술과 함께 이어지죠.”

그 다음부터가 문제였다. 수산나는 수다쟁이로 돌변했다. 복잡한 세상 일에 온갖 관습을 하기 시작했고 마치 심한 혐오증을 앓고 있는 듯하기

도 했다. 수산나가 오로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신이었다. 신이 자신에게 만능해결사 능력을 주었다고까지 믿는 것 같았다. 자신의 주변 사람들의 인생에 끼어들어 자신이 믿는 것을 믿게끔 만들려는 화려한 연금술사 못 지 않았다. 나는 수산나에게 조금씩 싫증이 나기 시작했다. 인터넷 지식처럼 짧고 깊이 없는 논리로 세상만사 일을 모두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우기며 말하는 것을 즐기는 고집 센 허풍쟁이가 떠올랐다.

수산나는 산만하기까지 했다. 산만한 건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세상엔 무수한 정보가 쏟아져 나왔고 무수한 말들과 가치판단을 흐리게 하는 빠른 변화와 속도에 맥없이 휘둘리고 있다는 기분이 들 때 처럼 무기력함이 피곤처럼 몰려왔다. 수산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자신이 정녕하고 싶었던 말을 해야 했다. 수산나는 자신이 다니는 성당으로 함께 가자고 재촉하기 시작했다. 성당에 가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예수를 낳은 마리아의 성스러움을 만날 수 있다고 꼬득였다. 나는 수산나가 사이비 이교도에 빠져있는 불쌍한 노처녀는 아닐까 의심까지 들었다. 매력 없는 올드미스의 인생처럼 지겹고 허품나는 일은 없을 것 같았다. 차라리 미아리 뒷골목에 있는 점성술사, 그러니까 점쟁이를 찾아가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말을 불쑥 입에서 뱉을 뻔했다.

수산나를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들어서자마자 전화벨이 울렸다. 강 원장의 목소리가 전화기에서 흘러 나왔다. 메마른 숲을 조용히 적시는 짙박짙박한 빗소리가 들려왔다. 낮고 차분한 강원장의 목소리 톤은 그대로였으나 짧게 토막낸 말들이 툭툭 달아나는 느낌이 들어 불안했다.

“언제 돌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영원히 돌아가지 못할 것  
도 같군요. 병원이 걱정이 되어서요. 다시 연락하겠습니다.”



늦은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렸고 창문을 확 열었다. 나지막한 야산에 웅기종기 들어 선 지붕 낮은 집에서 희미한 불빛들이 새어 나왔다. 짐 브릭만의 노래가 흘러나왔다. Love never fails 라는 노래였다.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진 채 그동안 살았다. 미대를 나오고도 종합병원 원무과에 취업을 해야 했던 것부터 시작이 불안했다. 침대 끝에 게딱지처럼 붙어 있는 그림 한 장. 프란시스 베이컨의 ‘머리’였다. 단순한 사물을 해체하여 스토리를 만드는 것. 재현을 위한 회화가 아니라 스토리가 있는 형상을 그리는 화가. ‘머리’ 또한 평범한 한 남자의 형상이었으나 그 남자의 머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머리의 재현이 아니었다. 머리는 사각모의 테두리로 그려졌고 그 안에는 많은 의미를 시사하는 사물들이 함께 그려져 있었다. 사람의 신체에서 가장 많은 것이 들어 있을 것 같아 가장 무거운 것 같은 ‘머리’를 그려 낸 순수회화였다. 꽤 철학적 메시지를 풍겼다.

나는 미대를 나오고 유학을 떠나는 동기들과는 다르게 취업을 해야 했다. 미술계통 직업을 구하기 싫었다. 애증의 그림자랄까 끝까지 할 수 없을 것이란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고 아예 접어버리는 것이 현명한 선택 같았다. 그때는 그랬다. 속을 태울수록 그리워지기보다 외면하고 싶은 이중성이 교차하다 평행선이 되어버리고 거듭되는 반복으로 갈등이 심했으니까.

내가 강 원장에 대해 원무과장에게 미리 들었듯이 강원장 또한 나에게 대해 알고 있었다. 기공소 대표와 함께 회식이라면 회식이랄 수 있는 자리가 있었다. 그때 수산나는 술을 하지 않았고 일찍 집으로 돌아갔었다. 강원장이 혼자 남을 것 같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었다. 결국 강원장과 단둘이 남게 되었고 강원장은 술김이었는지 나를 이전부터 알던

여자 취급을 했다. ‘미대를 나오고 이런 일을 하게 된 게 억울하지 않느냐’, ‘혼자 힘들지 않느냐’, ‘다시 시작해보지 그러느냐’ 강원장의 말들은 오래도록 잊고 있었던 망각의 늪을 휘저었다. 아찔할 만큼 술기운이 확 돌았다.

나는 휘청거리는 두 다리를 숨기느라 구두 굽 소리만을 높여야 했다. 자신의 오지랖을 술김에 펼쳐보였다는 안도의 숨을 쉰 탓일까 강원장은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길을 걷다 넘어졌다. 휘청거리는 두 다리와 함께 넘어진 강원장은 자신의 삶의 무게와 함께 넘어진 듯 했다. 두 가지 형상이 오버 랩 되는 찰라를 나는 볼 수 있었고 그가 외로워 보였다.

그는 부인에게 충실했다. 성실한 남편이 되고자 노력하는 한 남자였다. 가끔씩 멍한 눈빛으로 허공을 바라보던 여자, 정면으로 시선을 마주하기를 꺼리던 여자, 병원 식구들과는 겨우 점심 식사 할 때 뿐 함께 어울리지 못했던 여자가 강원장의 부인이었다. 부인은 다솜이에게도 다정하지 못했다.

나는 강원장과 그날 이후 가끔씩 술친구가 되어 어울렸다. 강원장에게 미술을 향한 열정을 무의식적으로 술김에 가끔씩 얘기했던 모양이었다. 프란시스 베이컨의 ‘머리’는 강원장이 구해 준 회화였다. 이유가 무엇일까, 근래에 함께 술친구를 한 적이 없었다. 강원장 성격으로 선불리 말 할 사람도 아니었기에 언젠가 강원장은 돌아올 것이고 늦은 밤 술잔을 기울이며 내게 말할 것 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강원장의 비에 젖은 목소리가 귓전에서 맴돌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잠이 오지 않는 밤. 오래전부터 생긴 버릇이 있었다. 냉장고 문을 열어 소주를 한 컵 따른 후 한 손에 쥐고 이젤 위에 앉는 것이다. 빈 화판 앞에서 술을 마시다 보면 한 손에는 붓이 들려졌다. 어느새 그림을 그리

고 있는 것이다. 선과 선의 구분, 색과 색의 구분, 단순한 재현이 아닌 함축적 스토리가 있는 형상을 그려보는 것이다. 잘 되지 않았다. 단지 충동적이며 무의식적 희열에 반항하며 그릴뿐이었다. 창밖에 아침 햇살이 비추면 정체를 드러낸 그림은 조악한 보석들을 주렁주렁 달고 있는 창녀의 몰골처럼 추했다. 추해진 만큼 삶은 구질구질해졌다. 더 이상 수복이 불가능한 캐리어스들을 완벽한 범죄처럼 없애버리듯이 내게 가능한 치료를 궁리해 보게 되기도 했다.

비가 그치고 밝은 햇살이 비추는가 싶더니 서쪽하늘에서 비구름이 다시 몰려왔다. 다행히 비 때문인지 예약 손님 외에 일반 진료 환자가 많지 않았다.

수산나는 평소의 모습 그대로 배려와 봉사를 위해 살고 있는 성녀로 돌아와 있었다. 모든 것이 그녀의 종교에 의해 생겨난 일이었기에 그녀의 삶은 어쩌면 한치의 오차가 없는 완벽함 그 자체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산나가 일편단심 품고 있는 신에 대한 사랑은 어쩌면 정리 정돈 된 깔끔한 집에 초대된 것처럼 혼돈과 실패가 없을 것이다.

기공소에서 완성된 보철 품들을 가져왔다. 수산나는 플라스틱나 스톤을 이용해 푸어랑을 한 치 본을 뜨는 작업을 직접 했다. 수산나는 마치 석고데생 작품처럼 손에 쥐고 감상했다. 기공소 직원에게 결재를 강원장이 돌아 온 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기공소 직원은 수산나에게 자꾸만 끈적한 시선을 보내었다. 수산나는 아는지 모르는지 기공소 직원에게 바짝 붙어서서 임프레션한대로 제작해 온 크라운에 이름표를 달았다.

강원장 부인은 일체 병원 일에 간섭이 없었으므로 강원장이 병원을 비웠는데도 나와 보지 않았다. 강원장 부인이 강원장에게 돌아올 것을

종용했을 것이나 강원장이 돌아와야 하는 시간은 이미 예측한 시점을 넘기고 있었다.

수산나는 더욱 조급해했다. 나는 병원 문을 닫게 된다면 그 후에 벌어지는 일들까지 미리 생각하기 시작했다. 환자가 부쩍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려 부인을 만나기로 했다. 안채로 들어가 내실 문을 열었다. 정적 속에 휘감긴 거실은 이미 겨울이 온 듯 차가운 바람이 일었다. 방문을 노크했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다. 부인은 다숨이가 있는 친정으로 가버린 모양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자 병원에 무심한 부인에게 야속한 마음까지 들었다. 남아있는 수산나와 내가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는 듯이.

두 주를 훌쩍 넘긴 시월 마지막 주, 강원장은 돌아왔다. 수복이 자란 턱 수염 탓일까 확 늙어버린 느낌이 들었다. 수산나는 호들갑을 떨며 강원장을 반겼다. 영화배우 피어스 브래스넨 같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브래스넨은 저렇게 지저분하지 않거든. 항상 단정한 영국신사라고. 수염 기른 피어스 브래스넨을 상상해봐. 딱 맞지 않아. 굳은 표정이었던 강원장의 입가에 미소가 살짝 스쳤다. 그동안 처리한 스케일링 차트, 밀린 예약손님 차트, 기공소와 제약회사 결재, 건강보험청구, 한꺼번에 내밀 기엔 강원장에게 벅찰 것 같았다.

“내일부터 정상진료 합시다.”

강 원장은 보스톤백을 들고 안채로 들어갔다.

아무도 없을 텐데. 집이 싸늘할 텐데. 조금 전 안채를 다녀온 상황을 설명하지 못했다. 안채로 들어간 강 원장은 다시 나오지 않았다.

퇴근 후 집에서 기다렸다. 혹시 강원장이 전화를 걸어주지 않을까 해서였다. 전화는 걸려오지 않았다. 다음 날 하얀 가운을 입은 강 원장은

예전으로 돌아가 있었다. 간밤에 사우나라도 다녀왔는지 턱수염은 감쪽같이 사라졌고 얼굴 솜털까지 밀어낸 듯싶었다. 말끔해진 얼굴 피부는 약간 검게 그을렸으나 집을 나가기 전 모습으로 거의 복구되었다.

그 날 밤도 전화는 걸려오지 않았다. 아직 말할 준비가 되지 않은 걸까? 전화벨이 울렸다. 강원장이 아니었다. 전남편인 그 남자였다. 아이의 아빠였다. ‘너가 저지러 놓은 양육권 신청은 곧 기각 될 거야. 더 이상 애를 빌미로 내 곁에서 어슬렁거리지 마. 너의 재주로 애를 데려갈 순 없을 거야. 포기해. 그리고 잊어주길 바래. 뚜. 뚜. 똑. 빠르게 걸어 나가는 남자의 발소리를 듣는 듯 했다.

전화는 끊겼지만 귓전에 남아 있는 남자의 싹 똑 잘린 말들은 오래갔다. 아이만이라도 돌려받고 싶다고 말하지 못했을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여졌지만 아이는 내 곁에 놓아달라고 말하지 못했을까. 당당한 그의 목소리에 울화가 치밀었다.

주말 오후 갈 곳이 딱히 생각나지 않았다. 옷을 주섬주섬 입고 나섰다.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고 또다시 버스를 타고 도달한 곳은 경기도 이천에 있는 도자기 마을이었다. 그곳에 선배가 도자기 굽는 공장을 하고 있었다. 하늘 아래 뒹뒹하던가 하늘 아래 우물터 었던가 선배는 독특한 이름을 지어 간판으로 걸었다. 아무래도 하늘아래 터졌던 것 같았다. 기억 속에 희미한 간판을 찾아 도자기 촌을 어슬렁거리기 시작했다. 도자기 공장과 전시와 판매가 한군데서 이루어지는 점포들이 즐비했다. 그 광경을 보면서 미술작품도 제작과 전시와 판매가 한군데서 이루어진다면 좋지 않을까 싶었다. 하늘아래 터를 찾아내었지만 선배는 중국에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일하는 도공에게 따뜻한 국화차 한잔을 얻어 마시고 나왔다. 돌아서는 나에게 도공은 근처에 미술전시관이 있다는 것

을 알려 주었다.

나는 그곳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다양한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는 1층을 돌아 2층으로 올라가보니 개인 미술전이 열렸다. 개인전 메인 주제는 ‘환생’ 이었다. 주제답게 색채에 원색이 많이 들어가 있었다. 강렬한 이미지 형상이 필요했으므로 원색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했다.

나는 꼼꼼히 시간을 죽이기로 했다. 그림 한점 한점을 놓치지 않고 눈 속에 담았다. 유독 발걸음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그림 앞에 서게 되었다. 오르가즘을 느끼는 여인의 얼굴, 그 여인의 배위에 앉아 있는 남자, 여자와 남자의 몸에는 화려하게 꽃들이 만개해 있고, 여자와 남자의 머리는 새들에게 반쯤 뜯겨져 나갔으며, 여자의 가랑이 사이로 커다란 새가 빠져나오는 형상을 그린 그림 앞이었다. 강렬한 색채가 시각을 마비시켜 버린 것일까 주위가 어두워졌고 가슴속이 답답해지기 시작했다.

나도 모르게 가슴을 움켜쥐었다. 둔중한 쇠뿔치가 부딪혔다 떨어져 나갈 때 느끼는 예리한 통증이 가슴을 덮쳤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전시실을 뛰쳐나왔다. 시원한 공기를 걸구들인 사람처럼 마셔댔다. 통증은 봄눈 녹듯 사라졌다.

택시를 타고, 버스를 타고, 다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몸을 눕히자 잠에 빠져 버렸다. 깊은 잠을 잔 모양이었다. 깨어났을 때 분명히 누군가 부르는 소리를 들었는데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시간 감각이 오락가락했다. 아침인 줄 알았는데 새벽 3시쯤이었다. 마스크라가 번져 눈 밑이 거무스레했다. 화운데이션이 드문드문 땀여나간 얼굴은 버짐이 핀 듯 얼룩덜룩했다. 거울 속 나의 모습은 강간당한 여자처럼 낯이 나가 있었고 초라했고 불품없었다.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 컵에 가득 부었다. 물맛도 켜. 누군가 부르는 소리를 분명히 들은 것 같았

다. 꿈결 같기도 하고 현실 같기도 하고 어수선했던 잠자리였다.

드르륵, 드르륵, 드르륵, 바닥 긁는 소리가 들렸다. 꿈결에서 들었던 소리 같았다. 소름 돋듯 바닥을 긁고 있는 소리의 진양지를 찾아내려다 보니 마음이 다급해졌다. 방바닥위에 나뒹구는 가방을 뒤져 핸드폰을 꺼냈다. 강원장이었다. ‘새벽에 떠납니다. 일주일 걸릴 겁니다. 수산나에게 말해 두었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병원 문을 닫을 것이라고. 똑 끊어진 말끝은 가래떡이 가위에 잘려나가는 것 같았다. 돌아오는 것도 똑 같은 크기의 가래떡처럼 정확히 일주일 후 강 원장은 돌아왔다.

수산나와 함께 갔던 뮤직카페와는 분위기가 판판이었다. 실내는 어두웠고 좁았다. 원도우로 되어 있는 벽에는 서른 개 정도 되는 육각면체 수납 통이 짜져있었다. 수납 통은 모두 주둥이가 하늘을 향해 있었다.

그 안에는 양주병이 키폭되어 있었다. 다섯 개 정도밖에 안되는 스텐드 চে어와 사인용 테이블 두개 이인용 테이블 세 개. 미혼의 늙은 마담이 아담하게 꾸려나갈 정도의 술집이었다. 강원장의 단골집인 듯 했다. 나를 단골 술집으로 불러 낸 강원장에게 온 신경이 뻗어나갔다.

“내가 안 와 본 곳이에요. 이런 곳을 숨겨두다니. 섭섭하군요.”

“마흔을 향해 가는 남자 누구나 이런 곳 한 곳 짬은 숨기고 있죠.”

언더 락을 위해 얼음 통을 건네주고 돌아서는 마담은 강원장을 향해 은밀한 눈인사를 했다. 강원장에게 그동안 갈급해 있던 질문을 쏟아내고 싶어 안달이 났는데 막상 말문은 막혔고, 기다리는 것이 낯을 것 같다는 막연한 배려심이 앞장섰다. 그런 이유로 할말을 미루고 머뭇머뭇거리고 있는데 마담이 나와 강원장 사이에 끼어들었다. 마담이 물고 있는 담배는 누에고치처럼 능청스러웠고 연기는 노란 실내등 밑에서 요염하게

하늘하늘 거렸다. 다소 퇴폐적이지만 거부감은 없었다. 강 원장은 오랜 만에 피로를 푸는 모습이었다. 한 무더기 손님들이 들어서자 눈치를 보며 그 쪽 테이블로 마담은 가버렸다.

“세미나를 갔다 왔어요. 치과 재료를 제조하는 업체에서 개최하는 임플란트 시술 세미나였어요. 대학 때 배운 경험으로는 자신감이 없어요.”

“지연씨, 임플란트라고 들어봤죠?”

“인공치아 아닌가요?”

“인공치아지만 자연치아와 거의 완벽해요. 게다가 인공 뿌리지만 새로운 뿌리를 갖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고통을 앓을 만큼 앓은 후에야 썩은 패리어스를 빼러 왔다. 썩은 이가 뿌리 채 뽑혀나가면 고통은 사라진다. 새순이 돋듯 하얀 새이가 솟기를 바란다. 그러나 고통과 함께 사라진 후 하얀 이는 다시 솟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잃어버린 자리에는 만들어지는 무엇인가가 빈자리를 채워주기 마련이고 만들어진 것을 새 것인 양 믿고 살아가기 마련이었다.

강원장의 말끝자리 부분에서 이천 전시실에서 본 ‘환생’이란 그림이 머릿속을 점령해 나갔다. 환생은 푸른 물고기가 되어 자꾸만 가슴속으로 파닥거리며 헤엄치고 있었다.

그 덕분에 부인이 고등학교 시절 임신을 했고 아이를 두 차례 낙태했고 졸업도 못한 채 남자와 동거를 했으며 그 남자에게 버림받은 후 정신병원에서 오래도록 치료를 받았고 얼마 전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강원장이 내게 쏟아 낸 말들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

두 다리가 헛집 주인의 가위에 토막 난 채로 꿈틀거리는 산 낙지를



떠올 릴 만큼 끊임없이 버둥대는 강원장을 병원까지 데려가 침대에 눕혀 주고 나온 후 차가운 밤바람을 쏘인 탓일까, 강원장 장모는 사위와 딸 사이에서 완벽한 범죄를 꿈꾸었겠다 싶었다.

한 달 동안 내부공사를 해서 넓어진 치료실, 최신 기술로 업그레이드된 치과용 기구 교체, 의사와 간호사 증원, 더욱 세밀한 파노라마를 찍을 패리애피컬, 그의 임플란트 전문 병원 계다가 치아미백을 앞세운 치아성형전문까지 갖춘 병원을 만들어 다시 개원할 것이라던 강원장의 말 또한 말뚱말뚱하게 되살아났다.

더욱 생생해지는 건 강원장이 개원할 무렵 영국으로 떠나는 내 어깨 위엔 화구통이 텅텅거리며 매달려 있겠지.

잠시 바람이 뺨을 살짝 스친다.  
잠 못 이루며 밤새 뒤척이다 보면,

어느새 설산처럼 소복이 쌓인 지난 시간들이 이불처럼 덮인다.  
가만히 이불을 걷어내고 무릎을 감싸 안은 채

어둠속에서 오뎅 솟아나는 존재감만이 시리고 시리도록 선명하게  
가슴을 도려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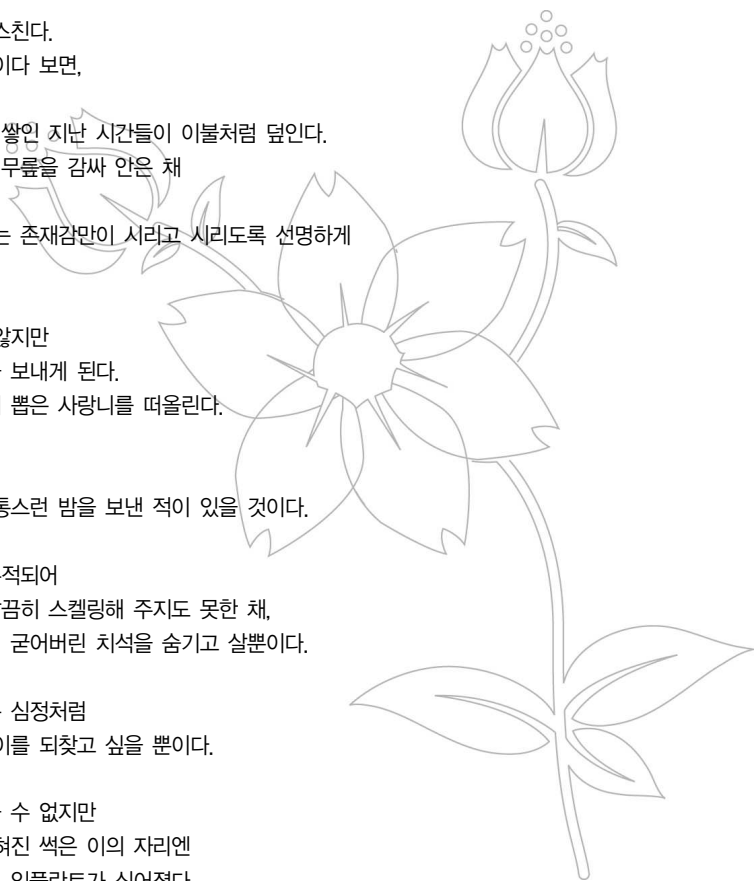
그런 밤은 자주 있지는 않지만  
살다보면 문득 그런 밤을 보내게 된다.  
그럴 때 마다 몇 년 전에 뺨은 사랑니를 떠올린다.

누구나 한번쯤은 사랑니  
혹은 썩은 이 때문에 고통스런 밤을 보낸 적이 있을 것이다.

삶에서 얻은 피로감이 누적되어  
바쁘고 쫓기는 심정을 말끔히 스캐링해 주지도 못한 채,  
그저 누런 석고 고름처럼 굳어버린 치석을 숨기고 살뿐이다.

새하얀 이를 되찾고 싶은 심정처럼  
새순처럼 돌아나는 하얀이를 되찾고 싶을 뿐이다.

뺨아넌 이는 다시 살아올 수 없지만  
행복을 다시 찾은 듯 뺨혀진 썩은 이의 자리엔  
환생이라 불러 주고 싶은 임플란트가 심어졌다.



장려상

# 황사

‘우울증의 원인이 큼 - 황사...?’ 혼잣말처럼 뇌까린다. 헤나는 우울증이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승엽의 빨라진 콧소리에 피식 웃고 만다.  
승엽은 차트에 뭔가를 기록하면서 컴퓨터 마우스를 계속 클릭하고 있다. 헤나는 승엽의 어설픈 고집과 손놀림에 묘한 흥분을 느낀다. 귀엽다.

-본문중에서-



부산광역시 서구  
박정식



## 황사(黃沙)

황사는 악연이다. 타클라마칸사막과 고비사막을 거쳐 황하중류의 황토 고원에서 발원된 미세한 모래·황토·먼지 등이 폭풍에 의해 고공으로 날아올라 바람을 타고 이동하면서 지표에 서서히 낙하, 눈에 안착한 황사는 정말 악연이다.

해나는 눈병으로 애를 먹는다. 바늘로 콧 찌르는 듯한 통증 때문에 아직도 머릿속이 심하게 울렁거린다. 핑계로 며칠 쉬기로 하고서야, 마음의 짊이 있어, 인터넷 검색으로 눈병의 경위를 파악하여 본다. 황사! 각 결막염과 알레르기성 결막염을 일으키기도 하며 건조해진 실내공기와 겹치면서 안구건조증을 심화시키는 증상으로 나타난다. 여러 정황으로 보아 눈병은 황사가 주된 원인임에 틀림없다.

홀어머니 밑에 자랐다는 이유만으로 시가집의 결혼반대는 견고했다. 신랑의 자살 소동의 고집이 있고서야 해나의 신히는 시작되었다. 해나는 남산만한 배를 앞세우고 사업실패로 쓰러져 누워계시는 시아버지 방에 들어선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속담을 몸소 실천하듯이 시어머니와 손아래 시누이는 아침부터 나가서는 소식이 없다. 아랫배가 살살 아파온다. 해나는 출산예정일을 손으로 꼽아 본다. 아직 보름 넘게 남았는데……. 진통이 일정한 간격으로 나타나면 입원하라는 의사의 말을 되

뇌여 본다. 오늘도 어디를 돌아다니는지 신랑의 귀가가 늦다. 처음 임신했을 때는 붕어빵, 통닭, 순대 등을 바바리에 몰래 숨겨 와서 억지로 먹기를 강요하던 신랑은 경기불황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실업자 신세여서 하루 이틀, 얼굴 대하기조차 어렵다.

혜나는 식탁에 앉아 리모컨으로 TV를 켜다. 아홉시 정규뉴스가 끝나고 스포츠소식에 자투리 야구이야기가 한창이다. 으-음-. 갑자기 안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린다. 혜나는 무거운 몸으로도 급히 방안에 들어선다. 시아버지는 눈을 희뽀영게 까뒤집고는 그릉그릉 숨 기쁨으로 고개를 뒤로 젖힌다. 혜나는 바로 눈앞에서 죽음이 보여주는 모든 두려움으로 놀람의 한계에 무너지고 만다.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가고 아랫도리에서 뭔가 쭉 빠져나가는 걸 느끼며 바닥에 엎어진다.

자폐가 생기는 원인은 현대과학으로는 증명이 안 되는데, 산모의 지나친 충격으로 아이의 뇌에 손상이 가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혜나는 성장이 조금 늦은 아이도 있을 수 있다는 위안과 증상이 TV중후군에 가깝다는 충분조건으로 지금껏 버텨오며, 눈을 맞춰 말을 시켜도 보고, 좋다는 약은 다 구해다 먹이고, 전문교육기관에도 보냈다. 그러나 간질처럼 발작을 일으키는 나루가 적응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랐다. 젊은 혈기의 선생도 선생이거니와 아이들의 학부모 성화에 못 이겨 배우기를 그만둬야 했다. 같은 부류의 사람들도 이해심보다는 자기아이들과 비교하여 장애의 정도에 차이를 따지기에 바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방법이 없어 곳을 하여도 봤으나 나루에게서는 아무런 변화와 더 이상의 진화를 찾을 수가 없다.

아이가 커갈수록 남편의 외박과 기출은 잦아지는데 싶어, 끝내 가정

에서 희망의 문을 닫아버렸다. 종종 집으로 배달되는 카드고지서로 살아 있음을 확인시켜줄 뿐, 남편은 부동산 압류통지서와 함께 나타났다가는 곧 실종되고 만다.

꽃샘추위라고는 하지만, 현관 입구의 외진 방이라서 그런지 더 춥다. 몸살인가, 뼈 속 깊이 찬 기운이 스며들어 으실으실하다. 창밖엔 별도 보이지 않고 곧 비가 내릴 것 같은 찌푸린 날씨다. 해나는 식염수로 눈을 씻어낸다. 부기가 빠지지 않은 눈두덩에 미지근한 물수건을 올려놓고 침대에 드러누워 뉘를 놓는다. 잠결에, 나무막대기를 손에 꼭 쥐고는 마찰이 쉽도록 비벼 맨다. 좀더 속도를 더하여 세차게 나무에 마찰을 가한다. 그러나 손바닥에 물집만 잡히고 좀처럼 불은 살아나지 않는다. 열이 불로 전도 되려면 몇 도의 온도가 필요할까?

오랜만에 나타난 남편은 가슴으로 사타구니로 집요하게 파고든다. 술과 삼겹살에 버물려진 마늘 냄새가 후-후- 숨을 쉴 때마다 온 방안에 땀내와 단내로 진동한다. 그는 혼자서 자위행위 하듯 미친 듯이 씹씹거리더니 땀석 얹어져 눕는다. 해나는 남편을 밀쳐내고 거실로 나간다. 늦은 밤인데도 개구쟁이 짱구는 TV속에서 여전히 맹랑하게 놀고, 그 앞에서 아들 나루는 아무렇게나 자고 있다. 해나는 이불을 가져다 덮어주며 굳히 잠든 나루를 찬찬히 요모조모 뜯어보듯 들여다본다. 베란다에서 뛰어내리겠다고 고집하던 한낮의 발광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얼굴이다. 이렇게 얄전히 누워 잠든 아이를 두고 누가 자폐라 하겠는가. 해나는 나루의 머리카락을 쓸어주며, 요 작은 몸짓 어디에 잠재되어 있다가 발광을 하는 지, 어린 광기(狂氣)를 찾는 시늉을 한다. 나루가 추운지 오물오물 입맛을 다시며 품으로 바싹 안겨든다. 잘

때만이라도 응석하는 보통의 아이 같아 휴- 다행이다 싶다. 혜나는 지금껏 견뎌오며 많은 시행착오와 종종 있는 의외의 일탈에도 자꾸만 무덤덤해지는 자신이 겁난다. 조용히 비디오를 켜다. ‘말아톤! 영화관에서 처음 봤을 때는 얼마나 서럽게 울었던가. 끝없이 달려만 가는 주인공을 따라 혜나의 호흡도 가빠오고 숨이 턱까지 차오른다. 그러나 중간쯤에서 시작되는 영화는 감동을 주기보다 희망 없는 현실만 깨우쳐 주는 것 같아 꺼버린다. 채널을 바꾼다. 이 늦은 시간에 다정한 포즈의 부부가 ‘다(多)보장’ 보험을…… 설명하고 있다. 덩치만 크지 나아지는 게 조금도 없어 보이는 나루가 사망하면……, 보험금은 얼마나 될까? 혜나는 고개를 절레 흔든다. 자식을 재산적 가치로 셈하여보다니……. 아무리 힘들고 지쳤자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한심하고 섬뜩해 보인다.

혜나는 가볍게 뒷물을 하고 다시 컴퓨터 앞에 앉는다. 벌써 새벽 2시가 넘었다. 눈이 아픈 것도 원인이겠지만 요즘 잠을 설치는 일이 잦다. 고스톱을 친다. 늦은 시간이라 직설적으로 수작을 거는 접속자가 많다. 벳은 채로 지금 그 지랄을 하고 있단다. 미친놈-. 혜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방을 빠져나온다. 벌레 먹은 듯 소름이 돋는다. 미지근한 물에 샤워를 한다. 냉장고에서 꺼낸 소주를 한 잔 들이키자, 속이 후끈 달아오른다.

남편이 아무 말 없이 헛기침을 하며 검은 그림자를 달고 시체처럼 현관을 빠져나간다. 불편한 몸으로도 익숙한 기출이다. 혜나는 남편의 등 에다 악다구니라도 할까하다가 그도 피해자나 다름없을뿐더러 딱히 무슨 말을, 사실 그럴 기운도 없다. 혜나는 남은 잔을 비우고는 안방으로 들어간다. 나루로 인한 또 다른 피해자, 친정엄마가 코를 골며 뒤척이고 있다. 혜나는 엄마 옆에 살며시 누워서는 흙이불을 목까지 끌어다 덮어

드린다. 손끝이 머리에 닿자, ‘이 웬수야!’ 엄마가 두 팔을 허공에 끌며 잠꼬대를 한다. 나루가 발작한 날이면 종종 있는 일이었으나 나루가 참문으로 뛰어내리겠다는 고집은 처음이라 많이 놀라셨는가보다. 엄마는 사위의 기출 아닌 생활에의 실종으로 월급이 뜬해진 이후로 같이 살게 되었다. 해나는 비스듬히 앉아서 엄마를 물끄러미 내려다본다. 가로등과 새벽녘의 여명에 윤곽을 드러낸 엄마의 얼굴은 세월의 주름에다 저승꽃이 군데군데 문신처럼 묻어있다. 나이 서른에 청상과부가 되어, 온갖 시장 허드렛일로 벌이하여 해나를 먹이고 입히고 대학까지 졸업시킬 정도로 강인하셨는데……. 해나는 나이 칠순이 다된 지금도 손자 뒤치다꺼리에 고생인 엄마가 한없이 측은하고 애처롭다. 해나는 울컥하는 가슴을 진정하고 슬그머니 엄마를 안아본다. 강한 이미지의 당신은 어디가고 품 안에 쏘옥 안기는 작은 물골이 안쓰럽다.

초등학교 입학통지서가 문틈에 끼어 있다. 해나는 봉투를 꺼내들었으나, 학교 갈 나이가 되어도 갈수 없는 나루의 앞날을 생각하니 가슴이 내려앉는다. 눈물이 마른지도 오래고 웬만한 것에 달관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작은 쪽지 하나에 눈물이 핑 돈다. 나루는 엄마가 왔는데도 멍하니 TV에 몰입해 있다. 화면에는 마키마우스가 입을 재잘대며 요리 조리 나루를 놀려대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한집에 같이 생활하지만 나루는 늘 이방인처럼 동떨어져 있다. 자기 뺨속에서 낳았지만 그 속을 알 길이 없다. 설거지를 끝내고 나루를 방에 눕히고서야 일상에서의 해방이다. 온몸이 나른하다. 입학통지서를 뜯어본다. 입학을 시키지 못하는 사유를 관련서류로 제출하라는 내용만 별표 되어 무슨 훈장처럼 유난히 크게 보인다. 피곤하였으나 잠이 올 것 같지 않다. 해



나는 입에 수면제를 털어 넣고 다시 침대에 눕는다. 벽면에 걸려있는 나루의 백일사진이 달빛과 어둠에 반쯤 나눠져 흥측해 보인다. 해나는 눈을 감아버린다.

의욕이 없고 우울하고 슬프다. 갑자기 울고 싶을 때가 있다. 잠이 안 온다. 귀에서 이명(耳鳴)이 들리고 체중도 많이 줄었다. 몸이 나른하고 항상 피곤하다. 수면제 과다복용에 따른 우울증. 인터넷은 여러 증상에 마킹한 해나를 병원으로 떠민다. 미취학사유 확인도 받을 겸 해나는 병원에 들어선다. 의사선생은 등받이에 어깨를 붙이고 비스듬히 앉아있다. 30대 중반 즈음으로 보이는데 의외로 행동이 굼뜨다. 환자가 왔는데도 의사는 거의 처음 포즈에 변함이 없다. 해나는 다소 불편했으나, 나루로 인해 얻은 다양한 경험으로 생소한 환경에도 금방 익숙해진다. 의사선생이 간호사에게 넘겨받은 차트를 보더니, 해나를 우울증으로 몰아간다.

단 음식을 멀리 하세요. 쿵쿵. 설탕이나 초콜릿 등 단 음식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질 수는 있지만 지속적이지는 못합니다. 의사선생은 설명하다 말고,

“성관계를 즐기세요?”

불쑥 묻는다. 음흉한 표정이라기보다 환자와의 거리감을 없애려는 친밀감의 표시 같아, 해나는 부끄럽기보다 그냥 텅텅하다. 육류를 적게 먹으세요. 우울증 환자들은 가능한 한 지방질이 적은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편은 무얼 하시는 분입니까?”

쿵쿵. 사무실이 비좁고 창문을 닫아서 그런지, 아니 그의 잇따른 질문에 신경이 쓰여 불안하다. 특히, 돼지고기나 쇠고기 등에 많은 포화지

방산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우울증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밝혀지고……. 그의 설명은 해나를 우울증으로 취급하면서도 치료, 예방, 어느 것에 합당한지 헷갈린다.

“음, 담배 피우세요?”

해나는 의사의 질문에 고개를 가로 젓는다. 흔히 기분이 저조할 때 해소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으로 담배를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 흡연은 우울증을 증가시키는 요인입니다. 쿵쿵. 그래도 스트레스보다는…… 기금 담배를 피우도록 해보세요. 그는 뜬금없이 담배를 권한다.

해나는 그의 어줍잖은 질문에 자리를 고쳐 앉으며 다소 경계를 늦춘다. 카페인 섭취를 삼가시고, 커피나 홍차, 콜라 등 카페인 많이 함유된 식품들을 피하는 것이 좋고……,

해나는 엉뚱해 보여서 오히려 믿음이 가는 의사의 이름을 외워둔다. 최 승 업! 그는 차트를 짚어가며 차분하고 또한 혼란스럽게 말하였으나 전문가로서 자기가 하는 말이 다 옳다는 표정이다. 그러나 해나는 승업의 설명을 듣는 등 마는 등 관심도 없다. 눈 꼬리가 조금 아래로 쳐진 부담 없는 그의 얼굴만 요모조모 뜯어보고 있다. 쿵쿵. 콧소리를 자주 하는 것으로 봐서 승업의 버릇인가보다. 그 다음에 생선과 치즈 우유 달걀 등 양질의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세요. 물을 하루 8잔을 마셔라. 물은 인체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신진대사를 원활히 해주기 때문에 우울증 해소에 도움이 된다. 비타민제를 충분히 복용하라. 특히 비타민 B와 C가 부족하면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이중 비타민 B는 기분을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 쿵쿵. 그러나 비타민 C는 약제로 복용할 경우 자칫 수면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저녁때는 복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B가 들어있는 음식

류는 아시죠? 요구르트, 우유, 계란노른자……. C에는 딸기, 신선한 채  
소류… 승엽이 설명하다말고 혼잣말처럼 또,

“술 한 잔 할래요?” 묻는다.

혜나는 승엽의 장황하고 지루한 설명에 다소 지쳤다. 대답대신 듣고  
있다는 의미로 고개 끄덕을 한다. 혜나의 반응이 소극적이어서 그런지 아  
니면 긍정으로 받아들였는지 승엽의 설명은 건성으로 빨라진다. 쿵쿵-  
하는 소음도 잦다. 쿵. 하루 20분 이상 햇볕을 쬐라. 햇볕은 대뇌로부  
터 활력을 느끼게 하고 각종 신경전달물질을 생산해 내기 때문에 쿵,  
우울증 치료에 도움이 된다. 적당한 운동을 하라. 쿵. 하루 30분 이상  
의 규칙적인 운동은 특히 불안감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마음을 갖게 하  
는데 효과적이다. 쿵. 잠이 안 올 때는 술을 한잔씩 하시고……. 힐끔,  
호응이 없자 승엽의 설명이 시들해지며 일어나 창문의 블라인더를 올린  
다. 혜나는 아무 말이 없는 승엽이 또 불편하다. 하늘이 뿌옇다. 승엽이  
 뜬금없이 ‘우울증의 원인이 쿵 황사…?’ 혼잣말처럼 뇌까린다. 혜나는  
우울증이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보다 승엽의 빨라진 콧소리에  
피식 웃고 만다. 승엽은 차트에 뭔가를 기록하면서 컴퓨터 마우스를 계  
속 클릭하고 있다. 혜나는 승엽의 어설픈 고집과 손놀림에 묘한 흥분을  
느낀다. 귀엽다.

오랜만에 봄나들이를 한다. 승엽은 약속시간보다 이르게 아파트 입구  
에 도착해 있다. 커피 한 잔의 음미로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이 여유  
가 있어 보인다. 서두르지 않는 그의 매너가 사람을 이끄는 장점중의 하  
나가 아닐까싶다. 물론 관계를 할 때도 마찬가지다. 많은 애무와 배려로  
쾌락을 즐거움으로 변화시키는 그의 심성이 늘 반갑다. 자기자식도 아닌

나루가 부끄러울 텐데도, 진해 벚꽃놀이에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강요하지 않고 나루를 동행한 마음 씩씩이 또한 곱다. 만남에도 보채는 법이 없다. 해나는 자꾸만 승엽에게 마음이 가는 이유를 부정하고 싶다. 다만, 사람에 대한 그리움의 부재에 따른 스스로의 허전함과 지친 현실 때문일 거라고 애써 치부하려 한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에게 생각이 쏠리는 걸 어찌지 못한다. 사람이 좋으면 사소하고 하찮은 것조차도 다 좋게 보인다. 쿵쿵-하는 버릇이 처음에는 귀에 거슬리더니 이젠 오히려 익숙하다. 을숙도 하구 언 다리를 지나 김해와 진해 갈림길에서부터 차는 밀리기 시작한다. 야외로 뛰쳐나온 해방감에 뒤 좌석을 혼자 차지한 나루는 괴성을 지르며 즐거워라 고함을 한다. 승엽이 웃으며 해나의 손을 잡는다. 따뜻하다. 해나는 짜릿한 흥분에 가늘게 떨리는 손, 벌렁하는 가슴을 들키지 않으려 창밖으로 시선을 돌린다.

산골짜기 곳곳에 연분홍 진달래가 무리를 지어 시야가 보이는 곳까지 뿔박질하듯 산을 오른다. 군항제라는 아치팻말을 지나며 도로 좌우로 왕벚나무가 제법 꽃을 피워 불만하다. 승엽이 차선을 이리저리 바꾸는 부지런으로 차는 생각보다 잘 빠진다. 햇볕이 따갑다. 그러나 시내에 들어서자 도로는 차들로 꽉 차 주차장을 방불케 한다. 해나가 고개를 나루 쪽으로 돌아보는 횡수가 증가할수록 승엽이 눈치껏 창문을 열고 닫는다. 좁은 뒷좌석의 나루가 지루함으로 동작이 커지자 승엽이 골목길로 차를 우회한다. 승엽이 가장자리에 차를 정차한 후 내리라는 사냥으로 담배를 피워 문다. 해나는 그의 작은 배려에 익숙해졌으나 그래도 미안함이 앞선다. 그는 기지개로 한껏 몸을 풀고는 뒷좌석의 나루에게 마스크를 씌운다. 나루의 손을 끌며 구멍가게로 들어간다. 과자 몇 개와 음료수를 입에 문 나루는 다시 견딜 만 하다는 표정이다.

시간 반을 밀고 당기고 골목길을 몇 번 우회하는 중에 진해 탑이 눈에 들어온다. 도착은 했으나 별다른 볼거리는 없다. 사람들이 겨우 지나갈 정도의 틈만 두고는 도로 양쪽으로 온통 먹거리 장시뿐이다. 기온차가 있는 시내라서 그런지, 벚꽃은 바람에 꽃눈이 휘날릴 만큼 만개하다.

얼마만의 자유로움인가. 해나는 두 팔을 벌려 향을 맡아본다. 승엽이 따라하며 싱긋 웃는다. 마땅히 갈 곳을 정하지도 않아 그냥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걸음을 옮긴다. 검은 바탕에 흰색 줄이 쳐진 제복의 해군들이 한 무리 비틀하며 지나간다. 소문난 행사라서 몰려든 인파에 휩쓸려 치이고 치여 걸음조차 떼기 힘든 상황이다.

돼지 한 마리가 몸통을 손님에게 다 내어준 채, 영성하게 걸려있는 바베큐집 앞에서 승엽이 걸음을 멈춘다. 해나는 승엽이 이끄는 대로 식당 안으로 들어간다. 비좁게 자리하고는 파전에 동동주 한 사발을 들이킨다. 나루는 배가 고팠는지 음식을 입에다 쑤셔 넣다시피 먹어치운다. 한 잔만 했는데도 대낮이라서 그런지 머리가 멍하고 어질하다. 해나는 다른 손님에게 방해가 될까봐 이리저리 뒤척이는 나루에게 시선을 땔 수가 없다.

다시 거리로 나온 승엽이 여기저기 고개를 기웃하며 관심할 이벤트를 찾는다. 나루를 중간에 세우고 겨우 한사람이 지나갈 정도의 혼잡한 골목길을 빠져 나간다. 앞서는 승엽이 가끔 돌아보며 해나와 나루의 위치를 확인하고 있다. 얼마쯤, 걸음을 멈춘 승엽이 고개 짓으로 탑을 가리킨다. 해발 100미터도 채 안되는 야트막한 동산에 세워진 진해 탑에 오르자고 한다. 해나가 고개를 까딱한다. 걸어가는 승엽의 어깨가 너무 듬직해 보인다. 해나는 저 넓은 가슴에 지금 당장, 안기고 싶다. 병원에서의 인연으로 두 번째 만났을 때가 생각이 나자 해나는 괜히 흥분되어

얼굴이 화끈한다.

처음, 승엽은 원피스를 조심스레 벗기고 목덜미와 가슴을 애무하기 시작한다. 나루를 낳고부터 처음 느껴보는 오르가즘과 술기운에 헤나는 아주 깊이 승엽을 받아들였었다.

오르막길에 풀뽕, 어묵, 귀이개 등 온갖 것의 장사꾼들이 유혹하는 비좁은 길인데도 연인들이 웃음을 달고 호들갑스레 가위, 바위, 보 계단을 오른다. 부럽다. 나루만 없으면…….

‘내가 무슨 생각하지?’ 헤나는 고개를 갸웃하며 승엽을 쫓아간다. 걸음을 재촉하는데도 자꾸만 승엽과의 거리가 벌어진다. 헤나는 마음이 급하다. 승엽이 저렇게 돌아보지 않고 달아날까봐 불안하다. 이마에 땀이 송골 땀했어야 승엽이 보인다. 한손에 달마그림을 쥐고 다른 손을 내미는 승엽은

“나루는?”

하고 묻는다. 그제서야 헤나는 손을 놓아버린 나루를 찾는다. 다행히 저 밑,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열중인 나루가 눈에 들어온다. 놀랐으나 헤나는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것에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한 자신의 행동이 의외여서 오히려 더 놀란다.

집안에 들어서자, 승엽이 트리오가 잔뜩 묻은 손으로 반갑게 맞아준다. 오늘 비번이란다. 벚꽃놀이 이후로 승엽의 집 출입은 자연스럽다. 탁자에 먹다 남은 떡볶이 서너 개가 물기 없이 말라있다. 떡볶이는 승엽이 가장 자신 있게 하는 메뉴다. 고추장에 설탕을 조금 넣고 어묵과 떡가래가 다 익을 즈음에 치즈가루를 뿌려주는게 치즈떡볶이, 그것을 누구보다 나루가 제일 좋아한다. 저녁 먹었냐고, 승엽이 묻는다.

“아나-”

가스렌지위에서 된장이 보글보글 끓고 있다. 엄마는 마실 가셨고, 나루는 짜파게티와 떡볶이를 배불리 먹고 방금 잠들었다. 승엽이 된장찌개를 사이에 두고 소주 한잔을 건넨다.

“오늘 자고 가도 돼?”

승엽이 잔을 들이밀며 채근한다. 늦어도 좀처럼 자고 가지 않는 승엽이라 해나는 당황스럽다.

“엄마가-, 어떻게 생각할지…….”

승엽이 눈을 찡긍하며 해나를 뻔히 쳐다본다.

“장모님이 최서방 자고가라던데.”

승엽은 다소 과장된 몸짓으로 어깨를 으쓱하며 답한다.

“장모님, 최서방- 쫓!”

해나는 승엽의 장모님 소리에 웃음이 나온다. 어찌면 엄마는 승엽을 사위로 생각하고 계신지도 모른다. 직업도 좋지, 붙임성도 좋지, 나루를 좋아하지, 상처하여 지금 혼자지, 나이가 두 살 어린 게 흠이라면……, 아니지. 해나에게는 승엽의 모든 게 과분할 따름이다.

해나는 승엽이 혹시나 싫증내어 떠나면 어쩔까 싶어 항상 조심스럽다. 그에게 욕심을 부리지 않으려 무척 애를 쓴다. 소주잔이 왔다가는 사이 승엽이 해나 옆으로 바짝 의자를 당겨 앉는다. 해나의 손을 잡은 승엽이 히죽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너스레를 한다. 오늘 낮에 의료사고가 있었다고, 해나는 신경정신과에서 무슨 의료사고가 있나 묻고 싶었으나 승엽이 그렇다면 그런 가 보다 믿는다. 다만, 해나는 아무 위로가 되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이 한심할 따름이다. 승엽이 해나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는다. 자신이 담당한 우울증의 고3 학생이 불면에 따른 심한 편두통으

로 수면제를 먹고 자살했다. 울퉁이는 승엽이 얼마쯤 지나자 다소 진정되었는지 입술을 더듬는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린다.

“잠시만-,”

혜나가 전화를 받는다.

“여보세요?”

다짜고짜 수화기 저편에서 남편의 소재를 묻는다.

“저도 연락이 안 되는데…….”

카드회사직원이다. 남편의 카드 빚으로 집을 경매하겠다는.

“혜나야, 너 얼굴 아주 좋네, 요즘 연애하니?”

언니는 혜나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길 카페를 나선다.

“가게 잠깐만 봐줘라.”

“언니, 어디 갈려고…….”

“그냥 잠시 갔다 올게.”

그녀는 눈을 찡긐하며 커피포트를 들고 나간다. 애를 둘씩이나 낳고도 마흔에 들어선 언니의 엉덩이는 소 볼기짝처럼 여전히 탱탱해 보인다. 혜나는 한손에 주스를 든 채 집으로 전화를 한다.

“엄마, 나야. 나루는 어때?”

“그냥 똑 같지 머.”

깡깡- 고집을 피우는 나루의 소리가 자그맣게 들려온다.

“바꿔줄까?”

“아니.”

“참, 카드회사에서 박서방 찾던데…….”

“그래 알쎄요.”



혜나는 오늘도 혹시 나루가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려고 하지 않았는지, 그보다는 승엽이 찾아오지 않았는지, 엄마에게 묻고 싶었으나 그냥 핸드폰 폴더를 덮는다.

좁은 포장마차에 위태위태 놓여있는 14인치 TV에 ‘사랑과 전쟁’이라는 이혼찬반을 묻는 드라마를 보고 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불륜을 그린 내용이다. 저런 게 공영방송에 소재로 나오다니……. 혜나는 며칠째 소식을 없는 승엽을 떠올리며 담배를 꺼내 문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자살이 직접적으로 승엽의 잘못이 아니라는데도, 심적 고통이 많은가?

“과일 주스 하나 주소?”

건장한 사내가 이마에 땀을 흘리며 들어선다.

“언니, 어디 갔어요.”

사내가 히죽 웃으며 배달 갔냐고 묻는다. 혜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사내는 뭔가 알고 있다는 듯이 음-하고 담배를 꺼내 문다.

“언니랑 어떤 사인교?”

혜나는 대답대신 좀 전 사내가 웃은 것처럼 히죽 웃고는 키위 두개를 믹서기에 썰어 넣는다. 그리고 보니 언니와의 인연도 꽤 오래다. 처음 보험을 같이 하면서 알게 된 언니는 가까운 친인척 등의 도움도 있었지만, 타고난 불임성으로 설계사로서의 명성이 높았었다. 돈을 제법 만지게 되자 언니신랑이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에 발을 들여놓아 부도를 맞았다. 결국 빚만 잔뜩 안고 무일푼으로 이혼한 언니가 시작한 게 길 카페다.

혜나의 대꾸가 시원치 않은 지, 사내는 드라마에 빠져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 때 언니가 생글생글 웃으며 들어선다.

“세상팔세야! 어케 시애비랑 붙어묵노?”

언니가 자기보고 하는 말인 줄 알고 사내더러 눈을 흘금 흘긴다.

“드라마-,”

사내가 화면을 가리키며 묻는다.

“재미보고 돈벌고, 얼마 받았어, 킁.”

언니가 뺨뺨한 만 원짜리를 한 움큼 흔들어 보인다.

“오랜만이네, 김씨”

언니가 사내 허벅지위에 엉덩이를 살짝 걸치며 아양을 한다. 사내는 싫은 기색 없이 찰싹- 쓰다듬는다.

“김씨, 온 김에 혜나한테 보험하나 들지 그래”

“.....”

“혜나야, 요즘 보험 돈 좀 되니? 남편은 연락 없고……. 망할 자식! 병신새끼 버리고 발 뺀고 잘도 살겠다.”

사내의 시선이 혜나의 아래위를 훑고 있다. 언니는 모질게 말을 뱉으며,

“생활은 되니?”

묻고는 담배연기로 도너츠를 만들어 휴- 뽐는다.

혜나는 친정식구랑 아는 지인의 명의로 여기저기 계약을 끌어다 대신 보험금을 넣고 있다는 것을 시시콜콜 까발리기 싫다. 워낙 내성적이고 살갑지 못한 성격에 언니가 그만두면서 물려준 계약조차 유지하지 못하는 게 못내 미안해서다. 벌써 달포 째 신규 계약이 없다. 거기다 승업이 선수금으로 받은 보험금마저 빌려간 이후로는 현금 서비스를 받아 생활하고 있다. 말을 못해 그렇지 죽을 맛이다.

“저녁에 시간돼?”

언니가 혜나의 눈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묻는다.

“나중에 저 앞 큰길가 있지, 로타리 노래방 앞에서 보자.”

언니는 헤나의 대답도 듣지 않고 약속을 정한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반술 된 엄마의 뉘두리가 시작된다. 나루의 발광이 있을 때면 엄마의 술주정이 이어진다.

“얼른 죽어야지. 죽을 때 저놈을 내가 거둬 가야 할 텐데……. 쫓쫓.”

엄마는 입버릇처럼 횡설수설 뱉어놓고는 한마디 덧붙인다.

“내 딸 인생을 망쳐놓고 자식이 아니라 웬수지.”

“엄마! 나루 들어.”

헤나가 손가락으로 입을 가리고 엄마의 말을 가로 막는다. 그래도 엄마의 뉘두리는 그칠 줄 모른다.

“으이그 못살아. 최서방은 왜 요즘 놀려 안와.”

승엽을 두고 한말이다. 헤나는 승엽의 이름이 나오자, 갑자기 승엽이 보고 싶어진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예고.”

엄마는 팔에 기부스한 나루를 힐끔 쳐다보며 소주잔을 들이킨다. 낮에 네 전화 끊고 잠깐 졸았는데 혼자 TV에 올라가 우당탕 넘어졌단다.

묻지 않았는데도, 오늘따라 엄마의 설명이 길다.

이른 저녁인데도 시내는 온갖 사람들로 시끌벅적 요란하다. 경제가 안 좋다고 아무리 악다구니해도 술집들은 벌써 취해 휘청한다. 헤나는 약속 시간에 맞춰 언니가 일러준 노래방 앞에 도착한다. 언니가 그녀와 연배가 비슷한 여자를 소개한다. 마흔이 넘어 보이는 여자는 꼭 낀 핫팬츠에 배가 빠죽했으나 당당해 보인다.

“아무 생각 말고 그냥 따라와.”

언니가 눈을 찡긐하며 손가락으로 따라오라는 시늉을 한다. 혜나는 여  
기저기 두리번거리며 2층으로 오른다. 노래라기보다 고향에 가까운 노  
래소리가 귓전에 파고든다. 언니가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는  
구석방으로 향한다. 혜나는 낯선 풍경이 자못 궁금하기도 하고 분위기에  
다소 들떠서나, 왁자한 소리에 곧 주눅이 든다. 몸살일까, 혼기가 느껴  
지는데도 온 몸이 씩늘하게 춥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사내 둘이 한 참 흥이 무르익었는지 이마에 베틀타이를 묶고는 좁  
은 무대에서 왔다갔다 야단법석이다. 한 사내는 소파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있다. 무대위에서 놀던 손님들이 언니들을 보자마자

“어이-”,

하며 외락 끌어안는다. 무대가 좁아 혜나는 엉거주춤 떠밀려 소파에  
주저앉는다. 사내가 잠깐 즐겼는지 털 깬 눈으로 혜나를 뻔히 들여다보  
며 묻는다.

“누구야, 당신?”

“.....”

양주잔이 왔다가고 그는 자랑스럽게 직업을 명함으로 보여준다. 종합  
병원 의사란다. 혜나는 의사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어디 쥐  
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다. 승엽에게 들킨 것처럼 부끄럽다. 괜히 미  
안하고 불안하다. 오늘 처음 언니 따라 왔는데……. 별일 있을 라고, 변  
명하여본다. 서른두 살이라는 의사는 혜나가 마음에 들었는지 술을 권하  
며 온갖 이야기를 건넨다. 결혼하기 전에 솔직하게 이것저것 즐기려 왔  
단다. 오늘 기대한다는 표정의 다섯 살이나 적은 의사가 혜나는 많이 부  
담스럽다. 그는 노래차레가 되었다며, 혜나를 강압적으로 끌고 무대로

나간다. 혜나가 멈칫하자 지갑에서 돈을 꺼내어 가슴에 붙쑥 넣는다. 혜나는 사내의 뺨을 세차게 후려치고 나와 버린다.

“아줌마!”

하고 급히 부르는 소리에 혜나는 허리를 숙여 경비실 안을 들여다 본다. 경비아저씨가 경매통지서를 건네주며 싸인을 요구한다. 통지서는 남편의 실종에 이어 사망을 알리는 증명서 같다. 혜나는 엘리베이터의 단추를 누른다. 동근 표시등에 갇힌 10이라는 숫자가 빨강게 변신을 한다. 엘리베이터가 요동치며 올라가자 혜나는 심한 두통으로 헛구역질을 한다. 어쩌면 남편의 존재는 이미 혜나의 머릿속에서 파산되어 나무토막 처럼 각인된 지 오래였다.

“혜나 왔냐?”

엄마의 목소리다. 나루는 TV에 얼굴을 맞대고 씨름하고 있다.

“저녁은 먹었어요?”

“최서방 왔다갔어”

승엽이 집에 들러, 압류 건을 해결해 준다고 하며 엄마에게서 기백만 원을 가져갔단다. 승엽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핸드폰이 꺼져있다. 어지럽다.

어느새 안방으로 자리를 옮긴 나루는 침대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반복한다. 혜나는 전혀 수배되지 않는 승엽이 오히려 걱정이다. 승엽이 다니는 병원으로 연락을 취해 본다. 어떤 관계냐고 묻는다. 혜나는 답변하기가 곤란하여 잠시 뜸을 들이는데 오히려 저쪽에서 승엽의 행방을 묻는다. 승엽이 주식으로 재산을 날리고 공금을 횡령하여 병원에서도 찾고 있다는 것이다.

“헤나야,”

언니가 헤나의 귀에 대고 속삭인다.

“이왕 도우미 할꺼면…….”

도우미는 헤나의 새로운 직업이 되어버렸다. 술도 꽤 늘고 노래도 몇 곡 쫘은 안보고도 술술 부른다. 손님들의 비위를 맞추며 팁을 받게끔 흥돈을 줄도 안다.

“오늘 손님은 그렇고 내가 아주 괜찮은 사람 소개해 줄게. 어때.”

언니가 주먹으로 ‘파이팅!’ 포즈를 취한다.

헤나는 나루를 수영장에 보내어 특수교육을 받게 하고 싶었다. 사실 다이빙에 소질이 있다는 것은 핑계고 나루를 엄마에게 하루종일 붙들어 두기도 그렇거니와 무엇보다 나루를 원수 대하듯 하는 엄마가 늘 불안하다. 헤나는 언니가 줘준 작은 메모지를 앞세우고 모텔로 향한다.

승엽의 얼굴이 떠올라 죄의식도 들었으나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모텔은 시내에서 동떨어진 곳으로 으스스한 골목길에 위치 해 있다. 색색의 차양막이 축 늘어져 바람에 흔들리며 일렁인다. 헤나는 주차장으로 포박 걸어간다. 차분하게 입구에 꾸벅하고는 303호실로 오른다. 아무리 힘들어도 몸을 판다는 것이 꺼림칙하여, 문 앞에서 멈칫한다. ‘썩어 문드러질 몸 아껴 머하노, 사내놈들 다 똑같아.’ 헤나는 언니의 술수정이 채근하는 대로 다시 마음을 다잡아 조심스레 노크를 한다. 문은 열려있다. 방안의 TV에서 여자의 신음소리가 새어나온다. 헤나는 신발도 벗지 않고 고개를 디밀어 방안을 들여다본다. 사내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화면에 시선을 박고 있다. 헤나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선다. 사내가 기다렸다는 듯이 와-락 달려든다.

“옷이나 좀 벗고…….”

혜나가 놀라 밀치는 시늉을 하며 사내에게 시선을 맞춘다.

승엽! 이다. 혜나는 정신이 혼미하다.

“혜나야, 혜나씨!”

어떻게 모텔을 나왔을까,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갔다. 안타까움과 미안한 고함으로 쫓아오던 승엽의 다급함이 주머니 속 핸드폰으로 악다구니 하듯 웅하고 울려댄다.

“내 얘기 한번만 들어줘!”

T.S. 엘리엇의 ‘황무지’라는 작품에서 ‘4월은 잔인한 달’이라는 문구가 이렇게 현실일 수가 없다.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듯…….’

혜나는 헛구역질을 겨우 누르고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한다. 핸드폰 진동음이 가라앉고 대신에 싸이렌 소리가 날 끝을 세워 혜나의 머릿속을 쥐어뜯는다.

“에-앵!-”

환청일까, 아파트 입구 신호등에 붙들린 택시를 피해 달아나는 엠브란스의 발광으로 엄마의 웃음소리가 뿌옇게 채워지고 있다.

일탈을 악(나의 생각에는 개성이라 여겼음)이라 규정하고 나를 돌아본다. 다수가 지배하는 도덕이라는 이념은 나를 늘 불안하게 만들었다. 무엇이 선이고 윤리이며 옳고 그름의 차이는 무엇인가? 나이 불혹에 아직도 이십대의 치기를… 감내하기란 현실적인 제약이 너무 많다.

일탈을 나열해보면 술, 늦은 귀가, 헤폰 씹셈이, 게으름, 간섭, 무관심, 생색내기, 무사… 글을 쓸 수밖에 없는 경험과 재주를 내세워 나를 개성으로 구속할 게 아니라, 다로부터 파생된 문제는 묻어두고, 내가 나서야 된다는 욕심을 이 기회에 일부 수정을 가해본다. 나를 제외한 모든 것의 왕따(?)는 혁신이 아니라 고집이었음의 깨달음이 더 큰 소득이지 않을까……?





## 동 시 부 분

최 우수 상

할머니와 느티나무 \_ 전세중 \_ 329

우 수 상

나무들의 말 \_ 안태현 \_ 331

새싹 \_ 김재욱 \_ 334

장 려 상

고향사계(여름) \_ 조석래 \_ 335

벌초 \_ 김현욱 \_ 337

빨래개기 \_ 변정섭 \_ 339

이 뽑던 날 \_ 김여선 \_ 341

잠꾸러기 씨앗 \_ 강성남 \_ 343





최우수상

# 할머니와 느티나무

할머니는 하늘을 바라본다.

소나기 한 줄기 내렸으면 하는 눈치다.

그러나 하늘은 맑기만 하다

매미는 연신 뜨거운 울음을 뿔어낸다

잠자리는 즐겁게 하늘을 날아다닌다.

할머니는 우는 손자를 달래주려고

느티나무 밑에 있는 의자에 앉았다.

그들과 놀기 시작했다.

손자는 그들을 만지작거리며 웃었다

그들은 할머니의 주름 구석구석에 맺힌

땀방울을 닦아 주었다

이따금 가지에 얹었던 실바람이 내려와

할머니의 굵은 어깨를 만져주었다.

햇볕은 느티나무 주위를 빙 둘러서서

그들 속으로 들어오려고 애를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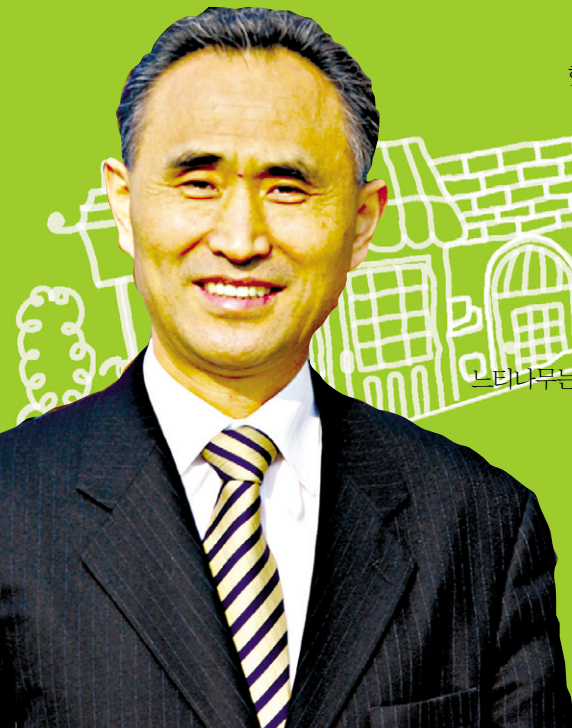
해가 산 넘어 갈 무렵

할머니는 어깨의 그들을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갔다.

느티나무는 40년 전에 할머니가 심은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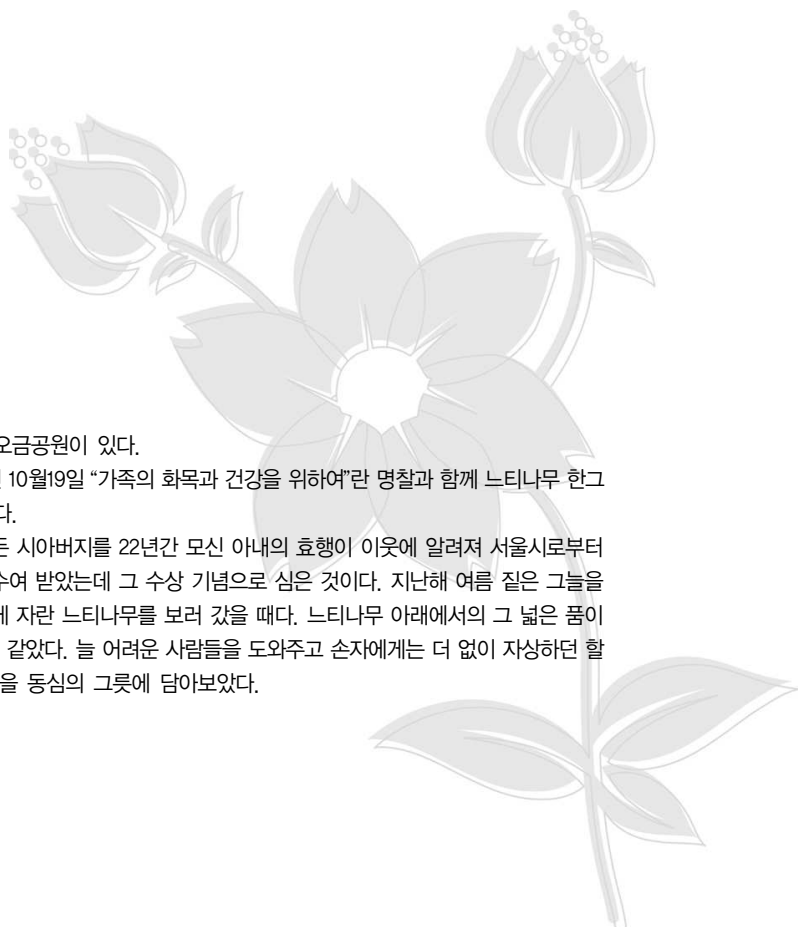
서울소방방재본부  
전세중



서울 송파구에는 오금공원이 있다.

우리가족은 1999년 10월19일 “가족의 화목과 건강을 위하여”란 명찰과 함께 느티나무 한그루를 공원에 심었다.

그 느티나무는 병든 시아버지를 22년간 모신 아내의 효행이 이웃에 알려져 서울시로부터 어버이날 표창을 수여 받았는데 그 수상 기념으로 심은 것이다. 지난해 여름 짙은 그늘을 드리울 정도로 크게 자란 느티나무를 보러 갔을 때다. 느티나무 아래에서의 그 넓은 품이 할머니의 너그러운 같았다. 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손자에게는 더 없이 자상하던 할머니였다. 그 느낌을 동심의 그릇에 담아보았다.





우수상

# 나무들의 말

의정부 어룡초교 \_ 안태현

나무들은  
말이 하고 싶을 때마다  
가지 하나씩  
허공으로 뻗친다.

꼭꼭 참았다가  
아무도 모르게  
가지 끝에 실어 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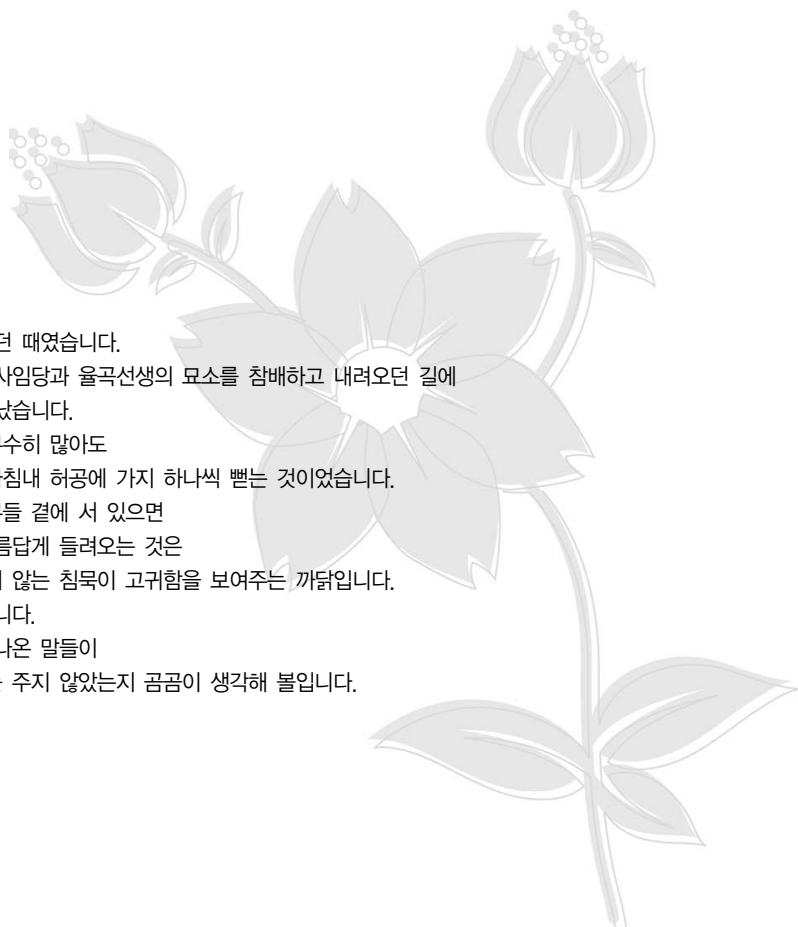
나무들은  
말이 듣고 싶을 때마다  
가지를 흔들어난다.

바람 부는 날  
가만히 귀 기울이면  
췌르르-췌르르

노란 즙샬 같은  
나무들의 말이 들려온다.



봄기운이 막 움트던 때였습니다.  
자운서원에 들러 사임당과 율곡선생의 묘소를 참배하고 내려오던 길에  
나무들의 말을 만났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무수히 많아도  
꼭 참고 참아서 마침내 허공에 가지 하나씩 뺏는 것이었습니다.  
바람 부는 날 나무들 곁에 서 있으면  
나무들의 말이 아름답게 들려오는 것은  
함부로 나불거리지 않는 침묵이 고귀함을 보여주는 까닭입니다.  
말이 많은 세상입니다.  
내 입속에서 흘러나온 말들이  
누구에게나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입니다.





우수상

# 새싹

노마야,  
일루와 봐  
얼른 와  
요걸 보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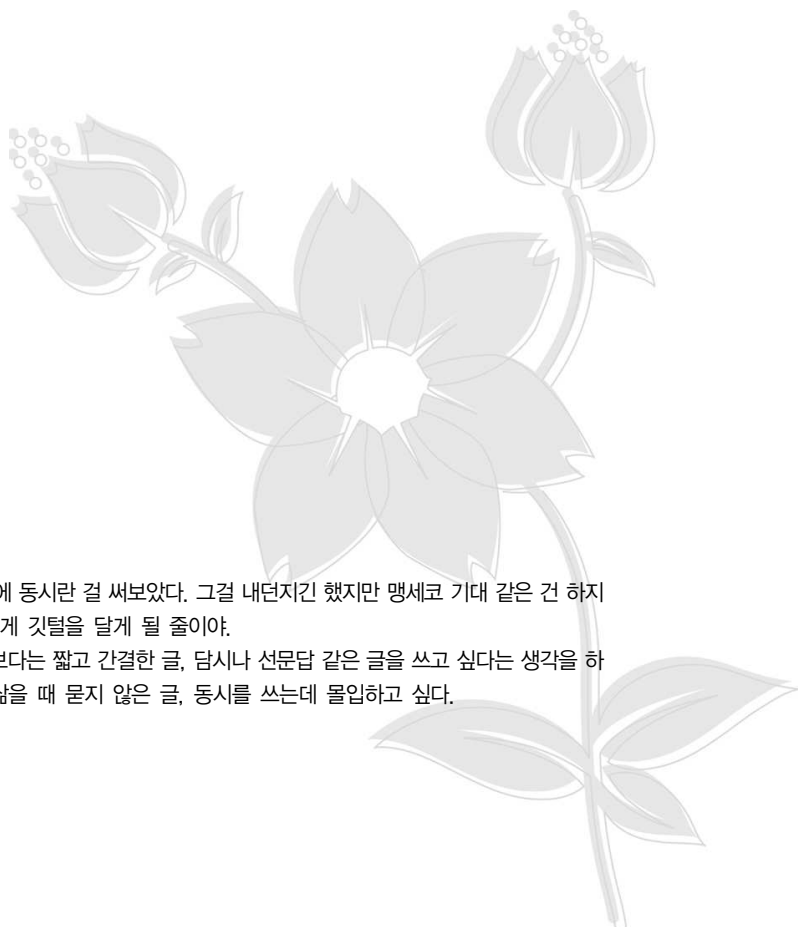
요요 쪼그만 게 말야  
연하다. 연한  
요 새싹이 말야  
까만 흙덩이를 밀어 올렸지 뭐야  
지구의 한 꼭지를

불끈 들어 올렸지 뭐야.  
정말  
정말  
요렇게 쪼그만 게  
어디에 힘이 있다고  
지구를 떠받쳐  
하늘을 열 수 있었을까?

서천 송석초교  
김재욱



이순(耳順)의 문턱에 동시란 걸 써보았다. 그걸 내던지긴 했지만 맹세코 기대 같은 건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게 깃털을 달게 될 줄이야.  
언제부터인가 긴 글보다는 짧고 간결한 글, 담시나 선문답 같은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남은 삶을 때 묻지 않은 글, 동시를 쓰는데 몰입하고 싶다.





장려상

## 고향사계(여름)

먹 감기

바다는 안 마당

더울 때 언제든 마구 뛰어드는 여름

산적놀이

포구나무 위 이불 집 짓고

영구와 놀다 떨어져 목발 짚고도

그 방안에 의젓이 앉아

담뱃대 물고 할바시 흥내 내는 여름

방학 책 풀기

미루나무 밑 들담 틈새로

현해탄 바닷바람 쏘솔 불고

앞새 그림자 무늬 질 때

침 묻혀 쓰다 부러진 연필심 망하니 쳐다보는 여름

옥수수 먹기

굴뚝 연기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초저녁

엄니 찌준 그 달디단 맛에 마구 뜯어먹는 여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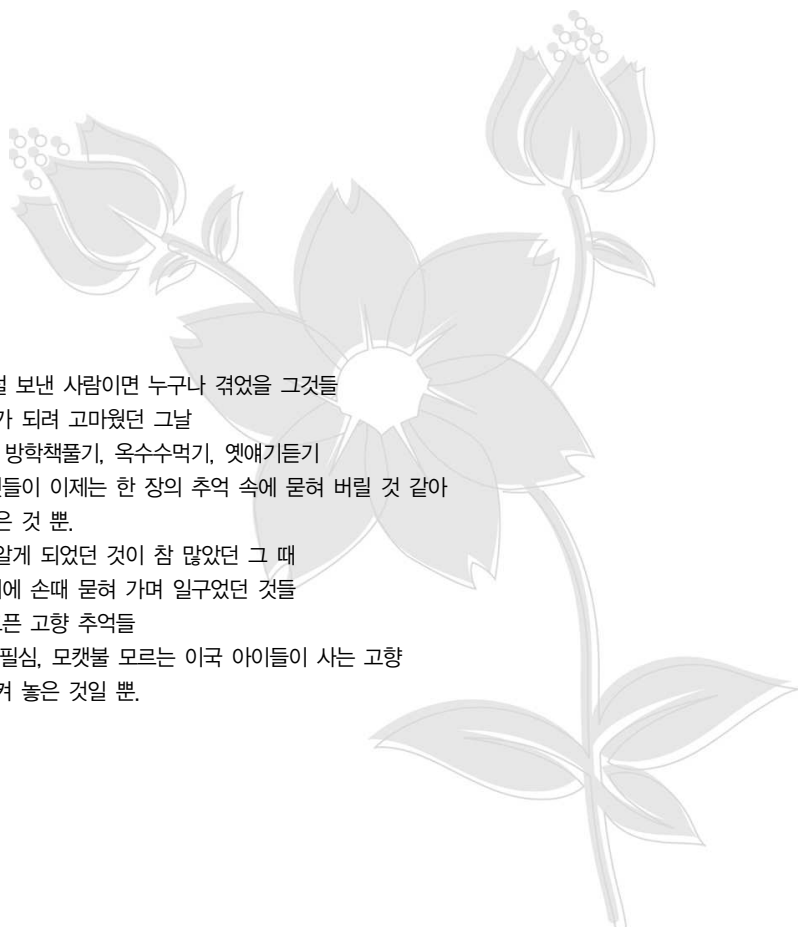
옛 얘기 듣기

평상 위에서 속내를 비릿한 모캣볼 연기 목에 콕콕 끼어

기침에 눈물에 그래도 소금장수 얘기 듣고 또 듣는 여름

서울특별시 경알고  
조석래

1960년대 유년시절 보낸 사람이면 누구나 겪었을 그것들  
 특히 여름 무더위가 되려 고마웠던 그날  
 먹감기, 산적놀이, 방학책풀기, 옥수수먹기, 옛얘기듣기  
 일상적이었던 그것들이 이제는 한 장의 추억 속에 묻혀 버릴 것 같아  
 종이에다 옮겨 놓은 것 뿐.  
 가난하기 때문에 알게 되었던 것이 참 많았던 그 때  
 아날로그 시대이기에 손때 묻혀 가며 일구었던 것들  
 소중하게 간직하고픈 고향 추억들  
 포구나무, 몽당 연필심, 모켓볼 모르는 이국 아이들이 사는 고향  
 덩덩히 문자화 시켜 놓은 것일 뿐.





장려상

# 벌초

포항 구룡포초교 \_ 김현욱

어려선  
할머니의 흰머리를 뽑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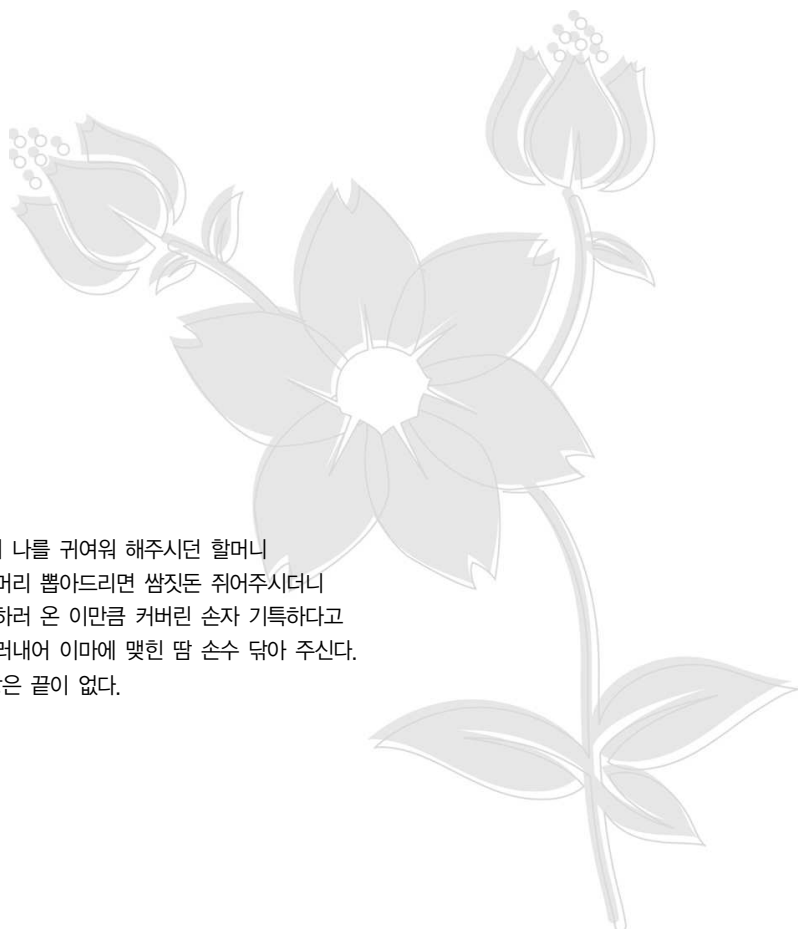
그럴 때마다  
쌈지 속 꼬깃꼬깃한 용돈  
내어 주시던 할머니

이제는  
할머니 무덤 위에 자란 초목머리를 뽑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원한 산바람 불어내어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  
닦아 주시는  
우리 할머니



장손이라고 그렇게 나를 귀여워 해주시던 할머니  
살아 계실 때 흰 머리 뽑아드리면 씹짓돈 쥐어주시더니  
할머니 산소 벌초하러 온 이만큼 커버린 손자 기특하다고  
시원한 산바람 불러내어 이마에 맺힌 땀 손수 닦아 주신다.  
할머니의 내리사랑은 끝이 없다.



장려상

# 빨래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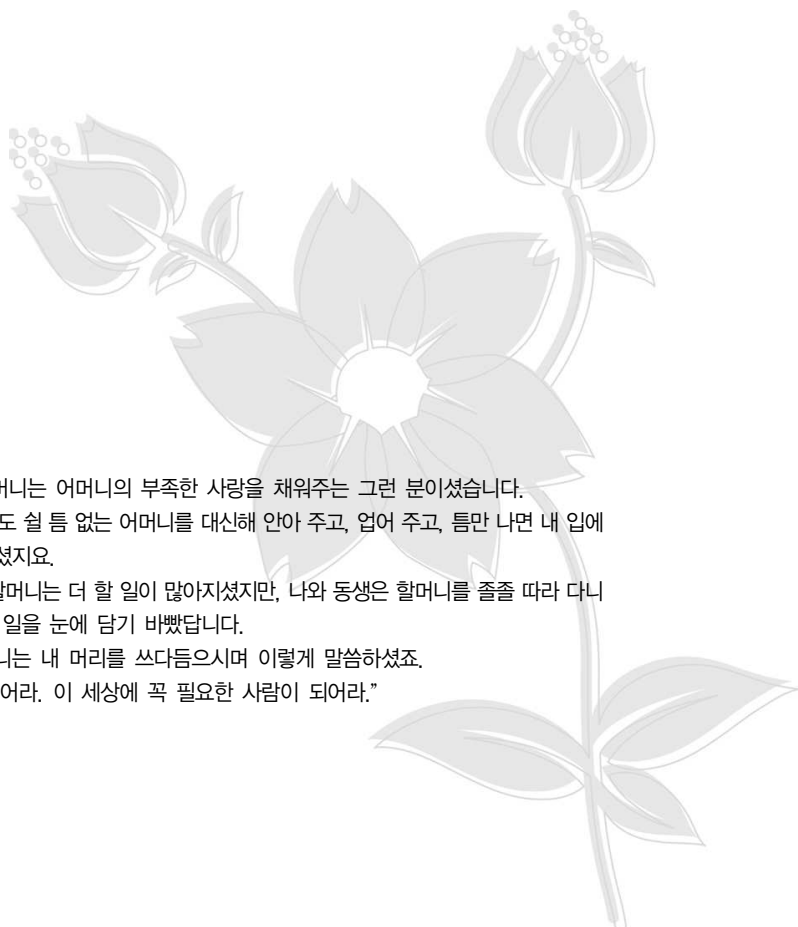
할머니는  
나를 대하듯  
동생을 대하듯  
정성스레 빨래를 개신다.

“반듯하게 개어진 이 옷처럼  
반듯한 사람이 되거라.”

대구광역시 매천초교  
변정섭



어린 시절, 내 할머니는 어머니의 부족한 사랑을 채워주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들로, 산으로, 잠시도 쉴 틈 없는 어머니를 대신해 안아 주고, 업어 주고, 틈만 나면 내 입에  
먹을 것을 공수하셨습니다.  
동생이 태어나자 할머니는 더 할 일이 많아지셨지만, 나와 동생은 할머니를 졸졸 따라 다니  
며 할머니 하시는 일을 눈에 담기 바빴습니다.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듯한 사람이 되어라.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장려상  
이 뽐던 날

이 뽐던 날  
병원 앞 목련꽃이  
내 앞니처럼  
하얇게 떨어지고 있었다.

쭈욱  
목련꽃잎처럼 떨어지는  
하얀 앞니 하나

키득키득  
웃음 소리가  
하얇게 들린다.

앞니 빠진  
내 얼굴 보고  
웃고 있을  
친구들이 생각나서

목련꽃 지던 날  
거울을 바라보고  
키득키득  
나도 한 번  
웃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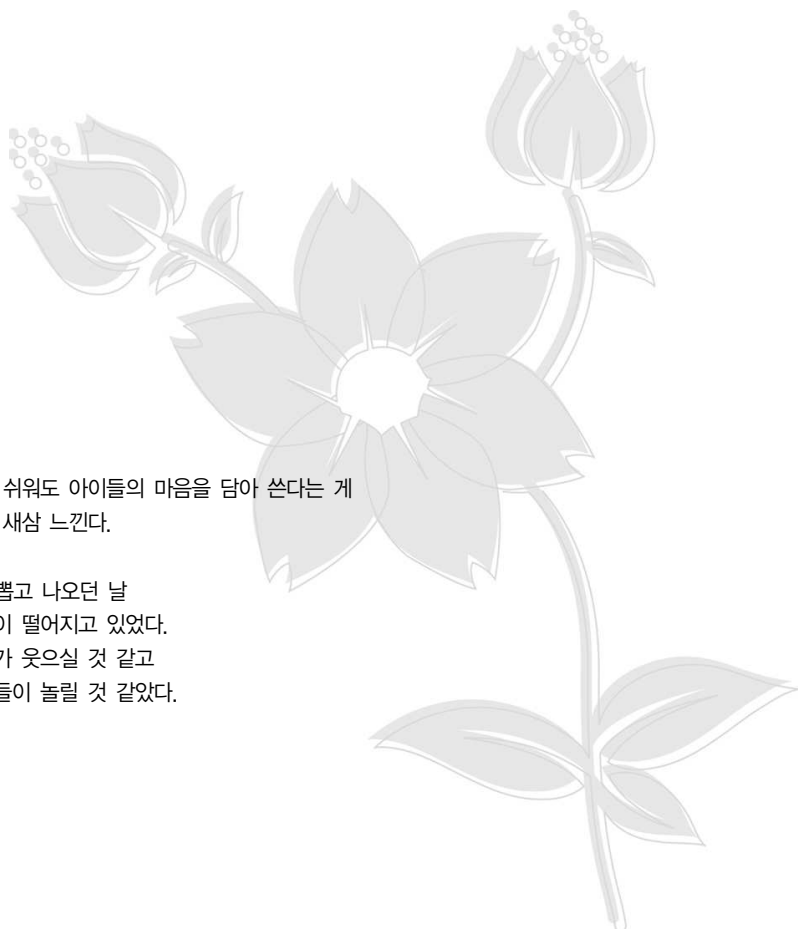


영양 입암초교  
김여선



동시를 읽는 것은 쉬워도 아이들의 마음을 담아 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님을 새삼 느낀다.

3학년 아이의 이 뽕고 나오던 날  
치과 앞에 백목련이 떨어지고 있었다.  
집에 가면 할머니가 웃으실 것 같고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놀릴 것 같았다.





장려상

# 잠꾸러기 씨앗

우리 집 텃밭에

엄마랑 아빠랑 나란히 씨앗을 심고요

할머니와 나랑 씨앗을 심었어요

엄마 아빠가 넣은 씨앗은

파릇파릇 아지랑이 손잡고 놀아요

할머니와 나랑 넣은 씨앗은

잠꾸러기인가 봐요

할머니와 나랑 덮어준

흙 이불이 너무 두껍나 봐요

가만히 귀 기울여보면

드르릉 쿵쿨 푸~~우후

살며시 코를 간질여 봐요

귀찮은 듯 손을 저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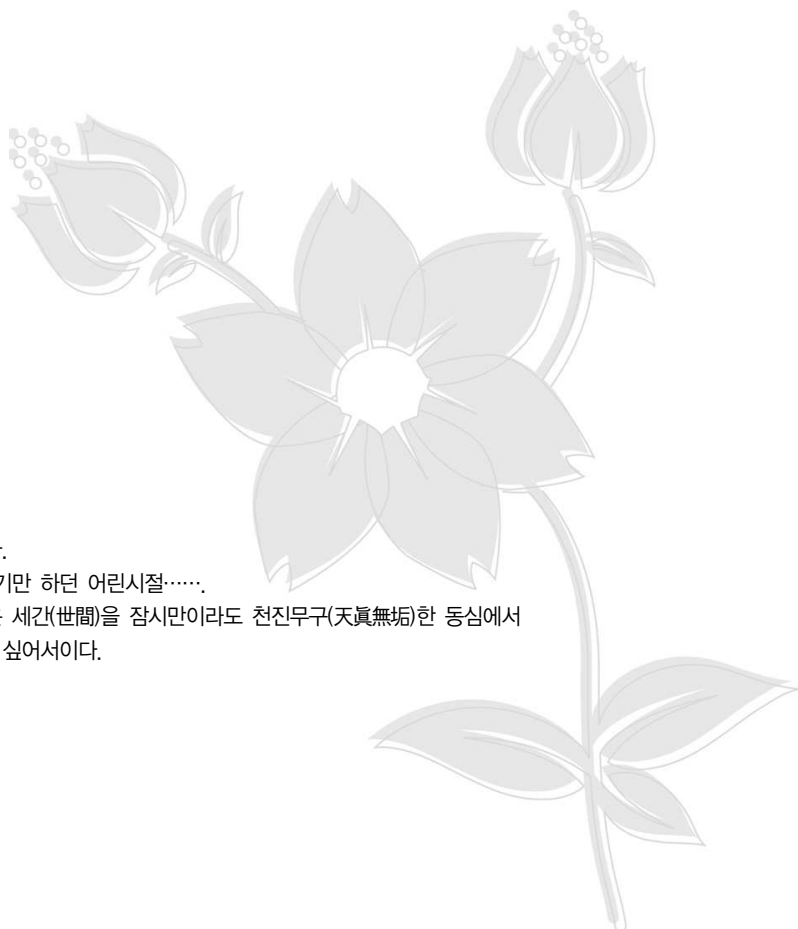
눈을 사~알 짝 떴다가

스르르 다시 감아요



전남 담양군  
강성남

돌아가고 싶어서다.  
하루가 마냥 즐겁기만 하던 어린시절…….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간(世間)을 잠시만이라도 천진무구(天真無垢)한 동심에서  
나를 발견해 보고 싶어서이다.  
오늘도 내일도





## 동 화 부 분

### 최 우수 상

못생긴 돌멩이 \_ 정재학 \_ 347

### 우 수 상

미모사 \_ 천순덕 \_ 359

할머니와 어미새 \_ 기은영 \_ 377

### 장 려 상

까만 운동화 \_ 이해숙 \_ 385

내 마음의 잠금장치 \_ 오영웅 \_ 397

비누방울 콩 \_ 천효정 \_ 411

아빠의 집 \_ 김경희 \_ 423

양동이 꽃 \_ 김현옥 \_ 433





최우수상

# 못생긴 돌맹이

“아기돌맹이야,  
아기돌맹이야.”

반가운 마음에 올려보니 높은 꼭대기에 엄마가 보였습니다. 엄마바위는 다정스런 목소리로 아기돌맹이를 불렀습니다. 아기돌맹이는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

“아가야, 희망을 잃지 마라.

곧 형들과 만날 거야.”

곧 구름이 엄마바위를 가리자, 엄마바위는 메아리로 아기 돌맹이를 응원하였습니다.

“희망을 잃어서는

안돼, 안돼, 안 돼…….”

—본문중에서—



영임 모포중  
정재학



## 못생긴 돌멩이

어느덧 산에는 성깔을 부리던 북풍도 바위 위에 하얗던 서리도 사라졌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던 것이죠. 저쪽 산 아래로 아지랑이가 물안개 처럼 몰려오는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해빙기가 되자 겨우내 얼어붙었던 것들이 모두 풀어지기 시작하고 산골짜기엔 얼음이 녹아 졸졸 물소리를 내며 흐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커다란 암마바위에서 작은 아기돌멩이가 떨어져 나왔습니다.

“아음, 잘 잤다.”

아기돌멩이는 기지개를 켜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둘러보았습니다. 높은 산봉우리에서 보는 세상은 너무도 넓어보였습니다.

“이제 일어났니? 어때, 너무도 넓은 세상이지?”

암마바위가 아기돌멩이를 품에 안으며 물었습니다. 아기돌멩이는 암마 품에서 다시 한번 세상을 둘러보았습니다. 높고 푸른 산 너머로 또 다른 산이 보이고, 산과 산 사이에는 비단실 같은 긴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는 저 강물 있는 먼 곳까지 가 보았어요?”

“아니, 갈 수 없었어. 난 다리도 없고 무거워서 구를 수도 없단다. 엄마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이곳에서 살고 있단다.”



엄마바위는 슬픈 표정으로 아기돌멩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그러면 나도 엄마처럼 이곳에서 살아야 돼?”

아기돌멩이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냐, 넌 가벼워서 굴러갈 수가 있어. 네 형과 누나들도 벌써 떠났어. 아마 지금쯤은 모두들 저어기 큰 강물 가까운 곳까지 갔을 거야. 너도 곧 떠나게 될 거야.”

“그때가 언제인데요?”

아기 돌멩이는 궁금해졌습니다.

“응, 그때란 큰비가 오는 날이야.”

그때부터 아기돌멩이는 큰비를 기다렸습니다. 엄마랑 헤어지기 싫었으나, 형들과 누나들이 먼저 갔다는 강물이 있는 곳이 가보고 싶었습니다.

“열목어가 사는 곳을 지나면 어름치나 쉬리가 살고 있는 곳이 나올 거야.”

엄마바위는 그 먼 곳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근데, 엄마는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그런 걸 다 알아?”

“응, 새들이 알려주었던단다. 그리고 그곳을 다녀온 사슴도 고라니도 가끔씩 그곳 이야기를 들려주었어.”

그러던 어느 날 아기돌멩이는 자기 얼굴이 몹시도 못생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침, 엄마바위 가슴에 고인 이슬물 속에 비친 얼굴을 보았던 것이죠. 얼굴은 크고 납작하고 머리털은 뽀죽뽀죽 튀어나온 얼굴이었습니다. 아기돌멩이는 슬퍼했습니다.

“걱정 말아라, 아가야. 넌 곧 예뻐질 거야.”

“그때가 언제인데요?”

아기돌멩이가 묻는 말에 엄마바위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응, 큰비가 오는 날이야.”

그래서 아기돌멩이는 큰비가 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형들과 누나에게 가는 날도 그리고 얼굴이 예뻐진다는 날도 모두 큰비가 오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산에는 곧 진달래가 지고 철쭉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나 철쭉도 지고 산나리꽃이 필 무렵, 바람이 불고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바위는 아기돌멩이를 꼭 껴안아 주면서 이렇게 속삭여 주었습니다.

“아가야, 이제 떠날 준비를 하거라.”

아기돌멩이도 엄마바위 볼에 뽀뽀를 하여 주었습니다.

“엄마, 엄마가 보고플 때는 어떻게 해야 해요.”

“염려 말아라. 네가 있는 어느 곳이든 위로 올라보면 엄마가 보일 거야. 큰소리로 부르면 돼요.”

곧 천둥이 울리고 굵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 세찬 빗물에 아기돌멩이는 엄마바위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엄마, 안녕.”

아기돌멩이는 산 아래로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굴렀던지 얼굴이 얼얼하고 온몸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아기돌멩이는 쉬지 않고 아래로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큰나무 등치에 부딪혀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을까. 눈부신 햇살이 비치는 계곡물 속에서 아기돌멩이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보드라운 물결이 얼굴을 스쳐갔습니다.

“아, 물속이구나.”

산천어 한 마리가 아기돌멩이 곁을 지나가면서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안녕, 못생긴 아기돌멩이야.”

갑자기 주위에서 킁킁 웃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둘러보니, 어느 새 많은 조약돌들이 아기돌멩이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모두 동글동글한 예쁜 돌들이었습니다. 어떤 돌은 분홍빛으로, 어떤 것은 까만 눈을 가진 돌들도 있었습니다. 아기돌멩이는 부끄러워졌습니다.

아기돌멩이 몸은 거친 회색빛 화강암이었습니다. 게다가 얼굴은 납작하고 털들은 뽀죽뽀죽하고, 그리고 구르다 보니 얼굴은 파란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디 하나 예쁜 곳이 없는 아기돌멩이는 그만 그곳을 도망쳐 나와 큰 바위 밑으로 숨었습니다.

그렇게 숨어있던 어느 날 아기돌멩이는 엄마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기돌멩이야, 아기돌멩이야.”

반가운 마음에 올려보니 높은 꼭대기에 엄마가 보였습니다. 엄마바위는 다정스런 목소리로 아기돌멩이를 불렀습니다. 아기돌멩이는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

“아가야, 희망을 잃지 마라. 곧 형들과 만날 거야.”

곧 구름이 엄마바위를 가리자, 엄마바위는 메아리로 아기돌멩이를 응원하였습니다.

“희망을 잃어서는 안 돼, 안 돼, 안 돼…….”

희망을 잃지 마라는 엄마의 말은 ‘구르기를 멈추지 마라’는 뜻임을 아기돌멩이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응원에 힘을 얻은 아기돌멩이는 다시 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낮엔 주위의 놀림 때문에 길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을 택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어느 날은 어두운 밤길을 걷다 그만 깊은 웅덩이에 빠지고 말았습니

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지친 몸을 쉬고 있자니까, 어름치 한 마리가 다가와 아기돌멩이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아기돌멩이야, 네가 내 알을 품어주면 내가 너를 입으로 물어 옮겨줄게.”

아기돌멩이는 승낙했습니다. 그러자 어름치는 아기돌멩이 밑에 분홍빛 어여쁜 알을 낳았습니다. 아기돌멩이는 어름치 알들이 물살에 흘러가지 못하게 꼭 품에 안았습니다. 알들은 보석처럼 아름답고 빛났습니다. 어미 어름치는 아기 돌멩이 곁에서 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 이주일이 지나던 날 알 속에서는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눈이 생기고 꼬리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아가야.”

어름치 어미는 곧 알들이 깸 것을 알고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알들은 어미의 부름을 듣고 하나둘씩 알 껍질을 깨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귀엽고 앙징스런 꼬리를 흔들며 엄마 곁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고맙다, 아기돌멩이야.”

어미 어름치는 약속대로 아기돌멩이를 물어 웅덩이 밖으로 옮겨주었습니다.

“안녕, 아기 어름치들아.”

곧 아기돌멩이는 길을 떠났습니다. 그 모습을 엄마바위는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잘 했다, 아가야.”

그렇게 길을 떠나던 아기돌멩이가 하루는 물 가장자리에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무당개구리 한 마리가 아기돌멩이 위로 올라왔습니다.

“넌 어디서 왔니.”

무당개구리는 빨간 배를 내보이며 거만하게 물었습니다. 아기돌멩이는 그런 무당개구리가 우스웠습니다. 큰 입이며 디룩디룩한 눈에 못 생긴 다리하며 빨간 배는 아기돌멩이가 보아도 너무 못생겼습니다. 아기돌멩이는 제 신세를 잊고 그만 웃고 말았습니다.

“왜 웃는 거니?”

그러면서 뻥히 바라보던 무당개구리도 웃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못생겼지만, 너도 참 못생겼구나.”

둘이는 서로의 모습에 마주 보며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서로 못생긴 친구야. 그래서 난 네가 참 좋구나.”

아기돌멩이는 그날 하루를 그곳에서 지내기로 하였습니다. 별이 떴습니다. 반짝이는 별들 사이로 엄마바위 얼굴이 아주 조그맣게 보였습니다. 어느 새 멀리 왔던 것이지요.

“저 바위가 네 엄마니?”

무당개구리가 물었습니다.

“응, 우리 엄마야. 너도 엄마가 있니?”

무당개구리는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있었지만 지금은 안 계셔.”

“왜애?”

놀란 아기돌멩이에게 무당개구리는 엄마가 돌아가신 사연을 들려주었습니다.

“진년 골짜기에 사는 못 된 능구렁이 때문이야.”

진년편 골짜기에는 능구렁이 가족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능구렁이들이 이 골짜기에 무당개구리 가족들이 산다는 말을

듣고 골짜기를 넘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다 잡아먹히고 이제는 형제 몇 남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는 생각다 못해 두꺼비 아저씨를 찾아왔지만,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아마 물가에 살 것이라고 생각해서 며칠째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단다.”

“형제들은 어디 있니?”

“저어기 나무 숲 뒤에 숨어있어. 함께 모여 있으면 위험해서 말이지.”

그러더니 무당개구리는 나무 숲 뒤를 향해 조그맣게 몇 번 개굴개굴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어둠 속에서 몇 마리 무당개구리가 나타났습니다.

“이리 와. 인사해. 여기는 아기돌멩이야.”

아기돌멩이와 무당개구리 형제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고, 물가에서 밤을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새벽녘이었습니다. 갑자기 숲이 고함소리로 흔들렸습니다.

“아, 두꺼비 아저씨다.”

무당개구리 형제들은 그 소리가 두꺼비 아저씨임을 알아차렸습니다.

“능구렁이와 싸우고 있어.”

풀숲을 쓰러뜨리며 무언가 굴러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디어 어둠 속에서 두꺼비를 감은 능구렁이가 마치 솜뭉치처럼 굴러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곧 물속으로 침범 떨어졌습니다. 몸이 감긴 두꺼비 아저씨는 손발을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저씨가 위험해. 우리도 돕자.”

무당개구리 형제들이 능구렁이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능구렁이는 너무 큰 놈이었습니다.

“악!”

무당개구리 한 마리가 능구렁이 꼬리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그걸 본 아기돌멩이는 분노했습니다. 착하기만 한 무당개구리 형제들. 아기돌멩이는 무당개구리들을 돕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물결에 동실 몸을 실었습니다. 회심의 미소를 띠며 막 두꺼비아저씨의 머리를 물려고 하는 찰나에, 아기돌멩이는 능구렁이 머리를 향해 쏜살같이 부딪혀 갔습니다.

“깡!”

이 한방에 능구렁이는 큰 타격을 받았는지, 외마디 비명소리를 지르며 나가떨어졌습니다. 능구렁이 몸에 힘이 빠지고 드디어 길게 배를 드러내 보이자, 마침내 몸이 자유로워진 두꺼비 아저씨가 능구렁이 목을 졸라대기 시작했습니다. 무당개구리 형제들도 힘을 내어 능구렁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윽고 능구렁이가 힘없이 물살에 떠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만세!”

두꺼비 아저씨와 무당개구리들은 서로 껴안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너희들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너희를 찾아다녔는지 모른다. 그리고 고맙다, 아기돌멩이야.”

날이 새자, 두꺼비 아저씨는 살아남은 무당개구리 형제들을 데리고 숲속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 아기돌멩이를 위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생김새는 별로 중요하지 않단다. 아름다운 것은 얼굴이 아니라 마음이지. 생각해 봐. 네 모습이 어떻더라도 우리를 도운 너의 아름다운 마음씨에 우린 이렇게 감동하고 있지 않니. 그러나 얼굴은 감동을 줄 수 없단다.”

두꺼비 아저씨가 남긴 말을 새기던 아기돌멩이는 무언가 깨닫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낮에도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부끄러워 할 필요가 없어. 중요한 것은 마음이니까.”

다시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곡엔 단풍잎이 빨갛게 물들면서 떨어지고, 기러기들이 날아오고, 하얀 눈이 쌓였습니다. 아기돌멩이도 흰 눈 속에 겨울을 보냈습니다. 다시 봄이 오자, 엄마바위는 아기돌멩이에게 먼 길을 가라고 일렀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다시 큰물이 지고 정신없이 흘러가던 어느 날, 반짝이는 햇살 속에서 눈을 뜬 아기돌멩이는 정다운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 화색빛 돌멩이. 넌 내 아우구나.”

“아.”

아기돌멩이는 주위에 모여 있는 엄마바위처럼 생긴 화색빛 돌멩이들을 보았습니다. 엄마바위가 일러준 형제들이었습니다.

“어머나, 우리 막내가 이렇게 예쁜 조약돌이었다니.”

그 중 제일 예쁘게 생긴 누나 조약돌이 다가왔습니다.

“못 믿겠지? 수면을 보렴. 우리도 처음엔 못생긴 돌멩이였단다.”

수면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본 아기돌멩이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곱게 빛은 머릿결, 동글동글한 얼굴엔 지난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부딪히고 깨지던 얼굴의 멍과 상처도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쉬지 않고 굴러온 너의 노력이지.”

만형이 아기돌멩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형제들이 모였습니다. 멀리서 웃고 있는 엄마바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내가 근무하고 있는 영암도포중학교는 월출산이 마주 바라보이는 곳이다. 그 옛날에는 영산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들이 정박하던 곳이어서 도포라는 포구로 불리우던 곳이다. 그러나 지금은 영산강 하구언으로 인해 뱃길이 막히고 많은 간척지가 생기면서 드넓은 평야가 된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가을이면 끝도 없는 들판에 벼들이 황금빛으로 반짝이는 아름다운 곳에 학교가 있다.

우리 학교에는 학생수가 모두 전 학년 통틀어 36명이다. 마치 영화 ‘선생 김봉두’의 배경처럼 느껴지는 작은 학교다. 이 작품은 수업시간에 ‘소재 찾기’ 연습을 할 때, 한 여학생이 제시한 소재이다.

“선생님, 못생긴 돌멩이가 이쁜 조약돌로 변하는 과정을 글로 옮기면 좋겠어요.”

괜찮겠다고 생각한 나는 이 소재를 가지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목표하는 바에 다다를 때까지 노력하면 이를 수 있다.’는 주제를 그려 보이기로 하였다. 구상이 끝나고 작품이 완성될 때까지는 불과 2시간 30분 정도 걸렸지만 아이들은 크게 만족하였다.

“아하, 글은 그렇게 쓰는 거로구나.”

글짓기 시범을 보이는 과정에서 탄생된 이 작품은 마침내 공무원 문예대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행복하지만, 이 모든 것은 아이들 덕분이다. 상금을 받으면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려 한다.

“선생님, 아이스크림 아니 사이다, 아니 케익이요, 케익!”

학교가 며칠 시끄러울 것이다.





우수상

# 미 모 사

갓 태어난 아이에게 눈을 맞추는 엄마처럼 꽃눈을 정신없이 바라보았다.

내 미모사는……. 어두컴컴함 사물함 안에서 낮이나 밤이나 잠만 자고 있을 텐데, 시원한 공기도 마셔야 하고 햇빛도 쏘여야 하고 물도 줘야 할 텐데,

-본문중에서-



화순 동면초교  
천순덕

## 미 모 사

우리들이 가지고 온 크고 작은 화분들이 창가에 하나 둘 놓이기 시작했다. 교실이 환해졌다. 꽃이 탐스럽게 피어있는 양란부터 봉숭아까지……. 큰 화분이 들어 올 때마다 선생님은 활짝 핀 꽃처럼 웃었다. 지혜는 한 그루의 철쭉나무에서 여러 가지 색깔의 꽃이 피어있는 묵직한 도자기 화분을 가지고 왔다. 무엇이든지 잘 하려고 욕심이 많은 지혜만큼이나 화분도 다른 아이들에 비해 컸다. 나는 미모사를 조그만 공간에 그늘이 있는 지혜 화분 옆에 두었다.

“우리 집에서 채송화 한 그루 가지고 올까? 손만 닿으면 금방 죽은 것 같이 시들어 버리는 이상한 풀이 교실에 있으면 되겠니?”

지혜는 미모사를 보고 못 마땅한 표정을 지었다.

“이 미모사는 자기를 지키려고 잎이 오그라든다는데.”

“뭐! 이것이 풀이니? 꽃이니?”

“꽃도 핀데. 약해 보이지만 약한 것이 아니야. 나도 자신의 주장을 확실히 할 줄 아는 이 미모사를 닮고 싶어.”

“못 말린다. 정말.”

지혜는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다.

햇살이 환한 창가에 예쁜 꽃들이 폭죽 터지듯 꽃망울을 터트렸다. 살랑살랑 부는 봄바람에 교실 분위기도 술렁거렸다. 지혜는 강산이가 남자

친구라는 소문을 여기저기 내고 다녔다. 미래까지 약속한 사이라고, 얼마 정도도 설치고 다니는 지혜는 다른 아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나는 오히려 당당한 지혜가 부러울 뿐이었다. 내게 강산이는 창가의 화분처럼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리움이었다.

나는 창가에 있는 내 화분을 자주 바라봤다. 공부시간에도 쉬는 시간에도 청소 시간에도, 다른 아이들이 물을 너무 많이 주지는 않는지, 햇볕을 너무 많이 쬐지는 않는지, 오늘은 얼마나 자랐는지 궁금하기 그지 없었다. 화사한 철쭉꽃 옆의 미모사는 초라하리만치 작고 볼품없지만 나에게겐 아주 소중한 보물 같았다.

오늘은 개나리색 투피스를 입은 선생님이 칠판에 수학 문제를 가득 풀어나갔다. 선생님이 풀밭에 나풀나풀 날아다니는 나비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도 모르게 피식 웃었다. 병긋병긋 열리는 선생님 입을 멍하니 바라본 것 같은데 내 고개는 어느새 창 쪽으로 돌아가 있었다.

선생님은 설명을 하다 말고 나를 여러 번 주시했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창 쪽만 보고 있었다.

“한다벤!”

깜짝 놀라 선생님 얼굴을 쳐다봤다. 분필을 놓고 팔짱을 낀 선생님이 커다란 눈으로 나를 쏘듯이 보고 있었다.

우리 반에서 수업 태도가 좋지 않아 지적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나다. 그런데 또 걸리고 말았다.

“공부 시간에 또 딴 짓 한다. 대체 수업시간마다 창 쪽을 보는 이유가 뭐야?”

“미모사 본대요.”

나서기 좋아하는 수완이었다.

“미모사?”

“철쭉꽃 옆에 있는 못난이 풀이요.”

“응, 이상한 풀? 쉬는 시간에 버려라. 다빈이 버릇이 더 나빠져서 공부하는데 방해된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내가 얼마나 좋아하고 아끼는 화분인데.

다른 아이들이 교실을 다 나갈 때까지 책을 읽는 척 하면서 기다렸다. 그리고 사물함 안에 들어있는 책을 꺼내고 화분을 그곳에 넣었다. 아무리 선생님의 말씀이지만 죽도록 버틸 수는 없었다. 아직은 추워서 얼어 죽을 지도 모른다.

“어둡고 좁지만 조금만 참아.”

사물함 문을 닫고 일어나는 데 수완이가 뒤에서 보고 있었다. 나는 수완이 눈길을 무시하고 밖으로 나갔다.

화분을 집에 가지고 가면 할머니가 틀림없이 물어 볼 것이다. 나는 딱히 대답할 말이 생각이 안 나서 오늘은 사물함 안에 넣어 두고 집으로 갔다.

다음날 다른 아이들이 학교에 오기 전에 교실에 가려고 일찍부터 집에서 나섰다. 뒷문을 열쇠로 끄르고 사물함부터 열었다. 미모사 잎이 오그라져서 축 처져 있었다. 미모사는 밤에 잠을 자서 잠풀 이라고도 한다.

“일어나. 아침이야.”

눈을 뜨는지 오그라진 잎이 서서히 퍼지려는 순간, 교실로 들어오는 아이들의 소리가 들렸다.

“안되겠다. 갑갑하지만 좀 만 더 있어.”

얼른 화분을 사물함에 넣고 문을 닫았다.

“다빈아! 쭈그리고 앉아서 뭐 해?”

“아니야.”

“뭘 했는데 얼굴이 빨개지는 거야? 나쁜 짓 했지?”

지혜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내 사물함 곁으로 왔다.

지혜 머리에서 향긋한 향기가 났다. 꽃 냄새 인지 잘 익은 복숭아 냄새인지 확실하지는 않다. 아침에 머리를 감고 왔나보다.

“비밀이야. 이 안에다 화분을 넣어 두었어.”

“선생님이 버리라고 했잖아.”

“오늘만 여기에 둘 거야. 날씨도 쌀쌀해서 버리면 죽을 텐데 어떻게 버리니?”

자리에 앉았다. 책상 위에 지우개 가루가 여기저기 눈에 띄었다.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지우개 가루를 하나하나 모았다. 마음은 온통 사물함 속 미모사한테 가 있었다. 몸을 반쯤 틀어 뒤를 돌아보았다. 파란색 칠이 군데군데 벗겨진 낡은 사물함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문이라도 조금 열어 둘 걸. 갑갑할 텐데…….

수업 시간 내내 얄전하게 공부를 했다. 선생님 눈에 거슬리기만 하면 사물함 속에 들어있는 내 화분도 더 이상 안전할 수가 없을 것이다. 미모사를 버렸냐고 물으면 고자질쟁이 수완이가 사실대로 일러바칠 테니까. 창가도 안보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손톱 끝도 물어뜯지 않고 선생님만 눈이 빠지게 바라보았다. 선생님 눈과 마주칠 때면 얼른 눈을 내리깔았다. 화분 버렸냐고 물을까봐서 가슴이 통통 뛰었다.

청소시간에 주전자를 들고 창가에 있는 화분에 물을 주었다. 상상하듯 초록 잎사귀 사이로 빼죽 얼굴을 내미는 여린 꽃봉오리들이 여러 개 눈

에 띄었다.

‘이것이 생명의 경이로움이구나! 축하한다. 축하한다. 세상에 태어난 것을.’

갓 태어난 아이에게 눈을 맞추는 엄마처럼 꽃눈을 정신없이 바라보았다. 내 미모사는……. 어두컴컴함 사물함 안에서 낮이나 밤이나 잠만 자고 있을 텐데. 시원한 공기도 마셔야 하고 햇빛도 쏘여야 하고 물도 줘야 할 텐데.

‘쿨룩쿨룩 멀쩡한 목에서 마른기침이 나왔다. 가슴이 꼭 막혀왔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가슴을 쓸어내렸다.

“다빈아, 물 주다가 뭐하니?”

“아니야.”

“얼굴이 창백하다. 아프니?”

“아니, 좀 쉬면 괜찮을 거야.”

“그럼 여기 앉아.”

강산이가 의자 한 개를 가져다가 내 앞에 내려놓았다.

“고…….”

갑자기 청소하던 아이들이 우리 주위에 모여들었다.

“무슨 일이야?”

“둘이 사귀니?”

“강산이는 지혜한테 배신 때리는 거니?”

비아냥거리는 질문들이 순식간에 쏟아졌다. 나는 가슴을 웅크리고 고개를 숙였다. 강산이는 뒷머리를 긁으며 어느새 교실을 빠져나갔다.

“다빈아, 어디 아프니?”

걱정이 묻어있는 지혜 목소리가 들렸다.

“갑자기 배가 아파서.”

얼굴을 찌푸리며 매우 아픈 시늉을 냈다. 지혜한테 오해를 사면 안 된다. 강산이를 좋아하는 내 마음이 손톱만큼이라도 들키면 안 된다. 지혜와 나는 비교도 안 되게 다르다. 지혜가 창가에 아름답게 피어있는 꽃이라면 나는 사물함 안에 갇혀서 낮에도 밤처럼 잠을 자야 하는 미모사다. 아빠도 없고 엄마에게 버림받는 나는 갇혀 살아야 하는 미모사와 다를 바 없다.

식물은 햇빛이 필요하다. 나도 사랑이 필요하다. 아빠 사랑도, 엄마 사랑도, 남자친구 사랑도 받고 싶다. 하지만 나는 이 중에 하나도 받지 못한다.

“안되겠다. 보건실 가자.”

“아니…….”

더 이상 뺄 수가 없었다. 못이기는 척 하고 지혜 부축을 받으며 보건실로 갔다.

보건선생님이 주는 약을 먹고 한 숨 잤다. 몸도 기분도 훨씬 가벼워졌다. 지혜는 내 가방을 들고 와서 바쁘다며 부리나케 나갔다.

현관에 신발을 내려놓고 2층 계단으로 올라갔다. 미모사를 보지 않고는 도저히 집에 갈 수가 없었다. 아이들이 없는 긴 복도는 귀신이 나 올 만치 고요했다. 다행히 교실 뒷문은 닫혀 있지 않았다.

‘드르르’ 교실 안으로 오른발을 넣고 왼발을 디디려는 순간.

“누구니?”

놀라서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선생님 얼굴이 책꽂이에 가려 있어서 교실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다.

“다빈이구나. 이제 괜찮니?”

“예--예.”

“지혜가 가방 안가지고 왔니?”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선생님께 들어올렸다.

“늦었는데 교실에는 왜 왔어?”

“두고 간 것이 있어서요.”

“그래. 늦었다. 얼른 가져가.”

쭈그리고 앉아서 맨 아래 있는 사물함 문을 열었다. 엉덩이를 하늘로 쳐들고 얼굴을 사물함 안으로 들이댔다. 보이지 않았다. 팔을 뻗어서 손으로 더듬었다.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으으, 사라지고 없다. 눈앞이 아찔하다.

“찾았니? 문 잠근다.”

“예--예--.”

선생님의 재촉에 얼른 교실을 나오고 말았다. 내 손에는 사물함 위에 있던 수학 익힘책이 들려있었다. 누구 것인지 모르겠다.

“다빈이가 웬 일이야? 집에 가서 공부하려고?”

“아아 예…….”

“요즘 다빈이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애. 수업 태도도 좋아지고, 암! 그래야지. 할머니는 잘 계시니?”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이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꽃처럼 예쁜 얼굴로 환하게 웃었다. 그런데 나는 하나도 기쁘지 않다.

터벅터벅 운동장을 걸어 나갔다. 화분을 집에 두지 않고 사물함 안에 넣어 둔 것이 못내 후회스러웠다.

빛소리에 눈을 떴다. 어제 밤에 화분 생각을 하느라 새벽녘에야 잠이



들었다. 그래서 늦잠을 잔 것 같다. 할머니는 아랫목에 누워서 끙끙 앓고 있었다. 비 오는 날이면 더 심해지는 신경통에 일어나지도 못했다. 할머니 아침 밥상을 방 안에 차려 놓고 가방을 들었다.

살 한 개가 휘어진 우산을 펴들고 총총히 집을 나섰다. 봄비가 흙냄새를 풍기며 촉촉이 내리고 있었다. 유독 비 오는 날을 좋아했는데 비만 오면 더 아픈 할머니 때문에 비가 점점 싫어졌다.

긴 잠을 깨우는 마술 같은 봄비에 나무마다 연둣빛 새싹이 앞 다투어 오르기 시작했다. 미모사도 봄비를 맞아야 한다. 아이 속살처럼 가녀린 줄기가 봄비를 맞고 쭉쭉 자라서 꽃도 피워야 한다. 발걸음을 서둘렀다.

교실이 쥐 죽은 듯이 조용했다. 역시나 지각이었다. 아이들은 아침자습을 하고 있고 선생님은 책상에 앉아서 일기 검사를 하고 있었다. 어제 모처럼 칭찬을 받았는데 오늘은 꾸지람 들을 게 뻔했다.

수완이가 창가에 서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빗방울이 교실 안으로 튀겨오는데 창문을 닿지 않고 서 있는 것이 수상했다. 자석에 끌리듯이 수완이 옆으로 갔다.

화분이 사물함 안에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지혜와 수완이 뿐이다. 친구인 지혜가 나를 골탕 먹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 수완이 밖에 없다. 날 자주 괴롭히는 수완이는 그러고도 남을 아이다. 오늘은 꼭 찾아서 집으로 가져 갈 것이다. 할머니한테는 선생님이 집에서 키워 가지고 오라 했다고 거짓말 하면 된다.

“아, 뭐해?”

수완이가 내다보고 있는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을 때였다.

‘쿵’ 무언가 향나무 아래 화단으로 떨어졌다. 수완이는 흙 묻은 원손을 들고 깜짝 놀라 나를 쳐다봤다.

“너희들 거기서 뭐 해? 빗물 들치는데 창문 닫고 얼른 아침 자습해야지?”

선생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무라듯이 말했다.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의자에 앉은 척 하다가 밖으로 뛰쳐나갔다. 우산도 쓰지 않고 화분이 떨어진 화단으로 달려갔다. 미모시라고 코팅한 종이가 붙은 빈 화분이 향나무 밑에서 뒹굴고 있었다. 거름기 많은 검은 흙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미모시는 없었다. 향나무 밑에는 이름 모를 풀들이 머리를 쑥쑥 들이밀고 있었다. 활짝 펴든 초록색 우산을 여러 개 쓰고 있는 듯한 향나무 가지를 흔들어 보았다. ‘후드득’ 빗물이 머리 위로 쏟아지며 향나무 향기가 진하게 풍겨왔다. 옷이 여기저기 축축하게 젖어왔다. 빈 화분만 뒹굴고 미모시는 없다. 울퉁 설움이 솟구쳤다. 향나무 옆에 쪼그리고 앉아 한참을 흐느껴 울었다.

“다빈아, 여기서 뭐 해?”

심부름 갔다 온 강산이가 내게 다가왔다. 나는 입을 손으로 막고 울음을 참으려고 애썼다.

“얼른 교실로 들어가자. 비 맞으면 감기 걸려. 넌 몸도 약하잖아.”

강산이가 내 머리와 얼굴을 손수건으로 닦아 주었다. 얼굴이 점점 뜨거워졌다.

강산이와 우산을 쓰고 교실로 들어갔다.

뒷문에서 서성거리는 지혜와 마주쳤다. 지혜는 얼굴이 백지장이 되서 제자리로 돌아가 버렸다.

지혜가 인사도 없이 교실을 나갔다. 내게 찬바람을 뽀뽀 일으키는 지혜가 자꾸 신경이 쓰였다. 가방을 메고 밖으로 나왔다. 비가 그친 하늘

은 푸르고 맑았다. 마알간 뒷산이 손에 닿을 듯 가깝게 느껴졌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흙냄새, 새싹 냄새, 꽃냄새가 진동을 했다.

향나무가 있는 화단으로 갔다. 참으로 정신없는 하루였다. 미모사는 사라져 버렸고 가장 친한 친구 지혜는 더 이상 나를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 수완이 때문에…….

수완이가 향나무 밑으로 가고 있었다. 나는 획 돌아서 교문으로 향했다. 싱그러운 봄날이지만 내 봄은 한없이 우울하기만 했다.

화요일 아침, 우리 반 봉사활동 날이다. 다른 날보다 삼십 분 빨리 학교에 가서 교문 주위에 있는 쓰레기를 주웠다. 구령대 뒤에 서니 아릅디넜은 벚나무가 환한 꽃을 주렁주렁 달고 있었다. 잔잔한 바람이 스칠 때면 향기가 코를 찔렀다.

지혜 머리에서도 옷에서도 이 비슷한 냄새가 났던 것 같다. 지혜와 친하게 지내서 참 좋았는데. 하지만 지금은 나를 아는 척도 안 한다. 내가 다가갈 수 없는 먼 거리에서 아른거리기만 한다.

눈이 부시게 환한 꽃등 아래 혼자 있으니 쓸쓸했다. 나는 부리나케 벗어났다. 천천히 향나무가 있는 화단으로 갔다. 향나무는 사시사철 변함없이 푸르다. 은은한 향기와 뽀족뽀족한 잎사귀도 여전하다. 비가 그쳤는데도 둥그런 우산을 여러 개 쓰고 우두커니 서 있었다.

향나무 아래에 보라색 제비꽃이 무더기로 피어있었다. 꽃이 피니까 풀이 달라 보인다.

“우와! 예쁘다.”

쭈그리고 앉아 다리가 아프도록 제비꽃을 바라보았다. 얼마나 소박하고 겸손하면 앓은뱅이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을까? 거기다 고개 까

지 숙이고.

군데군데 돌아난 잡초를 손으로 잡아 뜯었다. 그런데 눈에 익은 풀이 보였다. 이간……. 손가락으로 잎사귀를 살짝 만졌다. 잎이 오그라들었다. 사라진지 알았던 미모사가 제비꽃과 어우러져 살고 있다니. 왜 미모사가 이곳에 살고 있을까?

쓰레기를 양손에 든 수완이가 내 옆으로 왔다.

“미모사는 잘 살고 있니?”

들은 척도 안했다. 또 무슨 장난을 치려고 이곳으로 온지 모르겠다. 나는 쭈그리고 앉아서 미모사를 보이지 않게 가렸다.

“내가 심어 놓은 미모사 한 번 보려구.”

깜짝 놀라 고개를 번쩍 들었다.

“미모사 네가 심었어?”

“그래. 더 많이 컸구나.”

수완이는 미모사 잎을 어루만졌다. 간지럼을 타는 듯 잎이 줄줄이 오그라들었다.

“진짜로 네가 쓰레기장에서 주워 왔니?”

“응. 당번이라 그날 아침에 휴지통 비우러 갔다가 쓰레기장에서 주워 왔어. 선생님한테 안 들키게 창문가에 두려다가 내가 날 밀어서 화분이 떨어져 버린 거야. 집에 가는 길에 향나무 가지 위에 걸려있는 미모사를 찾아서 이곳에 묻어 놓았어. 밤새 날이 추워서 미모사가 얼어 죽지나 않을까 걱정 많이 했는데 씩씩하게 잘 자랐네.”

수완이는 뒷머리를 긁으며 히죽 웃었다.

“고맙다. 그런데 누가 버렸을까? 집으로 가져가려고 했는데.”

“그 전날 지혜가 화분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봤다는 아이들이

있어.”

“지혜? 내 친구가? 그럴 일 없어. 지혜는 내 친구잖아.”

수완이는 고개를 끄덕거리며 입 꼬리를 찡글거렸다.

“난 넌 줄 알았는데.”

“킁킁. 그랬을 거야. 난 말쑥꾸러기잖아. 사람들 관심 좀 끌려고 일 통을 저지르다보니 괜한 오해도 많이 사. 우리 선생님 이쁨 좀 받으려다가 네게 못 되게 굴었나 보다. 괴롭힐 마음은 전혀 아니었는데.”

“그랬구나. 그런데 지혜가 왜 그랬을까?”

“글쎄……. 정화 화분도 지혜가 버렸다는 소문이 있어.”

“설마?”

예뻐고 공부도 잘하는 지혜가, 더 상 남부러울 것이 없을 것 같은 내 친구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수돗가에 손을 씻으러 갔다. 지혜와 강산이가 손바닥에 묻은 물을 서로에게 뿌리며 장난을 치고 있었다. 웃음소리가 밝은 햇살 속에 짹짹 울려 퍼졌다. 화가 막 치밀어 올랐다. 너무도 좋아하는 둘을 보니 참을 수 없었다. 지혜가 두 손 안에 물을 담아서 강산이에게 확 뿌리려는 순간. 지혜 발이 내 발에 닿았다. 나는 지혜 발을 걸었다. 복수할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발에 힘을 꽉 주었다.

“왜 내 다리는 먼저 걸어놓고 넘어지기는 네가 넘어져? 약한 척 하기는.”

“…….”

지혜가 넘어진 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쳐다봤다. 매우 아픈 시늉을 내다가 어이가 없는 표정이었다.

“뭐? 누가 발을 먼저 걸었는데?”

“강산이 여자친구 너잖아.”

“뭐라구?”

지혜가 발딱 일어났다.

“너, 네가 내…… 발을 걸…….”

“또 누구 화분 내다버렸니? 정화 화분도 쓰레기장에 버렸다며?”

“머 머 뭐 …….”

주위에 있던 아이들이 우리들을 에워 쌓다. 키가 큰 강산이 머리로 보였다.

가슴이 두근두근 방망이질을 했다. 지혜에게 따지는 내가 나답지 않게 낮설었다. 당황한 지혜와 당당한 내가 뒤바뀐 것 같다. 내가 지혜에게 이러면 안 된다. 나는 누구보다 지혜에게 다소곳한 친구였는데. 하지만 아무지게 내뱉고 나니 속은 후련하다.

수업이 끝나기가 바쁘게 학원으로 줄달음치던 지혜가 제 자리에 앉아 있었다.

“다빈아, 잠깐만.”

지혜가 나를 뒤따라 나왔다.

“이야기 좀 하자.”

“할 말 없어.”

나는 신발을 들고 계단을 두 세 개씩 뛰어 내려갔다.

“조금만 기다려 줘.”

현관에 신발을 내려놓고 신을 신으려고 할 때였다.

지혜가 계단에 미끄러지면서 나를 저만치 내동댕이쳤다. 내 몸이 앞으로 쏠리더니 쿵 넘어지고 말았다.

“미안해.”

“왜 날 귀찮게 해? 너랑 말하기도 싫어.”

화가 나서 얼굴이 빨개졌다. 생각할수록 재수 없는 아이였다. 친구라면서 내가 그리도 소중히 여기는 화분을 버려버리는 못 된 애였다. 그런 애를 친구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니…….

“다빈아!”

“너랑 할 말 없어.”

넘어져 다친 무릎과 어깨가 콧속 쑤셨다. 인상을 찌푸리며 투덜투덜 앞서 걸었다.

지혜가 뛰어와서 내 앞을 가로막았다. 눈물을 글썽이면서.

“내가 잘못 한 거 사과할게.”

“비껴.”

“나한테도 사과할 기회를 한번은 줘야지.”

“흥! 여전히 잘 난 척하고 싶어서. 어디 한 번 해봐.”

나는 지혜를 절대로 용서할 마음이 없다. 하지만 변명은 들어보아야겠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무슨 이유로 내 미모사를 버렸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았다.

발걸음이 저절로 구령대 뒤로 갔다. 지혜는 발목을 다쳤는지 절뚝거리면서 내 뒤를 힘들게 따라왔다. 나는 모르는 척 혼자 앞서 걸었다.

하얀 꽃잎이 눈처럼 흩날리고 있었다.

“강산이가 너를 좋아한 것 같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귀가 콧속 막혔다. 하늘이 무너져도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나와 지혜는 비교도 안 되게 다르다. 지혜가 잘 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

나를 떠보려고 시험하는 건지도 모른다. 지혜는 엉큼하다. 친구인 척 하면서 내가 아끼는 미모사를 아무도 모르게 버려버리는 아이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다.

“화가 났어. 내가 아닌 너를 좋아하는 것 같아서.”

“.....”

“내가 버렸어. 자꾸 이상한 풀에 관심 갖는 것이 싫어서. 너를 자꾸 좋아하는 거 같아서. 너도 강산이를 좋아하잖아. 선생님께 낸 일기장을 보고 알았어.”

“뭐야?”

빠르게 머리를 굴렸다. 언제 내 마음을 일기장에 적었을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나를 도와주던 강산이를 고맙게 생각한다고 쓴 것 같은데. 눈치 빠른 지혜는 내 속마음을 알아차렸나 보다.

“강산이는 여자 아이들 누구한테나 잘 해 줘. 사랑에 눈이 멀어서 강산이를 너만 독차지 하려고 하는 네가 문제지. 네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남들에게 상처주면 되겠나? 강산이는 우리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어.”

“친구?”

“그래 이 가엾은 친구야.”

지혜는 입술이 타는지 입에 침을 여러 번 발랐다. 지혜의 고백을 듣고 보니 지혜가 오히려 안쓰러워졌다. 많이 가졌다고 결코 행복한 것은 아니나 보다. 마음에 상처를 갖고 괴로워하기는 마냥 행복해 보이는 지혜나 초라한 나나 마찬가지로였다.

“미안하다. 내가 네 화분 쓰레기장에 버려서. 다음날 사 주려고 했는데.”

“아직도 잘 살고 있어.”



“안 죽고 살았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석양을 향해 힘차게 손을 흔드는 벚꽃들을 쳐다봤다. 사연을 담은 꽃봉오리가 지금도 툭툭 터지고 있는 듯 했다.

절뚝거리는 지혜를 슬며시 부축하고 운동장을 나섰다. 그윽한 꽃향기가 우리들 뒤를 따라왔다.

교문을 나서다가 뒤를 돌아봤다. 향나무 가지에 희미한 어둠이 스멀스멀 깔리고 있었다.

향나무 아래 앉은뱅이 제비꽃과 오순도순 살고 있는 미모사. 사물함에 갇혀 있다가 쓰레기장에 버려지고 이 곳 화단에 심어지기 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지금은 씩씩하게 살고 있는 미모사가 얼마나 대견스러운지……. 미모사의 강인한 생명력에 내 가슴은 한없이 뛰었다.

집으로 향하는 내 발걸음은 날아가는 꽃잎처럼 가벼웠다.



우수상

# 할머니와 어미새

“그거 도루 내려 봐.  
에미새는 지 몸이 바스라지게 아픈 것도 참고 알을 낳았을 거  
여. 니 에미가 그랬고 내가 니 에미를 낳을 적에도 그랬고 세  
상에 있는 **에미란 것들은 다 그  
런 뱀이다.**

이 손을 좀 봐라.”

할머니는 성진의 눈 앞에 일그러진 손을 내미셨습니다. 성  
진이는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얘긴지는 몰라도 할퍼  
니 손은 보기 싫었던 거죠.

-본문중에서-



고양 가좌초교  
기은영



## 할머니와 어미새

‘젓, 눈물이 나올 게 뭐람.’

성진이는 발길로 돌멩이를 저만치 힘껏 차버렸습니다.

“성진이가 큰 일을 당하고 이제 할머니 댁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성진이가 많이 힘들 거예요. 성진이를 위해서 모두 따뜻한 위로를 해주자꾸나.”

선생님 말씀을 듣고 반 아이들은 하나 둘 성진이 곁으로 와서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말없이 지우개나 연필을 쥐어 주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슬퍼해 주는 척 해도 너희들은 내 기분을 알지 못해.’ 하고 이를 앙무는데 새침떼기 짝 지윤이가 소리내어 우는 모습을 보고는 성진이도 참았던 눈물이 흐르고 말았던 겁니다.

할머니는 저만치 뒤따라오시는데 기다리고 싶지 않아 성큼성큼 앞만 보고 걷습니다. 이제 컴퓨터도 없고 게임도 할 수 없는 시골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햄버거 집도 없고 놀이동산도 없고 무엇보다 성진이에겐 엄마 아빠가 없는 걸요.

“엄마, 할머니한테서는 자꾸 이상한 냄새가 나요.”

성진이는 오랜 만에 시골에서 올라오신 할머니한테 버릇없는 짓이라

고 혼이 나면서도 자주 이런 말을 했었죠. 주름진 얼굴에 눈곱이 자주 끼시는 할머니를 성진이는 좋아할 수가 없었어요. 더구나 할머니의 오른 손을 보기만 하면……. 날고기가 덕지덕지 붙은 것처럼 일그러져 있는 할머니의 손만 보면 성진이는 뭉클 징그럽다는 생각부터 나곤 했습니다. 그런 할머니와 같이 살게 되다니…….

이름을 알 수 없는 꽃들이 피고 어디선가 새소리도 들리는 산모퉁이. 이 길을 자주 걸어가다 보면 할머니 댁이 나오겠지요. 서울 친구들은 지금쯤 롤러블레이드를 타고 학원에 가 있을 시간이겠지만 성진이는 이런 시골길을 벌써 한 시간 넘게 걷고 있습니다.

“성진아, 좀 쉬었다 가자.”

아무렇게나 철푸덕 앉는데 풀냄새가 톡 쏘듯 맡아집니다.

“엄마 아빠 없어도 이 할미가 잘 해줄 거여. 대학 공부도 시키고…….”

할머니는 다 식은 호떡을 내미셨습니다. 그 날고기 같은 오른 손입니다. 하는 수 없이 받긴 했지만 먹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습니다.

“할머니, 여기 학교는 1반까지 밖에 없지요?”

일부러 할머니를 놀려 대듯 말해 버렸습니다. 괜시리 화를 내고 싶을 때 하는 성진이의 버릇입니다.

“애들도 모두 촌스럽고 공부도 못할 거예요.” 하고는 냉큼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습니다.

할머니는 또 말없이 뒤따라 오십니다. 엉덩이를 비죽이 빼고 어기적어 기적 다리를 벌려 걷는 걸음으로. 성진이가 아주 질색을 하는 모습이죠.

“애, 성진아, 여기 좀 와 봐라.”

얼마쯤 갔을까, 할머니가 부르는 소리에 뒤돌아보니 할머니는 아예 철썩 주저앉아 손짓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새가 알을 낳아 났다. 봐라, 이쁘제?”

마른 풀잎으로 만들어진 둥지에 알록달록한 알이 대 여섯 개. 메추리 알 보다 작은 것이 푸른 빛이 감도는 바탕에 검정과 갈색빛의 얼룩이 있는, 성진이가 보기에 참 예쁜 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슬픈 때 한가하게 새 알 구경이나 하고 있는 할머니가 야속하다 못해 한심했습니다.

성진이는 냉큼 알 한 개를 집어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보란 듯 내동댕이치려는 순간,

“이리 내려 놔, 어여.”

할머니가 갑자기 엄한 표정을 하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평소처럼 늘 미안한 표정만 지으시던 때하고는 판판인 표정을 하시면서,

“싫어요.”

성진이도 지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어서 내 놓으라니까. 알이 없어진 걸 알면 어미새가 얼마나 슬퍼하겠어?”

“이깃 알이 뭐 그리 대단해서요? 우리 엄마 아빠는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새 알 한 알이 뭐 그리 대단해서요? 난 이제 고아가 돼 버렸는걸요.”

어느새 성진이의 말소리는 울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아무리 생각하려 해도 생각나지 않을 만큼 성진이는 한참

을 울고 또 울었습니다.

“성진아, 니 에미는 이 할미의 딸인 거여. 성진이는 에미를 잃고 이 할미는 딸을 잃은 거란 말여. 성진이가 슬픈 만큼 할미도 슬픈 거여.”

할머니도 어느새 울먹이고 계셨습니다.

“.....”

“그거 도루 내려 놔. 에미새는 지 몸이 바스라지게 아픈 것도 참고 알을 낳았을 거여. 니 에미가 그랬고 내가 니 에미를 낳을 적에도 그랬고 세상에 있는 에미란 것들은 다 그런 뱀이다. 이 손을 좀 봐라.”

할머니는 성진이의 눈 앞에 일그러진 손을 내미셨습니다. 성진이는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애긴지는 몰라도 할머니 손은 보기 싫었던 거죠.

“동네 잔칫날 니 에미를 업고 일손 거들러 갔었던단. 니 에미는 그때 걷지도 못하는 갓난 애기였지. 일을 하다 보니 애기가 자꾸 등 뒤에서 바둥대는 거여. 그래 등에서 내려 놓고 한참을 일하는데 자꾸 이상한 기분이 드는 거라.”

성진이는 어느새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래서 얼른 뒤를 돌아보니 애기가 북북 기어서 기름 솥에 막 손을 대려고 하드란 말이여. 득달같이 달려가 애기를 떠다밀고 보니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드라. 왜들 그러는지 그건 안중에도 없고 애기가 어디 다친 데는 없나 살피느라고 정신이 없었던겨. 그때 아이고 손이 타들어가고 있구만 괜찮여? 누가 나를 흔들고 말하드라. 그때서야 내 손을 보니 니 에미 구하다가 기름 솥에 있던 기름을 몽땅 뒤집어 쓴 거드라니께.”

성진이는 물끄러미 할머니의 손을 보았습니다. 눈물이 몇 방울 토르르 굴렀습니다.

“그래도 애기가 안다쳤으니 얼마나 다행이나, 얼마나 다행이나 난 그 생각만 했다. 아픈 줄도 모르구, 뜨거운 줄도 모르구.”

“…….”

성진이는 슬그머니 알을 내려놓았습니다. 할머니는 알을 몽땅 잃어버린 어미새였습니다. 그러고도 이제껏 실컷 울지도 못한 것은 엄마 잃은 손자 때문이었다는 것도 성진이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고아가 되어 버린 손자에게 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시려고…….

산고개를 넘으니 멀지 않은 곳에 자그마한 마을이 보입니다. 할머니 덕이, 엄마의 고향 마을이 가까워 옵니다.

“엄마 아빠 없다고 기죽으면 안되여.”

한참을 말없이 걷다 할머니는 문득 생각난 듯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웃을 땐 남들 보다 더 크게 웃어라. 하늘에서 엄마 아빠가 다 듣도록.”

고개를 숙이고 걷던 성진이도 할머니를 마주 봅니다.

“그럼 울고 싶을 때는요?”

어느 새 개인 얼굴이 된 성진이가 말합니다.

“그건 말여…….”

대답이 궁색해진 할머니는 잠시 멈칫하시다

“그건 말여. 그러, 더 크게 울어라. 이 할미가 우리 성진이 울린 놈들 혼구녕을 내줄 테니께.”



“하하하”

“호호호”

성진이는 어느새 할머니의 오른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야기를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친구들에게 전날 읽은 책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된 후부터는 아이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를 직접 만들어 보고 싶어졌습니다. 조심스레 동화를 쓰게 되었고 이렇게 분에 넘치는 상도 받게 되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무엇에 꼭 필요한 일이 아니어도 그저 좋아서 하는 일이 생겼다는 게 무엇보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딸을 믿어주시고 기특하게 여겨주신 부모님과 밤마다 이야기를 즐라대는 딸 아이, 신랄한 흑평을 아끼지 않았던 남편과 기쁨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부산광역시 보림초교  
이혜숙

장려상

## 까만운 동화

드디어 결정의 시간이 다가왔다.  
"자, 이번 퀴즈 대회의 우승자는 초,  
진,형입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끝나자 아이들은  
일제히 진형을 바라보았다.  
"선생님... 하지만,  
진형이는 다리까지....."  
-본문중에서-



## 까만 운동화

“툑…… 툑……”

“푸드득, 꼬꼬댁, 꼬꼬꼬꼬……”

집 뒤 대나무 숲에서 작은 돌멩이가 날아와 뒷마당에서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모이를 찾아다니는 암탉들의 꼬리에 맞자 암탉들이 유난을 떨며 이리저리 피해 다녔다.

“찾…… 절뚝 다리로 무슨 릴레이 선수라고…….”

성호의 볼멘 목소리를 들은 것인지 암탉들도 땅에서 잠시 머리를 들어 성호를 바라보다 이내 모이사냥에 열중하였다.

대나무 사이에 앉아 바람소리와 ‘툑툑’ 대나무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면 늘 기분이 좋아지는 성호였지만 오늘만은 쉽사리 상한 기분이 나아지지 않았다. 다시 한 번 바람이 숲을 한 바퀴 돌자 ‘투둑, 투둑’ 대나무 부딪히는 소리가 성호의 귓가에 울려 퍼졌다.

며칠 전이었다.

“다음 주에 우리 학교 운동회가 있어요. 운동회날 우리 반을 대표해서 달릴 릴레이 대표를 며칠 뒤에 뽑겠어요.”

선생님의 발표가 끝나자 아이들은 저마다 릴레이 선수에 대해 한 마디씩 거들었다.

“달리기하면 성호 아이가? 작년 3학년 때도 릴레이 선수 했는데.”

작년 같은 반이었던 진성이의 말에 어깨가 으쓱해졌다.

“아이다! 민성이가 더 잘한다. 민성이라도 작년에 릴레이 선수였다.”

민성이와 단짝인 석호의 말에 민성이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다.

“우리 엄마가 이번 운동회에 릴레이 선수 하라고 새 운동화가 사줬는데…….”

성호에게 들으라는 듯이 친구들 앞에서 새 운동화를 들어 보여주는 민성이가 알미워 성호도 말했다.

“우리 할매도 내 릴레이 선수하라고 운동화 사준다고 했다. 찻!”

민성이를 향해 고개를 치켜들고 한껏 입을 뻗죽여준 성호는 가방을 들쳐 메고 열린 교실을 나와 버렸다.

“누나야, 이번 장날은 언제고?”

“장날은 와? 할매가 이번 장날에는 안 가신다고 했는데… 뭐 살 것 있나?”

“아니…… 그냥…… 이번 장날에는 할매나 한번 따라가 볼까해서…….”

누나의 의심스런 눈초리를 피해 머리를 한번 긁적이던 성호는 달리기 내기를 하자며 열린 앞으로 뛰어나갔다.

얼마 전 비가 와서 그런지 땅이 질어 바닥이 질퍽거리고 미끄러웠지만 성호는 논길로 쏜살같이 달려 나갔다.

황금색으로 물들어 고개가 무거워진 벼들이 성호가 일으키는 바람에 금빛 파도처럼 일렁거렸다.

“할매! 할매!”

대문을 들어서자 마자 부엌으로 쫓아간 성호는 할머니를 찾았다.

“아가…… 와 이라노! 넘어진다. 좀 천천히 온나”

부엌문을 열고 나오시던 할머니는 허겁지겁 달려오는 성호를 보며 켜  
걸음으로 다가오셨다.

“헉…… 헉…… 할매! 이번에 장날이 언제고?”

“오자마자 무슨 장날타령부터 하고 그라노? 장날은 와?”

“내 그날 할매 따라 갈라꼬!”

“아이고, 생전에 안따라 갈라 하더마는 니가 우짤일로 장날에 가겠다  
하노? 뭐 먹고 싶은 거라도 있나?”

“아니…… 그냥 장날 구경도 좀 하고, 할매 집도 들어 줄라고 그러  
자…… 압튼, 장날에 나도 데리고 가줘. 응?”

“오냐, 장날에 가게 되면 데리고 갈꾸마.”

성호를 이리저리 살펴보는 할머니의 눈을 피해 마루도 달려가 가방을  
던져놓고는 모이 바가지를 들고는 뒷마당으로 달려갔다.

괜시리 기분이 좋아진 성호는 창고의 모이통에서 모이를 한 바가지  
가득 담아 닭 무리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꼬, 꼬…… 꼬꼬……”

모이를 그릇과 주변에 뿌려주자 닭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다가와서는  
쫓아 먹는데 여념이 없었다.

“많이 먹어래이.”

모이를 먹는 닭들을 호뭇하게 바라보던 성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했다.

“아…… 이 바보는 어디 갔노?”

뒷 마당 구석구석을 살펴보던 성호는 대나무 숲 바로 앞 수풀 구석에

서 혼자 꾸구리고 앉아있는 작은 닭 한 마리를 향해 다가갔다.

“야! 니 혼자 여서 뭐하노? 밥 안먹나?”

성호가 가까이 다가서자 살며시 몸을 세운 작은 닭은 성호를 가만히 올려다 보았다.

“야! 장군, 니 와 왕따처럼 여기 혼자 앉아 있노? 응?”

병아리 때 큰 닭들에게 밟히고 쪼여 다리도 절뚝거리고 덩치도 작은 주제에 어울리지 않게 성호를 무서워하지 않는 고 녀석이 대견해서 성호는 장군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밥 먹으러 가자. 응? 어서…….”

장군이를 툭 건드리자 등이라도 떠밀린 것처럼 절뚝절뚝 한 걸음씩 내딛는 모습이 안쓰러워 성호는 장군이를 번쩍 안아들고 모이그릇 바로 앞까지 데려다 놓았다. 모이를 봐도 그다지 반기지 않는 모습에 손으로 머리를 눌러 모이그릇에 가까이 가져가도 장군이는 다른 닭들처럼 힘있게 덤벼들지 않았다.

“바보야, 많이 먹어야 얼른 크고 다리도 낫지.”

“성호야, 저녁 먹자.”

누나의 목소리가 들리자 할아버지처럼 혀를 쫓쫓 거리던 성호는 이내 포기하고 장군이를 안타까운 눈으로 한 번 더 바라본 뒤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드디어 릴레이 선수를 뽑기로 한 날이 되자 성호는 체육복을 단정하게 입고 평소에는 잘 보지 않는 거울도 3번이나 비추어보았다.

“할매, 내 릴레이 선수 뽑히면 오늘 장에 가서 새 운동화 사주면 안되 나?”

“이성호! 니 그래서 할매한테 장날에 같이 가자고 한거제? 어쩐지 이상하다 했다.”

성호는 누나의 불멘소리를 못 들은 척 하고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오냐, 알았다. 열심히 해가지고 릴레이 선수나 뽑히 온나. 안 그래도 운동회 가려면 반찬거리하고 간식거리도 사러 가야되겠네.”

할머니의 약속을 받아 신이 난 성호는 가방을 메고 아침도 대충 먹는 시늉만 하고 집 밖으로 달려 나갔다.

“누나야, 내 먼저 간다. 일찍 가서 릴레이 연습해야 되거든…….”

놀리는 듯한 누나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성호는 신경 쓰지 않고 달렸다. 논과 밭에서 풍기는 달짝한 향기와 상쾌한 공기 때문인지 성호의 발걸음은 더욱 가벼웠다.

기다리던 체육시간이 되자 아이들은 릴레이 선수가 누가 될 것인지 의견이 분분하여 말들이 많았다.

“성호가 릴레이 선수가 되야 우리 반이 이긴다.”

“무슨 소리하노? 민성이가 릴레이 선수로 뽑힐거다.”

“애들아, 조용히! 이번 릴레이는 작년과 조금 다른 방법으로 진행될거예요. 단순히 빨리 달리는 릴레이가 아니라 퀴즈가 적힌 쪽지를 보고 정답을 맞춘 뒤에 친구와 함께 달리는 방법으로 할 예정이에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라 소란스럽던 아이들도 조용히 선생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그래서 이번에는 릴레이션수도 다른 방법으로 뽑아야 할 것 같아요. 빨리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퀴즈를 잘 푸는 사람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 반 퀴즈 대회를 해서 가장 많은 문제를 맞힌 친구를 릴레이 선수로 뽑을 거예요.”

선생님의 말씀에 성수는 정전이라도 된 듯 눈앞이 깜깜해 지는 것을 느꼈다.

‘퀴즈…… 대회라고?’

뒤를 돌아보니 귀신이라도 본 듯 하얗게 질린 민성이의 얼굴이 보였다.

드디어 퀴즈 대회가 시작되었다.

달리기를 못하는 아이들에게도 좋은 기회인지라 모두들 한 문제라도 더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드디어 결정의 시간이 다가왔다.

“자, 이번 퀴즈 대회의 우승자는 최, 진, 형입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끝나자 아이들은 일제히 진형이를 바라보았다.

“선생님… 하지만, 진형이는 다리가…….”

민성이가 얼른 말했지만 굳어지는 선생님의 표정을 보고는 말을 잊지 못하였다.

“진형이는 퀴즈를 빨리 잘 풀기 때문에 달리가 조금 느려도 잘 할 수 있을거예요.”

선생님의 단호한 말씀에 고개를 숙이고 있던 진형이도, 불이 잔뜩 부은 민성이와 성호도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쳇, 찢뜩거리면서 달리는 릴레이 선수가 어딴노?”

집으로 가는 길, 민성이의 불만 가득한 목소리가 조금 떨어진 앞에서 걷던 진형이에게 들렸는지 진형이의 어깨가 움찔거렸다.

“퀴즈만 잘 풀면 릴레이 할 수 있는 게 어딴노? 릴레이는 빨리 달리는

게 제일 중요한데…….”

들으라는 듯이 더 큰 소리로 민성이가 말하였다.

민성이의 말을 들었는지 진형이는 어색한 걸음을 서둘러 다른 방향의 길로 돌아가 버렸다.

성호도 잔뜩 심술이 났지만 웬지 뒤에서 험담하는 것은 비겁한 일인 것 같이 느껴져 목까지 올라오는 미운 말들을 꼭 눌러 삼켰다.

“성호야, 릴레이 선수 어찌 됐노?”

집으로 돌아오자 할머니의 물음이 들려왔다.

“몰라!”

가방을 휙 던져놓고는 할머니가 챙겨둔 호박씨를 챙겨 뒷마당으로 갔다.

닭들은 여전히 땅을 파고 모이를 쪼아 먹는데 여념이 없어 성호가 오는지도 모르는 것 같았다.

“투르륵…… 툭”

모이그릇에 대충 뿌려주고 뒷마당 대나무 숲과 이어진 작은 언덕길을 따라 올라갔다. 시원한 가을바람이 얼굴을 살살 간지럽혔지만 마음은 시원해 지지 않았다.

숲에 앉아 뒷마당을 향해 작은 돌을 하나 둘 던지고 있자니 진형이에 게 참았던 심술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휙, 툭…….”

호박씨를 쪼아먹느라 열심인 암탉을 겨냥해 작은 돌 하나를 던졌다.

제대로 맞았는지 꼬꼬댁 거리며 뒷마당 이곳 저곳을 뛰어다녔다.

암탉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에도 입가에는 평소처럼 미소가 떠오르지 않았다.

“čit… 절뚝 다리로 무슨 릴레이 선수라고…….”

볼이 잔뜩 멘 목소리로 혼자 투덜거리던 그 때였다.

갑자기 뒷마당에서 닭들의 날개짓 소리와 함께 시끄러운 울음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어 뒷마당 쪽을 바라보니 암탉 몇 마리가 모여 장군이를 마구 쪼아대고 있었다.

평소 갑았으면 얼른 달려가 암탉들을 혼내주었겠지만 그 날은 웬지 절뚝거리는 장군이가 릴레이 자리를 빼앗아 간 진형이처럼 느껴져 도와주고 싶지 않아 고개를 돌려 버렸다.

한참을 푸닥거리더니 이내 조용해졌다. 그리고 잠시 뒤 대나무 숲 한 쪽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조금 떨어진 옆에 장군이가 나타났다. 장군이는 성호를 보지 못했는지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결심이라도 한 듯 제법 아래에 있는 뒷마당을 향해 뛰어내렸다.

“푸드득, 푸드득”

작은 덩치인데도 얼마나 열심히 휘젓는지 제법 시끄러운 날개짓이었다. 다리에 힘이 부족해 안전하게 착지를 못해서인지 장군이는 바닥에 닿는 순간 주저앉는 것처럼 보였다.

잠시 뒤 그대로 있는가 싶더니 다시 언덕길을 따라 절뚝거리며 올라와서는 뛰어내리기를 반복했다.

“푸드득, 푸드득”

몇 번을 반복하는 동안 성호는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장군이가 하는 양을 살펴보았다.

온 힘을 다해 오르락 내리락 하느라 마지막에는 주저앉아 한참을 서지 못하고 있었다.

그 때였다. 성호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기라도 한 듯, 장군이가 고

개를 들어 대나무 숲 쪽을 바라보았고, 성호는 장군이와 눈이 마주쳤다.

작은 덩치에 비해 유달리 동그란 눈이 왠지 더욱 크게 보였다.

까만 눈동자에 대나무의 푸른 잎사귀와 시원하게 파란 하늘, 그리고 성호의 얼굴이 차례로 담겼다.

뽕뽕뽕뽕한 까만 눈이 성호를 물끄러미 올려다보자 성호는 갑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맑은 장군이의 눈 속에는 자신을 괴롭힌 암탉들에 대한 미움도, 모른 척 고개를 돌린 성호에 대한 어떤 원망도 담겨있지 않은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성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언덕길을 따라 뒷마당으로 내려갔다. 장군이는 성호가 다가갈 때까지도 그 자리에 앉아있었다.

“이 바보야, 그런다고 아픈 다리가 튼튼해 지냐?”

아무런 대꾸 없이 가만히 성호를 바라보기만 하던 장군이는 작은 몸을 부들거리더니 힘들게 다리를 펴서 일어섰다. 그리고는 절뚝거리며 모이그릇을 향해 걸어갔다. 모이그릇에 다다르자 작은 머리를 크게 움직여 호박씨 하나를 열심히 쫓아 먹기 시작했다.

그 순간, 조그마한 절뚝이는 사라지고 커다란 날개와 튼튼하고 강인한 다리를 가진 늑늑한 장군이가 성호의 앞에 서 있었다.

성호는 ‘장군’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자신이 너무나 자랑스럽게 느껴졌고 장군이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왠지 모르게 가슴 한쪽이 아련하게 저러왔다.

“창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드디어 운동회 날이 되었다. 큰 공 굴리기, 꼭두각시, 줄다리기 등의 경기가 끝나고 운동회의 가장 큰 구경거리인 릴레이 경주가 시작되었다.

“탕!”

출발신호와 함께 청군, 백군의 릴레이 선수들이 달려나갔다.

4학년 차례가 되고 드디어 진형이가 출발선에 섰다. 성호네 반 아이들은 숨을 죽이고 한 마음이 되어 출발 신호를 기다렸다.

“탕!”

출발을 알리는 총소리가 들리자 진형이는 불편한 다리를 끌고, 있는 힘껏 달리기 시작했다. 청군의 다른 아이들은 진형이보다 훨씬 앞으로 달려갔다. 퀴즈 쪽지가 있는 장소까지 가는데도 반나절은 걸릴 것 같았다. 드디어 진형이가 퀴즈 쪽지를 잡는 순간, 먼저 도착한 다른 아이들은 퀴즈가 어려웠는지 그 때까지 허둥거리고 있었다. 진형이는 서둘러 쪽지를 펴더니 잠시 후, 환한 표정으로 심사위원에게 달려가 정답을 말하였다. 그리고는 우리 반쪽을 향해 두리번거리기 시작했다. 함께 달릴 누군가를 찾는 것 같았다. 반장이 뛰어가더니 진형이의 쪽지를 본 뒤 다시 달려왔다.

“까만 운동화를 신은 사람과 함께 뛰어야 한데!”

다급한 반장의 목소리에 까만 운동화를 신고 있던 아이들은 웅성거렸고 성호는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았다. 까만 운동화였다.

성호는 진형이를 바라보았고 둘은 눈이 마주쳤다. 제법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진형이의 눈이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크게 보였다.

‘장군이도…….’

순간 머리 속에 장군의 까만 눈망울이 떠올랐고 성호는 망설이지 않고 진형이에게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진형이의 손을 잡고 결승선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절뚝거리는 진형이 때문에 혼자 달릴 때만큼 속도가 나지는 않았지만 발걸음만큼은 어느 때보다 가볍게 느껴졌다.

퀴즈를 풀지 못해 허둥대던 다른 아이들도 이제 막 퀴즈를 풀었는지 짝을 이루어 뒤를 쫓아오기 시작했다.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것을 좋아하던 성호지만 오늘날만큼 시원하고 상쾌한 바람은 처음인 것 같았다. 진형이와 꼭 잡아 땀에 젖은 두 손에도 시원한 바람이 느껴졌다.

드디어 결승선을 통과하여 다음 선수에게 바톤을 넘겨주었다. 진형이와 성호는 운동장 한 구석으로 가서 들썩거리는 가슴을 진정시켜며 앉아 있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던 성호와 진형이는 한 순간 눈이 마주쳤고 둘은 말없이 ‘씩하고 웃었다.

“야, 박진형! 잘 달리던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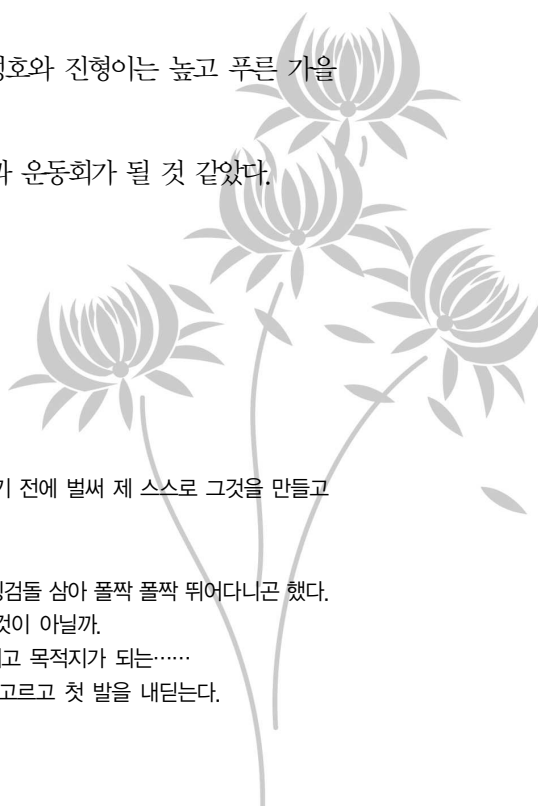
“성호 너도 만만치 않더라.”

서로에게 웃음 섞인 한 마디를 던진 성호와 진형이는 높고 푸른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웬지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가을 하늘과 운동회가 될 것 같았다.

“운명에는 우연이 없다. 인간은 어떤 운명을 만나기 전에 벌써 제 스스로 그것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T.W. 윌슨

시골에 가면 작은 속을 흰히 드러낸 냇가의 돌을 징검돌 삼아 폴짝 폴짝 뛰어다니곤 했다. 삶도 개울에 널린 징검돌을 하나 돌씩 밟아가는 것이 아닐까. 자신이 선택한 징검돌들이 모이고 모여 방향이 되고 목적지가 되는…… 성호도… 그리고 나도, 이제 또 하나의 징검돌을 고르고 첫 발을 내딛는다.



장려상

## 내 마음의 잠금장치

화장실 밸브를 힘껏 눌렀다. 물이 '썩' 하며 세차게 쏟아졌다. 내 마음의 물은 너무 오래 고여있었던 것은 아닐까? 누가 내 마음의 잠금장치를 힘껏 열어 주었으면 좋겠다. -본문중에서-

대구광역시 효동초교  
오영웅



# 내 마음의 잠금장치

## 1.

세차게 불던 2월의 찬바람이 오늘은 잠잠하다. 밝은 햇살이 비치는 길을 따라 학교로 가는 길, 오랜만에 따뜻한 느낌이 감도는 아침이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이 길을 다녔을까? 겨울방학이 끝나고 학교로 가면서 매일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 6년 동안 이 길을 다녔는데, 요즘은 이 길이 참 낯설게 느껴진다. 걸음을 옮겨놓을 때마다 지나온 길가의 풍경들이 지워져 가는 것만 같다. 6년 동안 걸어온 내 발자국의 흔적들이 하나 둘 지워져 가는 것 같아, 아쉬워서 빨리 걸어갈 수 없었다. 내일 하루만 이 길에 내 발자국을 새기면 마지막이 된다. 드디어 내일이면 졸업식이기 때문이다.

현지가 보인다. 삼거리 문구점 앞에서 날 보자마자 반갑게 손을 흔들고 있다. 내가 현지를 기다리거나, 현지가 나를 기다리거나 우리는 언제나 여기에서 함께 학교로 갔었는데, 이 기다림도 내일이면 마지막이 된다니 벌써 콧등이 시큰해왔다.

“헤림아, 오늘 날씨 좋다. 그치? 내일도 오늘처럼 날씨가 좋아야 하는데”

“그래, 그랬으면 좋겠다. 오늘만 같아라. 진짜!”



“헤림아, 그런데 내일은 종빈이도 학교에 오겠지?”

“종빈이…….”

이종빈. 1학기 때, 나를 이기고 우리 반 반장이 되었던 아이. 종빈이는 가을운동회가 끝나고 며칠 뒤부터 학교에 오지 않았다. 운동회에서 기마전 대항을 하다 떨어져 힘들어하던 종빈이의 모습이 우리가 기억하는 종빈이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그래, 내일은 종빈이도 꼭 우리와 함께 졸업장을 받았으면 좋겠어.”

오늘도 여전히 개구쟁이 아이들은 아침부터 문구점 오락기 앞에 앉아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게임을 하고, 윗리스 운동화를 신고 보란듯이 미끄러지며 지나가는 아이들의 모습도 똑같고, 어젯밤 TV에서 보았던 연예인들의 이야기를 하며 재잘거리는 여자아이들의 모습도 변함이 없는 데, 학교로 가는 길이 갑자기 왜 이렇게 짧아진 것일까?

6학년 4반, 1년동안의 보금자리에 들어섰다. 아침부터 많은 친구들의 소곤거림이 들려온다. 어김없이 선생님은 조용히 좀 하라고 하신다. 지각한 아이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빗자루를 들고 복도를 청소하고 있다. 여느 날들과 다를 것이 없는 하루, 매일 보는 풍경에 내일이 졸업식이라는 것도 잠시 잊어버렸다.

“조용~ 조용~, 손 머리!”

오늘도 ‘손 머리부터 선생님의 하루는 시작되었다.

“내일이 졸업식이라서, 오늘은 3교시에 예행연습을 해야 해. 그 전에 졸업식 노래 연습 좀 하자.”

커다란 TV 화면에 졸업식노래 가사가 보인다. 곧바로 졸업식노래가 흘러나오고, 아이들은 멜로디에 맞춰 낮게 따라 불렀다. 몇몇 아이들이 장난스럽게 따라 부르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노랫소리보다 더 크게 들

렸다.

‘분위기도 모르는 녀석들’ 혼자서 이런 생각을 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언제나 제자리에 있는 정겨운 교실의 사물들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 오는데, 유난히 허전하게 느껴지는 저 자리는. 주인 없이 덩그러니 놓여 있는 종반이의 빈자리가 내 눈을 찌른다.

## 2.

작년 3월의 어느 날, 우리가 새롭게 시작되는 6학년의 생활에 하루하루 익숙해져 가고 있을 즈음이었다. 친구들의 이름은 다 외우지 못했지만, 친구들의 얼굴은 이미 눈으로 다 익혔다. 처음의 서먹서먹함은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다정스런 분위기로 바뀌어 갔다. 우리는 새로움에 빨리 익숙해지는 아이들이니까.

“이번 시간에는 1학기 학급임원을 뽑도록 하겠어요.”

언제 할까 생각은 했지만, 갑작스런 선생님의 말에 나도 모르게 긴장이 되었다. 5학년 때까지 반장 아니면 부반장을 하면서 화려한 경력을 쌓아온 나였기에 사뭇 이 시간이 긴장되었다.

임원의 책임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고, 임시 반장이었던 슬기의 사회로 선거를 시작하였다.

“지금부터 2003학년도 1학기 학급임원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학급회장을 하고 싶은 사람은 손을 들어 주세요.”

아이들 모두 서로의 눈치를 살폈다. 두리번두리번 주위를 살피거나, 짹짹과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누면서 누가 손을 들 것인가 궁금해하였다. 나 역시 손을 들까 말까 망설이면서 주위를 살폈다. 시간이 흘러도 손을

드는 친구가 없었다. 그런데 현지가 슬며시 손을 들었다.

“저는 제가 반장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혜림을 추천합니다.”

그 순간 나의 귀를 의심했다. 그래서 현지를 바라보았다. 현지도 나를 한번 바라보고는

“혜림이는 공부도 잘하고, 또 반장, 부반장도 많이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라고 발표를 하였다. 순간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지의 말에 찬성을 할지, 반대를 할지 구분할 수 없었다.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또 한 친구가 손을 들었다. 얼굴에 주근깨가 뿔뿔 박혀있는 남자아이, 그 아이 이름이 웅준이었단가. 그 때는 이름도 몰랐다.

“저는 이종빈을 추천합니다. 종빈이는 5학년 때 같은 반이었는데, 반장을 하면서 우리 반을 잘 이끌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종빈이를 유심히 보았다. 남자아이답지 않은 하얀 피부가 제일 먼저 눈에 띄었고, 웅준이의 추천에 씩 웃는 모습이 다소 바보같이 보였다.

두 아이가 더 추천되었다. 머리를 정성스럽게 파은 희수와 작고 활발한 도경이었다. 추천이 된 네 아이가 교실 앞으로 나가 출마연설을 하였다. 연설내용이 모두 비슷하였다. 미쳐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까닭에 지금까지 보아왔던 것과 비슷하게 “저를 반장으로 뽑아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의 내용이었고 나도 그 말 밖에는 다른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럼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인기투표가 아닙니다. 자기와 친하다고 해서 무조건 찍어주면 안 되지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1학기동안 우리반을 책임질 반장을 뽑

아 주셔야 합니다.”

선생님께서 이 말을 덧붙이고 투표용지를 나누어주었다.

선생님의 붉은 도장이 찍혀있는 쪽지를 받고는 모두들 손으로 가리고 이름을 적었다. 현지가 나에게 주먹을 쥐어 보이며 작은 목소리로 “화이팅!”을 외쳤다. 아이들은 누가 볼세라 얼른 종이를 접어 종이 상자 속에 투표용지를 넣었다.

“투표가 끝이 났습니다. 지금부터 투표를 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하나 하나 불려질 때마다 내 가슴은 기대와 실망으로 쿵쥔거렸다. 종이 쪽지 하나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기분이라니. 나는 슬기의 입모양에 온신경을 집중하며 귀를 기울였다. 처음부터 종빈이와 나의 경쟁은 누가 이길지 알 수 없었다. 서로 앞서다가 뒤서다가 비기기도 여러 번, 그럴 때마다 아이들의 환호 소리가 엇갈렸다.

개표가 끝이 났다. 내가 12표, 종빈이가 10표, 희수가 7표, 도정이가 9표를 받았다. 내가 두 표 차이로 종빈이를 이겼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손바닥에 짙은 땀의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다. 흥미진진한 경기에 서 승리한 짜릿한 쾌감이 이런 것일까? 그 순간 나는 반장이 되었다는 기쁨에 휩싸여 있었다.

“이혜림 어린이가 12표를 얻어서 1학기 학급회장에 당선되었습니다.”라는 슬기의 말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선생님이 슬기에게 서류종이를 보여주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뭔가 이상한 예감, 결국 내가 기다렸던 말은 나오지 않았다.

“우리 반 38명 중에서 혜림이가 12표를 얻었지만, 3분의 1을 넘지 못해서 10표를 얻어 2위를 한 종빈이와 재투표를 해야 합니다.”

우리 반은 남자아이가 21명, 여자아이가 17명이다. 38명의 3분의 1인

12,666...명의 표를 얻어야 학급임원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내가 받은 표의 수는 12표. 결국 나는 0.6이 모자라서 반장이 될 수 없게 된 것이다. 어떻게 한 사람을 0.6까지 나눌 수 있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학교규칙대로 2차투표를 하게 되었다. 1차에서와는 달리 2차에서는 20대 18로 내가 종빈이에게 지고 말았다. 개표가 되는 내내 누가 이길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그러나 마지막에 반장으로 당선된 사람은 내가 아니라 종빈이였고, 환호를 터트리며 즐거워한 쪽은 남자아이들이었다. 반면에 여자 아이들은 풀이 죽었고, 못내 아쉬워하며 나를 위로해 주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거의 모든 표는 여자아이들의 표였고, 종빈이가 받은 거의모든 표는 남자아이들의 표라는 생각이 들었다.

두 표 차이. 내가 두 표 차이로 이겼을 때는 반장이 될 수 없었지만, 종빈이가 두 표 차이로 나를 이겼을 때는 반장이 될 수 있었다. 그 기막힌 사실이 나를 화나게 만들었고, 종빈이에 대한 마음의 씨앗을 가슴속에 품게 만들었다.

### 3.

그 후로 나는 종빈이가 하는 모든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러나 종빈이는 자기가 맡은 반장의 일을 잘 해나가고 있었다. 그럴수록 나는 종빈이가 더 알미워졌다.

수요일 4교시가 마쳤다.

“선생님이 출장이라서 빨리 나가 봐야 해요. 그러니까 종빈이가 나 대신 청소검사를 하고 교실 문을 좀 잠가 주세요.”

“청소당번은 선생님이 없다고 대충하지 말고, 반장한테 검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이번 주말에 현지 생일이어서, 친구들과 시내에 선물을 사러 가기로 한 날이었다. 내가 청소당번이었기 때문에 친구들은 밖에서 기다리기로 하였다. 빨리 청소를 마치고 친구들과 시내로 가고 싶었다.

“오늘은 미술을 해서 교실바닥에 종이조각이 많네. 책상을 옮기고 청소를 해야겠다.”

종빈이의 그 말에 갑자기 짜증이 났다. 종빈이를 알미워하는 내 마음이다. 오늘은 친구들과 시내에 쇼핑을 간다는 조급한 마음 때문에 더 그러했다.

“야, 이종빈! 니가 반장이면 반장이지 청소방법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야?” 내 기분 그대로 화를 내며 말을 했다.

“책상 옮기지 않고도 깨끗하게 할 수 있잖아. 난 오늘 빨리 가 봐야 한 단 말야!”

“응. 그래? 그러면 어쩔 수 없지. 그런데 화는 왜 내냐? 사정을 말하면 되텐데. 헤림이 먼저 가.”

순간 당황했다. 내가 화를 내면서 말을 하는데, 저렇게 아무렇지 않은 듯 침착하게 말할 수 있는지. 차라리 내가 화낸 만큼 종빈이도 화를 냈다면 이상한 기분은 들지 않았을 텐데 말이다. 더욱 종빈이가 알미워졌다.

“내가 왜 내 사정을 너한테 이야기해야 해? 응?”

“너, 화 많이 났구나. 화나게 하려고 한 말 아니니까 신경쓰지 말고 어서 가 봐. 늦겠다.”

“애들아, 헤림이는 다른 일이 있어서 빨리 가 봐야 하니까 우리끼리 청소하자. 자, 책상 옮기고!”

그 때 남자아이들이 불만스럽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도 종빈이는 웃으

면서

“대신 내가 청소하면 되잖아.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어서 하자.”

그리고는 혼자서 책상을 옮기며 청소를 시작하였다. 나는 그 모습에 더 할말이 없어서 가방을 들고는 교실을 뛰쳐나왔다.

‘정말 잘났어. 혼자서 잘난 척 다하고.’

그렇게 종빈이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중간에서 서로의 기분을 이해해주었고, 자기가 더 노력을 해서 문제를 쉽게 해결하였다. 모두들 그런 종빈이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고집을 더 내세우지 않았다. 여자아이들도 모두 그런 종빈이를 좋아했고, 반장을 잘 뽑았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종빈이를 반장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내가 화장실을 간 사이에 웅준이와 현지가 싸웠다.

“헤림이는 맨날 왜 그래? 종빈이가 무슨 제안을 하면 꼭 반대만 하잖아?”

“헤림이가 언제?”

“오늘만 해도 그래, 선생님께서 일기쓰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어봤는데 헤림이 때문에 매일 쓰게 생겼잖아.”

“종빈이가 일주일에 3일을 쓰면 좋을 것 같다고 하니까, 헤림이가 바로 반대했잖아.”

“뭐가 그게 헤림이 때문이야? 선생님이 결정하신 건데.”

“선생님이야 아이들이 일기 많이 쓰면 좋으니까, 헤림이가 그런 제안을 하면 당연히 그 의견에 찬성하지.”

“참 나, 그러면 니가 선생님께 다시 말하지 그랬어? 용기도 없어서 말도 못했으면서, 왜 남한테 그래?” 현지가 목소리를 높여 화를 냈다.

“야, 너 헤림이 친구라고 헤림이 편을 드는 거야? 꼭두각시처럼 졸졸

따라다니면서!”

이 광경을 뒷문에서 지켜보고 있던 나는 그 말에 화가 났다. 내가 그 싸움 속으로 끼어들려고 한 바로 그 순간, 현지가 연습장을 웅준이에게 사정없이 던져 버렸다. 현지가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은 그 때 처음 보았다.

“너 말 다 했어?”

웅준이가 연습장을 다시 현지에게 던지려고 할 때, 나는 고개를 돌려 버렸다. 그런데 웅준이가 던진 연습장에 맞은 건 종빈이었다. 던져진 연습장을 잡으려고 하다 미쳐 잡지 못하고 말았다.

“종빈아…….”

“아야. 웅준아 이게 야구공이냐? 이런 걸 던지게.”

“니가 그걸 왜 막아?”

“네가 잘못 던진 거지. 이 싸움의 잘못은 나한테 있는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반 아이가 나를 미워하는데, 그걸 알면서도 그 친구와 아직 화해하지 못했으니까. 내 잘못이야.”

“현지야 미안하다. 웅준아 미안하다.” 그 말을 하고 종빈이가 천천히 돌아섰다. 나는 얼른 몸을 돌려 다시 화장실로 뛰어갔다.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가슴이 답답했다. 눈을 감아 버렸다. 눈을 감았는데 조금 전에 보았던 종빈이의 모습이 더 생생하게 보였다. 고개를 세차게 흔들고 귀를 막아도 종빈이의 말은 더 크게 들려왔다.

‘바보, 도대체 뭐가 자기 잘못이라는 거야. 세상에 너같은 바보는 없을 거야.’

화장실 밸브를 힘껏 눌렀다. 물이 ‘썉’하며 세차게 쏟아졌다. 내 마음



의 물은 너무 오래 고여있었던 것은 아닐까? 누가 내 마음의 잠금장치를 힌껏 열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날 밤, 나는 잠겨있는 마음의 열쇠를 스스로 찾기 위해서 종빈이에게 편지를 썼다. 마지막에 미안하다는 말을 쓰고는 마침표를 힌껏 꼭 눌렀다.

#### 4.

종빈이가 여러 날 학교에 오지 않았다. 우리는 운동회때 기마전에서 떨어져서 많이 아픈 줄로만 알았다. 선생님께 물어보아도 그냥 많이 아프다고만 하셨다.

‘자식, 이제 좀 친해보려고 하니까 얼굴을 안 보여주네.’

우리는 종빈이가 없는 사이에 중간고사도 치고, 중학교 원서도 썼다. 종빈이는 어머님께서 대신 학교에 오셔서 작성하셨다. 그렇게 우리는 6학년을 서서히 마감하고 있었다.

종빈이의 빈자리에 무관심해질 즈음에서야 종빈이가 왜 이토록 오랫동안 학교에 오지 않는지 알게 되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가시고기에 나오는 주인공 다움이가 떠올랐다. 언제나 밝은 웃음으로 우리 교실을 환하게 해주던 종빈이가 지금 병원에서 다움이처럼 아파하고 있다는 것이 나는 믿겨지지 않았다.

“진료결과가 나올 때까지 친구들에게 말하지 말아 달라는 종빈이어머님의 부탁이 있어서 말을 못했다. 종빈이가 치료 잘 받아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너희들도 기도해 주렴.”

수업을 마치면서 선생님께서 부탁하셨다. 집으로 돌아와 기도를 하려

고 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몰랐다. 그냥 ‘종빈아 빨리 돌아와라는 말만 수도 없이 되풀이하였다. 저녁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 줄도 몰랐다. 어느새 주문처럼 그 말을 외면서 나는 종이학을 접었다. 한 마리 한 마리 접어 나갈 때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다음 날 학교가는 길에 문구점에서 학종이를 샀다. 현지는 말없이 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현지도 학종이를 샀다. 교실에 도착하자마자 종이학을 접었다. 현지와 내가 종이학을 접는 모습을 친구들이 이상하게 바라보았다.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냥 주문을 외듯이 접기만 했다. 웅준이가 학종이가 있으면 좀 나눠달라고 했다. 웅준이도 자기 자리에서 학을 접었다. 여자아이들 몇이서 같이 접어도 되는지 물었다. 그래라고 했다.

선생님께서 들어오셨다. 종이학을 접는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셨다. 오늘은 ‘손머리라고 하지 않으셨다. 학종이가 예쁘다고 했다. 그리고는 학종이가 모자르지 않느냐고 물어보셨다. 슬기가 선생님 심부름을 갔다 왔다. 학접는 방법을 짝꿍에게 배우는 친구도 있었다. 처음 접은 학을 이상하게 바라보기도 했다. 짝꿍이 구박을 했다. ‘이게 학이나 하늘을 나는 익룡이지!’ 이제는 종이학을 접지 않는 친구들이 이상하게 보였다. 1교시가 끝이 났다. 종빈이에게 38시간의 마음이 전해진 것이다.

쉬는 시간에도 우리는 종이학을 접었다. 옆반 친구들도 종이학을 접어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다. 금세 종이학이 많아 졌다. 헤림이가 살며시 웃었다. 웅준이도, 현지도, 선생님도 웃음을 보였다. 모두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종빈이에게 우리의 웃음까지도 전해졌으면 하고 빌었다.

슬기가 다시 심부름을 갔다 왔다. 큰 유리병에 종이학을 담았다. 색깔별로 차례대로 담았다. 빨주노초파남보 무지개를 그리듯이. 종빈이의 머

리 위에 다시 아프지 않는다는 약속의 무지개가 떠올랐으면 좋겠다.

5.

오후가 되자 햇볕이 더 따뜻하게 내리쬐다. 아이들이 물밀 듯이 교문을 빠져 나오고 있다. 현지와 나도 아이들 속에서 함께 걸었다. 우리 앞에 노란색 빵모자와 노란색 목도리를 한 꼬마 아이가 분홍색 모자와 분홍색 목도리를 한 꼬마 아이와 손을 잡고 양증맞게 걸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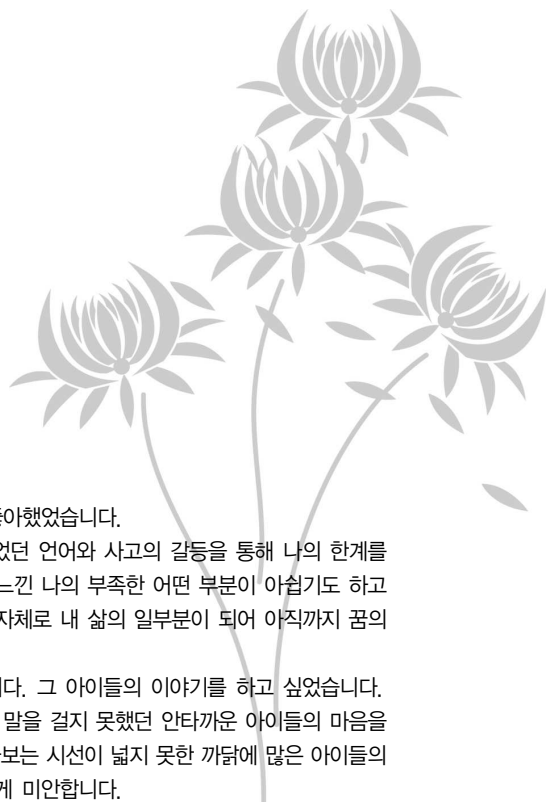
“현지도 저 때는 참 귀여웠는데, 헤헤헛”

“헤림이 너도 그새 참 많이 늙었네. 후후훗”

어느새 훌쩍 커버린 서로를 바라보며 우리도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다. 친구의 따뜻한 기운이 전해왔다. 내일 졸업식장에서 종빈이를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이 따뜻함을 그대로 종빈이에게 돌려주고 싶다. 마음 가득 고여 있었던 오래 된 물을 새롭게 바꾸어 준 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의 잠금장치를 열어 주고서 멀리 숨어 버린 그 아이에게.

등 뒤로 노오란 햇빛이 짙 깔렸다. 등뒤로 살금살금 다가오고 있는 봄의 느낌. 겨울을 밀어내며 서서히 다가오는 봄처럼, 아픈 상처들을 밀어내며 서서히 다가오는 희망이 종빈이의 마음속에 싹을 틔울 것만 같다.

드디어 내일이면 졸업이다.



어릴 적부터 글을 쓴다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했었습니다.

한 편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느꼈었던 언어와 사고의 갈등을 통해 나의 한계를 어렵듯 짐작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스스로 느낀 나의 부족한 어떤 부분이 아쉽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글쓰기는 글쓰기 그 자체로 내 삶의 일부분이 되어 아직까지 꿈의 언저리를 서성거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실에서 많은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선생님에게 말을 걸려고 했지만 차마 말을 걸지 못했던 안타까운 아이들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아직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넓지 못한 까닭에 많은 아이들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고 있지 못해 아이들에게 미안합니다.

아이들이 나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사실 그대로 말을 걸 수 있는 날, 나의 글쓰기도 아이들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를 담아 세상에게 말을 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려상

# 비누방울 콩

비누방울 콩 새싹엔 어느 새 잎이 무성합니다.

이파리 사이로 작은 열매까지 매달려 있습니다.

영락없는 비누방울 모양입니다.

‘저렇게 빨리 자라는 식물 들어본 일이 없는 걸.

슈퍼 콩인가?’

어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야.’

—본문중에서—



## 비누방울 콩

그렇습니다. 갑작스런 소나기를 만나기 전까진 모든 게 어제와 똑같은, 그저 따분한 아침이었지요.

서영이는 키 작은 향나무 아래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짧은 머리카락 끝에 빗방울이 두어 개 매달려 대롱거립니다. 서영이는 고개를 흔들며 물기를 떨어내었습니다.

“일기 예보에도 안 나왔는데, 웬 비람?”

뭐든 과학으로 설명을 해 놓아야 직성이 풀리는 서영이입니다. 과학적 분석으로 만들어진 일기예보를 비웃기라도 하듯 번덕을 부리는 날씨가 그저 못마땅합니다.

거리에는 미처 비 피할 곳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부산하게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밖이야 어찌됐든 서영이가 숨어든 향나무 우산 속은 동굴처럼 아늑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치고는 키가 작은 서영이도 허리를 굽혀 들어왔으니, 어른들은 생각도 못할 겁니다. 급하게 찾아 든 장소지만 운이 좋았지요.

그것 참 묘한 날씨입니다. 분명히 햇볕은 쨍-하니 비추고 있는데, 난데없는 소나기라니요.

‘이러다 학교에 늦으면 어떡하지?’

거리는 어느 새 텅 비어있습니다. 등교 시간이니 같은 학교 친구를 만날 법도 하건만, 사람은커녕 쥐새끼 한 마리 보이질 않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가슴을 졸이던 서영이는 다음 순간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누군가 나무 밑으로 쑥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벌써 주인이 있었구먼. 실례 좀 하세.”

하얀 머리카락을 색시처럼 곱게 땡아 내린 할머니입니다. 소매가 넓적한 한복은 금방 지은 옷처럼 아주 깨끗합니다. 기억자로 구부러진 허리 때문에 아이보다 더 작아 보이지만, 얼굴은 하도 쪼글거려 나이를 짐작하기도 어렵습니다.

“예? 아.., 네.”

어안이 병병했던 서영이는 몸을 옆쪽으로 옮겨 자리를 마련합니다. 할머니는 킁킁거리며 나무 밑에 자리를 잡더니 땅바닥에 아주 첩퍼덕 주저앉습니다. 손잡이가 달팽이 모양으로 말린 나무 지팡이도 놓쳐 놓습니다.

“앵이~. 하필 오늘 같은 날 시집을 가서 고생을 시키누먼”

할머니는 서영이에게 말하는 건지, 혼잣말인지 알 수 없는 말투로 투덜댑니다.

“예? 누가요?”

할머니는 당연한 것을 왜 묻냐는 표정입니다.

“누구긴 누구겠능가. 여우 각시 말이지.”

그제야 서영이는 속으로 ‘아하~!’ 합니다. 해가 뜬 상태에서 비가 올 때 어른들은 ‘여우가 시집간다’고 말하곤 하지요. 서영이는 저도 모르게 피식 웃고 맙니다. 여우가 시집을 간다니. 과학적으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내친김에 할머니께 제대로 가르쳐 드려야겠습니다.

“할머니. 꼭 흐린 날에만 비가 오는 건 아니에요. 오늘처럼 비구름이

옆게 떠 있을 땐 해가 비치는 상태로 비가 올 수도 있는 거죠. 여우가 시집을 간다니 말도 안 돼요.”

할머니는 한동안 대답을 못한 채 눈만 뚱그렇게 뚫습니다. 조금은 감탄한 표정 같기도 합니다. 괜히 기분이 으쓱해집니다.

“오라 오라, 아주 똑똑한 아이로군. 내 너에게 좋은 것을 배웠으니 선물을 하나 주마. 헤헤헤헤”

할머니는 바람 빠지는 소리를 내며 웃더니 넓적한 소매 속을 뒤적입니다.

“요놈은 비누방울 콩이라고 하지. 이걸 심으면 아주 재미난 일이 있을 게다.”

꼭 유리 구슬처럼 반짝이는 예쁜 콩입니다. 엉겁결에 콩을 받은 서영이는 신기해서 요리조리 굴러봅니다. 이런 콩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비누방울 콩이라구요?”

대답이 없어서 고개를 돌려보니 옆자리가 비어있습니다. 놀란 서영이가 주변을 두리번거립니다. 할머니는 땅으로 꺼지기라도 한 것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눈을 몇 번 깜빡깜빡해 봅니다. 꿈이라도 꾸 것일까요? 손 바닥위에 얹전하게 놓여진 비누방울 콩만 아니었다면, 서영이는 모든 걸 꿈이었다고 생각했을 지도 모릅니다.

어느 새 비는 그쳐있습니다. 곳곳에 생긴 작은 웅덩샘 위로 햇살이 톡 톡 튀어 오릅니다.

서영이는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창가로 갑니다. 창가에 놓인 길쭉이 화분에는 누구든지 심고 싶은 씨앗을 마음대로 심을 수 있습니다. 벌써 쏘옥 고개를 내민 새싹도 보입니다. 서영이는 다른 새싹이 다치지 않도록



구석진 곳에 작은 구멍이를 뚫습니다.

‘재미있는 일이 있을 거라고?’

어쩐지 믿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서영이는 비누방울 콩을 흙으로 토닥토닥 덮고나서 쪼로록 물도 줍니다.

“앗, 저승사자 온다!”

말썰 대장 태호가 문을 벌컥 열고 구르듯 뛰어 들어옵니다. 서영이도 급하게 제 자리로 돌아갑니다.

‘저승사자’는 서영이반 담임 선생님의 별명입니다. 선생님은 아무리 우스운 일이 생겨도 절대로 소리 내어 웃는 법이 없습니다. 눈가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어 일년 내내 화가 난 얼굴이지요. 게다가 늘 검은색이나 회색 양복을 입고 있어서 한 여름에도 찬바람이 뽀뽀 불어올 것만 같습니다.

선생님이 들어오기 전에 책을 미리 펴 놓지 않으면 불벼락이 떨어질 겁니다. 바쁘게 책가방을 뒤지던 서영이의 귀에 문득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퐁!

작지만 분명 창가 쪽 화분에서 들리는 소리입니다. 고개를 든 서영이의 눈이 오백 원짜리 동전처럼 커집니다. 분명 비누방울 콩을 심었던 자리에 못 보던 새싹이 하나 돋아나 있었습니다. 잘못 보았을 리가 없습니다.

드르륵.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린 서영이는 저도 모르게 숨을 딱 멈추고 맙니다.

눈이 부셔서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할 지경입니다. 선생님이 움직일 때마다 양복 위에 붙은 반짝이들이 찬란한 빛을 냈습니다. 무릎 위로 강풍

하게 짧은 바지 단엔 은색의 작은 종들이 조롱조롱 매달려 있습니다. 걸을 때 ‘딸랑딸랑’ 소리까지 나는 게 진짜 종인 모양입니다. 세상에. 빨간 반 양말에 박힌 땡땡이 무늬는 또 어떻구요!

놀라서 숨까지 멈췄던 서영이는 이제 웃음을 참느라 숨을 멈춰야 했습니다. 언제나와 다름없이 근엄한 얼굴은 더욱 우스꽝스러워 보입니다.

이상한 건 아이들이 너무나 태연하다는 점입니다. 마치 선생님이 날마다 그렇게 입고오기라도 했다는 듯이요. 한참을 어리둥절해 하던 서영이는 선생님과 아이들이 미리 짜고 자신을 놀리기로 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날 놀려먹겠다는 거지? 흥! 그렇다면 이쪽도 순순히 당해줄 순 없다고.’

서영이는 슬그머니 껄뽀한 생각이 들어 시치미를 뚝 떼니다. 아무렇지도 않다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역시 쉽지는 않습니다. 자꾸만 입가가 제멋대로 씩룩이는 것입니다. 서영이는 칠판 위쪽에 걸린 태극기를 노려보며 웃음을 참습니다.

비누방울 콩 새싹엔 어느 새 잎이 무성합니다. 이파리 사이로 작은 열매까지 매달려 있습니다. 영락없는 비누방울 모양입니다.

‘저렇게 빨리 자라는 식물은 들어본 일이 없는 걸. 슈퍼 콩인가?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야.’

어쩌면 저 비누방울 콩과 선생님의 변신이 무슨 관계가 있는 게 아닐까요? 서영이는 머리를 싸매지만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흠흠. 오늘은 자리를 새로 정하기로 하겠어요.”

선생님은 교탁 아래에서 알록달록한 상자를 꺼냈습니다. 아이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한 사람씩 나가 상자에서 쪽지를 뽑습니다. 서영이도 열

떨결에 친구들 틈에 섞여 쪽지를 뽑아들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이왕이면 태준이 짝이 되었으면.’

작년에 서울에서 전학 온 태준이는 얼굴이 잘 생긴데다 공부도 잘해서 여자애들에게 제일 인기 있는 아이입니다. 결눈질로 보니 태준이는 19번을 뽑은 눈칩니다. 그렇다면 20번이 나와야 태준이의 짝이 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서영이가 뽑은 쪽지엔 숫자 2만 덩그러니 누워 있습니다. 한숨을 포옥 쉬는데, 이상한 게 눈에 띄니다. 옆 친구의 쪽지에서 숫자 0이 ‘툭’ 하고 바닥에 떨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놀란 서영이가 숫자 0을 집어들자 0은 서영이의 쪽지 속으로 쏙 들어갑니다. 쪽지를 다시 펴 보니 0은 2옆에 사이 좋게 붙어 있습니다. 20번이 된 것이지요.

결국 서영이는 태준이의 짝이 되었습니다. 짝이 된 태준이가 씩 웃으며 서영이에게 귓속말을 합니다.

“잘됐다. 난 너랑 짝이 되고 싶었어.”

이게 꿈일까요, 생시일까요. 서영이의 얼굴은 발갛게 물들고 맙니다.

“오늘 일기 검사는 15번, 박서영!”

저승사자 선생님은 날마다 한 명만 짝어서 일기검사를 합니다. 아이들은 운 나쁘게 걸릴까봐 울며 겨자먹기로 일기를 쓰곤 하지요. 서영이는 놀라서 가방을 뒤지다가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맙니다. 아무래도 일기장을 책상 위에 두고 온 모양입니다. 그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인데, 딱 걸리고 만 것입니다.

일기 안 써온 아이들이 얼마나 혼쭐이 나는지 알고 있는 서영이입니다. 몸이 쭈뼛쭈뼛 굳는 느낌입니다.

“저기, 선생님…….”

선생님은 무서운 얼굴을 하고 뚜벅뚜벅, 아니 팔랑팔랑 걸어와서 일기장 한 권을 불쑥 내밀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일기장을 받아든 서영이가 선생님을 뻔히 올려다봅니다.

“얼른 검사해다오.”

“네?”

일기장에는 ‘6학년 1반 담임 저승사자’라고 쓰여 있습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라 난처합니다.

“뭐하니? 어서 읽어보고 <검>이라고 써 주렴.”

선생님의 표정이 아주 진지해 보입니다. 서영이는 눈을 질끈 감고 일기장에 빨간 색연필로 <검>을 썼습니다. <검>자를 받은 선생님은 후련하다는 얼굴로 일기장을 다시 가져갑니다.

비누방울 쿵의 열매는 사과만큼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던 서영이도 이제 모든 상황이 즐겁기만 합니다. 서영이를 놀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건 비누방울 쿵이 가져다 준 ‘재미난 알’이 틀림없었으니까요.

서영이가 가장 좋아하는 과학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 과학 시간에는 <바람 염색하기 실험>을 하도록 하겠어요.”

‘바람 염색하기라니. 처음 들어보지만 분명 흥미 진진한 실험이겠지요. 서영이는 기대감으로 눈을 반짝입니다.

선생님은 모듬별로 구멍이 촘촘한 체와 다양한 색깔의 염료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서영이네 모듬은 초록 염료를 받았습니다. 아이들은 염료를 물에 잘 풀어 체 위에 잔뜩 칠해 놓았습니다. 이제 염료를 묻힌 체를 바람이 잘 통하는 창문에 기대어 놓기만 하면 됩니다. 모두들 준비를 마치

고는 숨 죽이며 바람을 기다립니다.

마침 산들바람이 불어옵니다. 체를 통과한 산들바람은 아주 얇은 초록색 비단처럼 나폴거리며 지나갑니다. 다른 색을 칠해 놓은 체에서도 가지각색의 바람이 생겨납니다. 아이들은 즐거워서 저마다 와글와글 떠들기 시작합니다.

이번엔 바람이 제법 거세게 밀려옵니다.

“와!”

선명한 색깔로 물든 바람이 순식간에 교실을 가득 매웁니다. 이제 교실 안은 완전히 무지개 빛입니다. 아이들은 잡히지 않는 무지개 바람 속을 뛰어다닙니다. 바람에 묻은 염료 때문에 아이들은 얼굴이며, 옷에 알록달록 물이 듭니다. 그래도 아이들은 마냥 신이 납니다. 서영이도 함께 무지개 바람 속을 뒹뒹니다. 서영이네 모듬이 만들었던 초록 바람에 닿은 손이 초록색으로 물듭니다.

창가의 비누방울 열매는 이제 축구공 만하게 부풀어 있습니다. 서영이는 다가가 열매에 손을 대 봅니다. 차가울 것 같았는데, 오히려 따스한 온기가 느껴집니다.

그러다 문득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 둥근 열매를 밖에서 만지고 있으니 볼록한 느낌이 나야 하는데 오히려 오목하게 들어간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밖이 아니라, 마치 안에서 만지고 있는 것처럼.

‘혹시 우리가 있는 곳이 열매 안이고, 열매 안이 바깥이 아닐까?’

퍼뜩 스치는 생각에 놀란 서영이가 힘주어 열매를 눌러봅니다. 처음에는 딱딱하게 느껴지던 열매가 어느 순간 물렁! 손가락을 빨아들입니다.

팡!

얼굴에 뭔가 시원한 것이 확 뿌려지는 바람에 눈이 저절로 꼭 감겼습

니다. 시끌시끌하던 주변 소리가 천천히 잦아듭니다. 가만히 눈을 뜨자 앞에는 빈 화분만 덩그러니 놓여져 있었습니다.

서영이는 놀라서 주변을 돌아봅니다. 모든 것은 새싹이 나기 전의 교실과 똑같습니다. 무지개 빛 바람도 없고, 화려한 옷을 입은 선생님도 없습니다. 색색으로 물들어 교실 안을 뛰어다니던 친구들의 웃음소리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서영이는 두 손을 들어올려 봅니다. 어디에도 초록색 물감의 흔적은 없습니다.

“앗, 저승사자 온다!”

태호가 교실 안으로 뛰어 들어 옵니다. 책을 꺼내느라 분주한 아이들 틈에서 서영이도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드르륵.

혹시나 싶어 선생님을 바라본 서영이의 얼굴이 실망이 드리워집니다. 검은 양복, 흰색 와이셔츠, 회색 넥타이. 평소의 저승사자 선생님 그대로입니다.

따분한 교실, 따분한 선생님, 따분한 친구들. 서영이는 어쩐지 기운이 쭉 빠져서 어깨를 축 늘어뜨립니다. 역시 모든 건 꿈이었습시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세계에서,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세계로 돌아왔는데 왜 하나도 기쁘지 않은 걸까요?

그 때입니다. 고개를 푹 숙인 서영이의 눈에 뭔가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교탁 앞으로 걸어가는 저승사자 선생님의 발입니다. 양복바지와 실내화로 가려져 있긴 하지만 분명히 빨간색 땡땡이 양말입니다. 서영이는 새삼스레 선생님을 뻔히 쳐다봅니다. 자세히 보니 그렇게 무서워 보이는 얼굴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눈가에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지만 눈동자는 맑았고, 입 꼬리는 미소를 지을 듯 말 듯 올라가 있었습니다. 왜

그 동안은 몰랐을까요? 아마 보려고 하지도 않았던 게지요.

열어놓은 창문으로 시원한 바람이 솔솔 불어옵니다. 서영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분명 초록색 바람이 한 줄기 섞여 있습니다. 초록 바람은 서영이를 스치고 교실 안을 한바퀴 돌아 나갑니다. 초록 바람에 스친 서영이 머리카락 끝에 살짝 초록 물이 듭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그냥 검게 보일지 모르지만 서영이 눈에는 분명 초록색입니다.

서영이의 침울했던 얼굴이 조금씩 밝아집니다. 이제야 비누방울 콩이 가져다준 마법의 비밀을 알 것 같습니다. 저승사자 선생님이 밝은 색의 옷을 입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도, 바람을 눈으로 보고 싶어 한 것도, 일기를 검사 하는 입장이 되어보고 싶었던 것도 모두 서영이 자신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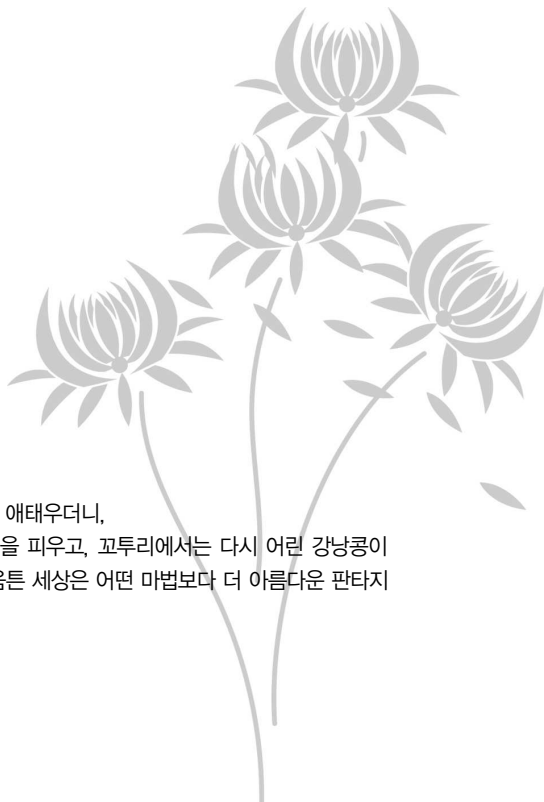
비누방울 콩은 그저 서영이가 꿈꾸었던 상상의 세계를 직접 눈으로 보여주었을 뿐이지요. 눈 앞에서 보이지만 앓을 뿐, 비누방울 콩의 세계는 여전히 서영이의 마음 속에 있을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다시 놀러갈 수도 있겠지요. 서영이의 입가에 비로소 환한 웃음이 걸립니다.

어디선가 ‘퐁! 퐁!’ 씨앗이 돌아날 것처럼 화창한 날입니다.

강낭콩을 심었습니다.

3주 동안이나 시침을 똑 떼며 반 아이들을 애태우더니,

거짓말처럼 싹이 돋았지요. 즐거울 뻔고, 꽃을 피우고, 꼬투리에서는 다시 어린 강낭콩이  
생겨났습니다. 손톱보다 작은 콩 하나에서 움튼 세상은 어떤 마법보다 더 아름다운 판타지  
였습니다.





장려상

# 이 바바의 집

어미 물고기들은 남아 있는 새끼들이 떠내려가지 못하도록 빙 둘러  
막고 있다. 순간 눈물이 핑 돈다. 엄마 생각이 났다. 화가 나면 욕을 하  
고 매도 때렸지만, 우리가 자고 있으면 살그머니 다가와 꼭 안아주었  
다. 더 그림기 전에 엄마의 모습을 잊어야 될 모양이다. -본문중에서-

해남 동초교  
김경희

## 아빠의 집

“기다리지 말고 잊어부러야.”

아까부터 핸드폰을 자꾸만 만지작거리는 아빠를 할아버지가 통명스럽게 쏘아붙였다.

“섬으로 들어와 살기 싫다고 아이들만 보낸 사람이 전화 받았냐. 앞으로 살 방도나 연구허라.”

그래도 아빠는 전화기를 손에서 놓지 못했다. 할아버지 집에 도착할 때까지만 해도 훌쩍거렸던 동생 희수는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고 꼭 붙어 있다.

광주 집에서 집을 찾길 때 엄마는 우리 옷만 챙겼다. 나는 아무 말 않고 엄마 눈치만 살폈다.

“난 도저히 너희들 못 기르겠다. 가서 아빠랑 살아.”

우리 얼굴은 쳐다보지 않고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그동안 엄마는 우리가 귀찮았나 보다. 아빠가 집에서 나간 뒤, 엄마 혼자서 빗쟁이들에게 시달렸으니 힘들기도 했을 거다. 엄마는 드디어 결정을 내렸다. 동생 희수와 나를 아빠가 있는 섬으로 들여보냈다. 우리는 완전히 엄마에게 버림받은 것이다. 나 혼자였다면 섬으로 들어오지 않고 어디 도망이라도 갔을 것이다. 희수 때문에 못 갔다. 하지만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나갈 생각이다.

아빠가 살고 있는 집은 바다 위에 지은 집이다. 할아버지께서 가두리에 바지선을 만들어 주셨다. 원목을 잘라 두꺼운 판자로 만든 것을 서로 이어 붙인 다음 네 귀퉁이에 닻을 매달아 바다에 띄운 집이다. 웬만한 태풍에도 끄떡없다고 했다. 방도 있고 주방에 화장실도 있다. 아빠는 할 아버지를 도와 가두리에서 우럭과 광어 치어(알에서 깬 지 얼마 안 되는 물고기)를 기르고 있었다. 아빠에게서 여전히 술 냄새는 났지만 일을 하는 모습이 보기에 좋았다.

오늘 나는 치어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 할아버지께 물었다.

“할아버지, 물고기들이 가두리 밖으로 도망가지 않아요?”

“그러지야, 언제나 그 안에서 산단다.”

“그물이 터져도 나가지 않을까요?”

“어쩌다 빠져 나간 놈들도 있지만 다시 들어오더라.”

치어들이 그물이 터져도 넓은 바다로 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만 산다는 말이 신기했다.

“희수하고 희재, 내일부터는 학교 다녀야지.”

그리고 보니 너무 놀았다. 섬으로 들어온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 노는 일에 정신이 팔려 학교 갈 생각을 못 했는데…… 할아버지 말씀에 나는 뜨끔했다. 나도 물고기들을 닮아가나 보다. 며칠 살다보니 섬 풍경들이 새롭고 신비스러워 그 속에 빠져들었다.

우리는 아빠만 바지선에 두고 땅위에 있는 할아버지 댁으로 내려 왔다. 내일부터는 이곳 학교를 다녀야 된다. 낯선 아이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 가슴이 두근거렸다.

학교는 마을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마침 쉬는 시간이

었다. 운동장을 들어서자 아이들이 창 밖으로 고개를 내밀며 쳐다보았다. 나는 얼굴이 빨개진 채 5학년 교실로 갔다. 5학년은 학생 수가 모두 열다섯 명이었다. 그중에 남자가 여섯 명, 내가 와서 일곱 명이 되었다.

점심시간에 남자 아이들이 나를 밖으로 불렀다.

“너 축구 잘 하나? 6학년들하고 한 판 붙어야 하느디.”

나는 처음 당하는 일이라 얼떨떨해 대답을 못하고 주저했다. 그전 학교에서 축구를 할 때 나는 항상 공격수였다. 공부는 못해도 축구는 워낙 좋아해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다.

“왜, 너 공도 못 차냐?”

나이키 신발에 나이키 운동복을 입고, 머리는 짧게 깎은 녀석이 주먹을 불끈 쥐며 얼굴을 붉혔다. 덤비는 폼이 당장이라도 한 대 때릴 것 같다. 나는 꼭 참았다. 전학 온 첫날부터 싸우고 싶지 않았다.

“하여튼 공부 끝나면 축구하게 가지 말고 남아.”

완전히 명령이다. 그전 학교에서도 저런 아이가 있었다. 자신이 제일 인양 으스스하며 제 맘대로 했다. 어쩌다 말을 듣지 않은 친구들이 있으면 아무 하고도 놀지 못하게 방해를 했다.

공부가 끝날 무렵, 동생 희수가 우리 교실에 들렀다. 오랜만에 기분 좋은 눈치다.

“형! 이곳은 우리 2학년도 종일반이야. 형하고 같이 끝나. 그리고 이 건 비밀인데 내 짝은 엄마 아빠 다 돌아가시고 할머니하고 살아.”

희수는, 자기와 비슷한 아이가 있어 좋았던 모양이다. 엄마 아빠 말만 나오면 기가 죽어 다녔는데 모처럼 웃는 모습을 보니 나도 좋았다.

공부가 끝나면 남아서 축구를 하자는 아이들 말을 무시하고 나는 아빠가 계시는 바지선으로 건너갔다. 아빠는 날씨가 덥다고 큰 통에 소금

을 진하게 풀어 물고기들을 번갈아 담가 주고 있었다.

“소독해주는 거야. 고기들도 병에 걸리거든. 잘 자라도록 운동도 시켜 주고 먹이도 제때 주어야지 잘 큰단다.”

아빠는 오랜만에 어깨에 힘을 주며 물고기 박사나 된 것처럼 진지하게 설명했다. 고개를 돌려 물속을 쳐다보니 물고기들이 꼬리를 흔들며 떼를 지어 다닌다. 제일 앞쪽에서 헤엄쳐 가는 큰 물고기가 엄마 물고기일까? 마치 새끼들을 데리고 춤을 추는 것 같다. 떼를 지어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모습이 부럽기만 하다. 나는 괜히 심술이 나서 물고기들을 긴 막대로 휘젓고 다녔다. 엄마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다음날, 학교에서 여름 방학 수련회 계획을 짰다. 학생수가 적어4.5.6학년이 같이 간다고 하는데 준비물이 꽤 많았다. 나는 원일이 모둠에 추가 인원으로 들어갔다. 어제 축구를 잘 하느냐며 물어보던 아이다.

“에잇, 재수 없어.”

원일이가 작은 소리로 나를 보며 욕을 했다.

“뭐?”

순간 부아가 났다. 무시하는 것 같아 창피하기도 했지만 처음부터 만만하게 보이기 싫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일어서면 어쩔래? 나 다 알아, 너 어제부터 우리 무시하고 있는 거. 시내에서 못살고 도망 온 게.”

원일이가 먼저 주먹으로 내 어깨를 툭 쳤다. 그러다 치고받고 싸움을 했는데 나는 끝까지 대항했다. 아이들도 놀라는 눈치다. 원일이 코에서 피가 났다. 나도 책상에 부딪쳐 이마가 찢어졌다.

선생님이 오셔서 그 장면을 보고 한숨을 쉬셨다.

“다 큰놈이 전학 오자마자 말썽을 부리는구나, 너희끼리 해결해.”

갑자기 서러운 생각이 들었다. 나는 진료소에서 치료를 받은 뒤 바지선으로 건너갔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며 바다가 붉은 빛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바다는 내가 생각했던 파란색만이 아니었다. 매 시간마다 색이 변했다. 아침엔 금빛이었고, 낮에는 은빛이었다. 해질녘에는 노을이 저 붉은 빛을 띠었다. 밤에는 검은 바다로 보였다가 달빛이 밝아지면, 큰 별과 작은 별들이 바다위로 쏟아져 놀았다.

술을 마신 아빠가 고래고래 소리지르며 노래를 불렀다. 나는 아빠만 두고 바지선에서 내려갈 수가 없었다. 어둠이 찾아오는 바지선에 서둘러 불을 밝혔다. 불빛이 바다로 스며들었다. 아빠는 넓은 어깨가 축 처진 채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나는 아빠를 일으켜 손을 잡고 방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눕혀 드렸다.

‘아빠 노릇 좀 제대로 하지.’

아빠는 꿈을 꾸듯 눈을 감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니 바다가 온통 안개로 덮여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다. 눈에 보였던 풍경이 모두 안개 속으로 숨어버렸다. 뱃고동 소리만 자주 들렸다. 내가 자꾸만 무슨 소리인가? 궁금해 하자 새벽녘에 바지선으로 건너오신 할아버지께서,

“저 소리는 등대에서 올려주는 무적소리여. 안개가 많이 낀 날 배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뱃길을 알려 주는 소리지. 사람 사는 게 다 저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여.”

할아버지 말씀이 어려웠지만, 뱃길을 알려 주는 소리란 말에 가슴이

짙 했다. 동백나무가 우거진 숲에서도 새들 울음소리가 유난히 시끄럽게 들려왔다. 처음엔 똑같은 소리로 들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각각 다 제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오늘 나는 학교를 가지 않았다. 아침에 아빠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끙끙거리며 몸살을 했다. 전학 오자마자 결석을 하면 안 되니 어서 학교에 가라고 했지만 가고 싶지 않았다. 할아버지를 도와 치어들 먹이를 주었다.

“할아버지! 물고기가 먹이를 주면 따라다녀요.”

“그래, 지들 먹이 주는 사람을 알아보는 것 같더라.”

할아버지 얼굴이 어두워 보여 나는 더 이상 아무 말 못했다.

아침부터 하늘이 흐리더니 오후가 되자 갑자기 바람이 거세졌다. 큰 바람이 일 것 같다고 할아버지와 아빠는 가두리가 피해가 없도록 단단히 단속을 했다. 바다에 떠있는 배들도 등을 맞대고 서로 밧줄로 묶어둔 게 보인다. 바지선이 파도에 심하게 흔들렸다.

비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섬이 갑자기 변해버렸다. 배들도 다니지 않고 모두 어디론가 다 숨어버렸다. 바람에 흔들린 전신주만이 ‘위잉’ 소리 내며 울고 있다.

“큰 바람은 아니니 걱정 말거라.”

할아버지 말씀에도 나는 무서웠다. 바람을 피해 바지선에서 내려와 땅으로 올라왔는데 어지러웠다. 할아버지와 아빠는 밖으로 나다니며 저녁 내 잠을 자지 않았다. 이제 제법 자라기 시작한 치어들이 피해를 입을까 걱정이 되신 모양이다. 그렇게 밤이 지나갔다.

밤새도록 불던 바람은 어디로 갔는지 아침이 되자 거짓말처럼 바다가 잔잔해졌다. 나는 오늘도 학교에 가지 않고 할아버지와 아빠를 따라 가

두리로 건너갔다. 아무리 약하게 지나간 비바람이라지만 가두리는 엉망이 되어 있었다.

“망가진 가두리를 일단 복구부터 해야 되느니.”

섬에 사시면서 태풍을 자주 겪은 할아버지는 분주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아빠는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될지 모르겠다며 한숨만 쉬었다.

나는 물속을 들여다보았다. 그물 한쪽이 터져 있었다. 떼지어 다니던 물고기들도 흩어졌다. 한 눈에 보아도 물고기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파도에 떠밀려간 물고기들이 돌아올까?’

나는 그게 궁금했다. 어미 물고기들은 남아 있는 새끼들이 떠내려가지 못하도록 빙 둘러 막고 있다. 순간 눈물이 핑 돈다. 엄마 생각이 났다. 화가 나면 욕을 하고 매도 때렸지만, 우리가 자고 있으면 살그머니 다가와 꼭 안아 주었다. 더 그림기 전에 엄마의 모습을 잊어야 될 모양이다.

아빠를 도와 바지선을 청소하고 다니는데 운반선을 타고 마을 사람들이 우리 가두리로 건너왔다. 면사무소에 다니시는 아빠 친구 분도 오시고 동생 희수도 학교가 끝났다고 같이 왔다.

“아! 아저씨다. 안녕하세요.”

나는 아빠 친구를 보며 너무 반가워 큰 소리로 외쳤다. 면에서 나온 아저씨는 태풍에 입은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할아버지께 물었다. 그런데 희수가 5학년 형이 주더라며 편지 한 통을 내놓았다. 나는 깜짝 놀랐다. 무슨 편지일까? 두근거리며 방안으로 급히 들어가 편지를 읽어 가는데 가슴이 뭉클하다.

희재야!



너하고 가깝게 지내고 싶은데 기회가 없구나.

돌아온 일요일, 6학년 형들과 축구 시합을 하기로 했어.

내일은 결석하지 말고 꼭 나와. 그리고 여자 아이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백섬을 구경시켜 주고 싶다더라. 아름다운 곳이 많으니 기대해도 될 거야. 우리 모두 기다린다.

5학년1반 친구들이

나는 편지를 다 읽고 밖으로 나왔다. 오랜만에 바다가 빛이 나고 있었다. 햇살에 일렁이는 은빛 물결을 보니 모든 게 반가웠다.

‘아직 나는 내 마음을 못 열고 있었는데 …….’

아이들 얼굴이 잠깐 스치며 지나갔다. 바지선에 찾아왔던 사람들이 돌아간 뒤 아빠는 할아버지께 큰 소리로 말했다.

“내일이라도 치어들을 다시 사가지고 넣어야겠어요.”

“서두르지 마라, 찾아오는 놈들도 있더라.”

할아버지는 파도에 떠밀려간 치어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엄마를 기다린 것처럼…….

다음날 나는 오랜만에 학교에 갔다. 교문을 들어서는데 뒤따라오던 아이들이 반갑게 어깨를 두드렸다. 나는 괜히 민망스러워 눈을 어디에 둘지 몰랐다.

“희재야! 점심 먹고 축구 연습하자.”

“나, 공격수야.”

“알았어, 자식 진즉 말하지.”

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친구들을 따라 교실로 들어갔다.

별빛 고운 밤  
바다를 보고 왔습니다.  
금방이라도 별들이 바다 위로 쏟아질 것 같아  
눈을 거두지 못하고 빛 하나를 잡았습니다.  
바지선에서 나오는 불빛,  
바지선은 바다 위에 떠 있는 또 하나의 섬이라고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비록 여행길에 잠깐 보고 들은 이야기지만  
조용히 눈을 뜨고 보니 그 안에 아이들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사랑과 따뜻함으로 어우러진  
진정한 가족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 장려상

양동이



꽃잎처럼 천천히 떨어지던 양동이 가 덜컥, 빗나무 가지에 걸렸습니다.

마침 빗꽃구경을 나왔던 미리내 사람들이 빗나무 가지에 걸린 양동이를 가리키며 웅성거립니다. 눈부신 4월 햇살에 형수와 철민이의 양동이 가 그 어떤 꽃보다 아름답게 반짝거리고 있습니다.



## 양동이 꽃

“씩아아!”

변기 물이 시원하게 내려갑니다.

등곳길에 살살 배가 아프던 형수는 교문에 다다랐을 때 뺏속에서 천둥 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르르 쿵! 우르르 쿵!

갑작스런 신호에 형수는 몸을 배배꼬며 허겁지겁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후유,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잠시 후, 바지를 추스르며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온 형수는 화들짝 놀랍니다.

“누, 누구야?”

누군가 화장실 세면대에 머리를 묻고 비누칠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 올해 같은 반이 된 친구였습니다.

“신…… 철민?”

“응.”

비누거품이 제대로 씻기지 않아 고개를 들지 못하던 철민이가 엎드린 채로 대답합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눈이 휘둥그레진 형수가 목소리를 높입니다.

“보면 모르니? 머리 감고 있지.”

별일 아니라는 듯 철민이는 머리를 다 감더니 이제는 코를 땡, 풀니다. 볼도 커지지 않은 어두컴컴한 화장실에 코푸는 소리가 땡, 땡 울립니다.

그제야 피씩, 웃음이 터진 형수가 가까이 다가가 묻습니다.

“안 추워?”

강아지처럼 몸을 부르르 떨며 수건으로 머리를 닦고 있던 철민이가 씨익, 웃습니다.

“보면 모르니? 머리에 고드름 달린 거.”

“뭐? 하하하!”

형수가 함박웃음을 터뜨리자 철민이도 환하게 따라 웃습니다.

그때 학교 아저씨가 전기 스위치를 올렸는지 화장실에 불이 들어옵니다. 깜깜할 때는 몰랐는데 철민이의 목덜미에 닭살이 오톨도톨 돌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너 미리내 살지? 나 604호에 살아.”

604호면 형수네 집과 같은 통로였습니다.

형수는 반갑다는 듯 손을 내밀며 물었습니다.

“그래? 난 612호야. 근데 언제 이사 왔어?”

“지난 겨울에.”

“같은 반이 됐는지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여태 몰랐네. 친하게 지내자.”

철민이가 형수의 손을 맞잡으며 흔들니다.

“어? 이제 애들 오는가보다. 형수야, 오늘 이 일은 비밀이다.”

복도 계단에서 웅성거리는 아이들 목소리가 들리자 철민이는 익숙한

듯 세면도구를 가방에 집에 넣습니다.

“그래.”

무슨 까닭인지는 몰랐지만 형수는 철민이의 비밀을 지켜주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

방청소며 설거지까지 끝낸 형수는 엄마가 어디쯤 오는가 싶어 아파트 복도 난간에 기대어 섰습니다. 저녁 9시 뉴스가 시작될 때쯤이면 늘 돌아오시던 엄마였는데 오늘따라 유난히 늦습니다.

‘일거리가 많으시냐?’

형수는 팬스레 조바심이 나 까치발로 먼 데를 살피봅니다.

폐휴지를 가득 실은 손수레를 끌고 오시는 옆집 할머니도 보이고 사거리 모퉁이에서 이제 막 불 밝힌 아래층 아줌마의 포장마차도 보입니다. 하지만 일 나가신 엄마는 보이지 않습니다.

심심해진 형수가 휘파람을 불려고 입술을 동그랗게 모았을 때 아파트 입구에 낮익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 저기 철민이 아니야?’

형수는 문득 반가운 마음이 들어 큰 소리로 철민이를 부를 참이었습니다.

“철…….”

철, 까지 부르다 말고 형수는 입을 닫았습니다.

철민이가 누군가를 힘겹게 부축하며 걸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지? 할아버지 같은데…….’

형수는 고개를 내뺄고 아파트로 들어오는 철민이를 내려다봅니다.

‘기다렸다 인사할까? 아냐. 불편해 할지도 모르잖아? 아니, 그래도…….’

이런저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뚫니다. 그사이 땀, 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철민이와 할아버지의 발소리가 들립니다.

‘철민이와 나는 이제 친구야. 그러니까 괜찮아.’

용기를 내서 형수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계단 쪽으로 걸어갑니다. 할아버지의 팔을 어깨에 두르고 천천히 엘리베이터를 빠져나오던 철민이가 형수를 발견하곤 오늘 아침처럼 씨익, 웃습니다.

“여기서 뭐하냐?”

“엄마 기다려.”

형수가 머리를 굽적이며 멋쩍은 듯 대답합니다.

“할아버지, 형수예요. 같은 반 친구 김형수.”

형수가 꾸벅 인사를 합니다.

“반갑구나. 서로 친하게…… 쿨럭, 쿨럭.”

깜짝 놀란 철민이가 걱정스러운 듯 할아버지의 안색을 살핍니다. 굵은 주름이 가득한 할아버지의 이마에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습니다. 형수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쳐다봅니다.

“형수야, 부축 좀 해줄래?”

“어, 그래.”

엇걸결에 형수는 할아버지의 오른팔을 어깨에 두릅니다.

언제 뒀는지 아파트 복도에 휘영청 밝은 달이 환합니다. 달빛에 비친 철민이와 할아버지와 형수의 그림자는 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

“엄마, 이게 뭐야?”

평소보다 한 시간이나 늦게 집으로 돌아온 엄마를 향해 형수는 종이 한 장을 내밉니다. 이부자리를 살피고 있던 엄마는 뜬금없다는 듯 형수가 내민 종이를 받아들입니다.

단수 통보장

귀 세대는 3개월 이상 수도세를 체납하였으므로  
아파트관리사무소 규정에 따라 단수 조치합니다.

○ 월 ○ 일

미리내 아파트 관리소장

“아까 친구 집에 갔었는데 문 앞에 뭐가 잔뜩 붙어 있더라.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도 있길래 한 장 주워왔어.”

엄마는 안타까운 듯 혀를 찹찹 차며 말합니다.

“수돗물을 끊겠다는 얘기야. 몇 개월 동안 관리비를 안 내면 수돗물을 끊고 그다음엔 전기까지 끊지. 너도 알다시피 우리 아파트에 형편 어려운 사람이 많잖나? 그래서 관리비 못내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구나. 어디 수돗물 끊긴 집에 그 집뿐이겠니? 형수, 넌 다행인 줄 알아. 엄마



가 이렇게 건강하니까 파출부 일이라도 나가서 돈이라도 벌어오지. 아무튼 큰일이구나. 영세민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사정이야 뻔하다지만 이렇게 어려워질 줄이야. 쫓쫓쫓.”

엄마의 말이 끝나자마자 형수는 철민이의 목덜미에 오돌도돌 돋아 있던 닭살이 떠올랐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지만 웬지 잠이 오지 않습니다.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 아파트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작년 태풍 때 상수도관이 파손돼서 이틀 동안이나 수돗물이 나오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악몽 같은 이틀이었지만 다행히 방학이라서 소방차가 실어온 물로 겨우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신철민. 아침마다 학교에서…….’

\*

토요일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형수는 마침 수돗가에서 페트병에 물을 채우는 철민이를 보았습니다. 페트병 가득 수돗물을 채워 책가방 속으로 넣는 손놀림이 무척 재빠릅니다.

“그거 뭐 하려고?”

형수는 모른 척 물어봅니다.

“끓여서 마시려고 그러지.”

“집에 물…… 안나와?”

형수의 물음에 잠시 멍칫거리던 철민이가 대답합니다.

“응. 너도 알다시피 지금 우리 할아버지가 편찮으시잖아. 조금만 있으면 괜찮아지실 거야. 그러면 다시 수돗물도 나오고 그러겠지, 뭐.”

철민이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페트병이 가득 든 책가방을 힘껏 어깨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책가방이 무거웠는지 오른쪽으로 한 번 휘청거리던 철민이가 다시 중심을 잡았습니다. 놀란 형수가 자기도 모르게 손을 뻗어 철민이의 책가방을 떠받칩니다.

“몇 병 더 채웠더니 생각보다 많이 무겁네.”

철민이가 씨익, 웃으며 뒤를 돌아봅니다. 아기를 안듯 책가방을 떠받친 형수도 엉거주춤한 모양새에 절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학생이 책가방에 책은 안 넣어 다니고 물통을 넣어 다니냐? 너 텔레비전에서 본 물장수 같아. 하하하.”

“물장수?”

“수돗물이 없던 옛날엔 물을 길러다 주는 부지런한 사람이 있었대. 북청 물장수라고 텔레비전에서 본 적 있어.”

철민이는 형수의 북청 물장수라는 말에 귀가 솔깃합니다.

“북청 물장수? 그럼, 난 꼬마 물장수인가?”

철민이가 너스레를 떨며 다시 뒤를 돌아봅니다. 이에 형수도 질세라 대꾸합니다.

“너만 그런 거 시킬 수 없지. 나도 같이 할래. 꼬마 물장수.”

“뭐?”

형수의 말에 철민이가 함박웃음을 터뜨립니다.

책가방 속에 물병도 꼬마 물장수라는 말이 우스운지 자꾸만 출렁출렁 소리를 내며 웃는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

“이상하구나. 저번 달에 3500원이던 수도세가 왜 이번 달에는 9200원이나 나왔지? 거, 참 이상한 일이네.”

엄마는 고개를 가우뚱거리며 관리비 통지서를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형수는 뜨끔했지만 모른 척 고개를 돌립니다.

엄마는 뭐가 잘못됐다는 듯 인터폰을 듭니다.

“여보세요? 관리사무소죠? 여기 108동 612호예요. 수도세 잘못 나온 거 아닌가요?”

형수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킵니다. 한참 통화를 하던 엄마는 미간을 찌푸리며 수화기를 내려놓습니다.

“어디서 물이 세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형수가 거실 바닥에 엎드려 숙제를 하는 동안 엄마는 화장실이며 싱크대, 세탁기가 있는 베란다까지 구석구석 살핍니다.

“거, 참. 이상하구나.”

형수는 엄마가 제 마음마저 살필까봐 가슴이 쿵닥쿵닥 거립니다.

\*

꽃샘추위 때문에 3월 내내 웅크리고 있던 봄꽃들이 4월이 되자 기다렸다는 듯 얼굴을 내밉니다. 개나리가 노란 부리를 송송 내밀더니 오늘은 미리내 아파트 화단에 벚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벚나무의 분홍꽃잎들이 따사로운 봄볕에 반짝거리는 모습은 마치 진주를 뿌려놓은 것 같습니다.

마침 식목일이라 학교에 가지 않았던 형수는 놀이터에서 철민이를 만났습니다.

“엄마한테 들길 뻔했어.”

“왜?”

“수도세가 너무 많이 나왔나 봐.”

“이제 그만 두는 게 좋겠어. 할아버지도 많이 좋아지셨고 또…….”

형수가 손사래를 치며 철민이의 말을 끊습니다.

“그건 안돼. 너는 그렇다 쳐도 804호는 어쩔래?”

형수의 말에 철민이도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잠시 둘 사이에 침묵이 흐릅니다. 삐걱, 삐걱, 그네 소리만 놀이터에 울립니다.

“일단 오늘은 갔다 오자.”

형수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그래. 아마도 지금쯤이면 채워놓은 물 다 떨어졌을 거야. 가득이나 몸도 불편하신 할머니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둘은 서둘러 형수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철민이는 망을 보고 형수는 양동이에 물을 받았습니다. 수도꼭지에서 쿵-쿵-쿵 쏟아지는 물이 형수와 철민이의 마음처럼 은빛 양동이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형수가 신호를 보내자 철민이가 휘파람을 불어 아무도 없음을 알립니다.

형수가 깡깡거리며 아파트 통로까지 양동이를 들고 나오자 철민이도 재빨리 힘을 합칩니다.

누가 볼세라 아파트 계단을 따라 들어서 양동이를 들고 종종걸음을칩니다. 양동이에서 찰랑 찰랑거리는 물이 철민이와 형수의 바짓가랑이를 사이좋게 적십니다. 그렇게 대 여섯 번을 오가는 사이 804호 할머니네 화장실에 있던 커다란 물통에 물이 제법 찼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던 철민이가 물통에 출렁이는 물을 보며 흐뭇해합니다. 형수도 기분이 좋은지 양동이를 땡땡, 두들깁니다.

“이제 한두 번만 더 하면 되겠다.”

“그래.”

엄마의 수도세 걱정 따위는 까맣게 잊은 듯 형수는 양동이에 가득 물을 받습니다. 망을 봐야 할 철민이도 이제는 아예 함께 거듭니다.

아파트 통로를 따라 기우뚱거리며 양동이를 들고 나오던 형수와 철민이가 막 계단을 오르려던 찰나였습니다.

“너,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반대편 통로에 서 있던 아파트 관리실 소장이었습니다.

“앗!”

불에 대인 듯 화들짝 놀란 형수와 철민이가 그만 양동이를 엎지르고 말았습니다. 쏟은 물이 아파트 통로를 따라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너희들, 거기 서!”

소장이 고함을 지르며 쫓아오자 형수와 철민이는 헐레벌떡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올라 건너편 통로로 힘껏 뛰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양동이를 쥐고 있던 형수는 양동이를 바톤처럼 흔들며 뛰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형수야!”

건너편 통로를 막 빠져나가던 형수가 그만 미끄러지면서 쥐고 있던 양동이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파트 통로 밖으로 솟아오른 양동이가 몇 바퀴 공중제비를 돌더니 천천히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소장에게 쫓긴다는 사실도 잊고 형수와 철민이는 통로 난간에 서서

양동이를 바라봅니다.

꽃잎처럼 천천히 떨어지던 양동이가 덜컥, 뼉나무 가지에 걸렸습니다.

마침 뼉꽃구경을 나왔던 미리내 사람들이 뼉나무 가지에 걸린 양동이를 가리키며 웅성거립니다.

눈부신 4월 햇살에 형수와 철민이의 양동이가 그 어떤 꽃보다 아름답게 반짝거리고 있습니다.



어느 아파트 복도를 지나다 우연히 발견한 '단수통보장' 이 내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누가 살고 있을까? 어떤 사연으로 저런 통보장까지 받게 됐을까?

그 때 문이 열리면서 양동이를 든 아이가 나왔습니다.

잠깐 눈이 마주쳤지만 나는 모른 척 돌아왔습니다.

그 후 양동이를 든 그 아이가 가끔 제 꿈 속으로 찾아왔습니다.

꽃을 가득 담은 양동이를 들고서 말입니다.



## 회 곡 부 분

최 우수 상

진실 \_ 우혜선 \_ 447

우 수 상

금빛레슬링 \_ 이장규 \_ 477







# 자수하여 **최우수상**을 찾자

## 진 실

### 정부는 자수하는 북한공작원에게

그래도 발견하고 신고한 사람은 명우지 않습니까? 명우의 용기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큰 상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답하시네요. 누가 명우에게 큰 상을 안준다고 합니까? 명우도 주고 창식이도 주는데 그 중 외부적인 대표 인물은 창식이를 내세운다는 거지요. -본문중에서-

신분보장

정

부산광역시 명진초교  
우혜선

# 진 실

## 나오는 사람

명우, 창식, 진태, 지서장, 김면장, 교장, 교감, 담임,

방송기자, 명우고모, 마을사람1, 2, 3

## 장소

어느 섬 마을

제1장 - 아이들 흔적을 발견하다.

〈범바위 골짜기〉

(어둠속에서 소리)

탕! (진짜 총소리)

으앗 (진짜 비명소리)

탕! (가짜 총소리) 탕!

으앗 (가짜 비명소리)

(진태, 창식, 명우 등장)

진태 : 창식이 형님은 아까부터 내총에 맞아 놓고 왜 안죽어?

창식 : 내가 언제 네 총에 맞았어?

진태 : 아까 형님이 저쪽에 있는 나무 뒤에 숨어있는 거 보고 쏘았는데  
모른체 하고 죽지도 않았잖아? 그런게 어디 있어? 이거는 약속이  
틀리잖아?

창식 : 내가 먼저 너를 쏘았다.

명우 : 창식아, 나도 봤는데 네가 먼저 죽었다.

창식 : 주인공은 본래 맨 나중에 죽는다.

진태 : 왜 형님이 주인공이고, 명우 형님이 주인공이지.

창식 : 내가 주인공이다.

진태 : 형님은 달리기도 쫓지하고, 겁도 많고, 공부도 못하면서 그게 무슨  
주인공이야?

창식 : 너 말 다했어?

진태 : 왜, 내가 거짓말 했어? 명우 형님보다 잘 하는게 뭐가 있는데?

창식 : 이 새끼가! (진태를 때릴려고 한다)

명우 : 창식아 그만해라. 주인공이 따로 어디 있니. 제일 늦게 살아남는  
사람이 주인공이지.

진태 : 형님이 맨날 주인공 했잖아?

명우 : 그건 총싸움 할 때 마다 너희들이 먼저 죽고 내가 오랫동안 살아  
남으니 주인공이 된거지. 언제 내가 맨날 주인공한다고 그랬어?

진태 : 그러고 보니 맞네.

창식 : 그럼 우리 다시 하자.

진태 : 그래 형님아, 우리 다시 하자.

명우 : 알겠다. 그럼 다시 한다. 내가 하나 둘 셋 하거든 숨는다.  
하나, 둘, 셋!

(세 아이 각자 숨는다)

명우 : (숨으러 가다가 겁 먹은채 다시 나온다) 창식아, 빨리 나와 바라.  
(아무 대답 없자 더 겁먹은 소리로) 창식아, 진태야, 이리로 와  
보라니까.

진태 : (먼 소리로) 우리가 나가면 명우 형님은 숨어 있다가 우리 쫓라고  
그러지. 지난번에도 그래놓고 이젠 안 속는다.

명우 : 그게 아냐. 저기에 이상한 게 있다.

창식 : (구석에서 나오며) 뭐가 이상한데?

명우 : 저기 봐, 뭐가 움직인다.

진태 : (구석에서 나오면서) 자꾸 뭐가 이상하다 그러는데 형님은.  
(가리키는 쪽을 본다) 저거? 에이, 염소네 염소. 아까 나도 봤다.

창식 : 나도. 목줄 보니 우리 옆집 아저씨 염소다. 염소가 솔가지 뜯어 먹다  
보면 솔가지가 혼자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

명우 : 아니, 염소 있는 곳에서 범바위 쪽으로 자세히 보라니까.

창식 : 어다?

명우 : 범바위 있는 저 쪽 구석.

진태 : (움짗 놀라면서) 뭐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사람이……  
군인이 있는 것 같다.

창식 : 군인이라고? 아! 맞다. 오늘 무슨 훈련한다고 선생님이 산에 올라  
오지 마라 그랬잖아. 잘못하면 총 맞는다고. (겁먹으며) 아이고  
무섭워라. 나 갈래.

명우 : 췌! 조용히 해라. 아까 훈련하던 군인들은 산에서 내려 간지 언젠데.  
저기 보이는 군인은 우리 군인이 아닌거 같은데……. 그리고 우리  
동네 산인데 뭐가 무섭단 말인데?

진태 : 그래도…… 동네 사람들도 잘 안오는 이곳에 누가 있는거 보면…….

함께 : (서로를 쳐다보며) 호 호 혹시, 간첩? (놀란다)

창식 : (머리를 땅에 박으며) 명우야, 자세히 보라. 머리에 뿔 달렸나?

진태 : 무슨 뿔?

창식 : 학교에서 지난번에 그림으로 안 봤나? 간첩들은 모두 머리에 도깨비  
같은 뿔이 달리고 얼굴은 까맣고 손톱은 시뻘겋게 칠해가지고 다니  
면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손을 마귀처럼 짝 벌리고 있잖아. 그게  
간첩이잖아. 아이고 무서워. 엄마야. 나 집에 갈래.

명우 : (낮은 소리로) 쏠! 조용. 무슨 소리도 들리는 것 같은데?

진태 : 그 그래. 아파서 내는 소리 같아. 누가 아픈가봐.

창식 : (뒷걸음질치며) 명우야, 나 집에 갈래. 아까 엄마가 해지기 전에  
집에 빨리 오라 그랬단 말야.

진태 : (같이 뒷걸음질치며) 나도 갈래. 창식이 형남아! 같이 가자. 나도  
가고 싶다. (둘이 급히 도망간다)

명우 : (살금살금 부시럭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간다) 헉! (암전)

## 제2장 - 명우 신고하다

### 〈지서 안〉

(지서장 혼자서 화투로 꽤 뜨고 있다)

명우 : (헐레벌떡 뛰어들며) 아저씨, 아저씨~

지서장 : 왜 이래 숨넘어가. 촛대봉 호랑이라도 쫓아 오냐?

명우 : (말을 잊지 못하며) 저기, 저기요

지서장 : 왜, 아버지가 또 동네에서 행패부리고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데리고 오라고 하더냐? 너거 애비 참 말로 동네 골치덩어리다. 하지만 오늘은 내가 하늘이 두 쪽 나도 나는 못 간다. 동네 사람들 알아서 처리해라 그래라.

명우 : 그게 아니고, 저기 범바위골에 수상한 사람이 있어서요.

지서장 : 수상한 사람이라니?

명우 : 간첩 같아요.

지서장 : 간첩이라고?

명우 : 예, 술가지 꺾어서 굴처럼 만들어 놓고는 수상한 사람들이 숨어 있어요.

지서장 : 술가지 꺾어 놓고 숨어 있다고?

명우 : 예.

지서장 : 범바위골에서?

명우 : 예.

지서장 : 너 혹시 그 사람들이 군복 같은 거 입고 있지 않았더냐?

명우 : 예. 맞아요. 그런데 아저씨도 알고 있었어요?

지서장 : 알다마다. 명우야, 그거는 말이다. 아까 우리가 을지훈련 한다고 경찰과 군인들이 얼굴 시커멓게 칠하고 새바지 동굴에도 가고 범바위골에도 올라가 술가지 꺾어놓고 숨어 있었다단다. 너 아까 점심 무렵에 우리를 본거 같은데 그거는 간첩이 아니고 우리의 훌륭한 국군장병과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이 합동작전으로 훈련 하던 모습이다. 알겠니?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오늘 같은 날 훈련 때문에 위험하다고 산에 가지 마라고 그랬을건데 너는 그런 소리도 못들었니?

명우 : 아저씨 아까 본게 아니고 조금 전에 봤다니가요.

지서장 : 글썄, 그거는 우리 국군이라고 그러지 않니? 을지훈련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국군장병 아저씨!

명우 : (고개를 가우뚱거리며) 아닌데……. 아저씨, 그래도 모르니 한번  
가보세요.

지서장 : 애가. 자애비 닮아 고집이 세기는. 인제 훈련마치고 온지 몇 시간  
되었다고 또 오라 가라냐. 내가 오십하고도 후반을 흘쩍 넘긴 이  
나이에 오늘 하루 종일 이산 저산 타고 다닌다고 얼마나 다리가  
후들거렸는줄 아니? 그래 이런 화투 패나 뜨고 있으니 한기한  
사람인줄 아는게 본데 명우야, 너는 빨리 집애나 가서 너거 애비  
집에 있는가 봐라. 또 술 먹고 동네 나가 행패 부려 신고 들어오게  
하지 말고.

명우 : 아저씨~ 분명히 수상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까 그 사람들이 산을  
내려와 우리한테 나쁜 짓하고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지서장 : (화를 벌컥내며) 야 임마! 보자보자 하니까 쪼그만게 버릇없이.  
내말이 말 같지 않니? 너도 알다시피 이 섬에서 도망 갈 곳이  
어디 있냐? 지금 이시간이면 물에 나가는 배도 끊겼고 도망  
가 봐야 부처님 손바닥이지.

명우 : 그래도…….

지서장 : (다시 화투패를 뜨며) 정 답답하면 너나 한번 더 가보렴. 니  
애비처럼 허벅지 하나는 튼튼하잖아.

(이때 김면장 등장)

지서장 : (슬며시 웃으며) 김면장이 이 시간에 어쩐 일로?

김면장 : 어쩐일이긴요, 오늘같이 고생한 날 형님한테 안와 보면 제가 어찌 두다리를 펴고 편히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진도 섬 사람들은 이렇게 철통같은 경비를 하고 계시는 든든한 형님만 오직 믿고 안심하고 사는데 오늘 같은 날 면장인 제가 시원한 막걸리 한잔은 사야 체면이 안서겠습니까?

지서장 : 역시. 이 생활에 쏠쏠한 재미와 활력을 주는 사람은 김면장 자네 밖에 없다니까.

김면장 : (옆에 있던 명우를 발견하고) 그런데, 명우 네가 어쩐 일로?

명우 : 안녕하십니까?

지서장 : 애가 글썄, 아직 빠라 한 장 뿌려진 걸 본 적도 없는 우리 동네에 간첩이 나타났다고 자꾸 가보자 그러네.

김면장 : 간첩이 나타났다고요? 이곳에요?

지서장 : 그러게나. 을지훈련 마친지가 한 시간도 안 지났는데 무슨 간첩을 있다는건지 원…….

김면장 : (호기심을 가지며) 어디서 봤는데?

지서장 : 범바위골에서 봤다네 글썄. 가까운데도 아니고 여기서 족히 두시간은 걸리는.

김면장 : 명우야,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데?

명우 :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요, 술가지가 꺾인 채 쌓여져 있었고 군복 입은 사람들이 숨어 있었어요.

김면장 : (명우 옆으로 바짝 다가가며) 너는 왜 그 사람들이 간첩이라는 생각이 드니?

명우 : 학교서 배웠어요. 선생님이 이런 섬에도 간첩이 숨을 수 있다고요. 그리고 거기는 염소만 다니지 동네사람들도 잘 안가는 위험한



절벽이 있는 곳이고 우리만 잘 알지 어른들도 가는 길 잘 몰라요.  
그리고 숨어 있는 사람들 중 한사람은 어디가 아픈지 ‘으으’ 하는  
소리를 내고 다른 사람들은 누가 볼까봐 주변을 계속 두리번 두리번  
거렸어요.

김면장 : 헛것을 본거는 아닌거 같고……. 그런데 너 혼자 봤니?

명우 : 아니요. 창식이랑 진태랑 같이요.

김면장 : (놀라며) 우리 창식이기도 있었다고?

명우 : 예, 창식이랑 진태는 무섭다면서 먼저 가버리고 저 혼자 달려와  
이렇게 지서에 신고 하는 거예요.

김면장 : 알겠다. 명우야. 너는 이제 집에 가봐라. 여기 있는 지서장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실꺼다.

명우 :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나간다)

김면장 : (지서장에게 바짝 다가가며) 형님, 명우가 우리 동네에서 제일  
똑똑한 아이라서 안 본걸 봤다고 거짓말은 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한번 가보고 오겠습니다.

지서장 : 이 시간애? 그러게. 나는 아무리 그래도 하루 종일 훈련한다고  
견고 기고해 다리가 후들거려 못나가겠네. 행여 간첩이 백 명  
나타나 우리 지서에 쳐들어온다 해도 나는 꿈쩍 안하고 당하고  
말테니 자네가 갔다 와 보게. 혹시 알아? 저놈 말처럼 진짜  
간첩을 발견해 보상금 타게 될지. 그때는 그 돈 자네가 다 가지게.

김면장 : 알겠습니다. 제가 가면서 막걸리 한 사발 배달해 달라고 주문하고  
갈테니 형님은 목 좀 추기시고 피곤하시면 한숨 꼭 주무시고  
계세요. 얼른 다녀오겠습니다. (급히 나간다. 암전)

소리 : 어둠속에서 군화 발자국 소리들

탕! 탕! 탕탕탕!

### 제3장- 학교에서 새로 만나다

#### 〈학교 교장실〉

교장 : 하하하! 이런 경사스러운 일이. 교감선생님도 창식이 담임선생님인 김선생도 이번 일 처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아참, 그리고 김선생, 창식이 불러 이야기 했습니까?

담임 : 예, 불러서 주의를 주고 혹시 외부 사람들이 연락도 안하고 찾아와 여러 가지 물어올지 모르니 예상되는 질문들을 뽑아 다 외우게 하고는 제가 직접 확인하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김면장님에게도 연락을 해 놓았구요.

교감 : 교장선생님, 저는 아무래도 마음이 안 내킵니다.

교장 : 교감선생님은 뭘 걱정하십니까? 창식이라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창식이 아버님인 김면장도 간첩을 소탕하는데 한몫을 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교감 : 그래도 발견하고 신고한 사람은 명우지 않습니까? 명우의 용기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큰상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장 : 답답하시네요. 누가 명우에게 큰상을 안준다고 합니까? 명우도 주고 창식이라도 주는데 그 중 외부적인 대표 인물은 창식이를 내세운다는 거지요.

교감 :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은 명우이기에 명분적인 대표도 명우를 해야

옳지 않을까요?

교장 : 교감선생님! 상을 받는 입장에서는 명우나 창식이나 똑같습니다. 어차피 간첩을 보고 신고한 아이들은 그 아이들이란 거죠. 하지만 누군가를 대표로 내세웠을 때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솔직히 말해 김면장이 우리 학교 출신이면서 학교를 위해 많은 일을 하였고 또한 우리들한테 얼마나 잘해주었습니까? 학교랑 학부모간에 문제가 생기면 이 동네 토박이로서 김면장이 모든 일을 알아서 처리해 조용히 넘어간 게 몇 번입니까? 하지만 명우는 아이만 똑똑할 뿐 지애비는 매일 술 먹고 학교에 와 행패나 부리고 우리를 위해 한일이 무엇입니까? 솔직히 이때 우리가 평소에 신세진 것을 김면장 아들인 창식을 내세워 줌으로 좀 갚아주는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교감 : 그래도 아이들에게 거짓말 하지 마라, 정직해라 해놓고 이렇게 말을 바꾼다는 것은 도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교장 : 교감선생님, 이런 일 한두 번 겪습니까? 누구는 거짓말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아십니까? 창식이나 명우 중 누구를 추켜 세우느냐에 따라 우리일이 달라집니다. 이번일로 외부에서 손님들이 계속 들락날락 거릴건데 아시다시피 만약 명우가 대표성을 띠다면 우리가 직접 손님 뒷치닥거리를 해야 합니다. 그게 얼마나 귀찮은 일입니까? 그런데 창식을 내세우게 되면 김면장이 눈치껏 알아서 모든 걸 해주고 거기다 덤으로 학교에 이익이 되는 홍보까지 해줘 지금 우리 학교가 전국적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학교에 돈이 들어가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김면장이 알아서 해주기로 약속했으니 우리는 곳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말고  
학교 경영 차원에서 좀 더 크게 생각합시다.

교감 : 그래도 아이들아…….

담임 : 아, 그건 교감선생님, 저한테 맡겨 주십시오. 함께 있었던 진태  
학생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간첩은 신고를 한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같이 발견하고 확인했던 사람들도 중요하다고요. 그  
학생에게도 커다란 상품과 함께 전교 표창도 주겠다고 했습니다.

교감 : …….

교장 : 걱정하지 마시고 맡겨 놓으세요. 김선생이 알아서 할겁니다. 덕분에  
저는 내년 3월에 시내 집 가까운 곳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김선생도 내년에 교감 차출 대상이라고 연락 왔죠? 아마 교감  
선생님에게도 곧 표창이 내려올 겁니다. 다 김면장 덕분이예요.  
그리고 내일 토요일 김면장이 시내에서 한 톱 내겠다고 그동안의  
노고도 치하할 겸 우리 다같이 참석해 보신 좀 합시다. 그동안 한  
시간씩 배 타고 오며 가며 얼마나 몸이 허해졌습니까. 저는 가끔씩  
눈에서 아지랑이가 아른아른 거린답니다. 참, 잊을뻔 했네.  
김선생은 아까 연락 받았죠? JKNT 기자가 내일 우리 학교를  
방문한다는데 준비 다해 놓았나요.

담임 : 그럼요. 청소랑 모든 거 알아서 하겠습니다.

#### 제4장- 김창식 유명해지다.

〈학교 안〉

방송기자 : 아직도 북한 공산군은 남침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간첩을 남파하여 남한을 공산화시키려는 작전을 곳곳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곳 가진도에서는 한 용감한 소년의 신고로 간첩3명을 발견, 그 중 두 명은 소탕작전에 의해 죽고 동료 간첩에 의해 부상당한 간첩 한명은 생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용감한 시민의식을 발휘한 주인공 김창식군을 만나 보겠습니다. 김창식군, 처음 어떻게 발견하게 되었나요?

창식 : (원고 읽듯이) 친구들이랑 산에 갈려고 하는데 앞에 군복을 입은 세 사람이 가고 있어요. 가만히 살펴보니 군복도 구겨져 있었고 이상한 짐도 지고 있으며 동무라는 말도 써서 몰래 따라가 보았습니다. 간첩들이 간 곳은 사람들이 잘 안가는 위험한 곳으로 뽕바위골인데 밖에서 보이지 않게 소나무 가지를 꺾어 입구를 막고는 숨었습니다. 무서웠지만 그 길로 한 시간 동안 죽자 살자 달려 지서에 신고했습니다.

방송기자 : 그 사람들이 간첩인줄 처음부터 알았나요?

창식 : (더듬으며) 예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간첩은 다음과 같다고 그랬거든요. 첫째, 새벽에 구겨진 신사복을 입고 산에서 내려오는 자, 둘째 말끔한 새 구두에 진흙이 묻어 있는 자, 셋째 한 밤에 라디오를 들고 북한 방송을 청취하는 자, 넷째 일정한 직업이 없이 고급 담배를 피우는 자, 다섯째 남한의 실정에 불평을 늘어놓으며 김일성을 고무하고 찬양하는 자 등 산이나 바다에서 수상한 사람을 보면 신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용감하신 경찰아저씨들이 간첩을 다 잡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송기자 : (고개를 끄덕이며) 참으로 용감한 학생인거 같습니다. 부전자전

이라고 김창식군의 아버지도 이 곳 가진도에서 동네 면장일을 맡아 평소에도 마을을 위해 앞장서는 아주 훌륭하신 분으로 이름이 자자하게 나 있습니다. 그런데 김창식군, 간첩을 신고 해서 포상금을 타게 되었는데 그 상금으로 무엇을 할 생각 입니까?

창식 : (씩씩하고 용감하게) 우리반에 도시락도 못 싸오는 아이들을 도와주고 학교에는 책을 사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방송기자 : 용감하기도 하고 마음씨도 착한 학생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도 주변에서 새벽 일찍 이유도 없이 나가거나 산에서 내려오는 등 일상적이지 못한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보았다가 신고하는 정신을 길러 우리 사회에서 간첩을 뿌리 뽑읍시다. 이상 가진도에서 JKNT 기자였습니다.

## 제5장- 동네 웅성웅성

### 〈마을회관〉

동네사람1 : 인제 우리 동네가 정말로 유명해졌네. 선거 때가 되어야 악수 하러 오던 국회의원들도 자주 보이고 텔레비전에 우리 동네도 나오고, 고놈의 간첩들이 이곳 섬까지 들어오리라고는 누가 생각했을까?

동네사람2 : 맞다. 인자 무서워서 산에도 혼자 못가겠다. 산이 뭐고, 그놈들이 여기 들어올려면 물 건너 들어 왔을건데 혹시, 며칠 전에

바다에 나갔을 때 낚싯배를 타고 횡~하니 지나가던 그놈들이  
아닌가 몰라. 아이고 아까워라. 내가 그때 간첩인줄 알았더  
라면 바로 신고해서 돈타는 건데…….

동네사람3 : 그런데 자네, 김면장 아들이 간첩 잡은 보상금으로 얼마  
탔는지 아나?

동네사람1 : 내가 듣기로는 백만원이라던데?

동네사람3 : 와! 백만원씩이나. 경사났네. 땅이 몇십마지기다.

동네사람2 : 백만원이 문젠가? 청와대에 불려가 우리나라 최고봉인  
대통령도 만났다던데?

동네사람3 : 대통령도?

동네사람2 : 그래, 대통령이 그 인자한 웃음을 쓱 지으면서 김면장 앞으로  
딱 오더니 손을 쓱 내밀고는 대한민국에서 최고 용감한  
부자가 왔다고 하더라. 창식이 보고는 공부 열심히 하라고  
머리도 쓰다듬어 주고, 그리고 김면장은 엇그제 도지사  
표창도 받았대.

동네사람1 : 김면장 기분 하늘로 날라 갔겠네.

동네사람2 : 가문의 영광이지 뭐. 아들 잘 뒀가 애비가 돈벌고 출세하고,  
그래서 그런지 요즘 김면장이 지서랑 학교선생들한테 술  
사준다고 시내에 들락날락 바쁜가 보더라고. 우리도 팀으로  
김면장에게 한잔 거나하게 얻어먹어야 되지 않겠나?

동네사람1 : 그런데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어디서 듣고  
와 하는 말인데 간첩을 신고한 사람이 진짜는 창식이가 아이고  
명우라고 하던데 그게 무슨 소리인가?

동네사람2 : (소근거리듯이) 그래. 나도 그런 말 들긴 들었는데…….

텔레비전에 나오는거 하고는 다르게 잘은 모르겠지만 산에서 우연히 세 놈이 놀다가 명우가 발견했는데 창식이랑 진태는 먼저 도망가 버리고 명우 고놈만 혼자 남아 얼굴이 시뻘게 지도록 달려와 지서에 신고했다는 소리는 들었네.

동네사람1 : 그게 사실이라면 상금은 창식이네가 받아야 될게 아니고 명우네가 받아야 되잖아.

동네사람2 : 내 눈으로 인봤으니 믿을거는 못되지만 그래서 그런지 상금 이랑 후원금 받은거 명우랑 진태네도 나눠줬다는 말이 들리던데.

동네사람3 : 뭐가 어떻게 된건지 원.....

동네사람2 : 뭐가? 뻔하지. 평소에 김면장이 지서장한테 술도 잘 사주고 하니 지서장도 김면장 싹 추켜세워 주는거고 학교도 자주 가 교장도 챙기고 하니 학교서도 창식이 봐주는 거지. 명우처럼 자식놈만 똑똑하면 뭐해? 애비도 잘나가야지.

동네사람1 : 하긴 맞다.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그 상금을 명우가 받아줘야 저거 애비가 다 술 퍼먹을건데. 아이만 불쌍하지.....

동네사람2 : 평소에 김면장이 우리 동네를 위해 일을 많이 했잖아. 이 마을회관도 지난번에 사춘 중에 어느 분인 국회의원한테 슬쩍 말해 지은 거고, 또 배에 넣는 기름도 다른데 보다 훨씬 싸게 넣을 수 있는 것도 김면장이 다 위애다 부탁해 가지고 그렇게 된거잖아. 이번에도 이곳저곳에다 말 넣어 요 앞 방파제도 다시 수리한다고 하더구먼. 어떻게 보면 우리 동네를 봐선 잘된 일이지 뭐. 우린들 어차피 누가 신고해서 보상금 받던 무슨 상관이야. 동네만 발전하면 좋지. 솔직히



말해 우리 살면서 김면장떡 신세 안 진 집이 이 동네에서 몇 집이나 되나. 안됐다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자식이 공부도 못하고 좀 모자라니 그게 문제지

동네사람1 : 맞아. 그걸보면 하늘이 공평하긴 공평한가봐. 사실 말이 났으니 말이지 안됐지 뭐. 명우 저놈이 애는 저래 똑똑해도 저거 엄마 일찍 병으로 죽고 저거 애비는 지난번 태풍 때 배 한척 날려 먹었다고 맨 날 술고래가 되어 하늘만 원망하고 돌아 댕기니 무슨 사는 재미가 있겠나. 그래도 심성이 위낙 착하고 바르니 공부도 잘하고 지 애비 밥도 챙겨주고 하지.

동네사람2 : 명우가 아까우면 자네 딸하고 사돈 맺지 그래.

동네사람1 : 사돈이라고? 무슨 그런 재수 없는 말을. 명우 그놈은 마음에 들어도 그 애비랑 사돈 맺는거는 끔찍하네. 허구 헛날 술 마시고 찾아와 감 놓아라 대추 놓아라 술주정하면 그 짓을 어찌 감당할려고. 그리고 내 딸은 여기 있는 섬놈들하고는 시집장가 보낼 생각 없으니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말게. 그런데 가만히 눈치를 보니 자네 딸이 은근슬쩍 명우를 좋아하는 것 같던데?

동네사람2 : 이 사람이. 이제 겨우 5살 난 늦둥이를 가지고 예끼!

(이때 김면장 웃으며 등장)

김면장 : 이 친구들 여기 있었네. 내가 아까부터 한참 찾았는데. 우리 저 아래 횡집에 가서 술 한잔 하세. 내가 요즈음 기분이 좋아 사는 맛이 이 맛이 아닌가 싶을 정도이네. 내가 자네들 코가 빠뚫어 지게 살테니 오늘 진탕 한번 마셔 보세.

동네사람2 : 맨날 자네가 사니 미안히네. 자 다들 가세.(암전)

## 제6장- 명우 동네를 떠나다

### 〈선착장〉

고모 : 네가 전학 가는 거 안 내켜 하는 줄 알지만 여기 있어봐야 너한테  
좋은 거 하나도 없다는 걸 몇 번 말해야 되겠니.

명우 : ......

고모 : 너거 애비도 술 먹고 저리고 죽치고 있지. 이 섬에서 자리봐야  
뱃놈밖에 되지 않는다. 뱃놈은 한사람으로 죽하니 이 고모 말 듣고  
다른 공부해서 성공해라.

명우 : ......

고모 : 애비 걱정은 안 해도 된다. 혼자 몸이니 밥하나 못 끓여 먹겠니?  
네가 옆에 붙어 있으니 정신 못 차리고 더 저리고 있는거 같아 이젠  
내가 더 이상 못 보겠다. 너라도 제대로 커야지. 이 고모 말 믿고  
전학 갔다가 정 오고 싶으면 나중에 다시 오면 되잖아.

(이때 배들어 오는 소리. 진태, 창식이 같이 선착장에서 나온다)

진태 : 오랜만이네. 명우 형님. 어디 가?

명우 : (마지못해) 응.

창식 : (명우 짐을 보며) 어디 멀리 가니?

고모 : 학교 갔다 이제 오는가 보네. 우리 명우 인제 이 섬에서 학교  
안다니고 딴 곳에 학교 다니러 간다.

진태 : 전학가요? 어디로요?

고모 : 너희들은 잘 모르는 먼 곳이란다.

진태 : 같은 학교는 아니지만 집에 오면 명우 형님 한번씩 보고 해서  
좋았는데 떠난다니 섭섭하네. 형님, 우리 잊지 말고 생각나면 가끔  
놀러와.

명우 : 알겠다. 자주 놀러올게. 너희들 잘 지내라. 그런데 창식아, 내  
그동안 못 물어 본 게 한 가지 있는데 너 지난번 간첩 잡았을 때  
대통령 만났다 그랬지. 그 때 악수할 때 기분이 어땠어?

창식 : 기분? 나는 가만히 있고 대통령이 먼저 내 손을 덥석 잡아 잘  
모르겠다.

명우 : 왜 그때 느낌 같은 거 있잖아?

창식 : 뭐, 그냥. 참, 손이 아주 컸다.

명우 : 악수하면서 너한테 뭐라 말도 했다면?

창식 : 응, 나보고 세상에서 가장 용감하다 그랬다.

진태 : 형님보고 세상에서 가장 용감하다고? 창식이 형님이 뭐가 용감해?  
용감하기는 명우 형님이 더 용감하지.

고모 : (서두르며) 그게 무슨 소용이야. 다 지나간 일인데. 명우야 빨리  
가자. 배 떠나겠다. 너희들 공부 열심히 해라.

진태 : 명우 형님, 건강하게 잘 지내고. 나중에 꼭 찾아와.

명우 : 알겠다. 꼭 올게.(떠난다)

진태 :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아, 난 항상 명우 형님한테 미안했는데.  
말 못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서. (암전)

## 제7장- 명우의 삶과 창식이의 삶 (마임으로 표현)

### 〈대학〉

명우 : (주변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술 마시고 고뇌하는 모습)

창식 : (사람들에 둘러싸여 건전하고 착실하게 학교생활을 하고 또한  
고향에 친구들을 데리고 내려가 추억들을 쌓음)

### 〈군대〉

명우 : (군대에서 아주 고된 훈련을 받고 고생을 엄청나게 함)

창식 : (간첩 잡은 이력과 김면장의 입김으로 쉬운 일 담당하고 아주 편하게  
군대 생활을 함)

### 〈입사〉

명우 : (이 곳 저 곳에 입사 이력서를 넣어도 쉽게 취직이 이루어지지 않자  
현실을 비관함)

창식 : (간첩 잡은 이력 때문에 쉽게 좋은 회사에 취직하여 인정을 받음)

## 제8장- 30년이 지나 동창회에서 재회하다

### 〈음식점〉

진태 : (술상 앞에 앉아 있다 밖에서 담배를 피우다 들어오는 창식을 보고  
반기며) 창식이 형님은 언제 봐도 얼굴이 좋네요. 고향에서 하시는  
사업은 잘되지요?

창식 : (악수를 청하며) 자네는 우리 동기도 아니면서 어떻게 여길 왔냐?

진태 : 아이고 형님도, 내가 비록 동기는 아니지만 어릴 때 놀았던게 형님  
기수들인지라 여기 있는 사람들은 거의가 다 아는 얼굴 아닙니까?  
그래서 겸사겸사 얼굴들 보러 왔죠.

창식 : 그래 너도 잘 지내나?

진태 : 예, 형님 덕에 잘 살고 있습니다.

창식 : 내가 돌봐 주기는, 네가 성실하게 잘 차고 나가니까 사업이 잘 되는  
거지. 어머니는 평온하시교?

진태 : 예, 그때 제가 군대갔다 왔을 때 아버님이 병으로 돌아가시고  
가족들이 가진도를 떠나 시내에 나가 살게 되었을 때 김면장님이  
뒤를 봐주셔서 잘 살고 있습니다. 다 형님 덕분이죠. 참, 김면장님  
께서 편찮으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지금은 건강하시지요?

창식 : 작년 이맘 때 돌아가셨어.

진태 : (몸둘바를 모르며) 아이고, 형님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미처 제가 못  
챙겼습니다. 고향 떠나 있다보니 소식이 들렸다가 안들렸다가  
하네요. 제가 근래에 한 3년쯤 중국에 나가 있다 보니 소식을 못  
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창식 : 죄송하기는, 다 먹고 살다 보면 그렇지 뭐.

진태 : 참 좋으신 분이셨는데……. 특히나 형님한테는 지극정성이었죠.

창식 : 그래, 모자라는 나를 잘되게 하려고 당신이 고생 많으셨지. 덕분에  
어느 순간 철없고 바보 같던 생활에서 벗어나 이제 인정도 받고  
제법 사람 노릇하며 살수 있게 되었고, 정말 내겐 둘도 없는 훌륭한  
아버님이셨어.

진태 : 형님한테 뿐만이 아니고 우리 고향 사람 전체한테 좋은 분이셨어요.

김면장님 은혜를 안 입은 사람은 우리 동네 사람치고 한명도 없으니  
말예요.

창식 : 그래. 그런 아버님을 내가 조금이라도 닮아 가야 할건데 그게 말처럼  
잘 안되는구나.

진태 : 뭐, 소식 들으니 형님도 고향에서 잘하고 계시다던데 그만하면  
잘하고 계시는거죠 뭐.

(그때 명우 나타난다)

진태 : (깜작 놀라며) 아니 저건 명우 형님 아입니까?

창식 : 그래 명우네 (다가가 반갑게 악수를 청하며) 명우! 맞지. 자네 정말  
오랜만일세.

명우 : (취기가 있다) 그래 창식이, 오랜만이다.

창식 : 매번 동창회를 열 때 마다 네가 오길 기다렸는데 잘 왔다. 정말  
반가워.

명우 : (약간 빈정대듯이) 네가 날 기다렸다고 뜻밖일세.

창식 : 이 사람이. 그래도 여기 있는 진태랑 자네랑은 죽마고우 아닌가. 난  
어쩔 수 없이 여길 떠나지 못하고 살고 있지만 항상 우리가 놀던  
장소들을 지나칠 때면 어린시절이 떠오르면서 명우 자네 생각을  
한다네. 잘 지냈나? 지금 어디 살고 있나?

명우 : (외면하며) 그건 알 필요가 없지.

창식 : 무슨 건설 사업 같은걸 한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요즈음은 어때?  
자네는 어릴 때 공부도 잘하고 영특했기 때문에 다 잘 될거라고  
믿고 있었다네.

명우 : 부모로부터 무엇 하나 물려받은 게 없는 놈이 잘되면 얼마나  
잘되겠나?

창식 : 그래도 자네는 자네 스스로가 모든 걸 헤쳐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나?

명우 : 그건 옛날이야기지. 나 혼자만 잘났으면 무얼 하나.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데. 이 외로운 세상 날 돌봐주는 사람 하나 없이 혼자 크면 얼마나 컸겠나?

창식 : 자네 아버님 일은 안되었네. 어쩔 수 없는 사고라고 생각하게. 자네가 고모님 따라 떠나고 나니 매우 외로우셨던 모양일세. 표현은 안하셨지만 그나마 자네가 꿈이었다고 생각하고 계셨던거 같은데 아무도 없고 당신이 무능력하다고 생각하셨던지 너무 술을 과하게 드시는 바람에 그만 실족사 하셨지. 우린 그때 네가 올 줄 알았는데…….

명우 : 군에서 유격훈련 나가는 바람에 올수 없었지. 그 소식은 부대에 돌아와서 알았고, 그 덕에 난 아버님의 장례도 치르지 못하는 불효자가 되어 버렸지.

창식 : 그게 어디 자네 잘못인가? 살다보면 어쩔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경우를 겪을 수 있잖아.

진태 : (중간에 끼어들며) 무슨 형님들이 만나자 마자 이렇게 하늘이 무너지는 슬픈 이야기만 합니까? 우리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고 오랜만에 만났으니 술 한 잔 하면서 어린시절 발가벗고 물장구치던 고추친구로 돌아가 추억한번 더듬어 보읍시다. 자 명우형님도 앉고 창식이 형님도 앉아요. 제가 술 한잔 먼저 올리겠습니다.

(창식에게 술을 따른다)

창식 : (명우에게 술잔을 건네며) 자네도 한잔 받게. 나야 뭐 학교 졸업하고 취직한다고 잠시 나가있긴 했지만 다시 들어와 고향에 쫓 있었으니

섬 놈의 생활이라는게 자네들도 알다시피 뻔한거고, 진태 이야기로  
고만한거 같으니 자네 이야기나 좀 해보게나.

명우 : 무슨 이야기를?

진태 : (명우에게 술잔을 권하며) 형님이 고향을 떠나가지고 살아온 이야기  
말입니다.

명우 : 그제 진짜 궁금하나? 내가 어떻게 망가지며 살아왔는지가?

진태 : 왜 자꾸 형님은 자신을 그렇게만 보십니까? 창식이 형님이랑 나랑은  
공부도 못하고 뭐하나 내세울게 없었지만 명우 형님은 우리랑  
다르게 어릴 때 하늘같은 존재였어요.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우리랑 잘 놀아주고 마음도 착해 동네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명우 : 어릴 때의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진짜 중요한거는 그  
어릴 때의 모습과는 달리 크면서, 철들면서 받았던 주변환경 때문에  
변해버린 내 모습이었지. 모르겠어. 나도 내가 왜 이렇게 변해버렸  
는지. 섬을 떠나오면서 나는 모든 걸 잊고 싶었다. 그래서 생각의  
기억들을 배 뒤로 빠져 나가는 바닷물에 하나하나 던져 버렸지.  
너희들에 대한 추억도 아버지에 대한 기억도 내 자신에 대한 것들  
모두 다 훌훌. 미련도 없더구만. 솔직히 그 전부터 섬을 빠져 나오고  
싶어 했거든. 지긋지긋한 아버지의 술주정과 동네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들. 그리고 막막했던 내 앞날들. 말을 안 하고 순응하는 듯  
살았지만 그 섬 생활 자체가 나에게 준 것은 진실하나 없는 허구  
였고 모순투성이 뿐이었다네.

진태 : 그건 형님뿐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라고 가슴에  
꼭 품은 무슨 희망이 있어서 살았는줄 알아요?



명우 : 그래도 최소한 창식은 아니었잖아. 나는 창식이가 부러웠다. 믿고 의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아버지가 있다는 게. 엄마도 없는 내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

창식 : 나는 네가 부러웠어. 우리 아버지는 공부도 못하고 아무것도 내세우지 못하는 나 때문에 당신 자신을 평생 희생하며 살아오셨거든. 그래서 항상 나는 미안하고 죄송했어.

진태 : 그래요. 창식이 형님 때문에 김면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고 사셨지요. 동네 사람들한테 들을 말 못 들을 말 다 들어가면서 묵묵히 오직 창식이 형님 하나 잘 되는거 보려고 사셨지요.

명우 : 그래 맞아. 그래서 어릴 때, 우리가 범바위골에서 간첩을 잡았을 때도 내 존재는 없어지고 창식이 공만 부풀려 있었지.

진태 : 형님 그건…….

명우 : 그래. 진태 네 입장도 잘 알아. 누가 뭐래도 우리 세 명은 서로에 대한 진실을 가지고 있잖아. 너도 집이 가난했기에 김면장님이 약속한 보상금 외의 그 큰돈을 너희 부모님이 거절할 수가 없었을거고

진태 : (놀라며) 형님은 그걸 알고 있었나요?

명우 : 내가 모르고 있을 줄 알았나? 천만에. 내가 알아도 자네보다 훨씬 더 잘 알지. 왜냐면 우리 집 또한 가난했거든. 존경하겠더군. 김면장님은 나보다 더 영리한 분이셨어. 남들은 그 돈을 우리 술주정뱅이 아버지가 다 술값으로 쓴 줄 알지만 아냐. 김면장님은 내게 주셨어. 그 당시에 국민학생이었던 내게 그 큰 거금을 맡아. 김면장님은 나를 껴뚫어 보셨던거지. 주실 때도 뭐라 하셨는 줄 알아. 명우야, 너는 또 다른 내 아들이다. 우리 창식이를 동생이라고 생각하렴. 우리 창식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란다. 그래서

내가 돌보지 않으면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해. 그리고는 진심어린 눈빛으로 날 바라보며 따뜻하게 내 손을 꼬옥 잡아 주셨지. 난 평생 그 눈빛과 따뜻했던 손의 기억을 잊지 못하지. 김면장님은 나를 알고 계셨던 거야. 비록 내가 열 두살 밖에 되지 않았지만 내가 우리 아버지 때문에 진저리를 치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고 싶어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게임 상대도 되지 않던 조그만 꼬마에게 당신 자신을 낮추며 다가온다는게 쉬운 일인가. 하지만 김면장님은 기꺼이 그러셨어. 그것도 차가운 내 마음을 감화 까지 시켜 가면서. 그 순간 나도 기꺼이 진실을 은폐시켜 버렸지. 그 뒤 김면장님은 마을에 더욱 더 헌신적이 되셨고.

창식 : 우리 아버지께서 그러신 줄 몰랐네. 나는 아버지가 사람들이 물으면 그렇게 말하라고만 해서 그랬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알았고. 우리 아버지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그랬구. 내가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체 선생님이 써준 원고를 달달 외우고 거짓말한다고 얼마나 가슴이 떨리고 힘들어했는데.

진태 : 그래요. 명우형 말이 맞아요. 나는 동네사람들이랑 선생님한테도 본 것 그대로 말하고 싶었는데 엄마가 절대로 말 못하게 했어요. 네가 말해봐야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하지만 말하지 않고 가만히 어른들이 하는 대로 놓아두면 우리 집이 잘살게 될거라고. 시내 이사 가서 큰 가게 하면서 침대도 놓고 산다고. 어릴 때 겨울에도 차가운 물에 들어가 소라 따고 전복 따던 엄마가 불쌍했거든요. 명우형 미안해요.

명우 : 아니 미안할거 없네. 누구라도 그때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네. 심지어 똑똑하다고 생각한 내 자신까지도. 그건 창식이가 한

일이야, 내가 아닌 창식이야 한일이라며 내 머릿속에 스스로 마법에 빠져들게 주문을 외우고 있었거든. 맞아. 그 때 누가 신고했던 아무 상관없었어. 어차피 세 사람이 보상금으로 나누어 가진 돈보다는 더 큰 돈이 내 손에 들어 왔기에 난 더 이상 손해 볼게 없었거든. 어린 마음에 난 그 큰돈을 가지고 빨리 물에 나가고 싶었지. 물론 김면장님도 내가 하루라도 빨리 섬에서 나가길 원하고 계셨을거야. 그때 마침 고모가 섬에서 나가자는 말을 했을 때도 기다렸다는 듯이 두말 않고 따라 나선것도 그 이유였지. 이때까지의 경우는 죽었고 새로운 명우로 태어나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각오로 말야. 그리고 일은 짜여진 그대로 흘러갔지. 난 어렸지만 섬에서 나가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가지고 있었고 자신도 있었어.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군. 이때껏 살아오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돈을 마음껏 벌어 보기도 하고 잃기도 해 보았지만 항상 버릴 수 없었던 거는 내마음속에 살아있는 진실, 어둠에 묻혀 지내라고 주문까지 외웠던 그 진실들이 자꾸만 되살아나는 거야. 돈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진실을 팔아먹었다고 외쳐대는 어릴 때의 내 모습이랑 함께 말야.

진태 : 형 그래요. 나도 살아오면서 가끔 그 생각 때문에 혼란스러웠어. 내가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 같고, 뭔가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고, 누군가에게 꼭 그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어릴 때였다고 아무것도 모를 때였다고 자위도 해 보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오늘 속 시원히 형이 말해주니 십년 먹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아요. 명우형 한 잔 해요. 많이 힘들었겠네. 하지만 창식이 형은 원망 말아요. 창식이 형은 아무 죄 없어요.

명우 : 나도 알아.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창식이나 김면장님을 원망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야. 만약에 내가 그대로 고향을 떠났으면 난 떳떳하게 진실을 찾아 왔겠지만 그럴 수 없어 오지도 못했단다. 다 자업자득이지. 단지 내 자신을 돌이켜 보고 이런 나에게서 벗어나고 싶어 너희들을 만나 이야기하는 것이니 이해해 주게. 내가 이곳을 떠날 때 창식이 너한테 한 가지 물은 말 있지?

창식 :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진태 : 대통령 만난 이야기를 물었던 거 같은데 아닌가요?

명우 : 맞아. 대통령하고 악수할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내가 물었지.

창식 : 아, 맞아. 하지만 난 별 기억 없다고 했는 거 같은데.

명우 : 그래. 모르겠다 하고는 단지 크다고만 말했어. 아마 그때 내가 대통령 손이 따뜻했다는 말을 했다면 난 아마 그 자리를 박차고 다시 집으로 돌아 갔을거야. 그리고는 김면장님께 받은 돈 다 돌려주고 동네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모든 걸 이야기 했을거야. 난 그때 누군가의 따뜻함이 그리웠거든. 하지만 단지 손이 크다고만 대답을 한 네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난 행복했다. 이번 일이 최소한 승자도 패자도 없는 게임이 되었다는 생각에 말야. 난 진실은 비록 버렸지만 내 마음속의 고향 같은 따뜻함은 창식이 자네가 아닌 내가 가지고 간다고. 그리고는 그걸로 나를 지탱했지. 악착같이 살아 올수 있었던 힘이 되었구.

진태 : 그런데 형, 우리가 만약 그때 그게 아니라고 말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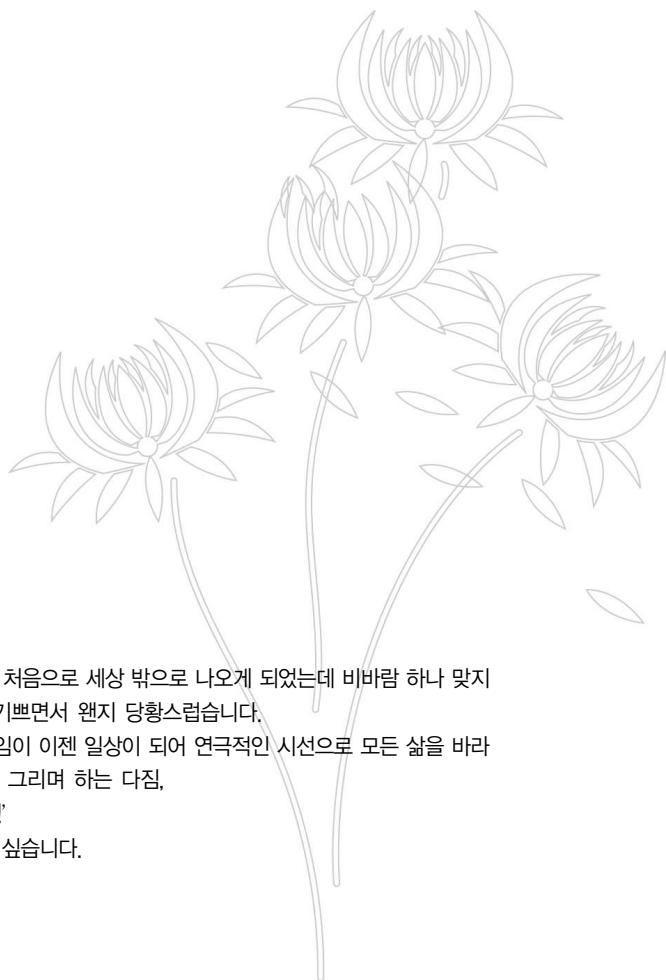
명우 : 달라질거. 글썄. 뭐 별로. 너나 나나. 지금은 그래도 시내에서 사업한답시고 자동차나 굴리고 살지 그러지 않았으면 그저 여전히

뱃놈 신세 한탄하고 살아가고 있겠지.

진태 : 그래도 진실은 우리가 모른 채 하거나 버려도 사라지지 않고 어느  
구석에서 곳곳하게 살아있나 봐요. 형님이나 나나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치고 싶었다는걸 보면요. 하지만 때로는 조그마한  
진실조각 보다는 진실이라고 믿어야 되는 커다란 위선덩어리가 더  
사회에 필요한지도 모르겠네요.

명우 : 그래. 어찌면 그게 더 진실인지도, 그건 그렇고 솔직히 창식이,  
그리고 진태, 내 정말 자네들을 보고 싶어 했다네. 이제부터 진짜  
우리의 어린시절 재미있었던 이야기들 하세.

머릿속에 맴돌고 있던 인물들이 처음으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비바람 하나 맞지 않고 축하세례부터 받게 되어 기쁘면서 왓지 당황스럽습니다.  
대학 다닐 때 맺었던 동아리 모임이 이젠 일상이 되어 연극적인 시선으로 모든 삶을 바라 보며 꿈을 꾸고, 나만의 무대를 그리며 하는 다짐,  
'앞으로 10년 동안 열심히 하자!'  
12월 생일에는 책을 한권 내고 싶습니다.



장려상

# 금빛 레슬링

저거 다 쇼래. -본문중에서-

쇼? 누가 그래! 어떤 놈이 쇼래! 저렇게 피가 철철 나는 데 저게 쇼야? 쇼냐고!

농촌진흥청  
이장규

# 금빛 레슬링

## 나오는 이

김옥자 - 쌀가게(일신상회) 주인, 60대

정대철 - 김옥자의 아들, 30대 후반

정지수 - 김옥자의 손자, 예닐곱 살

TV소리

“WWE. 노머시” 경기를 보고 있는 김옥자.

TV소리가 요란하다.

외국 선수와 관중들의 함성 소리.

쿵. 쿵. 바닥을 찢는 소리.

TV속 해설자 흥분한 듯

“오, 빠릅니다. 더블로키. 앞뒤로 찰질을 제대로 해주네요. 코너쪽 크로스바디! 윈, 투, 벗어납니다. 메트하디 이번엔 어깨는 놔두고 다리를 거네요. 헤드록!” 더블카운트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크로스라인이라 꼼짝 못하고 또 당합니다. 메트하디 윈, 투, 쓰리, 포. 끝났습니다.

경쾌한 락 음악, 관중들의 함성소리, 심판의 종소리.



김옥자 : 그래, 그렇지! (손뼉을 친다)

해설 : 할머니는 프로레슬링 광 팬이다. 할아버진 우리 아빠가 꼬마일 때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한다. 그 후, 일신상회라는 쌀가게를 30년이나 혼자해오셨다. 할머니와 아빠, 나는 가게 안쪽 딸린 방에 살고 있다.

TV소리 작아지고

문 여는 소리. 문에 달린 종이 딸랑거린다.

동네사람 : 뭐해?

김옥자 : 아이코, 깜짝이야. 간 떨어지는 줄 알았네.

동네사람 : 뭘 그렇게 닳 놓고 보다 사람 오는 줄도 몰려. 나 보리 작은 걸로 한 되 박만 줘.

김옥자 : 작은 걸로 한 되라. 잠깐 있어봐.

붕지 뜯는 소리. 보리 담는 소리

김옥자 : 누구 와? 생전 집이 보리 사는 거 처음 보는데 꺾끄럽다고 백미로만 먹지 않았어?

동네사람 : 누가 아니래. 막내아들 내외가 온다는데 뭘 바람이 불어선지 보리밥이 먹고 잡다네.

김옥자 : 요새야 별식이니까

동네사람 : 별식, 별식 다해도 내사 먹고 잡지 않소. 우리 때만 해도 죄다 짱 보리밥에 반찬도 그 똥이나 된장에 푹 박은 고추, 조선 간장에 절인 무짬자.....

김옥자 : 목구렁에 낱알 들인 거 보니 집이는 좀 살았나보네. 흠. 어여 가져가. 신식 보리가 옛날보단 낫겠지.

동네사람 : 그래봤자 보리가 보리지. 얼마야?

김옥자 : 삼천 원

동네사람 : 삼천 원이라. 한 장, 두 장…….

자전거 세우는 소리.

문 여는 소리.

배달 다녀 온 아들 들어온다.

해설 : 아빠다. 원래 아빠는 색소폰 연주가이다. 하지만 요즘은 다른 일을 한다.

일산상회 신속배달부.

동네사람 : 배달 갔다 왔소? 욱봤네.

아들, 엉덩이 두들기는 소리

김옥자 : 남의 아들 궁텅이는 왜 만지고 그래. 어여 돈이나 주고 가!

동네사람 : 내가 뭐 어쩐다고 그러요. 그냥 대견스러워서 그러지.

김옥자 : 아이고, 이러다가 아들 내외 얼굴만 쳐다보고 있겠수.

동네사람 : 그러게 내 정신 좀 봐. 나 가요.

정대철 : 네, 들어가세요.

김옥자 : 어휴, 저 여편네 입에다 기름을 발랐다. 뭘 말이 저리 많아. 끝이 없네 끝이 없어.

방문 여는 소리. 방에 들어가는 대철.

해설 : 오늘따라 아빠의 어깨가 축 처져있다.

김옥자 : 배달은 잘 했나? 길은 안 헤맸고?

정대철 : (힘없는 목소리로) 네.

김옥자 : 돈은?

정대철 : 내일 시장 가다가 들린대요.

김옥자 : 내 이럴 줄 알았다. 쌀을 배달했음 돈을 받아와야 할 거 아니야!  
사람이 그렇게 흐리멍텅해서야…….

정대철 : 수표밖에 없다는데 어떡해요.

김옥자 : 그렇다고 그냥 와! 그게 다 떼어먹을 수작이야. 쌀 한 포대 값이  
얼만데! 어휴, 저 인간…….

정대철(Na) : 아! 또 저 소리. 미칠 것만 같아.

색소폰을 분다.

색소폰 소리 - 빠른 템포의 음악(ex. 군대 행진곡)

방문 여는 소리

김옥자 : 이놈의 나팔!

색소폰 던지는 소리. 말리는 소리.

정대철 : 이러지 마세요.

해설 : 아빠와 할머니의 싸움. 시작은 같다. 색소폰 소리. 아빠는 우울할 때면 늘  
색소폰을 분다.

김옥자 : 내가 오늘은 저 나팔과 끝장을 봐야지! 그래야 니도 살고 내도  
산다.

정대철 : 왜 이러세요. 예이 씨

밖으로 나간다. 문 여닫는 소리.

김옥자 : 어휴, 저 자식 아직도 몰러. 이 나팔이 없어야 우리가 산다는 걸.  
흑, 흑, 흑.

정지수 : 할…머…니

김옥자 : 그래, 그래. 어이구. 내 새끼. 이럴 때가 아니지. 나라도 정신을

차려야지. 암. 지수야. 이거 갖다 버리고 온나. 멀리. 멀리. 아범  
눈에도 할미 눈에도 띄지 않게 멀리 버리고 와.

정지수 : 네에.

해설 : 할머니는 내게 아빠의 색소폰을 주어 주었다. 밖으로 나왔지만 버릴 만한  
곳은 눈에 띄지 않았다. 아빠와 할머니가 모르는 곳. 나는 뒷산으로 뛰기  
시작했다.

정지수 : 어, 아빠다!

해설 : 그곳엔 아빠가 있었다. 왠지 색소폰이 주인에게 나를 이끈 것만 같다.

정대철 : 여길 어떻게 왔어? 혼자 왔니?

정지수 : 응. 아빠, 이거.

정대철 : 색…… 소폰.

정지수 : 이거 아빠거잖아.

정대철 : 짜싹.

정지수 : 나 노래 불러줘.

정대철 : 노래? 아! 색소폰 연주 말이구나.

정지수 : 응.

정대철 : 그럼 이 연주자 오늘날 특별히 신사분의 신청곡을 받겠습니다.

정지수 : 음…… 반달

정대철 : 네. 알겠습니다. 반달 들어갑니다.

반달 색소폰 연주

해설 : 아빠의 색소폰이 햇빛에 빛나고 있다. 아빠의 얼굴도 금빛이다. 색소폰은  
주인에게 돌아갔다. 나도 집으로 돌아왔다.

문 여닫는 소리

신발 벗는 소리

김옥자 : 어테까지 갔다 온 거야? 잘 버렸지?

정지수 : 으…… 응.

김옥자 : 왜, 대답이 시원치 않아?

정지수 : 아냐. 버렸어. 멀리.

김옥자 : 그럼 됐다. 저녁하게 가서 두부 좀 사와.

정지수 : 응.

뛰는 소리

해설 :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했다. 발도 뛰고 심장도 뛰었다.

가게 앞

동네 아줌마들이 모여서 수다를 떨고 있다.

아줌마1 : 손님 왔네.

아줌마2 : 어머, 쌀집 할머니 손주 왔구나.

정지수 : 아줌마, 두부 한 모 주세요.

아줌마1 : 된장찌개 끓이신다니?

정지수 : 몰라요.

아줌마3 : 녀석 봐라.

정지수 : 돈 여기다 놓고 갈게요.

아줌마2 : 그래. 그래. 잘 가라.

아줌마1 : 왜 놀다가지. 하. 하. 하. 하

아줌마3 : 우리 승민이랑 한 동갑이던데…… 쫓.

아줌마1 : 학교 간다고 하지 않았어? 안됐네. 에미도 없이. 집나간 년이

나쁜 년이지.

아줌마2 : 할머니만 고생이지 뭐. 보아하니 애 아빠 되는 사람도 밥벌이가  
시원치 않은 거 같던데. 오죽하면 여편네가 잡나갔겠어.

해설 : 아무리 작게 얘기해도 내 귀엔 들린다. 나는 엄마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아이이며, 아빠는 무능력하고 할머니는 고생만 하는……. 엄마가 없다는 것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일까? 얼굴조차 모르는 엄마 때문에 이런 말을 듣는 게  
너무 싫다.

찌개 끓는 소리.

김옥자 : 찌개 다 끓으면 밥 먹자

정지수 : 또 된장찌개?

김옥자 : 된장이 어때서. 꼭 몸에 좋은 건 안 먹으러들어 통닭, 햄버거, 그  
모나 인스턴트 식품. 그런 거 안 좋다고 텔레비서 못 봤냐?

정지수 : 치. 인스턴트거든. 사주지도 않으면서.

김옥자 : 시끄러. 아이고 몇 시냐. 레슬링 하겠네. 어여 틀어 봐

TV소리

WWE 타이틀 전

타이틀을 뺏기 위해 실갱이 하는 장면.

챔피온의 애인을 뺏는 악인.

TV 속 해설자

“트리플 에이치 그렇죠. 저런 소릴 듣고 기만있을 사람은 없죠. 빅 버그  
의 급소를 과격합니다. 이럴 때 한 방 먹여줘야죠. 복부 오른손 왼손.  
끝까지 버텨내고 있는 빅 버그. 어, 링 밖으로 나갑니다. 저러면 안 되

는 거 아닌가요. 의자로 내리치는 빅 버그. 아! 트리플 에이치 이대로  
쓰러질 것인가…….”

정지수 : 할머니 찌개 끓어.

김옥자 : 가만 있어봐.

정지수 : 어휴, 진짜.

부엌에서 상을 봐오는 지수.

정지수 : 할머니 밥.

김옥자 : 어, 그래. 그래.

정지수 : 쳇,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김옥자 : 뭘 모른다는 거여. 저, 대머리 벌렁 끼진 놈이 에이즌지 뭔지 저  
놈 마누라를 빼앗아서 싸우는 거잖아. 어이쿠!

정지수 : 저거 다 쇼래.

김옥자 : 쇼? 누가 그래! 어떤 놈이 쇼래! 저렇게 피가 철철 나는데 저게  
쇼야? 쇼냐고!

정지수 : 왜 나한테 그래! 배고파 밥이나 먹을래

김옥자 : 기둘려. 아직 애비도 안 왔는데 먹음 되겠어. 밥 때 되면 똥개  
새끼도 들어오는 법인데…

문 여닫는 소리.

정지수 : 아빠야?

정대철 : 응.

해설 : 저절로 눈이 아빠의 손을 향했다. 양손 어디에도 색소폰은 보이지 않았다.

정지수 : 밥 먹어. 할머니가 아빠 좋아하는 두부 많이 넣고 된장찌개

끓여놔어.

밥 먹는 소리. 유난히 딸그락거린다.

김옥자 : (지수보고) 너나 어여 먹지 않고 뭐해. 나는 거의 다 먹었구만.

정지수 : 어, 언제 다 먹었지? 할머니가 아빠 오기 전에 먹음 안 된다고…….

김옥자 : 학교서도 그럴래? 남 먹을 때 먹고 남 떠들 때 떠들고 그래야 눈 밖에 안 나는 법이여. 가뜩이나 예미없다고 염병들 떠는데…….

정지수 : 네 (밥 먹는다)

정대철 : 그런 소리 뭣하러 하세요. 가뜩이나 기죽어 있는 애한테.

김옥자 : 일부러 없는 소리 지어서라도 했던 말이냐!

정대철 : 누가 그렇대요? 애한테 할말 있고 안 할말 있지. 특히면 예미 없는 놈 예미 없는 놈. 어머니가 일일이 간섭만 안했어도 그 사람 애 놔두고 나가진 않았어요.

김옥자 : 그래. 금슬 좋은 니들 늙은이 시샘 땀에 갈라났다.  
어이쿠. 분통이야.

정대철 : 죄…… 죄송해요. 이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김옥자 : 싫다. 다 싫어. 니 새끼도 너도 다 싫다. 그 년 찾아서 니네 식구 오순도순 어디 재미나게 살아봐라. 어휴.

정대철 : 제가 잘못했어요.

정지수 : 할…머…니

김옥자 : 저리가. 듣기 싫어. 아주 니네 식구들이라면 장글장글해.

지수, 운다.

김옥자 : 누가 죽기라도 했어. 애가 왜이래! 밤늦게 울고 지랄이야. 못 그쳐!  
애나 애비나 어찌 그리 밍상인지.



지수, 호느끼다 그친다.

정대철 : 자, 자 지수야 아빠랑 아이스크림 사러가자.

정지수 : 응

문 여닫는 소리.

길 걷는 소리.

정지수 : 아빠, 할머니 나쁘지?

정대철 : 그런 말 하면 안돼. 아빠가 할머니한테 대들어서 그래.

정지수 : 할머니 땀에 색소폰도…….

정대철 : 녀석. 할머니 몰래 숨겨놨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정지수 : 할머니 소리만 지르고 치.

정대철 : 아빠 땀에 화가 나셨잖니. 화가 나면 사람들은 안하던 욕도 하고  
싸움도 하고…….

정지수 : 폴 런던이나 빅쇼 처럼?

정대철 : 어?

정지수 : 프로 레슬링 선수들 말이야.

정대철 : 글……쎄. 출다. 어서 들어가자.

문 여닫는 소리.

정대철 : 껌껌하네. 할머니 주무시나보다. 조용히 들어가야 해. 알았지?

정지수 : 응.

불 켜는 소리.

정대철 : 안 주무셨어요?

김옥자 : 왜, 영영 나가뻘지 알았구만. 슬금슬금 도둑 갱이 만치로. 뭐해,

쌀자루 마냥 서있지 말고 나가라면 나가고 들어오려면 들어와.  
애비, 여기 좀 앉아봐라.

정대철 : 네…… 저요?

김옥자 : 사람하곤.

방바닥에 통장 던지는 소리.

정대철 : 이게 뭐예요?

김옥자 : 보면 몰라? 통장이지. 요즘 그 뭐냐. 멸친지 멸틴지. 그게 유행  
이라더라. 낱알갱이 팔아봤자 입에 들어오는 건 뻔하고, 내  
보니까 여기다 슈퍼하나 차림 어땡겠냐. 뭐 쌀자루 몇 포 치우고  
그럼 과자 나부랭이 같은 건 충분히 갖다 놓을 수 있을 거고.

정대철 : 그럼 쌀가게는요?

김옥자 : 이, 이, 답답하긴. 그래서 내 뭐라 하든 멸치를 하자 않든. 요 건너  
슈퍼에서도 20킬로 쌀도 팔고 보름이면 오곡도 팔고 그러더구만.  
남들만 그런 거 하란 법 있니 까짓 우리도 하든 하는 거지.

정대철 : 보통 돈이 드는 게 아닐텐데요. 아무리 그냥 들인다고 해도 인테  
리어도 해야 할 거고, 물건도 떼어다 놓으려면…….

김옥자 : 언제 시간 내서 대청소도 싹하고 형광등도 몇 개 사서 달고, 페인트  
칠해서 선반이나 몇 개 갖다두면 되지. 싸고 친절하고 남들보다  
부지런 하면 다 된 거다. 내 알아보니 다들 물건은 한달 있다  
지불한다더라.

해설 : 일주일 후, 일신상회는 일신슈퍼라는 간판을 새로 달았다.

물건 움직이는 소리.

망치질 소리.

김옥자 : 아저씨, 옆으로 좀 비튼거 같아

아저씨 : 어디요? 이쪽이요? 됐어요?

김옥자 : 그래. 그래. 딱 좋네. 수고 하셨어.(대철보고) 정리는 다 했냐?

정대철 : 조금만 하면 되요.

김옥자 : 빵 선반은 걸리적거리게 안에다 두냐. 가뜰이나 좁아 빠진걸.

정대철 : 그럼 문 옆에 둘까요?

김옥자 : 그게 낫겠다.

정지수 : 우와! 여기가 우리 가게야? 빵도 있고 아이스크림에 과자까지.  
손 때리는 옥자.

정지수 : 아얏!

김옥자 : 개시도 안했는데 그럼 부정태! 이게 다 돈이여. 또 한번 그래봐라.

명색에 상호를 쌀집에서 슈퍼로 변경을 하긴 했으니 고사를  
지내긴 지내야지? 아가! 떡집에 가서 떡 다 됐나 물어보고 온나.  
가서 사람들도 불러오고, 떡이나 한 입씩 잡수라 해.

정지수 : 네.

동네사람1 : 이게 뭐 일이라. 가게가 환해졌네.

김옥자 : 어여 와. 어여. 떡 했으니까 탁배기 한잔이랑 하고 가.

동네사람1 : 그럼 그럴까?

떡집사람 : 떡 왔습니다.

김옥자 : 왔네. 왔어. 뜨끈뜨끈 할 때 먹어야 제맛이지.

동네사람2 : 웬 잔치래요?

김옥자 : 밤낮 요샐 왔다 갔다 하믄서 눈알은 폼으로 달고 사나봐.

동네사람2 : 그러고 보니 쌀집이 점방이 됐네.

김옥자 : 점방 같은 소리하들 마. 슈퍼야 슈퍼.

동네사람3 : 웬만하면 다들 슈퍼라고 하잖아요.(웃음)

김옥자 : 우라질 여편네 같으니라고.

동네사람1 : 자. 자. 자. 좋은 날 왜 그러니까. 떡 진짜 맛있네. 손주도 한 잔 해야지.

김옥자 : 아이고. 애한테 술은 무신 술.

동네사람2 : 이렇게 번듯한 슈퍼도 있겠다. 이제 미스터 정 색시만 얻음 되겠구만.

김옥자 : 그러게 어디 없어? 우리야 뭐 밥 굶을 일 있나. 근심이 있나. 재야 워낙 천성이 착하고 순해 터져서 욕지거리 한 번 하질 않고 어찌나 효자인지 여태껏 나 한테고 큰소리 친 적도 없으니. 우리 손주는 어떻고. 말 잘 듣지 예의바르자…….

동네사람1 : 그야 우리가 다 잘 알지. 요즘시대에 애하나 있다고 흠될 거 있나. 처녀장가도 문제없지.

동네사람2 : 그럼 그럼. 인물도 저만하면 되고. 남자고 여자고 딴 거 필요 없어 맘씨만 좋음 그만이지.

김옥자 : 우리 아들이야 보증수표여 보증수표. 많이들 먹고 앞으로 물건 떨어졌다 하면 일신슈퍼로 오는 거야. 가격도 저 위 마트랑 똑같고 물건은 훨씬 좋으니까 여기서만 사야 한다고. 즉각 즉각 배달도 해 줄테니.

동네사람들 : 암, 그래야죠.

동네사람1 : 잘되라고 다함께 박수나 쳐줍시다.

박수소리.

해설 : 배달 전화를 제외하고는 슈퍼는 생각 외로 한산했다. 아빠는 할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서 인지 다른 슈퍼보다 두세 시간 일찍 문을 열고 늦게 닫았다.  
할머니 아빠가 배달 간 몇 시간을 제외하고는 예전처럼 가게에 나와 있지  
않았다.

손님 : 이거 얼마예요?

김옥자 : 원래 가게에선 천원 받는데 우리는 슈퍼니까 900원만 내시오.

손님 : 여기요.

김옥자 : 안녕히 가세요. 또 와요. 아휴, 그나저나 애는 배달을 어디까지  
간 거야.

과자 먹는 소리.

김옥자 : 또, 또, 과자에 손댔네! 내 뭐라 하든 가게 물건에 손대면 재수  
없다고 하질 않든.

정지수 : 아빠가 먹어도 된다고 말야.

김옥자 : 애 버릇 들이는 꼬락서니 하고는. 쫓.

자전거 소리.

문 여닫는 소리

정대철 : 중고 스쿠터라도 하나 사야겠어요. 오다가 펑크가 났지 모예요.  
옷 터는 소리.

김옥자 : 애가 어디서 옷을 털어. 슈퍼에 먼지 날리는구만.

정대철 : 네. 밖에서 털고 온다는 걸 깜박했네요.

김옥자 : 넘어진 게야? 배달은?

정대철 : 다행이 하고 나서 그랬어요. 하마터면 물건도 다 못쓸 뻔 했어요.  
한 오십 만원만 있음 웬만한 거 살 거 같은데. 요즘 자전거로  
배달하는 사람도 없고.

김옥자 : 오도바일 사든 자전거를 사든 난 모르겠다. 니가 알아서 해.

정대철 : 썬 걸로 알아볼게요.

김옥자 : 그건 그렇고 너 맞선한번 안볼 테냐.

정대철 : 맞선요? 제가 무슨…… 됐어요.

김옥자 : 니가 어때서. 저 건너 택시운전사집 아들 말이다.

정대철 : 오십 다되도록 총각이라는 그 사람 말이에요?

김옥자 : 그래. 그 이. 글썄. 저번 달에 혼인을 했지 뭐냐. 스물다섯 먹은  
월남 처년데 어찌나 시부모 공경을 깎듯이 하고 남편한테 네. 네.  
요래요래 생글거리며 잘하는자……. 내가 니 애길 하나까 자기  
친구 중에 딱 맞는 배필이 있다고 한번 가자 하더라. 이 사람이다  
싫음 바로 식도 하고.

정대철 : 예? 저보고…… 아휴, 됐어요.

김옥자 : 아이고, 월남 처자면 어떻고 중국 처자면 어떠냐고, 망할 년보다  
낫겠지.

정대철 : 어머니. 애 듣는데 또…… 그리고 제 나이가 몇인데 그렇게 어린  
여자한테 장가를 가요. 전 못해요.

김옥자 : 니가 그 아들보다 못한 게 뭐가 있냐.

정대철 : 못나서가 아니라 그런 결혼 하고 싶지 않아요. 서로에게 못할 짓이  
예요. 그 쪽은 한창일 텐데 좋아서 혈혈단신 먼 타국으로 시집  
가겠어요? 할 수 없어 가는 거지.

김옥자 : 어이구. 배부른 소리. 니 새끼 입학식이 코앞이여. 알고나 하는  
소리야.

정대철 : 생각해 볼게요. 참. 파마하러 가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미용실에 사람 없던데.

김옥자 : 그래? 아이고. 그럼 가봐야지. 이 놈의 머리 박박 밀수도 없고.

(나가면서) 나도 늙어서 니 애 뒷바라지 더 이상은 못해.

문 여닫는 소리.

정지수 : 아……빠

정대철 : 괜찮아. 별일 아니야. 지수, 아이스크림 줄까?

문 여닫는 소리.

아저씨 : 저기, 실례합니다.

정대철 : 네. 어! 형!

아저씨 : 짜썩, 너 케니 정 맞냐? 이 먼지 나는 점퍼는 뭐니.

어휴, 꼴하고는.

정대철 : (웃음) 나야 뭐 그렇지. 여기까지 어떤 일이야.

아저씨 : 어떤 일은 검사검사 해서 왔지. 근데 가게가 좀 변했다. 못 보던  
것도 생기고.

정대철 : 먹고 살려니까.

아저씨 : 하기가 다들 변하는데 여기만 세월을 거스르면 쓰겠냐. 앤 누군고,  
어쭈, 니 아들이나? 많이 컸다. 둘 때 보고 처음인가?

정대철 : 아빠랑 음악 같이 하던 아저씨야 인사드려.

정지수 : 안녕하세요.

아저씨 : 고놈. 푹푹하게 생겼네. 자. 용돈이다. 왜 안 받고 그래? 적어서  
그러냐? 짜썩. 배춧잎 한 장에 한 장 더.

정대철 : 애한테 돈은 무슨.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

정지수 : 고맙습니다.

아저씨 : 오냐.

(대철보고) 근데 방금 나간 사람 니네 어머니 맞지? 야, 무슨

노인네가 아직도 저렇게 꼬장꼬장 하냐. 어이구 무서워. 난 세상에서 니네 어머니가 제일 무섭다.

“야! 이 밥벌이도 못하는 판따라 별거지놈들!”

(웃음)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하다. 나 때문에 너 색소폰 잡게 됐다고 얼마나 호되게 당했는지. 특히면 염병할 놈 염병할 놈. 말은 바로 하겠다고 니가 사정사정해서 밴드에 들인 거 아니냐

정대철 : 형도 참. 언제 적 일을…….

아저씨 : 언제 적은. 요새도 가끔 꿈에 나타난 니네 어머니 호통소리에 깜짝깜짝 놀라 깨는구만.

정대철 : 하하하하(웃음)

아저씨 : 웃기는.

정대철 : 그나저나 뭘 일이야. 형이 아무 용건 없이 올리고 없고.

아저씨 : 요즘 니 얼굴 보기 힘들잖냐. 내가 친히 방문 하지 않음 뵈주기야 하겠냐? 목숨을 걸고 적진에 들어왔단 이 말씀.

정대철 : 형은 여전하네.(웃음) 아직도 거기에서 일해?

아저씨 : 어디? 카사블랑카? 야, 윙킨지가 언젠데…… 아는 형이 인천서 클럽을 하잖냐. 영업 이사 겸 홍보 실장 겸 그렇게 지내고 있다.

정대철 : 나이트 클럽에 무슨.

아저씨 : 애 또 무시하네. 우리가 있던 그런 곳과 짝이 안돼. 내 밑에 애들만 이만큼이야.

정대철 : 다섯 명?

아저씨 : 짜싹이 쪼잔하긴.

정대철 : 설마 오십!

아저씨 : 으 응.



정대철 : 정말? 그럼 거기서 형이 드럼 치는 거야?

아저씨 : 어휴, 여태껏 뭐들었니. 널리고 널린 게 드럼 치는 애들인데 가호  
떨어지게 시리. 나 영업 이사라니까.

정대철 : 미안. 난 형이 농담하는 줄 알았지.

아저씨 : 너도 알잖아. 나 폼으로 음악 한겨. 실력도 없었는데 때려 치기  
잘 했지.

정대철 : 그래도 난 형 연주 좋았는데.

아저씨 : 다 지난 일이야. 젊었을 때의 화려한 추억이라고나 할까?  
핫핫 (웃음). 넌 어때?

정대철 : 뭐?

아저씨 : 기술 말이야.

정대철 : 아. 색소폰. 그만 둔지 몇 개월 됐어.  
별이도 시원찮고 또 어머니도…….

아저씨 : 노인네 하고는. 보나마나 뻥하다. 니 실력이야 어디 갔겠냐.  
어때? 생각 있어?

정대철 : 미안해. 어머니도 어머니지만 나도 별로…….

아저씨 : 왜? 나이트라 그러냐? 야,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 해외파  
유학과 젊고 생생한 것들이 판을 치는데 껴드는 무슨. 임마.  
송충이는 술값을 먹으랬다고 우리 같은 족속이 고상한 밥상  
탐했다간 물통 싸다 뒤흔치는 거야. 알아들어? 여기 인천에서 알아  
주는 곳이라 입소문만 타면 나름 업계에선 스타 되기도 쉽고  
페이도 제법 뽕뽕해서 못 들어와 환장한 인간들이 줄을 섰다.  
줄을 섰어. 기껏 생각해서 왔는데…….

정대철 : 알아. 나 형한테 무지 고마워해야 한다는 것도. 나한테 시간 좀

줘. 연락할게.

아저씨 : 여기 내 명함이다. 오래는 못 기다려.

해설 : 아저씨가 다녀간 후 아빠는 연락을 했고 주말이면 어김없이 가게를 비우곤 했다.

나이트 클럽

색소폰 연주 소리

(ex. 사랑밖에 난 몰라, 애모 등. 트롯이 흐른다)

연주가 끝나고

손님들 : 앵콜. 앵콜.

손님1 : 연주자 양반 한 곡 더 부탁해.

손님2 : 돌리는 덴 끈적한 색소폰 소리가 왓따지.

손님3 : 자. 자. 팁 여겼으니까 한 곡 더요.

정대수 : 죄송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4 : 거참. 비싸게 구네.

아저씨 : 하. 정말 죄송합니다. 케니 정께서 스케줄이 빡빡한지라 어쩔 수 없네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워낙에 세계적인 스타라. 강남에선 한 여름에도 복면을 쓰고 다닐 만큼 유명하다 이 말씀! 어때, 저기 지적인 사모님 케니 정. 들어보셨죠?

사모님 : 그…… 그럼요. 들어보고 말고.

아저씨 : 씨디도 사셨겠네요.

사모님 : 물론이죠. 두 장이나 있는 걸.

아저씨 : 네. 들으셨죠. 한 장도 아니고 두 장이나. 와우, 왕 팬이신가봐. 이런 케니 정을 우리 업소에 모신 것만으로도 영광으로 생각하며!

이쪽에서는 또 인기스타라 잡아 둘 수가 없네요. 바로 일본에 또  
가신답니다. 손님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케니 정 모실  
헬기가 도착했다고요? 가시죠. 케니 정님.

손님들 : 헬기? 헬기래.

웅성거린다.

정대수 : 형, 내가 무슨.

아저씨 : 췌! 너 나 좀 보자. 들어와.

문 여닫는 소리.

수많은 TV드라마 홍수 속에서 질려있을 때 어린 때부터 듣고 성장한 라디오 드라마였다. 화려한 화면과 인기 배우도 없는 드라마가 무슨 재미가 있느냐 물겠지만, 귀를 통해 들리는 드라마의 세계는 멀어졌던 상상력을 다시금 일깨웠다. 각종 기구를 통해 만들어진 효과음, 과장된 성우들의 연기는 눈의 자극에만 길들여져 깨져버린 신체리듬을 곧추 세워 주는 듯 한다.

라디오 드라마에 대한 애착은 어릴 때 향수를 느끼게 한다.

엄밀히 말해서 작품 “금빛레슬링”은 정통 희곡을 벗어나 라디오 드라마를 생각하며 창작했기 때문이다. 수필이나 시를 몇 차례 써보긴 했지만 극본을 쓰는 건 처음이었고 펜을 잡자 아득한 두려움이 앞선 게 사실이다. 하지만 특히 재미있던 라디오 드라마는 극본을 관련 사이트에서 다운 받아 볼 만큼 열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TV드라마의 레퍼토리가 불륜과 폭력으로 일삼을 때,

소재의 목마름은 “소시민 적 삶”이라는 단비를 가슴 속에 품게 하였다.

출퇴근길 스쳐지나가는 우리 동네 조그만 담배 가게를 모티브로 ‘주인은 어떤 사람일까?, 무슨 고민이 있을까?, 자식들은 무엇을 할까?’ 생각하며 허구적 인물과 내용을 만들었다. 마지막 장면의 허구의 현실을 사실의 현실로 꿈꾸면서…….



2007

제10회 공무원 문예대전 수상작품집

심사총평







성기조, 박곤걸

제10회 공무원문예대전 시부문에 응모한 작품수량은 2,852편으로 작년에 비해 양적으로 많이 증가하였다. 예심을 거쳐 올라온 작품의 수준이 매우 높았다. 본심을 거친 작품들은 어디에도 흠결이 없는 수작들이어서 심사위원이 모두 의견일치로 수상작에 명쾌히 동의할 수 있었다. 우수한 작품을 수확할 수 있어서 기쁨도 벅찼지만 뽑힌 작품에 담긴 작가의 귀한 심성마저도 짚어 볼 수 있어 보람 있는 성과였다고 여겨진다.

아름다운 문학적 정서가 업무수행 현장에서 은연중에 행정의 향기로 기여하게도 될 것이다. 어떠한 경험사실에도 시의 눈빛이 머물면 아름다운 시가 깃들게 된다는 것을 제시해 주었고, 어떠한 소재 사물이라도 시의 손길이 닿으면 거기에 시의 예술성을 확보하게 된다는 것을 시사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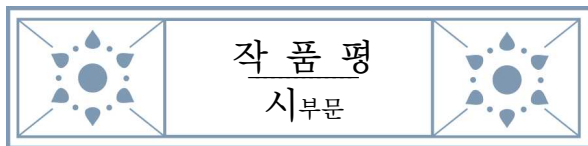
시 「봄의 방화」(문영모)에서 봄은 꽃이 불 질러 놓았다. 꽃이 피는 것은 ‘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생아가 태어나듯 ‘울음을 터트리고’, ‘꽃들이 피어’ 났다. ‘젊은 잎들이 화르르 불타’ 올랐다. 집집마다 꽃나무를 ‘발화지점’으로 ‘매혹적인 향기를 풍기고’ 개화하였다. 이렇게 발랄한 감각으로 펼쳐내는 이 시는 화려한 발상이 전개되면서 템포도 빠르고 활기가 넘쳤다.

시 「겨울산행」(한석수)에서 보면 산책하듯 진행시켜 가며 놀라운 순간의 감명을 포착시키고 있다. 눈 내리는 계룡산을 오르다가 흥에 겨운 등행을 진행하는 사실상황에서 극적상황으로 신선한 발상을 전개해 냈다. 일생을 회고하듯 산 아래를 돌아보고 살아온 행적을 뉘우치고 ‘걸어온 길은 걸어갈 길인 것’을 깨우친다.

입상한 모든 작품들이 좋은 시에 접근하는 중후한 무게를 지탱하고 있었다.







### 봄의 방화 \_ 문영모

봄은 꽃이 불 질러 놓았다. 꽃이 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생아가 태어나듯 울음을 터뜨리고 꽃들이 피어났다. 화르르 불타오르듯 매혹적인 향기로 개화했다. 햇살과 바람, 황사와 안개, 잠과 꿈을 짜깁고 텃칠한 생각과 느낌이 교묘하게 숨바꼭질하는 마력에 끌려들었다.

### 겨울산행 \_ 한석수

눈 내리는 계룡산을 오르며 흥에 찬 등행을 진행하는 사실상황에서 극적상황으로 신선한 발상을 전개해내고 있다. 인생을 회고하듯 산 아래를 돌아보고 살아온 발자취의 행적을 뉘우치고 걸어온 길은 걸어갈 길이란 것을 깨우친다. 좋은 시에 접근하는 중후한 중량감을 지탱하고 있었다.

### 도원경, 복사꽃 그늘에 기대어 \_ 엄해숙

시의 배경이 넓은 평원의 들녘마을, 봄날 한나절, 봄이 오는 풍경을 담은 대형화폭에 연두빛이나 분홍빛으로 붓을 텃치한 꽃빛 채색이 현란하다.

### 수국의 추억 \_ 김선자

‘별을 따라간 추억의 목소리가 지고지순한 절대적 인격체로 화신하여 ‘별이 되었을 그의 향기를’ 수국피는 ‘여름뜰에서 만난다. 수국과 별에 겹쳐지는 감정투입이 복합적으로 정감을 고조시켜 주었다.

### 땅 끝에서 \_ 박수호

일상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상황을 새롭게 다가서고 있다. 땅 끝에 다다르고 나서 또 길은 이어지듯이 산다는 일도 땅 끝을 찾아가서 다시 시작하고 꿈꾸고 더 가야 한다는 의지를 지향하고 있다.

### 마장동에서 \_ 정우식

이 시에는 언어의 향수가 범람하고 있다. 재래시장의 생활채취가 물씬 풍기는 진부한 상황을 언어의 디자인으로 풍물을 희화로 그려내고 있다.

### 벽계리 가는 길 \_ 공정희

아버지의 忌日에 고향을 찾아가는 노을녘의 정경과 부모님의 생애에 관한 회고와 효성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죄업을 나열해 놓은 평면구성으로 짜여 있다.

### 봄, 석포역에서 \_ 김현곤

훈훈한 체온이 휴머니티의 정감으로 샘물을 퍼내듯 언어에서 향수를 길러 올리고 있다. 3월의 석포역을 마음의 거울에 비추어 내는 풍경의 정감이 선명한 이미지로 펼쳐지고 있다.

### 산에 들다 \_ 조재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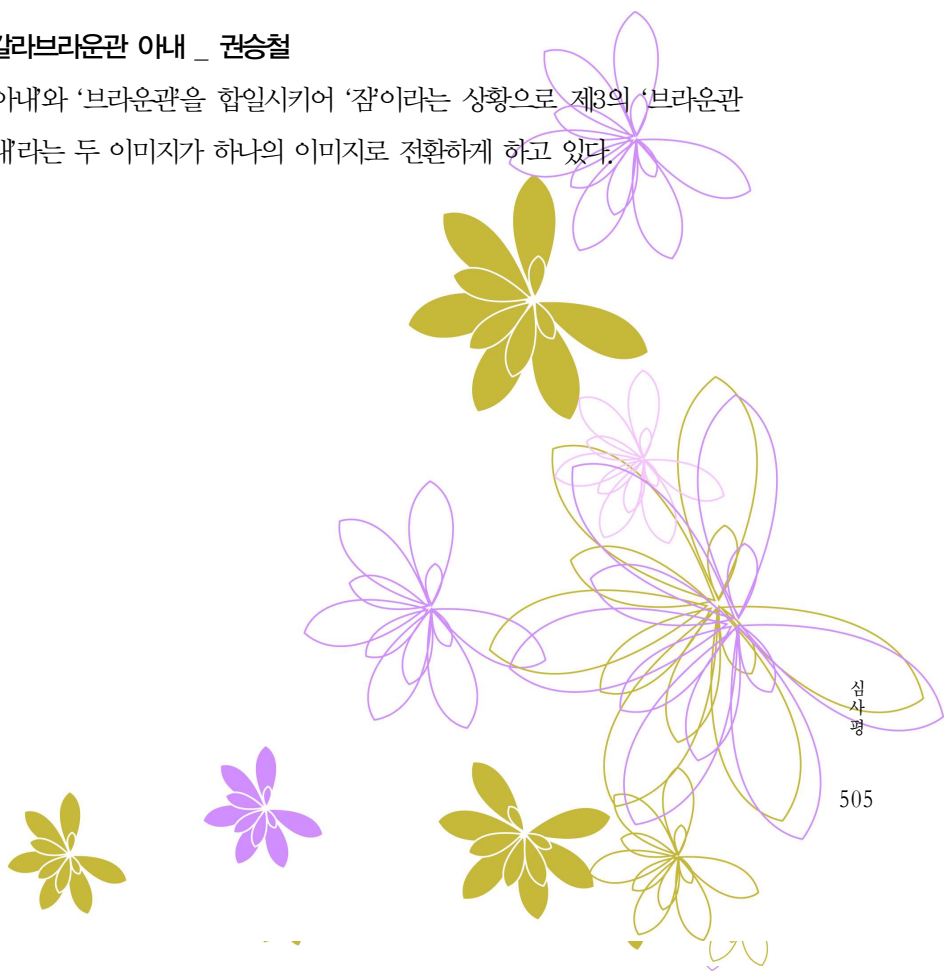
산 아래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산 밖에서는 숲이 보이지 않는다.  
산에 들어서면 침묵으로 알게 된다. 산의 속 그림을 흥미롭게 짚어내는  
깊은 시선이 시적 미감으로 접근시키고 있다.

### 습관에 관한 독설 \_ 김현근

‘흑백바꾸기와 색깔 바꾸기의 논리로 딱딱한 관념 허물기의 시법을 구  
사하고 있었다.

### 칼라브라운관 아내 \_ 권승철

‘아내와 ‘브라운관’을 합일시키어 ‘잠’이라는 상황으로 제3의 ‘브라운관  
아내’라는 두 이미지가 하나의 이미지로 전환하게 하고 있다.





넘겨받은 작품 총수는 322편이었다. 지난해에 비하여 응모작품 수는 4편이 늘었으나 응모자수는 3명이 줄어들었다는 접수처의 통계였다. 이 점은 아쉬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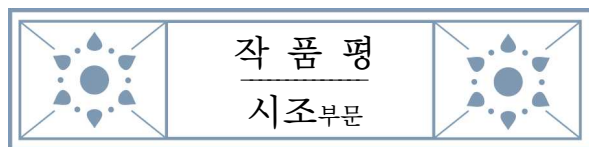
81명의 응모자들은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같이 시조 시형에 대한 인식과 애정이 깊고 도탑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기쁜 일이었다.

응모작 중에는 「시조문화」를 제목으로 한 송가도 있었다. ‘내 사랑 겨레시는 가야금 산조 같다.’ ‘겨레시 읊어보면 굽아굽이 정이 솟고 / 연연한 내 사랑은 못다하여 목이 메고 (정준귀). 시조에 대한 이 같은 애정과 정진의 공무원이 해마다 늘어나기를 바라고 싶다.

한정되어 있는 8편의 입상작 선정에 선자는 ①주제가 건실한가, ②사물에 대한 관찰·사유의 깊이와 폭은 어떠한가, ③시어 구사와 심상 표현은 뽕진한가, ④형식만을 붙좃아 시정신이 무르고 약한 점은 없는가 등을 따져가며 작품들을 번갈아 읽었다.

8편의 입상을 구분하는데도 원만한 합의로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5편의 결정을 보았다.

2007년은 우리 현대시조가 새 100년을 맞는 첫해이기도 하다. 입상자는 이점에도 자부와 긍지를 가져야 한다. 앞날의 시운(時運)을 빌어마지 않는다.



### 산, 장자를 만났을 때 \_ 윤명진

동양 고전인 〈장자〉를 산에 비유, 그 책을 가까이하여 ‘무위자연’을 깨달은 바를 말하였다. 고전에 대한 접근법을 생각하게도 한다. 聲調 또한 차분하다.

### 아버지의 양복점에서 \_ 방승길

아버지의 가업을 잊지 못한 화자의 마음이 담겨있다. 그 아버지는 작고하고, 아버지의 ‘맞춤양복점’도 헐려나간 후, 고향길에서 그 마음을 담아냈다. 회고적인 작품이나 감상적이지 않다. 오늘의 가족관계를 되돌아보게도 한다.

### 아이와 장날 \_ 김명희

어린시절 어머니와 장을 가던 이야기가 담겨 있다. 회고적인 작품으로 명랑하다. ‘귀찮아 내치는 어머니의 목소리’, ‘옷자락 끝 부여잡고 떨어질 줄 모른다.’ 어린시절, 시골 장날의 모·자간 정경이 어려들기도 한다.

### 거문고 산조 \_ 박순영

국악에 대한 애정, 그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다. 漢字語의 사용에 좀 더 留意하였으면 싶다.

### 그리운 초등학교 \_ 전영주

폐교가 된 모교를 찾아 들어 그 곳에서의 느낌을 語化했다. 어휘 선택에 유념.

### 담쟁이 앞에서 \_ 노희석

용어 구사력, 서정성이 높다.

### 사북역에서 \_ 정영화

폐광의 쓸쓸한 표현 호흡이 거칠어도 언어 선택의 참신함이 돋보인다.

### 사월이 오면 \_ 배정태

4.19 추념사. 사회성이 짙다. 그러나 서정성도 높다.

‘바위 틈 몸 비트는 뿌리들의 아픔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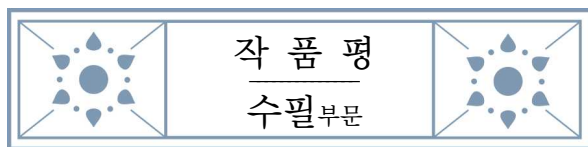


수필은 개인의 정서와 생활주변의 일화, 철학과 종교 등 다른 장르에 비해 소재의 범위가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 작품이 응모한 것으로 짐작된다.

363명이 응모한 작품 835편중, 예심을 거친 40편중에서 문장력과 주제, 수필의 기법 등을 중심으로 최우수작, 우수작, 장려상 등 11편을 선정했다.

40편중에는 수필이 일상을 소재화하면서도 사실을 그대로 설명하거나 주장이 지나치면 문학적 수필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아는 분들의 작품이 대부분이어서 심사위원들의 의견일치로 비교적 심사를 빨리 마칠 수 있었다.

입상작들을 결정하고 보니 거의가 주제가 좋은 것들이다. 정확한 문장 수련과 표현, 주제의 심화를 위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기법개발로 수필문단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 섬진강에는 은어가 살까? \_ 박미영

활달한 사고와 풍부한 어휘로 자신의 시각에서 해석된 삶의 의미를 재치있고, 경쾌하게 펼쳐내었다. 비유도 뛰어나고 눈에 선한 묘사와 청각 효과도 주는 문장으로 독자에게 즐거움을 준다. 출중한 필력의 작가로 인정된다.

### 무지개 \_ 노선하

우수하지 않은 자녀를 둔 어머니이며 교사의 성실한 마음이 공감을 자아내고, 김동인의 작품 무지개를 좇는 아이들과 결부시킨 구성이 설득력을 높였다.

### 숯 \_ 허효남

진부해지기 쉬운 소재인데 작은 깨달음들이 참신하고 자기도취에 빠지지 않고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 유산 \_ 박태칠

곤고하게 산 아버지의 삶과 작은 액수의 주택을 매개로 아버지에 대한 효심과 인간에게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절감하게 해준다. 문장, 구성이 무리없다.



### **고인돌과 꽃 \_ 정기상**

시적 상상력이 돋보이는 작품.

### **까막눈 \_ 권소연**

생로병사를 생각하게 하는 글로 눈빛의 변화를 통해 할아버지의 노쇠를 알게 되고, 할아버지, 부모 등 가족애에 대한 눈뜸이 가상하게 여겨진다.

### **맹랑한 손님 \_ 최재운**

동물, 친환경, 자연 등 이런 소재들이 결말이 뻔한데 감정을 통해 여과된 언어로 정황을 차분하게 묘사하고 지나친 주장이 없어 잔잔한 감동을 준다.

### **술 빛는 어머니 \_ 최만호**

효심이 잘 드러나 있고 술을 빚던 어머니를 통해 바래가는 삼중지도가 생각나게 한다.

### **초록빛 회전의자 \_ 정문환**

외할아버지에 대한 추억과 회고가 잔잔한 감동을 준다.

### **코뚜레 \_ 채중석**

결혼 때 어머니가 준 코뚜레를 걸어두고 뒤늦게 어머니의 사랑을 되새겨보는데 옛것의 의미와 주제가 잘 드러나 있다.

## 포옹 \_ 백금태

감동스러운 교단 일화. 극적효과를 노린 구성이 수필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으나 교사의 진실한 마음이 돋보인다.





본심에 넘어온 30편의 소설을 읽고 크게 느낀 것은 상위권에 입상된 작품은 아마추어가 아닌 기성작가의 작품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라는 것이었다. 그만큼 습작을 해도 열심히 했다는 생각이었다. 이런 점이 심사에 반영되었음을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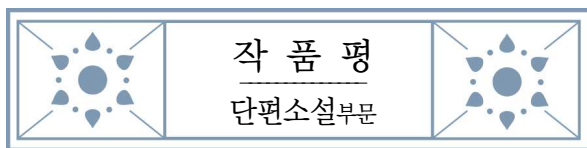
그 중 〈시계 속에 갇힌 남자〉는 운동권 남편을 둔 아내의 고백으로 이토록 깊이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 싶다. 문장, 구성, 주제 등 완성도 높은 수작으로 깊이 공감되는 작품이었다.

다음 〈담배꽃〉은 아이를 잃은 아내의 정신으로 대비되는 담배꽃은 향토적이고 전원적인데다 식물성적인 자연친화 분위기와 구성이 좋았다.

그리고 〈겨울이 오는 시간〉은 빛에 몰린 부모가 병원에 입원했다 자살을 하는데 의사인 딸의 갈등과 아픔이 밀도있는 문장과 탄탄한 구성으로 그 완성도가 높았다.

끝으로 〈어머니의 자리〉, 〈임플란트〉, 〈비말〉, 〈곰추의 꿈〉, 〈어머니의 땅〉, 〈황사〉 등의 작품들도 위 세편의 소설에 버금가는 작품이긴 해도 구성이나 문장 또는 주제 돌출에 미흡한 구석이 있었음을 지적한다.

어쨌거나 입상된 소설들이 수준 높은 응모작이었다고 평하고 싶다.



### 시계 속에 갇힌 남자 \_ 최인근

운동권 남편을 둔 아내의 고백으로 이토록 깊이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 싶다. 문장, 구성, 주제 등 완성도 높은 수작으로 깊이 공감되는 작품이었다.

### 겨울이 오는 시간 \_ 신성숙

빛에 몰린 부모가 병원에 입원했다가 자살하는데 의사인 딸의 갈등과 아픔이 밀도 있는 문장과 탄탄한 구성으로 그 완성도가 높았다.

### 담배꽃 \_ 이숙희

아이를 잃은 아내의 정신으로 대비되는 담배꽃은 향토적이고 전원적 인데다 식물성적인 자연친화 분위기와 구성이 좋았다.

### 곰추의 꿈 \_ 이지은

사내에서 상사와 직원의 불륜과 자신의 척추가 빠뜨어진 것을 비유하여 진실을 찾으려는 주제와 문장이 호감이 갔다.

### **비말 \_ 김기정**

무당을 통해 이복 오라버니의 악연을 풀어야 하는 샤머니즘적 소설로 구성과 문장이 밀도가 있다.

### **어머니의 땅 \_ 김갑식**

어머니의 죽음을 놓고 형과의 갈등을 그린 소설로 밀도있는 문장과 주제는 선명하나 구성이 미흡했다.

### **어머니의 자리 \_ 권영이**

어머니와 새어머니, 그러나 새어머니의 아름다운 마음씨 그 뒤에 숨어 있는 사연, 공감대가 형성되는 소설이었다.

### **임플란트 \_ 김은주**

치과 강원장의 실종의 시작으로 임플란트에 비유하여 소설을 끌고 간 솜씨가 돋보이지만 주제가 모호하다.

### **황사 \_ 박상식**

해나의 인생을 통해 승엽의 위선적인 상황을 인위적 반전으로 처리했으나 무리였다. 그러나 소설적 구성과 분위기가 좋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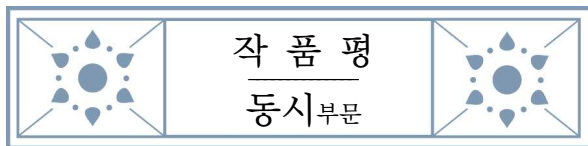
동시도 시이어야 한다는 어찌면 당연한 논리를 공무원 문예대전에 응모한 작품의 심사관점으로 삼았다.

동시라고 해서 어린이가 쓴 시와 같아야 한다거나 아니면 시를 조금 쉽게 표현하면 된다는 생각, 그런 생각은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동시도 시이어야 한다.’는 것은 동시에 시적인 내재율과 선명한 이미지와 함축의 미학이 깃들어야 좋은 동시라는 것이다.

응모된 4백여 편의 동시의 경향은 기성 동시인들의 작품세계를 답습하는 작품이 많았다. 일부 몇 작품을 제외하곤 소재 선택이나 표현방법이 다양하지 못하고 진부했다.

기존 동시의 틀을 깬 (기성작품의 아류가 아닌) 새로운 동시의 탄생을 기대해 본다.



### 할머니와 느티나무 \_ 전세중

최우수작인 〈할머니와 느티나무〉는 단연 돋보인 수작이었다. 사물(대상)을 바라보는 눈이 참신하고 시를 풀어가는 숨씨가 일품이다. 할머니와 손자, 그리고 햇볕과 느티나무, 거기다가 그늘까지 병치시켜 삶의 따스함을 동시 속에 함축시켜 놓은 작품이다. 이 작가의 응모작 다섯편 모두 수준작이다.

### 나무들의 말 \_ 안태현

〈나무들의 말〉은 〈노란 좁쌀 같은/나무들의 말이 들려온다.〉라는 끝연이 참 미쁘다. 나무는 말을 하고 싶을 때 가지를 뺏고 말을 듣고 싶을 때 가지를 흔든다는 표현이 이 시의 격을 한층 높여 주고 있다.

### 새싹 \_ 김재옥

〈새싹〉은 새싹처럼 연하고 깨끗하고 향그러운 시이다. 일루 와 봐, 얼른 와, 요걸 보라고 등 대화가 정겹고 아름답다. 기존 동시인들이 많이 다룬 소재를 새롭게 조명한 숨씨가 돋보인다.

### 고향의 사계 · 여름 \_ 조석래

고향의 사계절을 노래한 동시로 그중 〈여름〉은 사라져가는 시골 풍경을 〈먹감기〉등 다섯 소절로 나눠 풀어 쓴 것이 예사롭지 않다.

### 벌초 \_ 김현옥

〈벌초〉는 할머니 묘의 풀을 뽑으며 흰머리를 뽑을 때를 회상하는 작품으로 정이 듬뿍 묻어난다.

### 빨래 개기 \_ 병정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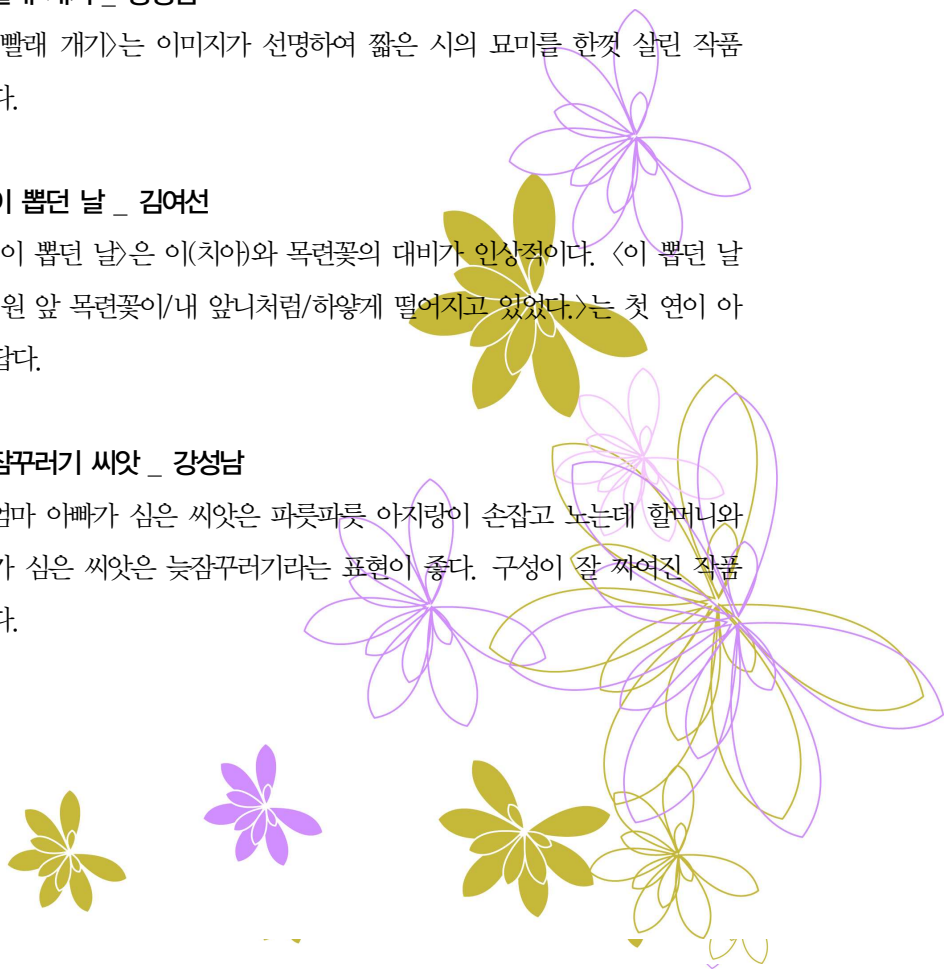
〈빨래 개기〉는 이미지가 선명하여 짧은 시의 묘미를 한껏 살린 작품이다.

### 이 뽑던 날 \_ 김여선

〈이 뽑던 날〉은 이(치아)와 목련꽃의 대비가 인상적이다. 〈이 뽑던 날 / 병원 앞 목련꽃이 / 내 앞니처럼 / 하얗게 떨어지고 있었다.〉는 첫 연이 아름답다.

### 잠꾸러기 씨앗 \_ 강성남

엄마 아빠가 심은 씨앗은 파릇파릇 아지랑이가 손잡고 노는데 할머니와 내가 심은 씨앗은 늦잠꾸러기라는 표현이 좋다. 구성이 잘 짜여진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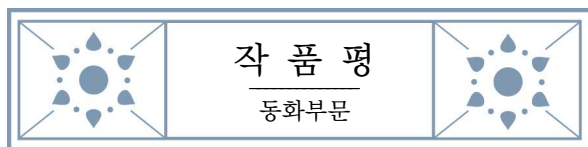




이번에 응모한 동화들은 정말 수준작들이 많았다. 그만큼 공무원들이 마음의 양식이 많아진 것 같아 반가웠다. 그 중에도 <미모사>, <할머니와 어미새>, <비누방울 콩>, <아빠의 집>, <까만 운동화>, <양동이 꽃>, <내 마음의 잠금장치> 등은 정말 모두 수준작이었다.

그 중 작품의 제목과 주제, 구성, 문체 등을 시시콜콜 다 따져가며 읽어보고는 두 사람은 정밀 분석해 보고 <미모사>는 다빈이가 미모사와 동일시해서 학급에서 겪는 어려움을 자기와 동일시한 작품이다.

<할머니와 어미새>는 주인공 성진이가 겪는 큰일을 당하고 할머니댁으로 쫓겨 내려온 불안감과 불만이 많은 어린이였지만 할머니에게 정을 느끼고, 뺏겨진 마음을 바로 잡아가는 과정을 잘 그려냈지만 그래도 <못생긴 돌멩이>는 구성이 잘 되어있고, 내용이 '못생긴 돌멩이가 각종 수난을 겪으며 강가에 내려가 언니, 오빠 돌멩이와 만나도록까지의 변화 발전을 의인화한 환타지 동화로 시적인 형상화까지 잘 되었으며 재미도 있고, 교훈성도 있었다.



### 못생긴 돌맹이 \_ 정재학

제목부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주제나 구성, 문체가 잘 조화되어 있고 못생긴 돌맹이가 엄마에게서 태어난 잘생긴 돌맹이로 변하도록까지의 수난사를 잘 형상화 했고, 반전의 묘미가 있다.

### 미모사 \_ 천순덕

다빈이가 미모사와 동일시해서 학급에서 겪는 여러 가지 겪는 내용들을 자기와 동일시해서 어린이들의 미묘한 심리와 갈등이 잘 짜여진 작품이다.

### 할머니와 어미새 \_ 기은영

주인공 성진이는 큰일을 당하고 할머니택으로 쫓겨 내려온 불평불만이 많은 어린이였지만 할머니에게 정을 느끼고 빼돌어진 마음을 승화한 손자이야기이다.

### 까만 운동화 \_ 이혜숙

성호가 겪는 시골에서의 어려움이 동화적인 잘 된 구조로 잘 엮여져 있고, 박진감 있고, 역설적인 장면이 돋보인다.

### 내 마음의 잠금장치 \_ 오영웅

아이들에게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경쟁적인 심리적 갈등을 중빈이라는 아이를 통하여 진정한 리더쉽의 의미를 일깨워주었고, 불필요한 경쟁심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잠금장치를 달고 사는 것이 아닌가를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다.

### 비누방울 콩 \_ 천효정

기승전결의 4단 구성으로 된 몽환류의 환타지 동화로 상대를 보는 시점과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면을 볼 수 있는 주제가 선명한 작품이다.

### 아빠의 집 \_ 김경희

구조가 잘 되어 있고, 엄마를 잃어버린 어린이가 섬마을로 내려가 겪는 수난을 학교에서의 어린이들에게서 잘 적응하는 면이 돋보인다.

### 양동이 꽃 \_ 김현욱

수도전이 고장난 철민이의 비밀이 긴장감을 주고 그래서 재민이와 형수는 엄마 몰래 동네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을 퍼다 주다가 관리실 소장한테 들킨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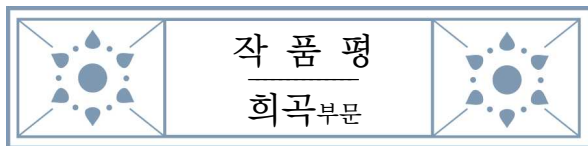
문예창작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희곡을 창작함에 있어서는 일종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희곡은 서정과 서사가 혼합되고, 객관성이 유지되는 극적 성격을 겸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무대에서 공연될 수 있는 텍스트가 되어야 하는 것이 희곡의 본질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는 양식이 희곡이기도 하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문예대전에 응모된 희곡작품의 수가 매년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여겨진다. 다만 응모된 작품들이 대부분 대화를 늘어놓으면 희곡인 것처럼 여기는 듯한 인상을 풍기고 있어서 아쉬움을 남겼다. 시나리오처럼 장면을 무제한적으로 제시하거나 별다른 주제 없이 대화를 늘어놓는 것이 그 예였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진실>은 극적 구조와 대화의 기능이 잘 응축된 작품이었다. 과거 사실을 진실로 간직하고 기성세대를 이해하려는 주인공의 행동은 자기희생을 필요로 하는 결단이었다.

<금빛레슬링>도 비교적 절제된 대사와 간략한 무대 설정이 눈에 띄는 작품이었다. 가족의 세대간 화합이라는 주제도 좋은 것이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작품들이 응모되길 바란다.



### 진실 \_ 우혜선

등장인물들의 농축된 대사와 밀도 있는 사건 전개로 인하여 등장인물들의 성격이 극명하게 드러남.

기성세대와 어린세대간의 이해와 화해를 주제로 함.

간략한 무대를 제시함으로써 공연이 용이하게 이루어진 것임.

### 금빛레슬링 \_ 이장규

모자간의 화해를 별무리 없이 소화해 낸 작품.

효도를 하지 못하는 실업자 아들이 어머니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아채고 자신의 희망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잠시 접어둠으로써 화목한 가정을 이룬다는 주제가 상징적임.

무대 공연도 쉽게 가능한 작품임.

